

地域 番号	カテゴリ	都道府県	地域協議会名	英語解説文 作成年度	英語事例集 対応番号
001	文化財 (7地域)	青森県	縄文遺跡群世界遺産事務局	令和2年度	001
002		山梨県	一般社団法人富士五湖観光連盟	令和元年度	007
003		兵庫県	書寫山圓教寺観光振興協議会	令和2年度	015
004		島根県	石見銀山多言語解説協議会	令和元年度	027
005		大分県	宇佐地区まちづくり協議会	令和3年度	013
006		宮崎県	青島を中心とする宮崎神話多言語解説整備協議会	令和2年度	024
007		兵庫県	日本遺産「銀の馬車道・鉱石の道」推進協議会	平成30年度	26

地域番号	001	協議会名	縄文遺跡群世界遺産事務局
------	-----	------	--------------

解説文一覧

NO.	スポット名 (タイトル)	韓国語文字数	媒体
001-001	特別史跡 三内丸山遺跡	1493	Web サイト
001-002	特別史跡 大湯環状列石	1346	Web サイト
001-003	史跡 大船遺跡	1420	Web サイト
001-004	史跡 垣ノ島遺跡	1633	Web サイト
001-005	史跡 キウス周堤墓群	1309	Web サイト
001-006	史跡 北黄金貝塚	1390	Web サイト
001-007	史跡 入江・高砂貝塚 (入江貝塚)	919	Web サイト
001-008	史跡 入江・高砂貝塚 (高砂貝塚)	755	Web サイト
001-009	史跡 小牧野遺跡	611	Web サイト
001-010	史跡 大森勝山遺跡	1020	Web サイト
001-011	史跡 是川石器時代遺跡	2052	Web サイト
001-012	史跡 田小屋野貝塚	1078	Web サイト
001-013	史跡 亀ヶ岡石器時代遺跡	925	Web サイト
001-014	史跡 大平山元遺跡	1196	Web サイト
001-015	史跡 二ツ森貝塚	745	Web サイト
001-016	史跡 御所野遺跡	1390	Web サイト
001-017	史跡 伊勢堂岱遺跡	1384	Web サイト
001-018	史跡 鷺ノ木遺跡	677	Web サイト
001-019	史跡 長七谷地貝塚	665	Web サイト
001-020	遺跡群の紹介文・概要	518	Web サイト

【タイトル】 特別史跡 三内丸山遺跡

【想定媒体】 Web サイト

**<韓国語>****산나이 마루야마 유적**

아오모리현의 산나이 마루야마 유적에 남아있는 수혈식 주거지 터, 대형 건조물의 토대, 대량의 토기가 포함된 성토(흙무지), 무덤지, 토기를 만들기 위한 점토 채굴갱은 선사 시대 이 지역의 생활상과 사회의 모습을 현재에 전해줍니다. 산나이 마루야마 유적은 현재까지 발견된 조몬 시대(기원전 13,000년~기원전 400년) 마을 터 중 가장 큰 규모로, 기원전 3,900년~기원전 2,200년의 1,000년 이상이라는 기간 동안 이곳에 커다란 마을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고고학적 조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마을의 발전**

마을의 규모와 형태는 식량 자원의 입수 가능성과 환경적 요인에 따라 조몬 시대 내내 변화했습니다. 마지막 빙하기가 끝날 무렵, 계절 한정으로 이용되는 수렵 채집지로 시작된 이 마을은 기온이 오르고 식량이 풍부해지면서 영구 정착지로 변모했습니다. 이 기원전 5,000년부터 기원전 2,000년 사이에 마을의 규모가 상당히 커졌고, 기원전 3,000년경에는 산나이 마루야마 유적과 같은 커다란 마을이 형성되었습니다. 그 후 기원전 2,000년부터 기원전 400년까지 기후가 서늘해지면서 마을의 규모는 다시 작아졌습니다.

**크고 작은 수혈식 건물 터**

산나이 마루야마 마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는지는 추정하기 어렵지만, 유적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수백 명 규모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500개 이상의 수혈식 건물 터가 발견되었는데 그중에는 길이가 32m에 달하는 토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수혈식 건물 터의 상당수는 복원이 완료되어 건물 안으로 들어가 견학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건물은 공용 공간, 작업장, 겨울철의 공동 거주 장소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무덤지**

조사에 따르면 어른의 무덤과 아이의 무덤이 따로 구분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을 내부를 지나는 몇몇 길을 따라 약 500개의 무덤 구덩이가 발견되었습니다. 크기로 보아 이 무덤 구덩이는 어른의 것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영유아는 옹관에 넣어 매장되었습니다. 북쪽의 성토(흙무지) 근처에서는 500개 이상의 옹관이 묻혀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세 개의 성토 중 하나인 이 성토에는 많은 토기 편도 묻혀 있었습니다.

**교역과 공예품**

산나이 마루야마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은 비취 구슬, 호박 장식품, 흑요석으로 만든 창끝, 아스팔트로 접착된 물건 등 각종 인공물과 기타 미완성품, 가공 전의 재료 등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품을 만들기 위한 재료는 이 지역에서 구할 수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일본 내 다른 지역과의 교역을 통해 500km나 떨어진 지역에서 조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이러한 물품들이 출토된 것으로 보아 재료를 가공하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이곳에서 생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산나이 마루야마 유적 센터

산나이 마루야마 유적 센터는 산나이 마루야마 유적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이 센터에서는 출토된 유물을 통해 이 마을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입장권을 구입하면 유적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산나이 마루야마 유적 센터에는 5,000 점 이상의 토기와 석기가 묻힌 높이 6m의 벽 '조몬 빅 월'과 조몬 시대를 테마로 한 토우 만들기 체험, 고고학자들이 토기를 복원하는 모습을 창문 너머로 볼 수 있는 정리 작업실이 있습니다. 부지 내부에는 기프트 숍과 카페테리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박물관과 병설 시설에서는 영어로도 정보를 제공합니다.

## 관련 유적

홋카이도·도호쿠 지방 북부의 조몬 유적군 중 몇 곳이 아오모리현 내에 위치합니다. 아오모리시에 자리한 고마키노 유적[링크]은 산나이 마루야마 유적에서 불과 수 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유적에서는 조몬 시대 후기에 만들어진 환상 열석(거대한 선돌이 둥글게 배치된 유구)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치노헤에 있는 고레카와 유적[링크]의 박물관에는 조몬 시대 말기에 제작된 고도로 세련된 토기와 칠기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001-001

---

## <日本語仮訳>

### 三内丸山遺跡

青森県の三内丸山遺跡に残る竪穴式住居跡、大型建造物の土台、大量の土器を含んだ盛土、墓地、土器を作るための粘土採掘坑は、この地における先史時代の生活と社会の様子を今に伝えていきます。三内丸山遺跡は、今日までに発見された中では最大の縄文時代（紀元前 13,000 年～紀元前 400 年）の集落跡の 1 つで、考古学的調査によると、紀元前 3900～紀元前 2200 年の 1,000 年以上の間、大きな集落が存在してい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ています。

### 集落の発展

集落の規模と形態は、縄文時代を通して、食料の入手可能性と環境要因によって変化してきました。このような集落は、最終氷期の終わりに季節限定の狩猟採集地として始まりましたが、気温が上がり食料が豊富になるにつれ、集落は定着していきました。集落の規模は、紀元前 5000 年から紀元前 2000 年の間にかなり大きくなり、紀元前 3000 年頃には三内丸山遺跡のような大きな集落ができました。その後、紀元前 2000 年から紀元前 400 年にかけて、気候は冷涼になり、集落の規模は小さくなっていきました。

### 大小の竪穴建物跡

三内丸山の集落到どのくらいの人が住んでいたのかは判断が難しいところですが、遺跡の調査の結果から、数百人規模に達していた可能性があると考えられています。これまでに 500 を超える竪穴建物跡の基礎が見つかっており、その中には長さ 32m に及ぶ建物の基礎もありました。これらの竪穴建物跡の多くが復元され、建物の中に入って見学できるようになっています。さらに大型の建物は、共用空間、作業場、冬季の共同居住場所として機能していたのではないかと考えられています。

## 墓地

調査によれば、大人の墓地と子どもの墓地は分けられていたようです。集落内を通るいくつかの道に沿って、500ほどの墓穴が見つかっています。墓穴の大きさからして、これらは大人の墓だったと考えられます。乳幼児は、甕棺に入れて埋葬されていました。北側の盛土の近くでは、500を超える甕棺が埋められているのが見つかっています。この盛土は、3つある盛土の1つで、たくさんの土器片が埋まっていました。

## 交易と工芸品

三内丸山遺跡の出土品には、ヒスイ玉、琥珀の装飾品、黒曜石でできた槍の穂先、アスファルトで接着されたものなど各種の人工物と、その未完成品、加工前の材料などがあります。しかし、これらの品々を作るための材料は、この地域では手に入らないものであり、日本の他の地域との交易により、500kmも離れた地域から調達されたと考えられています。また、これらの品々の出土により、材料を加工する技能を持った人々が暮らしていたことも分かります。

## 三内丸山遺跡センター

三内丸山遺跡センターが三内丸山遺跡への入口です。このセンターは、出土品を通してこの集落での暮らしを紹介する博物館になっています。博物館の入場券を購入すると、遺跡も観覧することができます。三内丸山遺跡センターには、5,000点以上の土器や石器が埋め込まれた高さ6mの壁「縄文ビッグウォール」、縄文時代をテーマにした土偶づくり体験、考古学者たちが土器の復元を行う様子を窓越しに見られる整理作業室があります。敷地内には、ギフトショップとカフェテリアもあります。博物館と併設の施設では、英語による情報提供も行っています。

## 関連遺跡

北海道・北東北の縄文遺跡群のうち、いくつかの遺跡が青森県内にあります。小牧野遺跡 [リンク] は青森市にあり、三内丸山遺跡からわずか数kmの距離にあります。この遺跡からは、縄文時代後期に作られた環状列石（巨大な石を丸く配置した遺構）が見つかっています。八戸の是川遺跡 [リンク] には博物館があり、縄文時代晩期の高度に洗練された土器と漆器が展示されています。

【タイトル】 特別史跡 大湯環状列石

【想定媒体】 Web サイト

**<韓国語>****오유 환상열석 환상 열석**

아키타현 가즈노시에 자리한 이 유적은 8,000 개 이상의 돌이 두 개의 커다란 원 모양으로 배치된 환상 열석 유적입니다. 기원전 2,000 년경에 만들어진 이 환상 열석은 돌이 배치된 모양으로 보아 태양의 움직임을 알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거대한 열석을 세우는 데는 엄청난 노력과 세심한 계획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구내 박물관에서는 환상 열석에 관한 정보를 소개하고 이 유적에서 출토된 토기와 의식에 사용된 물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환상 열석의 특징**

두 개의 환상 열석은 각각 안쪽 고리와 바깥쪽 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고리는 적은 수의 돌을 원형이나 마름모형 등으로 작게 늘어놓은 배석이 고리 모양으로 배치된 모습입니다. 각 환상 열석의 안쪽 고리와 바깥쪽 고리 사이의 한 곳에는 한 개의 돌을 세우고, 그 주변으로 다른 돌을 방사형으로 늘어놓은 형태의 배석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배석의 배치는 해시계의 모양과 유사하며, 하지와 동지에는 북서-남동 축을 따라 그림자가 하나의 선을 형성하도록 배열되어 있습니다. 고고학적 조사를 통해 배석 아래에서 무덤 구덩이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각각의 배석이 하나의 무덤을 나타낸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만자 환상 열석**

두 개의 환상 열석 중 큰 것을 만자 환상 열석이라고 부릅니다. 지름 52m의 만자 환상 열석에는 약 6,500 개의 돌을 사용한 100 개 이상의 배석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노나카도 환상 열석**

노나카도 환상 열석이라 불리는 다른 하나의 환상 열석은 만자 환상 열석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름 44m의 노나카도 환상 열석은 약 2,000 개의 돌을 사용한 60 개 이상의 배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고학적 발견**

환상 열석의 바깥 고리 주변에서 4 개 기둥과 6 개 기둥으로 지탱되는 건물의 기초가 발굴되었습니다. 또한 의식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매장물도 발견되었습니다. 건물 토대의 특징과 주변에서 발견된 대량의 의식용 도구로 보아 이 건물은 주거용이 아닌, 의식에 사용된 건물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몇몇 건물들이 복원된 만자 환상 열석 주변에서는 이 환상 열석의 4,000 년 전 모습을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환상 열석의 축조**

이 환상 열석을 축조하는 데는 200년 이상이 걸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장 무거운 돌은 200kg이 넘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이렇게 무거운 돌을 최대 4km나 떨어진 강에서 단순한 도구만을 사용해 옮겼을 것입니다.

#### 녹색 돌

오유 환상 열석에 사용된 많은 돌들은 녹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 돌은 오유 환상 열석에서 동쪽으로 수 km 떨어진 모로스케산에서만 발견되는 고유종입니다. 모로스케산 기슭을 흐르는 아쿠야강에서 유적 발굴 현장과 가장 가까운 오유강을 내려와 이동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 이 특정한 돌이 환상 열석을 건설하는 데 선호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오유 스톤서클관

발굴된 수백 개의 토기와 토우, 토관(관 모양의 토제품), 석기는 오유 스톤서클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토기로는 시신을 매장할 때 사용했던 커다란 독과 정교한 장식이 달린 화분, 향아리 등이 있습니다. 석기는 대부분 크기가 작고 검, 화분, 삼각형 석판(관 모양의 석제품) 등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모든 출토품에는 장식이 달려 있어 의식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 관련 유적

이 외에 일본 북부에서 발견된 대규모의 선사 시대 유적으로는 이세도타이(아키타현), 와시노키(홋카이도), 고마키노(아오모리현), 오모리카쓰야마(아오모리현)의 환상 열석 등이 있습니다.

001-002

---

### <日本語仮訳>

#### 大湯環状列石

秋田県鹿角市にあるこの遺跡は、8000個を超える石を、2つの大きな円形をなすように配置した環状列石遺跡です。この環状列石は紀元前2000年頃のものであり、その配置から、太陽の動きを知るためのものであったと考えられます。その構築には、多大な努力と綿密な計画が必要だったことでしょう。構内の博物館では、環状列石に関する情報を紹介しており、この遺跡で出土した土器や儀式に使われた品々を展示しています。

#### 環状列石の特徴

2つの環状列石はそれぞれ内側の環と外側の環から構成されており、これらの環は少ない数の石を円形や菱形などに小さく並べた配石が、環状に配置されて出来上がっています。各環状列石の内側の環と外側の環の間の1か所に、1つの石を立てた周りに石を放射状に並べた形の配石が作られています。この配石の配置は、日時計と類似しており、夏至と冬至には、北西-南東の軸に沿って影が1本の線になるように並べられています。考古学的調査によると、配石の下に墓穴が発見されており、それぞれの配石が1つの墓を示していると考えられています。

#### 万座環状列石

2つの環状列石のうちの大きいものは万座環状列石と呼ばれています。万座環状列石の直径は52mで、約6500個の石を使った、100を超える配石の存在が明らかになっています。

#### 野中堂環状列石

もう1つの環状列石は野中堂環状列石といい、万座環状列石から100mほどのところに位置しています。野中堂環状列石の直径は44mで、約2000個の石を使った、60を超える配石で構成されています。

#### 考古学上の発見

環状列石の外側の環の周りから、4本柱と6本柱の建物の基礎が発掘されました。また、儀式に使われたと思われる埋蔵物も見つかりました。建物の基礎の特徴と付近で発見された大量の儀式用具から、この建物は住居ではなく、儀式に使われる建物だったと考えられています。万座環状列石の周りにはいくつかの建物が復元されており、この環状列石の4000年前の姿を見学することができます。

#### 環状列石の構築

この環状列石の構築には200年以上かかったと推定されています。最も重い石は200kg以上もあります。古代の人々は、このような石を、最大4km離れた川から、単純な道具のみを使って運んできたのでしょう。

#### 緑色の石

大湯環状列石で使われている石の多くは、緑がかっています。この固有の種類の石は、大湯環状列石から東へ数キロ離れた場所にある諸助山のものです。諸助山の麓を流れる安久谷川から、遺跡発掘現場に最も近い大湯川を下って移動してきたものと考えられます。この特定の石が、なぜ環状列石の建設で好んで使われていたのかは不明ですが、何らかの特別な意味があったものと思われる。

#### 大湯ストーンサークル館

発掘された数百個の土器・土偶・土版（板状の土製品）・石器は、大湯ストーンサークル館に展示されています。土器には、遺体を埋葬するのに使われた大きな甕のようなものや精巧な装飾のある鉢・壺などがあります。石器のほとんどは小型で、剣、鉢、三角形の岩版（板状の石製品）といった形状のものです。すべての出土品には装飾が施されており、儀式に使われたものだと考えられています。

#### 関連遺跡

北日本の大規模な先史遺跡には、他に伊勢堂岱（秋田県）、鷲ノ木（北海道）、小牧野（青森県）および大森勝山（青森県）の環状列石などがあります。



【タイトル】 史跡 大船遺跡

【想定媒体】 Web サイト

**<韓国語>****오후네 유적**

홋카이도 남부 하코다테에 있는 오후네 유적에서는 기원전 3,200 년경의 대규모 마을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고고학적 조사를 통해 100 개 이상의 수혈식 건물의 토대, 무덤, 저장용 구멍과 대량의 토기, 석기, 동물의 뼈가 포함된 성토(흙무지)가 발굴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유적에서 약 1,000 년 동안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거주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거주에 적합한 위치**

오후네 유적은 태평양을 마주한 평평한 구릉지 위에 펼쳐져 있으며 주변에는 오후네강이 흐릅니다. 이 마을 유적에서는 탄화된 밤과 물개, 다랑어, 연어, 고래, 사슴의 뼈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마을의 사람들은 바다에서 낚시를 하고 해안을 따라 사냥했으며 숲에서 식량을 채취했을 것입니다.

**오후네 유적의 수혈식 건물 터**

이 마을의 사람들은 수혈식 건물에서 생활했습니다. 수혈식 건물이란 땅을 파서 구획이 나뉘지 않은 하나의 커다란 주거 공간을 만든 뒤, 그 위에 나무 기둥이나 들보를 세운 건물의 형태를 말합니다. 수혈(아래로 판 구멍)의 바깥쪽 가장자리와 기둥이 있던 구멍의 위치를 고고학적으로 조사한 결과, 오후네 유적에서 120 개에 가까운 수혈식 건물의 토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겹쳐져 있는 것으로 보아 오래된 건물이 있던 자리에 새로운 건물이 세워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유적에서 발견된 수혈 중에는 깊이가 2m를 넘고 가로 세로 길이는 10m에 가까운 것도 있습니다. 이 정도 깊이와 길이를 가진 수혈은 다른 유적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가장 큰 기초 중 일부가 발굴된 상태로 보존되어 이 유적에 존재했던 건물의 규모를 느낄 수 있습니다.

**희귀한 발견**

건물 아래에 뚫린 작은 구멍의 바닥에서 검게 변한 흙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흙을 분석한 결과, 태반에서 유래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생물학적 물질이 확인되었습니다. 태반을 묻는 행위는 제사를 지내는 과정에서 어떤 중요한 목적으로 행해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거 일본의 문화에서는 새로 태어난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며 태반을 집 현관에 묻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공예품의 보고**

이 유적에서는 길이가 거의 80m, 너비는 10m에 달하는 대규모 성토(흙무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성토에서는 대량의 토기와 석기, 동물의 뼈, 그리고 사슴뿔로 만든 바늘 등의 공예품이 출토되었습니다. 성토 내부에서는 수혈식 무덤도 발견되었는데, 그곳에서 불을 피운 흔적도 확인되었습니다. 이 성토는 제사를 지내는 장소로, 또는 도구를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 토기의 디자인과 특징

토기의 형태와 디자인을 살펴보면 선사 유적의 연대를 특정하여 그 장소에서 얼마 동안 사람이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발굴된 바닥이 평평한 원통형 토기는 그 모양과 디자인이 매우 다양합니다. 이와 같은 뚜렷한 변화는 오후네 유적에서 1,000 년에 가까운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사람이 살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른 시기에 만들어진 토기의 장식은 그다지 정교하지 못하고 가장자리도 단순한 모양입니다. 반면, 늦은 시기에 만들어진 토기는 가장자리에 문양이 있고 장식이 달린 특징을 보입니다.

### 하코다테시 조몬문화교류센터

오후네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은 가키노시마 유적[링크] 옆에 있는 하코다테시 조몬문화교류센터[링크]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센터에서는 국보로 지정된 속이 빈 중공 토우 등 이 지역의 여러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오후네 유적에서 차로 약 5 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 관련 유적

이 외에 대규모 마을 터가 발견된 곳으로는 고노쇼 유적[링크](이와테현)과 산나이 마루야마 유적[링크](아오모리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산나이 마루야마 유적은 일본에서 가장 큰 규모의 조몬 시대 유적입니다.

001-003

---

## <日本語仮訳>

### 大船遺跡

北海道南部の函館にある大船遺跡では、紀元前 3200 年頃の大規模な集落の跡が出土しています。考古学的調査により、100 を超える竪穴建物跡の基礎、墓、貯蔵穴や大量の土器・石器・動物の骨を含む盛土が発掘されました。このことから、この遺跡には約 1,000 年にわたって人が住み続けていたということが明らかになりました。

### 居住に適した位置

大船遺跡は、太平洋に面した台地上に広がっており、近くを大船川が流れています。この集落遺跡では、炭化した栗やオットセイ・マグロ・サケ・クジラ・シカの骨が見つっています。この集落の人々は、海で魚を獲り、海岸沿いで狩りをし、森で食料を集めていたのでしょうか。

### 大船遺跡の竪穴建物跡

この集落の人々は、竪穴建物で暮らしていました。竪穴建物とは、地面を掘り下げた仕切りのない居住空間の上に、木の柱や梁を組んで作った建物です。竪穴（下方へ掘った穴）の外縁と柱が立てられていた穴の位置に関する考古学的調査の結果、大船遺跡では、120 近くの竪穴建物の基礎が見つっています。また、その多くは重複しており、古い建物があつた場所に新しい建物が建てられたことを示しています。

この遺跡で発見された竪穴の中には、深さが2mを超え、縦横の長さは10m近いものもあります。他の遺跡では、これほどの深さと長さを持つ竪穴はほとんどみられません。最も大きな基礎のいくつかは、発掘された状態で保存されており、この遺跡にあった建物の規模を感じることができます。

#### 珍しい発見

建物の地面のあけられた小さな穴の底から、黒くなった土が発見されました。この土を分析した結果、胎盤に由来すると考えられる生物由来物質が確認されています。胎盤を埋めるという行為は、祭祀上何らかの重要性を持っていたのではないかと考えられています。かつての日本の文化には、新しく生まれた子どもの健やかな成長を願って、胎盤を家の玄関に埋める慣習がありました。

#### 工芸品の宝庫

この遺跡では、長さはほぼ80m、幅は10mある大規模な盛土が発見されています。この盛土からは、大量の土器、石器、動物の骨、またシカの角から作られた縫針などの工芸品が出土しました。この盛土の中では竪穴式の墓も見つかっており、そこで火が燃やされたことが確認されています。この盛土は、祭祀の場として、また道具を保管しておく場所として機能していたと思われます。

#### 土器：デザインと特徴

土器の形とデザインを見ると、先史遺跡の年代を特定することができ、また、その場所にどのくらいの期間、人が住んでいたのかも知ることができます。ここで発掘された土器は底の平らな円筒形で、模様とデザインはかなり多様です。そうした明らかな変化から見て、大船遺跡には、1,000年近い長い期間、人が住み続けていたと考えられます。古い時代の土器の装飾はあまり手が込んでおらず、縁の形状も単純です。一方、後の時代の土器の特徴は、縁に文様があり、装飾が取り付けられています。

#### 函館市縄文文化交流センター

大船遺跡からの出土品は、垣ノ島遺跡 [\[リンク\]](#) の隣にある函館市縄文文化交流センター [\[リンク\]](#) に展示されています。このセンターは、国宝に指定されている、中が空洞の中空土偶など、この地域にあるいくつかの遺跡からの出土品を展示しています。このセンターは、大船遺跡から車で5分のところにあります。

#### 関連遺跡

大規模な集落は、他に御所野遺跡 [\[リンク\]](#)（岩手県）や三内丸山遺跡 [\[リンク\]](#)（青森県）で発見されています。中でも三内丸山遺跡は、日本最大級の縄文遺跡です。

【タイトル】 史跡 垣ノ島遺跡

【想定媒体】 Web サイト

**<韓国語>**

## 가키노시마 유적

홋카이도 남부 하코다테에 있는 가키노시마 유적은 기원전 7,000 년경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유적입니다. 발굴 작업을 통해 선사 시대 6,000 년 이상에 걸친 출토품과 무덤 구덩이, 수혈식 건물 터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문화적, 정신적 발전을 보여주는 흔적을 살펴봄으로써 선사 시대 일본인의 삶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유적과 인접한 하코다테시 조몬문화교류센터[링크]에서는 가키노시마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을 전시함과 동시에, 선사 시대 일본의 사회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 장례 의식과 매장 관습의 발달

장례 의식과 매장 관습은 조몬 시대(기원전 13,000 년~기원전 400 년) 사이에 크게 발전했습니다. 기원전 7,000 년경부터 무덤은 마을 내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만들어졌습니다. 가키노시마 유적에서는 거주지와 무덤지가 분리된 형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유적에서 발견된 가장 이른 시기의 무덤 구덩이 중 일부는 기원전 5,000 년~4,500 년의 것입니다.

## 희귀한 부장품

가키노시마 유적의 무덤 구덩이에는 다양한 부장품이 함께 매장되었는데, 그중에는 발 모양이 달린 토판(판 모양의 토제품)도 있습니다. 기원전 5,000 년~4,500 년 무렵의 것으로 추정되는 토판은 그 형태와 크기가 매우 다양하지만 모두 새끼줄 문양(조몬, 縄文)이 있고 1~2 개의 발 모양이 달려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발 모양은 6~18cm 로 아마도 아이의 것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편 면에 손 모양이 달린 토판도 있습니다.

## U자형 성토

이 유적에는 커다란 U자형의 성토(흙무지)가 뚜렷이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대량의 토기와 석기, 동물의 뼈 파편이 출토되었습니다. 이 성토에서 출토된 유물의 일부와 토양에서는 탄 흔적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이곳에서 불이 피워졌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또한 성토 한쪽 구석에서 발견된 땅에 도랑을 판 흔적은 U자형의 중앙부분으로 이어지는 길이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외에도 성토의 중앙부분에서는 갈돌, 검 등의 제사용 도구가 포함된 작은 흙 무더기가 발견되었는데, 이를 통해 이 성토에서 장례식 등의 의식을 행하고 공물을 바쳤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기원전 3,000 년경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 성토는 아마도 수백 년에 걸쳐 축조된 것으로 보입니다. 길이는 190m 이상, 너비는 120m 이며 높이는 가장 높은 지점이 2m 에 달합니다.

## 토기

가키노시마 유적에서는 매우 다양한 형태의 토기가 발견되었습니다. 가장 이른 시기의 토기는 바닥 부분이 뾰족하고 흙반죽에 조개껍데기를 눌러 붙인 듯한 문양이 남아 있습니다. 좀 더 시기가 지나면 정교한 장식과 주홍색 칠이 특징인 옷칠 주구토기(액체를 따를 수 있도록 부리가 달려 있는 토기)와 많은 구멍이 뚫려 있는 복잡한 모양의 향로형 토기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출토품을 통해 당시 사람들이 뛰어난 디자인 감각과 고도의 토기 제작 기술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 하코다테시 조몬문화교류센터

하코다테시 조몬문화교류센터[링크]에는 가키노시마 유적, 오후네 유적[링크](가키노시마 유적에서 차로 10 분) 등 이 지역의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가장 높이 평가되는 출토품은 내부가 비어 있는 ‘중공 토우’입니다. 이 토우는 채소밭을 일구던 여성에 의해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이 토우는 복잡한 디자인과 섬세한 문양, 광택있는 마감, 그리고 뛰어난 보존 상태로 고고학자와 미술사가들로부터 큰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국보로 지정된 이 토우는 도쿄국립박물관뿐만 아니라 대영박물관, 스미스소니언 박물관 등 전 세계의 대표적인 박물관에서도 전시되었습니다.

하코다테시 조몬문화교류센터에서는 전시 외에도 뜨개질이나 토기 등 선사 시대의 물건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 견학 시에는 입장료가 필요합니다. 영어로도 정보를 제공합니다.

#### 관련 유적

오후네 유적[링크]은 가키노시마 유적에서 차로 10 분 거리에 있습니다. 대규모 마을 터가 발견된 이 유적에서는 커다란 수혈식 건물의 토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 홋카이도에 있는 다른 유적으로는 대형 패총(조개무지)이 발견된 이리에-다카사고 패총[링크]과 기타코가네 패총, 삿포로 근처에 위치한 기우스 주제묘군[링크]이 있습니다.

001-004

---

#### <日本語仮訳>

#### 垣ノ島遺跡

北海道南部の函館にある垣ノ島遺跡は、紀元前 7000 年頃に遡る遺跡です。発掘作業により、先史時代の 6000 年を超える期間にわたる出土品、墓穴、竪穴建物跡が見つかりました。そうした社会的・文化的・精神的な発展を示す痕跡から、先史時代の日本の暮らしについて知ることができます。この遺跡に隣接する函館市縄文文化交流センター [リンク] では、垣ノ島遺跡からの出土品の展示とともに、先史時代の日本の社会について総合的な紹介を行っています。

#### 葬儀と埋葬の慣習の発達

葬儀と埋葬の慣習は、縄文時代(紀元前 13,000 年~紀元前 400 年)の間に大きく発達しました。紀元前 7000 年頃より、墓地は、集落内の居住地から離れたところに作ら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垣ノ島遺跡では、居住地と墓地が別々に見つかっています。この遺跡で発見された最初期の墓穴の一部は、紀元前 5000 年~4500 年のものです。

## 珍しい副葬品

垣ノ島遺跡の墓穴には、様々な副葬品が納められており、その中には、足形のつけられた土版（板状の土製品）があります。土版は紀元前 5000 年～4500 年頃のもので、形も大きさもさまざまですが、共通する点として、いずれも縄の文様があり、1～2 個の足形がつけられています。足形は 6～18cm で、おそらく子どものものでしょう。逆の面に手形がつけられている土版もあります。

## U 字型の盛土

この遺跡では、大きな U 字型の盛土がはっきりと残っており、ここからは大量の土器、石器、動物の骨の破片が出土しました。この盛土からの出土品の一部と土壌からは、焦げた痕跡が見つかり、ここで火が燃やされたのではないかと考えられています。また、盛土の一隅の地面に溝が掘られているのが見つかり、これは U 字型の中央部分に至る道であると考えられています。さらに、盛土の中央部分からは、石棒・剣などの祭祀の道具を含む小さな塚が見つかり、この盛土では、葬儀などの儀式が行われ、供物が捧げられていたと考えられています。

この盛土は紀元前 3000 年頃まで遡ることができ、おそらく、数百年をかけて築かれたものと思われる。長さは 190m を超え、幅は 120m あり、高さは、一番高いところで 2m に達します。

## 土器

垣ノ島遺跡では、実に様々な土器が発見されています。最初期のものは、底部が尖っており、生地に貝殻を押しつけた模様があります。さらに時代が進むと、凝った装飾と朱色の漆が特徴の漆塗り注口土器（液体を注げるように注ぎ口がついた土器）や、多くの穴があいた複雑な形状の香炉形土器が現れます。これらの出土品から、この時代の人々が、優れたデザイン感覚と土器づくりに関する高度な技術を持っていたことがよくわかります。

## 函館市縄文文化交流センター

函館市縄文文化交流センター [\[リンク\]](#) には、垣ノ島遺跡、大船遺跡 [\[リンク\]](#)（垣ノ島遺跡から車で 10 分）、およびこの地域の他の遺跡からの出土品が展示されています。最も高く評価されている出土品は、内部が空洞になっている「中空土偶」です。この土偶は、野菜畑を耕していた女性によって偶然発見されました。この土偶は、複雑なデザインと繊細な模様、光沢のある仕上がり、そして保存状態が優れていることで、考古学者や美術史家から称賛されています。この土偶は国宝に指定されており、東京国立博物館のほか、大英博物館、スミソニアン博物館など世界中の代表的な博物館で展示されてきました。

函館市縄文文化交流センターには、展示に加えて体験メニューもあり、編み物や土器など、先史時代のものづくりに挑戦することができます。センターの見学には入館料が必要です。英語での情報提供も行っています。

## 関連遺跡

大船遺跡 [\[リンク\]](#) は、垣ノ島遺跡から車で 10 分のところにあります。この遺跡では大規模な集落跡が発見されており、大きな竪穴建物跡の基礎を見ることができます。北海道の他の遺跡としては、大型の貝塚が発見された入江・高砂貝塚 [\[リンク\]](#) や北黄金貝塚、札幌の近くにあるキウス周堤墓群 [\[リンク\]](#) があります。

【タイトル】 史跡 キウス周堤墓群

【想定媒体】 Web サイト

**<韓国語>**

## 기우스 주제묘군

조몬 시대(기원전 13,000 년~기원전 400 년) 후반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기우스 주제묘군(기원전 약 1,200 년경)은 삿포로시 동남쪽에 인접한 지토세시의 삼림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제묘란 땅에 원형의 수혈(아래로 판 구멍)을 파고 파낸 흙을 수혈 주위에 고리 모양으로 쌓아 올려 커다란 도넛 모양의 제방(주제, 周堤)을 만든 후, 그 안에 여러 개의 무덤을 배치한 것을 말합니다. 크기는 지름 30~75m 정도로, 배치된 형태로 보아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세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묘는 일본 북부에 자리한 선사 시대 마을에 복잡한 매장 관습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견학 공간이 마련된 이 유적에서는 주제묘군의 주위를 돌며 관찰할 수 있으며 그중 일부는 가까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주제묘군과 인근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은 지토세시 교육위원회 매장문화재센터[링크]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 규모가 큰 주제

홋카이도의 일부 지역, 특히 기우스 주제묘군이 위치한 이 지역에서는 땅에 원형으로 된 커다란 구멍을 파고 그 주변을 너비 및 높이가 수 m에 달하는 제방으로 둘러싼(주제, 周堤) 유적이 발견되었습니다. 후에 이루어진 고고학적 조사에서 이러한 주제는 여러 마을의 공동 무덤지로 사용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기우스 주제묘군 중에서도 가장 커다란 2호 주제묘는 지름 73m, 높이 4m, 토대부의 너비가 20m를 넘는 제방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주제묘의 건설에는 25명이 작업했을 때 약 4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9개의 기우스 주제묘 중에서 한 구역에 모여 있는 7개의 무덤 중 일부는 제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각 주제묘 사이에 작은 길이 있고 일부 제방이 다른 곳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각 무덤으로 들어가는 입구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고고학적 발견

1960년대부터 시작된 광범위한 조사와 부분적인 발굴을 통해 주제묘군의 내부와 제방의 바깥 둘레에 무덤 구덩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1호 주제묘를 조사하던 중 지하 60cm 지점에서 5개의 무덤 구덩이를 발견했는데, 그중 하나에 돌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보아 어떤 목적으로 특별히 표시된 무덤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외 다른 주제묘의 주변과 내부에서 발견된 구멍에서는 제사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토우의 파편, 원형 조석(배석), 붉은 안료의 흔적, 복잡한 조각이 달린 간석기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석기는 특정한 의식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우스 주제묘군의 규모와 이를 완성하기 위해 필요로 했을 노동력을 생각해보면 이 유적에 특별한 중요성이 부여되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덤이나 와시노키[링크](홋카이도), 오유[링크](아키타현), 이세도타이[링크](아키타현), 고마키노[링크](아오모리현), 오모리카쓰야마[링크](아오모리현)의 환상 열석 등의 유적을 통해 기원전 2,000 년경 이후부터 매장 방법의 복잡성과 장례 의식의 중요성이 점차 두드러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 전시된 매장물

기우스 주제묘군과 인근의 다른 유적에서 출토된 식량, 토기, 석기, 매장 관습 등 조몬 시대(기원전 13,000 년~기원전 400 년)의 생활 양식과 관련된 매장물은 지토세시 매장문화재센터[링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센터는 기우스 주제묘군에서 차로 10 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일부는 영어로도 정보를 제공합니다.

001-005

---

### <日本語仮訳>

#### キウス周堤墓群

キウス周堤墓群(紀元前約 1,200 年)は、縄文時代(紀元前 13,000 年~紀元前 400 年)後半に遡るもので、札幌市の南東方向に隣接する千歳市の森林地に位置しています。周堤墓とは、地面に円形に竪穴を掘り、掘り上げた土を周囲に環状に積み上げることで大規模なドーナツ状の堤(周堤)を作り、その中に複数の墓を配置したものです。大きさは直径 30~75 メートルで、その配置から、綿密な計画のもとに作られたことがわかります。このような周堤墓は、先史時代の北日本の集落における埋葬習慣を証明するものです。

この遺跡内には見学エリアが設けられており、周堤墓群を周囲から、そして一部の周堤墓は近くから観察できるようになっています。この周堤墓群と付近の遺跡からの出土品は、千歳市教育委員会埋蔵文化財センター [リンク] に展示されています。

#### 大規模な周堤

北海道の一部、特にキウス周堤墓群が位置するこの場所では、地面を大きく円形に掘り下げ、それを幅および高さが数 m の堤で囲んだ遺構が見つかっており、その後の考古学的調査の結果、これらが複数の集落の共同墓地として機能していたことがわかりました。キウス周堤墓群の中で最大級の 2 号周堤墓は直径が 73m あり、高さ 4m、基部の幅 20m を超える堤で囲まれています。この周堤墓の建設には 25 人で作業したとして、およそ 4 か月を要したと考えられています。

9 基のキウス周堤墓のうち、7 基はまとまった場所にあり、その一部は堤を共有しています。各周堤墓の間には小道が見えるほか、堤は一部で低くなっており、個々の墓地への入口だった可能性を示しています。

#### 考古学上の発見

幅広い調査と部分的な発掘が 1960 年代に始まり、周堤墓群の中と堤の外周には墓穴があることが明らかになりました。1 号周堤墓の調査中に、地下 60cm のところに 5 つの墓穴が見つかり、うち 1 つには、石が立てられていたことから、何らかの印が付けられた墓であったと考えられています。その他の周堤墓周辺とその中の穴からは、祭祀に使われていたと考えられる土偶の破片、円形の組石、赤い顔料の跡、および複雑な彫刻が施された磨製石器がありました。この石器は、何らかの儀式に使われたのかもしれませんが。

キウス周堤墓群の規模と、それを完成させるために必要だった労力を考えると、この遺跡には特別な重要性があることが感じられます。このような墓や、鷲ノ木 [\[リンク\]](#)（北海道）、大湯 [\[リンク\]](#)（秋田県）、伊勢堂岱 [\[リンク\]](#)（秋田県）、小牧野 [\[リンク\]](#)（青森県）、および大森勝山 [\[リンク\]](#)（青森県）の環状列石といった遺跡から、紀元前 2,000 年頃以降、複雑な埋葬方法と、葬儀の重要性は、ますます顕著になっていったことが分かります。

#### 展示されている埋蔵物

キウス周堤墓群や近くの他の遺跡から出土した、食事、土器、石器、埋葬習慣といった縄文時代（紀元前 13,000 年～紀元前 400 年）の生活様式に関する埋蔵物は、千歳市埋蔵文化センター [\[リンク\]](#) で見ることができます。このセンターは、キウス周堤墓群から車で 10 分のところにあります。入館は無料です。一部、英語での情報提供も行っています。

【タイトル】 史跡 北黄金貝塚

【想定媒体】 Web サイト

**<韓国語>****기타코가네 패총**

홋카이도 다테시에 있는 기타코가네 패총은 기원전 5,000 년~3,500 년경의 유적입니다. 이 유적에서 출토된 대규모 패총(조개무지)과 여러 구의 인골, 다양한 인공물은 복잡한 형태의 제사가 이곳에서 행해졌음을 말해줍니다. 이 유적은 해안에서 수백 m 떨어진 우치우라 만에 면한 언덕의 경사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유적의 입구에 마련된 박물관에서는 다국어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전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패총의 출토품**

기타코가네 패총에서는 총 5 개의 패총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들 패총에서는 해양성 쌍각류, 굴, 성게의 껍데기와 물고기, 물개, 고래, 사슴 등의 동물뼈가 확인되었습니다. 패총 내부와 아래에서 무덤 구덩이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 이 패총은 중요한 제사를 지낸 장소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 패총에서는 의식에 따라 매장된 14 구의 인골, 그리고 고래뼈와 사슴뿔로 만든 장식이 달린 손가락이 출토되었습니다. 다른 패총에서는 의도적으로 늘어놓은 듯한 사슴의 두개골이 발견되었습니다.

**패총과 해안선**

패총은 언덕 중턱에 조성되어 있는데, 총 5 개의 패총 중 가장 오래된 것이 가장 높은 지대에 있고 그 외 패총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점차 낮은 위치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즉 패총이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해안과 가까웠지만, 서서히 기후가 서늘해지고 해수면이 낮아지면서 약 1,500 년에 걸쳐 해안선이 물러난 결과, 현재와 같은 배치를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식재료와 생활**

출토된 인골을 연구한 결과, 기타코가네 패총의 사람들은 육류보다 생선을 더 많이 먹었고 나무 열매는 그다지 많이 먹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인골에는 물고기나 다른 해양 생물에서 유래한 단백질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충치는 나무 열매를 많이 먹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데, 이 유적에서 발견된 치아에는 충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물고기를 잡아 먹으며 생존을 이어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패총의 여러 곳에서 그물에 다는 석제 그물추, 뿔로 만든 낚싯바늘과 작살 끝 등의 도구가 발견되었습니다.

**제사와 관련된 석기의 출토**

이 언덕 기슭에 있는 샘 근처에서 대량의 석기가 발견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갈돌, 갈판 등의 석기가 뚜렷이 보이는 위치에 묻혀 있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의도적으로 부수거나 일부러 파손해 버려진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서 이런 방법으로 버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들 도구 자체나 마을에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물에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등 당시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의례의 한 방식으로서 버려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 기타코가네 패총 정보센터

기타코가네 패총 정보센터에서는 이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과 패총 한 곳의 실제 절단면을 전시하고 있으며 절단면에 드러난 뼈와 조개껍데기의 종류를 일본어와 영어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에 전시된 출토품으로는 쌀이나 찌로 만든 장식품, 쌀로 만든 돌살촉과 작살 끝 등의 사냥용 도구, 그리고 무언가를 갈거나 으깬 때 사용하는 받침대인 갈판과 위에서 내리누르거나 찍는 용도의 갈돌 등이 있습니다. 체험 코너에 전시되어 있는 갈돌은 직접 손에 들고 자유롭게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센터 입장은 무료입니다.

#### 관련 유적

이리에 패총[링크]과 다카사고 패총[링크]이 기타코가네 패총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치우라 만 반대편에는 오후네 유적[링크]과 가키노시마 유적[링크]이라는 대규모의 유적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 두 곳에서 출토된 유물이 하코다테시 조몬문화교류센터[링크]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 유적을 함께 살펴보면 선사 시대 일본 북부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좀 더 넓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001-006

---

### <日本語仮訳>

#### 北黄金貝塚

北海道伊達市にある北黄金貝塚は、紀元前 5000~3500 年頃の遺跡です。この遺跡からは、大規模な貝塚、複数の人骨、およびさまざまな人工物が出土しており、複雑な祭祀が行われていたことを示しています。この遺跡は、海岸から数百メートル離れた、内浦湾に面した丘の斜面にあります。この遺跡の入口には博物館があり、多言語での情報提供と展示を行っています。

#### 貝塚での発見

北黄金貝塚では、5つの貝塚が発見されています。これらの貝塚には、海の二枚貝・カキ・ウニの殻や、魚・オットセイ・クジラ・シカなどの動物の骨が含まれています。貝塚の中や下から墓穴が見つかったことから、貝塚が祭祀上重要な場所だったと考えられています。貝塚の1つからは、儀式によって埋葬された 14 人分の人骨と、クジラの骨やシカの角から作った、装飾の付いたスプーンが出てきました。別の貝塚からは、意図的に並べられたシカの頭蓋骨が発見されています。

#### 貝塚と海岸線

貝塚は丘の中腹にあり、5つの貝塚のうち一番古いものが最も高いところにあつて、その他の貝塚の位置は順に低くなっています。いずれの貝塚も作られたときは海岸の近くだったのですが、徐々に気候が寒冷になって海面が下がり、約 1500 年をかけて海岸線が遠ざかっていった結果、このような配置になりました。

## 食料と生活

出土した人骨の研究から、北黄金貝塚の人々は肉より魚を多く食べており、木の実を食べる量はそう多くなかったらしいことがわかりました。これらの人骨には、魚や他の海洋生物に由来する蛋白質が多く含まれています。虫歯は木の実が多く食べられていたことを示しますが、この遺跡で見つかった歯に虫歯は全くありません。

おそらく、魚を獲ることが彼らの主な生存手段だったのでしょう。貝塚の様々な場所から、網につける石製の重りや、角でできた釣り針や銚先といった道具が発見されています。

## 祭祀に関する石器の出土

この丘のふもとにある泉の近くでは、大量の石器が発見されています。この場所では、すり石・石皿などの石器が、はっきり見えるように土に埋まっていました。これらの多くは、意図的に壊されたり、わざと傷つけられ捨てられたもののように見えます。これらの品がなぜこういった方法で捨てられたのかは分かっていませんが、これらの道具自身や、集落での暮らしを支える水への感謝の気持ちを表すなど、遺跡の人々にとって何らかの象徴的な意味を持つ儀礼としてここに捨てられたのではないかと考えられています。

## 北黄金貝塚情報センター

北黄金貝塚情報センターは、この遺跡からの出土品と、貝塚の1つの実際の断面図を展示しており、この断面図に示された骨と貝殻の種類が、日本語と英語で表示されています。このセンターで展示されている出土品には、角や骨から作った装飾品、角でできた石鏃や銚の先端などの狩りの道具、および物をすりつぶすときの台になる石皿と、すりつぶしたい物に上から押し付けて使うすり石などがあります。すり石は体験コーナーに展示されており、自由に手にとって体験することができます。このセンターへの入場は無料です。

## 関連遺跡

入江貝塚[\[リンク\]](#) と高砂貝塚[\[リンク\]](#) が、北黄金貝塚から車で30分のところにあります。。内浦湾の反対側には、大船遺跡 [\[リンク\]](#) と垣ノ島遺跡 [\[リンク\]](#) という大規模な遺跡があり、これら2つの遺跡からの出土品が函館市縄文文化交流センター [\[リンク\]](#) に展示されています。これらも併せて見ること、北日本における先史時代の暮らしについて広く理解することができます。

【タイトル】 史跡 入江・高砂貝塚（入江貝塚）

【想定媒体】 Web サイト

**<韓国語>****이리에 패총**

이리에 패총은 해안가에 자리한 대규모 패총(조개무지) 유적입니다. 패총이란 물고기나 동물의 뼈, 조개껍데기 등이 버려져 쌓인 것을 말합니다. 이리에 패총과 인접한 다카사고 패총은 아마도 수백 년에 걸쳐서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가장 높은 최상층은 기원전 약 2,000 년까지도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유적에서는 여러 개의 무덤과 수혈식 건물 터도 발견되었습니다.

일반인에게도 공개된 이 유적에서는 흙, 조개껍데기, 뼈 등이 쌓여있는 패총의 절단면과 복원된 수혈식 건물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유적은 다카사고 패총[링크]이나 이리에-다카사고 패총관[링크]에서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바다와 패총**

기원전 8,000 년부터 기원전 5,000 년까지 기후가 따뜻해지고 해수면이 상승하는 변화가 일어나자, 사람들은 이리에의 얕은 여울로 이동하여 낚시와 조개잡이를 통해 필요한 식량을 조달했습니다. 선사 시대 일본 북부의 마을에서는 이러한 생활 수단에 크게 의존하면서 점점 더 많은 양의 어패류를 소비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마을 옆에 패총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패총을 분석하면 사람들의 식생활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층에는 주로 대합과 굴이, 상층에는 바지락이 있다는 것은 수온과 해수면이 변화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지역 마을의 사람들은 낚시와 사냥으로 식량을 구했기 때문에 조개보다는 육류나 생선을 더 많이 먹었습니다.

공원 남쪽에 있는 입구에서 터널 모양의 통로를 지나 공원 안으로 들어오면 실제 패총의 절단면을 옮겨놓은 전시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절단면을 통해 수많은 뼈와 조개껍데기가 땅속에 묻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조개껍데기보다 물개, 돌고래, 사슴 등 동물이나 물고기의 뼈가 더 많이 보입니다.

**고기잡이 도구와 교역**

이리에 패총에서 출토된 다양한 낚시바늘은 낚시 도구가 어떻게 발달했는지를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대형 조립식 낚시바늘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보통 낚시는 먼 바다에서 행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홋카이도에는 서식하지 않는 멧돼지의 어금니를 사용한 장신구 등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이 지역과 일본 혼슈 사이에 해상 무역이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여겨집니다.

이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은 이리에-다카사고 패총관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링크].  
견학 시에는 입장료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내용 중 일부는 영어로도 정보를  
제공합니다.

001-007

---

## <日本語仮訳>

### 入江貝塚

入江貝塚は、大きな貝塚がある沿岸部の遺跡です。貝塚とは、魚や動物の骨、貝殻などが捨てられ、  
積み上がったものです。入江貝塚と、隣接する高砂貝塚は恐らく数百年にわたって形成されたものであり、  
最上層は紀元前約 2,000 年にまで遡ります。この遺跡からは、多くの墓や竪穴建物跡も見つかっていま  
す。

この遺跡は、一般に公開されており、土、貝殻、骨などが積み重なった貝塚の断面や、復元された竪穴  
建物を見ることができます。この遺跡は、高砂貝塚[リンク] や入江・高砂貝塚館 [リンク] から歩いて行  
けます。

### 海と貝塚

紀元前 8,000 年から紀元前 5,000 年にかけて気候が温かくなり、海面が上昇してくると、主な食料  
の入手場所は入江の浅瀬へと移動し、釣りや潮干狩りが発展していきました。先史時代の北日本の集  
落では、このような生活手段への依存度が高まり、大量の魚介類が消費さ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その結  
果、集落の隣に貝塚が形成されました。

貝塚の分析結果から、人々の食生活が環境の変化に伴って、どのように変わってきたのか見て取るこ  
とができます。下層にあるハマグリやカキと、上層にあるアサリは、水温と海水面の変化を示しています。この  
地域の集落の人々は魚獲りと狩猟によって食料を得ており、貝よりも肉や魚の方がよく食べられていま  
した。

公園南側の入口からはトンネル状の通路を通って園内に入りますが、ここで、実際の貝塚の断面をはぎ  
取った展示を見ることができます。この断面の展示で、大量の骨や貝殻が土中に埋まっているのが分かりま  
す。貝殻もありますが、オットセイ、イルカ、シカなどの動物や、魚の骨の方が多く見られます。

### 釣り道具と交易

入江貝塚では、さまざまな釣り針が出土しており、魚獲りの道具がどう発達してきたかを示しています。  
大型の組み合わせ針も見つかっていることから、外洋での釣りが一般的だったこともわかります。また、北海道

には生息していないイノシシの牙を使った装飾具などが見つかり、これらは、本州との海上交易があったことを裏付ける証拠と言えるでしょう。

この遺跡からの出土品は、入江・高砂貝塚館で展示されています [\[リンク\]](#)。見学には入館料が必要です。基本的な内容については、一部、英語での情報提供も行っています。



【タイトル】 史跡 入江・高砂貝塚 (高砂貝塚)

【想定媒体】 Web サイト

**<韓国語>****다카사고 패총**

다카사고 패총(기원전 약 900 년)은 인근 마을의 무덤지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형 묘지 유적입니다. 고고학적 조사와 부분적인 발굴을 통해 패총과 여러 개의 토광묘(타원형의 구덩이를 파고 시신을 매장한 무덤)가 있는 묘지의 존재가 밝혀졌습니다. 이 유적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있으며 패총과 무덤 구덩이의 위치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리에-다카사고 패총관[링크]에서 다카사고 패총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장례 의식의 흔적**

이 유적은 조몬 시대(기원전 13,000 년~기원전 400 년) 내에서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매장 의식이 점점 더 복잡한 형태로 진화했음을 알려줍니다. 토광묘의 형태는 대체로 닳아 있는데, 시신의 팔다리는 일정한 각도로 구부리고 머리는 대부분이 북서쪽을 향한 거의 같은 자세로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무덤 구덩이에서 토기와 석기, 그리고 기타 부장품이 발견되었습니다. 무덤지 내부에서는 고리 모양으로 배열된 돌이 발견되었으며, 그 장소에서 토우와 붉은 안료가 담긴 토기가 출토되었습니다. 7 개의 토광묘에서 안료의 흔적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장례 의식 과정에서 안료 가루가 뿌려졌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존 상태가 양호한 인골**

산성 토양이 대부분인 일본에서는 선사 시대 무덤에서 인골이 발견되는 일이 흔치 않지만, 다카사고 패총에서는 많은 수의 인골이 깨끗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곳에서는 시신이 패총 내부의 구덩이에 매장되어 대량의 뼈와 조개껍데기에서 스며나온 탄산칼슘이 인골을 보존하는 데 도움을 주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

다카사고 패총에서는 작살 끝이나 사슴뿔로 만든 고기잡이 도구 등 다양한 제작물이 발굴되었습니다. 이들은 인근의 이리에 패총[링크]에서 발견된 유물들과 함께 이리에-다카사고 패총관[링크]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견학 시에는 입장료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내용 중 일부는 영어로도 정보를 제공합니다.

**<日本語仮訳>****高砂貝塚**

高砂貝塚（紀元前約 900 年）は、付近の集落の墓地として機能していたと考えられている大型の墓地遺跡です。考古学的調査および一部の発掘により、貝塚と多くの土坑墓（土を楕円形に掘り下げて遺体を埋葬した墓）がある墓地の存在が明らかになりました。この遺跡は公開されており、貝塚と墓穴の場所が表示されています。入江・高砂貝塚館 [\[リンク\]](#) では、高砂貝塚について詳しく知ることができます。

#### 複雑な葬儀の痕跡

この遺跡は、縄文時代（紀元前 13,000 年～紀元前 400 年）の中でも時代が下るにつれて、埋葬の儀式が複雑になっていったことを示しています。土坑墓の形状は似ており、死者の手足は一定の角度で曲げられ、大部分が、頭部を北西の方角に向けた、ほぼ同じ姿勢で埋葬されていました。ほとんどの墓穴で、土器や石器、他の副葬品が発見されました。また墓地内では、環状の配石も見つかっており、その場所からは、土偶と赤い顔料の入った土器が出土しました。7 か所の土坑墓から顔料の痕跡が見つかり、葬送儀礼として、顔料の粉が散布されていたのではないかと考えられています。

#### 保存状態の良い人骨

日本の土壌は酸性であることから、先史時代の墓穴では人骨が発見されないのが一般的ですが、高砂貝塚では、多くの人骨がきれいな状態で発見されています。その理由として、ここでは、死者は貝塚の中の穴に埋葬されたため、大量の骨と貝殻から染み出た炭酸カルシウムが、人骨の保存に役立ったと考えられています。

#### さらなる理解のために

高砂遺跡では、銚先や鹿の角から作った魚獲り道具など、さまざまな製作物が発掘されています。これらは、近くの入江貝塚[\[リンク\]](#) で見つかった品々とともに、入江・高砂貝塚館 [\[リンク\]](#) に展示されています。見学には入館料が必要です。基本的な内容については、一部、英語での情報提供も行っています。

【タイトル】 史跡 小牧野遺跡

【想定媒体】 Web サイト

**<韓国語>****고마키노 유적**

고마키노 유적은 아오모리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인공적으로 평평하게 고른 듯한 구릉지에 수천 개의 돌이 동심원 모양으로 늘어서 있는 환상 열석 유적입니다. 고마키노 유적에서는 3 개의 완전한 고리와 1 개의 부분적인 고리가 지름 55m의 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2,000 년경에 형성된 이 유적은 일본 북부에서 손에 꼽힐만큼 커다란 규모의 선사 유적지 중 한 곳입니다. 고고학적 조사 과정에서 무덤 구덩이, 수혈식 건물 터, 의식에 사용된 물품 등이 발굴되었습니다.

이곳의 환상 열석은 다양한 지점에서 가까이 다가가 볼 수 있습니다. 환상 열석의 중심부 근처까지 접근할 수 있어 배열된 돌과 배치된 모양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남쪽 전망대에서는 환상 열석의 전체 모습을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유적 입구에 있는 ‘고마키노의 숲 도토리집’ 근처에는 무쓰 만, 아오모리 평야, 그리고 핫코다산의 서쪽 기슭을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몬 배움터 고마키노관**

유적에서 1.5km 떨어진 곳에 자리한 ‘조몬 배움터 고마키노관’에서는 고마키노 유적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조몬 시대의 삶의 모습 등을 전시하고 고마키노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 중 일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도 정보를 제공하며 아이들을 위한 체험형 전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관련 유적**

이 외에 일본 북부에 있는 대규모의 선사 유적으로는 오모리카쓰야마(아오모리현), 이세도타이(아키타현), 오유(아키타현), 와시노키(홋카이도)의 환상 열석 등이 있습니다.

**<日本語仮訳>****小牧野遺跡**

小牧野遺跡は青森県にあります。人工的に平らにされた高台に数千個の石が同心円状に並べられた環状列石遺跡です。小牧野遺跡では、3つの完全な環と1つの部分的な環が、直径55mの円を形作っています。この環状列石は、紀元前2000年頃のものであり、北日本の大規模な先史遺跡の1つです。この遺跡の考古学的調査により、墓穴、竪穴建物跡および儀式に使われた品々が発掘されました。

環状列石は、さまざまな地点から間近に見ることができます。環状列石の中心近くまで行くことができ、石とその配置を詳しく見ることができます。また、南側の見晴台からは、環状列石を上から見ることができます。遺跡の入口にある「小牧野の森・どんぐりの家」の近くには、陸奥湾、青森平野および八甲田山西麓を望む展望所があります。

#### 縄文の学び舎・小牧野館

遺跡から 1.5km 離れた「縄文の学び舎・小牧野館」では、小牧野遺跡に関して詳しく知ることができます。縄文時代の暮らしの概要が展示され、小牧野遺跡からの出土品の一部が紹介されています。英語での情報提供も行っており、子どものための体験型の展示もあります。入館は無料です。

#### 関連遺跡

北日本の大規模な先史遺跡には、他に大森勝山（青森県）、伊勢堂岱（秋田県）、大湯（秋田県）および鷲ノ木（北海道）の環状列石などがあります。

【タイトル】 史跡 大森勝山遺跡

【想定媒体】 Web サイト

**<韓国語>****오모리카쓰야마 유적**

아오모리현 히로사키시에 자리한 오모리카쓰야마 유적에는 1,000 개 이상의 돌이 77 곳에 늘어서 환상 열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1,000 년경에 만들어진 이 환상 열석은 이와키산에서 이어진 구릉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유적에서는 쓰가루 국정공원의 일부이기도 한 이와키산과 그 주변 지역의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가는 방법**

이 유적으로는 숲 속의 산책로(계단 있음)나 완만하게 조성된 배리어프리 길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숲 속에 마련된 산책로를 이용하면 밤나무 등 다양한 과일 나무들 사이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나무들은 이 지역에 정착한 선사 시대 사람들에게 식량을 제공했을 것입니다. 두 길 모두 이와키산을 바라볼 수 있는 탁 트인 공간으로 연결됩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성토(흙무지) 위에 있는 이 널찍한 부지의 중심에는 환상 열석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환상 열석 중심부에서는 이와키산을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와키산과 환상 열석의 위치**

이와키산은 후지산과 비슷한 형태의 성층 화산으로 좌우 대칭의 완만한 경사면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산의 모양이 후지산을 닮았다고 해서 지역명인 ‘쓰가루’를 붙여 ‘쓰가루 후지’라고도 불립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신앙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이 이와키산 정상에는 신사가 세워져 있습니다. 동지에 환상 열석에서 건너편의 이와키산을 바라보면 정확히 산 정상으로 해가 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 지역에 살았던 선사 시대 사람들에게 이와키산이 특히 중요한 존재였음을 의미합니다.

**신앙의 장, 환상 열석**

이 유적의 곳곳에서 갈돌, 석판(판 모양의 석제품), 토우 등이 발굴되었습니다. 제사가 행해졌던 다른 유적과 같은 모양의 유물이 출토된 것으로 보아 이 환상 열석도 제사를 지내는 신앙적인 장소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수혈식 건물 터**

이 탁 트인 부지 끝에서 원형 수혈식 건물(지름 13m)이 존재했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수혈식 건물 터의 크기와 이 유적에서 발견된 수혈식 건물 터가 단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비추어 보면, 이 건물은 제사를 지내는 장소로서 마을의 중심적인 존재였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 매장물과 관련 유적

오모리카쓰야마 유적 주변에서 발견된 출토품은 이 유적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스소노 지구 체육문화교류센터[링크]의 로비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출토품의 일부는 이 지역의 다른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과 함께 히로사키시립박물관[링크]에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일본 북부에서 제사가 행해졌던 다른 유적으로는 고마키노 유적[링크](아오모리현), 이세도타이 유적[링크](아키타현), 오유 환상 열석[링크](아키타현) 등이 있습니다.

001-010

---

### <日本語仮訳>

#### 大森勝山遺跡

青森県弘前市にある大森勝山遺跡では、1000を超える石が77か所にわたって並べられ、環状列石を作っています。この環状列石は紀元前1000年頃のもので、岩木山からつながる丘陵地に位置しています。岩木山と周辺地域は津軽国定公園の一部で、この遺跡からは、美しい眺めを楽しむことができます。

#### 行き方

この遺跡には、森の中の歩道（階段あり）でも、なだらかなバリアフリーの道でも行くことができます。森の中の歩道は、クリの木やその他の果樹の中を抜けていきます。こういった木々が、この地域に定住した先史時代の人々に食料を提供したのでしょう。2つの道とも、岩木山を望める開けたところに出ます。

この開けた土地は人工的に作られた盛土の上であり、その中心に環状列石があります。環状列石の中心からは、岩木山をはっきり見ることができます。

#### 岩木山と環状列石の位置

岩木山は、富士山に似た形の成層火山で、左右対称のなだらかな斜面が特徴です。その山容から、地域名の「津軽」をつけて「津軽富士」とも呼ばれています。岩木山は地元では信仰の対象であり、その頂上には神社が建てられています。冬至には、環状列石から見て、ちょうど岩木山の頂上に日が沈みます。これは、この地域に暮らしていた先史時代の人々にとって岩木山が特に重要だったということを意味しています。

#### 信仰の場としての環状列石

この遺跡の様々な場所から、石棒、岩版（板状の石製品）、土偶などが発掘されています。祭祀が行われていた他の遺跡と同様の遺物が出土していることから、この環状列石も信仰の場であったことがわかります。

#### 竪穴建物跡

この開けた土地の端では、円形の竪穴建物（直径 13m）があった跡が発見されています。この竪穴建物跡の大きさと、この遺跡で発見された竪穴建物跡は 1 つだけであることから、この建物は祭祀を行う場所であり、集落の中心的な存在であったものと考えられています。

#### 埋蔵物と関連遺跡

大森勝山遺跡周辺で発見された出土品は、この遺跡から車で 10 分の裾野地区体育文化交流センター [\[リンク\]](#) のロビーに展示されています。出土品の一部は、この地域の他の遺跡からの出土品とともに、弘前市立博物館 [\[リンク\]](#) にも展示されています。北日本で、祭祀が行われていた他の遺跡には、小牧野遺跡 [\[リンク\]](#)（青森県）、伊勢堂岱遺跡 [\[リンク\]](#)（秋田県）、大湯環状列石 [\[リンク\]](#)（秋田県）などがあります。

【タイトル】 史跡 是川石器時代遺跡

【想定媒体】 Web サイト

**<韓国語>****고레카와 석기시대 유적**

고레카와 석기시대 유적이란 아오모리현 하치노헤시에 있는 인접한 세 유적군의 총칭입니다. 이 유적은 나카이 유적(기원전 1,000 년~기원전 400 년), 훗타 유적(기원전 3,000 년~기원전 2,000 년), 이치오지 유적(기원전 4,000 년~기원전 2,000 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니이다강 근처 구릉지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들 유적을 조사한 결과 무덤 구덩이, 저장 구멍, 토기, 수혈식 건물 터와 대량의 칠기가 발굴되었습니다. 출토품은 하치노헤시 매장문화재센터 고레카와 조몬관의 기획전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 기획전에서는 선사 시대 일본 북부의 생활상과 공예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카이 유적**

나카이 유적은 조몬 시대 말기(기원전 1,000 년~기원전 400 년)에 약 700 년 동안 사람이 살았던 곳입니다. 이 유적의 중심에 있는 구릉지에서는 해시계 모양으로 배열된 돌이 발견되었는데, 이를 통해 이 장소가 제사의 장으로 기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구릉지의 동쪽과 서쪽에서는 여러 개의 무덤 구덩이가 발견되었고 남쪽과 북쪽에는 낮은 습지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낮은 습지대에서는 석기, 목기, 토기, 칠기와 더불어 호두껍데기와 밤껍질이 발견되었습니다. 구릉지의 북쪽 끝에서는 수혈식 건물 터가 발견되었습니다.

**나카이 유적의 식물과 생활**

이 유적의 토양 속 꽃가루, 목기와 칠기, 그리고 보존된 종자 등을 연구한 결과, 이 마을에 생육했던 식물의 종류와 그것들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밝힐 수 있었습니다. 호두나무와 칠엽수는 식량인 동시에 수혈식 건물이나 목공의 재료로 사용되었으며 옷나무에서 채취한 수액을 정제하여 옷을 만들고 유연성이 있는 사철나무 목재로는 활을 만들었습니다. 이들 유적은 마을 사람들이 주변의 식물을 이용하기 위해 토지를 관리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나카이 유적의 토기와 칠기**

나카이 유적에서는 정교한 장식이 달린 토기와 복잡한 모양의 칠기가 다수 출토되었습니다. 이 제작물들은 당시 사람들이 고도의 제작 기술과 뛰어난 디자인 감각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가메가오카식 토기’라고 불리는 이러한 양식의 토기는 일본 북부에서 나타나는 조몬 시대 말기의 미학적 특징이기도 합니다. ‘가메가오카식’이라는 용어는 아오모리현 북부의 가메가오카 석기시대 유적에서 발견된 토기에서 유래했습니다. 가메가오카식 토기는 도쿄국립박물관, 대영박물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등 세계 각지의 대표적인 박물관과 미술관에도 소장되어 있습니다.



하치노헤시 매장문화재센터 고레카와 조몬관에는 주로 나카이 유적과 니이다강 건너편에 있는 가자하리 유적에서 출토된 토기(기원전 2,000년~1,000년)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앉은 상태에서 양 손을 모은 자세를 취한 국보, 합장 토우와 그 외 수백 점의 중요문화재도 소장되어 있습니다.

#### 훗타 유적

훗타 유적은 나카이 유적보다 2,000년 정도 앞선 기원전 3,000년~기원전 2,000년 무렵의 유적입니다. 이 유적에서는 토기, 나무 열매를 저장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구덩이, 그리고 수혈식 건물 터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발견된 대다수의 토기는 입구가 넓고 바닥이 점점 좁아지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토기에는 장식이 많고 대담한 문양이 덧대어져 있기도 하지만, 이 유적보다 훨씬 이후의 시기에 형성된 나카이 유적의 토기와 같은 정교한 마감과 복잡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유적에서 출토된 몇몇 토기는 하치노헤시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 이치오지 유적

이치오지 유적은 고레카와 석기시대 유적의 세 유적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기원전 4,000년~기원전 2,000년 시기의 것으로 그 규모 또한 가장 큽니다. 이 유적에서는 수혈식 건물 터와 대량의 토기 및 토기 편이 포함된 최대 1.5m 두께의 층이 땅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층에는 토기 외에도 물고기와 동물의 뼈, 그리고 뼈나 뿔로 만든 낚시바늘, 빗 등의 도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유적에서 출토된 토기는 기다란 원통형에 새끼줄 문양(조몬, 縄文)이 있는 것이 특징이지만, 대부분은 훗타 유적이나 나카이 유적에서 출토된 토기보다 장식이 적습니다. 하치노헤시 박물관은 이치오지 유적에서 출토된 다양한 유물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 하치노헤시 매장문화재센터 고레카와 조몬관

가메가오카식 토기의 대표적인 출토품 대부분은 이 하치노헤시 매장문화재센터 고레카와 조몬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전시된 출토품으로는 토기 외에도 토우, 관옥(대롱옥, 돌을 대롱 모양으로 성형한 장식품), 기타 장식품과 옷칠을 한 활이나 바구니 등의 도구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센터에서는 선사 시대 일본인들의 삶의 모습을 소개하는 비디오를 상영하며 공예 체험 코너와 기념품을 판매하는 뮤지엄 숍도 갖추고 있습니다. 영어로도 정보가 제공될 뿐만 아니라, '포켓 학예사'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 다국어 음성 해설 가이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현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유적

'훗카이도·도호쿠 지방 북부의 조몬 유적군' 중에서 가메가오카 석기시대 유적[링크], 고마키노 유적[링크], 산나이 마루야마 유적[링크], 후타쓰모리 패총[링크] 등의 유적이 아오모리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와테현의 고쇼노 유적[링크]도 고레카와 석기시대 유적에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자리하고 있으니 한 번쯤 둘러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001-011

---

### <日本語仮訳>

#### 是川石器時代遺跡

是川石器時代遺跡とは、青森県八戸市にある3つの隣接する遺跡の総称です。この遺跡は、中居遺跡（紀元前1000年～紀元前00年）、堀田遺跡（紀元前3000年～紀元前2000年）、一王寺遺跡（紀元前4000年～紀元前2000年）から構成されており、新井田川の近くの台地上に位置しています。これらの遺跡の調査によって、墓穴、貯蔵穴、土器、竪穴建物跡および大量の漆器が発掘されました。出土品は、八戸市埋蔵文化財センター是川縄文館の企画展で展示されています。これらの企画展では、北日本の先史社会の暮らしと工芸が紹介されています。

## 中居遺跡

中居遺跡には、縄文時代の晩期（紀元前1000年～紀元前400年）に、700年間にわたって人が暮らしていました。この遺跡の中心には高台があり、日時計のような配石が発見されていることから、この場所は、祭祀の場として機能していたと考えられています。この高台の東西では、多くの墓穴が発見されており、高台の南北には低湿地があります。この低湿地からは、石器、木器、土器、漆器、さらにクルミの殻やクリの皮が見つっています。高台の北端では、竪穴建物跡が発見されています。

## 中居遺跡の植物と暮らし

この遺跡の土壌中の花粉、木器や漆器、また保存されていた種子に関する研究の結果、この集落に生育していた植物の種類と、それらがどのように使われていたのかが明らかになりました。クルミの木やトチノキの木が、食料になるとともに、竪穴建物や木工の材料になり、漆の木を切り込み採取した樹液を精製して漆が作られ、柔軟性のあるスピンドルツリーの木材が、弓づくりの材料になっていました。これらの痕跡は、集落の人々が、身の回りの植物を利用できるように土地を管理していたことを示しています。

## 中居遺跡の土器と漆器

中居遺跡からは、精巧な装飾の土器や複雑な漆器が多く出土しました。これらの製作物は、当時の人々が高度な製作技術と優れたデザインセンスを持っていたことを伝えるものです。この様式の土器は「亀ヶ岡式土器」と呼ばれ、北日本の縄文時代晩期の美学的特徴となっています。「亀ヶ岡式」という言葉は、青森県北部の亀ヶ岡石器時代遺跡で発見された土器に由来します。亀ヶ岡式土器は、東京国立博物館、大英博物館、メトロポリタン美術館など、世界各地の代表的な博物館・美術館にも所蔵されています。

八戸市埋蔵文化財センター是川縄文館では、主として、中居遺跡と、新井田川の対岸にある風張遺跡から出土した土器（紀元前2,000～1,000年）を展示しています。また、座って両手を合わせた姿の国宝、合掌土偶や、その他数百点の重要文化財が収蔵されています。

## 堀田遺跡

堀田遺跡は、中居遺跡より 2,000 年ほど古い紀元前 3000 年～紀元前 2000 年ごろの遺跡です。この遺跡からは、土器、木の実を貯蔵していたと考えられるいくつかの穴や、竪穴建物跡が見つかりました。ここで発見された土器の多くは口が広く、底が先細になっています。これらの土器には装飾が多く、大胆な模様が付けられた物が多いものの、この遺跡からはるかに後の中居遺跡の土器のような高度な仕上がりが複雑さは見られません。この遺跡から出土した土器のいくつかは、八戸市博物館に展示されています。

#### 一王寺遺跡

一王寺遺跡は、是川石器時代遺跡の 3 つの遺跡の中で最も古い紀元前 4000 年～紀元前 2000 年のもので、かつ最も大きな遺跡です。この遺跡から、竪穴建物跡と最も厚いところで 1.5m に達する大量の土器と土器片を含んだ層が、土中から見つかりました。これらの層には、土器のほか、魚と動物の骨、また骨や角から作られた釣り針・櫛などの道具も含まれていました。この遺跡から出土した土器は、長い円筒形で、縄の文様があるものの、ほとんどの場合、堀田遺跡や中居遺跡から出土した土器よりも装飾は少なくなっています。八戸市博物館は、一王寺遺跡からのさまざまな出土品を展示しています。

#### 八戸市埋蔵文化財センター是川縄文館

亀ヶ岡式土器の優れた出土品は、八戸市埋蔵文化財センター是川縄文館に数多く展示されています。出土品には、土器のほか、土偶、管玉（石を管状に成型した装飾品）、その他の装飾品および漆を塗った弓や籠といった道具などがあります。このセンターでは、先史時代の日本での暮らしを紹介するビデオを上映しており、工芸体験コーナーや、お土産を販売するミュージアムショップもあります。英語での情報提供を行っているのに加え、「ポケット学芸員」というアプリケーションを使えば、多言語での音声解説を聞くこともできます。このアプリケーションは、現地でダウンロードできます。

#### 関連遺跡

「北海道・北東北の縄文遺跡群」のうち、亀ヶ岡石器時代遺跡 [\[リンク\]](#)、小牧野遺跡 [\[リンク\]](#)、三内丸山遺跡 [\[リンク\]](#) およびニツ森貝塚 [\[リンク\]](#) などの遺跡は青森県に位置しています。岩手県の御所野遺跡 [\[リンク\]](#) も是川石器時代遺跡から比較的近いので、ぜひ立ち寄ってみてください。

【タイトル】 史跡 田小屋野貝塚

【想定媒体】 Web サイト

**<韓国語>****다고야노 패총**

일본해에서 수 km 떨어진 내륙에 자리한 아오모리현의 다고야노 패총은 쓰가루 평야가 내려다보이는 구릉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에서 발견된 토기 편과 인골을 통해 이 유적이 기원전 4,000년~2,000년경에 형성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고고학적 조사 과정에서 패총(조개더미), 조개껍데기로 만든 팔찌, 고래뼈로 만든 도구, 수혈식 건물 터가 출토되었습니다.

**패총**

보통 버려진 쌍각류의 껍데기와 동물의 뼈가 쌓여 형성되는 패총은 과거에 해안과 맞닿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적의 바다 쪽에서 발견됩니다. 패총은 선사 시대 사람들의 식문화와 생활 양식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지난 1만 년 동안 해안 환경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다고야노 패총의 출토품**

다고야노 패총에 있는 각 패총은 거의 대부분 기수재첩(일본재첩, 학명: *Corbicula japonica*)의 껍데기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이 장소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기수재첩이 중요한 식재료였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또한 기수역(강물과 바닷물이 섞여 소금의 농도가 다양한 구역)에 서식하는 기수재첩이 주로 발견되었다는 점을 통해 이 지역에 사람이 살았을 당시에는 패총이 해안 근처의 호수에 면해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현재는 수 km 떨어진 해안에 자리한 주산코 호수가 과거에는 다고야노 패총까지 더 남쪽으로 펼쳐져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골**

다고야노 패총에서 발견된 수혈식 주거지 터의 패총(조개무지가 쌓인 층)에서는 여러 구의 인골이 출토되었습니다. 조사를 통해 이 인골은 성인 여성의 것으로 밝혀졌는데,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이 여성은 약 6,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팔찌와 교역**

다고야노 패총에서 발견된 출토품 중에서도 쌍각류 껍데기로 만든 팔찌는 쓰가루 반도의 서쪽 해안에서 주로 발견됩니다. 다고야노 패총에서는 가공되지 않은 조개껍데기와 다양한 제작 단계에 있는 팔찌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팔찌가 다고야노 패총에서 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건너편에 자리한 홋카이도 남부 유적에서 몇 개의 완성된 팔찌가 발굴되고 다고야노 패총에서 홋카이도의 흑요석으로 만든 도구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 다고야노 마을에 살던 사람들이 이 팔찌를 이용해 홋카이도 남부 마을과 교역을 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매장물과 관련 유적**

다고야노 패총에서 출토된 유물은 쓰가루시 조몬주거 전시자료관 카루코와 쓰가루시 기즈쿠리 가메가오카 고고자료실에 가메가오카 석기시대 유적[링크]과 인근 다른 유적의

출토품과 함께 전시되어 있습니다. 가메가오카 석기시대 유적은 다고야노 패총에서 도보로 5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아오모리현에 있는 다른 유적으로는 산나이 마루야마 유적[링크], 고마키노 유적[링크], 오다이야마모토 유적[링크] 등이 있습니다.

001-012

---

## <日本語仮訳>

### 田小屋野貝塚

青森県の田小屋野貝塚は、日本海から数 km 内陸の、津軽平野を見下ろす台地に位置しています。ここで発見された土器片と人骨から、この遺跡は紀元前 4000～2000 年頃のものだと考えられています。考古学的調査により、貝塚、貝殻から作られた腕輪、クジラの骨から作られた道具、および竪穴建物跡が出土しています。

#### 貝塚

貝塚は一般的に、捨てられた二枚貝の貝殻と動物の骨からできており、昔は海岸に面していたと思われる遺跡の海側で見つかります。貝塚は、先史時代の人々の食料と生活様式について教えてくれるとともに、この 1 万年の間に海岸の環境がどう変わってきたのかを示しています。

#### 田小屋野貝塚での発見

田小屋野貝塚の各貝塚は、ほぼヤマトシジミ（学名: *Corbicula japonica*）の貝殻だけでできています。このことから、この場所に住んでいた人々にとってヤマトシジミが重要な食料であったことがわかります。ヤマトシジミは汽水域（川の水と海の水が混ざり、塩分濃度が多様な区域）に生息する貝なので、この場所に人が住んでいた頃、貝塚は海岸近くの湖に面していたものと考えられます。おそらく、現在は数 km 離れた海岸にある十三湖が、かつては田小屋野貝塚まで南に広がっていたのでしょう。

#### 人骨

田小屋野貝塚の竪穴住居跡の貝層では、複数の人骨が出土しています。調査により、これらの骨は成人女性のものであることが分かっており、放射性炭素年代測定の結果、この女性がおよそ 6,000 年前に生きていたことが明らかになりました。

#### 腕輪と交易

田小屋野貝塚で発見された出土品のうち、二枚貝の貝殻から作られた腕輪は、津軽半島の西海岸沿いで見つかっています。田小屋野貝塚では、未加工の貝殻や、様々な製作段階の腕輪が発見されており、これは腕輪が田小屋野貝塚で製作されていたことを意味しています。対岸の北海道南部の遺跡では、腕輪の完成品がいくつか発掘されており、また、田小屋野貝塚では北海道の黒曜石で作った道具が見つかることから、田小屋野の集落に住む人々は、これらの腕輪を使って、北海道南部の集落と交易を行っていたであろうことが推測できます。

#### 埋蔵物と関連遺跡

田小屋野貝塚からの出土品は、つがる市縄文住居展示資料館カルコとつがる市木造亀ヶ岡考古資料室に、亀ヶ岡石器時代遺跡 [\[リンク\]](#) と、近くにある他の遺跡からの出土品とともに展示されています。亀ヶ岡石器時代遺跡は、田小屋野貝塚から徒歩 5 分で行くことができます。青森県にあるその他の遺跡には、三内丸山遺跡 [\[リンク\]](#)、小牧野遺跡 [\[リンク\]](#)、および大平山元遺跡 [\[リンク\]](#) などがあります。

【タイトル】 史跡 亀ヶ岡石器時代遺跡

【想定媒体】 Web サイト

**<韓国語>****가메가오카 석기시대 유적**

가메가오카 석기시대 유적(기원전 약 1,000 년)에서는 후에 ‘가메가오카식 토기’라고 불리게 되는 조몬 시대(기원전 13,000 년~기원전 400 년) 후반에 일본 북부에서 만들어진 토기의 일부가 발견되었습니다. 고도의 제작 기술과 훌륭한 디자인 감각을 보유한 이 공예품은 곧 널리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가메가오카식 토기는 도쿄국립박물관, 대영박물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등 세계 각지의 대표적인 박물관과 미술관에도 소장되어 있습니다.

**예술과 정신성**

이 유적을 발굴한 결과, 죽은 사람을 기리기 위해 다양한 물품을 함께 묻은 토광묘(타원형의 구덩이를 파고 시신을 매장한 무덤)가 밀집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무덤 구덩이와 유적 곳곳에서는 잘 갈고 닦여진 토기, 광택이 있는 비취 구슬, 옷기, 식물 섬유로 짠 물건, 정교한 머리장식을 착용하고 커다란 눈이 특징인 속이 빈 중공 토우 등 다양한 매장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렇게 장식품이 공물로써 함께 묻혔다는 사실은 조몬 시대 말기의 사회가 발달된 정신 세계를 보유하고 복잡한 형식의 제사를 지낸 진화한 사회였음을 말해줍니다.

**여러 마을이 공동으로 사용한 무덤지 유적**

조몬 시대 말기에 가까운 기원전 1,500 년~기원전 400 년경이 되면 무덤지는 마을 바깥에 만들어지고 여러 마을이 함께 공유하는 형태로 변모합니다. 또한 의식을 치르는 장소와도 구분되도록 분리했습니다. 이전의 마을(기원전 3,000 년~기원전 2,000 년)과 비교해 마을의 규모가 작아지고 분산되면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마을이 공동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메가오카 석기시대 유적은 조몬 시대 말기의 독립적인 형태를 잘 보여주는 무덤지입니다.

**인접한 관련 유적**

가메가오카 석기시대 유적에는 몇몇 안내 표지판과 정교한 머리장식을 착용하고 커다란 눈이 특징인 토우상이 있습니다. 근처에 있는 다고야노 패총[링크]까지는 걸어서 15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쓰가루시 조몬주거 전시자료관 카루코[링크]와 쓰가루시 기즈쿠리 가메가오카 고고자료실[링크]에는 가메가오카 석기시대 유적과 이 지역에 있는 다른 조몬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다소 멀기는 하지만, 같은 아오모리현 내에 자리한 하치노헤시의 하치노헤시 매장문화재센터 고레카와 조몬관에는 고레카와 석기시대 유적에서 발견된 가메가오카식 토기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

## <日本語仮訳>

### 亀ヶ岡石器時代遺跡

亀ヶ岡石器時代遺跡（紀元前約 1,000 年）の発掘では、後に「亀ヶ岡式土器」と呼ばれるようになった、縄文時代（紀元前 13,000 年～紀元前 400 年）後半に北日本で作られた土器の一部が発見されています。これらの製作物は、高度な製作技術と優れたデザインセンスにより、その名が知ら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亀ヶ岡式土器は、東京国立博物館、大英博物館、メトロポリタン美術館など、世界各地の代表的な博物館・美術館にも所蔵されています。

#### 芸術と精神性

発掘の結果、死者に供えるためのさまざまな品と一緒に埋められた土坑墓（土を楕円形に掘り下げて遺体を埋葬した墓）が密集していることが明らかになりました。磨き上げられた土器、光沢のあるヒスイ玉、漆器、植物の繊維で編んだ物、精巧な頭飾りを付け、大きな目が特徴の、中が空洞の中空土偶など、墓穴や遺跡の様々な場所から各種の埋蔵物が見つかっています。このような装飾品が捧げられ埋められているという点を考えると、縄文時代晩期の社会が、発達した精神世界を持ち、複雑な祭祀を行う、進化した社会であったことが分かります。

#### 複数の集落が共同で使っていた墓地遺跡

縄文時代の終わりに近い紀元前 1,500 年～紀元前 400 年ごろになると、墓地は集落の外に作られ、複数の集落で共有さ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また、儀式を行う場所とは分けら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以前の集落（紀元前 3,000 年～紀元前 2,000 年）と比較して、集落の規模が小さく分散型になるのに伴って、このような発展がありました。亀ヶ岡石器時代遺跡は複数の集落が共同で使用していたと考えられており、縄文時代末期の独立型墓地の例となっています。

#### 隣接する関連遺跡

亀ヶ岡石器時代遺跡には、いくつかの案内表示板と、精巧な頭飾りを付け、大きな目が特徴の土偶の像があります。近くには田小屋野貝塚 [\[リンク\]](#) もあり、歩いて 15 分程度で着きます。つがる市縄文住居展示資料館カルコ [\[リンク\]](#) と、つがる市木造亀ヶ岡考古資料室 [\[リンク\]](#) には、亀ヶ岡石器時代遺跡およびこの地域にあるその他の縄文遺跡からの出土品が展示されています。やや遠いですが、同じ青森県内の八戸市には、八戸市埋蔵文化財センター是川縄文館があり、是川石器時代遺跡で発見された亀ヶ岡式土器が展示されています。



【タイトル】 史跡 大平山元遺跡

【想定媒体】 Web サイト

**<韓国語>****오다이야마모토 유적**

아오모리현 북부의 쓰가루 반도에 있는 이 선사 시대 유적에서는 석기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토기 몇 점도 발굴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발굴된 제작물은 선사 시대 일본 북부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구석기 시대 말기를 거치며 어떻게 변화하고 조몬 시대 초기(기원전 13,000년)에 이르러 어떻게 한 곳에 정착하는 형태로 바뀌게 되었는지를 알려줍니다.

**석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오다이야마모토 유적에서 출토된 석기로는 도끼나 칼 등과 같은 날붙이, 동물의 가죽을 벗기거나 나무를 세공하기 위한 도구, 그리고 사냥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뾰족한 석기 등이 있습니다. 크고 초보적인 도구부터 기술적으로 세련된 날붙이나 화살촉에 이르기까지 그 형태와 크기가 매우 다양한 이들 석기는 사슴 등 빠르게 움직이는 동물을 사냥할 목적으로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부분의 석기는 점판암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점판암은 근처 강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분석에 따르면 당시 홋카이도나 간토 지방에서 볼 수 있는 지역적인 기술 등 다양한 석재 가공 기술이 이곳에서도 이용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석기와 가공 기술의 다양성은 다른 지역이나 집단과 중요한 교류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토기, 그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의 전환**

오다이야마모토 유적에서 발견된 토기 편은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이른 시기의 것입니다. 같은 토기에서 나왔을 것으로 추정되는 소량의 토기 편에서 탄화물이 부착되었던 흔적이 확인되었는데, 탄소 연대를 측정한 결과 토기 편이 기원전 13,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유럽이나 중동에서 토기가 사용되었던 시기보다 수천 년이나 앞선 것입니다.

조몬 시대의 ‘조몬(縄文)’이라는 명칭은 ‘새끼줄(繩)을 굴려서 덧댄 문양(文)’이라는 뜻으로 이 새끼줄 문양은 조몬 시대 토기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나 오다이야마모토 유적에서 발견된 토기 편에는 이 새끼줄 문양이 없습니다. 원래 조리 등 순수하게 실용적인 목적으로 이용되었던 토기는 운반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토기가 출현했다는 것은 한 곳에 정착하는 정주형 삶의 방식으로 전환했음을 의미합니다. 오다이야마모토 유적에서 출토된 토기 편은 조몬 시대 극히 초기의 것으로서 이 시기부터 일본인들은 한 곳에 정착해 살아가며 생활을 영위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출토품을 볼 수 있는 장소

토기 편과 석기는 소토가하마마치 오야마 후루사토 자료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오다이야마모토 유적과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맞은편에 자리한 이 자료관은 원래 초등학교로 사용되었던 건물입니다.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기본적인 내용 중 일부는 영어로도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 외 주변 볼거리

쓰가루 반도에는 가메가오카 석기시대 유적[링크]과 다고야노 패총[링크] 등 다양한 조몬 시대(기원전 13,000 년~기원전 400 년) 유적이 있습니다. 가메가오카 석기시대 유적에서는 가장 세련된 형태로 보여지는 조몬 토기 몇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외에 다른 일본 북부의 유적지를 방문하면 조몬 시대와 당시 마을의 발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001-014

---

## <日本語仮訳>

### 大平山元遺跡

青森県北部の津軽半島にあるこの先史時代の遺跡では、石器に加えて、日本で最初期の土器がいくつか発掘されています。ここで発掘された製作物は、先史時代の北日本の人々の暮らしが、旧石器時代末期の間はどう変化し、縄文時代の始め（紀元前 13,000 年）に定住型の暮らしにどのように変わっていったのかを示しています。

石器が私たちに教えてくれること

大平山元遺跡で出土した石器には、斧、ナイフのような刃物、動物の皮をはぎ木を細工するための道具、および狩猟に使われたと思われる先の尖った石器などがあります。これらの石器は、大型で初歩的な道具から、技術的に洗練された刃物や矢じりまで、形も大きさもさまざまで、シカなどの動きが速い動物を狩る目的で作られたと考えられています。

石器のほとんどは粘板岩から作られています。粘板岩は、近くの川で入手することができたと思われま。分析の結果、当時の北海道や関東地方でみられる地域的な技術など、多様な石材加工技術が用いられていたことが分かりました。こうした石器と加工技術の多様性から、他の地域や集団と重要な交流があったであろうことがわかります。

土器、および新しい暮らし方への移行

大平山元遺跡で見つかった土器片は、世界で最も古い時期のもので、同一のものと考えられている少量の土器片に炭化物が付着していることが分かり、炭素年代測定を行った結果、これらの土器片が紀

元前 13,000 年まで遡れることがわかりました。これは、欧州や中東で土器が使われるより数千年も前のことです。

縄文時代の「縄文」という名前は、「縄を転がして付けた文様」という意味で、縄による文様は、縄文時代の典型的な土器の特徴なのです。しかし、大平山元遺跡で見つかった土器片には、文様がありません。本来、土器は、調理など、純粋に実用的な機能を果たしていたと思われませんが、土器を運搬するのは簡単なことではなく、土器が出現したということは、定住型の暮らしに移行したことを示しています。大平山元遺跡から出土した土器片は、縄文時代のごく初期からのものであり、この時期から、日本の人々は、定住型の生活を営むようになってきたものと考えられます。

#### 出土品が見られる場所

土器片と石器は、外ヶ浜町大山ふるさと資料館に展示されています。この資料館は、大平山元遺跡から道路をはさんで向かい側にあり、以前は小学校だった建物です。入館は無料です。基本的な内容については、一部、英語での情報提供も行っています。

#### 周辺のその他の見どころ

津軽半島には、亀ヶ岡石器時代遺跡 [\[リンク\]](#) や田小屋野貝塚 [\[リンク\]](#) など、多くの縄文時代（紀元前 13,000 年～紀元前 400 年）の遺跡があります。亀ヶ岡石器時代遺跡では、最も洗練された縄文土器がいくつか発見されています。その他の北日本の遺跡も訪れてみることで、縄文時代と、その時期の集落の発展について、さらに深く知ることができるでしょう。

【タイトル】 史跡 二ツ森貝塚

【想定媒体】 Web サイト

## &lt;韓国語&gt;

## 후타쓰모리 패총

아오모리현 오가와라 호수에서 서쪽으로 수 km 떨어진 후타쓰모리 패총이 있는 자리는 기원전 3,500 년~기원전 2,000 년에 걸쳐 여러 마을이 존재했던 곳입니다. 이 유적 곳곳에서는 150 여 개의 수혈식 건물 터와 여러 패총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유적에는 수혈식 건물 2 채가 복원되어 있으며 사슴뿔로 만든 장신구 등의 출토품은 인근의 후타쓰모리 패총관[링크]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 마을의 규모와 배치

패총을 내려다볼 수 있는 주차장 근처 전망대에는 마을의 배치를 나타낸 안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후타쓰모리 패총 마을은 상당히 규모가 큰 마을로 무덤지, 모은 식량을 저장하는 구멍, 패총과 함께 토기나 석기 등의 도구를 폐기하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 환경이 변화한 증거

기원전 3,900 년경 후타쓰모리 패총은 커다란 만을 내려다보는 위치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세기에 걸쳐 해수면이 낮아지고 해안선이 물러나면서 원래 만이었던 장소는 기수호(바다와 연결되어 바닷물과 강물이 섞인 호수)인 오가와라 호수로 변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패총에 쌓인 조개껍데기의 종류와 분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층에는 굴이나 대합 외에도 기타 해양성 조개류의 껍데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 상층에는 기수재첩(일본재첩) 등 기수역에 사는 조개류의 껍데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생존을 위한 활동

또한 패총에는 물고기, 백조, 오리, 사슴, 멧돼지 등 동물의 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 마을의 사람들이 조개류의 채집 뿐만 아니라, 사냥과 낚시로도 식량을 구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밤을 보존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던 저장 구멍이 발견된 것은 사람들이 숲에서도 식량을 구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 관련 유적

일본 북부에서 이와 비슷한 마을 터는 산나이 마루야마 유적[링크](아오모리현), 고쇼노 유적[링크](이와테현), 오후네 유적[링크](홋카이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 &lt;日本語仮訳&gt;

## 二ツ森貝塚

青森県小川原湖から数キロ西にある二ツ森貝塚の場所には、紀元前 3,500 年～紀元前 2,000 年にかけて、複数の集落が存在していました。この遺跡の様々な場所から、150 近くの竪穴建物跡と、複数の貝塚が発見されました。この遺跡では竪穴建物が 2 棟復元されており、シカの角から作られた装飾具などの出土品は、近くの二ツ森貝塚館 [\[リンク\]](#) に展示されています。

### 集落の規模と配置

駐車場付近の展望台からは貝塚を見渡すことができ、集落の配置が示された案内図が設置されています。二ツ森貝塚の集落は大規模なもので、集落には、墓地、集めた食料を貯蔵する穴、貝塚とともに、土器や石器などの道具を廃棄する場所がありました。

### 環境が変化した証拠

紀元前 3,900 年頃、二ツ森貝塚は、大きな湾を見下ろす位置にあったと考えられています。何世紀もかけて、海面が下がって海岸線が遠ざかり、湾だった所は汽水湖（海と繋がっていて、川の水と海の水がまざった湖）の小川原湖になりました。これらの環境の変化は、貝塚の中の貝殻の種類と分布から確認できます。下の層には、カキ、ハマグリ、および海に住むその他の貝の殻が含まれています。いっぽう、上の層には、ヤマトシジミなど、汽水域に住む種の貝殻が含まれています。

### 生存のための活動

また、貝塚には、魚、ハクチョウ、カモ、シカ、イノシシの骨も含まれています。これが示すのは、この集落の人々が、貝類を集めるとともに、狩りをし魚を獲っていたということです。クリを保存するのに使われることが多かった貯蔵穴が見つかることから、人々が森で食料の採集も行っていたことを示しています。

### 関連遺跡

類似する集落跡は、北日本では三内丸山遺跡 [\[リンク\]](#)（青森県）、御所野遺跡 [\[リンク\]](#)（岩手県）、および大船遺跡 [\[リンク\]](#)（北海道）で発見されています。

【タイトル】 史跡 御所野遺跡

【想定媒体】 Web サイト

**<韓国語>****고쇼노 유적**

이와테현 북부에 자리한 고쇼노 유적에서는 기원전 2,500 년경 이후에 대규모 마을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유적의 곳곳에서 800 개 이상의 수혈식 건물 터가 발견되었으며 유적을 가까이에서 견학할 수 있는 산책로와 박물관도 정비되었습니다.

**대규모 마을**

고쇼노 유적은 규모가 큰 조몬 마을의 구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유적입니다. 이는 기원전 3,000 년부터 2,000 년 시기에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마을의 형태입니다. 마을 중심부에는 매장을 위한 공간이 있고 그 주변에는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는 구역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고고학적 조사를 통해 수혈식 건물 터가 마을의 동쪽과 중앙, 그리고 서쪽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중앙부에는 여러 개의 돌을 배열하여 위치를 표시한 공동 무덤지가 있는데, 그 옆의 성토(흙무지)에서는 대량의 장식 토기와 석기가 출토되었습니다. 출토품에서 장식적인 특징이 보인다는 점은 이곳이 의식이 행해지던 중요한 장소였음을 의미합니다.

**자연 환경**

이 유적은 숲으로 둘러싸인 넓은 구릉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하면 작은 시냇물이 구불구불 흐르는 좁은 계곡의 건너편으로 유적이 보입니다. 여기서 지붕이 달린 휘어진 다리를 건너면 유적 구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적 내부에 심어져 있는 호두나무, 밤나무, 칠엽수, 옷나무 등의 나무는 이곳에 사람이 살았던 당시에도 이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유적 안을 둘러볼 수 있는 산책로가 정비되어 있으며 여러 식물이 어떻게 이용되었는지가 설명된 안내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옷나무에서 수액을 채취해 정제한 옷은 토기를 장식하는 재료로 사용되었습니다. 열매를 맺는 나무는 식량으로, 그리고 건축용 목재나 장작으로도 활용되었습니다.

**수혈식 건물 터**

이 유적에는 몇 개의 수혈식 건물 터가 복원되어 있습니다. 수혈식 건물의 지붕은 초가지붕처럼 풀로 엮은 지붕이었을 거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건물이 불에 탄 흔적을 조사한 결과 고쇼노 유적의 일부 건물에는 흙지붕도 사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조몬 시대(기원전 13,000 년~기원전 400 년)에 지어진 수혈식 건물의 크기는 다양하지만, 4 개 또는 6 개의 기둥이 타원형 구덩이 안에 직접 꽂혀진 형태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지붕은 지표면까지 쪽 뻗어 건물을 완전히 덮는 구조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건물 내부에는 식사 준비 등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화로가 있으며 일부 건물은 다락방과 같은 저장용 창고 공간도 갖추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쇼노 조몬 박물관**

고쇼노 조몬 박물관에는 고쇼노 유적과 인근 조몬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불에 탄 주거지의 발견’이라는 전시실에서는 고쇼노 유적에서 이루어진 발굴 작업과 조몬 시대의 수혈식 건물 터 구조에 관한 조사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전시실에서는 유리로 된 바닥을 통해 4,200년 전 수혈식 건물의 불탄 잔해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고쇼노 조몬 월드’라는 전시실에서는 발굴된 토기와 석기를 전시하고 프로젝션 매핑을 사용해 선사 시대 고쇼노 마을의 삶의 모습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2층의 제3 전시실에서는 정교한 장식이 있는 가메가오카식 토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몬 시대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공방에서는 토기 제작, 새끼줄(조몬, 縄文) 엮기, 장식품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관람 시에는 입장료가 필요하며 영어로도 정보를 제공합니다.

#### 관련 유적

이 외에 같은 시기에 형성된 다른 마을은 오후네 유적(홋카이도)과 산나이 마루야마 유적(아오모리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산나이 마루야마 유적은 일본에서 가장 큰 규모의 조몬 시대 유적입니다.

001-016

---

### <日本語仮訳>

#### 御所野遺跡

岩手県北部にある御所野遺跡では、紀元前 2500 年頃以降の大規模な集落が確認されています。遺跡の様々な場所から、800 を超える竪穴建物跡が見つかっており、遺跡を間近で見学できる遊歩道と博物館が整備されています。

#### 大規模な集落

御所野遺跡は、大規模な縄文集落の構成を理解するうえで重要な遺跡です。この種の集落は、紀元前 3000 年から 2000 年にかけて一般的なものでした。集落の中心には埋葬を行う空間があり、その周りにそれぞれの機能を持つ区域が配置されていました。考古学的調査により、竪穴建物跡は集落の東部、中央部、と西部に集中していることが明らかになりました。中央部には、いくつかの配石によって場所が示されている共同墓地がありそのそばの盛土からは、大量の装飾土器や石器が出土しています。出土品に装飾が見られることから、儀式が行われる重要な場所であったと考えられています。

#### 自然環境

この遺跡は広い高台にあり、森に囲まれています。駐車場に着くと、遺跡は小川が蛇行して流れる狭い谷の向こう側にあり、屋根のあるカーブした橋を渡って遺跡のエリアに入ります。遺跡内には、クルミ、クリ、トチノキ、漆といった木々が生えており、ここに人々が住んでいた頃にもこれらの木が生えていたと思われます。遺跡内をめぐるときの歩道があり、植物がどのように利用されていたかを説明する案内板が設置されています。ウルシの木からは樹液を採り、精製して漆を作り、土器を装飾するための材料となりました。実のなる木は食料になり、また建築用の木材、薪としても活用されました。

## 竪穴建物跡

この遺跡では、いくつかの竪穴建物跡が復元されています。竪穴建物の屋根は茅葺のようなものだったと一般には考えられていますが、建物の焼跡を調べたところ、御所野遺跡では一部、土屋根も使われていたようです。

縄文時代（紀元前 13,000 年～紀元前 400 年）の竪穴建物の大きさはさまざまですが、4 本または 6 本の柱が楕円形の穴に直接差し込まれているのが一般的です。その屋根は、地表面にまで達しており、しっかりと覆われた構造になっています。内部には食事の準備などをしたと思われる炉があり、貯蔵庫として屋根裏のような空間を備えた建物もあったと考えられています。

## 御所野縄文博物館

御所野縄文博物館では、御所野遺跡やその他の近隣の縄文遺跡からの出土品が展示されています。「焼けた住居の発見」という展示室では、御所野遺跡での発掘作業と縄文時代の竪穴建物跡の構造に関する調査について、詳しく説明されています。この展示室の床はガラス張りになっており、その下にある 4200 年前の竪穴建物の焼跡を観察することができます。「御所野縄文ワールド」という展示室では、発掘された土器や石器が展示するとともに、プロジェクションマッピングを使って、御所野集落における先史時代の暮らしが紹介されています。2 階の第 3 展示室では、高度な装飾のある亀ヶ岡式土器が紹介されています。

また、縄文時代を体験できる工房があり、土器作り・縄文編み・装飾品作りなどを楽しむことができます。博物館の観覧には入館料が必要で、英語での情報提供も行っています。

## 関連遺跡

同時期の他の集落は、他に大船遺跡（北海道）や三内丸山遺跡（青森県）で発見されています。三内丸山遺跡は、日本最大級の縄文遺跡です。



【タイトル】 史跡 伊勢堂岱遺跡

【想定媒体】 Web サイト

**<韓国語>****이세도타이 유적**

아키타현 북부에 자리한 이세도타이 유적에는 4,000 개 이상의 돌을 사용한 4 개의 환상 열석(거대한 선돌이 둥글게 배치된 유구)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이곳의 환상 열석은 기원전 2,000 년 무렵 200 년에 걸쳐 축조되었으며 제사를 지내는 장소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환상 열석 주변에서는 다양한 양식과 디자인의 토우 등 토제품이 대량으로 출토되었습니다.

**돌의 산지**

환상 열석은 세계유산에도 등재된 시라카미 산지가 바라보이는 고지대 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환상 열석에는 요네시로강과 오사루베강 등 이 지역을 흐르는 강에서 가져온 다양한 종류의 돌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돌들은 최대 5km 떨어진 거리에서 운반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토지의 정비**

환상 열석을 조사한 결과, 돌을 배열하기 전에 부지가 평탄하게 정비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솟아오른 땅은 깎고 움푹 팬 곳은 메우는 당시의 평탄화 작업은 돌이나 나무로만 만든 단순한 도구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환상 열석 주변의 건물**

환상 열석 바깥쪽 가장자리 주변에서 기둥으로 지지한 건물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건물이 무슨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조사에 따르면 주거지라기 보다는 제사를 지내는 장소로서 주변 지역의 여러 마을이 공유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들 건물은 시신을 매장할 준비를 할 때 사용되었을 거라는 추측도 존재하는데, 환상 열석 주변에서 무덤 구덩이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 상당히 가능성 있는 추측으로 여겨집니다. 토양이 산성이기 때문에 인골은 남아있지 않지만, 토우와 부장품이 여러 무덤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몇몇 환상 열석 주변에는 기둥을 세우기 위한 구멍이 발굴된 상태 그대로 남아 있으며, 건물의 규모를 느낄 수 있도록 새로 기둥을 세웠습니다.

**토우**

이세도타이 유적에서는 사람의 모습을 한 독특하고 다양한 표정의 토우가 200 개 이상 발견되었습니다. 이들 토우는 납작한 판과 같은 모양의 토우(판상 토우)부터 내부가 비어있는 토우(중공 토우)까지 그 양식과 디자인이 매우 다양합니다. 단순한 디자인의 토우는 손발이 확실하지 않고 추상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반면, 정교한 토우는 섬세한 문양이나 강조된 곡선 등 신체의 각 부분을 구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토우에는 의도적으로 훼손된 흔적이 있는데, 이는 제사를 지낼 때 기도를 드리는 방식의 하나로 일부러 파손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세도타이 유적 조문관

유적 입구에 있는 이세도타이 유적 조문관[링크]에서는 밝은 조명을 비추는 유리 상자에 출토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명은 토우 등 토제품의 표정과 복잡한 형태를 좀 더 선명하고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강조합니다. 또한 이 유적과 환상 열석의 개요를 소개한 전시에는 고고학적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정보가 발굴 당시의 사진과 함께 크게 전시되어 있으며 일본어와 영어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세도타이 유적 조문관에서 열리는 공예 체험에 참가하면 장식품이나 토기를 직접 만들어볼 수도 있습니다(예약 필요). 이 외에도 T셔츠나 토우를 테마로 한 기념품 등 폭 넓은 상품이 갖춰진 뮤지엄 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시실 관람 시에는 입장료가 필요하지만, 뮤지엄 숍과 로비에는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로비에서는 환상 열석과 관련된 짧은 동영상도 상영되며 영어 등의 여러 언어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유적

이 외에 일본 북부에 있는 대규모의 선사 유적으로는 기우스 주체묘군[링크](홋카이도)과 오유[링크](아키타현), 와시노키[링크](홋카이도), 고마키노[링크](아오모리현), 오모리카쓰야마[링크](아오모리현)의 환상 열석 등이 있습니다.

001-017

---

## <日本語仮訳>

### 伊勢堂岱遺跡

秋田県北部にある伊勢堂岱遺跡では、4,000 を超える石を使った、4 つの環状列石（巨大な立った石が円形に配置された遺構）が形成されています。調査の結果、これらの環状列石は紀元前 2000 年頃に 200 年にわたって構築され、祭祀の場として使われていたらしいことがわかっています。環状列石の周辺では、さまざまな様式とデザインの土偶など、土製品が大量に出土しています。

石の産地

環状列石は、世界遺産に登録された白神山地が見える高台の上にあります。環状列石に使われている石には、米代川や小猿部川など、この地域の川から集められた様々な種類の石が含まれており、これらの石は最大で 5km の距離を運ばれてきたものと考えられています。

土地の整備

環状列石の調査により、石が並べられる前にこの土地が平坦に整備された、ということが示されています。盛り上がった土地を削り、窪地を埋める作業は、石や木だけで作られた単純な道具によって行われたのでしょう。

環状列石周辺の建物

環状列石の外縁周辺には、柱で支えられた建物跡が見つっています。この建物が何に使われていたのかははっきりとは分かっていませんが、調査の結果から、ここが住居ではなく祭祀の場であり、おそらく、周辺地域の村々によって共有されていたものと考えられています。

これらの建物は、遺体を埋葬する準備に使われていたのかもしれないという説もあり、環状列石周辺で墓穴が見つっていることは、この説と一致します。土壌が酸性のため、人骨は残っていませんが、土偶や副葬品が多く墓で見つっています。いくつかの環状列石の周辺では、柱を立てるための穴が発掘されたままの状態に残されており、建物の規模が感じられるよう、柱が立てられています。

## 土偶

伊勢堂岱遺跡では、人間の形をした、独特で表情豊かな土偶が200体以上見つっています。これらの土偶は、平たい板のような土偶（板状土偶）から、内部が空洞の土偶（中空土偶）まで、様式やデザインがさまざまです。単純な姿の土偶は、手足が明確ではない抽象的な形をしていますが、手の込んだ土偶は、細かな模様や強調された曲線の特徴としており、身体各部の見分けがつかます。多くのものには、意図的に壊された跡があり、祭祀の際に何らかの祈りを込めて壊されたのではないかと考えられています。

## 伊勢堂岱遺跡縄文館

遺跡の入口にある伊勢堂岱遺跡縄文館 [\[リンク\]](#) は、明るい照明のガラスケースで出土品を展示しています。この照明により、土偶などの土製品をはっきりと見ることができ、その表情と複雑さがよく分かります。また、この遺跡と環状列石の概要を示した展示では、考古学的調査による発見について、発掘作業の写真とともに大きく展示されており、日本語と英語で説明されています。

伊勢堂岱遺跡縄文館は工芸体験を行っており、装飾品や土器を作ることができます（要予約）。そのほか、Tシャツや、土偶をテーマにしたお土産など、幅広い品を販売するミュージアムショップがあります。展示室の観覧には入館料が必要ですが、ミュージアムショップとロビーには無料で入ることができます。ロビーでは、環状列石に関する短い動画が上映されており、英語などいくつかの言語で観ることができます。

## 関連遺跡

北日本の大規模な先史遺跡には、他にキウス周堤墓群 [\[リンク\]](#)（北海道）や、大湯 [\[リンク\]](#)（秋田県）、鷺ノ木 [\[リンク\]](#)（北海道）、小牧野 [\[リンク\]](#)（青森県）、大森勝山 [\[リンク\]](#)（青森県）の環状列石などがあります。

【タイトル】 史跡 鷺ノ木遺跡

【想定媒体】 Web サイト

**<韓国語>****와시노키 유적**

와시노키 유적은 홋카이도 남부 모리마치에 위치한 유적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 중 홋카이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환상 열석(폭 37m)입니다. 기원전 2,000 년경에 형성된 이 유적은 아오모리현과 아키타현에서 발견된 같은 시기의 환상 열석과도 유사성을 보입니다. 도호쿠 지방 북부와 홋카이도 남부에 있는 환상 열석은 이 두 지역 사이에서 문화가 공유되었다는 증거로 여겨집니다.

**환상 열석의 구성**

이 환상 열석의 바깥쪽에는 2 개의 고리가 있고 중심에는 타원형의 배석이 있습니다. 환상 열석을 구성하는 602 개의 돌 대부분은 땅에 박힌 상태로 똑바로 서 있으며 다양한 각도로 안쪽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돌들은 약 1km 떨어진 가쓰라강 하구에서 옮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환상 열석 근처에서는 무덤 구덩이와 오징어 모양의 작은 토제품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환상 열석의 보호**

언덕 위에 자리한 이 환상 열석은 2003 년 고속도로 건설 공사 과정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유적을 보호하자는 활동이 결실을 맺어 이 언덕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유적 아래에 터널을 뚫는 계획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터널을 공사하면서도 항상 진동을 감시하며 돌이나 지층이 움직이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고 일부 작업은 동력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환상 열석은 본래의 장소에 그대로 유지된 채, 아래로는 고속도로가 지나는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환상 열석의 견학**

이 유적은 소재지 문제로 일반인에게는 공개되지 않고 모리마치 유적발굴조사사업소에서 실시하는 견학회를 통해서만 방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소에서는 환상 열석과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을 전시하는 전시실을 마련하여 입장료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는 일본어로만 제공합니다.

**<日本語仮訳>****鷺ノ木遺跡**

鷺ノ木遺跡は、北海道南部の森町にあります。これまで知られている中では、北海道で最大の環状列石（幅 37m）です。この遺跡は紀元前 2000 年頃のものであり、青森県や秋田県で発見された同時

期の環状列石と類似点があります。東北地方北部と北海道南部の環状列石は、これら2つの地域で文化が共有されていた証拠だと考えられています。

#### 環状列石の構成

この環状列石は、外側に2つの環があり、中心には楕円形の配石があります。環状列石を構成する602個の石の多くは地面に埋め込まれており、直立していたり、さまざまな角度で内側を向いていたりします。これらの石は、約1km離れた桂川の河口から集められたのでしょうか。環状列石の近くでは、墓穴やまるでイカのような形の小さな土製品などが見つかっています。

#### 環状列石の保護

丘の上にあるこの環状列石は、2003年、高速道路の建設工事の際に発見されました。遺跡保存に向けた活動が実を結び、この丘を切り拓いて無くしてしまうのではなく、遺跡の下にトンネルを掘るよう計画が変更されました。トンネル工事では、常に振動を監視して、石や地層を動かさないよう細心の注意を払い、一部の作業は動力機械を使わずに行わ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の苦勞の結果、環状列石は本来の場所にそのまま残り、その下に高速道路が通る現在の姿になりました。

#### 環状列石の見学

この遺跡は、所在地の関係上、一般公開はされておらず、森町遺跡発掘調査事務所が実施する見学会でのみ訪問できます。この事務所は、環状列石と遺跡からの出土品に関する展示を行う展示室が用意されており、展示室の入館は無料です。情報提供は日本語でのみ行っています。

【タイトル】 史跡 長七谷地貝塚

【想定媒体】 Web サイト

**<韓国語>****조시치야치 패총**

조시치야치 패총은 기원전 6,000 년경의 유적으로, 알려진 일본 북부의 패총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것 중 하나입니다. 이 유적에서 발견된 유물을 통해 연안 지역에 형성된 초기 마을의 식생활과 생활상, 그리고 선사 시대 일본인들의 삶의 모습을 만든 환경적 요인 등에 관한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해수면과 해안선**

이 유적은 해안에서 수 km 떨어진 고노해강의 범람원이 내려다보이는 구릉지에 있습니다. 약 1 만 년 전 마지막 빙기(氷期)가 끝난 후, 기온이 점점 따뜻해지고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이 지역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8,000 년 전에는 해안선이 내륙 방향으로 후퇴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물고기를 잡거나 조개를 채취하기에 이상적인 얕은 만과 넓은 갯벌이 생겨났고, 만이 내려다보이는 자리에 이 조시치야치 패총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식재료와 생활**

이 유적에서 발견된 뼈로 만든 조립식 낚시바늘, 작살 끝, 어망에 다는 석제 그물추 등 다양한 고기잡이 도구 등은 이곳에 풍요로운 어로 문화가 뿌리내리고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발굴 조사 결과, 약 30 종의 조개류와 약 20 종의 물고기 뼈 외에 조류와 포유류의 뼈도 출토되었습니다.

**하치노헤시 박물관**

조시치야치 패총에서 출토된 유물은 선사 시대부터 근대까지 하치노헤의 역사를 소개하는 하치노헤시 박물관[링크]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관람 시에는 입장료가 발생합니다. 일부는 영어로도 정보를 제공합니다.

**관련 유적**

이 외에 일본 북부에서 패총이 발견된 유적으로는 기타코가네 패총[링크](홋카이도), 이리에 패총[링크](홋카이도), 다카사코 패총[링크](홋카이도), 다고야노 패총[링크](아오모리현), 후타쓰모리 패총[링크](아오모리현) 등이 있습니다.

**<日本語仮訳>****長七谷地貝塚**

長七谷地貝塚は紀元前 6000 年頃の遺跡で、北日本で知られている貝塚の中では最古のもの 1 つです。この遺跡での発見により、沿岸地域の初期の集落における食料と生活、そして、先史時代の日本における暮らしを形作った環境要因に関する事柄が明らかになっています。

#### 海面と海岸線

この遺跡は、海岸から数 km 離れた五戸川の氾濫原を見下ろす台地にあります。1 万年以上前に最終氷期が終わった後、気温が徐々に上がって海面が上昇し、この場所に人が暮らしていた 8,000 年前には、海岸線が内陸部に入り込んでいました。これにより、魚を獲り貝を集めるのに理想的な浅い湾と広い干潟が形成され、長七谷地貝塚の場所も湾を見下ろす位置であったと考えられています。

#### 食料と生活

この遺跡では、骨製の組み合わせ式釣り針、銚先、漁網につける石錘などの多様な漁具が発見されており、豊かな漁労文化が根付いていたことがよく分かります。発掘調査の結果、約 30 種の貝類と、約 20 種の魚の骨のほか、鳥と哺乳類の骨も出土しました。

#### 八戸市博物館

長七谷地貝塚からの出土品は、先史時代から近代までの八戸の歴史の一環として八戸市博物館 [\[リンク\]](#) に展示されています。観覧には入館料がかかります。一部、英語での情報提供も行っています。

#### 関連遺跡

その他、北日本で貝塚が発見された遺跡には、北黄金貝塚 [\[リンク\]](#)（北海道）、入江貝塚[\[リンク\]](#)（北海道）、高砂貝塚[\[リンク\]](#)（北海道）、田小屋野貝塚 [\[リンク\]](#)（青森県）、およびニツ森貝塚 [\[リンク\]](#)（青森県）などがあります。

【タイトル】 遺跡群の紹介文・概要

【想定媒体】 Web サイト

**<韓国語>****홋카이도·도호쿠 지방 북부의 조몬 유적군**

‘홋카이도·도호쿠 지방 북부의 조몬 유적군’은 선사 시대 일본인들이 토기를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부터 한 곳에 정착해 생활하고 발전하며 성숙에 이르는 1만 년에 걸친 역사를 말해줍니다. 이들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은 세련된 디자인 감각을 뒷받침하며, 각 마을들 사이에서 교역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밝혀 주기도 했습니다. 출토품으로는 옷칠한 팔찌, 비취 구슬, 표정이 풍부한 토우, 다양한 양식의 장식 토기 등이 있습니다. 각 유적에서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선사 시대 일본 북부의 삶의 모습을 조명하는 새로운 발견이 탄생했습니다.

‘홋카이도·도호쿠 지방 북부의 조몬 유적군’을 구성하는 17개의 유적과 더불어 2개의 추가 유적이 관련된 유적으로 추정됩니다. 해안가나 강 근처 또는 언덕 위에 자리한 이들 유적의 특징은 주변의 다양한 자연환경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적은 자유롭게 걸어서 견학할 수 있으며 조몬 시대(기원전 13,000년~기원전 400년)의 삶의 모습을 소개하고 출토품이 전시된 시설이 병설되어 있습니다. 가장 이른 시기의 유적인 오다이야마모토 유적부터든, 환상 열석의 어느 하나부터든 원하는 순서대로 둘러볼 수 있습니다. ‘홋카이도·도호쿠 지방 북부의 조몬 유적군’에서 조몬 시대 사람들의 생생한 삶의 모습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日本語仮訳>****北海道・北東北の縄文遺跡群**

「北海道・北東北の縄文遺跡群」は、日本の先史時代の人々について、土器を使い始めた頃から、定住の開始・発展・成熟に至る1万年に及ぶ歴史を物語ってくれています。これらの遺跡からの出土品は、洗練されたデザインのセンスを裏付けるものであり、集落間で交易が行われていたことも明らかにしてくれました。出土品には、漆を使った腕輪、ヒスイ玉、表情豊かな土偶、様々な形式の装飾土器などがあります。各遺跡からは、先史時代の北日本での暮らしに光を当てる新しい発見が生まれています。

「北海道・北東北の縄文遺跡群」を構成する17の遺跡に加え、さらに2つの遺跡が関連する遺跡だと考えられています。海岸、川の近くおよび丘の上に位置するこれらの遺跡の特徴は、周辺の多様な自然環境にあります。ほとんどの遺跡では自由に歩いて見学することができ、縄文時代(紀元前13,000年~紀元前400年)の暮らしを紹介し出土品を展示する施設が併設されています。最初期の大平山元遺跡からでも、環状列石のどれかからでも、どんな順番でもめぐることができますので、ぜひ「北海道・北東北の縄文遺跡群」を訪れて、縄文時代の人々の暮らしを感じてみてください。



地域番号	002	協議会名	一般社団法人富士五湖観光連盟
------	-----	------	----------------

解説文一覧

NO.	スポット名 (タイトル)	韓国語文字数	媒体
002-001	世界文化遺産「富士山」 全体概要	1316	パンフレット
002-002	富士箱根伊豆国立公園 (富士山地域) 全体概要	805	パンフレット
002-003	富士五湖 全体概要	1006	パンフレット
002-004	山中湖 全体概要	758	パンフレット
002-005	河口湖 全体概要	705	パンフレット
002-006	西湖 全体概要	790	パンフレット
002-007	精進湖 全体概要	752	パンフレット
002-008	本栖湖 全体概要	802	パンフレット
002-009	富士山 撮影スポット	989	パンフレット
002-010	天上山公園 全体概要	1168	パンフレット
002-011	山中湖ダイヤモンド富士 全体概要	702	パンフレット
002-012	石割神社 全体概要	517	パンフレット
002-013	山中湖花の都公園 全体概要	504	パンフレット
002-014	河口浅間神社 全体概要	835	パンフレット
002-015	紅葉台 全体概要	682	パンフレット
002-016	鳴沢溶岩樹型 全体概要	623	パンフレット
002-017	本栖湖千円札富士山展望地 全体概要	624	パンフレット
002-018	吉田口登山道 登山道の歴史のほか、各合目に点在する富士講遺跡	1367	パンフレット
002-019	北口本宮富士浅間神社 全体概要	965	パンフレット
002-020	さまざまな開山祭 開山祭	663	パンフレット
002-021	吉田の火祭り・すすき祭り お祭概要	547	パンフレット
002-022	金鳥居 全体概要	535	パンフレット
002-023	富士御室浅間神社 全体概要	981	パンフレット
002-024	御師住宅旧外川家 全体概要	1571	パンフレット
002-025	船津胎内樹型 全体概要	756	パンフレット
002-026	スバルライン五合目 五合目全体概要・お中道・御庭・奥庭	1296	パンフレット
002-027	小御岳神社 全体概要	678	パンフレット
002-028	鳴沢氷穴 全体概要	561	パンフレット
002-029	富岳風穴 全体概要	464	パンフレット
002-030	西湖蝙蝠穴及びコウモリ 全体概要	422	パンフレット
002-031	富士山の森	1171	パンフレット
002-032	忍野八海 全体概要	595	パンフレット

002-033	東園寺 全体概要	655	パンフレット
002-034	浅間神社(忍草) 全体概要	604	パンフレット
002-035	月江寺エリア 全体概要	868	パンフレット
002-036	ハタオリマチ 全体概要	904	パンフレット
002-037	吉田のうどん 料理	592	パンフレット
002-038	ほうとう 料理	555	パンフレット
002-039	忍野そば 料理	405	パンフレット
002-040	周遊バスで楽しめる富士五湖 全体概要	593	パンフレット

【タイトル】 世界文化遺産「富士山」 全体概要

【想定媒体】 パンフレット

**<韓国語>****역사와 문화 속의 후지산**

후지산은 일본에서 해발 고도가 가장 높은 산인 동시에 가장 숭배되는 산입니다. 높이 3,776m의 후지산은 아름다운 원뿔 모양의 모습으로 그 주변을 내려다보듯 우뚝 솟아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만년 전에 태어난 후지산은 지질학적으로 아직 젊은 활화산입니다. 최근에는 864년의 조간 대분화(貞觀大噴火)가 그 지역의 지형을 바꿔 버리면서 후지 5호와 아오키가하라 주카이 숲을 키운 용암대지를 만들어 냈습니다. 사람들은 후지산의 파괴력에 두려움과 경외심을 품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들을 보호하는 존재로도 여겼습니다. 유적을 연구한 결과 후지산은 조몬 시대(기원전 10,000년~300년)부터 숭배의 대상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8세기에 편찬된 일본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와카(일본의 전통 정형시)집인 만요슈(萬葉集)에도 후지산을 칭송하는 와카가 실려 있습니다.

12세기에 이르러 후지산의 화산 활동이 잠잠해지자, 힘든 육체적 훈련이 깨달음의 길이라고 믿는 일본 특유의 신앙 형태 슈겐도(修驗道)의 수행자들에 의해 후지산은 수행의 장으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17세기에 성립된 후지산을 숭배하는 민간 신앙 중 하나인 후지코의 선구였습니다. 수천 명의 후지코 순례자들은 매년 여름이면 후지산으로 몰려들어 여관, 정신적 지도자, 하역 노동자 등 후지산 기슭의 경제적 번영을 지탱했습니다. 지금도 후지산의 비탈길에서는 경을 외며 산을 오르는 후지코 순례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에도 시대(1603~1868)에 이르러 예술적인 목판화인 우키요에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후지산은 인기 있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가쓰시카 호쿠사이, 우타가와 히로시게 등의 우키요에 화가들은 다양한 방향에서 바라본 후지산의 모습을 그려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 이들의 작품은 마침내 유럽에까지 그 이름을 떨쳤습니다. 가쓰시카 호쿠사이가 그린 ‘가나가와 해변의 높은 파도 아래’는 당시 일본의 예술 작품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가쓰시카 호쿠사이의 후지산 화집 ‘후가쿠 36경’에 수록된 판화 중 하나로 거센 파도 너머 저멀리 눈 덮인 후지산을 그린 명작입니다.

일본이 근대화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여행이 친숙해짐에 따라 후지산의 이름은 세계에도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영국 태생의 해리 스투어트 휘트워스는 1895년 이 지역에 ‘동양의 스위스’라는 별명을 붙이고 쇼지호 부근에 호수 너머로 후지산을 한 눈에 담을 수 있는 서양식 호텔을 열었습니다. 1964년에는 후지산 고고메(5부 능선, 해발 2,305m)로 향하는 유료 도로와 버스 노선이 개통되면서 개인의 기술 수준에 상관없이 해발 3,776m의 후지산 정상까지 비교적 쉽게 등정할 수 있게 되었고, 일본 전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수십만 명의 등산객이 모이는 산이 되었습니다.

2013년 유네스코는 후지산을 ‘신앙의 대상이자 예술의 원천’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록했습니다. 등록 대상이 된 것은 후지산이 일본의 역사와 문화에서 큰 영향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25개의 구성자산입니다. 유네스코의 인정을 계기로 후지산 기슭과 그 주변 지역의 매력이 재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매년 여름이면 순례자들로 넘쳐났던 신사나

방문객들의 등산과 숙박을 돌보는 신관이었던 오시(御師)의 거주지를 둘러 보거나, 후지 5 호에서 카누나 낚시를 즐기는 등 후지산을 바라보며 보내는 시간은 정상까지의 고단했던 여정과 함께 언제까지나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002-001

---

## <日本語仮訳>

### 歴史と文化の中の富士山

富士山は日本で最も標高が高い山であると同時に、最も崇拝されている山でもあります。高さ 3,776m の富士山は、その美しい円錐形の容姿で、周辺を見下ろすようにそびえ立っています。富士山が生まれたのは今からおよそ 1 万年前で、地質学的にはまだ若い活火山です。最近では 864 年の貞観大噴火がその地域の地形を変えてしまい、富士五湖と青木ヶ原樹海を育んだ溶岩台地を生み出しました。人々は、富士山の破壊力に対して恐怖と畏敬の念を抱きましたが、その一方で、自分たちを守護する存在であると考えました。遺跡の研究の結果、富士山が縄文時代(紀元前 10,000~300 年)から崇拝の対象であったことが分かっており、8 世紀に編纂された日本に現存する最古の和歌(日本の伝統定型詩)集、万葉集にも富士山を称える和歌が納められています。

富士山の火山活動は 12 世紀までには鎮静化し、富士山は、厳しい身体訓練が悟りへの道だと考えていた日本独自の信仰形態である修験道の修行の場として使わ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これらは、17 世紀に成立した富士山を信仰する民間信仰のひとつ、富士講の先駆けでした。数千人という富士講巡礼者が毎年夏富士山に押し寄せ、宿、精神的指導者や荷役労働者などの富士山の麓の経済の繁栄を支えていました。今日でも富士山の斜面には読経しながら登山する富士講巡礼者を見ることができます。

江戸時代(1603-1868)になると、芸術的な木版画である浮世絵の人気の高まり、富士山は人気の高い主題となりました。葛飾北斎や歌川広重などの浮世絵師は、さまざまな方向から富士山の姿を描いて大成功を収め、これらの作品は最終的にはヨーロッパにその名をとどろかせました。葛飾北斎の神奈川沖浪裏は、その時代の日本の芸術作品の中で最も有名な作品と言えるでしょう。この作品は葛飾北斎による富士山を描いた画集「富嶽三十六景」に収録された 1 枚で、荒波の向こうに遠く、雪を頂いた富士山が描かれた名作です。

日本が近代化の時代を迎え、旅行が身近なものになるのに伴って、富士山の名は、世界にも知られるようになっていきました。1895 年にイギリス生まれのハリー・スチュワート・ホイットウォーズは、この地域に「東洋のスイス」というニックネームを付け、精進湖のほとりに、湖越しに富士山を一望できる西洋式のホテルを開業しました。1964 年には富士山五合目(標高 2,305m)への有料道路とバス便が開通したことで、その技能のレベルを問わず標高 3,776m の富士山頂に登頂できるようになり、日本全国、そして世界中から何十万人という登山者が集まる山になりました。

2013 年、ユネスコは富士山を「信仰の対象と芸術の源泉」として世界文化遺産に登録しました。登録対象となったのは、富士山が日本の歴史と文化に大きく影響を及ぼしたことを示す 25 の構成資産です。ユネスコの認定をきっかけにして、富士山の麓やその周辺地域の魅力が見直され始めました。かつては毎年

夏になると巡礼者であふれかえった神社や、登山や宿泊の世話をする神職であった御師の住居に行ってみたり、富士五湖でのカヌーや釣りをしてみるなど、富士山を眺めながら過ごした時間は、山頂までの苦しかった道のりとともに、いつまでも思い出に残るでしょう。

【タイトル】 富士箱根伊豆国立公園（富士山地域） 全体概要

【想定媒体】 パンフレット

**<韓国語>****후지 하코네 이즈 국립공원**

후지 하코네 이즈 국립공원은 ‘뛰어난 자연 풍경지’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연공원법의 전신인 국립공원법이 제정된 지 불과 5년만인 1936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국립공원 중 하나로 현재는 매년 1억명 이상의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몇몇 지역으로 구성된 후지 하코네 이즈 국립공원 중에서도 수려한 후지산과 그 기슭의 아오키가하라 주카이 숲, 그리고 후지 5호가 자리한 후지산 구역이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연 산책로와 역사적 유적이 다수 남아 있는 이 구역은 아름답고 웅장한 자연을 자녀와 함께 만끽하려는 가족 단위 방문객부터 새로운 도전을 원하는 경험 풍부한 등산객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후지산을 오르는 여러 등산로 중 유명한 요시다구치 등산로는 후지산 북쪽 고고메(5부능선)부터 산 정상까지 길게 뻗어 있습니다. 후지산의 완만한 끝자락에도 신사와 호텔, 그리고 후지 5호에서 순례자들의 숙소로 사용되었던 건물 등으로 통하는 길이 둘러져 있습니다. 가파르고 험준한 산길이 있는가 하면 평탄한 길도 있습니다. 울창한 숲을 굽이굽이 돌아가는 길이 있는가 하면 탁 트인 장소를 지나는 길도 있습니다. 수목이 서식할 수 있는 경계선인 삼림한계를 따라 길 아래를 바라보면 숨이 막힐 듯한 경치가 펼쳐집니다. 길 중간에는 수세기 전 순례자들이 다녀간 것을 나타내는 비석이 곳곳에 보입니다.

해발고도가 높고 시가지에서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후지산 주변의 공기는 신선하고 서늘합니다. 그래서 아웃도어 레크리에이션을 즐기기에 적합합니다. 후지 5호에서는 카누, SUP 보딩이나 윈드 서핑 등 수상 레크리에이션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호수에서는 조용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체트스키나 그 외 엔진으로 구동되는 선박 등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어디에 있어도 항상 후지산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당당하게 우뚝 솟아 있는데도 마치 손에 닿을 듯 가깝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장관을 이루는 경치 속에서 아웃도어를 만끽할 수 있는 장소는 일본 내에서 매우 귀중한 존재입니다.

**<日本語仮訳>****富士箱根伊豆国立公園**

富士箱根伊豆国立公園は、「優れた自然の風景地」を保護することを目的とした自然公園法の前身である国立公園法が制定されたわずか5年後の1936年に国立公園に指定されました。日本で最も古

い国立公園のひとつで、今日では毎年 1 億人以上の人々が訪れています。

いくつかの地域から構成される富士箱根伊豆国立公園の中では、秀麗な富士山と、そのふもとの青木ヶ原樹海、富士五湖からなる富士山エリアが最大の広さを占めています。このエリアには自然の遊歩道や歴史的史跡がたくさんあるため、美しく雄大な自然をお子さまと一緒に満喫したい家族連れから、新たな挑戦を求めている経験豊かなハイカーまで、様々な楽しみ方ができるのが特徴です。

いくつかある富士山の登山道のうち、有名な吉田口登山道は、富士山北側の五合目から山頂に向かって伸びています。富士山の裾野にも、神社、ホテル、それに富士五湖で巡礼者の宿として使われていた建物などに通じる道が張り巡らされています。急峻な山道もあれば、平坦な道もあります。密林をくねくねと巡る道もあれば、ひらけた場所を通る道もあります。樹木が生育できる境界線である森林限界に沿った道から眼下を眺めると、息を呑む景色が広がります。道の途中には、何世紀も前に巡礼者が訪れたことを示す石碑があちこちに見られます。

標高が高く、市街地からも離れているので、富士山周辺の空気は新鮮でひんやりしています。そのため、アウトドアでのレクリエーションを楽しむのにぴったりです。富士五湖では、カヌー、SUP ボーディングやウインドサーフィンなどの水上レクリエーションを楽しむことができます。なお、一部の湖では穏やかな環境を保護するためジェットスキーや、その他のエンジン駆動の船などの使用が禁止されています。

この地域では、どこにいても必ず富士山が視界に入ります。堂々とそびえ立っているのに、まるで手に触れられるかのように近くに感じることができるのです。このような壮観な景色の中でアウトドアを満喫できる場所は日本国内ではとても貴重な存在です。

【タイトル】 富士五湖 全体概要

【想定媒体】 パンフレット

**<韓国語>****후지 5 호**

후지산 북쪽 기슭에 늘어서 있는 다섯 호수는 수세기 동안 인기 있는 관광 명소였지만 ‘후지 5 호’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는 않았었습니다. 1927년 신문사의 주최로 일본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관을 선정하는 콘테스트가 개최되었는데, 거기에 기업가이자 정치가였던 호리우치 료헤이가 ‘후지 5 호’라는 이름으로 응모해 선정되면서 이 이름이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후지 5 호’라는 이름은 비교적 새로운 것이지만 이 이름이 붙여지면서 다섯 호수가 근대화된 관광지로 발전하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다섯 호수는 후지산 북쪽에 호를 그리듯 늘어서 있습니다. 후지 5 호는 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순서대로 모토스코, 쇼지코, 사이코, 가와구치코, 야마나카코를 이르는데, 이 중 야마나카코 호수는 다른 네 개의 호수보다 크고 후지산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형은 비교적 새로운 것으로 거듭된 화산 활동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서쪽에 있는 세 호수는 과거 세노우미라는 이름의 커다란 하나의 호수였습니다. 가장 서쪽에 있는 모토스코 호수는 4,500년 전 용암류에 의해 세노우미에서 처음으로 분리된 호수입니다. 901년에 편찬된 역사서 일본삼대실록(日本三代實錄)에는 864년의 조간 대분화(貞觀大噴火)로 ‘대지와 바위가 녹아’ 세노우미의 잔해로 ‘흘러들어간’ 모습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분화는 아오키가하라 주카이 숲의 용암대지를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쇼지코 호수와 사이코 호수를 분리시켰습니다. 모토스코 호수, 쇼지코 호수, 사이코 호수는 수위가 같기 때문에 지금도 지하로는 연결되어 있다고 추정됩니다. 가와구치코 호수와 야마나카코 호수도 수세기 동안 반복된 분화 활동으로 후지산 북동쪽에 있던 하천이 막혀 흐름이 변하면서 현재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각 호수에는 고유한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크고 후지산과도 가장 가까운 야마나카코 호수는 수상 레크리에이션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호수입니다. 가와구치코 호수는 해발고도가 가장 낮고 이들 호수 중에서는 유일하게 섬인 우노시마 섬이 있습니다. 도쿄로 이어지는 철도역에서 호숫가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이호는 북쪽에 바로 산이 있어서 호수와 함께 하이킹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가장 작은 호수인 쇼지코 호수의 호안에는 후지 5 호 중에서 가장 먼저 서양식 호텔이 세워졌었습니다. 그리고 후지 5 호 중에서 가장 깊고 가장 멀리 떨어진 모토스코 호수는 주변에 캠핑장이 많아 캠퍼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호수마다 후지산의 각기 다른 표정을 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후지 5 호는 사진가들 사이에서도 매우 인기 있는 촬영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日本語仮訳>****富士五湖**



富士山北麓に並ぶ5つの湖は、何世紀にもわたって人気の観光名所でしたが、「富士五湖」という名前は使われていませんでした。1927年に新聞社の主催で、日本で最も美しい景色を選ぶコンテストが開催され、そこに起業家で政治家だった堀内良平が「富士五湖」という名前で応募し、選定されたことで、この名前が広く使わ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このように、「富士五湖」という名前は比較的新しいものであり、この名前が付けられたことにより、5つの湖が近代化された観光地となる礎になりました。

5つの湖は富士山の北側に弧を描くように並んでいます。富士五湖は、西から東の順で、本栖湖、精進湖、西湖、河口湖、山中湖で、山中湖は他の4つの湖よりも大きく、また富士山に最も近い場所に位置しています。しかし、この地形は、比較的新しいもので、度重なる火山活動により形作られたものです。

西側の3つの湖は、かつては剝の海というひとつの大きな湖でした。最も西側の本栖湖は、4,500年前に溶岩流により剝の海から最初に切り離された湖です。901年に編纂された歴史書、日本三代実録では864年の貞観大噴火で「大地と岩が溶け」剝の海の残りに「流れ込んでいった」様子を記述しています。この噴火は青木ヶ原樹海の溶岩台地を生み出しただけでなく、今日の精進湖と西湖を分断させました。本栖湖、精進湖、西湖は水位が同じことから、まだ地下でつながっていると考えられています。河口湖と山中湖も、何世紀もの間繰り返された噴火活動により、富士山の北東側の河川が堰き止められ、流れが変わったことで、現在の姿になりました。

これらの湖にはそれぞれ独自の特色があります。最も大きく、また富士山に最も近い山中湖は、水上レクリエーションを楽しむ人々に人気のある湖です。河口湖は標高が最も低く、これらの湖で唯一の島、うの島があります。東京とを結ぶ鉄道の駅から歩いて湖畔まで行くことができます。西湖は、北側にすぐ山が迫っているため、湖とともに、ハイキングを楽しむことができます。最も小さい湖、精進湖は、その湖岸に富士五湖の中で最初の西洋式ホテルが建てられました。そして、富士五湖の中で最も深く、最も遠く離れている本栖湖は、周囲にキャンプ場が多くあるため、キャンパーに人気があります。湖ごとに富士山のそれぞれ異なる表情を見ることができるため、富士五湖は写真家の間でも非常に人気のある撮影地です。

【タイトル】 山中湖 全体概要

【想定媒体】 パンフレット

**<韓国語>****후지산에서 가장 가까운 호수, 야마나카코**

야마나카코 호수는 후지 5 호 중에서 가장 크고 후지산과 가장 가까운 호수입니다. 다른 4 개의 호수보다 약간 높은 해발 1,000m 에 가까운 장소에 자리해 있어 여름에도 기분 좋은 상쾌함을 느낄 수 있는 호수입니다. 5 개의 호수 중에서 수심이 가장 얇고 그 모양이 고래와 비슷한 것이 특징입니다.

야마나카코무라(마을)는 도쿄에서 직통 고속버스로 약 2 시간 거리에 위치해 있어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관광업이 깊게 뿌리내린 이 마을은 오래전부터 여름 피서나 레크리에이션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야마나카코 호수 주변에는 많은 레스토랑과 호텔이 있으며 호숫가를 거의 한 바퀴 돌 수 있는 사이클링 로드도 정비되어 있습니다.

매력적인 경치와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찾아 많은 고등학교와 대학 운동부가 마을에서 합숙 훈련을 하기 위해 이곳으로 모이기도 합니다. 2020 년 도쿄 올림픽 자전거 로드 레이스 경기의 개최지로도 선정되었습니다.

**백조와 마리모**

여름의 야마나카코 호수에서는 세일링이나 웨이크보드 등 각종 수상 레크리에이션을 즐길 수 있습니다. 낚시를 좋아한다면 블랙배스나 빙어 낚시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일년 내내 서식하는 백조의 우아한 모습을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1956 년 야마나카코 호수는 신종 발견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비로도와 같은 둥근 집합체를 만드는 조류 마리모의 한 종류인 후지마리모입니다. 보통 마리모는 핀란드나 헝가리 등 유럽과 일본 북부의 차갑고 움직임이 적은 수역에서 보이지만 야마나카코 호수와 가와구치코 호수, 사이코 호수에 분포하는 ‘후지마리모’는 기존의 마리모와는 다른 별개의 새로운 종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다이아몬드 후지**

‘다이아몬드 후지’는 태양이 후지산의 평평한 정상으로 저물 때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아주 짧은 순간에만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야마나카코무라에서는 이 아름다운 풍경을 매년 10 월 하순부터 2 월 중순에 걸쳐서 볼 수 있습니다.

**<日本語仮訳>****富士山に最も近い湖、山中湖**

山中湖は富士五湖の中で最も大きく、富士山に最も近い湖です。他の4つの湖よりも若干高い標高1,000m 弱の場所にあり、夏でも涼しく心地よい湖です。5つの湖の中で水深が最も浅く、クジラのような特徴的な形をしています。

山中湖村は東京から直通の高速バスで約2時間のところに位置しており、簡単にアクセスできます。村には観光業が深く根ざしており、長きにわたって夏の避暑やレクリエーションのために多くの人々が訪れる場所となってきました。山中湖の周辺には多くのレストランやホテルがあり、湖岸をほぼ一周するようにサイクリングロードが整備されています。

魅力的な景色や美しい自然環境を求めて、多くの高校や大学の運動部が村でトレーニング合宿をするために集まってきました。2020年東京オリンピックの自転車ロードレース競技の開催地としても選ばれました。

## 白鳥とマリモ

夏になると、山中湖では、セーリングやウェイクボードのほか各種の水上レクリエーションを楽しむことができます。釣りが好きな方は、ブラックバスやワカサギ釣りを楽しむのも良いでしょう。また、ハクチョウが年間を通して生息していますので、その優雅な姿をいつでも見ることができます。

1956年には山中湖が新種発見の舞台となりました。ピロードのような丸い集合体を作る藻類であるマリモの一種、フジマリモです。マリモは、通常フィンランドや北海道など、北欧や北日本の冷たく、動きの少ない水域で見られますが、山中湖のほか河口湖と西湖に分布する「フジマリモ」は、既存のマリモとは別の新種として認められました。

## ダイヤモンド富士

「ダイヤモンド富士」は、太陽が富士山の平らな山頂に沈み、ダイヤモンドのように輝くわずかな瞬間にだけ見ることのできる現象です。山中湖村では、この美しい風景を毎年10月下旬から2月中旬にかけて見ることができます。

【タイトル】 河口湖 全体概要

【想定媒体】 パンフレット

**<韓国語>****가와구치코 호수 - 박물관과 갤러리**

가장 깊은 곳이 14.5m 인 가와구치코 호수는 야마나카코 호수와 비슷하게 수심이 얇은 호수로, 야마나카코 호수와 마찬가지로 수상 레크리에이션의 명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와구치는 한자로 ‘河口’라 쓰는데 이름처럼 가와구치코 호수에는 6 개 이상의 계류가 흘러듭니다. 가와구치코 호수의 북동쪽 호안에는 미술관과 박물관, 화랑이 다수 들어서 있으며 모두 버스로 갈 수 있습니다. 후지 5 호 호수에 놓인 유일한 다리인 가와구치코 호수 대교는 북쪽의 우부야가사키 곳과 남쪽의 가와구치코 허브관 주변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동서로 펼쳐져 있는 가와구치코 호수에서는 북쪽 해안을 따라 다수의 지점에서 후지산의 전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우부야가사키 곳은 수세기 동안 호수면이 잔잔할 때 후지산의 모습이 아름답게 반사되어 보이는 거꾸로 후지산(사카사후지)의 명소로 알려졌습니다. 우부야가사키 곳에는 사진가 오카다 고요, 하이쿠 작가 마쓰오 바쇼, 그리고 작가 나카무라 세이코 등 이 지역의 이름을 높인 예술가들의 기념비가 다수 세워져 있습니다.

**역사와 민간 전승**

지역 일대에 커다란 피해를 입힌 864 년의 조간 대분화(貞觀大噴火) 이후, 후지산을 진정시키기 위해 가와구치아사마 신사가 세워졌습니다. 이 신사는 가와구치코 호수 북동쪽 호안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자리해 있는데, 가와구치코 호수 남쪽에 당시의 분화로 생긴 화성암이 펼쳐져 있는 것으로 보아 이후 화산 활동에 의한 용암류를 피하기 위해 이 장소를 선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신사는 후지 5 호 유일한 섬이자 가와구치코 호수의 거의 중심에 위치한 우노시마 섬에 있습니다. 이 신사는 인근 신사의 민간 전승에도 가끔 등장하는 음악과 물과 애정의 여신, 벤자이텐을 모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기 향로가 없기 때문에 보통은 신사까지 들어갈 수 없습니다.

**<日本語仮訳>****河口湖 - 博物館とギャラリー**

河口湖は最も深い所で 14.5m と、山中湖と同じくらい浅い湖であり、山中湖と同様に水上レクリエーションの名所となっています。カワグチは、漢字で書くと「河口」となり、河口湖には 6 本以上の溪流が流れ込んでいます。河口湖の北東の湖岸には美術館・博物館や画廊が数多くあり、これらはすべてバスで行くことができます。富士五湖の湖にかかる唯一の橋、河口湖大橋は、北側の産屋ヶ崎と、南側の河口湖ハーブ館周辺を結んでいます。

河口湖は東西に広がっているので、湖の北岸に沿って多数の地点から富士山の眺めを楽しむことができます。産屋ヶ崎は何世紀にもわたって、湖面が穏やかな時に富士山が美しく反射して見える逆さ富士の名所として知られてきました。産屋ヶ崎には、写真家の岡田紅陽、俳諧師の松尾芭蕉、それに作家の中村星湖など、この地域の名を高めた芸術家たちの記念碑が数多く建てられています。

## 歴史と民間伝承

地域一帯に大きな被害をもたらした 864 年の貞観大噴火の後、富士山を鎮めるために、河口浅間神社が建立されました。この神社は河口湖北東の湖岸からは少し離れた所にあり、一方、河口湖の南側には当時の噴火による火成岩が広がっていることから、その後の火山活動による溶岩流を避けるべくこの場所が選ばれたのではないかと考えられます。

もうひとつ注目に値する神社は、富士五湖唯一の島であり、河口湖のほぼ中心に位置するうの島にあります。この神社は、近隣の神社の民間伝承にも時折登場する、音楽と水と愛情の女神、弁財天様を祀っています。ただし、定期航路がないため、普段は神社まで立ち入ることができません。

【タイトル】西湖 全体概要

【想定媒体】パンフレット

**<韓国語>****사이코 호수 - 처녀의 호수**

사이코 호수는 '처녀의 호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호수는 투명하고 잔잔하지만 꽤 깊어서 가장 깊은 장소는 수심 70m에 달합니다. 사이코 호수는 과거 이 일대에 펼쳐져 있던 호수 세노우미가 864년 조간 대분화(貞觀大噴火)의 용암류로 완전히 덮혔을 때 남아 있던 부분입니다. 사이코라는 명칭은 세노우미의 '세'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864년의 분화로 인해 아오키가하라 주카이 숲의 용암 대지가 생겨났습니다. 현재 사이코 호수의 북서안 일대에서는 차갑고 잔잔한 호수 너머로 짙은 녹색의 '나무의 바다(주카이, 樹海)'가 펼쳐지고 그 너머로 후지산이 우뚝 솟아 있는 웅장한 경치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사이코 호수 북쪽에 있는 주니가타케 산과 셋토가타케 산의 하이킹 코스는 해발고도가 높고 전망이 좋아서 후지산의 전경을 멀리 바라다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산으로는 사이코 호반에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쿠니마스의 발견**

최근 사이코 호수는 연어과의 민물고기 쿠니마스를 보호하자는 노력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1935년 당시 유일하게 알려져 있던 쿠니마스의 서식지인 도호쿠 지방 아키타현의 다자와코 호수에서 수천 개의 쿠니마스 알이 사이코 호수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쿠니마스의 새로운 서식지를 만들려는 이러한 시도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고 그 후 곧 잊혀졌습니다. 한편, 다자와코 호수의 쿠니마스는 수력 발전소 시설과 관련된 수소 이온 농도의 변동으로 1948년까지 전부 멸종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난 2010년, 사이코 호수에서 쿠니마스가 발견되면서 연구자들 사이에 충격을 던졌습니다. 조사 결과 사이코 호수는 수온이 낮고 깊은 곳에서의 번식을 선호하는 쿠니마스의 이상적인 서식지임이 판명되었습니다. 또한 쿠니마스는 이 호수에서 낚을 수 있는 히메마스(평생 민물에서 살게 된 홍연어)보다 맛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난 수십 년 동안 잡힌 쿠니마스가 호수로 다시 되돌려 보내졌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어떤 낚시꾼도 이 물고기가 멸종된 것으로 여겨지는 쿠니마스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日本語仮訳>****西湖 - 乙女の湖**

西湖は、「乙女の湖」として知られています。この湖は透明かつ穏やかですが、かなり深い所もあり、最も深い所で水深 70メートルに達します。西湖は、かつてこの一帯に広がっていた湖、剱の海が 864年の貞観大噴火の溶岩流で埋め尽くされた際に残った部分です。西湖という名称は、剱の海の「せ」に由来するも

のだとする説もあります。

864年の噴火により青木ヶ原樹海の溶岩台地が生まれました。現在の西湖の北西岸一帯からは、冷たく穏やかな湖水の向こうに深い緑のまさに「樹の海」が広がり、その向こうに富士山がそびえ立つ雄大な景色を見ることができます。西湖の北側にある十二ヶ岳と節刀ヶ岳ハイキングコースは標高が高く見晴らしがよいため、富士山の全景を見渡すことができます。これら2つの山へは西湖湖畔から登ることができます。

## クニマスの発見

近年では、西湖はサケ科の淡水魚クニマスの保護に向けた取り組みの中心となっています。1935年、当時唯一知られていたクニマスの生息地、東北地方秋田県の田沢湖から数千というクニマスの卵が西湖に送られました。新たなクニマスの生息地を作る試みは失敗したように思われ、その後すぐに忘れ去られました。一方、田沢湖のクニマスは水力発電所の新設に関連した水素イオン濃度の変動により1948年までに絶滅しました。

それから長い年月が経った2010年、西湖でクニマスが発見され、研究者の間に衝撃が走りました。調査の結果、西湖が、水温が低く深い場所での繁殖を好むクニマスの理想的な生息地であったことが判明したのです。また、クニマスは、同様にこの湖で釣れるヒメマス（一生を淡水で暮らすようになったベニザケ）よりも味が劣ることから、過去数十年間にわたり、釣り上げられても湖に返されていたということもわかりました。釣り人たちは、誰もこの魚が絶滅したとされるクニマスであるなどとは思っていなかったのです。

【タイトル】 精進湖 全体概要

【想定媒体】 パンフレット

**<韓国語>****쇼지코 호수 - 동양의 스위스**

쇼지코 호수는 후지 5 호 중에서 가장 작은 호수입니다. 표면적이 0.5 평방 km 에 불과하고 수심도 매우 얇아서 저수량은 사이코 호수의 고작 10 분의 1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가로운 환경과 복잡한 해안선이 있는 쇼지코 호수의 풍경은 후지 5 호 중에서도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호반의 개발이 비교적 느리게 진행된 덕분에 대부분의 풍경은 원래 모습 그대로 남을 수 있었고 인공 건축물로 인해 경관이 훼손되는 일도 없었습니다.

해 질 녘이 되면 석양에 물드는 ‘아카후지(붉은 후지산)’를, 또한 산 정상이 눈으로 덮히면 핑크빛으로 보이는 ‘베니후지(주홍색 후지산)’를 카메라에 담기 위해 이 호숫가에는 많은 카메라맨들이 모여듭니다. 쇼지코 호수 서쪽에 있는 파노라마 전망대까지는 1 시간 정도 산길을 걸어야 하지만, 그 힘들을 잊게 할 만큼 멋진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쇼지코 호수에서 보이는 경치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로 ‘고다키후지(아기를 안은 후지산)’가 있습니다. 쇼지코 호수와 후지산을 잇는 직선 사이에는 오무로야마 산이라는 작은 산이 있는데, 쇼지코 호수의 북쪽 해안에서 이 방향을 바라보면 마치 후지산이 오무로산을 안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무로야마 산이 후지산의 경사면에 있는 분화구가 분화하여 생긴 산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정말 후지산의 아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외국인에게 인기 있는 관광지**

후에 일본으로 귀화한 영국인 남성 해리 스투어트 휘트워스는 1895 년 쇼지코 호수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이 지역을 ‘동양의 스위스’라고 부르며 호수의 경치를 바라볼 수 있는 유럽식 호텔을 지었습니다. 휘트워스의 호텔은 후지 5 호 주변에서는 최초로 외국인의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온화한 환경의 쇼지코 호수는 특히 낚시 애호가들에게 인기 있는 호수입니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붕어를 잡을 수 있고 가을이 되면 빙어 낚시의 계절을 맞이합니다. 단 쇼지코 호수에서는 얼음 위에서 빙어 낚시를 할 수 없습니다.

**<日本語仮訳>****精進湖 - 東洋のスイス**

精進湖は、富士五湖の中で最も小さい湖です。その表面積はわずか 0.5 平方 km で、また水深も非常に浅いため、その貯水量は西湖のわずか 10 分の 1 しかありません。それでも、のどかな環境と入り組ん



だ湖岸線により、精進湖の景色は富士五湖の中でも印象深いものになっています。湖畔の開発ペースが比較的ゆっくりとしたものだったおかげで、風景のほとんどが元の状態で残っており、人工建築物によって景観が壊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もありません。

夕暮れ時になると、夕日に染まる「赤富士」、また、山頂が冠雪している時にはピンク色っぽく見える「紅富士」をカメラに収めようとして湖畔にカメラマンが集まってきます。精進湖西側のパノラマ台までは1時間ほど山道を歩きますが、その大変さを忘れさせてくれるほどの素晴らしい風景を楽しむことができます。

精進湖からの景色で最も有名なもののひとつに「子抱き富士」があります。精進湖と富士山とを結ぶ直線の間には大室山という小さい山があり、精進湖の北岸からその方向を見ると、まるで富士山が大室山を胸に抱いているように見えます。大室山は、富士山の斜面にできた火口から噴火してできた山であるという点で、本当に富士山の子もだと言えるかも知れません。

### **外国人に人気の観光地**

1895年、後に日本に帰化したイギリス人男性ハリー・スチュワート・ホイットウォーズは、精進湖の美しさに魅入られて、この地域を「東洋のスイス」と呼び、湖の景色を見渡せる欧風のホテルを開業しました。ホイットウォーズのホテルは富士五湖周辺では初の外国人向けの観光名所となりました。

その穏やかな環境で、精進湖は特に釣り愛好家の中で人気の湖となっています。春から秋にかけては、フナが釣れ、秋になるとワカサギ釣りの季節を迎えます。なお、精進湖では氷上でのワカサギ釣りはできません。

【タイトル】本栖湖 全体概要

【想定媒体】パンフレット

**<韓国語>****모토스코 호수 - 고대의 호수**

모토스코 호수는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이 120m 로, 이는 후지 5 호 중에서 두 번째로 깊은 사이코 호수의 거의 2 배에 달하는 깊이이며 나머지 세 호수와 비교하면 8 배나 됩니다. 사이코 호수와 마찬가지로 모토스코 호수의 명칭도 일설에 따르면 과거 이 일대에 펼쳐져 있던 호수인 세노우미에서 유래하여 ‘모토노세(원래의 세노우미)’가 변화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모토스코 호수가 비교적 이른 단계에 세노우미에서 분리된 것은 분명하지만 모토스코 호수, 사이코 호수, 쇼지코 호수의 수위가 같기 때문에 이들 세 호수는 지하에서 연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모토스코 호수 관광에 추천할 만한 것으로 유람선 ‘모구란’을 들 수 있습니다(계절에 따라 운항되므로 승선 시 확인 필요). 배의 이름인 ‘모구란’은 ‘잠수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마치 잠수함과 같은 외관이지만 그 이름처럼 잠수는 하지 않습니다. 잠수는 하지 않지만 배 밑바닥에 수중 생물을 관찰할 수 있는 창문이 설치되어 있고 선내와 이야기할 수 있는 통신관이나 잠망경을 사용해 ‘잠수함 놀이’를 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어린이 고객에게도 인기 있는 배입니다.

**국민적 풍경**

후지 5 호 중 가장 서쪽에 위치한 모토스코 호수에서는 동력선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어 자연 그대로의 바람과 파도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용하고 차분한 환경 덕분에 하이킹이나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호수입니다. 동쪽 호안에는 카누, 윈드서핑보드, SUP 등 수상 레크리에이션 용품이나 캠핑 용품을 대여하는 몇몇 가게가 자리하고 있어서 도구를 지참하지 않아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모토스코 호수에서는 후지산을 북동쪽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특징적인 경치에서는 대부분 인공 건조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 경치는 2004 년에 발행된 천 엔 지폐와 1984 년에 발행된 오천 엔 지폐에도 그려지며 매우 잘 알려진 경치 중 하나입니다. 이 경치의 도안은 일생을 후지산 촬영에 바친 오카다 고요(1895~1972)의 사진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현재까지 일본 지폐에 그려진 자연 풍경은 후지산뿐입니다.

**<日本語仮訳>****本栖湖 - 古の湖**

本栖湖は最も深い所で水深が 120m であり、これは、富士五湖の中で 2 番目に深い西湖のほぼ 2 倍の深さであり、残り 3 つの湖と比べると 8 倍にもなります。西湖と同様、本栖湖の名称も一説には、かつ

てこの一帯に広がっていた湖である剝の海に由来し、「モノセ」（元の剝）が変化したものではないかと言われています。本栖湖が比較的早い段階に剝の海から分離されたことは分かっていますが、本栖湖、西湖、精進湖の水位はまったく同じであり、これらの3つの湖は地下で繋がっていると考えられています。

本栖湖観光のオススメとして、遊覧船の「もぐらん」が挙げられます（季節によって運行されるので、乗船時に確認必要）。船名の「もぐらん」とは「潜らない」という意味で、外観は潜水艦風ですが、潜水はしません。潜りはしませんが、船底に水中の生物を観察できる窓が設けられていたり、船内と話の出来る通信管や潜望鏡を使って「潜水艦ごっこ」ができるなど、お子さまにも人気の船です。

## 国民的風景

本栖湖は、富士五湖の中で最も最も西側に位置しており、動力船の使用が禁止されているため、自然のままの風や波の音を聞くことができます。その静かで落ち着いた環境のため、ハイキングやキャンプを楽しむ人々の間で人気のある湖です。東側の湖岸には、カヌー、ウィンドサーフィンボードやSUPなどの水上レクリエーション用品やキャンプ用品をレンタルしている店が数軒ありますので、道具を持参しなくても十分に楽しむことができます。

本栖湖からは、富士山を北東から眺めることができます。その景色は特徴的で、多くの場合人工建造物がまったく見えません。この景色は2004年発行の千円紙幣と1984年発行の五千円紙幣にも描かれており、とてもよく知られる景色のひとつです。これらの図柄は一生を富士山の撮影に捧げた岡田紅陽（1895-1972）の写真をもとに作成されたものです。今日に至るまで、日本の通貨に描かれている自然の風景は富士山のみです。

【タイトル】 富士山 撮影スポット

【想定媒体】 パンフレット

**<韓国語>**

## 사진가를 위한 후지 5 호 가이드

후지산은 후지 5 호 지역 어디에서나 선명하고 놀라울 정도로 가깝게 보이지만 그 중에서도 사진가에게 특히 매력적인 장소가 몇몇 존재합니다.

후지요시다시의 **충령탑** 근처 언덕에서는 오층탑 형태로 만들어진 충령탑과 계절에 따른 벚꽃이나 단풍, 그리고 그 너머의 후지산을 담은 구도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이 매우 아름다운 일본적인 풍경은 최근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다가 현재는 전 세계의 수많은 사진가들을 끌어들이는 인기 명소가 되었습니다.

**오시는 길:** 충령탑은 시모요시다역에서 걸어서 20 분, 후지산 세계유산 루프 버스의 충령탑 정류소(가와구치코역에서 15 분)에서 걸어서 15 분. 아라쿠라후지센겐 신사에서 398 계단을 올라감.

**나카이케신스이 공원**은 야마나카코 호수 북안을 따라 뻗어 있는 공원으로 이곳에서는 호수 너머로 후지산이 매우 가깝게 우뚝 솟은 잘 알려진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산 정상 뒤로 태양이 질 때 나타나는 ‘다이아몬드 후지’는 1 년 중에서도 조건이 갖춰졌을 때만 볼 수 있습니다.

**오시는 길:** 가와구치코역에서 후지요시다, 오시노, 야마나카코 호수 주유 버스를 타고 나카이케신스이 공원 앞 버스 정류장에서 하차(50 분)

야마나카코 호수의 **파노라마 전망대**는 미쿠니야마 산 하이킹 코스변에 자리하고 있으며 출발 지점에서 약 30 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곳에서는 바로 앞의 역새 들판, 눈 아래 펼쳐진 호수, 그리고 그 너머로 우뚝 솟은 후지산을 한 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맑은 날에는 북쪽 방향으로 남알프스까지 바라다 보입니다.

**오시는 길:** 후지요시다, 오시노, 야마나카코 호수 주유 버스(F 라인)를 타고 미쿠니야마 하이킹 코스 입구에서 하차(50 분)한 후 30 분 하이킹. 차량의 경우, 히라노 사거리에서 오야마초 방향으로 꺾은 뒤 현도 730 호선(야마키타 야마나카코선)을 타고 15 분.

오시노무라(마을) 산지에 있는 **니주마가리 고개**에서는 눈 너머로 후지산을 조망하는 한가로운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소는 여기서 소개한 다른 장소보다 훨씬 접근하기 어렵지만 하이커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많습니다.

**오시는 길:** 후지산역에서 후지큐 버스를 타고 덴구샤 정류장에서 하차(40 분)한 뒤 하이킹 40 분.

가와구치코 호수 북쪽 호안의 **오이시 공원**에서는 봄부터 여름에 걸쳐 화려하게 꽃을 피우는 화단을 앞에 두고 호수 너머로 후지산이 들어오는 구도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후지 5 호의 유일한 섬인 우노시마 섬을 넣어도 좋습니다.

**오시는 길:** 가와구치코역에서 레드라인 버스를 타고 가와구치코 호수 자연생활관(20 번)에서 하차(25 분)

---

**<日本語仮訳>****写真家向け富士五湖ガイド**

富士山は、富士五湖地域のほどこからでもはっきりと、驚くほど近く見えますが、その中でも写真家にとって特に魅力的な場所がいくつかあります。

富士吉田市の**忠霊塔**の近くの丘からは、五重塔の形に作られた忠霊塔と、季節により桜や紅葉、そしてその向こうに富士山を収めた構図で撮影することができます。この非常に美しい日本的な風景は、最近まであまり知られていませんでしたが、今日では世界中から多くの写真家が集まる人気のスポットになりました。

**アクセス方法:** 忠霊塔は下吉田駅から歩いて 20 分、富士山世界遺産ループバスの忠霊塔停留所（河口湖駅から 15 分）から歩いて 15 分。新倉富士浅間神社から 398 段の階段を上る。

**長池親水公園**は、山中湖の北岸に沿って伸びる公園で、ここからは、湖の向こうに富士山が間近にそびえる良く知られた風景を見ることができます。山頂の背後に太陽が沈む際にあらわれる「ダイヤモンド富士」は、1 年の中で条件が揃った時のみ見ることができます。

**アクセス方法:** 河口湖駅から富士吉田・忍野・山中湖周遊バスに乗り、長池親水公園前バス停下車（50 分）

山中湖の**パノラマ台**は、三国山ハイキングコース沿いにあり、出発地点から約 30 分のところにあります。その名前からもわかるとおり、ここからは手前のススキの野原、眼下に広がる湖、そしてその向こうにそびえ立つ富士山を一望することができます。晴れた日なら北方向に南アルプスまで見渡せます。

**アクセス方法:** 富士吉田・忍野・山中湖周遊バス（Fライン）に乗り、三国山ハイキングコース入口で下車（50 分）し、その後 30 分ハイキング。車の場合には、平野交差点で小山町方向に曲がり、県道 730 号線（山北山中湖線）をドライブ 15 分。

忍野村の山地にある**二十曲峠**では、水田の向こうに富士山を望むのどかな風景を見ることができます。このスポットは、ここで紹介している他のスポットよりもアクセスが難しいですが、ハイカーの間では人気です。

**アクセス方法:** 富士山駅から富士急バスに乗り、天狗社停留所で下車（40 分）し、その後、ハイキング 40 分。

河口湖北岸の**大石公園**は、春から夏にかけて、鮮やかに咲き誇る花壇を手前に置き、そして湖の向こうに富士山が入る構図で撮影することができます。富士五湖唯一の島、うの島を入れてみるのもよいでしょう。

**アクセス方法:** 河口湖駅からレッドラインバスに乗り、河口湖自然生活館（20 番）で下車（25 分）

【タイトル】 天上山公園 全体概要

【想定媒体】 パンフレット

**<韓国語>****덴조야마 공원**

덴조야마 공원은 매일 수천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후지 5 호 구역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명소 중 하나입니다. 가와구치코 호수 동쪽, 해발 1,104m의 덴조야마 산 정상 근처에 있는 이 공원에는 3층짜리 전망대가 있어 남쪽의 후지산을 포함한 360도의 파노라마 전경을 볼 수 있습니다.

산기슭에 하이킹 코스도 있지만 이곳을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은 후지산 파노라마 로프웨이(케이블카)를 탑니다. 이 케이블카는 삼림으로 뒤덮힌 경사면 위를 올라가는데 해발 1,075m에 자리한 공원까지 219m의 높이차를 불과 3분 만에 오를 수 있습니다.

**‘딱딱산’**

이 케이블카와 공원의 테마는 성격 나쁜 너구리에게 나쁜 짓을 당한 농부를 토끼가 구해준다는 ‘카치카치야마’라는 일본의 민화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 이야기의 중반쯤에 토끼는 너구리가 갇혀있고 있던 장작에 불을 붙이기 위해 부싯돌과 강철을 이용합니다. 너구리가 불타는 장작에서 들려오는 카치카치(딱딱) 소리를 알아챘을 때 토끼는 ‘여기가 카치카치야마(딱딱산)라서 카치카치 소리가 나는 거야’라고 시치미를 댅니다. 너구리는 심한 화상을 입은 후에야 비로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명한 소설가인 다자이 오사무(1909~1948)가 현대식으로 다시 쓴 ‘카치카치야마’에서는 이야기의 무대가 구체적으로 덴조야마 산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너구리와 토끼의 컬러풀한 동상이나 기념품과 가벼운 식사를 판매하는 가게의 ‘다누키야야(너구리 찻집)’라는 이름 등 이 민화에 바탕을 둔 동상, 그리고 민화와 관련된 물건이 공원 곳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망대 옆에는 우사기(토끼) 신사라는 실제 신사까지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후지산을 배경으로 하트 모양 틀에 걸린 덴조의 종(천상의 종)이나 작은 도자기 접시를 던져서 로프의 고리를 통과시키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가와라케나게(그릇 던지기)라는 이름의 어트랙션이 있습니다. 또한 지면에서 높이 7m에 있는 ‘다케다 신겐의 전국 광장, 절경 망루’에 올라서면 시야에 아무것도 가려지지 않은 후지산의 절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일년 내내 즐길 수 있는 어트랙션**

덴조야마 공원에서는 일년 내내 특별한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따뜻한 계절에는 후지산이 보이는 전망대에서 요가 강사가 진행하는 새벽 요가 교실이 열립니다. 겨울에는 불꽃놀이 이벤트나 전망 데크에서 일본의 전통적인 난방 기구인 고타쓰에 들어가는 이벤트 등이 개최됩니다. 고타쓰 이벤트에서는 마치 자신의 집 거실에서 편안히 휴식을 취하듯이 따뜻한 고타쓰에 들어가 꿀을 먹으면서 후지산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케이블카의 경치는 여름의 풍부한 녹음부터 가을의 노란색 또는 붉은색으로 물든 나무들의

색, 그리고 겨울의 온통 하얀 눈 등 계절마다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고 돌아올 때는 숲 속을 하이킹하며 내려옵니다. 케이블카의 꼭대기역에서 도보 10 분이면 덴조야마 산 정상에 도달할 수 있지만 거기서 다시 북동쪽으로 약 3 시간 코스의 미쓰토게야마 산까지 본격적인 하이킹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002-010

---

## <日本語仮訳>

### 天上山公園

天上山公園は、毎日数千人という観光客が訪れる富士五湖エリアの中で最も人気のある観光スポットのひとつです。河口湖の東、標高 1,104m の天上山の山頂近くにあるこの公園には 3 階建ての展望台があり、ここから南の富士山を含む 360 度のパノラマを見ることができます。

麓からのハイキングコースもありますが、ここを訪れる多くの人々は、富士山パノラマロープウェイに乗ってやってきます。このロープウェイは、森林に覆われた斜面の上空を進み、標高 1,075m の公園まで 219m の標高差をわずか 3 分間で上ることができます。

### 「カチカチ山」

このロープウェイと公園のテーマは、「カチカチ山」という、性悪タヌキに悪さをされた農夫をウサギが助けるといふ日本の民話をもとにしたものです。この物語の中盤、ウサギはタヌキが背負っていた焚き木に火をつけようと、火打ち石と鋼を使います。タヌキが燃えさかる焚き木から聞こえるカチカチという音に気づいたとき、ウサギは「ここはカチカチ山だからカチカチ音がするのだ」ととぼけます。タヌキは、ひどい火傷を負ったあとになって初めて騙されたことに気づきます。有名な小説家、太宰治 (1909-1948) が現代風にし直した「カチカチ山」では、物語の舞台が具体的に天上山となっています。

タヌキとウサギのカラフルな像や、土産物や軽食を販売しているお店の「たぬき茶屋」という名前など、この民話を基にした像や民話に関する物が公園のいたるところにあります。展望台の隣にはうさぎ神社という本物の神社まであります。その他にも富士山を背景としたハート型の枠にかかった天上の鐘や、小さな陶器製の皿を投げてロープの輪をぐらせると願いが叶うというかわらけ投げというアトラクションがあります。また、地面からの高さ 7 メートルの「武田信玄の戦国広場 絶景やぐら」に上れば、何も遮るもののない富士山の絶景を楽しむことができます。

### 年中楽しめるアトラクション

天上山公園は 1 年を通じて特別なイベントを開催しています。暖かい季節には、富士山を望む展望台で、ヨガインストラクターによる夜明けのヨガ教室が開催されます。冬には、花火イベントや展望デッキで日本の伝統的な暖房器具であるこたつに入るイベントなどが開催されます。こたつイベントでは、まるで自宅の間でくつろいでいるかのように、温かいこたつに入ってみかんを食べながら富士山を眺めることができます。

ロープウェイからの景色は、夏の緑豊かな景色から、秋の黄色や赤色に染まった木々の色、そして冬には一面の白い雪など、季節ごとに変わります。天候がいい場合には、多くの人がロープウェイを使って上り、帰りには森の中をハイキングして下山します。ロープウェイの山頂駅から徒歩 10 分で天上山の頂上に到達することができ、そこからさらに、北東へ約 3 時間の三ツ峠山まで本格的なハイキングに出かける人もいます。



【タイトル】 山中湖ダイヤモンド富士 全体概要

【想定媒体】 パンフレット

### <韓国語>

#### 다이아몬드 후지

다이아몬드 후지란 후지산 정상 너머로 태양이 뜨거나 지는 그 순간에만 볼 수 있는 경치를 말합니다. 후지산의 상징적인 실루엣 위로 태양 빛이 겹치며 아주 잠깐 동안 보석처럼 빛을 발합니다. 프로와 아마추어에 상관없이 수천 명의 열성적인 사진가들은 이 다이아몬드 후지를 카메라에 담으려 도전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아침에는 계획과 인내, 그리고 무엇보다도 날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해 질 녘의 다이아몬드

지축의 기울기에 따라 해가 뜨고 지는 방향과 각도가 매일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후지를 볼 수 있는 각도도 달라지지만, 언제 어디에서 볼 수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면 어렵지 않게 해 질 녘의 다이아몬드 후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해 질 녘의 다이아몬드 후지를 볼 수 있는 시간대는 시기와 장소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오후 3시 반부터 4시 반 사이가 좋습니다. 후지산의 북동쪽에 위치한 야마나카코 호수의 경우, 10월 중순부터 2월 하순까지의 기간에는 호안을 따라 매일 저녁 어디에서나 다이아몬드 후지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가이케신스이 공원과 히라노 호반, '교류 플라자 기라라'도 인기있는 감상 명소입니다. 호수면이 잔잔할 때는 후지산의 정상으로 태양이 지는 모습이 호수면에 반사되는 매우 귀중한 '더블 다이아몬드 후지'를 촬영할 수도 있습니다.

#### 아침의 보석

아침에 다이아몬드 후지를 보려면 해가 뜰 때 후지산의 서쪽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후지 5호 중에서 가장 서쪽에 위치한 모토스코 호수 주변에는 안성맞춤인 장소가 몇 군데 있습니다. 1월 1일에는 모토스코 호수 남쪽의 류가타케 산 정상(해발 1,485m) 조금 앞에 있는 전망대가 절호의 명소입니다. 이 장소에서는 다이아몬드 후지를 오전 7시 40분 전후에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른 아침에는 꽤 춥기 때문에 산 정상에서 일출을 기다리려면 인내심도 필요합니다.

### <日本語仮訳>

#### ダイヤモンド富士

ダイヤモンド富士とは、ちょうど富士山の山頂越しに太陽が昇るとき、または太陽が沈むときに見える景色のことです。富士山の象徴的なシルエットの上に日の光が重なり、ほんの僅かな間、宝石のように光り輝きます。プロ・アマ問わず、何千人という熱心な写真家が、このダイヤモンド富士をカメラに収めようと挑戦しますが、簡単なことではありません。特に朝は、計画と、忍耐、そしてなにより天気の手助けが必要です。

## 夕方のダイヤモンド

地軸の傾きにより、日の出と日没の方向と角度が毎日少しずつ変わるため、ダイヤモンド富士を目撃できる角度も変わりますが、いつ、見られるかを事前に確認すれば苦も無く夕方のダイヤモンド富士に出会うことができます。また夕方のダイヤモンド富士を見られる時間帯は時期と場所によって異なりますが、だいたい午後3時半から4時半の間が良いです。山中湖は富士山の北東に位置しているため、10月半ばから2月終盤までの期間には湖岸に沿って、毎夕どこかでダイヤモンド富士が見られる可能性があります。長池親水公園や平野湖畔、交流プラザきらは、人気の鑑賞スポットです。湖面が穏やかな場合には、富士山の頂上に太陽が沈む姿が湖面に反射した、とても貴重な「ダブルダイヤモンド富士」を撮影できることもあります。

## 朝の宝石

朝にダイヤモンド富士を見るには、日が昇る時に富士山の西側で待機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富士五湖の中で最も西に位置する本栖湖周辺には、ぴったりのスポットがいくつかあります。1月1日には、本栖湖南側の龍ヶ岳の山頂（標高1,485メートル）少し手前にある展望台が絶好のスポットとなります。この場所からはダイヤモンド富士を午前7時40分前後に見ることができます。ただし、早朝に登山をして山頂で日の出を待つのはかなり寒いので忍耐も必要です。

【タイトル】 石割神社 全体概要

【想定媒体】 パンフレット

**<韓国語>****이시와리 신사**

이시와리 신사는 야마나카코 호수의 북쪽, 해발 1,413m 의 이시와리야마 산 하치고메(8 부 능선, 1,143m)에 서 있습니다. 이시와리라는 이름은 이 신사 안쪽의 갈라진 틈(와리)이 있는 큰 바위(이시)에서 유래했습니다. 8 세기에 쓰여진 일본의 역사서 고지키(古事記)에 따르면 일본 신화에서 태양신으로 여겨지는 아마테라스오미카미가 과거 잠시 동굴에 들어가 칩거했을 때 세상이 완전히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아마테라스오미카미가 동굴 입구를 막는 데 이 큰 바위를 사용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큰 바위에 난 틈을 세 번 빠져나가면 행운이 찾아오지만 틈을 빠져나가기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바위가 알아차리면 틈이 완전히 닫힌다고 합니다. 이 전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403 단의 계단을 올라 신사까지 찾아가야 합니다. 이시와리야마 하이킹 코스 입구의 버스 정류장과 등산로 주차장 근처의 도리이를 지나면 이 계단이 시작됩니다.

**이시와리야마 산 등산로 하이킹**

수목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지 않은 이시와리야마 산 정상에서는 정면으로는 후지산과 히라오야마 산, 좌측으로는 저멀리 남알프스까지 아름다운 전망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이시와리야마 산 정상까지 올라간 후 히라오야마 산을 종주하고 다시 주차장으로 돌아오는 하이킹 코스는 약 3 시간이 소요됩니다.

**<日本語仮訳>****石割神社**

石割神社は、山中湖の北側、標高 1,413m の石割山の八合目（1,143m）に立っています。この、石割という名前は、この神社の奥にある、割れ目の入った巨岩にちなんでいます。8 世紀に書かれた日本の歴史書、古事記によると、日本の神話の中で太陽神とされている天照大神がかつて一時的に洞窟に閉じこもった時に、世界が真っ暗闇になりました。この地では、天照大神が洞窟の入り口を閉じるのにこの巨岩を使ったと言い伝えられています。

この巨岩の隙間を 3 回通り抜けると幸運が訪れますが、隙間を通り抜けるのにふさわしくない人だといことが岩に見破られてしまうと隙間が閉まると言い伝えられています。この言い伝えを確かめるには、まずは 403 段の階段をのぼって神社までたどり着く必要があります。石割山ハイキングコース入口バス停と登山口駐車場の近くの鳥居をくぐると、この階段が始まります。

## 石割山登山道のハイキング

石割山には、樹木が鬱蒼と茂っていないため、山頂からは、正面に富士山と平尾山、そして左側には遠くに南アルプスなどの美しい展望を見ることができます。駐車場から石割山山頂まで登った後、平尾山へ縦走し、また駐車場へと戻ってくるハイキングコースは約 3 時間かかります。

【タイトル】 山中湖花の都公園 全体概要

【想定媒体】 パンフレット

**<韓国語>****하나노미야코 공원**

야마나카코 호수의 서북쪽, 넓은 하늘 아래에 계절마다의 꽃이 활짝 피는 하나노미야코 공원은 서쪽으로 20km 거리에 있는 후지산과 심플하면서도 아름답게 어우러지며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합니다. 12월부터 1월까지의 후지산 정상으로 태양이 저무는 그 순간에만 보이는 유명한 ‘다이아몬드 후지’를 기대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해발 1000m 가까운 곳에 자리한 이 공원은 서늘한 기후의 영향을 받아 개화하는 시기가 도쿄보다 1 개월 정도 늦습니다. 1년 중 가장 먼저 피는 꽃은 4월 하순에 피는 튜립입니다. 그리고 네모필라, 안개꽃, 양귀비, 해바라기 등 다양한 꽃들이 그 뒤를 잇습니다. 9월에는 수확제가 개최되며 단풍은 10월부터 11월 초순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이 공원에서는 매일 밤 일루미네이션 판타지움이라는 라이트 업 이벤트가 열리고 주말에는 불꽃놀이 행사도 펼쳐집니다.

이 공원의 동쪽 끝에는 열대 식물과 사계절 꽃들을 감상할 수 있는 전천후형 온실 ‘플로럴 돔 후라라’와 폭포, 그리고 용암수형을 관찰할 수 있는 지하실이 있습니다. 용암수형이란 수목이 용암류에 덮여져 타 버린 후 구멍이 된 것을 말하는데 이 공원 지하에도 용암수형이 존재합니다. 공원을 건설하던 중에 이 용암수형이 발견되자 직접 관찰할 수 있도록 그대로 보존했습니다.

**<日本語仮訳>****花の都公園**

山中湖の北西にある花の都公園は、広い空の下に四季折々の花々が咲き誇る公園で、公園の西 20km のところにある富士山とのシンプルながらも美しく調和した風景は私たちの目を楽しませてくれます。12月から1月にかけては、ちょうど富士山の頂上に太陽が沈むときに見える、有名な「ダイヤモンド富士」が期待できる場所でもあります。

この公園は、標高 1000メートル弱のところであり、冷涼な気候により開花する時期が東京より1ヶ月ほど遅れます。1年の中で最初に咲く花は、4月後半に咲くチューリップです。そして、ネモフィラ、かすみ草、ポピー、ひまわりなど様々な花が続きます。9月には収穫祭が開催され、紅葉は10月から11月初頭まで楽しむことができます。冬になるとこの公園では毎晩イルミネーションファンタジウムというライトアップイベントが催され、週末には花火の打ち上げも行われます。

この公園の東の端には、熱帯の植物や四季の花々が鑑賞できる全天候型温室のフローラルドームふらら、滝、そして溶岩樹型を観察することができる地下室があります。溶岩樹型とは、樹木が溶岩流に飲み込まれた後、焼失して空洞になったものをいい、この公園の地下にそれが存在しています。公園の建設中にこの溶岩樹型が発見され、直接観察できるようにそのまま保存されました。

【タイトル】 河口浅間神社 全体概要

【想定媒体】 パンフレット

**<韓国語>****가와구치아사마 신사**

가와구치코 호수 북동쪽에 있는 가와구치아사마 신사는 아사마 또는 센겐(淺間)이라는 이름의 화산의 여신을 기리고 후지산의 분화를 진정시키기 위해 건립되었습니다. 후지산의 신을 모신 아사마 신사는 그 1 세기 이상 전까지는 후지산의 스루가국(현재의 시즈오카현)쪽에 존재했었지만, 864 년의 조간 대분화(貞觀大噴火)로 북쪽 기슭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자 조정은 가이국(현재의 야마나시현) 쪽에도 새로운 신사를 건립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후지산에 대처하면서 가와구치코 호수를 사이에 둔 장소가 선택된 이유는 가이국의 정치적으로 중요한 지역에서 분화 피해 지역을 향해 절을 할 수 있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와구치아사마 신사는 신성한 나무가 늘어서 있는 참배길로도 유명합니다. 또한 신사의 경내에는 이 신사가 건립되기 전부터 서 있던 수령 1,200 년을 넘는 신목 삼나무 7 그루가 있습니다.

19 세기 초 가와구치아사마 신사는 산의 신 오야마쓰미노카미의 딸이자 꽃의 여신인 고노하나사쿠야히메노미코토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고노하나사쿠야히메노미코토의 손자인 우가야후키아에즈노미코토는 우부야가사키 곶에 있는 우부야가사키 신사에 모셔져 있습니다. 매년 4 월 25 일에 열리는 가와구치아사마 신사의 예대제에서는 고노하나사쿠야히메노미코토를 태운 미코시(신을 태운 가마)를 우부야가사키 신사까지 옮기는 의식을 행합니다. 이는 고노하나사쿠야히메노미코토가 아들 부부의 출산 문안을 간다는 의미가 담겨진 것으로 손자를 보러 간다는 뜻으로 ‘마고미 축제(손자를 보는 축제)’라고도 부릅니다.

**지고노마이 - 어린 아이의 춤**

가와구치아사마 신사의 배전(참배를 위한 건물)은 좌우 2 채의 건물이 토방 광장을 사이에 두고 하나의 지붕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는 아사마 신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배전 중앙의 광장에서는 전통적인 의식인 지고노마이가 개최됩니다.

지고노마이는 전통 의상을 입은 7 세부터 12 세까지의 지역 출신 여자 아이가 춤을 봉납하는 의식으로, 4 월 25 일 ‘마고미 축제’의 의식 전과 7 월 28 일의 다이다이 오카구라사이 축제 등 일 년에 두 번 상연됩니다.

**<日本語仮訳>****河口浅間神社**

河口湖の北東にある河口浅間神社は、浅間（あさま/せんげん）という名の火山の女神を祀り、富士山の噴火を鎮めるために建立されました。富士山の神を祀る浅間神社は、その1世紀以上前には富士山の駿河国（現在の静岡県）側に存在していましたが、864年の貞観大噴火で北麓地域に甚大な被害をもたらしたため、朝廷が甲斐国（現在の山梨県）側にも新しい神社を建立するよう命令したのです。富士山に対峙しつつ間に河口湖を挟む場所が選ばれた理由として、甲斐国の政治上重要な地から噴火の被災地を遥拝できるようにという考えがあったのではないかとわれています。

河口浅間神社は、御神木がずらりと並ぶその参道で有名です。また、この神社の境内にはこの神社が建立される前から立っている、樹齢1,200年を超える御神木の七本杉があります。

19世紀初頭、河口浅間神社は、山の神、大山津見神の娘であり花の女神である木花開耶姫命を祀るようになりました。木花開耶姫命の孫、鷓鴣草葺不合尊（ウガヤフキアエズノミコト）は、産屋ヶ崎にある産屋ヶ崎神社に祀られています。毎年4月25日の河口浅間神社の例大祭では、木花咲耶姫命を乗せた神輿（神様を乗せる輿）を産屋ヶ崎神社まで運ぶ儀式が行われます。これは、木花咲耶姫命が息子夫婦の出産見舞いに行くという意味が込められており、孫を見に行くという意味で「孫見祭」とも呼ばれています。

### **稚児の舞 - 子どもの踊り**

河口浅間神社の拝殿（参拝するための建物）は、左右2棟の建物が土間の広場を挟んで一続きの屋根で構成されており、これは浅間神社でよく見られる構造です。拝殿中央の広場では伝統的な儀式である稚児の舞が催されます。

稚児の舞は、伝統的な衣装を身に着けた地元の7歳から12歳までの女兒が舞を奉納する儀式で、4月25日の「孫見祭」の儀式の前と、7月28日の太々御神楽祭の年に2回上演されます。



【タイトル】紅葉台 全体概要

【想定媒体】パンフレット

**<韓国語>****고요다이, 산코다이 전망대와 아시와다야마 산 - 도카이 자연 보도에서 보는 후지산**

도카이 자연 보도는 도쿄에서 오사카까지를 연결하는 총 길이 1,697km 의 자연 산책로로 후지 5 호 지역 전체를 지납니다. 도카이 자연 보도 도중에는 다양한 지형이 있는데 사이코 호수 남쪽, 고요다이(해발 1,164m)와 산코다이(해발 1,202m)를 지나는 코스는 경치가 아름답고 걷기도 쉬워서 가족 단위 나들이에도 적합한 하이킹 코스입니다. 해발 1,355m 의 아시와다야마 산 정상까지 왕복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90 분입니다.

**경사면 오르기**

하이킹 코스의 첫 번째 볼거리는 고요다이 입구에서 10 분 정도 거리에 있는 만요(萬葉) 노래비입니다. 이 비석에는 8 세기에 편찬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와카(일본의 전통 정형시)집인 만요슈(萬葉集)에 수록된 후지산을 칭송하는 와카가 새겨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갈 곳은 도보 20 분 거리에 있는 고요다이입니다. 고요다이 전망 레스트 하우스 옥상에 있는 전망 데크에서는 아오키가하라 주카이 숲 너머로 웅대한 후지산의 전경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높이에서 한쪽에 펼쳐진 숲과 그 주위의 산들이 엮어내는 장대한 풍경을 바라보다 보면, 이 숲이 864 년의 조간 대분화(貞觀大噴火) 때 흘러나온 용암으로 형성된 땅 위에 자리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산코다이는 하이킹 코스를 약 20 분 걸으면 만날 수 있습니다. 3 개의 호수라는 뜻의 산코(三湖)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이곳에서는 사이코와 모토스코의 두 호수밖에 볼 수 없습니다. 거기서 1 시간 정도를 더 걸으면 아시와다야마 산 정상에 도착하는데, 정상에는 통나무로 된 특징적인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이킹 코스에서 가장 고도가 높은 위치에 자리한 이 전망대에서는 한 번쯤 풍경을 볼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日本語仮訳>****紅葉台、三湖台と足和田山 - 東海自然歩道から見る富士山**

東海自然歩道は、東京から大阪までを結ぶ全長 1,697km の自然遊歩道で、富士五湖の地域全体を通っています。東海自然歩道の途中には様々な地形がありますが、西湖の南側、紅葉台（標高 1,164m）と三湖台（標高 1,202m）を通るコースは短く、景色もよく、また歩きやすいので、家族づれでのお出かけにも最適なハイキングコースです。標高 1,355m の足和田山の山頂までの往復の所要時間は約 90 分です。

## 斜面を登る

ハイキングコース最初の見どころは、紅葉台の入り口から 10 分ほどの場所にある萬葉の歌碑です。この石碑には、8 世紀に編纂された、現存する中で最も古い和歌集である万葉集に収録された富士山を讃える和歌が刻まれています。

次に行くのは、徒歩 20 分のところにある紅葉台です。紅葉台展望レストハウスの屋上にある展望デッキからは、青木ヶ原樹海越しに雄大な富士山の全景を見ることができます。この高さから、一面に広がる森とその周囲の山々とは織りなす壮大な風景を一望すると、この森が 864 年の貞観大噴火で流れ出した溶岩によってできた地面の上に成り立っていることを実感できます。

三湖台は、ハイキングコースを約 20 分歩いたところにあります。3 つの湖という意味の三湖という名前ではありますが、西湖と本栖湖の 2 つしか見られません。さらに 1 時間ほど歩くと足和田山の山頂に到達し、山頂には丸太でできた特徴的な展望台が設置されています。この展望台はハイキングコースで最も標高が高い位置にあり、風景は一見の価値があります。

【タイトル】 鳴沢溶岩樹型 全体概要

【想定媒体】 パンフレット

**<韓国語>****나루사와 용암수형**

864 년의 조간 대분화(貞觀大噴火)로 인해 원래부터 있었던 숲이 용암류에 휩쓸리면서 수목이 완전히 타버리고 속이 빈 구멍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형태를 용암수형이라고 합니다. 나루사와 용암수형은 12 곳의 수형이 가까이 존재하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희귀한 형태로 국가 특별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지름이 5m 에 달하는 구멍도 있어 분화로 인해 풍경이 완전히 달라지기 전까지는 거목이 뻗뻗히 우거져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삼림에 용암이 흘러든다고 해서 반드시 수형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형이 생기기 위한 조건으로는 먼저 용암의 규산 함유량이 50~51%로 비교적 높아야 합니다. 또한 지형적인 면에서는 표면 기울기가 용암의 움직임에 너무 느리거나 너무 빠르게 하지 않는 약 3%이면서 흐르는 용암도 두껍지 않아 구멍이 남겨질 수 있는 정도여야 합니다. 아오키가하라 주카이 숲의 다른 지역에서는 용암류의 두께가 100m 이상에 달한 장소도 있지만, 나루사와에서는 원래의 지표가 불과 4m 아래로 보이는 마치 우물과 같은 구멍 속을 내려다 볼 수 있습니다.

**숲속의 스파이러클(용암 수증기 분기공)**

1993 년에 이루어진 조사로 이 지역에서 용암 스파이러클도 발견되었습니다. 용암 수증기 분기공이라고도 하는 용암 스파이러클은 용암류 속에 갇힌 수분이 수증기가 될 때 급속히 팽창해 표면에서 폭발하면서 식은 용암에 특징적인 흔적을 남긴 것입니다. 나루사와에는 세계적으로 봐도 매우 많은 수의 스파이러클이 있는데, 그 대부분은 용암층이 식어 갈라지면서 생긴 낮은 '절벽'의 경사면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日本語仮訳>****鳴沢溶岩樹型**

864 年の貞觀大噴火では、もともとあった森が溶岩流に飲み込まれ、樹木が燃え尽きた結果、空洞ができました。このような状態のものを溶岩樹型と言います。鳴沢溶岩樹型は、12 箇所の樹型が近接して存在する、世界的にも非常に珍しいもので、国の特別天然記念物に指定されています。中には直径が 5m に及ぶ空洞もあり、噴火により風景が一変してしまう以前は巨木が茂っていたことがわかります。

森林に溶岩が流れ込めば必ず樹型ができ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樹型ができるための条件として、まず溶岩のケイ酸含有量が 50~51%と比較的高い必要があります。さらに地形の面では、表面勾配が、溶岩の動きが遅すぎず、また速くなりすぎない約 3%であり、また、流れる溶岩の厚みが大きくなく、空洞が残る程度である必要があります。青木ヶ原樹海の他の地域では溶岩流の厚さが 100m 以上に達した場所

もありますが、鳴沢では、元の地表がわずか 4m 下に見える、まるで井戸のような空洞の中を見下ろすことができます。

### **森の中のスパイラル (溶岩水蒸気噴気孔)**

1993 年の調査ではこの地域に溶岩スパイラルも発見されました。溶岩スパイラルとは、溶岩水蒸気噴気孔ともいい、溶岩流の中に閉じ込められた水分が、水蒸気になる際に急速に膨張して表面で爆発し、冷えた溶岩に特徴的な跡を残したものです。鳴沢には、世界的に見ても非常に多くのスパイラルがあり、その多くは溶岩層が冷えて裂けることで生じた低い「崖」の斜面に簡単に見ることができます。

【タイトル】 本栖湖千円札富士山展望地 全体概要

【想定媒体】 パンフレット

**<韓国語>****천 엔 지폐의 도안으로 채택된 후지산의 풍경 - 오카다 고요의 유명한 사진**

현행 천 엔 지폐와 1984년에 발행된 오천 엔 지폐에는 호수와 숲으로 덮힌 언덕 너머로 후지산이 보이는 풍경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는 사진가 오카다 고요(1895~1972)가 1935년에 모토스코 호수를 촬영한 '호반의 봄'이라는 제목의 사진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니가타현에서 태어난 오카다는 일본 산악 사진의 선구자입니다. 오카다는 자신이 사랑하는 후지산을 '후지코'라는 여성의 이름으로 부르면서 후지산과 그 주변 지역을 사진으로 기록하는 것을 일생의 과업을 삼았습니다. 후지 5호 지역을 자주 방문해 사랑해 마지 않던 피사체의 새로운 얼굴을 찾아 숲이나 언덕을 산책하는 오카다의 모습은 지역에서도 유명해져서 오카다는 많은 사람들과 친분을 쌓았습니다.

오카다 고요 미술관은 오카다가 21세 때 처음으로 후지산에 마음을 빼앗겼던 오시노무라(마을)에서 2004년 개관했습니다. 오시노무라에 있는 8곳의 용수지를 뜻하는 오시노 핫카이 너머로 저멀리 후지산이 바라보이는 사진은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오카다의 작품 중 하나입니다.

**오카다의 발자취를 더듬다**

오카다가 촬영한 사진 '호반의 봄'으로 유명세를 얻은 풍경은 지금도 변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이 장소는 모토스코 호수의 북서쪽에 있으며 '천 엔 지폐 속의 후지산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호숫가에서 등산로로 들어가 1km, 약 30분을 걸으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 등산로는 험준하고 가파른 절벽 몇 곳을 올라야 하지만 전망대에서 보이는 최고로 아름다운 후지산의 모습은 등산의 피로를 말끔히 잊게 합니다.

**<日本語仮訳>****千円札の絵柄に採用された富士山の風景 - 岡田紅陽の有名な写真**

現行の千円紙幣と、1984年発行の五千円紙幣には、湖と、森に覆われた丘の向こうに富士山を望む風景が描かれています。これは、写真家、岡田紅陽(1895-1972)が1935年に本栖湖を撮影した「湖畔の春」という題名の写真を基にしたものです。

新潟県に生まれた岡田は、日本の山岳写真における先駆者でした。岡田は、愛する富士山を「富士子」という女性の名前で呼び、富士山とその周辺地域を写真で記録することをライフワークとしていました。富士五湖地域に頻りに訪れ、愛して止まない被写体の新しい顔を探し求めて森や丘を散策する岡田の姿は地元でも有名になり、岡田は多くの人たちと親交を深めました。

岡田紅陽美術館は、岡田が 21 歳の時に初めて富士山に心を奪われた忍野村に 2004 年に開館しました。忍野村にある 8 つの湧水群からなる忍野八海の向こうに遠く富士山を望む写真は、最も高い評価を受けている岡田作品の一つです。

### **岡田の足跡をたどる**

岡田が撮影した写真「湖畔の春」により有名になった風景は、今も変わらず残っています。その場所は、本栖湖の北西にあり、「千円札の富士山展望台」が設置されています。湖畔から登山道に入り、歩くこと 1km、約 30 分で到達できます。この登山道は、険しく、急峻な崖を数カ所登る必要がありますが、展望台から望む最高に美しい富士山の姿は、登山の疲れをすっかり忘れさせてくれます。

【タイトル】 吉田口登山道

登山道の歴史のほか、各合目に点在する富士講遺跡

【想定媒体】 パンフレット

**<韓国語>****요시다구치 등산로**

요시다구치 등산로는 후지산의 북쪽 등정할 때 가장 인기 있는 등산로입니다. 등산객 대부분은 후지 스바루 라인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등산로의 고고메(5부 능선, 해발 2,305m)까지 간 후 정상을 향해 올라갑니다. 이보다 사람의 기적은 적지만 역사적인 등산로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 추천하는 루트는 기타구치혼구 후지센겐 신사에서 시작해 후지산 고고메 부근의 일반적인 등산로로 합류하는 요시다구치 등산로의 산기슭 부분입니다. 한가로운 분위기와 풍부한 녹음 등 흥미로운 장소가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나카노차야 - 경계**

기타구치혼구 후지센겐 신사에서 1시간 조금 넘게 걸으면 최초의 중계 지점인 나카노차야에 다다르게 됩니다. 나카노차야는 신사와 등산로의 원래 시작점인 우마가에시(아래 참조) 중간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 주변을 흐르는 계곡은 과거 이승과 저승을 가르는 경계로 여겨지는 삼도천에 비유되었습니다.

이 차야(찻집)에서는 주말이 되면 경단과 ‘요시다 우동’이라는 유명한 지역 먹거리를 제공합니다. 이곳에는 17세기에 설립된 후지산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민간 신앙 후지코의 순례자들이 지난 수세기 동안 세운 다수의 비석이 남아 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후지코 신도가 33번째 등정을 달성해 문자 그대로 ‘선두를 가는 자’라는 뜻의 ‘센다쓰’가 된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센다쓰는 정신적 지도자이자 등산의 안내인으로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우마가에시 - 입산**

1시간 정도 등산로를 더 오른 곳에 있는 다음 찻집인 오이시차야는 황철쪽으로 유명합니다. 그 후 30분을 더 걸으면 ‘말이 되돌아 가는 장소’라는 의미의 우마가에시에 도착합니다. 우마가에시는 해발 1,450m 지점에 있는데 여기서부터 후지산의 풀이 우거진 경사면이 밀림으로 바뀌고 그 경사 또한 말이 오르기 힘들 정도로 가팔라집니다. 그래서 우마가에시보다 더 높은 곳까지는 모든 짐을 사람의 손으로 옮겨야만 했습니다.

우마가에시의 이시(돌)도리이 양쪽에는 후지산의 수호수인 원숭이상이 있습니다. 실제로 후지산에는 원숭이가 살지 않지만 전설에 따르면 오래전 후지산이 안개 속에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고 탄생한 것이 경신(庚申)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신년에 후지산을 오르면 특히 운수가 좋아진다고 해서 이때는 많은 등산객이 후지산을 방문합니다. (다음 경신년은 2040년입니다.)

도리이 바로 앞에는 순례자들이 신성한 산에 발을 들여놓기 전 속세의 흔적을 하나도 남기지 않도록 몸을 정화했던 ‘미소기쇼(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

목조 건축물은 오랜 세월 비바람을 맞아 노후화되면서 약 60년 전에 붕괴되었지만 표지가 그 건물이 있었던 장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명소가 요시다구치 등산로의 저지대를 따라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후지산을 등정하는 것은 1872년까지 정식으로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들은 멀리서 기도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니고메(2부 능선, 1,700m)에는 당시 이곳이 여성이 오를 수 있었던 가장 높은 지점이었음을 알려주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후 오무로센겐 신사가 호숫가로 옮겨지기 전에 존재했던 곳을 지나 고고메(5부 능선)에 다닙니다. 이 루트는 4월 후반부터 5월 전반까지 후지벚꽃과 삼엽철쪽으로 채색됩니다.

우마가에서에서 고고메까지의 소요 시간을 합하면 3~4 시간이 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좋으니 가볍게 산행을 즐기고 싶으신 분은 고고메까지 버스를 탄 후, 산 정상까지는 가지 않고 기타구치혼구 후지센겐 신사까지 도보로 하산하는 5~6 시간의 비교적 쉬운 루트를 추천합니다.

002-018

---

### <日本語仮訳>

#### 吉田口登山道

吉田口登山道は、富士山の北側への登頂に最も人気のある登山道です。登山者の大半は、富士スバルラインに行くバスで登山道の五合目(標高 2,305m)まで行った後、山頂に向かって登ります。より人気(ひとけ)は少ないものの歴史的な登山道に興味がある方にオススメなのは、北口本宮富士浅間神社から登り、富士山五合目付近で一般的な登山道に合流するまでの吉田口登山道の下半分です。のどかで緑豊かで、興味深い場所が点在しています。

#### 中の茶屋 - 境界

北口本宮富士浅間神社から1時間強歩いたところにある最初の中継地点が中の茶屋です。中の茶屋は、神社と登山の本来の開始地点である馬返し(下記参照)との中間に位置するため、その近くに流れる沢はかつてこの世とあの世とを分ける境界とされる三途の川に例えられていました。

この茶屋では週末になると団子や、「吉田のうどん」という有名なご当地グルメを提供しています。ここには、17世紀に成立した富士山を信仰する民間信仰である富士講の巡礼者が過去数世紀にわたって建てた数多くの石碑が残っています。これらの多くは、富士講道者が33回目の登頂を達成し、文字通り「先頭を行く者」という意味の先達になったことを記念するものです。先達は、精神的指導者として、また登山の案内役として尊敬されていました。

#### 馬返し - 入山

次の茶屋、大石茶屋は、さらに1時間登山道を登ったところにあり、レンゲツツジで有名です。その後30分歩くと、「馬が引き返してしまう場所」という意味の馬返しに着きます。馬返しは海拔 1,450m 地点にあり、ここからは富士山の草深い斜面が密林に取って代われ、また傾斜も馬には急峻なものになってし



まうのです。そのため、馬返しから上は、すべての荷物を人の手で運ぶ必要がありました。

馬返しの石鳥居の両側には富士山の守護獣のサルの像があります。富士山にはサルが生息していませんが、伝説では富士山が大昔霧の中から世界に姿を表し誕生したのが庚申（かのえさる）の年だったと言われていて、そのため、庚申の年に富士山に登山することは、特に縁起が良いことだとされており、その年になると多くの登山者が富士山を訪れます。（次の庚申の年は 2040 年です。）

鳥居のすぐ先には巡礼者が神聖な山に足を踏み入れる前に俗世間の痕跡を一切残さないように体を清めた「禊所（体と心を清める場所）」だった場所があります。この木造建築物は、長年風雨にさらされて老朽化したため約 60 年前に崩壊しましたが、標識がその建物がかつてあった場所を示しています。

その他多数の名所が吉田口登山道の低いエリアに沿って存在しています。女性が富士山に登頂することは 1872 年までは正式に許されておらず、遠くから拜まなければなりません。二合目（1,700m）に、当時はここが女性が登ることのできた最高地点であったことを示す記念碑が立てられています。その後、御室浅間神社が湖畔に遷宮する前に存在していたところを通り、五合目に至ります。このルートは、4 月の後半から 5 月の前半までフジザクラとミツバツツジで彩られます。

馬返しから五合目までの所要時間を合計すると、3～4 時間となります。時間が長くかかってもいいから、手軽に山歩きを楽しみたいという方には、五合目までバスに乗り、山頂は目指さずに、北口本宮富士浅間神社まで徒歩で下山するという、5～6 時間で行ける比較的容易なルートをお勧めします。

【タイトル】 北口本宮富士浅間神社 全体概要

【想定媒体】 パンフレット

**<韓国語>****기타구치혼구 후지센겐 신사**

기타구치혼구 후지센겐 신사는 후지산 북쪽에서 산 정상으로 이어지는 요시다구치 등산로 입구에 자리한 신사입니다. 이 신사는 수세기 동안 에도(현재의 도쿄)에서 도착한 대부분의 순례자들이 등산을 시작했던 지점입니다.

이 신사의 기원에 관한 전설에 따르면 서기 110년 고대 일본의 전설적인 영웅인 야마토타케루가 동쪽을 정벌할 때 이 신사 근처의 언덕에 올라가 후지산을 우러러보며 경의를 표한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며 788년에 현재의 장소에 신사가 건립되었습니다. 17~18세기에는 후지코 신앙이 폭발적으로 유행하면서 에도에서 이 신사를 가려는 새로운 순례자의 파도가 들이닥쳤습니다. 이 신사에 있는 대부분의 건축물은 이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거대한 소나무 고목이 즐비하게 늘어서있는 참배길을 빠져나오면 ‘삼국제일산(三國第一山)’이라고 쓰인 현판을 내건 당당한 도리이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삼국’이란 일본과 중국, 그리고 인도를 가리키는데 고대의 일본이 아는 세계는 이 세 나라만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도리이에는 신사로 들어가는 입구일 뿐만 아니라, 후지산으로 가는 입구이기도 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3 채의 본전**

현재의 본전이 서있는 신사의 경내에는 이전의 본전 2 채가 세워져 있습니다. 좌측 안쪽에 있는 히가시노미야(東宮) 본전(本殿)은 가장 오래된 것으로 1223년에 가마쿠라 막부의 제 2대 집권자인 호조 요시토키(1163~1224)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1561년에 이 본전은 다이묘(넓은 영지를 다스린 영주) 다케다 신겐(1521~1573)으로부터 신사에 기증되었습니다. 우측 안쪽에 있는 니시노미야(西宮) 본전은 히가시노미야 본전보다 약간 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전국을 통일한 지 10년도 지나지 않았을 때 히데요시의 간접적인 자금 지원을 받아 1594년에 건립되었습니다. 배전(拜殿: 참배하기 위한 건물) 뒤에 있는 현재의 본전은 에도 시대(1603~1868)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온 장군 도쿠가와 이에야스(1543~1616)의 가신에 의해 1615년에 건립되었습니다.

이 신사의 또 다른 특이한 특징은 배전과 본전의 뒤편에 일본에서 변영의 신으로 알려진 에비스와 다이코쿠텐을 모시고 있다는 점입니다. 에비스와 다이코쿠텐에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참배자는 후지산을 등겨야만 하는데 이는 센겐 신사에서는 잘 볼 수 없는 참배 방법입니다. 어쨌든 이 위치는 두 기둥의 신이 영원히 후지산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택되었는지도 모릅니다.

**<日本語仮訳>**

## 北口本宮富士浅間神社

北口本宮富士浅間神社は、富士山の北側から山頂につながる吉田口登山道の入口にある神社です。この神社は、何世紀にもわたり江戸（現在の東京）から到着した巡礼者の大半が登山を開始した地点です。

この神社の起源に関する言い伝えでは、西暦 110 年、古代日本の伝説的英雄、日本武尊が東征の際にこの神社の近くの丘に登り、富士山を仰ぎ見て敬意を示したことに始まるとされており、788 年に現在の場所に神社が建立されました。17・18 世紀には、富士講信仰が爆発的に流行し、江戸からこの神社を目指す新たな巡礼者の波が押し寄せました。この神社の建築物の大半はこの時代にさかのぼるものです。

巨大な松の古木が立ち並ぶ参道を抜けると、「三国第一山」と書かれた額を掲げる堂々たる鳥居があります。この「三国」とは、日本、中国とインドのことで、古代の日本が知る世界はこの 3 つの国のみからなるものでした。この鳥居には、神社への入り口だけでなく、富士山への入り口でもあると書かれています。

### 3 棟の本殿

現在の本殿に並んで、この境内には以前の本殿が 2 棟建っています。左奥にある東宮本殿は最も古いもので、1223 年に鎌倉幕府の第 2 代執権、北条義時（1163-1224）によって建てられました。1561 年には、この本殿は大名（広い領地を治めた領主）、武田信玄（1521-1573）から神社に寄贈されました。右奥にある西宮本殿は、東宮本殿よりもやや大きく、豊臣秀吉が全国を統一してから 10 年も経たないうちに秀吉の間接的な資金援助を受けて 1594 年に建立されました。拝殿（参拝するための建物）の後ろにある現在の本殿は、江戸時代（1603-1868）の平和と安定をもたらした、将軍徳川家康（1543-1616）の家臣により 1615 年に建立されたものです。

この神社のもうひとつの珍しい特徴は、拝殿と本殿のさらに裏側に日本の繁栄の神、恵比寿と大黒天を祀っていることです。恵比寿と大黒天に祈るためには、参拝者は富士山に背中を向ける必要があります。これは浅間神社としては珍しい参拝方法です。もしかすると、この位置は、2 柱の神様が永遠に富士山を見ることができるよう選ばれたのかもしれませんが。

【タイトル】 さまざまな開山祭 開山祭

【想定媒体】 パンフレット

### <韓国語>

#### 후지산의 ‘야마비라키’

7 월에 시작되는 후지산의 등산 시즌은 산을 여는 것을 의미하는 ‘야마비라키 (개산)’ 의식으로 시작됩니다. 이 의식은 얼어붙고 위험했던 겨울의 끝을 축하하고 그 후 2 개월 동안 후지산을 등산하는 20,000 명 이상 등산객들의 안전을 기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 기타구치혼구 후지센겐 신사 - 요시다구치 등산로 ‘오미치비라키’

기타구치혼구 후지센겐 신사의 의식은 신사 뒤편에서 정상으로 향하는 요시다구치 등산로의 시작점에 있는 도리이에서 개최됩니다. 이때 개산 전날인 6 월 30 일 저녁에 열리는 ‘오미치비라키’(길을 연다는 뜻) 제사에서는 신관이 이끄는 일행이 배전 앞에 매달린 지노와(띠풀을 엮어서 만든 커다란 고리)를 빠져나오며 몸을 정화하고 등산로의 시작점인 도리이 앞으로 나가면, 괴력으로 알려진 신 다지카라오노미코토의 분장을 한 가구라(신에게 봉납하는 음악과 춤) 공연자가 무거운 나무 망치를 사용해 등산로의 도리이를 잠그듯이 쳐진 밧줄을 때려 끊어냅니다. 처음으로 신사의 최고위 신관인 구지(宮司)가 도리이를 통과하고 다른 신관과 후지코 순례자가 그 뒤를 따르면 새로운 시즌의 개산이 집행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날 아침에는 본전 앞에서도 의식이 행해집니다.

#### 덴구가 산에서 내려오는 고미타케 신사

고고메(5 부 능선)에 있는 고미타케 신사의 제사는 기타구치혼구 후지센겐 신사에서 열리는 의식과 닮아 있지만, 고미타케 신사에서는 이 역할을 신이 아닌 산에 살면서 강력하고도 신비스러운 힘을 지니고 날개를 가진 생물 덴구로 분장한 2 명이 실시합니다. 고미타케 신사 주변은 덴구가 지배했다는 전설이 전해지는데 덴구가 도리이 사이에 쳐진 밧줄을 거대한 도끼로 끊어냄으로써 후지산을 개산하는 것입니다.

### <日本語仮訳>

#### 富士山の「山開き」

7 월에始まる富士山の登山シーズンは、山を開けることを意味する「山開き」の儀式で始まります。この儀式は凍って危険な冬の終わりを祝い、その後 2 カ月間に富士山を登山する 20,000 人以上の登山者の安全を祈願するものです。

#### 北口本宮富士浅間神社 - 吉田口登山道のお道開き

北口本宮富士浅間神社での式典は、神社裏手から頂上へ向かう吉田口登山道の始点となっている鳥居で開催されます。ここで、山開きの前日である6月30日の夕方に催される「お道開き」（道を開くという意味）神事では、神職が率いる一行が、拝殿の前に吊るされた茅の輪（チガヤという草を編んで作った大きな輪）をくぐって身を清めた後、登山道の起点である鳥居の前へ進み、怪力で知られる神、手力男命の扮装を身に着けた神楽（神に奉納する音楽と舞）講の方が重い木槌を使って、登山道の鳥居を閉ざすように張られた縄を叩き切ります。初めに神社の最高位の神職である宮司が鳥居をくぐり、それに他の神職や富士講巡礼者が続き、新しいシーズンの山開きが執り行われたことが宣言されます。翌朝にはさらに本殿前でも式典が行われます。

### **天狗が山から下りてくる小御岳神社**

五合目にある小御岳神社の神事は北口本宮富士浅間神社での式典と似ていますが、小御岳神社ではこの役が神ではなく、山に住み強力な霊力を持つと言われる翼を持つ生き物、天狗に扮した2人が行います。小御岳神社の周辺は天狗が支配していたという言い伝えがあり、天狗が鳥居の間に張られた縄を巨大な斧で切ることで富士山の山開きをするのです。

【タイトル】 吉田の火祭り・すすき祭り お祭概要

【想定媒体】パンフレット

### <韓国語>

#### 요시다 불 축제와 억새 축제

요시다 불 축제는 기타구치혼구 후지센겐 신사와 스와 신사가 8월 26일과 27일에 공동으로 개최하는 가을 축제입니다. 이 축제는 등산 시즌의 끝을 알리는 ‘야마지마이(폐산)’ 행사로 행해집니다.

첫째 날에는 길이가 3m에 달하는 횃불 약 100개가 후지요시다 시내의 변화가에 세워집니다. 밤의 장막이 내려오면 신성한 가구라(신에게 봉납하는 음악과 춤)를 연주함과 동시에 횃불에 불이 붙여지고 한 면이 불바다로 변합니다.

#### 후지산 형상의 미코시

불 축제 기간에는 2대의 미코시(신을 태운 가마)가 시내를 순회합니다. 그 중 1대는 목재로 후지산의 형상을 만든 후 옷칠을 하여 윤기나는 붉은 색으로 마감한 특이한 가마로 그 중량은 1톤에 이릅니다. 분화하는 후지산을 나타낸 것으로 여겨지는 이 미코시는 시내를 순회하는 도중 땅에 3번 세계 부딪치게 됩니다. 이 지역의 다른 몇몇 신사도 특징적인 후지산 모양의 미코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전통의 기원은 확실하지 않지만 미코시 안쪽에는 1704년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 억새 축제

억새 축제는 미코시가 하룻밤을 보낸 오타비쇼(임시 거처)에서 기타구치혼구 후지센겐 신사로 돌아오는 8월 27일 오후에 개최됩니다. 흰 종이띠로 깨끗이 정리된 억새 잔가지 다발을 든 참배자들은 신사로 돌아오는 미코시의 뒤를 따르며 신사 경내의 다카마노하라(높은 하늘의 평원)라 불리는 구역 주변을 몇 바퀴 돕니다.

### <日本語仮訳>

#### 吉田の火祭りとすすき祭り

吉田の火祭りは、北口本宮富士浅間神社と諏訪神社が8月26日と27日に共同で開催する秋祭りです。この祭りは、登山シーズンの終わりを告げる「山仕舞い」の行事として行われるものです。

1日目には、長さが3mにもおよぶ松明が約100本、富士吉田市内の町中に立てられます。夜の帳が下りると、神聖な神楽(神に奉納する音楽と舞)の演奏とともに、松明に火が点され、一面が火の海になります。

## 富士山型の神輿

火祭りの間は、2基の神輿（神様を乗せる輿）が町中を巡行します。そのうち1基は、木材で富士山の形を作り、漆でつややかな赤い色に仕上げた珍しいもので、重量は1トンあります。噴火する富士山をかたどったものとされるこの神輿は、町中を巡行する最中に地面に3回打ち付けられます。この地域のその他のいくつかの神社も特徴的な富士山型の神輿を所有しています。この伝統の起源ははっきりとしませんが、神輿の内側には1704年に作られたものであると書かれています。

## すすき祭り

すすき祭りは、神輿が一夜を過ごした御旅所から北口本宮富士浅間神社に戻る8月27日の午後に開催されます。白い紙帯で清められたすすきの小枝の束を持った参拝者が神社へと戻る神輿の後に続き、神社の境内にある高天原と呼ばれるエリアの周りを数周回ります。

【タイトル】金鳥居 全体概要

【想定媒体】パンフレット

**<韓国語>****가나도리이**

후지산역에서 불과 몇 분 거리에는 후지산 정상을 중심으로 영계와 속세의 경계를 나타내는 커다란 도리이가 서 있습니다. 가나도리이라고 불리는 이 도리이의 두 기둥 사이를 통해서는 후지산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도리이는 에도에서 온 후지코 신자들이 후지산 정상을 가기까지 지나야만 하는 8 개의 도리이 중 첫번째였기 때문에 ‘이치노 도리이 (첫 도리이)’로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경계의 저편**

가나도리이는 1788 년 후지코 신자에 의해 창건되었습니다. 도리이 자체는 목재로 만들어졌지만 기둥이 동판으로 덮혀져 있었기 때문에 ‘가나도리이’(‘가나’는 금속 전반을 의미)라고 불렸습니다. 맨 처음 세워진 도리이는 두 번의 폭풍으로 쓰러졌다가 1831 년과 1878 년에 재건되었습니다. 재건된 도리이는 1942 년 전쟁 중의 금속 부족으로 수용되어 철거될 때까지 계속 서 있었습니다. 현재의 가나도리이는 1957 년에 완성된 구리를 입힌 콘크리트체로 이전의 도리이가 서 있었다고 여겨지는 위치보다 30m 정도 후지산과 가까운 장소에 세워졌습니다.

도리이 너머의 도로변에는 과거 후지코 순례자들의 등산이나 숙박을 돌보던 오시(御師)의 주택 수십 채가 늘어서 있었습니다. 각 후지코 단체는 산 정상으로 출발하기 전날 밤 순례자들이 숙박했던 오시 주택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5 곳의 오시 주택이 방문객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日本語仮訳>****金鳥居**

富士山駅からわずか数分のところに、富士山山頂を中心とする霊界と俗世界との境界を示す大きな鳥居が立っています。この鳥居は金鳥居と呼ばれ、2本の柱の間から富士山を望むことができます。また、この鳥居は、江戸から来た富士講信者が富士山の山頂に行くまでに通る8基の鳥居の中の1基目だったため、「一の鳥居（最初の鳥居）」としても知られていました。

**境界の先**

金鳥居は1788年に富士講信者によって創建されました。鳥居自体は木製でしたが、柱が銅板で覆われていたため、「金鳥居」（「カナ」は金属全般の意味）と呼ばれました。最初に建てられた鳥居は2回



暴風で倒れ、1831年と1878年に再建されました。再建された鳥居は、1942年に戦争中の金属不足により接収されて取り壊されるまで立ち続けました。現在の金鳥居は1957年に完成した、銅張りのコンクリート製のもので、以前の鳥居が立っていたとされる位置よりも30メートルほど富士山に近い場所に立てられています。

鳥居の先の道路沿いには、かつて、富士講の巡礼者に対して登山や宿泊の世話をした御師の住宅が数十軒と建ち並んでいました。富士講の各団体はそれぞれ、山頂へと出発する前夜に巡礼者が宿泊する御師住宅とのつながりを持っていました。今でも5つの御師住宅が来訪者を受け入れています。

【タイトル】 富士御室浅間神社 全体概要

【想定媒体】 パンフレット

**<韓国語>****후지오무로센겐 신사**

후지오무로센겐 신사는 후지산 산중에 존재하는 신사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신사입니다. 699 년에 요시다구치 등산로의 니고메(2 부 능선, 해발 1,700m) 근처에 건립되었습니다. 958 년에는 이 지역의 사람들이 쉽게 참배할 수 있도록 15km 정도 떨어진 가와구치코 호수의 남쪽 해안에도 건립되었습니다. 이 두 신사는 각각 '모토미야(본래의 신사)'와 '사토미야(마을의 신사)'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독자적인 신앙 형태인 슈겐도(修驗道)의 수행자들이 계속해서 모토미야를 참배하던 와중, 17 세기 이후 폭발적으로 유행한 후지코 순례자들이 이에 합류했습니다. 그러나 1964 년에 후지 스바루 라인이 개통되어 자동차로 고고메(5 부 능선)까지 갈 수 있게 되자 모토미야의 참배객 수는 크게 감소했습니다. 참배객들이 거의 사라진 모토미야를 손상과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973 년 모토미야는 사토미야 근처로 옮겨졌습니다. 지금은 붕괴가 진행 중인 배전만이 후지산 경사면에 남아 있습니다.

**사토미야의 경내**

이 신사는 이 지역을 지배했던 다이묘(넓은 영지를 다스린 영주)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16 세기에는 가이국(현재의 야마나시현)의 영주였던 다케다 신겐이 이곳을 참배했습니다. 지금도 현존하는 사토미야의 본전은 다케다 씨족이 멸망하고 에도 시대(1603~1868)가 시작된 직후인 1612 년에 도쿠가와 가문이 기부한 것입니다. 이 신사는 지붕을 노송나무 껍질로 된 널로 이고 처마 끝은 둥그스름한 형태로 만든 가라하후 스타일로 아즈치모모야마 시대(1568~1600)의 신사 건축 양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신사는 센겐 신사치고는 특이하게 후지산 정상을 등지고 참배하는 방향으로 지어졌습니다. 이는 후지산의 신이 매일 산을 내려와 이 신사 안에 머문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즈이신문 문에 있는 동상은 다른 신사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작습니다. 일설에 따르면 이 조상이 우노시마 섬에 모셔져 있는 여신의 벤자이텐과 친해지자 후지산의 신이 별을 내려 작게 만들어버렸다고 합니다.

**야부사메**

이 신사에서는 매년 4 월 29 일 달리는 말 위에서 화살을 쏘는 야부사메 행사를 개최합니다. 현재 일본 각지에서 행해지는 야부사메 전통은 가마쿠라 시대(1185~1333)의 초대 쇼군이었던 미나모토노 요리토모(1147~1199)가 부하 사무라이들에게 오락용으로 야부사메를 장려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이 신사의 야부사메 봉납은 이전에는 산속에 마련된 마장에서 행해졌지만 지금은 신사 옆 공원에서 열립니다.

## <日本語仮訳>

### 富士御室浅間神社

富士御室浅間神社は、富士山山中に存在する中で最古の神社です。699年に吉田口登山道の2合目（標高1700メートル）付近に建立されました。958年には、地元の人々が参拝しやすいよう、15kmほど離れた河口湖の南岸にも建立されました。これらふたつの社は、それぞれ「本宮(本来の神社)」と「里宮(村の神社)」と呼ば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

日本独自の信仰形態である修験道の修行者たちは引き続き本宮を参拝し、17世紀以降は爆発的に流行した富士講の巡礼者がこれに加わりました。しかしながら、1964年に富士スバルラインが開通し、自動車で五合目まで行けるようになると、本宮の参拝者数が大幅に減少しました。ほとんど参拝されることなくなった本宮を損傷や火事から保護するため、1973年には本宮が里宮の近くに移されました。今では崩壊しつつある拝殿だけが富士山の斜面に残っています。

### 里宮の境内

この神社は、この地を支配していた大名（広い領地を治めた領主）と密接な繋がりがあります。16世紀には、甲斐の国（現在の山梨県）の領主だった武田信玄が参拝していました。今なお現存する里宮の本殿は、武田氏が滅亡したのち、江戸時代（1603-1868）が始まった直後の1612年に徳川家が寄進したものです。この神社は、屋根を桧皮の屋根板で葺き、軒先は丸みを帯びた形状である唐破風にした安土桃山時代（1568-1600）の神社建築様式を維持しています。

この神社は、浅間神社にしては珍しく、富士山の山頂を背にして参拝するような向きに建てられています。これは、富士山の神様が毎日下山し、この神社の中に鎮座すると考えられていたからです。

随神門にある像は、他の神社に見られるものよりずっと小さいものです。一説によると、これらの像は、鵜の島に祀られている女神の弁財天様と親しくなったため、その罰として富士山の神様が小さくしてしまったのだと言われています。

### 流鏝馬

この神社では毎年4月29日に、駆け抜ける馬の上から矢を射る流鏝馬を開催します。現在、日本各地で行われている流鏝馬の伝統は、鎌倉時代（1185-1333年）の初代将軍である源頼朝（1147-1199）が、配下の侍たちの娯楽として流鏝馬を奨励したことに始まると言われています。この神社の流鏝馬奉納は、以前は山の中に設けられた馬場で行われていましたが、今では神社そばの公園で行われています。

【タイトル】 御師住宅旧外川家 全体概要

【想定媒体】 パンフレット

## <韓国語>

### 오시(御師) 주택(옛 도가와 가문 주택)

18세기부터 19세기까지 후지코 신앙이 전성기를 맞았던 당시에는 매년 여름이 되면 수많은 후지코 단체가 후지산을 등정하기 위해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이때 각 단체의 인원은 적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수천 명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이 맨 처음 들른 곳은 후지코 순례자들에게 신앙을 지도하고 등산에 필요한 물건과 장비, 그리고 숙박을 제공했던 신관 오시의 거처(오시 주택)였습니다.

전성기에는 86 채의 오시 주택이 후지요시다에 있었지만 현재 숙박할 수 있는 곳은 극히 적습니다. 도가와 가문 주택도 조상 대대로 순례자들에게 숙박을 제공하는 오시 주택이었지만, 현재는 후지코에 관한 자료를 전시하고 후지산 등정을 앞둔 순례자들이 어떤 준비를 했는지 알려주는 박물관으로 변모했습니다.

### 목욕재계와 여행 준비

오시 주택은 최대한 많이 서로 담을 맞대고 늘어설 수 있도록 중심가 도로변의 정면 폭이 좁고 안 길이가 긴 가느다란 부지에 지어졌으며 각각의 오시 주택 앞에는 비석과 목욕재계를 위해 후지산의 물을 끌어온 수로가 있었습니다. 또한 오시 주택에는 입구가 여러 개 있었는데, 가장 넓은 것은 지위가 높은 관리와 신앙과 관련해 위대한 업적이 있는 방문객, 그리고 오시들의 전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입구 안쪽은 주택에 따라 그 배치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도가와 주택은 부엌과 식당이 있는 안채와 뒤편 부지 안쪽에 증축된 뒤채의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오시 주택에서는 매일 20~30 명이 숙박했기 때문에 매우 많은 식기와 침구 등 다양한 물품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 물품들은 후지코 단체가 숙박하기로 정한 오시 주택에 기부하는 것으로 충당되었지만, 다른 단체보다 더 많이 기부해 깊은 신앙심을 나타내려는 후지코 특유의 전통으로 이 수요는 충분히 충족되었습니다. 등정 일정이 미리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직원들은 반드시 그 단체에서 받은 식기류로 식사가 제공되도록 집 안의 다양한 식기와 용구를 계획적으로 꺼내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장기간에 걸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오시는 후지산 등산 계절이 끝나면 에도 등으로 나가 후지코 신자들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도가와 가문 주택에서 신앙의 중심지로 여겨졌던 뒤채의 고신젠노마(신 앞의 방)라는 방에서는 오시가 순례자들에게 신앙과 등정할 때 해야 할 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또한 오시는 순례자를 대신해 후지산에 기도를 드렸고 그와 동시에 센다쓰라 불린 순례자의 대표는 다른 순례자를 선도하며 후지코의 교리를 표현한 염불을 외었습니다. 옛 도가와 가문 주택에서는 이러한 의식을 녹음한 음성을 재생하여 당시 일반적으로 행해졌던 장엄한 의식의 모습을 현재에 전하고 있습니다.

순례자들은 뒤채에 숙박하며 험난한 등정을 출발하기 전 마지막으로 쾌적한 밤을 보냈습니다. 다만 쾌적이라고 해도 여름 등정 성수기 때는 매우 많은 투숙객이 머물렀기

때문에 일부는 복도에서 자야 하는 등 실제로는 ‘적어도 비교적 쾌적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 과거를 전하는 유물

도가와 가문 오시 주택의 안채는 1768 년에 건축되었고 뒤채는 그로부터 약 1 세기 후인 1860 년경에 증축되었습니다. 이 주택은 필요한 보수와 복원 외에는 순례자들을 돌봤던 시대의 모습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후지코 신앙을 대중에게 전파하여 숭배의 대상이 되었던 지키교 미로쿠(1671~1733)의 상을 비롯해 수많은 귀중한 유물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순례자들이 등정할 때 걸쳤던 귀중한 옷옷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후지산을 현세 이후에 존재하는 영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후지코 신자들은 같은 옷옷을 시신을 감싸는 데에도 사용했습니다. 산 정상으로 향하는 길에서는 스스로의 행적을 기록하기 위해 도중의 신사나 기타 지점에서 옷옷에 고슈인(증명 도장)을 찍으며 나아갔습니다.

## 오시 주택(오사노 가문 주택)

후지산 뮤지엄 부지 내에는 마찬가지로 조상 대대로 오시였던 오사노 가문의 주택이 복원 전시되어 있습니다. 오시 주택에 대해 좀더 알고 싶다면 이곳을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주택과 옛 도가와 가문 주택을 비교해보면 후지코 신앙이라는 넓은 틀 안에서 각각의 오시 가문이 어떻게 독자적으로 전통을 유지해 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002-024

---

### <日本語仮訳>

#### 御師住宅(旧外川家住宅)

18 世紀から 19 世紀にかけての富士講信仰の最盛期には、毎年夏になると、多くの富士講の団体が富士山の登頂に訪れ、各団体の人数は少数ながらも、全体では何千人という数になりました。最初の立ち寄り先は、富士講の巡礼者に信仰の指導や、登山に必要な物と装備、そして宿泊を提供した神職、御師の住まい(御師住宅)でした。

最盛期には 86 軒もの御師住宅が富士吉田にありましたが、現在宿泊できるものはほんのわずかです。外川家も先祖代々、巡礼者を宿泊させる御師住宅でしたが、現在は、富士講に関する資料を展示し、富士山登頂を控えた巡礼者がどのように支度をしていたのか知ることができる博物館となっています。

#### 襖と旅支度

御師住宅は、できるだけ多く隣り合っ建て並ぶことができるよう、目抜き通り沿いの、間口が狭く奥行きのある細長い敷地に建てられており、それぞれの御師住宅の前には石碑と、襖に使うために富士山の水が引かれた水路がありました。また、御師住宅にはいくつかの入り口があり、最も広いものは、位の高い役人、信仰に関する偉大な業績のある来客や、御師専用となっていました。

入り口の奥は、住宅によってレイアウトが異なっていました。たとえば、外川家住宅は、台所や食堂がある主屋と、後に敷地の奥に増築された裏座敷の 2 つの部分に分かれていました。御師住宅には毎日 20~

30人も宿泊しましたので、非常に多くの食器、寝具やその他の物品を必要としました。これらの品々は、富士講の団体が決まって宿泊する御師住宅に寄付することで賄われていましたが、他の団体よりも多く寄付して信心深さを示そうとする富士講独自の伝統により、その需要は十分に満たされていました。登頂の日程は予め計画されていたため、必ずその団体から提供された食器類で食事を提供できるようにスタッフは家中の様々な食器や用具を計画的に取り出して使っていました。こうした長期にわたる関係を保つために、御師は富士登山の季節が終わると江戸などに出向き、富士講信者の家を訪問していました。

裏座敷は外川家住宅の信仰の中心となっており、ご神前の間という部屋では、御師が巡礼者に信仰と登頂する際に行うべき事について説きました。また御師は、巡礼者に代わって富士山に対して祈りを捧げ、またそれと同時に、先達と呼ばれる巡礼者の代表が他の巡礼者を先導しながら、富士講の教義を表現した念仏を唱えました。旧外川家住宅ではこれらの儀式を録音した音声で再生され、当時一般的に行われていた荘厳な儀式の様子を今に伝えています。

巡礼者は裏座敷に宿泊し、厳しい登頂に出発する前の最後の快適な夜を楽しみました。ただ、快適と言っても、夏の登頂の最盛期には、非常に多くの宿泊客が滞在したため、その一部には廊下で寝なければならない者もあり、実際には「少なくとも比較的快適だった」といべきでしょう。

## 過去を伝える遺物

外川家の御師住宅の主屋は1768年に建築され、裏座敷は、その約1世紀後の1860年ごろに増築されました。この住宅は、必要な保守や修復以外には、巡礼者の世話をしていた時代どおりに維持されており、ここには、富士講信仰を一般に広めたことにより崇拜の対象となった食行身禄(1671-1733)の像をはじめとする多くの貴重な遺物が収蔵されています。また、巡礼者が登頂時にまとっていた貴重な行衣も展示されています。富士山を現世の先にある霊的な領域だと考えていた富士講では、同じ行衣を亡骸を包むのにも使っていました。山頂を目指す道中では、自らの記録のために、途中の神社やその他の地点で、行衣に御朱印(証明のはんこ)を押してもらいながら進みました。

## 御師住宅(小佐野家住宅)

ふじさんミュージアムの敷地内には、同じく代々御師であった小佐野家の住宅が復原展示されているので、御師住宅についてもっと知りたい方はそちらを訪れてみることをお勧めします。この住宅と旧外川家住宅を比較すると、富士講信仰という広い枠組みの中、それぞれの御師一族がいかにして独自の伝統を維持してきたのかがわかります。

【タイトル】 船津胎内樹型 全体概要

【想定媒体】 パンフレット

**<韓国語>****후나쓰 태내수형**

화산의 분화로 용암이 숲속을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삼켜진 수목이 불에 완전히 타버리지 않은 용암 안에 구멍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를 ‘용암수형’이라고 부릅니다. 가와구치코 호수에서 남쪽으로 5km 정도 거리에 있는 후나쓰 태내수형은 여러 그루의 수목이 함께 쓰러진 형태로 불에 타면서 단면이 원형의 긴 터널 형태로 형성된 매우 드문 용암수형입니다. 용암이 식는 과정에서 물결 모양이 생긴 벽과 머리 위 종유석에서 흘러내리는 물방울을 본 후지코 순례자들은 이 터널을 후지산의 배 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몸을 굽히고 이곳을 빠져나오면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터널에 문자 그대로 ‘태내’라는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터널 안에는 예로부터 산과 관련된 대일여래와 자비의 보살인 관음보살 등의 작은 불상이 안치되었습니다. 순례자들은 몸을 정화한 후 무릎까지 오는 풀로 만든 특별한 신발을 신고 터널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터널에서 나온 후에는 옛부터 아기에게 먹였던 해조국을 마셨습니다. 후나쓰 태내수형의 이 토산품은 에도(현재의 도쿄)와 그 주변 간토 지방에서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임산부들은 종유석에서 떨어진 물에 적신 어깨띠를 몸에 두르고 터널 안에서 사용한 촛불의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불을 붙여서 순산의 부적으로 삼았습니다.

지금도 후나쓰 태내수형을 과거 순례자들과 같은 방식으로 빠져나올 수 있지만 조명은 전기로 밝히고 안전 대책으로 헬멧이 주어집니다. 수형 위에 건립된 무쓰무로센겐 신사에는 깊은 신앙심과 완동한 것을 선언하기 위해 후지코 순례자들이 세운 비석이 여러 개 남아 있습니다.

**요시다 태내수형**

후나쓰 태내수형에서 남동쪽으로 1km 를 못 간 장소에는 요시다 태내수형이라 불리는 또 하나의 태내수형군이 있습니다. 1892 년에 발견된 요시다 태내수형은 후지코 신자들에게 의해 곧 신성한 장소로 모셔지게 되었습니다. 이곳의 입구는 보이지만, 실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매년 4 월 29 일에 열리는 요시다 태내 축제 때 뿐입니다.

**<日本語仮訳>****船津胎内樹型**

火山噴火により溶岩が森の中を通り抜けたとき、飲み込まれた樹木が燃え尽きたことにより、冷えた溶岩の中に空洞が残りました。このようなものは「溶岩樹型」と呼ばれています。河口湖の南 5km ほどのところにある船津胎内樹型は、複数の樹木と一緒に倒れた状態で燃え尽きたために、断面が円形の長いトンネ

ル状になった非常に珍しいものです。溶岩が冷える時に波状の模様がついた壁と、頭上の鍾乳石から垂れ落ちる雫から、富士講巡礼者はこのトンネルを富士山の胎内だと考えていました。その中を体をかがめて通りぬけることで、生まれ変わるとされており、そのトンネルに文字通り「胎内」という名前をつけたのでした。

トンネルの中には昔から山と関わりのある大日如来や、慈悲の菩薩である観音などの小さな仏像が安置されました。巡礼者は、身を清めた後、膝までの長さの特別なわらじを履き、トンネルに入ってゆきました。そして、トンネルから出た後は、昔より赤ちゃんに飲ませていた海藻のスープを飲みました。船津胎内樹型の土産物は江戸（現在の東京）やその周辺の関東地方では珍重されました。妊婦はたすきを身に着け、トンネルの中で使ったろうそくの未使用部分に火を灯し、安産のおまじないをしました。

今日でも船津胎内樹型をかつての巡礼者と同様に通り抜けることができますが、照明が電気になり、安全対策としてヘルメットが手渡されます。樹型の上に建立された無戸室浅間神社には、信心深さと、登頂しきったことを宣言すべく、富士講巡礼者が建てた石碑がいくつもあります。

### **吉田胎内樹型**

船津胎内樹型から南東に 1km 弱のところには吉田胎内樹型と呼ばれるもうひとつの胎内樹型群があります。1892 年に発見された吉田胎内樹型は、富士講の信者によって、すぐに神聖な場所として祀られました。その入口は見えていますが、中に入ることができるのは、毎年 4 月 29 日の吉田胎内祭のときだけです。



【タイトル】 スバルライン五合目 五合目全体概要・お中道・御庭・奥庭

【想定媒体】 パンフレット

### <韓国語>

#### 고고메(5부 능선)와 후지 스바루 라인 주변 하이킹

오추도(御中道)는 수행자가 후지산을 고고메 높이에서 한 바퀴 도는 특별한 등산로였습니다. 이곳보다 아래에는 삼림으로 뒤덮힌 경사면이 펼쳐져 있지만 여기서부터는 화산암이 구르는 별세계와 같은 풍경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이러한 풍경은 후지코 신앙에서 현세 너머에 기다리고 있는 극락정토가 나타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오추도는 현재도 후지산 서쪽에서 붕괴가 진행 중인 침식곡 '오사와 붕괴'로 그 방향으로 가는 길의 통행이 금지되어 코스 전체를 일주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침식곡은 산 정상에서부터 2km 이상에 걸쳐 뻗어 나갔고 그 폭 역시 과거 수백 년 동안 500m 정도로 넓어져 지날 수 없는 골짜기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오추도의 일부는 지금도 하이커들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 오니와와 오쿠니와 - 두 개의 마당

오니와 버스정류장은 후지 스바루 라인 고고메 터미널에서 한 정거장 앞선 역으로 오니와 산책로와 오쿠니와 산책로를 가기에 편리합니다. 또한 오니와 산책로를 경유하여 고고메 버스 터미널까지 오추도를 걷기에도 편리한 버스정류장입니다.

**오쿠니와** 하이킹 코스는 오니와 버스정류장을 기점으로 산 정상에서 멀어지는 서북 방향으로 향합니다. 가장 첫 번째 부분은 낙엽송과 만병초, 월굴나무가 있는 그늘진 내리막길입니다. 경사면을 끝까지 내려간 곳에 자리한 기념품 가게의 영업 시간은 계절에 따라 다릅니다. 가게를 지나치면 오쿠니와의 움푹 패인 곳을 통과해 반대쪽 전망대로 이어지는 오르막길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뒤를 돌아보면 폭 패인 웅덩이 너머로 매우 풍부한 표정을 짓는 후지산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쿠니와의 이 구역은 바람이 강해서 낙엽송 중에는 거의 수평으로 자라난 것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 불가사의한 풍경이 이 구역을 덴구의 마당이라고 한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덴구는 강력하고 신비로운 힘을 가진 전설 속의 마물로 날개가 있어 하늘을 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높은 산에 산다고 여겨집니다. 이곳에는 붉은 도리이가 있으며 산책로변에는 덴구를 그린 기념비도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오쿠니와 전망대까지 하이킹 왕복 코스의 소요 시간은 약 45 분입니다.

**오니와** 산책로의 기점은 고고메행 버스를 내린 정류장에서 길을 건넌 반대편에 있습니다. 산책로의 입구는 알기 쉽게 표시되어 있으며 여기서부터 경사면에 설치된 돌계단을 약 30 분 정도 올라가게 됩니다. 오니와까지 올라가면 산책로는 오추도(해발 2,400m)로 연결됩니다. 오니와에서 오추도를 동쪽으로 향해 1 시간 정도 걸으면 후지 스바루 라인 고고메 버스 터미널에 도착합니다. 관심이 있다면 고고메 버스 터미널 방향과는 반대인 서쪽을 향해 오사와 붕괴를 보러 갈 수도 있지만, 이 코스는 길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현재는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오쿠니와 산책로와 달리 오니와 산책로는 후지산의 삼림한계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군데군데 무너진 흔적도 보이는 화산암 지형에는 꽃이 핀 만병초가 곳곳에 산재하고 낙엽송과 자작나무만이 듬성듬성 자라나 있습니다. 이처럼 나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정상 쪽 풍경과 북쪽 풍경 모두 장관을 이루며 맑은 날에는 저멀리 남알프스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산책로는 숲이 무성하게 우거진 깊은 골짜기 몇 곳을 지나는데 여기에는 측화산의 분화로 생긴 여러 개의 분화구가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후지산의 웅장함과 화산 분화의 장엄한 위력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002-026

---

### <日本語仮訳>

#### 五合目と富士スバルライン周辺のハイキング

御中道は、修行者が富士山を五合目の高さで一周する特別な登山道でした。ここより下は、森林に覆われた斜面が広がっていましたが、ここからは打って変わって、火山岩が転がる別世界のような風景になります。この風景は、富士講信仰においては、現世の向こうに待っている極楽浄土が現れたものだと考えられていました。

残念なことに、御中道は現在も富士山西側で崩落が進行中の浸食谷、「大沢崩れ」のために、その方面に向かう道の通行が禁止され、完全に一周することができなくなりました。この浸食谷は、山頂から 2km 以上にわたって延び、またその幅は過去数百年で 500m ほどに広がり、通り抜けることのできない谷になっています。しかし御中道の一部は今でもハイカーに開放されています。

#### 御庭と奥庭 - ふたつの庭

御庭バス停は、富士スバルライン五合目ターミナルのひとつ手前にあり、御庭散策路および奥庭散策路へのアクセスに便利です。また、御庭散策路を経由して、五合目バスターミナルまで御中道を歩くのにも便利なバス停です。

奥庭ハイキングコースは、御庭バス停を起点として山頂からは離れる北西方向に進みます。最初の部分は、カラマツ、シャクナゲやコケモモが生えた日陰になった下り坂です。斜面を下りきったところに土産物店が 1 軒あり、その営業時間は季節によって異なります。店を通り過ぎると、奥庭の窪地を通り抜け、反対側の展望台へと繋がっている上り坂になります。振り返ると窪地の向こうに非常に表情豊かな富士山の姿を見ることができます。

奥庭のこのエリアでは風が強く、カラマツの木の中にはほぼ水平に成長したものもあります。この不思議な風景こそが、このエリアを天狗の庭と言わしめた所以なのかもしれません。天狗は、強力な霊力を持つ伝説上の魔物で、翼を持っていて空を飛ぶことができ、通常、高い山にいるものとされています。ここには赤い鳥居があり、散策路沿いには天狗を描いた記念碑もあります。

駐車場から奥庭の展望台へのハイキングの往復の所要時間は約 45 分です。

**御庭**散策路の起点は、五合目行きのバスを降りた停留所から道を渡った反対側にあります。散策路の入り口はわかりやすく表示されていて、ここから斜面に設けられた石段を約 30 分上ります。御庭まで登ると、散策路は御中道(標高 2,400m)に接続します。御庭からは、御中道を東に向かって 1 時間ほど歩くと、富士スバルライン五合目バスターミナルに到着します。興味のある方は、五合目バスターミナルの方向とは逆に西へと進んで大沢崩れを見に行くこともできますが、このコースは道が整備されていないため、現在は立ち入りが禁止されました。

奥庭散策路とは異なり、御庭散策路は富士山の森林限界の近くに位置しています。ところどころ崩れた跡も見られる火成岩の地面には、花を付けたシャクナゲが点在する間にカラマツやシラカバのみがまばらに生えています。木がほとんどないため、山頂側の風景も、反対側の北向きの風景もどちらも壮観で、晴れた日には遠く南アルプスまでを見ることができます。この散策路は森林の生い茂る深い谷を数カ所通りますが、ここには側火山の噴火でできた複数の火口が残っています。これからは富士山の壮大さと火山の噴火の荘厳な力をまざまざと見せつけられます。

【タイトル】小御岳神社 全体概要

【想定媒体】パンフレット

**<韓国語>****고미타케 신사**

고미타케 신사는 후지 스바루 라인 고고메 터미널 주변의 레스토랑과 기념품 가게 뒤편의 간신히 트인 평탄한 장소에 있습니다. 이 평탄한 부분은 사실 14,000 년 전부터 화산 활동을 시작해 후지산을 형성한 용암류에 의해 그 대부분이 삼켜져버린 고미타케 화산의 정상입니다. 고미타케 신사는 후지산 주변의 여러 신사에서 모셔지는 고노하나사쿠야히메의 누이인 이와나가히메를 모시고 있습니다.

고고메(5 부 능선) 주변 구역은 ‘텐구의 마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텐구는 강력하고 신비로운 힘을 가진 전설 속의 마물로 날개가 있어 하늘을 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마을과 멀리 떨어진 산에 산다고 여겨집니다. 매년 여름에는 신사 주변을 지배한다고 여겨지는 텐구의 모습으로 분장한 두 사람에 의해 개산(야마비라키) 의식이 거행됩니다. 전설에 따르면 경내에 있는 거대한 도끼는 텐구에게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참배자는 이 도끼를 자유롭게 들어 올려도 되지만 가끔 오는 스모선수를 제외하고는 거의 성공하지 못합니다.

**나카노미야**

후지코 순례자를 위해 1847 년에 만들어진 삽화가 포함된 가이드북 후지산진경지도(富士山眞景之圖)에는 고미타케 신사가 후지산 북벽의 수많은 성지 중에서도 중요한 중계지였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고고메는 정상으로 이어지는 요시다구치 등산로가 후지산 고고메 주위를 도는 길인 오추도와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후지코 순례자들은 고미타케 신사를 나카노미야(중앙의 신사)라고 불렀습니다. 후지산을 올랐다는 증명을 받는 것은 순례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었는데, 이때 고미타케 신사가 그 증명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순례자들은 목판에 인쇄된 증명서와 번호가 새겨진 지팡이를 구입하거나 심지어는 의복에 고슈인(증명 도장)을 찍을 수도 있었습니다.

**<日本語仮訳>****小御嶽神社**

小御嶽神社は、富士スバルラインの五合目ターミナル周辺のレストランや土産物店裏手のわずかに開けた平坦な場所にあります。この平坦な部分は、実は 14,000 年前から火山活動を開始して富士山を形成した溶岩流にそのほとんどを飲み込まれてしまった小御岳火山の山頂です。小御嶽神社は、富士山周辺の様々な神社に祀られている木花咲耶姫の姉、磐長姫を祀っています。

五合目周辺のエリアは、「天狗の庭」として知られています。天狗は、強力な霊力を持つ伝説上の魔物で、翼を持っていて空を飛ぶことができ、通常、人里離れた山にいるものとされています。毎夏、神社の周辺を支配していたとされる天狗に扮した 2 人によって山開きの儀式が行われます。伝説によると、境内にある

巨大な斧は天狗から贈られたものだと言われています。参拝者はこれを自由に持ち上げることができますが、たまたに来る力士を除いてはほとんど成功する人はいません。

## 中の宮

富士講巡礼者向けに 1847 年に用意された挿絵付きのガイドブック、富士山真景之図には、小御嶽神社が富士山北壁に数ある聖地の中でも重要な中継地だったことが記載されています。五合目は、頂上へとつながる吉田口登山道が、富士山の五合目を周回する道である御中道と交わる地点であるため、富士講巡礼者は小御嶽神社を中の宮（中央の神社）と呼びました。彼らにとって、富士山に登った証明を受けることはとても重要なことでしたが、小御嶽神社は、その証明の役割を担っていました。巡礼者は、木版印刷された証明書、番号入りの杖を購入したり、さらには衣服に御朱印を押してもらうこともできました。

【タイトル】 鳴沢氷穴 全体概要

【想定媒体】 パンフレット

---

## ナ루사와 얼음 동굴

나루사와 얼음 동굴은 아오키가하라 주카이 숲의 지하 21m 깊이까지 내려가는 가파른 수혈형 동굴로 국도 139 호선을 따라 노선 버스로도 쉽게 갈 수 있는 장소에 있습니다. 지구과학적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이 동굴은 용암류가 흘러나왔을 때 표면은 공기에 닿아 먼저 굳고 온도가 더디게 떨어지는 내부는 그대로 계속 흐르다가 지하에 큰 구멍이 형성된 것입니다. 메인 경로에는 많은 수혈이 갈라져 있는데 특히 섬뜩하고 불길한 느낌이 들어서 ‘지고쿠아나(지옥 구멍)’라 불리는 굴을 비롯해 아직 많은 굴이 조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나루사와 얼음 동굴은 두 개의 링 모양 동굴이 서로 연결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굴 안을 한 바퀴 도는 루트의 길이는 약 150m로 10~15 분이면 걸을 수 있습니다. 계단은 내려가는 것이 91 단, 올라가는 것이 101 단으로 되어 있으며 얼음 때문에 통로가 미끄러울 수 있어서 잘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을 신고 방문해야 합니다. 또한 천장의 가장 낮은 곳은 고작 91cm에 불과하므로 입구에서 헬멧을 빌리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나루사와 얼음 동굴 가장 깊은 곳의 온도는 일년 내내 영하로 유지됩니다. 이곳은 오랫동안 현지 주민들에게 위험해서 피해야 하는 장소로 여겨졌지만 20세기 초기부터는 천연 냉장고로서 얼음이나 종자의 보존에 사용되었습니다. 동굴 내부에 있는 경로에서는 과거의 얼음 저장고를 재현한 반짝반짝 빛나는 ‘얼음벽’이나 표면이 얼어붙은 종유석을 볼 수 있습니다.

002-028

---

## <日本語仮訳>

### 鳴沢氷穴

鳴沢氷穴は、青木ヶ原樹海の地下 21m の深さまで潜る急峻な豎穴型の洞窟で、国道 139 号線沿いの、路線バスでも容易に行ける場所にあります。この地学的な興味をそそる洞窟は、溶岩流が流れ出た際に、表面は空気に触れて先に硬くなり、温度がゆっくりと下がる内部はそのまま流れ続けたことで、地下に大きな空洞が形成されたものです。メインの経路からは多くの豎穴が枝分かれています。特に不気味な感じのする地獄穴と呼ばれる穴をはじめ、それらの豎穴は未だに調査されていません。

鳴沢氷穴は 2 つのリング状の洞穴が繋がった形で構成されています。洞内を一周するルート of 長さは約 150m で、10~15 分で歩くことができます。階段の段数は、下りは 91 段、そして上りは 101 段あり、氷で通路が滑りやすくなることがあるので、滑りにくい履物で訪れた方がいいです。天井の最も低い箇所はわずか 91cm なので、入り口でヘルメットを借りることをお勧めします。

鳴沢氷穴の最深部の気温は年中氷点下で保たれています。長い間、地元の住民たちは危険だとして避けてきたのは明らかですが、20世紀初期からは天然の冷凍庫として氷や種子の保存に使われてきました。洞内の経路上では、かつての氷の貯蔵庫を再現した、キラキラと光る「氷の壁」や表面が凍りついた鍾乳石を見ることができます。

【タイトル】 富岳風穴 全体概要

【想定媒体】 パンフレット

**<韓国語>****후가쿠 바람 동굴**

후가쿠 바람 동굴은 아오키가하라 주카이 숲 안에 있는 용암굴로 국도 139 호선을 따라 노선 버스로도 쉽게 갈 수 있는 장소에 있습니다. 동굴로 내려가는 첫 번째 계단을 제외하면 경사가 비교적 완만해서 길이 201m의 동굴 내부를 아이들도 안전하게 걷고 15 분만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천장은 비교적 높지만 일부 머리 위를 조심해야 하는 구간이 두, 세 군데 있습니다.

마그마가 아직 완전히 굳어지지 않은 단계에서 동굴의 벽면이 벽지를 감아 빼내듯 벗겨져 떨어진 ‘용암선반’ 등 지질학적으로 볼만한 가치가 있는 곳에는 자세하게 해설된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온이 3℃로 안정된 이 동굴의 가장 깊은 곳에는 씨앗과 곡식, 누에치기용 선반이 한 세트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선반은 이제 더이상 사용되지 않지만 비교적 최근인 20 세기 중반까지도 후가쿠 바람 동굴은 천연 냉장고 역할을 했습니다. 여름에는 이 동굴 안에 저장된 얼음이 시원함을 찾는 사람들에게 판매되거나 얼을 내리기 위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누에를 쌀쌀한 장소에서 밖으로 나가면 봄이 왔다고 착각해 실을 토해내고 고치를 만들기 시작하기 때문에 누에를 굴에 저장하면 일년 내내 명주실을 생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日本語仮訳>****富岳風穴**

富岳風穴は、青木ヶ原樹海の中にある溶岩洞穴で、国道 139 号線沿いの、路線バスでも容易に行ける場所にあります。洞窟へと降りていく最初の階段を除けば傾斜は比較的ゆるやかで、長さ 201m の洞内は子どもでも安全に歩き、15 分で戻ってくることができます。天井は比較的高いですが、一部、頭上に気をつけるべき箇所が 2、3 箇所あります。

マグマがまだ固まり切っていない段階で洞窟の壁面が壁紙を巻き取るように剥がれ落ちた「溶岩棚」など、地質学的な見どころには詳しく解説した案内板が設置されています。

気温が 3℃で安定しているこの洞窟の最深部には、種や穀物、そして蚕用の棚が一式設置されています。これらの棚はもう使われていませんが、20 世紀半ばという最近の時期まで富岳風穴は天然の冷蔵庫としての役目を果たしていました。夏には、この洞窟の中に貯蔵された氷が涼を求める人々に販売されたり、熱さましに使われたりしていました。蚕は、冷たい場所から外へ出ると春が来たと思われ、糸を吐いて繭を作り始めるため、洞窟に貯蔵することで、年間を通して絹糸を生産することが可能になりました。



【タイトル】 西湖蝙蝠穴及びコウモリ 全体概要

【想定媒体】 パンフレット

**<韓国語>****사이코 박쥐 동굴**

사이코 박쥐 동굴은 아오키가하라 주카이 숲 지하에 펼쳐져 있는 동굴입니다. 분화구에서 흘러나온 용암 표면의 층은 식었지만 아직 굳지 않은 내부에서 빠른 속도로 용암이 흐르면서 몇몇 갈래로 갈라지고 길이 350m에 달하는 탐험에 최적인 동굴이 형성되었습니다.

겨울 동안 이곳에서는 5 종류의 박쥐가 겨울잠을 잡니다. 같은 아오키가하라 주카이 숲 지하에 있는 나루사와 얼음 동굴이나 후가쿠 바람 동굴과는 달리 사이코 박쥐 동굴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해서 박쥐들이 겨울잠을 자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입니다. 인간의 서식지 침입으로 인해 한때 멸종 위기에 처했던 박쥐지만 이 동굴 안쪽에 특별보호지역이 설정되면서 현재는 그 개체수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사이코 박쥐 동굴을 탐험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용암종유석이나 승상용암층 등의 관찰에 얼마나 시간을 쏟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통은 20~30 분입니다. 경로에 따라 땅을 기어야 할 때도 있으니 입구에 준비된 헬멧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낮에 이 동굴을 방문하면 박쥐를 맞닥뜨리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日本語仮訳>****西湖コウモリ穴**

西湖コウモリ穴は、青木ヶ原樹海の地下に広がる洞窟です。火口から流れ出た溶岩の表面の層は冷えたものの、内部はまだ固まっておらず速い速度で溶岩が流れていった結果、いくつもの分岐があり、長さ 350mにも及ぶ、探検に最適な洞窟が形成されました。

冬の間、ここでは 5 種類のコウモリが冬眠します。同じく青木ヶ原の地下に広がる鳴沢氷穴や富岳風穴とは異なり、西湖コウモリ穴は、夏には涼しく、冬には暖くなるためコウモリの冬眠に最適な場所となっています。生息地に人が入り込んだことにより、一時は絶滅の危機にさらされたコウモリでしたが、この洞窟の奥に特別保護地域が設定されたことで、今ではその個体数が回復しつつあります。

西湖コウモリ穴の探検の所要時間は、溶岩鍾乳石や縄状溶岩床などの観察にどれだけ時間をかけるかによって異なりますが、20~30 分です。経路によっては這って進む必要があるため、入り口に用意されたヘルメットをお使いになることをお勧めします。日中にこの洞窟を訪れてコウモリと出くわすことはめったにありません。

【タイトル】 富士山の森

【想定媒体】 パンフレット

**<韓国語>****후지산의 삼림**

후지산 북쪽에는 벌목 등 인간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은 자연의 숲, 아오키가하라 주카이 숲이 있습니다. 이 숲의 역사는 겨우 1,000 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일부는 아직도 후지산 일부에서 볼 수 있는 원시림이라 불리는 옛 삼림이 대체된 것입니다.

**조용한 바다**

아오키가하라 주카이 숲은 864 년의 조간 대분화(貞觀大噴火)에 의해 용암류로 형성된 30 km<sup>2</sup>의 대지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 분화가 이 지역 전체의 지형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수로를 막은 용암류는 세노우미라 불리는 광활한 호수를 현재 사이코 호수와 쇼지코 호수가 된 부분만을 남기고 가득 메웠습니다. 이 구역을 위에서 보면 원래의 환경으로 용암류가 흘러 들어가면서 형성되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주카이(樹海:나무의 바다)’라는 이름은 이 삼림의 규모뿐 아니라 매우 평탄한 지형에서도 유래했습니다.

암반이 형성된 지 1,000 년이 지난 지금도 이 숲은 토양층이 얇고 양분도 부족합니다. 다공질의 아오키가하라 화성암에서는 노출된 뿌리가 이끼가 낀 지면에 얽혀 성장하는 강한 식물만이 살아남을 수 있으며 이곳에서 자라는 나무 대부분은 좀솔송나무, 낙엽송, 노송나무 등의 상록 침엽수입니다.

용암층이 물결치거나 파열된 흔적은 이곳에 별세계와 같은 아름다운 경치를 가져다 주었고 소리를 감쇄시키는 경향이 있는 화성암은 주카이 숲 안을 놀랍도록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방위자석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소문도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식은 용암은 어느 정도 자기적인 특성을 지니기는 하지만, 방위자석을 직접 지면에 두지 않는 한 그 자력이 방위자석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숲은 매우 거대하고 뚜렷한 표식도 없기 때문에 등산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원시림 - 과거의 기억**

864 년의 조간 대분화(貞觀大噴火)는 마그마가 산 정상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닌, 산 측면에서 분출된 측분화였습니다. 후지산 북쪽 기슭에는 분화 장소보다 높은 곳에 있었거나 단애 또는 바위의 노두가 용암의 흐름을 차단한 덕에 소실을 면한 고대 그대로의 모습이라고 추정되는 삼림이 남아있는데, 이를 원시림이라고 부릅니다.

분화 후에 생긴 새로운 숲과 소실을 면한 원시림 사이에 큰 차이점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의 결정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오래된 숲은 토양이 별로 없는 화성암 투성이의 장소와 달리 두께 수 cm 를 넘는 토양이 발 밑에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또한 자라는 수목의 종류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지는 않지만 새로운 숲과 비교하면 원시림에서는 호몰레피스 전나무 등의 상록수가 곳곳에 산재하는 와중에도 너도밤나무나 물참나무 등의 낙엽수를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산 윗부분의 한랭한 장소에 있는 원시림에는

솔송나무나 베이트키 전나무 등이 무성하게 우거져 있습니다.

원시림 구역의 대부분은 등산로인 원래 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지만 숲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헤메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비교적 접근하기 쉬운 너도밤나무 숲은 모토스 바람 동굴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오무로야마 산 북쪽 경사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002-031

---

### <日本語仮訳>

#### 富士山の森林

富士山の北側には、伐採など人間の手がほとんどはいていない手つかずの森、青木ヶ原樹海があります。この森林の歴史はかろうじて 1,000 年といったところで、その一部が未だに富士山の一部に見られる、原始林と呼ばれる昔の森林が置き換えられたものです。

#### 静かな海

青木ヶ原樹海は、864 年の貞観大噴火による溶岩流で形成された 30 平方 km の大地を覆っています。この噴火が、この地域全体の地形を変えてしまったのです。溶岩流は水路を塞ぎ、割(せ)の海と呼ばれる広大な湖を、現在の西湖と精進湖となった部分だけを残して埋め尽くしました。このエリアを上から見ると、当初の環境に溶岩が流れ込むことによりできたことがすぐにわかります。この、「樹海」という名前は、この森林の規模だけではなく非常に平坦であることにも由来するものです。

岩盤が形成されてから 1,000 年経った今でもこの森の土壌の層は薄く、養分も不十分です。青木ヶ原の火成岩は多孔質で、露出させた根を苔の生えた地面に絡みつけて成長できる強い植物だけが生き残ることができ、ここに生えている木の大半が、コメツガ、カラマツやヒノキなどの常緑針葉樹です。

溶岩層のうねりや破裂跡は、この景観に別世界のような美しさをもたらし、火成岩は音を減衰させる傾向があるため、樹海の中は驚くほど静かです。方位磁石が誤った動きをするという噂がありますが、それは真実ではありません。冷えた溶岩にはある程度の磁気特性がありますが、方位磁石を直接地面に置いていない限りは、その磁力は方位磁石に影響を及ぼすほど強くはありません。それでも、この森は巨大であり、はっきりとした目印がないため、登山道からはずれないようにするに越したことはありません。

#### 原始林 - 過去の記憶

864 年の貞観大噴火は、マグマが山頂から溢れ出すのではなく、山の側面から噴出する側噴火でした。富士山北麓には、噴火場所より高い位置にあったか、もしくは断崖または岩の露頭が溶岩の流れを遮ったことにより焼失を免れた、古代のままの姿であると考えられている森林が残っており、これらの森林は原始林と呼ばれています。

噴火後にできた新しい森と焼失を免れた原始林で大きな違いは見られませんが、その違いとしてひとつの

決め手になる点は、古い森の場合、土壌があまりない火成岩だらけの場所とは異なり、厚さ数センチを超える土壌が足元に感じられることです。また、生えている樹木の種類も異なります。必ずしも一様ではありませんが、新しい森と比較すると、原始林ではウラジロモミなどの常緑樹が点在する中にブナやミズナラなどの落葉樹がより多く見られます。さらに上部の、寒冷的な場所にある原始林では、ツガやシラビソなどが生い茂っています。

原始林エリアの多くは登山道の本道からほど近いところにありますが、森の他の部分と同様に、迷わないように気をつけましょう。比較的アクセスしやすいブナの森は、本栖風穴からほど近い大室山の北側斜面に見ることができます。

【タイトル】忍野八海 全体概要

【想定媒体】パンフレット

**<韓国語>****오시노 핫카이**

이전까지 후지코 순례자들은 후지산에 오르기 전 ‘우치핫카이(핫카이는 ‘八海’, 여덟 바다의 뜻)’라고 총칭되는 후지 5 호와 다소 멀리 떨어진 장소도 포함한 총 8 곳의 용수지 하나하나를 지나며 며칠에 걸쳐 몸을 정화했습니다. 19 세기 중반에는 오요리 도모에몬이라는 학자 기질의 신자가 가와구치코 호수와 야마나카코 호수 중간에 있는 오시노 수역의 몇몇 용수지를 복두칠성 모양이 되도록 이어서 8 곳의 신성한 ‘호수’라 칭하고 정화하는 기간을 하루로 단축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들 연못에서 솟아오르는 물은 후지산의 복류수이기 때문에 우치핫카이와 마찬가지로 몸을 정화할 수 있다고 여겨졌으며 8 곳의 연못 각각에 법화경에 등장하는 용왕을 모셨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오시노 핫카이’로 수많은 순례자들이 방문하게 되면서 마을에도 풍부한 수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현재 레스토랑과 기념품 가게로 둘러싸인 이 마을 중앙에 위치한 연못은 훨씬 이후에 조성된 것으로 오시노 핫카이에 속하지 않으니 주의하여 주십시오.

**팔대용왕**

오시노 핫카이의 연못 하나하나에는 법화경에 등장하는 팔대용왕이 한 명씩 모셔져 있으며 와카(일본의 전통 정형시)가 새겨진 비석이 있습니다. 각각의 연못에서 모시고 있는 용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테구치연못: 난타용왕
2. 오카마연못: 발난타용왕
3. 소코나시연못: 사가라용왕
4. 조시연못: 화수길용왕
5. 와쿠연못: 덕차가용왕
6. 니고리연못: 아나바달다용왕
7. 가가미연못: 마나사용왕
8. 쇼부연못: 우발라용왕

**<日本語仮訳>****忍野八海**

従来、富士講の巡礼者は、富士山に登る前に、「内八海」と総称される、富士五湖と、やや遠く離れた場所にあるものも含む 8 つの湧水池のひとつひとつで数日間かけて身を清めました。19 世紀半ばには、大

寄友右衛門という学者気質の信者が、河口湖と山中湖の間にある忍野の水域を 8 つの神聖な「湖」になるよういくつかある湧水を北斗七星の形になるように結んで清めの期間を 1 日に短縮するというプロジェクトを立ち上げました。これらの池に湧く水は富士山の伏流水であるため、内八海と同様に清めることができるとし、8 つの池それぞれに法華経に登場する竜王を祀りました。こうして、新たに作られた「忍野八海」へ多くの巡礼者が訪れるようになったことで、村に豊かな収入をもたらしました。

なお、レストランや土産物店に囲まれたこの村の中央に位置する池は、さらに後ほど造られたもので、忍野八海のひとつではないので間違えないようにしてください。

## 八大竜王

忍野八海の池のひとつひとつには、法華経に登場する八大竜王のいずれかを祀り、和歌が刻まれた石碑があります。それぞれの池に祀られている竜王は以下の通りです。

1. 出口池：難陀竜王
2. お釜池：跋難陀竜王
3. 底抜池：娑加羅竜王
4. 銚子池：和脩吉竜王
5. 湧池：徳叉迦竜王
6. 濁池：阿那婆達多竜王
7. 鏡池：摩那斯竜王
8. 菖蒲池：優鉢羅竜王

【タイトル】 東圓寺 全体概要

【想定媒体】 パンフレット

**<韓国語>****도엔지 절**

오시노무라(마을)에 있는 도엔지 절의 역사는 사후 고보대사(弘法大師)로 알려지게 된 고승 구카이가 9세기 초 동일본을 순례하는 여행에 나섰을 당시에 시작되었습니다. 후지산 북동부에서 신성한 샘을 발견한 구카이는 예로부터 산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온 밀교의 본존 대일여래를 모시기 위해 참배소를 건립했습니다. 1707년의 호에이 분화(寶永噴火)에서는 무사했지만 그 이후 태풍으로 완전히 파괴되었다가 1711년 현재의 위치로 이전되었고, 현재의 본당과 고리(절의 주방), 종루문(鐘樓門)은 19세기에 재건되었습니다.

본존은 깨달음을 얻은 신자들을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아미타불로 그 양 옆에는 관음보살과 세지보살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이 절에는 1317년에 만들어진 또 하나의 목조관음상이 있습니다. 이 관음상은 원래 근처에 있던 시보쿠사센겐 신사의 것으로 이 신사에 모셔져 있는 여신 고노하나사쿠야히메의 상을 만든 조각가가 제작한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오랫동안 신도와 불교가 혼합된 형태의 신앙이 믿어졌는데(신불습합), 도엔지 절도 시보쿠사센겐 신사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메이지 시대(1868~1912)에 이르러 일본 정부가 신도와 불교를 분리하고 신사에서 불교의 모든 영향을 배제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19세기가 되자 도엔지 절은 후지코 순례자들이 후지산을 오르기 전에 몸을 정화하는 오시노 핫카이의 개발을 감독했습니다. 후지코 신앙은 막부가 후지산으로의 입산을 규제해야 했을 정도로 크게 유행했습니다. 이때 도엔지 절은 순례자들의 통행이 허용된 유일한 사찰로서 당시 빈곤에 허덕였던 오시노무라는 몰려드는 순례자들 덕분에 다시 되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日本語仮訳>****東円寺**

忍野村にある東円寺の歴史は、没後は弘法大師として知られるようになった高僧、空海が9世紀初頭に東日本を巡る旅に出たときに始まります。富士山の北東部に神聖な泉を発見した空海は、昔から山と関連付けられてきた密教の本尊、大日如来を祀るための参拝所を建立させました。1707年の宝永噴火では無事でしたが、その後の台風により全壊した後、1711年に現在の位置に移転し、現在の本堂、庫裡、鐘樓門は19世紀に再建されました。

本尊は、悟りを開いた信者を極楽浄土に導く阿弥陀仏で、両脇に観音菩薩と勢至菩薩が配されています。この寺には、1317年に作られたもう1体の木造観音像があります。この観音像は、もともとは近くに

ある忍草浅間神社のもので、この神社で祀られている女神、木花咲耶姫の像を彫ったのと同じ彫刻家が彫ったものです。日本では長い間、神道と仏教が混ざり合った形で信仰されており（神仏習合）、東円寺も、忍草浅間神社と緊密な関係にありました。この関係は、明治時代（1868～1912）になって日本政府が神道と仏教を分離し、神社から仏教の影響をすべて排除するまで続きました。

19世紀になると、東円寺は、富士講巡礼者が富士山に登る前に身を清めた忍野八海の開発を監督しました。富士講信仰は、幕府が富士山への入山を規制せざるを得ないほどに大いに流行しました。そのようなかで東円寺は、巡礼者への通行を許可することができた唯一の寺院であったため、当時貧困にあえいでいた忍野の村は、押し寄せる巡礼者のおかげで息を吹き返しました。



【タイトル】 浅間神社（忍草） 全体概要

【想定媒体】 パンフレット

### <韓国語>

#### 시보쿠사센겐 신사

오시노무라(마을)의 시보쿠사에 있는 센겐 신사는 807 년에 건립되어 1186 년에 현재의 위치로 이전되었습니다. 1193 년에는 가마쿠라 막부의 쇼군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로부터 북쪽의 도리이치 고개까지에 이르는 토지를 신사의 영지로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19 세기에는 이 신사의 신자들에 의해 오시노 핫카이 개발이 이루어졌는데 현재도 이 신사는 오시노 핫카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신사의 경내에는 수많은 주목나무 고목이 우거져 있습니다. 이들 나무의 바깥 둘레는 1.4~3.7m 로 이만큼 거대한 나무가 한 곳에 군생하는 것은 매우 드뭅니다.

#### 삼신상

이 신사의 보물로 1315 년에 만들어졌다고 여겨지는 3 개의 목상이 있는데, 그 중 하나인 여신상은 센겐 신사에 모셔지는 여신 고노하나사쿠야히메의 상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일설에 따르면 헤이안 시대(794~1185)에 쓰여진 이야기인 다케토리 모노가타리(대나무꾼 이야기)에 나오는 가구야히메와 가구야히메에게 구애하는 2 명의 구혼자를 표현한 것이라고도 합니다. 가구야히메는 항상 구혼자가 끊이지 않았던 절세 미녀로 이 구혼자 중에는 완전히 가구야히메의 노예가 되어버린 황제도 있었습니다. 이 구혼자들을 모두 거부한 가구야히메는 결국 황제에게 불사의 약만을 남기고 고향인 달로 돌아가 버립니다. 슬퍼하던 황제는 이 약을 후지산 정상에서 태워 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후지산이 하늘과 가장 가까운 산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설에 따르면 후지산의 ‘후지’는 일본어 ‘후시(不死)’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 <日本語仮訳>

#### 忍草浅間神社

忍野村の忍草にある浅間神社は 807 年に建立され、1186 年に現在の位置に移転しました。1193 年には、鎌倉幕府の将軍、源頼朝により、北の鳥居地峠に至るまでの土地を神社の領地として与えられました。19 世紀にはこの神社の氏子により忍野八海の開発が行われ、現在も忍野八海と密接な関連性のある神社です。

この神社の境内にはイチイの古木が多数生い茂っています。これらの木々の外周は、1.4~3.7m で、これだけの巨樹が一箇所に群生しているのは珍しいです。

### 三神像

この神社の宝物には 1315 年に作られたといわれる 3 体の木像があり、そのうち一体の女性の像は、浅間神社に祀られている女神、木花咲耶姫の像であると伝えられています。しかしながら、一説では、平安時代 (794-1185) に書かれた物語である竹取物語に出てくるかぐや姫と、かぐや姫に求愛する 2 名の求婚者を表現したものだとも言われています。かぐや姫は常に求婚者が絶えなかった絶世の美女で、この求婚者の中には完全にかぐや姫の虜になってしまった帝もいました。これらの求婚者をすべて拒否したかぐや姫は最後には帝に不死の薬だけを残して故郷である月に戻ってしまいます。悲しんだ帝は、この薬を富士山の頂上で燃やすように命じました。富士山が天に最も近い山だからです。この言い伝えによると、富士山の「富士」の起源は日本語の「不死」に由来するとされています。

【タイトル】 月江寺エリア 全体概要

【想定媒体】 パンフレット

**<韓国語>****갯코지 일대**

후지요시다의 중심지에 자리한 갯코지 지역은 오랫동안 인기를 누린 환락가였습니다. 이곳에는 에도 시대(1603~1868)의 특산품인 직물이 지역 경제를 이끌던 시기부터, 전무 없는 번성을 누렸던 1920년대 중반부터 1950년대 중반까지 지역 상인이나 사업가들이 고객을 접대하고 장사의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친 섬유업계의 국제화로 인해 경기와 인구가 변화하면서 갯코지 절 지구의 활기는 시들었지만, 현재도 이곳이 후지 5호 지구에 유일하게 남은 환락가라는 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후지요시다시에서는 요리점의 주인이나 그 외 사업주들과 협력하여 다언어 대응을 위한 간판과 메뉴, 팜플렛을 갖추는 등 해외에서 오신 손님과 일본 국내의 손님 모두가 스트레스 없이 즐길 수 있는 밤을 만끽하는 목적지로서 갯코지 지역의 재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신세카이 간파이 거리**

신세카이 거리는 갯코지역 남동쪽의 니시우라 지구 깊숙히 자리한 좁은 뒷골목입니다. 이 거리는 제 2차 세계대전 후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번성했던 시대에 특히 활기를 띠었던 곳으로 매일 밤 음악과 술 마시고 떠드는 사람들로 거리가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그 후 갯코지 지구 전체가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이 거리로 술을 마시러 오는 사람들의 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최근에 과거의 활기를 되찾기 위한 활성화 계획이 시동을 걸면서 2016년에 ‘신세카이 간파이 거리’(간파이는 ‘건배’의 뜻)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후지요시다시는 요리점이나 바의 매장을 새로운 사업자에게 임대하기 시작했고 완전히 새롭고 세련된 외관으로 다시 태어난 매장 옆에는 멋지게 풍화된 1950년의 간판이 서 있는 등 미묘한 조화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갯코지 지구에는 밀리언 거리와 네노카미 거리 등 신세카이 간파이 거리와 닮은 오래되고 멋진 분위기의 거리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들 거리에도 레스토랑, 면 요리점, 바가 준비하게 늘어서 있으며 그 중에는 전후 번성했던 시기부터 같은 경영자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도 있습니다.

이 근처에는 비교적 젊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자주 이용하는 게스트 하우스가 있으며 스트리트 마켓, 뮤직 페스티벌 등의 이벤트가 갯코지의 활성화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日本語仮訳>****月江寺界限**

富士吉田の中心地にある月江寺地区は、長年にわたり人気のある歓楽街でした。ここでは、江戸時代(1603-1868)の特産の織物が地元経済をけん引した時期から、それまでになく賑わった1920年代半ばから1950年代半ばまで、地元の商人や事業家が顧客の接待や、商いの成功を祝うのに集まりました。1970年代から1980年代にかけて繊維業界の国際化に伴い、景気と人口が変化したことにより、月江寺地区の活気は衰えましたが、今日でもここが富士五湖地区に唯一残る歓楽街であることに変わりはありません。現在、富士吉田市では料理店主やその他の事業主と協力して、多言語対応の看板、メニュー、およびパンフレットを揃えるなど、海外からの客も国内からの客もストレスフリーに楽しめる、夜を満喫するための目的地として、月江寺地域の再活性化を図っています。

## 新世界乾杯通り

新世界通りは、月江寺駅の南東、西裏地区から入り込む細い裏路地です。この通りは、戦後、1950年代から1970年代にかけてのにぎやかな時代には特に活気があり、毎晩のように音楽や飲み騒ぐ人々で溢れかえっていました。しかしその後、月江寺地区全体が衰退し始めると同時にこの通りへ飲みに来る人の数は減ってしまいました。

近年になって、かつてのにぎわいを取り戻すべく活性化計画が始動し、2016年には、「新世界乾杯（「乾杯」の意味）通り」という名前で新たに生まれ変わりました。富士吉田市は、料理店やバーの店舗を新しい事業者に賃貸し始め、すっかり新しくおしゃれな外観に生まれ変わった店舗の隣には、見事に風化した1950年代の看板が立っているなど、不思議な調和が見られます。

月江寺地区には、そのほかにも、ミリオン通りや子の神通りなど、新世界乾杯通りに似た古き良き雰囲気通りの通りが広がっています。それらの通りにもレストラン、麵料理店やバーがずらりと並んでおり、その中には戦後栄えた時期から同じ経営者が経営している店もあります。

この近くのゲストハウスは、比較的若い外国人観光客の利用も多く、ストリートマーケットや、ミュージックフェスティバルなどのイベントが月江寺の活性化に一役買っています。

【タイトル】ハタオリマチ 全体概要

【想定媒体】パンフレット

**<韓国語>****하타오리마치 - 직물 마을**

후지요시다는 1,000 년이 넘는 직물 생산의 중심지로 현재는 하타오리마치(직물 공예가 번성한 마을)라고 불리며 그 전통을 살린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 세기에 편찬된 법률과 행사에 관련된 규정을 기재한 엔기시키(延喜式)에는 이 지역의 기후와 고도로 인해 일반적으로 연공으로 바쳐야 했던 쌀을 생산하기 어려워서 세금을 명주로 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에도 시대의 변영**

에도 시대(1603~1868)는 수세기 동안 계속된 전쟁 끝에 찾아온 평화의 시대로 수도인 에도(현재의 도쿄)에서는 상인이나 장인으로 이루어진 부유한 중산계급이 대두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복장 등으로 사치를 누리며 그 부를 경쟁했지만 17 세기 중반에 사치를 금지하는 법령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의류의 색은 갈색이나 회색과 같은 수수한 색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지만 안감까지는 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빠져나갈 길을 찾은 에도 사람들에 의해 컬러풀하면서도 우아한 안감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후지요시다에서는 염색사가 후지산의 깨끗한 샘물을 사용해 선명한 색으로 염색한 명주가 특히 귀하게 여겨지며 직물 산업이 번성했습니다.

후지요시다는 에도 시대가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섬유 제품의 중심지였습니다. 특히 1950 년대부터 1970 년대에 걸친 기적의 경제성장은 그 수요를 전에 없이 밀어 올렸습니다. 이 시대에는 직기를 드르륵(가차)하기만 해도 만엔을 번다는 ‘가차만 경기’라는 재미있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브랜드의 발신지**

질 좋은 원재료의 공급원이었던 후지요시다는 소비자용 브랜드의 발신지로 그 모습을 바꾸었습니다. 매월 셋째주 토요일에 수많은 직물 제조 회사가 개최하는 ‘오픈 팩토리’에서는 직기를 사용해 직물을 제조하는 모습을 견학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자이너와 학생들의 콜라보레이션으로 북 커버부터 침구에 이르기까지 이곳에서만 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특산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후지요시다시는 2016 년에 제 1 회 하타오리마치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지금은 매년 가을마다 개최하게 된 이 이벤트에서는 전시, 음악 연주, 특별 게스트를 초대한 패널 토론 등 장인들과 상인들이 협력해 후지요시다의 직물을 프로모션합니다. 메인 이벤트장은 오무로센겐 신사와 혼초 거리로 후지요시다 시내 곳곳의 공장과 매장이 이 이벤트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 <日本語仮訳>

### ハタオリマチ - 織物の町

富士吉田は 1000 年を超える織物生産の中心地であり、現在ではハタオリマチ（織物工芸が盛んな町）と称して、その伝統を生かしたさまざまな活動を行っています。10 世紀に編纂された、法律や行事の定めを記載した延喜式では、この地域は気候や標高により、一般的に年貢として納められていた米の生産が難しかったため、税金を絹で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ことが記載されています。

### 江戸時代の繁栄

江戸時代（1603-1868）は、数世紀続いた戦いの後に訪れた平和な時代で、首都の江戸（現在の東京）では商人や職人からなる裕福な中産階級が台頭しました。彼らは、きらびやかな服装などで贅沢し、その富を競い合いましたが、17 世紀中頃に贅沢を禁止する法令が出されてしまいます。衣類の色については茶色や灰色のような地味な色にすべしという内容でしたが、裏地までは規制されていませんでした。江戸の人々はその点に抜け道を見出し、カラフルで、優美な裏地の需要が急上昇しました。富士吉田では染め物師が富士山のきれいな湧水を使って鮮やかな色に染め上げた絹が特に珍重され、織物産業が繁栄しました。

富士吉田は、江戸時代が終わった後も、長年にわたって繊維製品の中心でした。特に、1950 年代から 1970 年代にかけての奇跡の経済成長が、需要をかつてないほどに押し上げました。この時代では、織機をガチャっとするだけで 1 万円儲かると言われたガチャマン景気という面白い言葉が生まれました。

### ブランドの発信地

質の良い原材料の供給元であった富士吉田は、消費者向けブランドの発信地へとその姿を変えました。毎月第 3 土曜日に多くの織物メーカーが開催している「オープンファクトリー」では、織機を使って織物を製造する様子を見学することができます。また、デザイナーや学生とのコラボレーションにより、ブックカバーから寝具まで、ここでしか手に入らない多彩な特産品が生み出されています。

富士吉田市は、2016 年には第 1 回のハタオリマチフェスティバルを開催しました。今では毎秋開催されるようになったこのイベントでは、展示、音楽の演奏や特別ゲストを迎えたパネルディスカッションなどにより職人と商人が協力して富士吉田の織物をプロモーションしています。メイン会場は小室浅間神社と本町通りで、富士吉田市内あちこちの工場や店舗がこのイベントに参加しています。

【タイトル】 吉田のうどん 料理

【想定媒体】 パンフレット

**<韓国語>****요시다 우동**

요시다 우동은 후지요시다의 현지 먹거리입니다. 기후와 고도 때문에 쌀을 재배하기 어려웠던 이 지역에서는 밀이 가장 적합한 주요 작물로서 자연스럽게 면류가 주식이 되었습니다. 요시다 우동에 사용되는 면은 이 지역 특유의 것으로 일반적인 우동 면보다 단단한 것이 특징입니다. 시내에는 요시다 우동에 특화된 우동 가게가 약 50 곳 자리하고 있으며 요시다 우동을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동아리 활동에 ‘우동부’가 있는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보통 요시다 우동은 된장과 간장으로 양념한 걸쭉하고 뜨거운 국물에 양배추, 고기, 기타 재료를 올린 형태로 제공됩니다. 우동 가게에서는 각각 독자적인 메뉴를 제공하고 있으니 후지요시다에 머무는 동안 몇 군데 가게의 맛을 비교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일부 우동 가게에서는 현대인들의 입맛에 맞도록 돼지고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요시다 우동의 전통적인 재료인 말고기를 사용한 레시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우동 가게에서는 참깨 가루와 고추를 섞어 만든 매운 맛의 수제 조미료 스리다네를 가게의 자랑으로 삼고 있습니다.

요시다 우동 가게의 대부분은 점심에만 영업하는데 이는 20세기 초 후지요시다의 주요 산업이 직물 산업이었던 시대부터의 전통입니다. 여성이 길쌈 작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족끼리 먹거나 다른 곳에서 온 옷감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우동을 당시에는 남성이 조리했던 것입니다. 그 후 우동이 인기를 얻은 가정은 집을 우동 가게로 개조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그대로의 요시다 우동 가게는 밖에서 보면 가게가 아닌 일반 집처럼 보입니다.

**<日本語仮訳>****吉田のうどん**

吉田のうどんとは、富士吉田のご当地グルメです。この地域は気候と標高により米の栽培が難しかったため、小麦が最も適した主要作物であり、自然と麺類が主食になったのです。吉田のうどんに使われる麺はこの地域独特のもので、一般的なうどんの麺よりも固い麺となっています。市内には吉田のうどんに特化したうどん店が約 50 軒あるほか、吉田のうどんを広めるために、部活動として「うどん部」がある高校もあります。

通常、吉田のうどんには、味噌と醤油で味付けされたとろみのある温かい汁にキャベツ、肉やその他の具材を乗せて提供されます。うどん店はそれぞれが独自のメニューを提供しているため、富士吉田滞在中にくつかの店の味比べをしてみるのもおすすめです。一部のうどん店では、現代の人々の口に合うように豚肉を使うのではなく、吉田のうどんの伝統的な具材である馬肉を使ったレシピで提供しています。それぞれのうどん

ん店では、すりごまと唐辛子を混ぜ合わせて作る自家製の辛い調味料すりだねも店の誇りにしています。

吉田のうどん店のほとんどは、お昼だけ営業していますが、これは 20 世紀初めに富士吉田の主要産業が織物産業だった時代からの伝統です。女性が機織り作業に集中できるよう、家族で食べたり他所から来た生地の買付人に提供したりするためのうどんを、当時は男性が調理していました。その後、うどんが人気となった家庭が家をうどん店に改装しました。そのため、昔ながらの吉田のうどん店は、外から見るとお店のようではなく、個人宅のように見えます。



【タイトル】 ほうとう 料理

【想定媒体】 パンフレット

**<韓国語>****호토**

호토는 밀가루로 만든 두꺼운 면으로 채소를 가득 넣은 된장맛 국물에 담긴 형태로 제공됩니다. 호토는 일본의 다른 면과는 달리 반죽하고 건조시켜서 자른 후, 뜨거운 물에 데치지 않고 그대로 다른 재료와 함께 끓입니다. 특히 호박이 중요한 재료로 달콤하고 진한 호토 특유의 맛을 결정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 외에도 일반적으로 당근, 양배추, 고구마, 고기가 함께 더해집니다.

이 지역의 기후와 고도에서는 쌀을 재배하기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밀을 사용한 요리가 발달했을 것입니다.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각 가정에 호토용 도마가 있었고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이 요리의 기원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헤이안 시대(794~1185)에 쓰여진 이야기 마쿠라노소시와 그 외 기록에 ‘하쿠타쿠’라는 밀로 만든 반죽이 등장하는데, 이것이 후에 ‘호토’라 읽히게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쿠타쿠는 팔과 함께 먹었던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후지 5 호 지역에서 자주 먹었던 호토와는 확실한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한 민간어원설에서는 ‘호토’라는 말이 가이국(현재의 야마나시현)을 다스렸던 무장 다케다 신겐이 군대를 위해 면을 만드는 데 자신의 보도(寶刀, 일본어로 ‘호토’)를 사용해 반죽을 잘랐다는 이야기와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신겐의 군대가 진군 중에 호토를 먹었다고 해서 많은 호토 가게에서 신겐의 군기를 내걸고 있지만 이 이름과의 연관성은 지어낸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日本語仮訳>****ほうとう**

ほうとうは、小麦粉でできた厚みのある幅広麺で、野菜のたくさん入った味噌味の汁に入った形で提供されます。ほうとうは、日本の他の麺とは異なり、生地をこね、乾燥させ、切った後、湯通しをせずに、そのまま他の食材と一緒に煮込みます。特にかぼちゃが重要な材料で、甘く濃厚な、ほうとう独特の味の決め手になります。その他、通常ニンジン、キャベツ、サツマイモや肉と一緒に加えられます。

この地域では気候や標高の関係で米の栽培が非常に難しかったため、必要に迫られて小麦を使った料理が発達したのでしょう。数十年前までは、各家庭にほうとう用のまな板があり、よく使われていました。

この料理の起源ははっきりしていません。平安時代(794-1185)に書かれた物語である枕草子やそ

他の記録では、「はくたく」という小麦で作った練り物が登場しており、これが後になって「ほうとう」と読まれるようになったという説があります。しかし、はくたくは、小豆と一緒に食べられたもので、富士五湖地域で食べられるほうとうとの明確なつながりはありません。

ある民間語源説では、「ほうとう」という言葉を、甲斐の国（現在の山梨県）を治めていた武将、武田信玄が自らの軍隊のために麺を作るのに自分の宝刀（日本語で「ホウトウ」）を使って生地を切ったという話に結びつけています。信玄の軍隊は進軍中にほうとうを食べたと考えられており、ほうとう店の多くには信玄の軍旗を掲げていますが、名前との繋がりには作り話である可能性が高いと思われます。

【タイトル】 忍野そば 料理

【想定媒体】 パンフレット

**<韓国語>****오시노 메밀국수**

오시노무라(마을)에는 오시노 메밀국수라는 이곳 특유의 면 요리가 존재합니다. 이 장소의 기후는 밀을 재배하기에도 너무 추웠기 때문에 농가들은 밀 대신 메밀을 재배하며 우동이 아닌 메밀국수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여름이 끝날 무렵부터 가을이 시작될 즈음이면 메밀꽃이 만발하는 밭 너머로 후지산이 보이는 풍경이 이 마을의 특징적인 매력 중 하나입니다.

지역 사람들은 메밀 반죽에 후지산의 깨끗한 샘물을 사용하는 것이 맛 좋은 메밀국수를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시노 메밀국수는 오시노무라가 옛부터 후지산에서 발원한 깨끗한 샘물과 함께 살아온 마을임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메밀국수는 오시노의 전통적인 가정 요리로 대부분의 지역민들에게 지금도 메밀국수는 그리운 집밥의 맛입니다. 오시노무라에는 12 곳 정도의 오시노 메밀국수점이 있으며 그 각각이 고집하는 수타면을 오랜 세월 변하지 않은 짝어먹는 국물, 양념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 메뉴로 야키미소(구운 된장)도 인기가 있습니다.

**<日本語仮訳>****忍野そば**

忍野村には忍野そばという忍野村ならではの麺料理があります。この場所の気候は小麦の栽培にさえ寒すぎるため、農家は小麦の代わりにソバを栽培し、それを使ってうどんではなく蕎麦を作るようになったのです。夏の終わりから秋の始めにかけて、ソバの花が咲き誇る畑の向こうに富士山が見える景色はこの村の特徴的な魅力のひとつです。

地元の人々は、生地に富士山のきれいな湧水を使うことが、味のしっかりした蕎麦を作るのに非常に重要だと考えています。また、忍野蕎麦は、忍野村が昔から富士山を源とするきれいな湧水とともに生きてきた村であることを示すものでも考えています。

蕎麦は忍野の伝統的な家庭料理で、地元の多くの人々にとっては今でも蕎麦が懐かしい家庭の味なのです。忍野村には 12 軒ほどの忍野蕎麦店があり、そのそれぞれがこだわりの手打ち麺を長年変わることのないつけ汁と薬味とともに提供しています。また、追加のメニューとして焼き味噌も人気です。

【タイトル】 周遊バスで楽しめる富士五湖 全体概要

【想定媒体】 パンフレット

### <韓国語>

#### 버스를 이용한 후지 5 호 관광

후지 5 호 지역에는 가와구치코역을 중심으로 각 방향으로 향하는 버스 노선망이 정비되어 있습니다. 가와구치코역에서 출발하는 세 가지 색의 버스 노선은 관광객의 니즈에 맞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레드라인**은 가와구치코 대교 남단에서 가와구치코 호수 북쪽의 가와구치코 자연생활관까지 가와구치코 호안을 따라 달립니다. 14 번부터 17 번 정류장까지 북동쪽의 해안변 지역에는 오르골을 전시한 가와구치코 오르골의 숲 미술관과 구보타 잇치쿠 미술관 등 여러 박물관과 미술관이 있습니다. 레드라인 버스는 1 시간에 4 대가 운행됩니다.

**그린라인**은 가와구치코 남쪽 해안을 따라 서쪽으로 달리며 후지오무로센겐 신사를 지나 사이코 호수 주변을 통과하고 한가로운 아오키가하라 주카이 숲을 빠져나옵니다. 사이코 박쥐 동굴로 가려면 45 번 정류장에서, 그리고 후가쿠 바람 동굴로 가려면 51 번 정류장에서 하차하면 됩니다. 그린라인 버스는 1 시간에 2 대가 운행됩니다.

**블루라인**은 사이코 호수를 통과해 쇼지코 호수의 구불구불한 북쪽 호안을 지난 후 더욱 서쪽을 향해 모토스코 호수까지 달립니다. 고다키후지(아기를 안은 후지산) 뷰 포인트는 86 번 정류장, 파노라마 전망대는 88 번 정류장에서 각각 도보로 얼마 걸리지 않는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블루라인 버스는 1 시간에 1 대가 운행됩니다.

**후지요시다, 오시노, 야마나카코 주유 버스**는 가와구치코역에서 동쪽 방향으로 출발하여 오시노 구역을 지나 오시노 핫카이 앞을 통과하고 야마나카코 호수 주변을 크게 한 바퀴 돕니다.

### <日本語仮訳>

#### バスによる富士五湖観光

富士五湖地域には河口湖駅を中心として各方面へ向かうバス路線網が整備されています。河口湖駅から出発する3色に分けられたバス路線は、観光客のニーズに合うよう設定されています。

**レッドライン**は、河口湖大橋の南端から河口湖北岸の河口湖自然生活館まで河口湖の湖岸に沿うように走っています。14番から17番停留所までの北東の岸に沿った地域にはオルゴールを展示している河口湖オルゴールの森美術館や、久保田一竹美術館など複数の博物館・美術館があります。レッドラインバスは、1時間に4本運行しています。

**グリーンライン**は、河口湖の南岸に沿って西側に走り、富士御室浅間神社を通り過ぎ、西湖の周囲を通り、のどかな青木ヶ原樹海を通り抜けます。西湖コウモリ穴へは 45 番停留所で、そして富岳風穴へは 51 番停留所で下車します。グリーンラインバスは 1 時間に 2 本運行しています。

**ブルーライン**は、西湖を通り過ぎて精進湖の曲がりくねった北岸をたどってさらに西へと向かい、本栖湖まで走ります。子抱き富士ビューポイントは 86 番停留所、パノラマ台は 88 番停留所からそれぞれ徒歩わずかかのところにあります。ブルーラインバスは 1 時間に 1 本運行しています。

**富士吉田・忍野・山中湖周遊バス**は、河口湖駅から東方向に出発し、忍野エリアを通り抜け、忍野八海の前を通り、山中湖の周囲を巡って大きく 1 周します。

地域番号	003	協議会名	書寫山圓教寺観光振興協議会
------	-----	------	---------------

解説文一覧

NO.	スポット名 (タイトル)	韓国語文字数	媒体
003-001	書寫山圓教寺：圓教寺境内	996	Web
003-002	書寫山圓教寺：圓教寺摩尼殿（如意輪堂）	579	看板
003-003	書寫山圓教寺：三十三所堂	620	看板
003-004	書寫山圓教寺：湯屋橋	570	看板
003-005	書寫山圓教寺：石造笠塔婆	430	看板
003-006	書寫山圓教寺：護法石（弁慶のお手玉石）	423	看板
003-007	書寫山圓教寺：瑞光院	443	看板
003-008	書寫山圓教寺：三つの堂（大講堂・食堂・常行堂）	955	Web
003-009	書寫山圓教寺：圓教寺大講堂	565	看板
003-010	書寫山圓教寺：圓教寺食堂	558	看板
003-011	書寫山圓教寺：圓教寺常行堂	563	看板
003-012	書寫山圓教寺：弁慶鏡井戸	419	看板
003-013	書寫山圓教寺：白山権現	560	看板
003-014	書寫山圓教寺：圓教寺奥之院 開山堂	582	看板
003-015	書寫山圓教寺：圓教寺奥之院 不動堂	502	看板
003-016	書寫山圓教寺：圓教寺奥之院 護法堂	486	看板
003-017	書寫山圓教寺：圓教寺奥之院 護法堂拜殿	466	看板
003-018	書寫山圓教寺：伝和泉式部歌塚塔	500	看板
003-019	書寫山圓教寺：圓教寺金剛堂	662	看板
003-020	書寫山圓教寺：圓教寺薬師堂	528	看板
003-021	書寫山圓教寺：十地院	276	看板
003-022	書寫山圓教寺：圓教寺鐘楼	479	看板
003-023	書寫山圓教寺：法華堂	403	看板
003-024	書寫山圓教寺：本多家廟屋	570	看板
003-025	書寫山圓教寺：榊原家墓所	732	看板
003-026	書寫山圓教寺：松平家墓所	593	看板
003-027	書寫山圓教寺：十妙院	804	看板
003-028	書寫山圓教寺：壽量院	581	看板
003-029	書寫山圓教寺：仁王門と木造金剛力士像	497	看板
003-030	書寫山圓教寺：五重塔跡	440	看板
003-031	書寫山圓教寺：文殊堂跡	534	看板
003-032	書寫山圓教寺：木造釈迦如来乃両脇侍像	620	Web

003-033	書寫山圓教寺：木造四天王立像	347	Web
003-034	書寫山圓教寺：木造阿弥陀如来坐像	560	Web
003-035	書寫山圓教寺：木造性空坐像	478	Web
003-036	書寫山圓教寺：木造金剛薩埵像	552	Web
003-037	書寫山圓教寺：性空上人坐像	276	Web
003-038	書寫山圓教寺：如意輪観音坐像	801	Web
003-039	書寫山圓教寺：圓教寺愛宕社本殿	396	Web
003-040	書寫山圓教寺：圓教寺縁起	1145	Web
003-041	書寫山圓教寺：修正会（鬼追い会式）	971	Web
003-042	書寫山圓教寺：節分会・星祭	780	Web
003-043	書寫山圓教寺：御朱印	665	Web
003-044	書寫山圓教寺：書寫塗	594	Web
003-045	書寫山圓教寺：修行体験	492	Web
003-046	書寫山圓教寺：武蔵坊弁慶	584	Web
003-047	書寫山圓教寺：三十三所巡り	519	Web
003-048	書寫山圓教寺：芸能と圓教寺	710	Web

【タイトル】書寫山圓教寺：圓教寺境内

【想定媒体】Web

**<韓国語>****엔교지 절 경내**

엔교지 절은 효고현 중심부에 위치하는 쇼샤잔 산에 있습니다. 수십 채의 역사적인 건물, 기념비, 묘지, 본당과 여섯 곳의 탑두(사원 부지 내에 지어진 작은 사원)가 31 헥타르를 넘는 경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쇼쿠 대사(910~1007)에 의해 966년에 창건된 이래 엔교지 절은 유복한 귀족과 황실의 비호를 받아왔습니다. 유력한 무장과 일반 서민도 또한 사원의 많은 건물과 예술 작품 제작에 공헌했습니다. 이 중 많은 것들이 무로마치 시대(1336~1573)에 만들어졌으며 일본의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원의 구조는 주요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심에는 마니덴(摩尼殿)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개조 쇼쿠 대사가 산에 살았던 초기 무렵에 벚나무 주위에서 춤을 추며 경문을 읊고 있는 천녀의 모습을 목격했다고 하는 장소에 지어져 있습니다. 기적적인 경문의 내용에 크게 영감을 받은 쇼쿠 대사는 보석을 몸에 두른 여의륜관음보살상을 벚나무에 조각했습니다. 살아 있는 나무에 조각한 이 보살상은 1492년에 화재로 소실되고 마니덴은 몇 번 재건되었으나 현재도 상징적·종교적인 의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니덴은 '사이코쿠 33 관음 성지' 순례의 27 번째 성지입니다. 8 세기에 확립된 이 순례길은 일본 전역 및 세계 각지에서 참배자를 계속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엔교지 절 주요 부분 가운데 한 곳에는 다이코도(大講堂), 지키도(食堂), 조교도(常行堂)로 구성된 세 채의 불당이 모여 있습니다. 10 세기에서 15 세기에 지어진 우아한 세 건물은 넓은 중정을 중심으로 ㄷ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이코도에 모셔져 있는 석가삼존상은 987년에 쇼쿠 대사의 제자인 간나 대사가 조각했습니다. 이 석가삼존상과 사천왕상 총 7구는 높은 대좌 위에서 중정 너머 조교도의 무대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경내 서쪽 끝에 있는 건물군은 엔교지 절의 성역인 오쿠노인(奥之院)으로서 가이산도(開山堂)(1673년 창건), 후도도(不動堂)(1697년 창건), 오토텐과 와카텐을 모시는 고후도(護法堂)입니다. 이 오토텐과 와카텐 2인조는 창건 이래 엔교지 절을 지키는 수호신이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엔교지 절의 전승과 전통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엔교지 절 방문자는 여섯 개의 좁은 하이킹 코스 가운데 하나를 거쳐 쇼샤잔 산을 올라야만 사원 경내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1958년에 케이블카가 동쪽 경로를 따라 개통되어 사원을 방문하기가 쉬워졌습니다. 참배자가 케이블카로 산꼭대기에 도착하면 속세와 성역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니오몬(仁王門)을 거쳐 사원 경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 <日本語仮訳>

### 圓教寺境内

圓教寺は兵庫県中央部に位置する書写山にある。数十の歴史的建造物、記念碑、墓地、本堂と 6 つの塔頭（寺院の敷地内に建てられた小さな寺院）は、31 ヘクタールを超える境内に存在している。性空上人（910-1007）によって 966 年に創建されて以来、圓教寺は裕福な貴族や皇室からの庇護を受けてきた。有力武将や一般庶民もまた寺院の多くの建物や芸術作品の制作に貢献した。これらの多くは室町時代（1336～1573）に作られ、文化財に登録されている。

この寺院の構造は 3 つの主要な部分に分けることができる。中心には、摩尼殿がある。この建物は、開祖性空上人が山に住んでいた初めのころに、桜の木の周りで踊り、経文を詠じている天女の姿を目撃したと言われている場所に建っている。奇跡的な経文の内容に触発されて、性空上人は桜の木に、宝石を身に着けた如意輪観音菩薩像を彫ったのである。この生木に彫られた菩薩像は 1492 年に火事で失われ、摩尼殿は何度か再建されたが、象徴的・宗教的な意義を現在も保っている。「西国三十三所」の巡礼の第 27 番目のお札所である。8 世紀に確立されたこの巡礼路は、日本全土および世界中からの参拝者を招き続けている。

圓教寺の主要部分の一つには、大講堂、食堂、常行堂からなる三之堂が集まっている。10 世紀から 15 世紀に作られた三つの優雅な建物は広い中庭を中心にしてコの字型を成している。大講堂に収められている釈迦三尊像は、987 年に性空上人の弟子、感阿上人によって彫られた。この釈迦三尊像と四天王像の計 7 体は、高い台座の上から中庭越しに常行堂の舞台を静かに見つめている。

境内の西端にある建物群は、圓教寺の聖域、奥之院で、開山堂（1673 年創建）、不動堂（1697 年創建）、乙天と若天を祀る護法堂である。この乙天と若天の二人組は、創建以来、圓教寺を守る守護神であり、圓教寺の伝承と伝統を今日に至るまで受け継いでいる。

昔から、圓教寺への訪問者は 6 つの狭いハイキングコースのいずれかを經由して書写山に登らなければ寺院の境内に到達できなかった。1958 年にロープウェイが東ルートに沿って開通し、寺院へのアクセスが楽になった。参拝者はロープウェイで山頂に着いたら、俗世と聖域の境をなしている仁王門を経て、寺院の境内に入ることができる。

【タイトル】書寫山圓教寺：圓教寺摩尼殿（如意輪堂）

【想定媒体】看板

### <韓国語>

#### 엔교지 절 마니덴(노이린도)

마니덴(摩尼殿)은 엔교지 절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엔교지 절의 개조 쇼쿠 대사(910~1007)가 경문을 외고 있을 때, 한 그루의 벚나무 주위에서 춤을 추는 천녀를 목격했다고 합니다. 천녀의 시(詩)는 여섯 개의 팔을 가진, 여의륜관음이라는 자비로운 보살이 살아 있는 나무의 모습으로 출현하는 광경을 읊고 있었습니다. 경문에 따르면 여의륜관음은 장수와 번영의 보살로서 어떤 시대에도 모든 생명체가 극락에 다시 태어날 수 있음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쇼쿠 대사는 이 이상에 큰 영감을 받아 벚나무에 여의륜관음의 모습을 조각하고 이를 지키기 위한 불당을 지었습니다. 그 후 970년에 불당과 여의륜관음을 중심으로 노이린도(如意輪堂)가 건설되었습니다.

이 불당은 1174년에 고시라카와 법황(1127~1192)이 엔교지 절을 찾아 관음상을 보고 싶다고 요구할 때까지 닫혀 있었고 여의륜관음상은 공개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고시라카와 법황이 여의륜관음상을 보았을 때, 이 불당을 현재의 이름인 ‘마니덴’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마니는 불교 가르침의 중심에 있는 보석을 의미합니다. 마니덴은 네 번 재건되었는데, 건물은 매번 벚나무가 서 있었던 장소에 지어졌습니다.

마니덴 안쪽에는 제단 뒤의 벽에 두꺼운 옷칠을 한 세 문이 있습니다. 이 문들 안은 사천왕상이 안치되어 있는 방입니다. 1년에 한 번, 1월 18일에 이 문을 개방하고 새해의 평화와 오곡의 풍작을 기원하는 제전(슈쇼에)이 열립니다.

### <日本語仮訳>

#### 圓教寺摩尼殿（如意輪堂）

摩尼殿は圓教寺の中心部に位置している。ここで、圓教寺の開祖性空上人（910-1007）が經文を唱えているとき、一本の桜の木の周りを舞う天女を目撃したと言われている。天女の詩は、6本の腕を持つ如意輪観音という慈悲の菩薩が生きている木の姿で出現する様子を詠っていた。經文によると、如意輪観音は長寿と繁栄の菩薩で、いつの時代にもすべての生き物が極楽に生まれ変わることができることを保証している。この理想に触発されて、性空上人は桜の木に如意輪観音のお姿を彫刻し、それをお守りするためにお堂を建てた。その後、970年にお堂と如意輪観音を中心にして如意輪堂が建設された。

このお堂は、1174年に後白河法皇（1127-1192）が圓教寺を訪れ、像を見たいと要求するまで閉ざされたままで、如意輪観音像は公開されていなかったと伝えられている。後白河法皇が如意輪観音像をご覧になったとき、このお堂を現在の名である「摩尼殿」とお名づけになった。摩尼は、仏教の教えの中心にある宝石を意味している。摩尼殿は4回再建されたが、毎回建物は、桜が立っていた場所に建てられた。

摩尼殿の内側には、祭壇の後ろの壁に厚い漆塗りの扉が3組ある。これらは、四天王像が安置されている部屋である。年一回、1月18日にこの扉が開かれ、新年の平和と五穀豊穡の祭典（修正会）が行われる。

【タイトル】書寫山圓教寺：三十三所堂

【想定媒体】看板

**<韓国語>****산주산쇼도**

그윽함과 고상함이 느껴지는 이 불당에는 살아 있는 모든 것을 구제로 이끌겠다고 맹세한, 자비의 보살인 관음보살상 33 구가 모셔져 있습니다. 이 불당은 천 년이 넘는 역사가 있는 순례길 ‘사이코쿠 33 관음 성지’(사이코쿠 산주산쇼)의 축소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엔교지 절은 사이코쿠 33 관음 성지의 27 번째 절로서 이 순례길의 총 거리는 1,000 킬로미터 가까이 되며, 7 개 현에 걸쳐져 있습니다.

사이코쿠 33 관음 성지 순례는 8 세기에 성립되었으나 에도 시대(1603~1867)에 이르러서야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법화경의 한 구절에 따르면 관음보살에게 구제를 바라며 누구나 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33 관음을 전부 순례한 사람은 33 관음을 참배하고 보인(寶印)(부처나 보살의 인(印))을 얻음으로써, 염마대왕으로부터 극락왕생할 수 있다는 약속을 받는다고 합니다. 정토신앙은 에도 시대에 특히 널리 퍼져 순례가 여행의 구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순례의 여정은 길고 어려움이 따랐으며, 걸어가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도 시대에는 지방 간의 왕래를 엄격히 제한했기 때문에 자유롭게 여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일찍부터 진취적인 승려들이 각각 떨어진 수십 군데의 장소를 순례하는 대신, 순례자들이 한 곳에서 33 관음, 또는 그 일부를 참배할 수 있는 장소인 ‘우쓰시레이조’(성지를 모방해 만든 장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순례자들은 엔교지 절에 찾아오면 33 관음을 모두 참배하고 순례 전체를 효율적으로 마칠 수 있어서 정토에서 다시 태어나기 위한 공덕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日本語仮訳>****三十三所堂**

この奥ゆかしさのあるお堂には、すべての生きとし生きるものを救いに導くことを誓った、慈悲の菩薩である観音菩薩像 33 体が祀られている。このお堂は千年以上に渡る巡礼路「西国三十三観音巡礼地」(西国三十三所)の縮小版として重要な役割を果たしている。圓教寺は、西国三十三所の 27 番目のお寺で、この巡礼路の総距離は 1,000 キロメートルにも及び、7 つの県にまたがっている。

西国三十三観音巡礼は 8 世紀に成立したが、江戸時代(1603~1867 年)になってようやく広く知られるようになった。法華経の一節によると、観音菩薩に救済を求めることで、誰もが大きな困難を乗り越えられ、三十三観音すべてを巡礼した人は、三十三観音を参拝し、宝印(仏や菩薩の印)を得ることで極楽に往生できることが閻魔大王と約束されていると言われている。浄土信仰は江戸時代に特に広まり、巡礼は旅行の口実になったのである。

しかし、巡礼の道のりは長く、困難を伴い、徒歩で行われた。加えて江戸時代は地方間の行き来は厳しく制限されていたため、自由に旅行することは難しいことであった。そのため、早い時期から、進取的な僧侶

たちが、数十箇所の離れた場所を巡礼する代わりに、巡礼者たちが一箇所で三十三観音、もしくはその一部を訪れることができる場所である「写し霊場」（聖地を模倣して作った場所）をつくるために努力した。巡礼者たちは圓教寺にやって来れば、三十三観音をすべて拝み、巡礼全体を効率的に終えることができ、浄土で生まれ変わるための功德を享受できたのであった。

【タイトル】書寫山圓教寺：湯屋橋

【想定媒体】看板

**<韓国語>****유야바시 다리**

유야바시 다리는 17세기 초엽, 세상이 격변하여 정국이 불안정했던 시대 말엽에 지어졌습니다. 16세기의 마지막 수십 년 동안 전쟁의 그림자가 엔교지 절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유야바시 다리는 오늘날 사원 재건의 상징으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15세기 후반에 이미 엔교지 절은 많은 특징적인 건물과 큰 경제력을 가진 복합시설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 후의 전국 시대(1467~1603)에는 다양한 세력이 갑작스러운 권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싸웠기 때문에 광범위한 군사 분쟁이 발발했습니다. 1578년, 무장인 도요토미 히데요시(1537~1598, 당시는 하시바 히데요시)가 엔교지 절을 점령하여 사원의 복합시설을 산의 요새로 바꾸고, 약 2만 명의 히데요시군 병사를 배치했습니다. 이때 병사들은 승려들을 공포에 빠뜨리고 건물과 불교 유물을 파괴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엔교지 절은 전국 시대에 급격한 쇠퇴를 맞았습니다.

엔교지 절의 운명은 혼다 다다마사(1575~1631)가 히메지성의 새 성주가 되었을 때부터 긍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다다마사는 황폐해진 사원의 상태에 충격을 받고 이전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자금을 모았습니다. 유야바시 다리는 이 부흥기에 건설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세기 뒤인 1944년에 다리 난간 장식인 청동 난간범수가 전쟁을 하기 위한 금속 자원으로 회수되었습니다. 1955년에는 혼다 다다마사를 칭송하기 위한 비문을 새긴 새 난간범수가 주조되었습니다.

**<日本語仮訳>****湯屋橋**

湯屋橋は17世紀初頭、世の中が激変し、政局が不安定であった時代の終わりに建てられた。16世紀最後の数十年間は、戦争の影が圓教寺を混乱に陥れた。湯屋橋は今日、寺院の再建の象徴として存在している。

15世紀後半には、圓教寺は既に多くの特徴的な建物と大きな経済力を有した複合施設に成長していた。その後の戦国時代(1467~1603年)にはさまざまな勢力が突然の権力の空白を埋めるために戦ったため、広範な軍事紛争が勃発した。1578年、武将の豊臣秀吉(1537-1598; 当時は羽柴秀吉)が圓教寺に入り、占領し、寺院の複合施設を山の要塞に変え、秀吉軍の約2万人の兵隊を配置した。この間、兵士たちは僧侶たちを恐怖に陥れ、建物や仏教遺物を破壊した。こうして、この圓教寺は戦国時代に急激な衰退を迎えた。

圓教寺の運命は、本多忠政(1575-1631)が姫路城の新城主となったときから上向き始めた。忠政は荒廃した寺院の状態に衝撃を受け、以前の栄光を取り戻すために資金を募った。湯屋橋はこの復興期に建てられた。それから3世紀後の1944年に、橋の欄干の装飾である青銅製の擬宝珠は、戦争遂行

のための金属資源として回収された。1955年には、新しい擬宝珠が本多忠政を称える碑文を刻んで製造された。

【タイトル】 書寫山圓教寺：石造笠塔婆

【想定媒体】 看板

**<韓国語>****석조 가사토바**

이 석조 가사토바(각기둥 모양이나 널빤지 모양의 탑신에 지붕(가사)을 씌운 탑과(도바))는 그 광명으로 영원한 은혜를 베푼다고 하는 아미타여래의 부조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아미타여래는 일본에서 가장 큰 불교 신앙의 하나인 극락정토 신앙의 중심을 이루는 부처입니다. 그 가르침은 무한한 윤회전생으로부터 모든 살아 있는 것을 구제할 것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부조로 새겨진 아미타여래는 연꽃에 앉은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는 진흙투성이의 더러운 연못에서 연이 성장하듯이 중생이 영적 수행을 통해 존재를 초월하는 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석조 가사토바는 형상을 보고 만들어진 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 아미타여래를 부조로 배치한 오목한 부분은 화두형(花頭形)이라고 하는 형상으로서, 이는 13 세기에 중국에서 선종의 건축양식이 전해진 뒤 일본에서 선호된, 대륙에서 기원한 디자인의 특징입니다. 또한 완만하게 휘어진 '지붕'의 아름다운 세부는 가마쿠라 시대(1185~1333)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꼭대기에는 여의륜관음에게 안겨 희망에 넘친 보주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日本語仮訳>****石造笠塔婆**

この石造笠塔婆(角柱状または板状の塔身に屋根(笠)を被せた塔婆)は、その光明により永遠の恩恵を与えるとされる阿弥陀如来の浮き彫りで飾られている。阿弥陀如来は日本における最大の仏教信仰の一つである極楽浄土信仰の中心を成す仏様である。その教えは無限の輪廻転生からすべての生き物を救うことを誓っている。浮き彫りの阿弥陀様は蓮の花に座った姿で描かれている。それは、泥だらけの濁った池から蓮が成長するように、衆生が靈的修行を通じて存在を超越する力を象徴している。

石造笠塔婆は、その形状からそれが作られた時期を伝えている。阿弥陀如来を浮き彫りで配置した凹部は花頭形と呼ばれる形状で、これは、13世紀に禅宗の建築様式が中国から伝わった後、日本で好まれた大陸起源のデザインの特徴である。また、緩やかに反った「笠」の美しい細部は、鎌倉時代(1185~1333)の特徴である。そして頂部には、如意輪観音に抱かれ希望に満ちた宝珠が配置されている。



【タイトル】 書寫山圓教寺：護法石（弁慶のお手玉石）

【想定媒体】 看板

<韓国語>

고호세키(벤케이의 공깃돌)

이끼로 뒤덮인 이 두 바위에는 두 가지 전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설은 부동명왕과 비사문천의 화신인 오토텐과 와카텐에 관한 것으로서 엔교지 절의 개조 쇼쿠 대사(910~1007)가 966년에 처음으로 쇼샤잔 산에 도착했을 때, 오토텐과 와카텐이 하늘에서 내려와 이 두 돌 위에 내려섰습니다. 오토텐과 와카텐은 쇼쿠 대사의 초기 수행을 도왔습니다. 오토텐과 와카텐은 호법선신, 또는 난폭한 수호신으로 알려져 있으며, 두 돌은 이 전설에서 '고호세키(護法石)'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오토텐과 와카텐은 엔교지 절의 수호신으로서 천 년 넘게 절의 전설과 전통에 등장해왔습니다. 두 번째 전설은 12세기 후반의 전설적인 승병인 무사시보 벤케이에 관한 것으로서 '벤케이의 공깃돌'로 알려져 있습니다. 벤케이에 관해서는 많은 전설과 일화가 남아 있는데, 벤케이가 소년 시절에 엔교지 절에서 수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어서 이 역사적 사실이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벤케이는 젊은 시절에 두 바위를 공깃돌 삼아 자신의 힘을 시험했다고 합니다.

003-006

<日本語仮訳>

護法石（弁慶のお手玉）

苔で覆われたこの二つの岩には2つの伝説がある。1つ目の伝説は、不動明王と毘沙門天の化身である乙天と若天に関するものであり、圓教寺の開祖性空上人（910-1007）が966年に最初に書寫山に到着したときに乙天と若天が天から降りてきてこの2つの石の上に降り立った。乙天と若天は性空上人の初期の修行を助けた。乙天と若天は、護法善神、または荒々しい守護神として知られ、二つの石はこの伝説から、「護法石」と呼ばれるようになった。乙天と若天は圓教寺の守り神として、千年以上に渡って、お寺の伝説や伝統に登場してきた。

2つ目の伝説は、12世紀後半の伝説的僧兵である武蔵坊弁慶に関するものであり、「弁慶のお手玉」としても知られている。弁慶に関しては多くの伝説や逸話が残されているが、彼は少年時代、圓教寺で修行したことが知られており、この歴史的事実が多くの物語を作り出した。伝説によると、若い時、弁慶は二つの岩でお手玉をして自分の力を試したという。

【タイトル】 書寫山圓教寺：瑞光院

【想定媒体】 看板

**<韓国語>****즈이코인**

즈이코인(瑞光院)은 엔교지 절 내의 여섯 탑두(사원 부지 내에 지어진 작은 사원) 가운데 하나입니다. 역사적으로 각각의 탑두는 보통 카리스마가 있는 주지와 특정 경전이나 부처에 초점을 맞춘, 개별적인 일련의 수행이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한 단가(檀家)(일정한 절에 속하여 시주를 하며 절의 재정을 돕는 집이나 사람)에 의해 보다 폭넓게 엔교지 절의 공동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즈이코인의 역사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으나 사원 문 가까이에 있는 편액에는 방문한 순례자들을 위한 숙박으로서의 역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 탑두는 아름다운 풍경으로 유명합니다. 즈이코인의 소박한 흙 외벽과 가을의 선명한 단풍은 웨딩사진의 배경으로 안성맞춤입니다. 즈이코인의 바로 맞은편에는 대흑천이 모셔진 작은 신사가 있는데, 대흑천은 신불습합(중국에서 불교가 전래된 후 일본 고유의 종교인 신토와 융합한 신앙 형태) 신앙에서 건강, 농민, 식(食), 그리고 행운의 신입니다. 가까이에는 히메지시에서 태어난 유명한 가인인 하쓰이 시즈에(1900~1976)가 지은, 일본의 전통 시가인 와카를 새긴 석비가 있습니다.

**<日本語仮訳>****瑞光院**

瑞光院は圓教寺内に6つある塔頭(寺院の敷地内に建てられた小さな寺院)の1つである。歴史的に、それぞれの塔頭は、通常はカリスマ的な住職と特定の經典や仏に焦点を当てた個別の一連の修行や教えを中心とした檀家(一定の寺に属し、施主を務め、寺の財政を助ける家または人)によってより幅広く圓教寺の共同体を支えている。瑞光院の歴史についてはほとんど知られていないが、寺院の門の近くにある額には、訪れる巡礼者のための宿坊としての役割が記されている。今日、この塔頭はその美しい風景で有名である。瑞光院の素朴な土の外壁と秋の鮮やかな紅葉は、結婚写真撮影にピッタリな背景になっている。瑞光院の真向かいには、大黒天が納められた小さな神社があり、大黒天は神仏習合(中国から仏教が伝わった後、日本古来の神道融合した信仰形態)の考えにおける健康、農民、食、そして幸運の神である。近くには、姫路市で生まれた有名な歌人、初井しずゑ(1900~1976)の和歌を刻んだ石碑がある。

【タイトル】 書寫山圓教寺：三つの堂（大講堂・食堂・常行堂）

【想定媒体】 Web

### <韓国語>

#### 미쓰노도(다이코도·지키도·조교도)

엔교지 절의 미쓰노도(三之堂)는 이 사원의 풍요로운 역사의 상징, 종교적 수행의 장, 그리고 천 년이 넘도록 이곳을 사용해온 각 시대 승려들의 일상생활의 장으로서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이코도(大講堂)는 미쓰노도 북쪽 끝에 있으며, 흰 자갈이 깔린 넓은 중정을 끼고 조교도(常行堂)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중앙의 2층 건물인 지키도(食堂)는 미쓰노도의 서쪽 끝을 구성하는 긴 회랑처럼 보입니다.

10세기에서 15세기 사이에 지어진 이 건물들은 사원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다이코도는 강의와 논의가 이루어지는 수행의 장입니다. 천태종(天臺宗) 사원에 공통되는 건축양식으로서 건물 중앙의 내진(內陣)(본존을 안치하는 신성한 장소)을 봉당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불당의 본존은 역사적인 석가모니불로서 지혜의 보살인 문수보살(오른쪽)과 진리와 수행의 덕의 보살인 보현보살(왼쪽)을 양쪽에 거느리고 있습니다. 주위를 사천왕이 지키는, 금빛으로 빛나는 삼존상이 중정 너머로 조교도 앞의 무대를 온화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1년에 몇 차례 그 무대에서 무악이 봉납되고 있습니다.

조교도(常行堂)는 종교적인 수행의 장입니다. 승려들은 경을 외면서 불당 중앙의 큰 아미타불 주위를 천천히 걷는 상행삼매라는 수행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 수행은 식사와 휴식을 위한 짧은 시간만을 제외하고 90일 동안 연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수행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엔교지 절의 승려가 상행삼매를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지키도(食堂)는 역사적으로는 승려가 식사를 하거나 잠을 자는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1174년에 고시라카와 법황(1127~1192)의 기원에 따라 창건되었으나 겐토쿠 3년(1331)에 일어난 대화재 이후 1963년까지 미완성이었습니다. 현재 1층은 주로 방문자가 공덕을 쌓기 위해 하는 사경(경전을 베끼는 것)의 장소로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키도의 2층에서는 엔교지 절의 길고 풍요로운 역사에서 빛을 발한 다양한 종교적·문화적 유산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중정 주위의 건물 및 이 건물들의 ㄷ자 배치가 돋보이기 때문에 미쓰노도는 텔레비전이나 영화 촬영에 선호되는 장소입니다. 미쓰노도는 몇몇 인기 있는 시대극에 등장하며, 톰 크루즈와 와타나베 겐이 주연한 대히트 영화 『라스트 사무라이』(2003)의 촬영지로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미쓰노도는 모두 일본 중요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 <日本語仮訳>

### 三之堂（大講堂・食堂・常行堂）

圓教寺の三之堂は、この寺院の豊かな歴史の象徴、その宗教的修行の場、そして千年以上に渡ってここを使用してきた各時代の僧侶たちの日常生活の場として今に伝えられている。大講堂は、三之堂の北端にあり、それは白い小石が敷かれた広い中庭を挟んで常行堂に面している。中央の2階建ての食堂は、三之堂の西端を構成する長い回廊のように見える。

10世紀から15世紀の間に建てられた三つの各建物は、寺院での生活において重要な役割を果たしている。大講堂は、講義や議論が行われる修行の場である。天台宗の寺院に共通する建築様式で、その中心は、内陣（本尊を安置する神聖な場所）を土間としている。このお堂のご本尊は歴史的な釈迦牟尼仏で、知恵の菩薩である文殊菩薩（右）と正しい行いの菩薩である普賢菩薩（左）の二菩薩を両脇に従えている。周りを四天王が護る金色に輝く三尊像が穏やかに中庭越しに、常行堂の前の舞台を見つめている。年に数回、その舞台で舞楽が奉納されている。

常行堂は、宗教的な修行の場である。僧侶たちは、お堂の中心の大きな阿弥陀仏の周りをお経を唱えながら、ゆっくりと歩く常行三昧という修行を行う。場合によっては、この修行は食べ物と休憩のための短い休みを取るだけで90日も連続して行われる。この修行は、非常に困難であるばかりでなく、危険を伴う可能性があり、常行三昧を圓教寺の僧侶が行うことは稀である。

食堂は歴史的には、僧侶が食事をしたり寝たりする場所として使用されていた。1174年に後白河法皇（1127年～1192年）の勅願により創建されたが、元徳3年（1331）に起きた大火のあと1963年まで未完成であった。現在、1階は主に訪問者が功德を積むための写経（経典を書き写すこと）の場として利用されている。食堂の2階には、圓教寺の長く豊かな歴史に光を当てるさまざまな宗教的および文化的遺産が展示されている。

中庭の周りの建物とそのコの字型の配置という見栄えの良さから、三之堂はテレビや映画の撮影に好ましい場所となっている。この三之堂はいくつかの人気のある時代劇に登場しており、トム・クルーズと渡辺謙主演の大ヒット映画『ラストサムライ』（2003）でもロケ地として使われ話題になった。

三之堂はすべて国の重要文化財に登録されている。

【タイトル】書寫山圓教寺：圓教寺大講堂

【想定媒体】看板

**<韓国語>****엔교지 절 다이코도**

다이코도(大講堂)는 엔교지 절의 미쓰노도(三之堂)로 알려진 세 건물 가운데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나타내듯이 이 불당은 강의 장소이며, 엔교지 절 경내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 가운데 하나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원래의 건물은 10 세기에 가잔 법황(968~1008)의 명에 따라 지어졌으나, 현재의 2층 건물은 15 세기에 재건된 것입니다. 건축 디자인은 대륙과 일본의 양식을 도입하였으며 천태종(天臺宗)의 특징을 갖추고 있습니다. 불당의 본존이며 역사적인 석가모니불이 바닥이 파인 중앙의 공간에 모셔져 있는데, 한가운데가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지는 연꽃을 본뜬 대좌에 진좌하고 있습니다. 이 형태는 물리적, 형이상학적, 정신적인 우주의 중심을 나타내는, 불교의 우주론에서 신성한 다섯 봉우리로 이루어진 수미산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석가모니불은 가르침을 말하는 자세로 서 있는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양쪽에 거느리고 있으며, 나아가 수미단의 네 모퉁이에는 사천왕이 배치되어 수호하고 있습니다. 금빛으로 빛나는 삼존상은 높은 위치에서 중정 너머로 미쓰노도 가운데 한 곳인 조교도(常行堂) 앞의 무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무대에서는 다이코도에 모셔져 있는 부처님을 기리기 위한 무악이 1년에 몇 차례 봉납됩니다. 이 두 건물이 남북으로 나뉘어 마주보는 형식에서 미쓰노도가 면밀한 계획을 바탕으로 건설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이코도와 각 상은 일본 중요문화재입니다.

**<日本語仮訳>****圓教寺大講堂**

大講堂は、圓教寺の三之堂として知られる三つの建物の最北端に存在している。名前が示すように、このお堂は講義の場所であり、圓教寺の境内の中で最も重要な建物の1つとされている。元の建物は10世紀に、花山法皇(968-1008)の命によって建てられたが、現在の2階建ての建物の15世紀に再建されたものである。建築デザインは大陸と日本の様式を取り入れたものであり、天台宗の特徴を備えている。お堂の御本尊であり、歴史ある釈迦牟尼仏が凹んだ中央の空間に収められ、中央が先細りになっている蓮の花をかたどった台座に鎮座している。その形は、物理的、形而上学的、および精神的な宇宙の中心を表す、仏教の宇宙論における神聖な5つの山からなる須弥山を表している。

釈迦牟尼仏は、教えを説く姿で立っている文殊菩薩と普賢菩薩の二体の仏像を両脇に従えている。更に須弥壇の四隅には四天王が配置され守護している。金色に輝く三尊像は、その高い位置から、中庭越しに、三之堂のうちの一つである常行堂の前の舞台を眺めている。この舞台では、年に数回、大講堂に祀られている仏像を祀るために舞樂が奉納される。これら2つの建物が南北に分かれて向かい合う形式から、三之堂が綿密な計画を基に建てられたことがわかる。

大講堂と各像は、国の重要文化財である。

【タイトル】書寫山圓教寺：圓教寺食堂

【想定媒体】看板

**<韓国語>****엔교지 절 지키도**

지키도(食堂)는 다이코도(大講堂), 조교도(常行堂)와 이어져 있으며, 엔교지 절의 미쓰노도(三之堂)로 알려진 세 건물의 서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키도는 승려가 수행하고, 잠자고, 식사를 하는 거주 공간으로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 장소에서는 고시라카와 법황(1127~1192)의 칙원에 따라 1174 년에 최초의 건물이 건설되기 시작했지만, 몇 번의 자연재해에 의해 원래 건물과 그 뒤에 지어진 건물도 파괴되었습니다. 현재의 건물은 15 세기 중반에 착공되었는데, 일본 최대의 2 층 건물 건축으로서 그 규모가 크고 복잡하여 완성이 지연되었습니다. 결국 지키도는 약 5 세기에 걸쳐 미완성인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지키도의 2 층 부분은 해체 수리의 일환으로서 1963 년에 완성되었습니다. 긴 건설 과정 때문에 지키도에는 몇 가지 건축상의 실수가 생겨났습니다. 예를 들어 2 층 남동쪽 모퉁이의 지붕은 조교도의 지붕과 겹쳐져 있으며 이는 2 층의 노대에서 분명히 보입니다.

현재 지키도의 1 층은 방문자가 공덕을 쌓는 수행인 사경(경전을 베끼는 것)을 하는 장소로서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2 층에는 엔교지 절의 길고 풍요로운 역사에서 빛을 발했던 많은 종교적·문화적 유산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14 세기에 제작되어 깨달음에 이르려는, 흔들리지 않는 기원을 상징하는 금강살타상이 있습니다.

지키도는 일본 중요문화재, 금강살타상은 효고현 중요문화재입니다.

**<日本語仮訳>****圓教寺食堂**

食堂は大講堂と常行堂と繋がっており、圓教寺の三之堂として知られる三つの建物の西側を形成している。食堂は僧侶が修行し、寝て、食事をする居住空間として使用されてきた。

この場所では、後白河法皇（1127-1192）の勅願により 1174 年に最初の建物の建設が始まったが、いくつかの自然災害により、元の建物やその後建てられた建物も倒壊した。現在の建物は 15 世紀半ばに着工されたが、日本最大の 2 階建て建築で、その規模が大きく複雑であることが理由で、完成が遅れた。結局、食堂は約 5 世紀にわたって未完成のままであった。その 2 階部分は解体修理の一環として 1963 年に完成した。その長い建設過程により、いくつかの建築上の手違いが生じた。たとえば、2 階の南東角の屋根は常行堂の屋根にぶつかっており、これは 2 階の露台からはっきりと見える。

現在、食堂の 1 階は訪問者が功德を積む修行である写経（経典を書き写すこと）を行う場所として主に利用されている。2 階には、圓教寺の長く豊かな歴史に光を当てた数多くの宗教的および文化的な遺産が展示されている。その中には、14 世紀に製作され、悟りへの揺るぎない願いを象徴する金剛薩埵像がある。

食堂は国の重要文化財、金剛薩埵像は兵庫県の重要文化財である。



【タイトル】書寫山圓教寺：圓教寺常行堂

【想定媒体】看板

**<韓国語>****엔교지 절 조교도**

엔교지 절의 미쓰노도(三之堂)로서 알려져 있는 세 건물의 남측에 위치하는 조교도(常行堂)는 그 광명으로 영원한 은혜를 베푼다는 금빛의 아미타여래를 모시고 있습니다. 이 건물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신성한 무악과 그 외의 봉납에 사용되는 앞쪽의 무대입니다. 현재의 건물은 무로마치 시대(1336~1573)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불당의 이름이 나타내듯이 이곳은 오랜 세월 동안 승려들이 부처의 이름을 외며 아미타상 주위를 계속 걷는 수행을 하는 장소로서 사용되어왔습니다. 이 수행은 식사와 짧은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90일 동안 계속되기도 하는, 즉 ‘행선(行禪)’입니다.

아미타여래상은 고전적인 명상 자세로서 이중 연꽃 위에서 가부좌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눈은 반쯤 감고 있으며 손은 숙고를 나타내는 동작으로서 온화하게 맞대고 있습니다. 좁고 긴 쾅불, 정수리 부분의 육계(솟아오른 부분) 및 나발(소라 모양의 머리카락)은 불상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모습의 세공이며, 자비, 지혜 및 깨달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미타여래의 머리 뒤에는 금빛의 광배가 있습니다. 광륜은 아미타여래와 그 양쪽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은, 자비와 지혜의 두 보살을 상징하는 세 산스크리트 문자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아미타여래상의 배경에는 아미타여래와 함께 극락정토에서 보라색 구름을 타고 내려와 중생을 구제로 이끄는 25 보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미타여래상과 조교도는 모두 일본 중요문화재입니다.

**<日本語仮訳>****圓教寺常行堂**

圓教寺の三之堂として知られる三つの建物の南側に位置する常行堂は、その光明により永遠の恩恵を与えるとされる金色の阿弥陀如来を祀っている。この建物の特筆すべき特徴は神聖な舞臺やその他の奉納に使用される前方の舞臺である。現在の建物は室町時代（1336-1573）にさかのぼる。お堂の名前が示すように、ここは僧侶たちが阿弥陀像の周りを仏名を唱えながら歩き続ける修行を行う場所として、長きにわたり使用されてきた。この修行は食事と短い休憩だけで 90 日もの間、続けられることもあるつまり「歩行禪」である。

阿弥陀如来像は古典的な瞑想姿勢で、二重の蓮の花の上で胡坐を組んで座っている。目は半分閉じ、手は熟考を示す形で穏やかに組んでいる。細長い耳たぶ、頭頂部の肉髻（隆起した部分）および螺髪（螺旋状の頭髪）は、仏像で頻りにみられる形状の細工であり、慈悲、知恵、および悟りを表している。阿弥陀様は金色の光背を背負っている。光輪は、阿弥陀様とその両脇に配置されることが多い慈悲と智慧の二体の菩薩を象徴する 3 つの梵字で飾られている。阿弥陀如来像の背景には、阿弥陀とともに極樂浄土から紫雲に乗って降りてきて、衆生を救いに導く 25 体の菩薩が描かれている。

阿弥陀如来像も常行堂も国の重要文化財である。

【タイトル】書寫山圓教寺：弁慶鏡井戸

【想定媒体】看板

**<韓国語>****벤케이의 거울 우물**

무사시보 벤케이(1155~1189)는 승병으로서 젊은 시절에 엔교지 절에서 수행했습니다. 초인적인 힘과 충성심으로 유명한 벤케이는 많은 전설과 무대 공연 외에도 현대의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에도 영웅적인 인물로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벤케이는 종종 용기와 충성의 전형으로서 표현되지만, 또한 성질이 급하고 폭력적인 성격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남의 비위를 그다지 맞추지 않는 벤케이의 성격은 몇 가지 극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냈는데, 그중 하나인 엔교지 절을 무대로 한 이야기는 이 거울 우물과 관계가 있습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시나노보 가이엔이라는 젊은 승려가 벤케이가 자고 있는 동안 먹으로 얼굴에 장난을 쳤습니다. 벤케이가 눈을 떴을 때 젊은 승려들이 자신을 비웃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벤케이는 이 우물로 달려가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이엔이 벤케이의 얼굴은 낡은 나막신 바닥 같다고 한 말에 격노한 벤케이는 사원 건물 대부분을 마구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신뢰할 만한 역사적 증거는 없습니다.

**<日本語仮訳>****弁慶鏡井戸**

武蔵坊弁慶(1155-1189)は僧兵であり、若くして圓教寺で修行した。超人的な強さと忠誠心で有名な弁慶は、多くの伝説や舞台のほか、現代のアニメやマンガでも英雄的な人物として登場している。彼はしばしば勇気と忠誠の典型として表現されているが、弁慶はまた、短気で暴力的な性格であったことでも知られている。

弁慶のあまり他人に媚びへつらわない性格は、いくつかの劇的な物語を作り出しており、その一つである圓教寺を舞台にした物語は、この鏡井戸に関係している。言い伝えによると、信濃坊戒円という若い僧侶が墨を使って、弁慶が寝ている間に顔にいたずらを書きました。弁慶が目を覚めたとき、若い僧侶たちが彼のことをあざけり笑っている姿を目にした。弁慶はこの井戸に走って水に映った自分の姿を見た。戒円が弁慶の顔を古い下駄の裏のようだと言ったことに激怒した弁慶は、寺院の建物の大部分を激しく破壊し始めた。この荒唐無稽な話を裏付ける信頼できる歴史的証拠はない。

【タイトル】書寫山圓教寺：白山権現

【想定媒体】看板

**<韓国語>****하쿠산곤젠 신사**

산신을 모시는 이 신사는 엔교지 절이 건립되기 전부터 몇 세기에 걸쳐 숭배되어온 장소에 있습니다. 일본의 신화 시대를 묘사한 8 세기의 책 고지키에 따르면 위대한 신인 스사노오노미코토가 이즈모로 향하던 도중에 이 산에 들렀습니다. 그의 누나는 태양의 여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로서 그가 야마토 민족의 개조인 누나를 업신여겼기 때문에 추방되었습니다. 그 후 이 산은 스사노오노미코토가 살았던 장소로서 숭배되게 되었고, 엔교지 절이 건립되기 훨씬 이전부터 행자와 성인이 찾았습니다. ‘쇼샤잔 산’이라는 이름은 스사노오의 산이라는 뜻인 ‘스샤잔 산’이 변화한 것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966년에 엔교지 절의 개조 쇼쿠 대사(910~1007)가 쇼샤잔 산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수행에 몰두하겠다고 기원했고 최종적으로 이 장소에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또 쇼쿠 대사가 천녀의 모습을 기적적으로 목격하고 여의륜관음상을 조각하여 이를 지키기 위해 마니텐(摩尼殿)을 지은 곳도 여기였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하쿠산곤젠 신사의 상서로운 역사와, 스사노오노미코토와 엔교지 절 개조의 관계는 세대를 뛰어넘어 순례자가 방문하는 동기가 되어왔습니다. 오늘날에도 매년 1월 18일에 엔교지 절에서 평화와 오곡의 풍작을 기원하는 의식인 슈쇼에가 열리고 있습니다. 엔교지 절의 수호신인 오토텐과 와카텐의 가면을 쓴 신자들이 이 신사에서 어지럽게 춤을 추고, 횃불을 휘두르고, 종을 울립니다.

**<日本語仮訳>****白山権現神社**

山の神を祀るこの神社は、圓教寺が建立される前から何世紀にもわたって崇められてきた場所にある。日本の神話時代を描いた 8 世紀の書物古事記によると、偉大な神、素戔鳴尊が出雲に向かう途中、この山に立ち寄った。彼の姉は太陽の女神天照大神で、彼はその大和民族の開祖である姉を軽んじたために追放されたのである。その後、山は素戔鳴尊の住まいであった場所として崇拜されるようになり、圓教寺が建立されるずっと以前から、山には行者や聖人が訪れていた。「書寫山」という名前は、「素戔鳴山」が変化したものだという説がある。

966年に圓教寺開祖である性空上人(910-1007)が書寫山に到着してまもなく、性空上人は修行に没頭したいと願い、そして最終的にこの場所で悟りを開いたと言われている。また、性空上人が天女の姿を奇跡的に目の当たりにして、如意輪観音像を彫り、それを守るために摩尼殿を建てたのもここであったと考えられている。白山権現神社の縁起の良い歴史と、素戔鳴尊と圓教寺開祖とのつながりは、世代を越えて巡礼者の訪問の動機となってきた。今日でも、毎年 1 月 18 日に圓教寺で平和と五穀豊穰を願う

儀式である修正会が行われている。圓教寺の守護神である乙天と若天の仮面をつけた信者たちがこの神社で乱舞し、松明を振るって、鐘を鳴らすのである。

【タイトル】書寫山圓教寺：圓教寺奥之院 開山堂

【想定媒体】看板

**<韓国語>****가이산도**

가이산도(開山堂)는 엔교지 절 경내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인 오쿠노인(奥之院) 안에 있습니다. 이 불당은 개조 쇼쿠 대사가 입적한 1007년에 대사의 유골을 모시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천 년이 넘도록 매일 근행(부처님 앞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독경, 예배, 분향 등을 하는 의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건물은 1673년에 건립되었으며 에도 시대(1603~1867) 사원 건축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지붕을 받치도록 짜맞춘 가로대는 1600년대에 활약했다고 하는, 전설적인 히다리 진고로가 조각한 3구의 금강역사를 포함하여 여러 정교한 조각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원래는 건물의 네 모퉁이에 각 처마를 받치는 금강역사가 1구씩 붙어 있었으나, 4구 가운데 1구가 엄청난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쳐서 오늘날 볼 수 있는 건 3구뿐이라고 합니다.

천태종(天臺宗) 사원에 공통되는 건축양식에 따라 불당 한가운데는 봉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한 제단은 두텁게 옷칠을 한 문과 복잡한 지붕이 있는 큰 감실을 받치고 있습니다. 불당의 격자천장(각재를 격자 모양으로 짚지어 뒷판을 붙인 천장)은 감실 윗부분이 높게 되어 있어 쇼쿠 대사의 고귀한 지위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유골은 등신대의 쇼쿠 대사상 안에 모셔져 있습니다. 2008년에 대사 상을 엑스레이로 촬영했을 때, 이 상의 머리 부분에 쇼쿠 대사 본인의 것이라고 생각되는 유골이 모셔져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가이산도는 일본 중요문화재입니다.

**<日本語仮訳>****開山堂**

開山堂は、圓教寺の境内の中で最も重要な建物である奥之院の中にある。お堂は開祖性空上人が入寂された1007年に、上人の御骨を祀るために、建てられた。ここで千年以上に渡って毎日勤行（仏様の前で、時間を定めて読経、礼拝、焚香等を行う儀式）が行われている。

現在の建物は1673年に建立され、江戸時代（1603～1867）の寺院建築の代表的な例である。屋根を支える組み合わされた腕木は、1600年代に活躍したと言われる伝説的な左甚五郎によって彫刻された三体の金剛力士を含む、さまざまな精巧な彫刻で飾られている。伝説によると、もともとは建物の四隅のそれぞれにひしを支える金剛力士が1体ずついたが、四体のうちの一体は巨大な重量を支えることができず、逃げ出し、今日見られるのは残った三体だけだそうである。

天台宗の寺院に共通する建築様式に従って、お堂の中心は土間になっている。主要な祭壇は、どっしりとした漆塗りの扉と複雑な屋根を持つ大きな厨子を支えている。お堂の格天井（角材を格子状に組み、

その上に板を張った天井) は、厨子の上の部分が高くなっており、性空上人の高貴な地位を表す象徴的な役目を担っている。

遺骨は、等身大の性空上人像の中に収められている。2008年に上人像のX線撮影を行ったとき、この像の頭部に性空上人自身のものだと考えられるお骨が納められている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開山堂は国の重要文化財である。

【タイトル】書寫山圓教寺：圓教寺奥之院 不動堂

【想定媒体】看板

### <韓国語>

#### 후도도

오쿠노인(奥之院) 입구 가까이에 있는, 약간 높은 돌 대좌 위에 지어진 작은 불당입니다. 건물의 외관은 간소하지만 매우 중요한 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오대명왕 중 하나인 부동명왕의 상입니다. 부동명왕의 분노하는 모습과 드러나 있는 어금니는 무한한 자비를 품고 있다는 명성과는 정반대의 인상을 줍니다. 부동명왕은 일본의 밀교인 천태종(天臺宗)과 진언종(眞言宗)에서 깊이 숭배되고 있습니다. 부동명왕은 업을 끊어내고 부정함을 모두 불태움으로써 신자를 지키는 강한 신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명왕은 오른손에 칼을 쥐고 왼손에 줄을 든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명왕의 중요한 역할은 부처의 전사로서 업을 없애는 것입니다. 부동명왕은 종종 단단한 바위 위에 앉아 불꽃에 감싸인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엔교지 절은 사원의 수호신인 오토텐, 와카텐과 관련하여 부동명왕과 특히 강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토텐은 부동명왕의 화신이라고 생각되며, 와카텐과 함께 평화와 오곡의 풍작을 기원하는 매년 1월 18일의 행사로도 유명합니다. 오토텐과 와카텐은 후도도에 인접한 작은 신사인 고후도(護法堂)에 모셔져 있습니다.

후도도는 1678년에 지어졌는데 1967년에 무너졌습니다. 그 10년 뒤 원래의 재료 일부를 사용하여 재건되었습니다.

### <日本語仮訳>

#### 不動堂

奥の院の入り口近くの小高くなった石の台座の上に建てられた小さなお堂である。建物の外観は簡素であるが、非常に重要な像が祀られている。その中で重要なのは、五大明王の1人である不動明王の像である。不動明王の憤怒の形相と剥き出しになった牙は、無限の慈悲を持つというその名声とは全く対照的な印象を与える。不動明王は日本の密教である天台宗と真言宗で深く崇拝されている。彼は、業を断ち切り汚れを焼き払うことで信者を守る強い神であると言われている。一般的に、その姿は、右手に直刀を握りしめ、左手に縄を持っている。不動明王の重要な役割は仏陀の戦士として業を取り除くことである。不動明王はしばしば固い岩の上に座り、炎に包まれた姿で描かれている。

圓教寺は、寺院の守護神である乙天や若天とのつながりを通じて、不動明王と特に強いつながりがある。乙天は不動明王の化身であると考えられており、若天とともに平和と五穀豊穰を願う毎年1月18日の行事でも有名である。乙天と若天は不動堂に隣接する小さな神社の護法堂に祀られている。

不動堂は1678年に建てられたが、1967年に倒壊した。その10年後、元の材料の一部を使用して再建された。



【タイトル】書寫山圓教寺：圓教寺奥之院 護法堂

【想定媒体】看板

**<韓国語>****고호도**

오쿠노인(奥之院)에 나란히 있는 작은 두 신사로서 엔교지 절의 수호신인 오토텐과 와카텐을 모시고 있습니다. 오른쪽이 오토텐, 왼쪽이 와카텐입니다. 오토텐은 지혜의 신인 부동명왕의 화신이며, 와카텐은 지상의 보물의 수호신인 비사문천의 화신입니다. 난폭한 수호신으로 알려진 이 둘은 쇼쿠 대사(910~1007)가 966년에 엔교지 절을 건립하고 쇼샤잔 산에서 수행하기 시작했을 때 스님을 도왔다고 합니다. 그 이후 오토텐과 와카텐은 엔교지 절의 수호신으로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사원의 전승과 전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엔교지 절의 연간 행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1월 18일에 열리는, 평화와 오곡의 풍작을 기원하는 제전(슈쇼에)입니다. 이 특별한 날에는 푸른 도깨비의 모습을 한 오토텐과 붉은 도깨비의 모습을 한 와카텐을 나타내는 가면을 쓴 신자들이 사원 부지 내를 어지럽게 춤추며 돌아다니고, 췌불을 휘두르고, 종을 울립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두 신사는 신들을 모시는 건물인 '본전(本殿)'으로 간주됩니다. 신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참배자가 공물을 바치거나 제사를 지내는 '배전(拜殿)'은 본전 앞에 딸려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배전이 분리되어 중정을 끼고 이 두 본전과 마주보고 있습니다.

**<日本語仮訳>****護法堂**

奥之院に並んでいる2つの小さな神社で、圓教寺の守護神である乙天と若天を祀っている。右側が乙天、左側が若天である。乙天は智慧の神である不動明王の化身であり、若天は地上の宝の守護神である毘沙門天の化身である。荒々しい守護神として知られている二人は、性空上人(910-1007)가 966년에圓教寺を建立し、書寫山で修行を始めたときに上人を助けたと言われている。それ以降、乙天、若天は圓教寺の守護神として、今日に至るまで寺院の伝承と伝統の中で重要な役割を果たしてきた。圓教寺の年間行事で最も重要なのは、1月18日に行われる平和と五穀豊穰を願う祭典(修正会)である。この特別な日には、緑鬼の姿の乙天と、赤鬼の姿の若天を表す仮面を被った信者たちが寺院の敷地内を乱舞し、松明を振って鐘を鳴らす。

厳密に言えば、これら2つの神社は、神々を祀る建物である「本殿」と見なされる。神社の場合一般的に、本殿の手前に付随する形で、参拝者がお供えをしたり、祭祀を行う「拜殿」がある。しかし、ここでは、拜殿は切り離され、中庭を挟んでこれら2つの本殿と向かい合っている。

【タイトル】書寫山圓教寺：圓教寺奥之院 護法堂拝殿

【想定媒体】看板

**<韓国語>****고호도 배전**

이 직사각형 건물은 엔교지 절 오쿠노인(奥之院)의 반대쪽에 있는 중정을 끼고 서 있는 고호도에 모셔진 두 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두 고호도의 배전(拜殿)(참배자가 공물을 바치거나 제사를 지내는 건물)으로서의 역할에 더해, 이 건물은 의식에 사용되거나 인접한 가이산도(開山堂)를 방문하는 순례자들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1589년에 지어진 이 건물은 절과 신사 건축 양식을 융합한 것으로서, 절에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12 세기의 전설적인 승병이며 7 세부터 10 세까지 쇼샤잔 산에서 수행을 했던 무사시보 벤케이(1155~1189)가 학문을 닦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벤케이가 사용했다고 하는 실제 책상은 엔교지 절 지키도(食堂)의 2 층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신사는 일반적으로 '본전(本殿)'과 '배전(拜殿)'의 두 건축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호도의 경우 신이 모셔진 본전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한 쌍의 건물이 고호도(護法堂)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건물들에는 엔교지 절의 수호신인 오토텐과 와카텐이 각각 모셔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배전이 본전 앞에 배치되어 있는 데 비해 고호도의 배전은 중정을 끼고 완전히 독립된 장소에 있다는 점도 특징적입니다.

**<日本語仮訳>****護法堂拝殿**

この長方形の建物は、圓教寺の奥の院の反対側にある中庭を挟んで立つ護法堂に祀られている2柱の神々と密接に関連している。2つの護法堂の拝殿(参拝者がお供えをしたり、祭祀を行う建物)としての役割に加え、この建物は儀式や隣接する開山堂を訪れる巡礼者にも利用されている。

1589年に建てられたこの建物は、寺社建築の様식을融合させたもので、寺伝によると、12世紀の伝説的僧兵であり、7歳から10歳まで書寫山で修行を行った武蔵坊弁慶(1155-1189)の学問所であったという。弁慶が使用したとされる実際の机は、圓教寺食堂の2階に展示されている。

日本の神社は、一般的に「本殿」と「拝殿」の2つの建築物で構成されている。護法堂の場合、ご神体が祀られた本殿が1つだけあるのではなく、2つセットで護法堂と呼ばれる建物がある。これらの建物には、圓教寺の守護神である乙天と若天がそれぞれ祀られている。拝殿の場所も、一般的な拝殿が本殿の手前に配置されるのに対し、中庭を挟んで完全に独立しているという点も特徴的である。

【タイトル】書寫山圓教寺：伝和泉式部歌塚塔

【想定媒体】看板

**<韓国語>****이즈미 시키부 와카 석탑**

이즈미 시키부(976~1036년경)는 궁정 여관으로서 헤이안 시대(794~1185)의 유명한 문학자입니다. 이즈미 시키부는 특히 5-7-5-7-7의 5구 31음절로 이루어지는, 일본 고유의 시인 와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석탑은 이즈미 시키부를 기려서 그녀의 와카 가운데 가장 유명한 작품 중 하나를 남기기 위해 1233년에 건립되었습니다. 석탑에 새겨진 와카는 1002년에서 1005년 사이에 지어졌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어둠에서 더 어두운 길로 들어설 것 같네. 멀리까지 비추소서 산꼭대기의 달이여

이 와카는 자주 사용되는 시적인 비유를 사용하여 고통과 구제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달’은 불교에서 깨달음의 상징이지만, 쇼쿠 대사 자신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 시는 당시 가인들에게 최고의 영예인 칙찬(천황이나 상황의 명으로 편찬된 책) 『슈이와카슈』에 수록되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귀족사회에는 와카를 받으면 답가를 보내야 하는 문화가 있어서 이즈미 시키부의 시에 감동한 쇼쿠 대사는 즉시 답가를 보냈습니다.

해는 들어가고 달은 아직 나오지 않았네. 황혼에 내걸려 비추는 불법의 등불이여

사원의 기록으로는 이즈미 시키부가 사망했을 때, 그녀가 존경하는 쇼쿠 대사가 보낸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日本語仮訳>****伝和泉式部和歌石塔**

和泉式部(976-1036年頃)は宮廷女官で、平安時代(794-1185)の有名な文学者であった。和泉式部は特に、5-7-5-7-7の31音節からなる詩である和歌で知られている。この石塔は、和泉式部を称え、彼女の最も有名な和歌の1つを残すために1233年に建立された。石塔に刻まれた和歌は、1002年から1005年の間に詠まれたと考えられている。

暗きより暗き道にぞ入りぬべき遥かに照らせ山の端の月

この歌は、よく用いられる詩的な比喻を用いて、苦しみと救いの関係を強調している。たとえば「月」は仏教の悟りの象徴であるが、性空上人自身の象徴でもある。この歌は、当時歌人にとって最高の荣誉である勅撰（天皇や上皇の命により編纂された）「拾遺和歌集」に収録された。

当時の日本の貴族社会には和歌を贈られたら、和歌を返す（返歌）という文化があり、和泉式部の歌に感動した性空上人は、すぐに返歌を返した。

日は入りて月はまだ出ぬたそがれに掲げて照らす法（のり）の燈（ともしび）

寺院の記録では、和泉式部は亡くなったとき、彼女が尊敬する性空上人から送られた衣を着ていたと言われている。

【タイトル】書寫山圓教寺：圓教寺金剛堂

【想定媒体】看板

**<韓国語>****곤고도**

곤고도(金剛堂)는 엔교지 절의 개조 쇼쿠 대사(910~1007)에게 특별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쇼샤잔 산에서 수행을 시작했을 무렵, 쇼쿠 대사는 일찍이 이 장소에 있었던 탑두(사원 부지 내에 지어진 작은 사원)인 후젠인(普賢院)에 살고 있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쇼쿠 대사가 후젠인에 살고 있었을 때, 금강살타보살이 강림했습니다. 금강살타는 깨달음에 이르려는, 흔들리지 않는 기원을 상징하여 천태종(天臺宗)에서는 중심적인 존재인 부처입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금강살타는 금강계와 태장계를 나타내는 신성한 인상(印相)(부처나 보살이 깨달음을 표현하기 위해 열 손가락으로 나타내는 동작들)을 쇼쿠 대사에게 전수했다고 합니다. 이 두 만다라는 밀교 수행의 기본인 형이상학적 영역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로마치 시대(1336~1573)에 후젠인에 있던 가야부키 지붕(역새나 갈대를 사용하여 인 지붕)의 불당이 여기로 이전되고, 금강살타와 쇼쿠 대사의 기적적인 만남을 기념하기 위한 금강살타보살상이 모셔졌습니다. 일찍이 건물의 내부에는 보살상이 모셔진, 금빛으로 빛나는 감실이 중앙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보살상은 1359년에 나라의 도다이지 절에서 불상을 만드는 일을 하던 고순이 조각한 것으로서 현재는 지키도(食堂)의 2층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1544년에 곤고도는 현재의 기와 지붕 건물로 개축되었고, 천장에는 다양한 신성한 사물과 생명체가 아름다운 빛깔로 선명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중에는 불교에서 종종 깨달음을 표현하는 두 마리의 용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천장의 다른 부분에는 사람의 머리에 새의 몸을 하고 있는 불사의 가릉빈가가 날면서 송고한 목소리로 부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日本語仮訳>****金剛堂**

金剛堂は、圓教寺の開祖性空上人（910-1007）にとって特別に重要な場所である。書寫山で修行を始めたころ、性空上人はかつてこの場所にあった塔頭（寺院の敷地内に建てられた小さな寺院）の普賢院に住んでいたと考えられている。性空上人が普賢院に住んでいたときに、金剛薩埵菩薩が降臨した。金剛薩埵は、悟りへの揺るぎない願望を象徴し、天台宗では中心的な存在の仏である。言い伝えによると金剛薩埵は、金剛界と胎蔵界を表す神聖な印相（仏や菩薩が悟りを表現するために10本の指で示す所作）を性空上人に授けたとされる。これら二つの曼荼羅は密教の修行の基本である形而上学的領域を表現している。

室町時代（1336年～1573年）に、普賢院の茅葺き（ススキやヨシを用いて葺いた屋根）の仏殿がここに移されて、金剛薩埵と性空上人との奇跡的な出会いを記念するために金剛薩埵菩薩像が祀られ

た。かつて建物の内部は、菩薩像が納められた金色に輝く厨子が中央に置かれていた。この菩薩像は、1359年に奈良の東大寺の仏師である康俊によって彫刻されたもので、現在は食堂の2階に展示されている。

1544年に金剛堂は現在の瓦葺きの建物に建て替えられ、天井にはさまざまな神聖な事物や生き物が色鮮やかに描かれた。その中には仏教でしばしば悟りを表す2頭の龍が描かれている。天井の別の箇所には、半分鳥で半分人間の姿をした不死の迦陵頻伽が飛び、崇高な声で仏陀の教えを伝えている。

【タイトル】書寫山圓教寺：圓教寺藥師堂

【想定媒体】看板

**<韓国語>****야쿠시도**

야쿠시도(藥師堂)는 엔교지 절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입니다. 1978년에 건물의 대규모 개보수가 이루어졌을 때, 나라 시대(710~794)의 유물이 내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유물들의 존재는 엔교지 절의 개조 쇼쿠 대사(910~1007)가 966년에 쇼샤잔 산에 도착하기 이전부터 이 장소가 종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 세기에 걸쳐 많은 개축과 증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건물의 건축사를 정확히 추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큰 중심 기둥과 장식적인 지붕의 들보는 이 건물이 다이부쓰요라고 하는 대륙의 사원 건축 양식의 초기 형식에 기초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불당은 '치유의 불상' 또는 '의술의 달인'으로 알려져 있는 약사여래를 안치하고 있어서 야쿠시도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약사여래는 6세기에 불교가 전해진 뒤 승배의 대상이 된 최초의 부처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건강과 치유의 부처로서 조정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약사여래 승배는 8세기에 불교가 일반 서민 계급의 인기를 얻어 많은 사원이 약사여래상을 모실 정도로 널리 퍼졌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약사여래는 약병을 왼손에 든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엔교지 절 야쿠시도의 약사여래상은 무로마치 시대(1336~1573)에 제작된 것으로서 현재는 엔교지 절의 지키도(食堂) 2층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 003-020

**<日本語仮訳>****藥師堂**

藥師堂は圓教寺で最も古い建物である。1978年に建物の大規模な改修が行われたとき、奈良時代(710-794)の遺物が内部から発見された。これらの遺物の存在は、圓教寺の開祖である性空上人(910-1007)が966年に書寫山に到着する以前から、この場所が宗教的な意味を持っていたことを示している。何世紀にもわたって、何度もの改築や増築が行われてきたため、この建物の建築史を正確に追跡することは困難である。それでも、大きな支柱と装飾的な屋根の梁は、それが大仏様(だいぶつよう)と呼ばれる大陸における初期の寺院建築の様式に基づいていることを示している。

このお堂は「癒しの仏像」あるいは「医術の達人」として知られている藥師如来を安置していることから藥師堂と名づけられた。藥師如来は6世紀に仏教が伝えられた後、崇拝の対象となった最初の仏様の1人であり、健康と癒しの仏様として朝廷の人々に人気があった。藥師如来崇拝は、8世紀になって仏教が一般庶民階級の人気を得て、多くの寺院が藥師如来像を祀るようになったことで広まった。ほとんどの場合、藥師如来は藥瓶を左手に持った姿で表現されている。ここ圓教寺の藥師堂の藥師如来像は、室町時代(1336~1573年)に製作されたもので、現在は圓教寺の食堂の2階に展示されている。

【タイトル】書寫山圓教寺：十地院

【想定媒体】看板

**<韓国語>****주지인**

주지인(十地院)은 원래 가이산도(開山堂) 서쪽에 있는 광대한 부지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현재의 장소는 쇼샤잔 산에서 유일하게 세토 내해를 바라볼 수 있는 탑두(사원 부지 내에 지어진 작은 사원)입니다. 주지인에는 자비의 보살인 관음보살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건물의 이름인 주지(十地)는 보살이 되기 위한 52 단계 중 마지막 10 단계를 가리킵니다.

이 건물은 대히트한 할리우드 영화 『라스트 사무라이』(2003) 촬영 당시 톰 크루즈가 촬영 사이사이에 휴식을 위해 이용했습니다. 절 사람들은 이곳을 ‘톰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영화를 촬영하는 동안 톰 크루즈는 매일 고베의 호텔에서 전용 헬리콥터로 엔교지 절에 다녔습니다.

**<日本語仮訳>****十地院**

十地院は元々開山堂の西側にある広大な敷地を占めていた。現在の場所は、書寫山で唯一瀬戸内海が望める塔頭（寺院の敷地内に建てられた小さな寺院）である。十地院には慈悲の菩薩である観音菩薩像が収められている。その名前の十地という言葉は、菩薩になるための52段階の最後の10段階を指している。

この建物は、大ヒットしたハリウッド映画『ラストサムライ』（2003）の撮影の際、トム・クルーズが撮影の合間の休憩に使用した。お寺の人々は「トムの家」と呼んだ。撮影中、トム・クルーズは毎日、神戸のホテルから専用ヘリコプターで圓教寺に通っていた。



【タイトル】書寫山圓教寺：圓教寺鐘樓

【想定媒体】看板

**<韓国語>****종루**

근대 이전, 시계가 일반적이지 않았던 시대에 사원의 종은 사람들에게 시간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1 일을 12 로 나누는 중국의 전통적인 시간 재기 관행에 따라 사원의 종은 통상 2 시간마다 울렸습니다. 또한 종은 신년 축하, 축제 등의 특별한 날이나 화재 발생 등 위험을 알릴 필요가 있을 때도 울렸습니다.

엔교지 절의 종루는 경사진 사다리꼴 대좌 위에 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반신에 착용하는 일본의 전통 의상인 하카마를 입은 사람의 실루엣과 닮은 모습이어서 하카마즈쿠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대좌 바로 위에 있는 맞물림 지지 구조로 된 기초는 실질적인 중량을 고르게 분산시켜 주위의 노대를 보조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기와 지붕 처마 밑에서도 같은 맞물림 지지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종루 안의 청동 종은 불교의 상징인 용과 연꽃 등의 문양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종에는 새겨져 있지 않으나 형식상의 특징은 1324 년경에 주조되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효고현에서 가장 오래되었고 일본에서도 가장 오래된 종 가운데 하나입니다. 종루 자체는 대략 1332 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더 오래된 시기의 구조로 재건되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종루는 일본 중요문화재, 종은 효고현 문화재입니다.

**<日本語仮訳>****鐘樓**

近代以前、時計が一般的ではなかった時代に、寺院の鐘は人々が時間を知るための重要な役割を果たしていた。1 日を 12 に分割する中国の伝統的な計時慣行に従って、寺院の鐘は通常 2 時間ごとに鳴らされた。また、鐘は新年のお祝い、お祭りなどの特別な日や、火災の発生など、危険を知らせる必要があるときにも鳴らされた。

圓教寺の鐘樓は傾斜した台形の台座の上に鐘が配置されている。これは、下半身に着用する伝統衣装である袴をはいた人のシルエットに似た格好であるため袴造と呼ばれている。台座のすぐ上にあるかみ合わせ支持構造の基礎は、実質的な重量を均等に分散させ、周囲の露台を補助するように設計されている。瓦葺の屋根の軒下にも同様の組み合わせ支持構造が見られる。鐘樓内部の青銅製の鐘は、仏教の象徴である龍や蓮の花などの模様で華やかに装飾されている。鐘は銘刻されていないが、そのスタイルの特徴は 1324 年頃に鑄造されたことを示唆しており、兵庫県で最も古く、日本で最も古い鐘の 1 つとなっている。鐘樓自体はおよそ 1332 年にさかのぼり、さらに古い時期の構造で再建したものと考えられている。鐘樓は国の重要文化財、鐘は兵庫県の文化財である。

【タイトル】 書寫山圓教寺：法華堂

【想定媒体】 看板

**<韓国語>****훗케도**

훗케도(法華堂)는 동아시아 전역에서 널리 숭배되고 있는 대승불교의 대표적 경전인 법화경을 따라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불당의 본존은 진리와 수행의 덕의 보살인, 금빛으로 빛나는 보현보살입니다. 보현보살은 연꽃 위에 앉아 명상하는 일반적인 자세로 표현되어 있는데, 손에 연꽃을 들고 정교한 청동 관을 쓰고 있습니다. 기단 내부에는 좁고 작은 방이 있는데, 그 안에는 코끼리 조각이 놓여 있습니다. 흰 코끼리를 동반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보현보살의 전형적인 모습을 벗어나려 한 것인지 이 코끼리 조각은 검은색입니다. 보현보살의 배후에는 빛나는 배광이 있어 신성한 힘의 발산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불당의 격자천장(각재를 격자 모양으로 짚지어 뒷판을 붙인 천장)은 보현보살상 바로 위의 공간이 높게 되어 있어 보살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천장에서 드리워진 금빛 장식에는 무한한 빛을 표현하는 아미타여래의 진언이 산스크리트 문자로 새겨져 있습니다. 현재의 건물과 본존은 에도 시대(1603~1867)의 것입니다.

**<日本語仮訳>****法華堂**

法華堂は、東アジア全域で広く崇拝されている大乘仏教の代表的經典である法華經にちなんで名付けられた。堂の御本尊は、正しい行いの菩薩であり、金色に輝く普賢菩薩である。普賢菩薩は蓮の花の上に座り、瞑想する一般的な姿で表現され、手に蓮の花を持ち、精巧な青銅の冠をかぶっている。基台の内部には狭い小部屋があり、その中には象の彫刻が置かれている。白象を伴って表される普賢菩薩の典型的な姿からの脱却をねらったのか、この象の彫刻は黒である。普賢菩薩の背後には光り輝く光背があり、神聖な力の発散を象徴している。

お堂の格天井（角材を格子状に組み、その上に板を張った天井）は、普賢菩薩の御像の真上の空間が高くなっており、菩薩の重要性を表す象徴的な区分をなしている。天井から吊り下げられた金色の装飾は、無限の光を表す阿弥陀如来の真言が梵字で刻まれている。現在の建物とそのご本尊は、江戸時代（1603～1867年）のものである。

【タイトル】 書寫山圓教寺：本多家廟屋

【想定媒体】 看板

**<韓国語>****혼다 집안 묘소**

이 건물들은 도쿠가와 시대(1603~1867)에 쇼샤잔 엔교지 절을 후원했던 무가(武家)인 혼다 일족의 묘입니다. 혼다 다다마사(1575~1631)는 히메지성의 번주가 된 지 2년 뒤인 1619년에 엔교지 절을 방문했습니다. 다다마사는 당시 군 사령관이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1537~1598)가 점령하여 황폐해진 사원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다마사는 사원이 옛 영광을 되찾을 수 있도록 재건 모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다마사 덕분에 지금도 엔교지 절의 중심적인 건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묘소에는 다다마사와 아버지인 다다카쓰, 그리고 그들의 후계자 3명이 모셔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연장자인 다다카쓰는 도쿠가와 막부를 연 도쿠가와 이에야스(1543~1616)가 가장 신뢰했던 무장이었습니다.

혼다 일족의 5인의 후계자들은 각각 같은 모습의 묘소 안에 자리잡은 석조 오륜탑으로서 모셔지고 있습니다. 무게감이 있는 커다란 기와 지붕은 완만하게 휘어진 삼각형으로서 지붕 꼭대기에는 공 모양 조카(頂華)(맞배지붕이나 첨탑의 꼭대기에 놓는, 일반적으로 돌 조각 장식)가 놓여 있습니다. 다섯 건물은 모두 효고현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지 내에 있는 두 석탑은 다다마사의 아들인 혼다 다다토키와 손자 고치요의 묘입니다. 다다토키의 석탑 뒤에는 다다토키 사후에 순사한 세 무사의 묘가 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바쳐 주인의 사후에도 계속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日本語仮訳>****本多家廟屋**

これらの建造物は、徳川時代（1603～1867年）に書寫山圓教寺を後援した武家の本多一族の墓である。姫路城の藩主になった2年後の1619年、本多忠政（1575-1631）は圓教寺を訪れた。そこで、当時軍司令官だった豊臣秀吉（1537-1598）の占領によって荒廃した寺院の様子を見て衝撃を受けた。忠政は寺院が昔の栄光を取り戻すための再建募金活動を開始した。そして忠政のおかげで、今なお圓教寺の中心的建造物が数多く残っている。廟屋には忠政と、父の忠勝、そしてその後継者3名が祀られている。この中で最も長老の忠勝は、徳川幕府を開いた徳川家康（1543～1616）が最も信頼した武將であった。

本多一族の5人の後継者たちはそれぞれ、同じ形の廟屋の中に据えられた石造りの五輪塔として祀られている。どっしりとした大きな瓦屋根は、緩やかに沿った三角形で、屋根の最上部には球形の頂華（切妻屋根や尖塔の最上部に置く、一般的に石の彫刻による装飾）がのっている。5つの建物はすべて兵庫県文化財に登録されている。

敷地内にある2つの石塔は、忠政の息子である本多忠刻（ただとき）と孫の幸千代の墓である。忠刻の石塔の後ろには、忠刻の死後に殉死した三人の武士の墓がある。彼らは、命を捧げて、主人の死後も続けて忠誠を誓ったのである。

【タイトル】書寫山圓教寺：榊原家墓所

【想定媒体】看板

**<韓国語>****사카키바라 집안 묘소**

여기에는 에도 시대(1603~1867)에 히메지성의 번주였던 다이묘(넓은 영지를 다스린 대영주) 사카키바라 집안의 두 사람이 모셔져 있습니다. 왼쪽 묘비는 인생의 마지막 2년 동안 히메지 번주를 맡았던 사카키바라 마사후사(1641~1667)를 모시고 있습니다. 마사후사의 석비에는 ‘고 시키부 다이후 지주 중 4 위 하 미나모토 아손(故式部大輔侍從從四位下源朝臣)’이라고 그의 정식 계급과 칭호가 새겨져 있습니다. 에도 시대에 일본을 통치했던 도쿠가와 집안에서는 자신들의 집안이 일본에서 무사 가운데 처음으로 나라를 이끌었던 위대한 무장 미나모토노 요리토모(源頼朝)(1147~1199)로부터 이어지는 가계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源’이라는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마사후사와 도쿠가와 집안이 가계상으로 이어져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른쪽의 묘비는 사카키바라 마사스케(1705~1732)를 모시고 있습니다.

두 묘비는 ‘귀부’라고 하는 중국의 전설상의 거북 위에 서 있으며, 이 거북은 노력과 근면의 상징입니다. 각 묘비 뒤에 있는 석탑에는 산스크리트 문자로 쓰인, 불교 우주론의 다섯 요소를 나타내는 문자 ‘地’, ‘水’, ‘火’, ‘風’, ‘空’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두 묘비는 이후의 히메지 번주 사카키바라 마사미네(1715~1743)에 의해 1734년경에 건립되었습니다. 마사미네는 돈 씹씹이가 헤프기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유명한 요시와라의 유녀를 기적에서 빼기 위해 거금을 탕진한 뒤, 곧 작은 번의 다이묘로 좌천되었습니다. 마사미네는 히메지 번주였던 시절, 매년 6월에 개최되는 여름의 유카타 축제를 시작했습니다. 사카키바라 집안의 자손은 지금도 축제에 참가한 뒤 선조의 묘소에 성묘를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묘소 앞을 장식하고 있는 많은 석등롱은 예전의 사카키바라 집안 가신의 후손들이 이곳을 방문했을 때 기증한 것입니다.

**<日本語仮訳>****榊原家墓所**

ここには、江戸時代（1603年～1867年）に姫路城の藩主を務めた大名（広い領地を治めた大領主）榊原家の2人が祀られている。左側の墓碑は、その人生最後の2年間、姫路藩主を務めた榊原政房（1641-1667）を祀っている。「故式部大輔侍從從四位下源朝臣」と石碑には彼の正式な階級と称号が刻まれている。江戸時代の日本を統治した徳川家では、徳川家が、日本で最初の武士の棟梁であった源頼朝（1147-1199）から続く家系であると主張していた。そのため、「源」という名前が含まれていることは、政房と徳川家との家系上のつながりを表している。右側の墓碑は榊原政佑（1705-1732）を祀っている。

二つの墓碑は「亀趺」と呼ばれる中国の伝説上の亀の上に立っており、その亀は努力と勤勉さの象徴である。それぞれの墓碑の背後にある石塔には、梵字で書かれた仏教宇宙論の5つの要素を表す文字「地」「水」「火」「風」「空」が刻まれている。

この二つの墓碑は、後の姫路藩主榊原政岑（1715-1743）によって1734年頃に建立された。政岑（まさみね）は金遣いが荒いことで知られていた。有名な吉原の遊女を落籍するために大枚をはいた後、すぐに小さな藩に転封させられた。政岑は姫路藩主であった時代に、毎年6月に開催される夏の浴衣祭を始めた。榊原家の子孫は今もお祭りに参加し、その後で先祖の墓参りをするのが通例になっている。墓所の前を飾っている多くの石灯籠は、かつての榊原家の家臣の末裔たちがこの地を訪問した際に寄贈したものである。

【タイトル】 書寫山圓教寺：松平家墓所

【想定媒体】 看板

**<韓国語>****마쓰다이라 집안 묘소**

이 묘소는 히메지성의 명목상 9대 번주 마쓰다이라 나오모토(1604~1648)를 모시고 있습니다. 나오모토는 1648년에 히메지번의 번주로 임명되었으나, 먼 도호쿠 지방 야마가타현에 있었던 이전의 번에서 히메지로 오던 도중에 사망했습니다. 그의 지위는 아들인 나오노리(1642~1695)가 승계했습니다. 나오모토는 가나가와현의 사이조지 절에 매장되어 있었으나, 짧은 재임기간이었어도 히메지 번주였다고 하여 1670년, 나오노리에 의해 묘소를 여기로 이전해 건립했습니다. 에도 시대(1603~1867)에 번주의 배치는 도쿠가와 집안의 쇼군이 결정했는데, 막부는 통치하는 지역에 대한 다이묘(넓은 영지를 다스린 대영주)의 영향을 제한하고 무장 봉기를 막기 위해 다이묘를 빈번히 교체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켰습니다. 나오모토와 나오노리는 몇 번이나 번을 어쩔 수 없이 변경해야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이러한 경력에서 '이사 다니는 다이묘'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벽에 둘러싸인, 중앙에 있는 불탑에는 불교 우주론의 다섯 요소를 나타내는 한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空', '風', '火', '水', '地'라고 쓰여 있습니다. 가장 아래에 있는 '地'라는 문자 주위에는 나오모토 사후의 계명 및 그의 다양한 칭호와 계급이 새겨져 있습니다.

주위의 돌로 쌓은 벽은 몇 세기가 지나는 동안 일부가 파괴되어 가장 앞부분만이 17세기 벽의 외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묘 맞은편 벽은 원래의 돌을 사용해 재건했는데 본래는 균일한 높이였습니다.

**<日本語仮訳>****松平家墓所**

この墓地は、姫路城の名ばかりの9代目藩主の松平直基(1604-1648)を祀っている。直基は、1648年に姫路藩の藩主に任命されたが、遙か東北地方の山形県の旧藩から姫路への移動中に亡くなってしまった。家督は息子の直矩(1642-1695)が継いだ。直基は神奈川県最乗寺に埋葬されていたが、短い在任期間ではあったものの姫路藩主であったとして、1670年、直矩によって墓所がここに移され、建立された。江戸時代(1603-1867)、藩主の配置は徳川家の将軍によって決められたが、幕府は治める地域への大名(広い領地を治めた大領主)の影響を制限し、武装蜂起を防ぐために、大名を頻繁に入れ替え、異なる地域へ移封させた。直基と直矩はともに、何度も藩の変更を余儀なくされ、二人の経歴から「ひっこし大名」のあだ名をつけられた。

壁に囲まれた中央にある仏塔には、仏教宇宙論の5つの要素を表す漢字が刻まれている。上から「空」、「風」、「火」、「水」、「地」と書かれている。一番下の「地」の文字の周りには、直基死後の戒名と彼のさまざまな称号や階級が刻まれている。

周りの石の壁は何世紀も経ているので、一部壊れており、最前部のみが 17 世紀の壁の外観を保っている。霊廟の向こう側の壁は、元の石を使用して再建されたが、本来は均一な高さであった。



【タイトル】書寫山圓教寺：十妙院

【想定媒体】看板

**<韓国語>****주요인**

주요인(十妙院)은 일본 중세의 다이묘(넓은 영지를 다스린 대영주) 아카마쓰 미쓰스케(1381~1441)가 16세의 어린 나이로 세상을 떠난 딸을 기리기 위해 지은 탑두(사원 부지 내에 지어진 작은 사원)입니다. 주요인의 본존은 천 개의 손과 천 개의 눈으로 무한한 공덕과 자비를 베푸는 천수관음상입니다. 이 상은 비교적 커서 미쓰스케의 딸의 등신대로 만들어졌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관음상은 양쪽에 사천왕의 하나인 비사문천과 내세에 어린아이들을 수호하는 갑옷 차림의 지장보살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건물 중앙의 방에 있는 세 맹장지에는 일본화의 유파로서 유명한 가노파 창시자의 손자인 가노 에이노(1631~1697)가 그린 수묵화가 아름다운 상태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가쿠덴(客殿)(손님을 맞는 전각)은 1691년에 지어졌습니다. 그 구조는 가쿠덴과 부속으로서 사용된 건물인 '구리'를 조합한 것이지만 각각의 영역은 엄격히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바깥문의 물결 모양의 처마와 쇼인즈쿠리(무로마치 시대(1336~1573) 이후에 발전한 무사 주택의 형식. 다다미가 깔려 지금의 일본식 방의 원형이 되었다) 양식으로 만든 방의 절묘한 디자인은 이들이 지위가 높은 빈객을 위해 의도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쓰스케의 딸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는 일본의 중세가 격동의 시대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세기 전반, 이 지역은 독재적인 쇼군 아시카가 요시노리(1397~1441)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배신을 두려워했던 요시노리는 자신과 가까웠던 무사들과 당시 여러 번을 지배하고 있었던 아카마쓰 미쓰스케를 비롯한 측근을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미쓰스케의 딸은 쇼군의 성에서 지내고 있었을 때 음모를 알고 미쓰스케에게 경계하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요시노리는 미쓰스케의 딸의 행동을 알고 그녀를 암살하라고 명했습니다. 미쓰스케의 딸의 비극적인 희생 덕분에 선제 공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1441년 여름에 교토에서 열린 노(能)(가면을 쓰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상연되는 극)를 상연하는 자리에서 폭군 요시노리를 암살했습니다.

**<日本語仮訳>****十妙院**

十妙院は、中世大名（広い領地を治めた大領主）赤松満祐（1381 - 1441）が16歳の若さで亡くなった娘を祀るために建てた塔頭（寺院の敷地内に建てられた小さな寺院）である。十妙院の本尊は、千の手と千の眼で無限の功德と慈悲を授けるといわれる千手観音像である。お像は比較的大きく、満祐の娘の等身大に作られたと考えられている。観音像は両脇に四天王の一人である毘沙門天と、来世に子供たちを守護する鎧姿の地藏菩薩を従えている。建物中央の部屋の三枚の襖には日本画の流派として有名な狩野派の創始者の孫である狩野永納（1631-1697）が描いた水墨画が美しい状態で保存されている。

客殿（客人と会うための御殿）は1691年に建てられた。その構造は、客殿と庫裡として使われていた建物である「くり」を組み合わせたものだが、それぞれの領域は厳密に分離されていた。外門の波打った庇と、書院造（室町時代（1336–1573）以降に発展した武士の住宅の形式。畳が敷かれ、現在の和室の原形となった）の部屋の絶妙なデザインは、それが位の高い賓客のために意図されていたことを示している。満祐の娘の死の物語は、中世日本が激動の世であったことを物語っている。15世紀の前半、この地域は独裁的な将軍足利義教（1397–1441）によって支配されていた。裏切りを恐れた義教は自分に近かった武士たちや当時複数の藩を支配していた赤松満祐をはじめとする側近の暗殺を企てた。満祐の娘は将軍の館に身を寄せていたときに陰謀を知り、警戒するよう満祐に伝えた。しかし、義教は満祐の娘によるその行動を知り、彼女の殺害を命じた。満祐は娘の悲劇的な犠牲のおかげで、先制攻撃をすることができた。1441年の夏に京都で行われた能（面をかぶり、美しい装束を着て上演される劇）上演の場で暴君義教を暗殺した。

【タイトル】書寫山圓教寺：壽量院

【想定媒体】看板

**<韓国語>****주요인**

주요인(壽量院)은 1174년에 고시라카와 법황(1127~1192)이 일주일 동안 꿈쩍 않고 들어앉아 부처님에게 기도를 올린 탑두(사원 부지 내에 지어진 작은 사원)로서 건물은 특별한 격식을 갖추고 있고, 엔교지 절 내에서도 가장 중요한 탑두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구조는 고전적인 신덴즈쿠리(헤이안 시대에 집대성된, 침전을 중심으로 발달한 귀족 저택의 양식)와 초기 쇼인즈쿠리(무로마치 시대(1336~1573) 이후에 발전한 무사 주택의 형식)가 절충된 건축 양식입니다. 쇼인즈쿠리는 다다미를 깔고, 도코노마(일본식 방의 상좌에 바닥을 한층 높게 만든 곳), 지가이다나(두 개의 판자를 아래 위로 어긋나게 매어 단 선반)를 갖추고, 각 방을 맹장지로 구분하는 것이 전형적인 형식으로서, 오늘날 일본식 방의 원형이 된 구조입니다. 중앙의 불당에는 깨달음을 보증해준다는, 극락이 묘사되어 있는 다이마 만다라의 모사품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현관 다음에 설치된 방과 가라하후(중앙은 활꼴에 양끝이 곡선형으로 된 박공의 한 가지)를 갖춘 맞배지붕의 우아한 문은 주요인의 거주 부분과 부엌을 설치한 구리(庫裏) 부분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방에는 엔교지 절을 중심으로 전해져온 칠기인 '쇼샤누리'가 전시되어 있어 색이 선명하고 형태가 다양한 그릇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요인은 결혼식과 그 외의 사적인 행사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약을 하면 쇼샤누리 칠기에 담긴, 전통적인 사찰 음식인 쇼진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日本語仮訳>****壽量院**

壽量院は1174年に後白河法皇(1127-1192)が1週間籠って仏に祈りをささげた塔頭(寺院の敷地内に建てられた小さな寺院)で、建物は特別な格式を備え、圓教寺の中でも最も重要な塔頭とされている。現在の構造は古典的な寢殿造り(平安時代に集大成を迎えた、寢殿を中心として発達した貴族の住宅の様式)と初期の書院造り(室町時代(1336-1573)以降に発展した武士の住宅の形式)が折衷された建築様式である。書院造は、畳敷きで、床の間(和室の上座で床を一層高くしたところ)、違い棚(2つの板を上下互い違いに固定した棚)が備えられ、各部屋が襖で仕切られているのが典型的な形で、現在の和室の原形となった構造である。中央の仏殿には、悟りを保証してくださる極樂が描かれた当麻曼荼羅の模写が飾られている。

玄関広間と唐破風(中央は弓なりに、両端は曲線状になった破風の種類)を備えた切妻屋根の優雅な門は、壽量院の居住部分と、台所を設けた庫裏の部分とに分けられている。そのうち一つの部屋には圓教寺を中心に伝えられてきた漆器「書写塗」が展示されており、色鮮やかなさまざまな形の器を鑑賞することができる。現在壽量院は結婚式やほかのプライベートな行事にも利用されている。予約すると、書写塗りの漆器に盛られた伝統的な精進料理を楽しむことが可能である。

【タイトル】書寫山圓教寺：仁王門と木造金剛力士像

【想定媒体】看板

---

<韓国語>

니오문과 금강역사상

니오문(仁王門)은 엔교지 절의 정면 현관입니다. 쇼샤잔 산의 동쪽 끝에 있는, 절에 도착하는 주된 경로의 끝에 위치하여 사원의 신성한 영역과 바깥의 속세 사이의 상징적인 경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면의 폭 3간(약 5.45 미터), 안길이 2간(약 3.63 미터)의 고전적인 건축 양식입니다. 바깥에서 보면 기와 지붕에는 가운데에 한 층의 큰 지붕이 보입니다. 그러나 문을 통과할 때 아래에서 올려다보면 두 삼각뿔 보조 지붕이 감추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독특한 설계는 도다이시 절이나 호류시 절 등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몇몇 사원에서만 볼 수 있는, ‘미쓰무네즈쿠리’라고 하는 양식입니다.

문 양쪽에는 두 개의 방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오른쪽에 나라연금강상, 왼쪽에 밀적금강상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이 두 수호신을 합쳐 금강역사, 또는 인왕이라고 하는데, 근육이 솟아 있고 사나운 표정이며, 불법(佛法)을 수호하고 외적을 쫓아내기에 충분한 크기입니다. 이 두 상은 각각 입을 벌린 ‘아(阿)’와 입을 닫은 ‘함(吽)’의 형상이며, 산스크리트 문자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에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작과 끝’을 의미하며 보편성과 전능성을 상징합니다. 이 수호신이 문을 지키는 모습은 동남아시아의 사원에서 자주 보입니다.

---

<日本語仮訳>

仁王門と金剛力士像

仁王門は圓教寺の正面玄関である。書寫山の東端にあるメインルートの終点に位置し、寺院の神聖な領域と外の俗世の間の象徴的な分かれ目を示している。間口三間（約 5.45m）、奥行き二間（約 3.63m）の古典的な建築様式である。外側から眺めると、瓦葺き屋根には中央に一層の大屋根が見られる。しかし門を通る際に下から見上げると、2つの三角錐の補助屋根が隠れているのを見ることができる。この独特な設計は「三棟造り」と呼ばれ、東大寺や法隆寺など、日本最古の寺院のいくつかにだけ見られる様式である。

門の両側には二つの部屋がある。それらの中には、右に那羅延金剛像（ならえんこんごう）、左に密迹金剛像（みつしゃくこんごう）が安置されている。この二体の守護神を合わせて金剛力士、あるいは仁王と呼ばれており、筋肉隆々激しい表情で、仏法を守護し、外敵を追い払うために十分な大きさである。この二体の像は、それぞれ口を開けた「阿」と口を閉じた「吽」の形であり、梵字の最初と最後の文字に由来している。「始まりと終わり」を意味し、普遍性と全能性を象徴している。この守護神が門を守る姿は東南アジアの寺院でよく見られる。

【タイトル】書寫山圓教寺：五重塔跡

【想定媒体】看板

**<韓国語>****오층탑 터**

이 초석들은 엔교지 절 경내를 묘사한 오래된 참배도나 에마키모노(설명 글이 곁들여진 그림 두루마리)에 그려진 오층탑의 최후의 유물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1331년에 미쓰노도(三之堂)를 모두 불태운 화재는 다이코도(大講堂) 가까이 있었던 탑에 떨어진 벼락 때문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벼락이 떨어진 탑에는 금강계 만다라의 다섯 불상이 조각되어 있었고, 한편으로 초석이 남은 이 탑에는 대장계 만다라의 다섯 불상이 조각되어 있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는 밀교의 천태종(天臺宗)과 진언종(眞言宗)에서는 일반적인 관습이며, 오층탑은 중요한 의식의 장소로서도 이용되었습니다.

불교에서 탑은 석가모니와 다른 성인들의 유골을 모시는 봉안함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이름 높은 승려나 비구니의 시신을 화장한 뒤의 뼈는 수정 같은 상태로 남는다고 하며 사리라고 부릅니다. 탑은 나라, 시대, 불교 종파에 따라 다양한 형식으로 건축되지만 일본에서는 3~5층으로서 탑 위에는 9단의 청동 상륜이 놓여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탑은 우주의 중심에 있는 신성한 산인 수미산을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日本語仮訳>****五重塔跡**

これらの礎石は、圓教寺の境内を描いた古い参詣図や絵巻物に描かれていた五重塔の最後の遺物であると考えられている。1331年に三之堂を焼き尽くした火災は、大講堂の近くの塔への落雷によるものと記録されている。雷が落ちた塔には、金剛界曼荼羅の5つの仏像が刻まれており、一方、礎石が残るこちらの塔には胎蔵界曼荼羅の5つの仏像が刻まれていたと考えられている。この慣習は、密教の天台宗と眞言宗では一般的であり、五重塔は重要な儀式の場所としても利用されていた。

仏教においては、塔はお釈迦様や他の聖人のお骨を納める聖骨箱から派生したものである。名高い僧侶や尼僧の遺体を火葬したときにお骨は水晶のような状態で残ると言われ、仏舍利と呼ばれる。塔は、国、時代、仏教宗派によってさまざまな形式で建築されているが、日本では3~5層で、塔の上には9段の青銅製の相輪が乗っている。文化的には、塔は、宇宙の中心にある神聖な山である須弥山(しゅみせん)を象徴していると考えられている。

【タイトル】書寫山圓教寺：文殊堂跡

【想定媒体】看板

**<韓国語>****문주도**

문주도(文殊堂)는 쇼샤잔 엔교지 절의 개조 쇼쿠 대사(910~1007)와 지혜의 신인 문수보살의 화신이 기적적으로 만난 장소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쇼쿠 대사는 규슈에서 법화경을 공부하면서 수십 년의 은둔 생활을 한 뒤, 966년에 수도인 교토를 여행했습니다. 그 후 하리마국(현재의 효고현)에 들어선 쇼쿠 대사는 이 산 위에 뜬 신비한 보라색 구름을 알아챘습니다. 쇼쿠 대사가 쇼샤잔 산 서쪽 비탈을 올랐을 때 백발의 노승과 만났습니다. 노승은 쇼쿠 대사에게 쇼샤잔 산의 기원과 역사에 대해 가르쳤고, 이 산이 고대 인도에서 석가모니가 처음으로 법화경을 설법한 장소인 영취산의 흠을 안치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쇼쿠 대사가 쇼샤잔 산에 살고 싶다는 바람을 전하자 노승은 문수보살의 화신이라며 정체를 밝히고 흔적도 없이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원래 이곳에 있었던 불당은 문수보살을 따라 이름 붙인 것으로서 문수보살상이 본존입니다. 현재의 불당은 1987년에 소실된 뒤에 세워졌습니다.

불당 앞에는 작은 돌부처가 모여 있습니다. 진홍색 턱반이를 한 돌부처는 지장보살입니다. 일본 각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지장보살상은 태어나기 전에 사망한 아이들이나 매우 어렸을 때 사망한 아이들의 혼을 기리는 것입니다. 지장보살이 하고 있는 턱반이는 아이가 사망한 부모가 기증한 것이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만든 것도 있습니다.)

**<日本語仮訳>****文殊堂**

文殊堂は、書寫山圓教寺の開祖性空上人(910-1007)と智慧の神である文殊菩薩の化身との奇跡的な出会いの場所であると考えられている。伝説によると、性空上人は、九州で法華経を学びながら数十年の隠遁生活を送った後、966年に京の都を旅した。その後、播磨国(現在の兵庫県)に入った後、性空はこの山の上に浮かぶ神秘的な紫色の雲に気づいた。性空は書寫山の西坂を登ったとき、老いた白髪の僧侶と出会った。僧侶は書寫山の起源と歴史について性空に教え、この山が、古代インドで釈迦が最初に法華経を説いた場所である霊鷲山の土を安置していることを明らかにした。性空が書寫山に住みたいという願いを伝えると、その老人は文殊菩薩の化身であると正体を明かし、跡形もなく姿を消した。

もともとこの場所にあったお堂は、文殊菩薩にちなんで名づけられたもので、文殊菩薩像が本尊である。現在のお堂は、1987年に焼失した後に立てられたものである。

お堂の前には小さな石仏が集まっている。真紅のよだれかけを掛けた石仏は、地藏菩薩である。日本各地でよく見られる地藏像は、生まれる前に亡くなった子供たちや、とても小さいときに亡くなった子供たちの魂

を祀ったものである。お地蔵様が掛けているよだれかけは、子供を亡くした親によって寄贈されることが多い。  
(場合によっては手作りの場合もある。)

【タイトル】 書寫山圓教寺：木造釈迦如来乃両脇侍像

【想定媒体】 Web

**<韓国語>****목조 석가여래상 및 양 협시상**

다이코도(大講堂)의 본존은 석가삼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운데의 상은 석가모니불입니다. 석가모니불은 앉아서 눈을 반쯤 감은 상태로 명상하며 손은 가르침을 나타내는 인상(印相)을 맺고 있습니다. 불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좁고 긴 컷불, 정수리 부분의 육계(숫아오른 부분) 및 나발(소라 모양의 머리카락)은 자비, 지혜 및 깨달음을 표현하는 형상입니다. 석가모니불이 앉아 있는, 연꽃을 본뜬 대좌(수미단)는 불교 우주론의 물리적 및 형이상학적 중심에 위치하는 성스러운 산인 수미산을 상징합니다.

석가모니불은 마찬가지로 가르침을 나타내는 인상을 맺고 있는 보살을 양쪽에 거느리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정신적인 통찰력을 갖춘 문수보살이, 왼쪽에는 진리와 수행의 덕의 신인 보현보살이 서 있으며, 나아가 수미단의 네 모퉁이에 사천왕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각 상의 뒤에 놓인 금빛의 광배에서 나오는 빛살은 성스러운 힘이 사방으로 뻗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삼존상은 그 높은 위치에서 매년 수 차례 무악이 봉납되는 조교도(常行堂)의 무대를 중정 너머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이코도와 주교도가 정확히 마주보고 있는 배치에서 지키도(食堂)를 포함한 미쓰노도(三之堂)가 구성을 깊이 검토하고 설계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석가삼존상은 986 년경 엔교지 절의 개조 쇼쿠 대사(910~1007)의 제자였던 간나 대사가 만들었습니다. 각 조각상은 한 그루의 노송나무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조각되었으며, 옷칠과 금박으로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다이코도와 삼존상 및 사천왕상은 모두 일본 중요문화재입니다.

**<日本語仮訳>****木造釈迦如来及両脇侍像**

大講堂の御本尊は、釈迦三尊像として知られている。中央の像は、釈迦牟尼仏である。釈迦牟尼仏は座って目を半分閉じた状態で瞑想し、手は教えを示す印相を結んでいる。仏像でよく見られる細長い耳たぶ、頭頂部の肉髻（隆起した部分）、螺髪（螺旋状の頭髪）は、慈悲、知恵、および悟りを表現する形状である。釈迦牟尼仏が座っている、蓮の花をかたどった台座（須弥壇）は、仏教宇宙論の物理的および形而上学的中心に位置する聖なる山、須弥山を象徴している。

釈迦牟尼仏は、同じように教えの印相を結んでいる菩薩を両脇に従えている。右側には、精神的な洞察力を備えた文殊菩薩が、左側には、正しい行いの神である普賢菩薩が並び、更に須弥壇の四方に四天王を配置している。各像の後ろに置かれた金色の光背から放たれている光の矢は、聖なる力の放射を



象徴している。三尊像は、その高い位置から、毎年数回舞楽の奉納が行われる常行堂の舞台を、中庭越しに見つめている。大講堂と常行堂が正確に向かい合っている配置から、食堂を含めた三之堂が構成を深く検討して設計された事がわかる。

釈迦三尊像は、986年頃、圓教寺の開祖の性空上人（910-1007）の弟子であった感阿上人によって作られた。それぞれの彫像は、1本の檜から細心の注意を払って彫られ、漆と金箔で仕上げられている。大講堂と三尊像と四天王像それぞれはすべて国の重要文化財である。

【タイトル】 書寫山圓教寺：木造四天王立像

【想定媒体】 Web

**<韓国語>****목조 사천왕 입상**

사천왕은 대승불교의 전통적인 신이며 아시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무거운 갑옷을 몸에 두르고, 튼튼한 봉과 창을 지니고, 각각 동서남북 방향을 향해 석가모니불을 적으로부터 지키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본존이 앉아 있는 중앙의 대좌(수미단) 주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수미단은 불교 우주론에서 물리적 및 형이상학적인 우주의 중심에 위치하는, 신성한 다섯 봉우리가 있는 수미산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각 조각상은 10 세기 후반에 엔교지 절의 개조 쇼쿠 대사(910~1007)의 제자였던 간나 대사가 한 그루의 노송나무로 조각했습니다. 사천왕상은 각각 개성적이지만, 금빛의 광륜을 뒤로하고 발밑에는 소용돌이치는 구름 같은 모양의 받침대가 있는 등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사천왕은 또한 불교의 가르침에 무지하여 도깨비 같은 모습을 한 악귀를 밟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日本語仮訳>****木造四天王立像**

四天王は大乗仏教の伝統的な神であり、アジアの至る所で見られる。重い鎧に身を包み、頑丈な棒と槍を持ち、それぞれ東西南北の方向を向いて、お釈迦様を敵から守っている。多くの場合、本尊が座っている中央の台座（須弥壇）の周りに配置されている。須弥壇は、仏教宇宙論において物理的および形而上学的な宇宙の中心に位置する神聖なる5つの峰がある須弥山を表している。

それぞれの彫像は、10世紀後半に圓教寺の開祖性空上人（910-1007）の弟子であった感阿上人によって一本の檜から彫刻された。四天王像はそれぞれ個性的であるが、金色の光輪を背にし、足元には渦巻く雲のような形をした土台があるなど、いくつか共通する特徴がある。四天王はまた、仏教の教えに無知で鬼のような姿の天邪鬼を踏みつけている姿で表現されている。

【タイトル】 書寫山圓教寺：木造阿弥陀如来坐像

【想定媒体】 Web

**<韓国語>****목조 아미타여래 좌상**

조교도(常行堂)의 본존은 그 광명으로 영원한 은혜를 베푸는 아미타여래상입니다. 아미타여래는 눈을 반쯤 감고, 양손을 맞대고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으로 원을 만든 형태인 아미타정인을 맺고 명상하는, 고전적인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불교에서 부처와 보살은 많은 경우 '32상'의 몇 가지 특징을 갖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비, 지혜 및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좁고 긴 콧볼, 정수리 부분에 솟아오른 육계 및 소라 모양의 머리카락인 나발 등으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이마에는 제 3의 눈으로서 수정 백호가 있으며, 환상을 통해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아미타여래상은 여러 노송나무 재료를 조합하여 고정된 다음에 조각하고, 그 뒤 옷칠을 하고 금박을 붙인 요세기즈쿠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자료의 기록으로는 엔교지 절의 개조 쇼쿠 대사(910~1007)의 제자였던 조각가 안친이 1005년경에 이 불상을 만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미타여래상과 조교도는 모두 일본 중요문화재입니다.

아미타여래는 금빛의 광륜과 머리 뒤에서 나오는 광선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광륜의 주된 역할은 아미타여래와 그 양쪽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은, 자비와 지혜의 두 보살을 상징하는 세 산스크리트 문자로 장식하는 것입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배경에는 아미타여래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극락정토에서 내려올 때 함께 보라색 구름을 타고 오는 25 보살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日本語仮訳>****木造阿弥陀如来坐像**

常行堂の御本尊はその光明により永遠の恩恵を与えるとされる阿弥陀如来像である。阿弥陀如来は目を半分閉じ、両手を重ねて親指と人差し指で輪をつかった形である阿弥陀定印を結んで瞑想する、古典的な姿で表現されている。仏教では、仏陀と菩薩は、多くの場合、「32の相」のいくつかの特徴をもって描写されている。これらは、慈悲、知恵、および悟りを意味している。これらには、細長い耳たぶ、頭蓋の隆起である肉髻、および螺旋状の頭髪である螺髪などで象徴されている。額には、第三の目として水晶の白毫があり、幻想を通してこの世をご覧になっている。

この阿弥陀如来像は、複数の檜の材料を組み合わせて固定した上で彫刻をし、その後、漆でコーティングし金箔を押す寄木造で造られている。資料の記録では、これは圓教寺の開祖性空上人（910-

1007) の弟子であった彫刻家安鎮によって約 1005 年に作られたことが確認できる。阿弥陀如来像と常行堂はどちらも国の重要文化財である。

阿弥陀如来は、金色の光輪と頭の後ろから発する光線で表現されている。光輪の主な役割は、阿弥陀様とその両脇に配置されることが多い慈悲と智慧の二体の菩薩を象徴する 3 つの梵字で飾ることである。木でできた背景には、阿弥陀様が衆生を救済するために極楽浄土から降りて来るときに、ともに紫の雲に乗って来る 25 体の菩薩の姿が描かれている。

【タイトル】書寫山圓教寺：木造性空坐像

【想定媒体】Web

**<韓国語>****쇼쿠 대사 좌상**

엔교지 절 가이산도(開山堂) 중앙에는 10 세기에 엔교지 절을 창건한 쇼쿠 대사(910~1007)의 등신대 상이 모셔진, 정교하게 장식된 감실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사원의 기록에 따르면 원래의 상은 1286 년에 화재로 소실되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2 년 뒤, 불상 조각으로 유명한 게이카이가 다시 제작했습니다. 2008 년에 상을 엑스레이로 촬영하자 머리 부분 내에 쇼쿠 대사의 것으로 생각되는 유골이 모셔져 있는 유리 항아리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작은 유리 항아리는 원래의 쇼쿠 대사상을 파괴한 화재에서 살아남아 게이카이가 조각한 새로운 상으로 옮겨진 듯합니다.

2009 년, 좌상을 안치하는 대좌(수미단) 부분의 마루 아래에서 새로운 공간이 발견되었습니다. 내부에서는 머리 부분에 들어 있던 것과 별도로 유골을 담기 위한 돌 상자와 작은 돌 오륜탑, 그 외에 많은 '교세키(經石)'(불교 경전을 나타내는 문자가 새겨진 작은 돌)가 발견되었습니다. 용기를 담은 나무 상자 덮개에 '진골(御眞骨)'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상은 일본 중요문화재이며 매우 특별한 기회에만 공개하지만, 지키도(食堂) 2 층에서 머리 부분 엑스레이 사진 및 좌상과 유골이 든 유리 항아리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日本語仮訳>****性空坐像**

圓教寺の開山堂の中央には、10世紀に圓教寺を創建した性空上人(910-1007)の等身大の像が納められた、精巧な装飾が施された厨子が安置されている。寺院の記録によると、元の像は1286年の火災で焼失した。しかし、わずか2年後、仏像彫刻で有名な慶快によって再作成された。2008年にX線調査で、頭部内に性空上人のものと考えられるお骨が納められている瑠璃壺が発見された。この小さな瑠璃壺は、最初の性空像を破壊した火災を生き延び、慶快が彫った新しい像に移されたようだ。

2009年、坐像を安置する台座(須弥壇)部分の床下から新たな空間が発見された。内部には、頭部のものとは別に遺骨を納めるための石製の箱と小さな石の五輪塔、そのほか多数の「經石」(仏教の經典を表す文字が刻まれた小さな石)が見つかった。容器を納めた木目箱の蓋に『御眞骨』と記載されていた。

この像は国の重要文化財であり、非常に特別な機会にしか公開されないが、食堂の二階で、頭部のX線写真と、坐像とお骨の入った瑠璃壺の写真を見ることができる。

【タイトル】 書寫山圓教寺：木造金剛薩埵像

【想定媒体】 Web

### <韓国語>

#### 목조 금강살타 좌상

금강살타는 우주의 부처인 대일여래의 화신이며 밀교 수행승이 목표하는 궁극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엔교지 절의 개조 쇼쿠 대사(910~1007)가 966년부터 1007년 사이에 산에서 나오지 않고 수행하는 동안 금강살타와 만났다고 합니다. 쇼쿠 대사에게 밀교의 가르침을 전한 이가 이 금강살타였습니다.

이 금강살타상은 정교한 청동 관을 쓰고 꽃처럼 보석을 박은 목걸이를 몸에 걸치고 있습니다. 오른손에는 오고저라는 무기를 들고 있는데, 이 무기는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고 번개처럼 강한 힘을 지닌 남성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왼손에는 오고령이라는 요령을 들고 있는데 이 요령은 지혜와 정화를 나타내며 여성적인 면을 보여줍니다. 서로 다른 요소를 지닌 이 도구들을 손에 들고 있는 것이 금강살타보살의 특징입니다. 금강살타는 연꽃 위에서 가부좌를 틀고 명상하는 고전적인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연꽃의 각 꽃잎은 불교의 삼보인 불법승(부처님과 부처님이 설법한 가르침과 그 부처님을 받드는 승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각상 아래쪽 비문에는 1359년에 나라 도다이지 절에서 불상을 만든, 유명한 게이파의 개조 운케이(~1223)의 직제자였던 고슌이 만들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각하기 전에 여러 노송나무 재료를 조합하여 고정하는, 요세기즈쿠리라는 세련된 접합방법을 사용하였고, 안구에는 얇은 수정 렌즈가 끼워져 있습니다.

### <日本語仮訳>

#### 木造金剛薩埵坐像

金剛薩埵は宇宙の仏である大日如来の化身であり、密教の修行僧が目指す究極の姿を表している。圓教寺の開祖性空上人（910-1007）は、966年から1007年の間、山に籠って修行する間に金剛薩埵に出会ったと話している。性空上人が密教の教えを受けたのは、この金剛薩埵からであった。

この金剛薩埵像は精巧な青銅の冠を被り、花のように宝石をちりばめたネックレスを身に着けている。右手には、五鈷杵という武器を手にしており、この武器は、ダイヤモンドのように硬く、稲妻のように強い力を持つという男性的な面を示している。一方左手には、五鈷鈴という鈴を手にしており、この鈴は知恵と浄化を表し、女性的な面を示している。異なる要素を持つこれらの道具を手にしているのが、金剛薩埵菩薩の特徴である。金剛薩埵は蓮の花の上で胡坐をかいて瞑想する古典的な姿で表現されている。各蓮の花びらは、仏教の3つの宝である仏法僧（仏と、その仏が説いた教えと、その教えを奉ずる僧）を表している。

彫像の下側の碑文には、1359年に奈良の東大寺の仏師である有名な慶派の開祖、運慶（-1223年）の直接の弟子であった康俊によって作成されたことが記されている。彫刻をする前に複数の檜の材料を組み合わせて固定する、寄木造と呼ばれる洗練された接合方法を使用し、眼球には水晶製の薄いレンズがはめ込まれている。



【タイトル】 書寫山圓教寺：性空上人坐像

【想定媒体】 Web

<韓国語>

쇼쿠 대사 좌상

가이산도(開山堂) 안에는 엔교지 절의 개조 쇼쿠 대사(910~1007)가 명상하는 자세의 목제 조각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크게 부푼 정수리 부분은 넉넉한 가사로 감싼 가는 몸체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조각상의 손은 현재 없지만 팔의 배치를 통해 합장한 모습이거나 보시를 받는 바리때를 들고 있었을 거라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 해석은 개조의 당당한 모습이라기보다 기도를 드리는 평범한 승려 같은 겸허한 표정 과도 일치합니다. 기원은 알 수 없으나 그 양식과 구성은 11세기 초엽의 작품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래는 엔교지 절의 여섯 탑두(사원 부지 내에 지어진 작은 사원) 가운데 하나인 센가쿠인(仙岳院)에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日本語仮訳>

性空上人坐像

開山堂の内部には、圓教寺の開祖性空上人（910～1007）の瞑想姿の木製の彫像が納められている。大きく張った頭頂部は、ゆったりとした袈裟で覆われた細い体で相殺されている。像の手は現在なくなっているが、腕の配置から、掌を合わせた姿か、あるいはお布施の鉢を持っていたと推察される。この解釈は、開祖の堂々たる姿というよりも、祈りをささげる普通の僧侶のような謙虚な表情とも一致する。起源は不明だが、その様式と構成は11世紀初頭の作品であることを示している。元々は、圓教寺の6つの塔頭（寺院の敷地内に建てられた小さな寺院）の1つである仙岳院に安置されていた。

【タイトル】 書寫山圓教寺：如意輪觀音坐像

【想定媒体】 Web

**<韓国語>****여의륵관음 좌상**

사원의 전설에 따르면 엔교지 절의 개조 쇼쿠 대사(910~1007)가 쇼샤잔 산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한 그루의 벚나무 주위를 춤추며 신성한 경문을 읊고 있는 천녀를 목격했습니다. 천녀의 경문은 살아 있는 나무의 모습으로 나타난 보살로서, 자비의 보살인 여의륵관음을 찬양하고 있었으며, 여의륵관음이 장수와 번영을 가져다주고 모든 중생이 언제라도 극락정토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음을 보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경문에 크게 영감을 받아 쇼쿠 대사는 벚나무에 여의륵관음의 모습을 조각했습니다. 이 상은 1492년에 소실되었습니다. 현재의 상은 마니덴(摩尼殿) 중앙의 감실에 보관되어 있으며, 원래의 상과 매우 비슷하다고 합니다. 1239년에 승려 묘카쿠가 조각했습니다. 다시 만들어진 이 상은 가마쿠라 시대(1185~1333) 초기의, 예술성이 풍부한 뛰어난 작품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여의륵관음은 모든 것에 구제의 손을 내밀기 위해, 죽은 뒤 어느 하나에 가게 된다는 여섯 세계인 육도를 여섯 개의 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의륵이란 ‘희망의 고리’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여의륵관음이 손에 들고 있는 두 가지 물건을 가리킵니다. 왼쪽의 한 손에는 번뇌를 파괴하는 보륵을, 오른쪽의 한 손에는 소원을 들어주는 보주를 들고 있으며, 이 보물들은 여의륵관음이 모든 중생을 고통으로부터 해방하겠다는 서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손에는 연꽃 가지를 들고 있는데, 이는 진흙투성이 연못에서 연이 자라듯이 영적 수행을 통해 누구나 자신의 존재를 초월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의 한 손은 손가락을 턱에 가만히 대고 명상하는 자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의륵관음상은 원뿔형 왕관을 쓰고 있어 그 광명으로 영원한 은혜를 베푼다는 아미타여래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몸체와 왕관은 검은 옷칠로 마무리되어 있으며, 옷은 보륵과 정교한 기하학적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관음보살의 영지인 보타락산을 표현하는 노출된 바위에서 오른쪽 무릎을 세워 왼쪽 다리에 올린 여의륵관음의 독특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日本語仮訳>****如意輪觀音坐像**

寺院の伝説によると、書寫山に到着して間もなく、圓教寺の開祖性空上人(910-1007)は、一本の桜の周りを舞い踊りながら神聖な經文を詠じている天女を目撃した。天女の經文は、生きている木の姿で現れる菩薩で、慈悲の菩薩である六臂如意輪觀音を讃えるものであり、如意輪觀音が長寿と繁栄をもたらす、すべての衆生がいつでも極樂浄土で生まれ変われることを保証するものであった。この經文に触発

されて、性空上人は桜の木に如意輪観音のお姿を彫った。この像は 1492 年に焼失した。現在の像は摩尼殿中央の厨子に保管されており、元の像に非常に似ていると言われている。1239 年に僧妙覚によって彫られた。この後継の像は鎌倉時代（1185～1333 年）初期の芸術性に富んだ優れた作品の一つと考えられている。

六臂如意輪観音は、すべてに救いの手を差し伸べるために、死後いずれかに行くことになる 6 つの世界である六道を 6 本の腕で表現している。如意輪とは、「希望の環」と解釈でき、如意輪観音が手に持っている 2 つの物を指している。左側の 1 本の手には、煩惱を破壊する宝輪を、右側の 1 本の手には願いを叶える宝珠を持っており、これらの宝は、観音様がすべての衆生を苦しみから解放するという本願を表している。また別の手は蓮の枝を持っており、これは、泥だらけの池から蓮が成長するように、靈的修行を通じて誰もが自分の存在を超越する能力を持っていることを象徴している。右側の 1 本の手は、指を顎にそっと寄せ瞑想する姿を表現している。

如意輪観音像は円錐形の王冠を被り、その光明により永遠の恩恵を与えるとされる阿弥陀如来を示唆している。胴体と王冠は黒い漆で仕上げられており、衣は宝輪と精巧な幾何学模様で装飾されている。観音菩薩の霊場である補陀落山を表すむき出しの岩に、右膝を上げ、左足に載せる如意輪観音独特の姿勢を見せている。

【タイトル】 書寫山圓教寺：圓教寺愛宕社本殿

【想定媒体】 Web

**<韓国語>****엔교지 아타고샤 신사 본전**

아타고샤 신사는 엔교지 절 북쪽 경사면에 있으며 미쓰노도(三之堂)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18세기 초엽 이전에 지어졌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1331년에 사원 전체가 소실된 화재를 입자 신의 힘으로 화재를 막기 위해 아타고샤 신사가 세워졌고 미쓰노도를 지키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아타고샤 신사의 특징은 우아한 유선형 지붕에 있습니다. 수만 장의 얇은 지붕널을 사용해 지붕을 이었습니다. 지붕의 경사는 정면을 향해 우아하게 아래로 내려오면서 위로 향한 아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치 아래에서 위에서 드리워진 요령을 울려 아타고의 신에게 공물을 바치고 기도합니다.

엔교지 절 경내에는 신사가 있습니다. 근대 이전의 일본에서는 불교와 일본 고유의 종교인 신도의 명확한 구별이 없고 양 종교의 신들이 종종 융합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긴 역사가 있는 불교 사원 부지 내에 신사가 존재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아타고샤 신사는 두 종교적 전통의 장벽을 넘어 숭배된 신불혼효(神佛混淆)의 한 예입니다.

**<日本語仮訳>****圓教寺愛宕社本殿**

愛宕社は圓教寺の北側の斜面にあり三之堂を見下ろしている。18世紀初頭以前に建てられたと考えられている。1331年に寺院の全てを消滅させた火災を受け、火伏の役目の愛宕社が建てられ、三之堂を守る役割を果たしている。愛宕社の特徴は、その優雅な流線形の屋根にある。数万枚の薄い屋根板を使って葺かれている。屋根の傾斜は正面に向かい優雅に下がり、上向いたアーチを形作っている。アーチの下で、上からさがっている鈴を鳴らし、愛宕の神に供物を捧げ、祈禱する。

圓教寺の境内には、神社がある。近代以前の日本では仏教と神道の明確な区別がなく、両宗教の神々がしばしば融合していた。そのため、長い歴史を持つ仏教寺院の敷地内に神社が存在することは珍しいことではない。愛宕社は、両方の宗教的伝統の垣根を越えて崇拝された神仏混交の一例である。

【タイトル】 書寫山圓教寺：圓教寺緣起

【想定媒体】 Web

**<韓国語>****엔교지 절의 유래**

엔교지 절의 개조 쇼쿠 대사(910~1007)는 10 세에 처음으로 법화경을 공부했고 그 이후 불도에 몸을 바친 인물입니다. 36 세에 승려가 되었고 그 후 20 년간은 규슈에서 지냈습니다. 966 년, 신비한 구름이 쇼쿠 대사를 쇼샤잔 산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천녀가 벚나무 주위에서 춤을 추며 여의륜관음의 경문을 읊고 있었습니다. 쇼쿠 대사는 경문에 큰 영감을 받아 나무에 여의륜관음상을 조각했고, 그 상은 엔교지 절 마니덴(摩尼殿)의 본존이 되었습니다.

쇼쿠 대사는 귀족인 다치바나 집안에서 태어나 쇼샤잔 산에 입산한 뒤에는 고위 귀족인 후지와라 씨와 가잔 법황(968~1008)의 비호를 받았습니다. 가잔 법황은 10 세기 후반에 두 차례 쇼샤잔 산을 방문했고 엔교지라는 절 이름을 내렸습니다. 이는 엔교지 절이 황실의 지원을 받는 조쿠간지(勅願寺)임을 의미하며, 특권과 경제적 이익이 보증되는 명예로운 일이었습니다. 엔교지 절은 힘 있는 절로 성장하여 쇼쿠 대사가 입적한 뒤에도 계속 번영했습니다.

1177 년, 엔교지 절은 천황의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여전히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고시라카와 법황을 영접하는 영예를 누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던 가운데 고시라카와 법황은 완성 뒤 200 년 동안 감실에 모셔져 있는 여의륜관음상을 보고 싶다고 청했습니다. 그때 고시라카와 법황이 불교 가르침의 진수인 보옥(마니)의 이름을 따서 '마니덴'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나아가 1333 년에는 천황이 방문했습니다. 고다이오 천황(1288~1339)은 오키노시마 섬에서 유형 생활을 마치고 수도로 돌아오던 도중에 다이코도(大講堂)에 머물렀습니다.

엔교지 절은 긴 전국 시대(1467~1568)에 쇠퇴기를 맞았습니다. 1578 년, 다이묘(넓은 영지를 다스린 대영주) 도요토미 히데요시(1537~1598)가 2 년 동안 쇼샤잔 산을 점령하고 경내를 산의 요새로 개조하여 2 만 명의 병사를 숙영시켰습니다. 이 점령 동안 승려와 사원 건물은 한가하고 난폭한 병사들의 손에 의해 괴멸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1603 년에 도쿠가와 막부가 성립된 뒤 엔교지 절의 운명은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히메지성의 성주 혼다 다다마사(1575~1631)는 1620 년에 엔교지 절을 방문하여 사원을 복원하기 위한 모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뒤 엔교지 절은 이 지역의 번주인 마쓰다이라 집안, 사카키바라 집안 등 역대 무가로부터도 비호를 받았습니다.

에도 시대(1603~1867)에 순례가 활발해지자 서민이 쇼샤잔 산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엔교지 절은 7 개 현에 걸쳐 1,000 킬로미터에 이르는 순례길인 '사이코쿠 33 관음 성지'에 속해 있습니다. 33 성지를 전부 순례한 사람은 관음보살이 변화한 서른세 가지 모습 모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신앙의 인기는 1,000 년이 넘는 풍요로운 역사와 전통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으며, 지금도 엔교지 절로 순례하러 오는 사람들을 계속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

**<日本語仮訳>****圓教寺縁起**

圓教寺の開祖性空上人（910-1007）は、10歳で初めて法華経を学び、それ以降、仏道に生きた人物である。36歳で僧侶になり、その後の20年間は九州で過ごした。966年、不思議な雲が性空上人を書寫山に引き寄せた。そこでは天女が桜の周りで踊りながら、如意輪観音の経文を詠じていた。性空上人は経文に触発されて、木に如意輪観音像を彫り、その像は圓教寺の摩尼殿の御本尊となった。

性空上人は貴族の橘氏の家に生まれ、書寫山に入山後は高級貴族の藤原氏と花山法皇（968-1008）から庇護を受けた。花山法皇は10世紀後半に2回書寫山を訪れ、圓教寺という寺号を授けた。これは圓教寺が皇室の支援を受ける勅願寺であることを意味し、特権と経済的利益が保証される名誉なことであった。圓教寺は力のある寺として成長し、性空上人の入寂後も繁栄し続けた。

1177年、圓教寺は、天皇の座を退いた後も依然権力を保っていた後白河法皇をお迎えする栄誉を授かった。7日間の参籠中、後白河法皇は、完成後200年に渡って厨子に納められている如意輪観音像をご覧になりたいとお求めになった。そのときに後白河法皇により、仏教の教えの神髄である宝玉（摩尼）の名を取り「摩尼殿」と名付けられたのである。さらに1333年に天皇がご訪問なされた。それは後醍醐天皇（1288-1339）で、隠岐島での流刑の後、都にお戻りになる途中で大講堂に御滞在になった。

圓教寺は、長い戦国時代（1467～1568）に衰退期を迎えた。1578年、大名（広い領地を治めた大領主）豊臣秀吉（1537～1598）が書寫山を2年間にわたり占領し、境内を山の要塞に改造し、2万人の兵士たちを宿営させた。この占領の間に、僧侶と寺院の建物は暇を持って余す乱暴な兵士たちの手によって壊滅的な被害を受けた。1603年に徳川幕府が成立した後、圓教寺の運命は上向いた。姫路城の城主本多忠政（1575-1631）は1620年に圓教寺を訪問し、寺院を復元するための募金活動を始めた。その後、この地域の藩主松平家、榊原家など歴代の武家からも圓教寺は庇護を受けた。

江戸時代（1603年～1867年）に巡礼が盛んになると、庶民は書寫山に集まり始めた。圓教寺は、7県にまたがり1,000 kmにも及ぶ巡礼道である「西国三十三所」に属している。33か所すべてを巡礼した人は、観音菩薩が変化した33のお姿すべての祝福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と言われている。この信仰の人気は、1000年を超える豊かな歴史と伝統に支えられて、今なお圓教寺への巡礼者を魅了し続けている。

【タイトル】書寫山圓教寺：修正會（鬼追い會式）

【想定媒体】Web

**<韓国語>****슈쇼에(도깨비를 쫓는 법회 의식)**

엔교지 절에서는 매년 1월 18일에 ‘오니오이에시키(도깨비를 쫓는 법회 의식)’라고도 불리는, 평화와 오곡의 풍작을 기원하는 제전이 열립니다. 이 특별한 날에는 붉은 도깨비와 푸른 도깨비 가면을 쓴 연극자가 행렬을 거느리고 사원 경내를 돌아다닙니다. 마니덴(摩尼殿)에서는 행사의 절정을 맞습니다. 붉은 도깨비는 와카텐이라고 하며 지상의 보물을 관장하는 신인 비사문천의 화신이고, 푸른 도깨비는 오토텐으로서 지혜의 신인 부동명왕의 화신입니다. 와카텐과 오토텐은 966년에 쇼샤잔 산에서 쇼쿠 대사가 수행을 시작했을 때 스님을 도왔다고 전해집니다. 창건 이래 이 두 신은 엔교지 절의 수호신으로서 천 년이 넘도록 사원의 전승과 전통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무서운 외관은 ‘악령을 쫓아내고 봄을 맞는다’라는, 고래로부터의 악령과의 관계성에 따른 것이며, 절 경내로부터 악령을 쫓아내기 위해 두 신이 협력하여 움직입니다. 민속적인 풍습에 따르면 이 의식은 평화와 오곡의 풍작을 기원했던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의식 당일 오후 1시경, 붉은 도깨비와 푸른 도깨비는 눈을 가린 채 하쿠산곤겐 신사로 인도됩니다. 여기에서는 머귀나무로 만든 ‘도깨비의 젓가락’을 나누어줍니다. 종이 부적으로 감싼 젓가락은 마귀를 쫓는 힘이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와카텐은 한 손에 종을 들고, 다른 손에는 소나무로 만든 긴 햇불을 들고 있습니다. 등에는 빛나는 나무 망치를 끈으로 묶어 짊어지고 있습니다. 오토텐은 검은 옷칠로 마무리한 폭이 넓은 나무 검을 쥐고 있습니다. 와카텐을 선두로 하여 두 도깨비는 길을 따라 힘차게 땅을 밟고 주문을 외면서 행렬을 이끌고 하산합니다. 이 일련의 과정은 ‘오니오도리(귀신춤)’라고 불리며 토지신을 달래고 지진을 막는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마니덴에 도착하면 참배자들에게 더 많은 젓가락이 나누어지고 의식의 춤이 계속됩니다. 종을 울리며 와카텐이 정해진 경로에 따라 마니덴의 어두운 내부로 오토텐을 이끕니다. 두 신은 본존인 여의륜관음상 주위를 돌아다닙니다. 마니덴에서는 매년 이 특별한 날에만 여의륜관음상을 일반에 공개하기 때문에 참배자는 이 상들을 직접 보는 귀중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우메즈 집안이 매년 의식에 관련된 전통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매년 1월 초부터 우메즈 집안 사람들은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고, 안무 연습을 하고, 의식에 사용하는 옷, 도구, 가면을 수리하거나 교체합니다. 우메즈 집안 사람들은 매년 붉은 도깨비와 푸른 도깨비를 연기하는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日本語仮訳>****修正會（鬼追い會式）**

圓教寺では毎年1月18日に「鬼追い会式」とも呼ばれる平和と五穀豊穡を願う祭典が行われる。この特別な日には、赤鬼と青鬼の仮面をつけた演技者が、行列を引き連れて寺院の境内を巡る。摩尼殿では行事のクライマックスを迎える。赤鬼は若天といい、地上の宝の神である毘沙門天の化身であり、青鬼は乙天といい、智慧の神である不動明王の化身である。若天と乙天の二人は966年に書寫山で性空上人が修行を始めたとき、上人をお助けしたと伝えられている。お寺創建以来、二人は圓教寺の守護神として、千年以上に渡って寺院の伝承や伝統に登場している。彼らの恐ろし気な外見は、「悪霊を追い払い、春を迎える」という古来からの悪霊との関係性によるものであり、寺の境内から悪霊を追い払うために二人は協力して働く。民俗的な風習によると、この儀式は平和や五穀豊穡を願ったものとされている。

祭りの当日、午後1時頃、赤鬼と青鬼は目隠しされて白山権現神社へ導かれる。ここではカラスザンショウで造られた「鬼ノ箸」が配られる。紙のお札で包まれた箸は魔除けの力があると考えられている。若天は片手に鐘を持ち、もう一方の手には松で作られた長い松明を持っている。背中には紐でつながれた光り輝く木製の槌を背負っている。乙天は黒漆で仕上げられた幅の広い木製の剣を握っている。若天を先頭にして、二人の鬼は道に沿って力強く地面を踏みつけ、呪文を唱えながら行列を導き下山する。この一連の流れは「鬼踊り」と呼ばれ、土地神様をなだめ、地震を防ぐと考えられている。

摩尼殿に到着すると、より多くの箸が参詣者に配られ、儀式の踊りが続く。鐘を鳴らしながら、若天は決められた経路に従って摩尼殿の暗い内部へ乙天を導く。二人はご本尊である如意輪観音像の周りを歩き回る。摩尼殿では毎年この特別な日にだけ如意輪観音像が一般に公開されるため、参詣者はこれらの像を直接見る貴重な経験が得られる。

地元の梅津家が毎年の祭りに関連する伝統をつかさどっている。毎年1月の初めから、彼らは特別な食べ物を用意し、振付の練習を行い、儀式の服、道具、仮面を修理したり交換したりする。梅津家の人々は毎年、赤鬼と青鬼の役割を演じる特権を有している。



【タイトル】書寫山圓教寺：節分会・星祭

【想定媒体】Web

**<韓国語>****세쓰분에·별 축제**

일본의 사원과 신사에서는 음력으로 대략 새해 첫날에 해당하는 2월 3일에 입춘을 축하합니다. 엔교지 절에서는 이 축제를 계절의 분기점을 의미하는 세쓰분(節分)이라고 하며 엄숙한 축하 의식이 열립니다. 오후 1시에 마니덴(摩尼殿)에서 주지가 행하는 신성한 고마다키 의식이 시작됩니다. 이 의식은 경을 외면서 특별한 나무 부적을 불꽃에 던져넣는 것으로서 그해에 불운하다고 간주되는 별 아래에 태어난 사람들의 액막이를 합니다. 주지는 동아시아에 널리 전해지는, 나쁜 별을 좋은 별로 바꾸는 전통적인 방법에 따라 건강, 장수, 번영을 기원합니다. 별에 대한 관심은 엔교지 절과 하늘에서 세계를 내려다본다고 하는 여의륜관음보살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행사는 ‘별 축제’로서도 알려져 있습니다.

오후에는 지혜의 왕인 부동명왕을 칭송하기 위한 밀교 의식이 열립니다. 부동명왕의 무서운 모습은 그 한없는 자비심과는 정반대의 인상을 줍니다. 행사는 그해의 별에 태어난 3~4 명의 남자아이가 사원의 관리자와 많은 승려의 도움을 받으며 콩이 든 주머니를 나눠주는 마니덴에서의 ‘콩 뿌리기’로 끝을 맺습니다. 이 전통은 ‘콩’(일본어로 ‘마메’)이 사원의 부지에서 ‘마귀를 멸하는(魔滅)’(마메) 데 도움이 된다는 신앙에서 생겨났습니다. 이 의식을 준비하면서 마니덴의 주 제단에는 8,000 개의 콩 주머니가 마련됩니다. 참배자에게 콩 주머니를 던지는 콩 뿌리기는 엔교지 절에서 특히 인기가 있어 매우 성황을 이루는 행사입니다. 주머니에는 현금, 제비뽑기 교환권, 금은 관음보살상 교환권 등의 상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콩 뿌리기와 비슷한 풍습으로서 도깨비 모습을 한 남자 가족에게 콩을 던지는, 엔교지 절과 일본 전국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세쓰분 행사가 있습니다. 이 엔교지 절의 입춘 행사는 매년 1월 18일에 열리는, 평화와 오곡의 풍작을 기원하는 슈쇼에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행사의 목적은 악령을 추방하고 번성하는 해가 오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日本語仮訳>****節分会・星祭**

日本周辺の寺院や神社では、太陰暦で概ね新年の始まりに相当する2月3日に立春を祝っている。圓教寺では、この祭りを季節の分かれ目を意味する節分と呼び、厳粛に祝賀式典が行われる。午後1時に摩尼殿の住職が行う神聖な護摩焚き儀式が始まる。この儀式は、経を唱えながら特別な木の札を炎の中に投げ入れるもので、その年は不運と見なされた星の下に生まれた人々の厄払いを行う。住職は、東アジアに広く伝わっている、悪星を善星に変える伝統的な方法により、健康、長寿、繁栄を祈願する。星への

関心は、圓教寺と天から世界を見下ろすとされる如意輪観音菩薩と深く結びついている。この特別な行事は「星まつり」としても知られている。

午後には、智慧の王である不動明王を称えるための密教の儀式が行われる。不動明王の恐ろし気な姿は、その限りない慈悲の心とはまったく対照的である。行事は、その年の星の生まれの3~4人の男の子が、寺院の管理者や多くの僧侶の助けを借りて豆の入った袋を配る摩尼殿での「豆撒き」で締めくられる。この伝統は、「豆」(マメ)が寺院の敷地から「魔滅」(マメ)に役立つという信仰から来ている。この儀式に備えて、摩尼殿の主祭壇には8,000袋の豆袋が準備される。参拝者に対して豆袋を投げる豆撒きは圓教寺では特に人気があり、とても盛り上がる行事である。袋には現金、籤の引換券、金と銀の観音菩薩像の引換券などの賞品が含まれている。

豆撒きに似た風習として、圓教寺や全国の家で行われる伝統的な節分行事があり、鬼の格好をした身内の男性に人々が豆を投げるといものである。この圓教寺の立春の行事は、毎年1月18日に行われる平和と五穀豊穰を祈願する修正会の延長線上にあるものと考えられる。二つの行事の目的は、悪霊を追放し、繁栄する年が来ることを祈るものである。

【タイトル】 書寫山圓教寺：御朱印

【想定媒体】 Web

**<韓国語>****고슈인**

고슈인(御朱印)이란 일본 전국의 사원이나 신사가 발행하는 손으로 쓴 증서입니다. 커다란 주홍색 도장이 찍혀 있고, 그 신사나 절의 이름, 날짜, 그리고 행운의 말이나 기도의 문언 등이 붓으로 적혀 있습니다. 고슈인초(御朱印帳)라고 하는 특별한 소책자에 고슈인을 수집하는 일은 역사적으로는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기원의 행위였지만, 오늘날 많은 참배자는 이를 기념품으로서 수집하고 있습니다.

원래 고슈인은 순례자에게 참배 기록으로서 주어졌습니다. 이는 순례자가 사경을 해서 이를 사원이나 신사에 봉납했음을 나타냅니다. 불교에서 경전을 베끼는 사경은 행복한 내세를 위해 공덕을 쌓는 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순례자가 경전을 베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에 사원에 돈을 바치고 자신들을 위한 사경을 부탁했습니다. 이때 고슈인은 돈을 받고 사경을 했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경전 봉납은 에도 시대(1603~1867) 후기에는 그다지 일반적이지 않았지만, 고슈인 모으기는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현재에도 대부분의 사원과 신사에서 소액의 기부금을 받고 고슈인을 하나 이상 발행하고 있습니다.

엔교지 절에서는 경내의 세 곳(마니텐, 지키도, 가이산도)에서 6 종류의 서로 다른 고슈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마니텐에서 발행하는 고슈인은 '사이코쿠 33 관음 성지'의 27 번째 성지의 방문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관음보살에 대한 신앙을 표현하는 이 순례는 전체 거리가 1,000 킬로미터에 이르고 간키 지방 7 개 현에 걸쳐져 있으며, 현재도 많은 순례자가 찾고 있습니다. 일생 동안 33 성지를 모두 참배하여 모든 성지의 고슈인을 모은 사람은 사후에 극락정토에 갈 수 있는 공덕을 쌓았다고 간주됩니다.

**<日本語仮訳>****御朱印**

御朱印とは、全国の寺院や神社が発行する手書きの証書である。大きな朱色の判が押され、毛筆でその寺社の名前、日付、そして幸運の言葉や祈りの文言などが記されている。御朱印帳と呼ばれる特別な小冊子に御朱印を収集することは、歴史的には宗教的な意味合いを伴う祈りの行為であるが、今日、多くの参詣者は記念品としてそれらを収集している。

もともと御朱印は巡礼者に参拝の記録として付与されていた。これは、巡礼者が写経し、それを寺社に奉納したことを示している。仏教では、経典を書き写す写経は、幸福な来世を得るための功德を積む行為であると見なされている。しかし、すべての巡礼者が自分で経典を書き写す能力があるわけではない。その

代わりに、寺院にお金を納めて自分たちのために写経してもらったのである。この場合、御朱印はお金を受け取って写経をしたことを証明する役目を果たした。経典を奉納することは江戸時代（1603年～1867年）の後期にはあまり一般的ではなくなったが、御朱印を集めることは盛んに行われた。現在でもほとんどの寺社で、少額の寄付と引き換えに御朱印が1つ以上発行されている。

圓教寺では、境内の三か所（摩尼殿、食堂、開山堂）で6種類の異なる御朱印を発行している。摩尼殿で発行される御朱印は、「西国三十三所」の27番札所の訪問を記念している。観音菩薩への信仰を表すこの巡礼は、全体の距離が1,000 kmに及び近畿地方の7つの県にまたがっており、現在も多くの巡礼者が訪れている。一生の間に33か所すべてを参拝し、そして33か所すべての御朱印を集めた人は、死後、極楽浄土に行くことのできる功德を積んだとみなされる。

【タイトル】書寫山圓教寺：書寫塗

【想定媒体】Web

**<韓国語>****쇼샤누리**

쇼샤잔 산에서 만들어지는 칠기는 쇼샤누리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아름다움, 가벼움, 그리고 내구성으로 유명합니다. 그중에서도 두드러지는 특징은 주홍색의 광택이 나는 표면 아래에서 언뜻 비치는 검은 옷칠입니다. 동유(유동이라는 식물의 씨앗에서 짠 기름)를 맨 마지막 단계에 섞음으로써 특징적인 매끈한 감촉이 생겨납니다. 또한 검은 옷칠과 주홍색 옷칠을 예술적으로 겹쳐 칠하는 수법은 일본의 선사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단, 이 제법의 완성은 일본의 중세(대략 12 세기에서 16 세기 사이) 무렵 와카야마현 중부에 있었던 네고로지 절의 승려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네고로지 절은 뛰어난 공예 기술을 보유하여 불교 의식에 사용하는 칠기나 의식 용구 제조로 유명했습니다.

1585 년, 당시에는 하시바 히데요시라는 이름이었던 다이묘(넓은 영지를 다스린 대영주) 도요토미 히데요시(1537~1598)에 의해 네고로지 절이 파괴되었을 때, 그 기술을 가진 승려 일부가 엔교지 절로 도망쳐 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승려들이 쇼샤잔 산에서 같은 칠기를 계속 만들어왔다고 오랫동안 생각되어왔는데, 1985 년에 몇몇 작품이 사원 부지 내에서 발굴되었습니다. 그 이래 생산 기술이 부활하여 독특한 작품이 다시 유통되기 시작했습니다. 엔교지 절의 탐두(사원 부지 내에 지어진 작은 사원) 가운데 하나인 주료인(壽量院)에서 식기, 쟁반, 조리기구 등을 직접 보고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예약을 하면 쇼샤누리 칠기를 사용해서 쇼진요리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日本語仮訳>****書寫塗**

書寫山で作られる漆器は、書寫塗という名で知られており、その美しさ、軽さ、そして耐久性で有名である。その特筆すべき特徴は、朱色の光沢のある表面の下からわずかにのぞく黒漆である。桐油（アブラギリという植物の種から取った油）を最上層に混ぜることによって特徴的な滑らかな手触りが生み出される。また、黒漆と朱色の漆を芸術的に重ね合わせるという手法は、日本の先史時代にまでさかのぼ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この製法の完成は中世（およそ 12 世紀から 16 世紀の間）の頃、和歌山県の中部にあった根来寺の僧侶によってなされたと言われている。根来寺は高い工芸技術を有し、仏教の儀式に用いられる漆器や儀式用具の製造で有名であった。

1585 年に、その当時は羽柴秀吉という名だった大名（広い領地を治めた大領主）豊臣秀吉（1537-1598）によって根来寺が破壊されたとき、その技術を持つ僧侶の一部が圓教寺に逃げ込んだと伝えられている。僧侶たちは書寫山で同じような漆器を作り続けたと長い間考えられてきたが、1985 年

にいくつかの作品が寺院の敷地内から発掘された。それ以来、生産技術が復活し、独特の作品が再び流通し始めた。圓教寺の塔頭（寺院の敷地内に建てられた小さな寺院）の1つである壽量院で、食器、お盆、調理器具などを直接見て購入できる。予約をすれば、書写塗の漆器を使って精進料理を頂くこともできる。

【タイトル】書寫山圓教寺：修行体験

【想定媒体】Web

**<韓国語>****수행 체험**

엔교지 절에서는 천태종(天臺宗) 승려들의 일상생활을 체험하고 싶어하는 참배자에게 오후 좌선과 사경부터 절의 생활을 체험하는 등 각종 체험 코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엔교지 절에서는 나이와 경험의 유무에 관계없이 참가자를 받고 있습니다.

가이드가 있는 좌선 체험은 매일 오후 2시부터 조교도(常行堂)에서 60분간 진행됩니다. 천태종에서는 다른 수행과 조합하여 좌선을 함으로써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적어도 체험 3일 전에 예약을 해야 하며 당일에는 화려하지 않은 편안한 복장으로 와야 합니다.

일본에서 경전을 베끼는 사경은 불교가 전래된 6세기 후반부터 시작되는 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경전은 성스러운 부처의 가르침이며, 기계 인쇄가 발명되기 전까지 경전을 복제하는 유일한 방법은 손으로 쓰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을 담아 경전의 일부를 베끼는 것은 행복한 내세를 위한 공덕을 쌓는 행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지키도(食堂)에서는 연꽃잎 모양의 종이에 관음경의 한 문자를 사경할 수 있습니다.

엔교지 절이 준비하고 있는 체험은 일 년에 몇 차례 주말에만 열리고 있습니다. 이 이틀간 좌선, 사경 연습, 불경 창화(한쪽에서 경을 읽고 다른 쪽에서 그에 이어서 읽음), 경내 산책, 불교 강의에 참가합니다.

**<日本語仮訳>****修行体験**

圓教寺では、天台宗の僧侶たちの日常生活を体験したい参拝者に対し、午後の座禅や写経から、寺の生活を体験するなど各種の体験コースを提供している。圓教寺は年齢や経験の有無に関係なく参加者を受け入れている。

ガイド付き座禅体験は、毎日午後2時から常行堂で60分間行われる。天台宗では、他の修行と組み合わせることで、悟りを得られると信じられている。参加を希望する場合は少なくとも体験の3日前に予約を行う必要があり、当日は華美でない、楽な服装で来る必要がある。

日本では、経典を書き写す写経は仏教が伝来した6世紀後半から始まる長い歴史を持っている。経典は聖なる仏の教えであり、機械印刷の発明まで、経典を複製する唯一の方法は手で書くことであった。

心を込めて経典の一部を書き写すことは、幸福な来世を得るための功德を積む行為と見なされている。食堂では、蓮の花びらの形をした紙に観音経の一文字を写経することができる。

圓教寺が用意している体験は、一年に何回かの週末にだけ開かれている。この2日間、座禅、写経の練習、お経の唱和（一方が経を読み、もう一方がそれに続いて読む）、境内の散歩、仏教の講義に参加する。



【タイトル】書寫山圓教寺：武蔵坊弁慶

【想定媒体】Web

**<韓国語>****무사시보 벤케이**

역사적인 일본 인물 가운데 가장 전설적인 존재인 무사시보 벤케이(1155~1189)는 청년 시절에 엔교지 절에서 살며 수행했습니다. 벤케이는 초인적인 힘으로 이름을 떨친 승병으로서 많은 문학작품과 가부키 공연 목록에도 영웅적인 인물로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벤케이는 종종 용기와 강한 충성심을 지닌 인물로 묘사됩니다. 올곧은 성격인 반면, 성질이 급하고 폭력적인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학문에 대한 벤케이의 충실한 태도는 다른 젊은 승려들의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엔교지 절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특히 인상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벤케이가 자고 있는 사이에 시나노보 가이엔이라는 승려가 먹으로 벤케이의 얼굴에 불쾌한 말을 썼다고 합니다. 벤케이가 잠에서 깨자 젊은 승려들이 비웃었습니다. 벤케이는 가까이 있는 우물로 달려가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얼굴을 나막신 바닥에 비유당한 굴욕에 격노한 벤케이는 절의 건물을 마구 때려부숴했습니다. 사실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벤케이가 평소에 자신을 비취보기 위해 사용했다고 하는 우물이 마니덴(摩尼殿)에서 가이산도(開山堂)로 이어지는 길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사원에는 벤케이와 관계 있는 다른 물건도 많이 보존되어 있어서 벤케이가 공부했다는 책상 등이 지키도(食堂) 2층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벤케이가 자신의 힘을 시험하기 위해 사용했다고 전해지는 두 개의 커다란 바위(벤케이의 공깃돌)가 있습니다.

**<日本語仮訳>****武蔵坊弁慶**

日本の歴史上の人物のうち最も伝説的な存在である武蔵坊弁慶（1155–1189）は青年時代に圓教寺で暮らし、修行をした。弁慶は超人的な力でその名を轟かせた僧兵で、多くの文学作品や歌舞伎の演目にも英雄的な人物として登場している。それらの中では弁慶はしばしば勇気と強い忠誠心を持った人物として描かれている。そのまっすぐな性格である反面、短気で暴力的な傾向があったことでも知られている。弁慶の学問に対する忠実な態度は、他の若い僧侶たちからのからかいの対象になった。

圓教寺で起きたと言われている特に印象的な事件がある。言い伝えによると、弁慶が眠っている間に、信濃坊戒円という僧侶が墨で弁慶の顔に不快な言葉を書いたという。弁慶が目覚めると、若い僧侶たちが嘲り笑った。彼は近くの井戸に走り、水に映った自分の顔を見た。顔を下駄の底に見立てたその侮辱に激怒した弁慶は、寺の建物を激しく壊してしまった。事実であったかどうかは不明だが、この物語に登場する、弁慶が日ごろ自分を映すために使用していたとされる井戸が、摩尼殿から開山堂に続く道に今も残って

いる。寺院には、弁慶に関する他の品物も多く保存されており、彼の勉強机などは食堂の2階に展示されている。他には弁慶が自分の力を試すために使ったと言い伝えられる二つの大きなお手玉石がある。

【タイトル】書寫山圓教寺：三十三所巡り

【想定媒体】Web

**<韓国語>****33 관음 성지 순례**

엔교지 절은 일본 중앙 지역의 7 개 현에 걸친, 1,000 킬로미터를 넘는 순례길에 따른 27 번째 성지입니다. 33 개 사원을 순회하는 사이코쿠 33 관음 성지 순례는 718 년에 성립하여 지금도 일본 전국에서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순례길의 하나입니다. 각 사원에는 자비의 보살인 관음보살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절을 방문함으로써 사후에 극락정도에 갈 수 있는 큰 공덕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마니덴(摩尼殿)은 이 33 개 순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1239 년에 승려 묘카쿠가 조각한 여의륜관음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자동차나 케이블카 등의 근대적인 문명이 발달하기 전까지 순례자는 이 순례길들을 걸어다녔으며, 도중에 사망하는 일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일찍부터 33 성지 순례를 완료하기가 어려움을 알고 진보적인 생각을 했던 승려들은 이 순례 여정들의 축소판을 만들어 한 곳에서 간단히 모든 순례를 마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장소는 ‘우쓰시레이조’(성지를 모방해 만든 장소)라고 하며, 엔교지 절의 마니덴으로 통하는 돌계단 아래쪽 가까이에 그야말로 그러한 장소가 있습니다. ‘사이코쿠 33 관음 성지’라고 하는 이 작은 불당에 33 성지의 모든 관음보살을 축소한 상이 모셔져 있기 때문에, 순례자는 한 번의 방문으로 순례길의 모든 여정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日本語仮訳>****三十三所巡り**

圓教寺は、日本の中央部の7県にまたがり1,000 kmを超える巡礼路に沿った27番目のお礼所である。33か所の寺院をめぐる西国三十三所は718年に成立し、今でも全国から多くの人を訪れる巡礼路の1つである。各寺院には、慈悲の菩薩である観音菩薩像が祀られている。そしてそれぞれのお寺を回ることで、死後に極楽浄土に行くための大きな功德を得ることができると言われている。摩尼殿はこれらの33か所の巡礼地の1つである。1239年に僧侶の妙覚によって彫られた六臂如意輪観音像が納められている。

車やロープウェイなどの近代的文明が発達するまで、巡礼者はこれらの各巡礼路を徒歩で訪れ、途中で亡くなることも珍しくなかった。早い段階から、巡礼を完全踏破することの難しさを考え、進歩的考えのある僧侶たちは、これらの巡礼の旅の縮小版を作り、一か所で簡単に訪れることができるような方法を考えた。このような場所は「写し霊場」（霊場を模して作った場所）と呼ばれ、それがまさに圓教寺の摩尼殿に通じる石段のふもと近くにある。「西国三十三観音巡礼地」と呼ばれるこの小さなお堂に33箇所すべての観音

菩薩を縮小した像が納められているため、巡礼者は1回の訪問で巡礼路の全行程を完了することができるのである。

【タイトル】書寫山圓教寺：芸能と圓教寺

【想定媒体】Web

**<韓国語>****엔교지 절과 예술**

일본문학과 연극 가운데에는 엔교지 절과 그 승려, 그리고 엔교지 절을 방문한 유명한 이들에 대해 묘사한 몇몇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기의 예는 사원의 개조 쇼쿠 대사(910~1007)의 생애에 관한 것으로서, 궁정 여관이자 저명한 가인이었던 이즈미 시키부(976~1030)가 정신적인 지도를 구하여 쇼쿠 대사에게 일본 전통 시가인 와카를 보냈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불교적 묘사가 뛰어난 이즈미 시키부의 이 와카는 당시 최고의 영예였던 칙찬와카슈(천황이나 상황의 명으로 편찬된 와카 모음집)에 수록되었습니다. 이즈미 시키부의 이 와카는 가이산도(開山堂)에서 가까운 북쪽에 있는 석비에 새겨져 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중세의 군기문학 가운데 하나인 다이헤이키에는 1333년에 고다이코 천황이 가마쿠라 막부 타도를 기원하기 위해 엔교지 절에 방문한 일이 쓰여 있습니다. 다이헤이키가 고쳐 쓰이고 대중화됨에 따라 그 후 수 세기에 걸쳐 무대 연극을 통해 보급되면서 엔교지 절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14세기 후반, 상류계급 사이에서 노(能)(가면을 쓰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상연되는 극)가 널리 인기를 모으게 되었습니다. 쇼쿠 대사는 제아미(1363년경~1443년경)가 쓴 노 작품 ‘에구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극중에서 어떤 남자가 말하는 쇼쿠 대사에 관한 이야기에서 이 극의 주인공이자 죽은 유녀 에구치노키미가 보현보살의 화신이였을지도 모른다고 이야기됩니다. 2006년, 쇼쿠 대사 입적 후 1000년을 기념하여 엔교지 절 조교도(常行堂)의 무대에서 ‘에구치’가 상연되었습니다. 또한 엔교지 절 미쓰노도(다이코도·지키도·조교도)의 카메라에 담기 좋은 풍경은 톰 크루즈와 와타나베 겐이 주연한 『라스트 사무라이』(2003) 등 저명한 텔레비전 드라마와 영화에도 때때로 등장합니다.

**<日本語仮訳>****圓教寺と芸能**

日本文学や演劇の中には圓教寺とその僧侶、そして圓教寺を訪問した有名な人々について描いたものがいくつか見られる。初期の例は、寺院の開祖性空上人(910-1007)の生涯に関するもので、宮廷女官であり著名な歌人であった和泉式部(976-1030)が精神的な指導を求めて性空上人に和歌を送った時のものだ。この和泉式部の仏教的描写に優れた和歌は、当時の最高の榮譽であった勅撰和歌集(天皇や上皇の命により編纂された和歌集)に収録された。和泉式部のこの和歌は開山堂のすぐ北にある石碑に刻まれている。

日本で最も有名な中世の軍記物語の1つである太平記では、1333年に後醍醐天皇が鎌倉幕府打倒の祈願のために圓教寺へ訪問したことについて書かれている。太平記が書き直され大衆化されるにつれて、その後の数世紀にわたって、舞台演劇を通して普及し、圓教寺は広く知られるようになった。

14世紀後半、上流階級の間で能（面をかぶり、美しい装束を着て上演される劇）が広く人気を集めるようになった。性空上人は世阿弥（1363頃-1443頃）によって書かれた演目「江口」の中で重要な役割を演じている。劇中である男が語る性空上人についての物語の中で、この劇の主人公であり、亡くなった遊女江口の君が普賢菩薩の化身であったかもしれないと語られる。2006年、性空上人没後1000年を記念して圓教寺常行堂の舞台上で「江口」が上演された。また、圓教寺の三之堂（大講堂・食堂・常行堂）はカメラ映りのよい風景であるため、トムクルーズと渡辺謙主演の『ラストサムライ』（2003）など、著名なテレビドラマや映画にも時折り登場している。

地域番号	004	協議会名	石見銀山多言語協議会
------	-----	------	------------

解説文一覧

NO.	スポット名 (タイトル)	韓国語文字数	媒体
004-001	龍源寺間歩	584	WEB
004-002	清水谷製錬所跡	558	WEB
004-003	高橋家	450	WEB
004-004	豊栄神社	609	WEB
004-005	佐毘売山神社	479	WEB
004-006	大久保長安墓所	668	WEB
004-007	代官所	439	WEB
004-008	沖泊道 (よづくはで)	482	WEB
004-009	沖泊道 (松山)	411	WEB
004-010	鞆ヶ浦道 山吹城登城口	764	WEB
004-011	鞆ヶ浦 港湾	525	WEB
004-012	沖泊 港湾	534	WEB
004-013	大森銀山重要伝統的建造物群保存地区 (全体)	1216	WEB
004-014	大森伝建・熊谷家	604	WEB
004-015	大森伝建・五百羅漢	603	WEB
004-016	大森伝建・河島家	524	WEB
004-017	温泉津重要伝統的建造物群保存地区 (全体)	805	WEB
004-018	温泉津伝建・西念寺	483	WEB
004-019	温泉津伝建・えこう寺と西楽寺	445	WEB
004-020	温泉津重要伝統的建造物群保存地区 (温泉)	660	WEB
004-021	城上神社	442	WEB
004-022	石見銀山遺跡 石見銀山(わかりやすい価値説明)	1266	WEB
004-023	石見銀山遺跡 石見銀山(世界の鉱山比較)	1486	WEB
004-024	石見銀山遺跡 (ビジターセンター) 石見銀山世界遺産センター	630	WEB
004-025	石見銀山遺跡 (銀山柵内 坑道) 大久保間歩(限定公開坑道)	566	WEB
004-026	石見銀山遺跡 (銀山柵内 坑道) 釜屋間歩と周辺の岩盤加工遺構	696	WEB
004-027	石見銀山遺跡 (銀山柵内 坑道) 新切間歩	610	WEB
004-028	石見銀山遺跡 (銀山柵内 坑道) 福神山間歩	653	WEB
004-029	石見銀山遺跡 (銀山柵内製錬所跡) 永久製錬所跡	908	WEB

004-030	石見銀山遺跡（銀山柵内製錬所跡） 下河原吹屋跡（遺構露出展示）	628	WEB
004-031	石見銀山遺跡（銀山柵内 登山道） 世界遺産センター遊歩道	439	WEB
004-032	石見銀山遺跡（銀山柵内 集落跡） 本谷集落跡	599	WEB
004-033	石見銀山遺跡（銀山柵内 集落跡） 坂根口番所跡	424	WEB
004-034	石見銀山遺跡（銀山柵内 集落跡） 本谷口番所跡	491	WEB
004-035	石見銀山遺跡（銀山柵内 集落跡） 石銀集落跡	827	WEB
004-036	石見銀山遺跡（銀山柵内 集落跡） 石銀千畳敷集落跡	537	WEB
004-037	石見銀山遺跡（銀山柵内 集落跡） 栃畑谷集落跡	586	WEB
004-038	石見銀山遺跡（銀山柵内 集落跡） 昆布山谷集落跡	834	WEB
004-039	石見銀山遺跡（銀山柵内 集落跡） 吉岡出雲墓所	612	WEB
004-040	石見銀山遺跡（銀山柵内 集落跡） 銀山大盛祈願道場碑	464	WEB
004-041	石見銀山遺跡（銀山柵内 集落跡） 清水寺山門	629	WEB
004-042	石見銀山遺跡（銀山柵内 集落跡） 妙正寺跡	352	WEB
004-043	石見銀山遺跡（銀山柵内 集落跡） 大安寺跡	488	WEB
004-044	石見銀山遺跡（町並み・大森銀山） 西本寺山門	492	WEB
004-045	石見銀山遺跡（町並み・大森銀山） 渡辺家住宅	493	WEB
004-046	石見銀山遺跡（町並み・大森銀山） 金森家（建造物説明）	479	WEB
004-047	石見銀山遺跡（町並み・大森銀山） 宗岡家	682	WEB
004-048	石見銀山遺跡（町並み・大森銀山） 阿部家	592	WEB
004-049	石見銀山遺跡（町並み・大森銀山） 三宅家	662	WEB
004-050	石見銀山遺跡（町並み・大森銀山） 青山家	531	WEB



004-051	石見銀山遺跡（町並み・大森銀山） 金森家	518	WEB
004-052	石見銀山遺跡（町並み・大森銀山） 柳原家	615	WEB
004-053	石見銀山遺跡（町並み・大森銀山） 西性寺	642	WEB
004-054	石見銀山遺跡（町並み・大森銀山） 町並み交流センター(旧裁判所)	730	WEB
004-055	石見銀山遺跡（町並み・大森銀山） 観世音寺	579	WEB
004-056	石見銀山遺跡（町並み・大森銀山） 勝源寺	719	WEB
004-057	石見銀山遺跡（山城跡） 山吹城跡	784	WEB
004-058	石見銀山遺跡（山城跡） 矢滝城跡	508	WEB
004-059	石見銀山遺跡（山城跡） 矢筈城跡	485	WEB
004-060	石見銀山遺跡（山城跡） 石見城跡	454	WEB
004-061	石見銀山遺跡（町並み・温泉津） 金剛院	528	WEB
004-062	石見銀山遺跡（町並み・温泉津） 龍御前神社	434	WEB
004-063	石見銀山遺跡（町並み・温泉津） 温泉津港	448	WEB
004-064	石見銀山遺跡（ビジターセンター） 辻ヶ花染丁子 文胴服	642	WEB
004-065	石見銀山遺跡（町並み・大森銀山） 岡家	430	WEB
004-066	石見銀山遺跡（町並み・大森銀山） 栄泉寺	708	WEB
004-067	石見銀山遺跡（町並み・温泉津） 石見神楽	513	WEB
004-068	石見銀山遺跡（山城跡） 銀山争奪戦	679	WEB

【タイトル】 龍源寺間歩

【想定媒体】 WEB

**<韓国語>****류젠지 갱도**

류젠지 갱도는 크고 작은 갱도가 900 개 이상이나 발견된 이와미 은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갱도 중 하나입니다. 이와미 은광 내에서 은 산출량 상위 5 위로 꼽히는 이 류젠지 갱도의 총 길이는 600m 로, 초반의 273m 는 현재도 일년 내내 관광객들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1715 년에 만들어진 이 갱도는 에도(현재의 도쿄) 막부가 임명한 현지 다이칸(막부의 직할령을 관리하는 관청의 관리)의 관리 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류젠지 갱도에서 채굴된 은은 1603 년부터 1867 년까지 일본을 통치한 도쿠가와 막부의 직접적인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은광 내부에는 메인 갱도에서 갈라지는 여러 개의 작은 갱도가 존재합니다. 이들 갱도는 광산의 은 광맥에 도달하기 위해 파내진 것으로 그 흔적은 벽 곳곳에서 지금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각기 다른 방향으로 갈라진 갱도는 메인 통로보다는 훨씬 좁지만 근대적인 굴착기가 도입되기 이전의 전형적인 너비입니다. 끌과 쇠파기만을 사용해 갱도를 파내려가는 것은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너비는 광부가 어떻게든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로만 만들어졌습니다. 메인 통로는 짐수레가 드나들 수 있도록 19 세기 후반에 확장한 것입니다.

출구로 이어지는 터널은 은광을 관광객들에게 개방하기 위해 1989 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기에는 새로 부임한 막부의 관리에게 은광의 기능을 설명할 목적으로 사용된 '이와미 은광 두루마리 그림' 속의 그림을 재현한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어서 당시의 모습을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日本語仮訳>****龍源寺間歩**

石見銀山では、さまざまな規模の坑道が 900 本以上発見されていますが、龍源寺間歩はその中でもおそらく最も代表的なものでしょう。銀の産出量という点で、石見銀山の中でも上位 5 本の坑道に数えられる龍源寺間歩の長さは 600メートルで、最初の 273メートルは現在でも一年を通じて観光客向けに開放されています。この坑道は 1715 年に掘られ、江戸（現在の東京）にある幕府から任命された現地の代官（幕府の直轄領を管理する官庁の官吏）の管理下に置かれました。このため、龍源寺間歩で採掘された銀は、1603 年から 1867 年まで日本を統治した徳川幕府にとって直接の収入源でした。

銀山の内部には、メインの坑道から枝分かれする複数の小さな坑道があります。これらは山の銀脈を辿るように掘られたもので、その名残は壁のあちこちで今でも見ることができます。また、水平に伸びる坑道はメインの通路よりもずっと狭いですが、この幅は、近代的な掘削機器の導入以前では典型的なものです。ノ

ミと金づちのみを使って坑道を掘り進めるのは、たいへん時間のかかる作業であったため、坑夫がなんとか通り抜けるだけの幅で作られました。メインの通路の方は、荷車の出入りを可能にするために、19世紀後半に拡張されたものです。

銀山を観光客向けに開放するために1989年に掘られた、出口へと続くトンネルには、新たに着任した幕府の役人に銀山の機能を説明する目的で使われた「石見銀山絵巻」の中の絵を用いた案内板が設置されており、当時の様子を偲ぶことができます。

【タイトル】 清水谷製錬所跡

【想定媒体】 WEB

**<韓国語>****시미즈다니 제련소 터**

현재는 푸르른 언덕 중턱에 고요히 자리한 돌과 콘크리트 덩어리에 불과하지만, 이곳 시미즈다니 제련소 터에는 19세기 후반 은 생산을 재개하려다 실패했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1886년에 오사카의 후지타구미라는 기업이 이와미 은광의 채굴권을 획득했을 때 이 광산은 이미 수십 년 동안 휴면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후지타구미는 많은 자금을 투자하여 기존의 갱도를 확장하고 대량의 광석을 캐내기 위해 다이나마이트를 사용하는 등 최첨단 채굴 설비와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근대화를 이루려는 이러한 노력 끝에 1895년 드디어 시미즈다니 지구에 새로운 제련소가 건설되었습니다. 이 제련소에서는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가까운 갱도에서 채굴한 대량의 광석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350여 년이나 채굴이 계속되었던 이와미 은광의 은이 이미 고갈된 후였을 뿐만 아니라, 광석의 질 또한 예상보다 조악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은을 정련하는 데 사용된 기술도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한 시미즈다니 제련소는 결국 조업을 시작한 지 불과 1년 반만에 폐쇄되었습니다. 후지타구미는 당시 일본제국의 일부였던 대만의 지우펀 등 회사가 관할하던 다른 광산으로 정련 설비를 이전하여 손실을 줄이려 애썼습니다. 시미즈다니 제련소 터는 변전소로 바뀌었지만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건물의 기초 부분만이 과거 이 시설의 당당하고 인상적인 규모를 암시할 뿐입니다.

**<日本語仮訳>****清水谷製錬所跡**

今では緑の丘の中腹に静かに佇む石やコンクリートの塊にすぎない清水谷製錬所跡は、19世紀後半にここで再開されようとしていた銀生産が失敗に終わったことを物語る遺構です。1886年に大阪の藤田組という企業が石見銀山の採掘権を獲得したときには、この鉱山はすでに何十年にもわたって休眠状態となっていました。しかし藤田組は多額の投資を行い、既存の坑道を拡張して大量の鉱石を掘り出すためにダイナマイトを使用するなど、最先端の採掘設備と方法を導入しました。これら近代化の取り組みの末、1895年に清水谷地区に新しい製錬所が開設され、同製錬所では最新の技術を採用して、藤田組が近くの坑道で採掘した大量の鉱石を処理しました。

しかし、350年余りにわたって採掘されてきた石見銀山の銀鉱床はすでに枯渇しており、鉱石の質が予想よりも粗悪であることがわかりました。銀の精錬に使われた技術も期待通りの結果は出ず、最終的に清水谷製錬所はわずか一年半の操業の後、閉鎖されました。藤田組は、当時大日本帝国の一部であった

台湾の九份など、自社の支配下にあった他の鉱山に精錬設備を移転することで、損失の低減を図りました。清水谷製錬所の跡地は、変電所へと姿を変えましたが、その後どうなったかほとんど知られていません。今でも残る基礎部分のみが、かつてこの施設が堂々たる規模であったことを暗示しています。

【タイトル】 高橋家

【想定媒体】 WEB

**<韓国語>**

다카하시 가문 주택

다카하시 가문 주택은 류겐지 갱도로 향하는 길 주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은을 채굴하는 지역의 공동체 중에서도 이 다카하시 가문이 오랫동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는 사실은 주택이 들어서 있는 장소를 통해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1839년 당시 다카하시 가문의 가장이었던 도미사부로는 광부들과 에도(현재의 도쿄) 막부의 대표인 현지 다이칸쇼(막부의 직할령을 관리하는 관청) 사이를 연결하는 연락관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 연락관은 채굴 사업자 채용, 은광 작업에 필요한 허가증 발행, 산출된 은을 에도로 수송하기 위해 대리자로 임명된 막부의 대표자와 다양한 채굴 사업체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 등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책이었습니다.

은광 관리에 관여하며 커다란 부를 축적한 다카하시 가문은 이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호화로운 주택을 지었습니다. 1860년경에 완공된 이 주택은 도로에 면한 안채와 정원의 다실, 그리고 뒤쪽의 별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다카하시 가문 주택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는 않지만, 이제 막 근대로 진입하던 시기에 살았던 이와미 은광의 광부와 그 가족들의 부유한 삶의 모습을 짐작케 합니다.

004-003

**<日本語仮訳>****高橋家住宅**

高橋家住宅は、重要な龍源寺間歩へと向かう道沿いにあります。銀を採掘する地域の共同体の中で、高橋家が長年にわたり重要な役割を担ってきたことが、住宅が建っている場所からも窺い知ることができます。1839年、当時高橋家の家長であった富三郎は、坑夫らと江戸（現在の東京）幕府の代表である現地代官所（幕府の直轄領を管理する官庁）との間の連絡役に選出されました。この連絡役は、採掘事業者の採用、銀山での作業に必要な免状の発行、産出された銀を江戸へ輸送するための管理を任されていた幕府の代表者とさまざまな採掘事業者との間の仲立ちなど多くの仕事を任された重要な役職でした。

高橋家は銀山の管理に関わったことで大きな富を蓄え、この地域で最大かつ最も豪華な住宅を建てました。1860年頃に完成したこの住宅は、道路に面する母屋、庭の茶室、裏手の離れで構成されています。現在、高橋家住宅は一般公開されていませんが、時代が近代へと移り変わる時期における石見銀山の坑夫とその家族の裕福な暮らしがうかがえます。

【タイトル】 豊栄神社

【想定媒体】 WEB

**<韓国語>****도요사카 신사**

이와미 은광은 발견된 1527년부터 도쿠가와 씨족이 일본 전역을 정복하여 에도(현재의 도쿄)에 막부를 설립해 은광을 직할령으로 편입시킨 17세기 초까지 이 지역을 통치한 지방 무사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도쿠가와 씨족이 이어받기 전까지는 모리 씨족이 이와미 은광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모리 씨족의 당주였던 모리 모토나리(1497~1571)는 1561년 은광을 수중에 넣었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 긴잔(은광)강 인근 비탈지에 검소한 분위기의 사찰을 짓고 본당 내부에 자신의 모습을 조각한 목조상을 안치했습니다.

모토나리의 수중에 들어간 이 성스러운 지역은 수세기 동안 도쿠가와 막부가 지배했던 태평성세에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1866년 무가 시대의 종언을 고한 제2차 조슈전쟁이 발발하면서 일본 남부의 사쓰마번(현재의 가고시마현)과 모리 씨족의 후손이 추방되었던 조슈번(현재의 야마구치현)의 군 부대가 진군 도중 우연히 이 사찰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찰 안에서 전설 속의 군주상을 발견한 군사들이 매우 기뻐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제2차 조슈전쟁에서 승리한 조슈번의 무사들은 같은 장소에 새로운 사당을 건설했습니다. 이전에는 불교 사찰이었던 이곳은 근대적 국가주의의 수단으로 신토를 육성하려는 신정부의 정책에 따라 신사로 지어졌습니다. 도요사카 신사는 1943년 발생한 산사태에 휩쓸려 그 일부가 파괴되었지만, 화려한 문과 독특한 형태의 본전은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모리 모토나리의 목조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日本語仮訳>****豊栄神社**

石見銀山は1527年の発見から、徳川氏が日本全土を征服し、江戸（現在の東京）に幕府を設立して銀山を直轄領とした17世紀初めまでの間、この土地を治めた地方の武士によって支配されていました。徳川氏が引き継ぐ前の石見銀山は毛利氏の所領でした。毛利氏の当主であった毛利元就（1497～1571年）は、1561年に銀山を手中に収めたことを示すために、銀山川近くの傾斜地に質素な寺院を建て、その本堂内に自分自身の木製の像を安置しました。

元就が手中に収めたこの聖域は、何世紀にもわたり、徳川幕府が支配した泰平の世においては、ほとんど目立たない存在でした。ところが、1866年、武家が支配する時代に終焉をもたらすことに繋がる第二次長州戦争が発生し、日本南部の薩摩藩（現在の鹿児島県）と毛利氏の末裔が追放されていた長州藩（現在の山口県）の部隊が進軍の途中で偶然この寺院に立ち寄りました。その際、寺院の中に伝説の

君主の像を発見して、たいへん歓喜したといわれています。

第二次長州戦争に勝利した長州藩の武士たちは、同じ場所に新しい祠堂を建設しました。以前は仏教寺院でしたが、今度は、近代的国家主義の伝達手段として神道を育むという新政府の政策に従って、神社が建てられました。この豊栄神社は、1943年の地滑りに一部が巻き込まれましたが、華麗な門と独特な本殿は今でも残っています。毛利元就の木像は残念ながらもう存在しません。



【タイトル】 佐毘売山神社

【想定媒体】 WEB

**<韓国語>****사히메야마 신사**

광산의 수호신인 가나야마히코노미코토를 모신 사히메야마 신사는 과거 이 지역에서 손꼽힐만큼 풍부한 은 광맥을 자랑했던 장소 바로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현재는 이와미 은광의 대표적인 관광지 중 하나인 류겐지 갭도 입구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가파른 바위산 위에 서 있지만,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 초까지 은광이 번성했던 당시에는 이 신사 주변의 산맥 전체에 대규모 광산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광부와 그의 가족들은 인공적으로 조성된 평탄한 계단식 부지 위에 지어진 집에 살면서 이 신사에서 매일 기도를 올리며 생활했습니다. 이처럼 사히메야마 신사는 생활의 중심지였을뿐만 아니라, 마음을 의지할 수 있는 정신적 터전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그들이 살았던 주거지는 남아있지 않지만 주거용 건물을 짓기 위해 깎아놓은 돌담의 대부분은 지금도 이 근처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사히메야마 신사는 이와미 은광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종교 시설이었습니다. 눈에 띄게 커다란 배전 등 현재도 남아있는 건물들은 모두 1819년에 지어진 것입니다. 배전을 이렇게나 크게 지은 이유는 오늘날까지 이와미 지역의 중요한 민속예능으로 전해지는 일종의 종교적 무용인 가구라를 상연하여 신토의 신들께 바치기 위함이었습니다.

**<日本語仮訳>****佐毘売山神社**

鉱山の守り神である金山彦命を祀る佐毘売山神社は、かつてこの地域でも有数の豊富な銀鉱脈を誇った場所の真上に建てられています。現在、石見銀山の中心的観光スポットのひとつである龍源寺間歩の入口から200メートルほど離れた険しい岩山の上に建っていますが、16世紀後半から17世紀初頭に銀山が栄えた頃は、この神社周辺の山腹全体に大規模な鉱山集落が広がっており、坑夫とその家族は、人工的に平坦かつ段々状にされた近くの区画に建てられた家に住んで、この神社で毎日祈りを捧げて暮らしていました。このように、佐毘売山神社は生活の中心であり、精神的なよりどころでもありました。現在、それらの住居は残っていませんが、住居建設のために組まれた石垣の多くは、今でもこの近くで見ることができます。

佐毘売山神社は、石見銀山の歴史を通じて重要な宗教的施設でした。非常に大きな拝殿など、現在残っている建物は1819年に建てられたものです。拝殿がこれほど大きい理由は、今も石見地域の重要な民俗芸能として伝えられている、神道の神々に捧げられた宗教的舞踏の一種、神楽がここで上演されていたためです。

【タイトル】 大久保長安墓所

【想定媒体】 WEB

**<韓国語>****오쿠보 나가야스의 묘소**

1603년부터 1867년까지 일본을 통치한 도쿠가와 막부의 초대 쇼군이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1543~1616)는 1600년에 이와미 은광의 지배권을 획득한 후 오쿠보 나가야스(1545~1613)를 은광의 감독자로 임명했습니다. 그는 광산 업무에 숙련된 관리자이자 전문가로 잘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나가야스는 이에야스의 신뢰에 부응하여 기대 이상의 큰 성과를 내보였습니다. 이에야스로부터 공적을 인정받은 나가야스는 후에 사도섬(현재의 니가타현 앞바다)과 이즈(시즈오카현)의 금광 등 귀금속 자원이 풍부한 수많은 광산에서 감독자로 등용되었습니다.

나가야스는 6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이미 묘비라기보다는 기념비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훌륭한 무덤이 여러 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일본에서는 생전에 무덤을 세우면 덕을 쌓을 수 있다고 여김). 그러나 나가야스의 사후에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가야스가 횡령과 반역 혐의를 받게 되면서 그의 일곱 아들과 부하들이 자살을 강요당하고 재산 역시 전부 압류되었던 것입니다. 이 고발은 정치적인 동기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사실이냐 어찌됐든 오쿠보 나가야스는 그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은폐하고 싶은 존재가 되었고 그의 기념비 역시 파괴되거나 무시당하는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이와미 은광 사람들은 1794년이 되어서야 새로운 묘비를 세우는 것에 찬성했는데, 이 묘비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나가야스는 은이 풍부하게 산출되는 갱도를 여러 개 개척해 은광이 가장 번성했던 시기의 초석을 닦은 인물로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나가야스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는 그가 개발한 갱도 중 하나에 그의 성을 붙여 오쿠보 갱도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日本語仮訳>****大久保長安墓所**

1603年から1867年まで、日本を統治した徳川幕府の初代将軍である徳川家康（1543年～1616年）が、1600年に石見銀山の支配権を獲得した際、家康は銀山の監督者として、鉱業関連の熟練した管理者であり専門家として知られた大久保長安（1545年～1613年）を任命しました。長安は、家康の信頼に応え、期待以上の大きな成果を上げました。家康は長安の功績を認め、後に佐渡島（現在の新潟県沖）や伊豆（静岡県）の金鉱山など、貴金属資源が最も豊富な鉱山の多くで、監督者に登用しました。

長安は69歳でこの世を去りましたが、その時すでに、墓石というよりも記念碑というほどの立派な墓がいくつも建てられていました（日本では、生前にお墓を建てることにより、徳を積むことができるとされてきました）。しかし長安の死後、予期せぬことが起こります。長安は横領と謀反の嫌疑をかけられ、長安の7人

の息子と部下は自害を余儀なくされ、財産すべてが押収されました。この告発は政治的な動機によるものであった可能性があります。いずれにせよ大久保長安は、彼と関係のあった人々が、そのことを隠したいと思うような存在になり、彼の記念碑は取り壊され、あるいは見向きもされなくなりました。1794年になってようやく、石見銀山の人々は新しい墓石を立てることに賛成し、この墓石は現在も残っています。また、長安は銀の産出が豊富な坑道を多く開拓し、銀山繁栄の礎を築いた人物として高く評価され、長安の死後、彼が開発した坑道の一つは大久保間歩として、長安の姓が与えられています。

【タイトル】 代官所

【想定媒体】 WEB

**<韓国語>****다이관소**

에도 시대(1603~1867)에 이와미 은광은 도쿠가와 막부, 즉 중앙 정부의 직할령이었습니다. 막부의 대표자인 다이관은 경비를 강화한 다이관소에서 은광과 그 주변의 통치하는 등의 집무를 수행했는데, 바로 이 다이관소를 중심으로 오모리 마을이 발전했습니다. 다이관의 책무는 세금 징수, 법질서 유지, 은광 개발을 통한 산출량 및 효율 향상의 확보 등이었습니다. 다이관소는 이러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로 세금 계산이나 은 채굴 등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현지 관리를 다수 고용했습니다.

현재 이와미 은광의 다이관소가 있었던 장소에는 1815년에 세워진 문과 1902년에 지어진 본관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자료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본관에는 중세부터 1923년 은광이 폐광될 때까지 이와미 은광의 채굴 역사가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랜 세월을 거치며 변화한 다양한 채굴 장비의 모습, 광부와 그의 가족들의 생활상, 현지 관리가 일하던 모습, 그리고 다른 장소에서 이와미 은광으로 새로 부임한 다이관이나 관리가 일종의 매뉴얼인 두루마리 그림으로 미리 임무를 학습하는 모습 등도 전시되고 있습니다.

**<日本語仮訳>****代官所**

江戸時代（1603年～1867年）、石見銀山は徳川幕府、すなわち中央政府の直轄領でした。警備を固めた代官所で、幕府の代表あるいは代官が、銀山およびその周辺の統治に関する執務を行い、この代官所を中心に大森の町が発展しました。代官の責務としては、税の徴収、法と秩序の維持、銀山の開発による産出量および効率向上の確保などがありました。代官所はこれらの責務を実行するため、主に税の計算や銀の採掘など、特定の分野を専門とする地元の役人を数多く雇いました。

現在、石見銀山の代官所があった場所には、1815年に建てられた門と1902年に建てられた本館があります。現在本館は資料館となっており、中世から1923年の閉山に至るまでの石見銀山における採掘の歴史が詳しく説明されています。資料館には、長年にわたるさまざまな採掘機器の変遷、坑夫やその家族の暮らしぶり、現地役人の仕事ぶり、さらには別の場所から新たに石見銀山に赴任した代官や役人が、マニュアルである絵巻物を使って任務について事前に学習した様子などが展示されています。

【タイトル】 沖泊道（よづくはで）

【想定媒体】 WEB

**<韓国語>****오키도마리 도로(요즈쿠하데)**

그림처럼 아름다운 논과 밭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마을인 니시타는 과거 이와미 은광과 유노쓰항, 오키도마리항을 연결하는 역참 마을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곳입니다. 은이 이 길을 따라 해안으로 운반된 것은 16세기 후반의 40년 동안에 불과했지만, 19세기 후반까지 이 길은 은광을 오가는 물류의 주요 경로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곳을 지나면서 니시타의 찻집과 역참, 술집 등이 번창했으며 정기적으로 열리던 시장에는 근교 마을에 사는 사람들까지 모여들어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마을의 위쪽 구석에는 상업의 신 에비스를 모신 가미이치 에비스 사당이 있습니다. 지역민들은 이 작은 사당에서 시장의 번영을 기원했습니다. 또한 화재를 막기 위해 자비의 보살인 관음보살에 기도를 드리거나 도로변에 안치된 석조불상에 안전을 기원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서민들이 신앙으로 믿었던 다양한 대상들은 지금도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수확한 벼를 천일동안 건조시키는 ‘요즈쿠하데’라는 옛날 그대로의 전통 기법도 흥미로운 볼거리 중 하나입니다. 니시타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이 방식은 사용하는 목조 틀이 올빼미와 닮았다고 해서 지역 방언으로 ‘올빼미’를 뜻하는 단어 ‘요즈쿠’에서 그 이름이 유래했습니다.

**<日本語仮訳>****沖泊道（よづくはで）**

現在は絵のように美しい田園に囲まれた静かな集落となっている西田は、かつて石見銀山と温泉津港および沖泊港を結ぶ宿場町として、重要な役割を担っていました。銀がこの道に沿って海岸まで運ばれたのは、16世紀後半の40年間のみでしたが、この道は19世紀後半まで、銀山との間の主要な物流経路となっていました。多くの人が行き交ったことで、西田の茶屋、宿場、酒場は繁栄し、定期的に開催される市場には近隣の村から多くの人々が集まり、賑わいました。

集落の上手のはずれには、商いの神様である恵比寿を祀る上市恵比寿神社があります。地域の人々は、この小さな祠で、市場の繁栄を祈願しました。そして人々は、火災が発生しないよう、慈悲の菩薩である観音様に祈り、道沿いには石を彫って作った仏像を安置して、安全を祈願しました。このように、庶民が信仰の対象としたさまざまなものが今も残っています。収穫した稲を天日で乾燥させる昔ながらの「ヨズクハデ」という伝統技法もとても興味深いです。西田地域ならではのこの方式は、使われる木枠がフクロウに似ていることから、地元の方言で「フクロウ」を意味する「ヨズク」という言葉を使った名前がつけられました。

【タイトル】 沖泊道（松山）

【想定媒体】 WEB

**<韓国語>****오키도마리 도로**

이와미 은광과 유노쓰항, 오키도마리항을 연결하는 이 구불구불한 길은 산과 울창한 숲을 지나 일본해로 이어집니다. 모리 씨족이 은광의 지배권을 수중에 넣었던 16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이 길은 만들어지자마자 이와미 은광으로 향하는 중요한 교통로로 활용되었습니다. 은광에서 채굴되고 제련된 은은 소박한 짐수레나 소에 실려서 항구로 운반되었고 항구로 모인 다양한 물자는 은광 주변 마을에 공급되었습니다.

유노쓰 오키도마리 도로는 원래 흙으로 된 산길이었지만, 에도 시대(1603~1867)에 그 일부가 사람들이 쉽게 지나다닐 수 있도록 돌로 포장되었습니다. 이때 이용된 채석장은 지금도 도로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은이 이 길을 따라 해안으로 운반된 것은 16세기 후반의 40년 동안에 불과했지만, 19세기 후반까지 이 길은 은광으로 향하는 물류의 주요 경로로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오모리에서 유노쓰나 오키도마리까지 총 14km의 도로를 걸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폭우가 내린 후에는 걷기 어려운 구간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日本語仮訳>****沖泊道**

石見銀山と温泉津港および沖泊港を結ぶ曲がりくねった道は、山々や鬱蒼とした森を通過して日本海へと続きます。毛利氏が銀山の支配権を手中に収めた 16 世紀後半に作られたこの道は、すぐに石見銀山の交通における主要道となりました。銀山で採掘・製錬された銀が質素な荷車に載せられ、あるいは牛に引かれて港へ輸送され、港からは、さまざまな物資が運ばれて、銀山周辺の集落に供給されました。

温泉津沖泊道は当初は土の山道でしたが、江戸時代（1603 年～1867 年）にその一部に石畳が敷かれ、通行がしやすくなりました。この目的のために使われた採石場は、現在でもこの道沿いに見ることができます。銀がこの道に沿って海岸まで運ばれたのは、16 世紀後半の 40 年間だけでしたが、19 世紀後半まで銀山への主要物流経路として残りました。現在でも、大森から温泉津および沖泊まで、全 14 キロの道を歩くことができますが、大雨の後には通行が困難になる区間もありますのでご注意ください。

【タイトル】 鞆ヶ浦道 山吹城登城口

【想定媒体】 WEB

**<韓国語>****도모가우라 도로 야마부키성 입구**

이와미 은광과 도모가우라항을 잇는 이 7.5km 길의 시작점은 가장 가까운 건물에서 약간 떨어진 언덕 중턱의 풀이 우거진 곳에 자리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16세기 후반에 이 장소는 은광 전체의 중심지였습니다. 산나이 마을로 알려진 이 지역의 중심부에는 은광을 감독하는 관리의 거점이었던 관리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는 광부와 그의 가족들이 살았던 주거지와 상점, 그리고 묘지가 있는 여러 사찰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맨 처음 이와미 은광을 지배했던 오우치 씨족은 도모가우라 도로를 개통하면서 마을 바로 바깥쪽에 있는 산 정상에 야마부키성을 지었습니다. 이 언덕 위에 지어진 요새는 지방의 군벌들이 끊임없이 적대와 동맹 관계를 반복했던 전국 시대에 은광과 은 광석의 수송로를 적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오우치 씨족은 1562년 적이었던 모리 씨족에게 야마부키성과 은광 자체의 지배권을 빼앗기고 말았지만, 야마부키성과 산나이 마을은 그후로도 40년간 은 채굴 공동체의 중심적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1600년 이와미 은광이 도쿠가와 씨족의 손에 넘어가고 그들의 기치 아래 일본 전체가 통일되면서 1867년까지 일본을 통치한 도쿠가와 막부가 성립되었습니다. 도쿠가와 막부는 산나이를 버리고 그 대신 산기슭에 위치한 오모리 지구를 은광 관리의 중심지로 선택했습니다. 그후 오모리 마을은 이 다이칸쇼(막부의 직할령을 관리하는 관청)를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때부터 은은 바다가 아닌 육지를 통해 오노미치까지 운반된 후, 거기에서 다시 오사카나 에도(현재의 도쿄)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자연으로 완전히 뒤덮인 야마부키성에 오르면, 일본해가 한눈에 내려다보일 정도로 넓게 트여 있고 부분적으로 산성의 기초인 석축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지금도 걸을 수 있을 정도로 보존된 도모가우라 도로는 400여년 전 험한 숲길을 따라 무거운 광석을 옮겼던 사람들의 엄청난 노력을 가늠케 합니다.

**<日本語仮訳>****鞆ヶ浦道 山吹城登城口**

石見銀山と鞆ヶ浦港を結ぶこの 7.5 キロの道の始点は、最も近い建物からいくらか離れた緑が生い茂る丘の中腹にあるため、現在では見つけるのが難しくなっています。しかし 16 世紀後半には、この場所は銀山全体の中心地でした。山内集落として知られるこの地区の中心には、銀山の監督を行う役人の拠点である管理施設がありました。その近隣には、坑夫とその家族の住居、商店、さらに墓地を有する複数の寺院が建ち並んでいました。最初に石見銀山を支配した大内氏は、鞆ヶ浦道を開通させるとともに、集落のすぐ外側の山の頂上に山吹城を建てました。この丘の上に建つ要塞は、地方の武将たちが絶えず敵対と

同盟関係を繰り返していた戦国時代において、銀山と銀鉱石の輸送路を敵の侵略から守る役割を果たしました。

大内氏は、1562年に敵対する毛利氏の手によって、山吹城、さらには銀山自体の支配権を奪われましたが、山吹城と山内集落はその後40年間にわたって、銀を採掘する共同体の中心的地位を維持しました。しかし、1600年には石見銀山が徳川氏の手に渡り、同氏の旗印のもと日本全土の統一が進み、1867年まで日本を統治することとなる徳川幕府が成立しました。徳川幕府は山内を破棄し、山の麓にある大森地区を銀山管理の中心とすることを選びました。その後、大森の町はこの代官所（幕府の直轄領を管理する官庁）を中心に発展し、銀の輸送については、海ではなく陸を通して尾道まで運び、そこから大阪や江戸（現在の東京）へ運ば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

現在、緑に覆われた山吹城に上ると、頂上は日本海が一望できるほど開けており、部分的に山城の基礎である石垣が残っています。また鞆ヶ浦道は今でも歩くことができ、400年以上前に森の中を歩いて重たい鉱石を運ぶのに要した、信じられないほどの労力を思い起こさせてくれます。



【タイトル】 鞆ヶ浦 港湾

【想定媒体】 WEB

**<韓国語>****도모가우라항**

이와미 은광은 1527 년에 상인인 가미야 주테이가 근처 연안을 항해하던 중 산 정상에 햇빛이 반짝이는 것을 알아채면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규슈의 하카타(현재의 후쿠오카시)에 기반을 두고 있었던 가미야는 당시 이 지역을 지배하던 오우치 씨족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오우치 씨족은 곧바로 이 “부의 산”을 자신들의 지배 하에 두었습니다. 오우치 씨족은 이와미 은광에서 채굴한 철광석을 하카타와 한반도로 수송하고 제련하기 위해 은광에서 가장 가까우면서도 일본해의 거센 파도와 세찬 북풍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한 도모가우라 만에 항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와미 은광에서 항구까지 구릉지를 지나는 흙다리를 건설하는 등 무거운 짐도 충분히 운반할 수 있는 7.5km 의 길을 정비했습니다. 그러나 이 노력이 빛을 발한 것은 고작 30 여 년에 불과했습니다.

1562 년에 오우치 씨족이 적이었던 모리 씨족에게 이와미 은광의 지배권을 빼앗기게 되면서 도모가우라의 항구와 길은 더 이상 은광석의 수송로로 이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때 주변의 지역민들도 다시 어업이나 농업에 종사하게 되었는데 이는 오늘날까지 이 지역의 중심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도모가우라에는 오우치 씨족이 은 수송선을 계류시키기 위해 해안가의 부드러운 암석층을 깎아 만든 설비가 지금도 남아 있어 전성기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004-011

**<日本語仮訳>****鞆ヶ浦港**

石見銀山は、1527 年に商人の神谷寿貞が付近の沿岸を航行中に陽の光に輝く山の頂に気付いたことから、発見されたと伝えられています。九州の博多（現在の福岡市）に本拠を構えていた神谷は、この地を支配していた大内氏にその事実を報告しました。大内氏はすぐさま、この“富の山”を支配下に収めました。さらに大内氏は、石見銀山で採掘された鉄鉱石を博多、朝鮮半島に輸送して製錬を行うために、銀山から最も近く、望ましい入り江である鞆ヶ浦に港を設け、日本海の荒波や厳しい北風からの防御を図りました。そして、石見銀山からこの港まで、丘陵地帯を越える土橋を建設するなどして、重い荷物の運搬に適した 7.5 キロメートルの道を整備しました。しかし、この努力が報われたのは 30 余年の間にすぎませんでした。1562 年に大内氏が毛利氏に敗れ撤退した後、鞆ヶ浦の港や街道は鉄鉱石の輸送には使われなくなりました。現地の人々は、再び漁業や農業に従事するようになり、今でもこの地における中心的な産業となっています。鞆ヶ浦には、大内氏の銀輸送船を係留するために海岸沿いの柔らかい岩石の層を削って作られた設備が今も残っており、最盛期を偲ばせてくれます。

【タイトル】 沖泊 港湾

【想定媒体】 WEB

**<韓国語>****오키도마리항**

오키도마리항은 이와미 은광에서 일본 국내외로 은을 출하하던 항구 중에서 두 번째로 개발된 항구입니다. 1562년에 이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여 지배한 모리 씨족은 이와미 은광과 일본해를 연결하는 새로운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이 도로의 종착지였던 오키도마리는 상업 항구와 군사 기지라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1570년 모리 씨족은 항구 입구에 쌓은 요새를 통해 오키도마리로부터의 해상 수송로와 은광 인근 유노쓰항 주변의 물자 공급 경로 모두를 확보하고, 항구 근처에는 도로를 따라 직사각형 모양으로 토지를 배치한 독특한 형태의 마을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17세기 초반 이와미 은광이 에도에 거점을 둔 도쿠가와 막부의 지배 하에 놓이면서 은은 연안지방을 피해 우선적으로 육로를 이용해 오노미치로 운반되었고, 그곳에서 다시 오사카를 경유하여 에도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오키도마리는 쓸쓸한 어촌 마을로 변화했지만 그 속도가 빠르지 않았던 덕분에 오키도마리의 역사적인 분위기는 대부분 그대로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16세기에 만들어진 이 마을의 구획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사람들이 해상의 안전을 기원하던 신사도 최근에 재건되었습니다. 오키도마리항 끝까지 걸어가면 한때 요새로 사용되었던 섬들이 저멀리 바다에 보입니다. 또한 은 수송선을 계류시키기 위해 부드러운 암석층을 깎아 만든 60여 개의 설비도 구경할 수 있습니다.

004-012

**<日本語仮訳>****沖泊港**

沖泊港は、石見銀山から国内外へと銀を出荷するための港として2番目に開発された港です。毛利氏は、1562年にこの地を完全に掌握し、支配すると、石見銀山と日本海を結ぶ新たな道を開きました。この道の終着点であった沖泊は、商業港と海軍基地という2つの機能を果たしました。1570年に港の入口に毛利氏が築いたとりでにより、沖泊からの海上輸送と、銀山から近くの温泉津港周辺の物資供給経路の両方が確保され、港の近くでは道に沿って特徴的な長方形の土地区画の村ができました。

しかし、17世紀初頭に石見銀山が江戸を拠点とする徳川幕府の支配下に入ると、銀は、沿岸部を避けてまず陸路で尾道へ運ばれ、そこから大阪を経由して江戸へと運ば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沖泊はひっそりとした漁村へと変化しましたが、そのゆっくりとした衰退ゆえに、沖泊の歴史的な雰囲気はほとんど変わることがありませんでした。16世紀につくられたこの村の区画はそのまま残されており、人々が海上の安全を祈願する神社が最近再建されました。沖泊港の端まで歩くと、かつてはとりでとして機能していた島々を見渡すことができます。また、銀輸送船を係留するために柔らかい岩石の層を削って作られた設備が60個余り残っ

ているのを目にすることができます。

004-013

石見銀山多言語解説協議会

【タイトル】大森銀山重要伝統的建造物群保存地区（全体）

【想定媒体】WEB

---

## <韓国語>

### 오모리 은광 중요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

1603년 적대 관계에 있었던 대부분의 무장을 정복한 도쿠가와 이에야스(1543~1616)는 1867년까지 일본을 통치하게 되는 도쿠가와 막부를 수립했습니다. 이와미 은광이 도쿠가와 막부의 지배 하에 놓이고 은광 기슭에 자리한 오모리 지구에 실무를 담당하는 다이칸쇼(막부의 직할령을 관리하는 관청)가 설치되면서 오모리 마을은 이와미 은광의 행정과 상업의 중심지로 번영하게 되었습니다.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다이칸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인들과 무사들이 이주해 오면서 다이칸쇼 주변에 마을이 형성되었고, 그에 따라 더욱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며 마을의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했습니다.

### 다양한 거리 경관

비교적 좁은 지역에서 급격한 발전을 이룬 오모리에는 무사, 상인, 서민들의 집, 그리고 사찰과 신사가 기묘하게 뒤섞인 구조의 마을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는 사회 계급에 따라 인접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당시 일본에서는 매우 드문 형태였습니다. 마을은 1800년에 발생한 화재로 대부분 소실되었지만, 이 패치워크 모양의 구획은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오모리의 특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마을 안을 걷다보면 대부분의 상점과 공동 주택(나가야, 칸을 막아서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길게 만든 집)은 큰 길과 바로 접해있는 반면, 무가 저택에는 가옥과 도로 사이에 담장으로 둘러싸인 정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도 시대(1603~1867)에 정원은 신분을 상징하는 표식이자 실용적인 목적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중에는 정원 내부에 작은 건물을 짓고 임대를 통해 수입을 얻는 집도 있었습니다.

### 붉은 기와와 매화나무

오모리는 마을 내 많은 집들의 지붕에 붉은 기와가 사용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이 지역의 철분이 다량 함유된 점토로 만들어진 세키슈 기와(세키슈는 이와미 지역의 다른 이름)는 이 마을이 자리한 시마네현을 포함해 주고쿠 지역에서 흔하게 사용됩니다. 반면, 무가 저택이나 행정 시설로 이용된 비교적 큰 규모의 건물에는 주로 회색 기와가 사용됩니다. 높은 곳에서 마을을 내려다보면 큰 건물은 대부분 지붕이 회색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서민들의 집과 차별성을 둔 회색 기와는 권력의 상징으로서 무사 계급에게 특히 선호되었습니다. 마을의 경관을 통해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매화나무입니다. 그 대부분은 은광이 번영했던 시대에 심겨진 것입니다. 광부들은 우메보시(매실장아찌) 속의 구연산이 분진이 날리는 갠도 속에서 의식을 청명하게 만들어 주는 효과가 있다고 믿고 방진 마스크 속에 우메보시를 끼워 넣었다고 합니다.

### 현재의 오모리

오모리 마을은 역사지구로 지정되어 개발이 제한된 곳이지만 오래된 건물들 중 일부는 새로운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에도 시대의 농가를 매점이나 카페, 갤러리로 리뉴얼한 군젠도가 그 좋은 예입니다. 이곳에서는 의류, 지역 먹거리를 구입하거나 수공예품을 구경하고 앉아서 정원을 바라보며 런치나 간단한 식사도 즐길 수 있습니다.

오모리는 주민들의 프라이버시와 생활이 존중되는 한 기쁜 마음으로 방문객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마을입니다. 함부로 주택 부지 안에 들어가거나 허가 없이 주민들의 사진을 찍는 행위는 삼가 주십시오.

004-013

## <日本語仮訳>

### 大森銀山重要伝統的建造物群保存地区

1603年、敵対するほとんどの武將を征服した徳川家康（1543-1616）により、その後1867年まで日本を統治することになる徳川幕府が打ち立てられました。石見銀山も徳川幕府が支配下に置かれ、銀山の麓の大森地区に実務を担当する代官所（幕府の直轄領を管理する官庁）が設置されたことにより、大森の町は石見銀山の行政と商業の中心地として機能してきました。製品やサービスに対する代官所の要求を満たすために商人や武士が移り住んできたことで、代官所の周りに町が誕生し、それによりさらなる雇用が生まれ、町の人口は増え続けました。

#### 多様な街の景観

大森は比較的狭いエリアで急激に発達した結果、武士、商人、庶民の家、そして寺社が密集し、奇妙に入り交じった構造の町ができました。これは、社会階級ごとに隣接する別のエリアに住むのが一般的だった当時の日本においては珍しいことでした。町の大部分は1800年の火事で失われてしまいましたが、このパッチワークのような区画は、他所では見られない大森の特徴として残っています。町の中を歩けば、ほとんどの商店や長屋（間仕切りをして多くの世帯が暮らせるように長く作った家）が大通りに直接面しているのに対し、武家屋敷には家屋と道路の間に塀で囲まれた庭があるのを目にするでしょう。江戸時代（1603~1867）、庭は地位の象徴でしたが、実用的な目的でも使われており、中には、庭の中に小さな建物を建てて貸し出し、収入の足しにしていた家もありました。

#### 赤瓦と梅の木

大森は、町の多くの家々の屋根に赤い瓦が使われていることでも知られています。この地域で採れる鉄分の多い粘土で作られる石州瓦（石州は石見地域の別名）は、ここ島根県を含む中国地方のいたる所で一般的に使われています。一方、武家屋敷や行政施設だった比較的大きな建物の場合、灰色の瓦が使われていることが多いです。高い場所から町を見下ろすと、大きな建物の多くは屋根が灰色であることに気づくでしょう。庶民の家とは違う灰色の瓦は権威の象徴として、武士階級に好まれていました。町の景観のもう一つの特徴は、梅の木です。その多くは、銀山がまだ栄えていたころに植えられました。梅干しの中のクエン酸が、粉塵の舞う坑道の中で意識を清明に保つ効果があると考えられており、防塵マスクの中に梅干しを挟んだものも考案されました。

現代の大森大森の町は歴史地区に指定され、開発が制限されていますが、古い建物の一部は新たな用途で使われています。その良い例が、江戸時代の農家をリニューアルして売店・カフェ・ギャラリーにした群言堂です。ここでは衣類や地元の食べ物を購入したり、手工芸品を見たり、座って庭を眺めながらランチや軽食を食べることができます。

大森は住民のプライバシーと生活を尊重する限り、喜んで訪問者を迎えてくれる歴史ある町です。ですが、住宅の敷地内に入ったり、許可なく住民の写真を撮ったりするのはおやめください。

【タイトル】 大森伝建・熊谷家

【想定媒体】 WEB

**<韓国語>****오모리 구마가이 가문 주택**

구마가이 가문은 수세기 동안 오모리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이 큰 가문이었습니다. 구마가이 가문은 1867년까지 일본 전국을 통치한 도쿠가와 막부가 이와미 은광과 그 주변을 지배 하에 두었던 1600년대 초기부터 그 권력을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마가이 가문은 초기에는 광산업으로 부를 쌓았지만 이후에는 지역의 중앙 정부인 부교쇼(무가 시대에 행정 사무를 담당했던 관청)의 재정이나 계약 업무 등을 담당하며 폭 넓은 분야로 사업을 확대시켜 나갔습니다. 구마가이 가문은 적어도 1718년부터 은의 무게를 재고 순도를 측정하여 질 낮은 제품이 발견되면 채굴업자에게 벌금을 징수하는 ‘가케야’라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 임무는 막부의 조세 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구마가이 가문은 임무를 수행하며 상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구마가이 가문의 당주는 오모리 지구를 관할하고 마치부교(부교쇼에서 집무하는 장관급 관리)와 주민들 사이를 중개하는 마치도시요리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마을의 관리들이 자주 모임을 가졌던 구마가이 가문의 저택은 오모리 마을의 대부분이 화재로 소실된 이듬해인 1801년에 재건된 2층짜리 가옥이었습니다. 저택은 20세기 말까지 주거용으로 사용되다가 마지막 창고가 완공된 1868년 당시의 외관을 복원하기 위해 개보수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저택은 이와미 은광이 번영했던 시절 무사 가문의 생활상을 현재에 전하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중요한 손님을 맞이하던 화려한 방을 포함해 대부분의 방이 방문객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日本語仮訳>****大森・熊谷家**

熊谷家は何世紀もの間、大森でとりわけ富裕で影響力のある一家でした。熊谷家は、1867年まで日本全土を統治した徳川幕府が石見銀山とその周辺を支配下に置いた1600年代初頭から、その権力を拡大し始めました。熊谷家は、鉱山業で財を成しましたが、後には地域の中央政府である奉行所(武家時代に行政の事務を担当した官庁)の財政や契約業務など幅広い分野に事業を拡大しました。熊谷家は、少なくとも1718年から、銀の重量を量り、純度を測定し、粗悪品が見つかった採掘業者から罰金を徴収する「掛屋」という役目を任されていました。この役目は幕府の徴税活動の重要部分であったため、熊谷家はその働きによりかなりの報酬を得ました。

また、熊谷家の当主は大森地区を管轄し、町奉行(奉行所で執務する長官級の官吏)と住民との仲介役を担う町年寄に就きました。町役人がしばしば会合を開いた熊谷家の邸宅は、大森町の大部分が火事で焼失した翌年の1801年に再建された二階建ての家屋でした。邸宅は20世紀末まで住居として

使用されたのち、最後の蔵が完成した 1868 年当時の外観を復元するために改修工事が行われ、石見銀山が栄えた時代の富裕な武家の暮らしぶりを今に伝えています。重要な来客を迎えるための豪華な部屋を含め、ほとんどの部屋が見学者に開放されています。

【タイトル】 大森伝建・五百羅漢

【想定媒体】 WEB

**<韓国語>****오모리 오백나한**

나한이란 불교에서 가장 높은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한 자를 말합니다. 나한께 기도를 드리면 죽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가족들에게도 평안이 찾아온다는 신앙에 뿌리를 둔 오모리의 라칸지 절(나한사)은 이와미 은광의 채굴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라칸지 절은 에도 막부의 제 8 대 쇼군인 도쿠가와 요시무네(1684~1751)의 차남이자, 당시 이와미 은광에서 부교(무가 시대에 행정 사무를 담당했던 장관급 관리)를 역임했던 다야스 무네타케(1716~1771)의 후원을 받아 1741 년에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라칸지 절이 완공되기까지 25 년이라는 세월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었지만, 그 결과 훌륭하고 인상적인 모습의 사찰이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산 중턱에 만들어진 세 동굴에는 수백 개의 석조 나한상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자세와 표정이 각각 다른 석상들을 보며 참배객들은 죽은 가족과 닮은 모습의 석상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이 석상들의 뒤편에는 지역의 신도부터 다야스 씨족이나 에도(현재의 도쿄)의 궁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기부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현재 참배객들은 사찰이 창건된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아치형의 돌다리를 건너 각각 250 개와 251 개의 불상이 안치되어 있는 두 동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칸지 절은 ‘오백나한’이라고도 불리지만 정확히 500 이라는 수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훨씬 더 많은 불상이 존재했지만 수세기를 거치는 동안 많은 불상이 파괴되면서 현재 남아있는 나한상이 500 개입니다.

**<日本語仮訳>****大森・五百羅漢**

羅漢とは、仏教で最高の悟りの境地に達した者を意味します。大森の羅漢寺は、羅漢に祈ることで亡くなった人の霊が救われ、家族にも平安がもたらされるという信仰に基づき、石見銀山の採掘で亡くなった人々を祀るために建てられました。

羅漢寺の創建は、1741 年に、江戸幕府の第 8 代将軍徳川吉宗（1684 年～1751 年）の次男で、当時石見銀山で奉行（武家時代に行政の事務を担当した長官級の官吏）を務めた田安宗武（1716 年～1771 年）の支援を受けて開始されました。羅漢寺の完成には 25 年の歳月と莫大な費用を要しましたが、その結果、素晴らしい寺が出来上がりました。山の中腹に 3 つの洞窟が掘られ、数百体の羅漢の石像が安置されました。石像は、それぞれ姿勢と表情が異なるため、参拝者は亡くなった家族



に似た石像を見つけることができました。これらの石像の背面には、地元の信徒から田安氏一族や江戸（現在の東京）の女官に至るまで、寄進者の名前が記されていました。

現在、参拝者は寺院創建時からあるアーチ形の石橋を渡り、それぞれ 250 体と 251 体の像が安置されている 2 つの洞窟に入ることができます。羅漢寺は「五百羅漢」とも呼ばれていますが、これは正確な数字 500 を意味す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実際の像の数はかつてはかなり多かったものの、何世紀もの間に損壊したものも多く、現在残っている羅漢は 500 体です。

【タイトル】 大森伝建・河島家

【想定媒体】 WEB

**<韓国語>****오모리 가와시마 가문 주택**

에도 시대(1603~1867) 오모리에서 가장 번영했던 무사 가문 중 하나로 꼽히는 가와시마 가문은 이와미 은광에서 일하는 광부들을 감독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막부의 명을 받고 이와미 지역에 부임한 부교(무가 시대에 행정 사무를 담당했던 장관급 관리)로부터 직무를 부여받은 가와시마 가문은 1610년부터 1867년 에도 막부의 통치가 종료될 때까지 이 역할을 완수했습니다. 1800년 오모리의 대부분이 화재로 소실된 직후에 지어진 이 광대한 규모의 저택은 가와시마 가문의 영향력과 부를 잘 보여줍니다. 저택은 창고와 별채의 증축을 거쳐 1825년에 지금의 외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현재 일반인에게도 공개된 가와시마 가문 저택은 미술품이나 식기, 조리기구와 그 외 다양한 물품들로 장식되어 있어 약 2세기 전 막대한 부를 누린 가문의 생활상을 오늘날에 전해줍니다. 저택의 정면에 서면 두 개의 현관이 보입니다. 좌측에 있는 작은 현관은 거주자용으로 사용되었으며, 우측의 커다란 현관은 자그마한 정원을 마주한 두 개의 다다미 방으로 연결됩니다. 이 커다란 현관은 부교나 관리, 마치도시요리(주요 도시에서 시중의 공무를 처리하던 관리) 등 중요한 방문객을 맞이할 때만 개방되었습니다. 정원을 마주보고 있는 툇마루에 앉으면 한때 이곳에서 오갔던 진지한 대화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듯합니다.

**<日本語仮訳>****大森・河島家**

江戸時代（1603年～1867年）に大森で特に栄えた武家の一つであった河島家は、石見銀山の鉱夫の監督を担当する役人でした。幕府の命を受け石見に赴任した奉行（武家時代に行政の事務を担当した長官級の官吏）から職務を与えられた河島家は、1610年から1867年に江戸幕府の統治が終了するまでこの職務を全うしました。1800年に大森の大部分が火事で焼失した直後に建てられた広大な邸宅は、河島家の影響力と富を示しています。蔵や別棟の増築を経て、1825年に現在の外観になりました。

現在一般に公開されている河島家住宅には、美術品、食器、調理器具その他の品々が飾られており、およそ2世紀前の富裕な一家の暮らしぶりを伝えています。邸宅の正面に立つと、玄関が二つあることがわかります。左側の小さな玄関は住人用で、右側の大きな玄関は、小さな庭に面した畳敷きの2つの部屋につながっています。この大きな玄関は、奉行や役人、町年寄（主な都市において、市中の公務を処理する官吏）など重要な来客を迎える際にしか開かれることはありませんでした。庭に面した縁側に座っていると、かつてここで交わされた厳粛な会話を想像できるでしょう。

【タイトル】 温泉津重要伝統的建造物群保存地区（全体）

【想定媒体】 WEB

**<韓国語>****유노쓰 중요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

이전까지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어촌으로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았던 온천 마을 유노쓰는 1561년 모리 씨족이 좁고 긴 협곡 입구에 항구와 수군을 위한 요새를 지으면서 서서히 이와미 은광의 중요한 공급 거점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마을 양쪽에 바위 투성이의 가파른 경사면이 있어서 적을 방어하기에 용이했던 유노쓰는 곧 이와미 은광에 식량, 연료, 건축자재, 술, 담배 등 필수품을 공급하는 주요 항구로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모리 씨족은 중국과 한반도뿐 아니라 멀리 떨어진 나라들과도 무역을 하며 마을에 국제적인 특성을 부여했습니다.

유노쓰는 에도 시대(1603~1867)에 한층 더 번영을 누리며 오사카에서 세토내해와 일본해를 지나 호쿠리쿠 지방까지 연결되는 '기타마에부네' 항로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1672년에 시작되어 후에 홋카이도까지 범위를 넓힌 이 유익한 항로는 해운업에 뛰어난 지역의 몇몇 씨족들이 막대한 부를 쌓게 한 원동력을 제공했습니다. 현재 유노쓰의 거리 모습은 도로와 수로를 포함해 적어도 이 풍요로웠던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유노쓰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건물은 1747년의 화재로 마을이 소실된 후에 지어진 나이토 가문의 주택입니다. 1570년 모리 씨족에 의해 유노쓰의 부교(무가 시대에 행정 사무를 담당했던 장관급 관리)로 임명된 나이토 가문의 당주는 인근 오키도마리항에 드나드는 은 수송선의 보호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오랫동안 지역의 유력한 존재가 되어 해운업, 주조업, 우편업 등을 운영했습니다.

나이토 가문 저택만큼 역사적이지는 않지만 현재 유노쓰 마을에 서있는 대부분의 건축물들은 상당히 오래된 것입니다. 다이쇼 시대(1912~1926)에 지어진 건물이 많은 이곳은 특히 해질녘이 되면 옛날 그대로의 가로풍이 좁은 골목을 비추며 레트로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한자로 '温泉津'이라 쓰고 '유노쓰'라 읽는 이곳은 지금도 온천 마을로 유명합니다. 오늘날까지 영업 중인 두 개의 공동욕탕에 몸을 담그면 여행의 피로도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日本語仮訳>****温泉津重要伝統的建造物群保存地区**

それまでは何の変哲もない漁村であり、あまり知られていない温泉街であった温泉津は、1561年に毛利氏により細長い溪谷の入り口に港と水軍のとりでが築かれたことにより、徐々に石見銀山の重要な供給拠点になりました。町の両側には急勾配で岩だらけの斜面があり、敵からの防御が容易であるため、温泉津はまもなく、石見銀山に食料、燃料、建築資材、酒、タバコなどの必需品を供給する主要な港として栄えるようになりました。毛利氏は、中国、朝鮮半島その他、遠く離れた国との貿易も行ったため、町に国際的な特色がもたらされました。

温泉津は、江戸時代（1603年～1867年）に一層の繁栄を見せ、大阪から瀬戸内海と日本海を経て北陸までを結ぶ「北前船」航路の中心地点となりました。1672年に正式に始まり、後に北海道へと広がったこの有益な航路により、この地域のいくつかの氏族は海運業に参入し、大きな富を蓄える機会を得ました。現代の温泉津の町並みは、道路や水路を含め、この豊かな時代にまで遡ります。温泉津に現存する最古の建物は、1747年の火災で町が焼失した後に建てられた内藤家の屋敷です。内藤家は、当主が1570年に毛利氏により温泉津の奉行（武家時代に行政の事務を担当した長官級の官吏）に任命され、近くの沖泊港に出入りする銀輸送船の保護を担当したことで知られています。そして、その後も長きにわたり地元の有力な存在であり、海運業、酒造業、郵便業などを営んでいました。

内藤家の屋敷ほど歴史的なものではありませんが、現在の温泉津の町に建ち並ぶ建造物はそのほとんどがかなり古いものです。大正時代（1912年～1926年）に建造されたものが多く、特に夕暮れ時には、昔ながらの街灯が狭い路地を照らし、レトロな町の雰囲気存分に味わうことができます。漢字で「温泉津」と書く「ゆのつ」は、今も温泉地として有名です。2つの共同浴場が営業しており、温泉津のお湯に浸かれば、旅の疲れもすっかり回復することでしょう。

【タイトル】 温泉津伝建・西念寺

【想定媒体】 WEB

**<韓国語>****유노쓰 사이넨지 절**

험준한 산 중턱에 자리한 유노쓰 사이넨지 절은 이 사찰을 짓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음을 짐작케 합니다. 과거 사람들의 눈길을 끌지 못했던 이 지대에는 원래 자그마한 선종(禪宗) 사찰이 있었지만 언제부터인가 점점 사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후 1561년 당시 이와미 은광과 그 주변 일대를 지배했던 모리 씨족이 정토종(淨土宗) 신도들에게 이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신도들은 엔큐라는 승려를 중심으로 모리 씨족 휘하에 있던 장인들의 도움을 구해 사찰을 세울 만한 충분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커다란 바위 덩어리를 아득할 정도로 오랜 시간에 걸쳐 깎아 나갔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걸렸던 이 작업에는 부수적인 목적으로 유노쓰부터 모리 씨족이 주로 은 수송에 이용했던 오키도마리항까지의 길을 정비하는 작업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이넨지 절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행객들의 피난처로도 알려져 있어서 사이넨지 절 바로 앞까지도 이 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이 길은 걸을 수 있지만 그 장소가 약간 옮겨져 1879년에 재건된 본당을 마주하고 있는 폐쇄된 산문(사찰로 들어가는 문) 뒤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본당 뒤 산 중턱에 자리한 묘지는 매우 오래된 것으로서 가장 오래된 묘석은 17세기 전반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日本語仮訳>****温泉津・西念寺**

温泉津の西念寺は、建立に大変な努力が必要だったことが偲ばれる険しい山腹に建っています。かつては目立つことのなかった土地には元々、小さな禅宗寺院がありましたが、いつの頃からか使われなくなりました。その後 1561 年、石見銀山やその周辺一帯を当時支配していた毛利氏が、浄土宗の信徒らにこの土地を分け与えました。信徒らは、然休という僧侶を中心として、岩の掘削作業に向かう毛利氏配下の職人の助けを借りて、敷地を十分に確保するために大きな岩塊を気が遠くなるような長い時間をかけて取り除きました。

時間のかかるこの作業に付随して、温泉津から、毛利氏が主に銀の輸送に用いていた沖泊港までの道を整備する作業も行われました。西念寺は、保護を必要とする旅行者の避難所であったことが知られており、西念寺のすぐ前にも、この道が通りました。現在もこの道は歩くことができますが、わずかに場所が移動しており、1879年に再建された本堂に面した、現在は閉鎖されている山門(寺院に入る門)の裏手にあります。本堂裏の山腹にある墓地は非常に古く、最古の墓石は 17 世紀前半のものです。

【タイトル】 温泉津伝建・えこう寺と西楽寺

【想定媒体】 WEB

**<韓国語>****유노쓰 에코지 절과 사이라쿠지 절**

서로 인접한 이 두 곳의 불교 사찰은 유노쓰 마을과 그 주변의 산림을 가로지르는 험준한 절벽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이라쿠지 절과 에코지 절 모두 암반의 일부를 깎아 낸 곳에 세워져 있는데, 이는 묘지용 부지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확장한 땅입니다. 두 사찰 중에서도 더 긴 역사를 간직한 사이라쿠지 절은 아미타여래를 본존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원래는 선종 사찰이었지만 1521년 정토진종(淨土眞宗)의 사원으로 개종되었습니다. 현재의 건물은 1831년에 지어진 것입니다. 사이라쿠지 절은 권력의 힘이 닿기 어려운 무연소(‘연이 없는 장소’라는 뜻)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신자들을 위한 성스러운 구역이었습니다.

니치렌종(日蓮宗)의 사찰인 에코지 절은 작은 기와로 이은 지붕이 마치 벽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절의 묘지에는 17세기 후반부터 오사카와 홋카이도를 연결하는 항로(기타마에부네)를 분주히 오가며 해운업으로 생계를 유지했던 지역민들의 무덤이 있고, 왼쪽 절벽을 따라서는 에도 시대(1603~1867) 초기에 세워진 묘석 등 긴 역사가 느껴지는 유구들이 남아 있습니다.

**<日本語仮訳>****温泉津・えこう寺と西楽寺**

隣接するこの2つの仏教寺院は、温泉津の町とその周りの山林を隔てる険しい崖のすぐ下にあります。この崖は岩盤であり、西楽寺と恵瑠寺のどちらも、墓地の用地を十分に確保すべく、岩盤を削って敷地が拡張されました。2つの寺院のうち、より長い歴史を持つ西楽寺は、阿弥陀如来を本尊としています。もとは禅寺でしたが、1521年に浄土真宗の寺に改められました。現在の建物は1831年に建てられたものです。西楽寺は、権力(者)の力が届きにくい無縁所(「縁のない場所」の意味)として存在し、保護を必要とする信者にとっての聖域でした。

恵瑠寺は、日蓮宗の寺であり、屋根が小さな瓦で葺かれ、壁のような構造になっているのが特徴です。寺の墓地には、17世紀後半から、大阪と北海道を結んで日本海沿岸をさかんに行き来した航路(北前船)に関連する海運業で生計を立てていた地元の人々の墓があったり、左側の崖沿いには江戸時代(1603年~1867年)初期に立てられた墓石があるなど、長い歴史を感じることができます。

【タイトル】 温泉津重要伝統的建造物群保存地区（温泉）

【想定媒体】 WEB

**<韓国語>****유노쓰 중요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

유노쓰의 온천은 약 1300년 전에 발견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한 승려가 여행을 하던 도중 이 지역을 지나다가 늪은 너구리 한 마리가 김이 나는 웅덩이 속에서 심한 상처를 치유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이 온천이 치료탕이라는 것을 알아챘다는 전설이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헤이안 시대(794~1185)에 이미 저멀리 교토까지 전해졌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유노쓰를 자주 찾게 된 것은 14세기에 들어선 이후부터로 이때부터 유노쓰는 요양지로 유명해졌습니다.

에도 시대(1603~1867)에는 인구나 소비가 증가한 은광의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많은 물자의 유입이 이루어지면서 유노쓰의 변화한 항구로 들어오는 배의 선원들을 위한 숙박 시설로 여관이 만들어졌습니다. 1918년 철도역이 개통되면서 해운업에 타격을 입고 1923년에 이와미 은광까지 폐광되어 지역이 더욱 쇠퇴한 후에도 유노쓰의 온천은 여전히 마을을 지탱하는 큰 요소였습니다. 현재 유노쓰는 일본에서 유일하게 중요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로 선정된 온천 마을로 ‘모토유’와 ‘야쿠시유’라는 두 개의 공용욕탕이 존속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랜 역사를 지닌 모토유는 2개의 작은 욕조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 욕조에는 42도까지 식힌 온천수가, 다른 하나의 욕조에는 건널 수 없을 만큼 뜨거운 46도~47도의 온천수가 담겨 있습니다. 욕탕 밖에는 온천수를 직접 마실 수 있는 수도꼭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온천수는 마실수록 점점 익숙해지는 맛으로 하루에 한 잔 정도 마시면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야쿠시유는 처음 이곳을 찾는 관광객에게 추천할만한 곳으로 옥상 테라스에 올라서면 유노쓰 마을의 모습이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日本語仮訳>****温泉津重要伝統的建造物群保存地区**

温泉津の温泉は、1,300年以上前に発見されたと言われています。ある僧侶が旅の途中でこの地を通ったとき、一匹の古狸が湯気の立つ水たまりに浸かり、ひどい傷を癒やしているのを目にし、これが癒しの湯であることに気付いたという言い伝えが残されています。この話は既に平安時代（794年～1185年）には遠く京都まで伝わっていたとされていますが、温泉津に人々が頻りに訪れるようになったのは14世紀に入ってからで、それ以降、温泉津は療養地として有名になりました。

江戸時代（1603年～1867年）には、人口や消費が増加した銀山の需要を支えるため、多くの物資の流入が行われるようになり、活況を呈する温泉津の港に入る船の船員のための宿泊施設として旅館が誕生しました。1918年の鉄道駅開業により海運業が打撃を受け、1923年に石見銀山が閉山して地域がさらに衰退してからも、温泉は温泉津の町を支え続けました。現在、温泉津は温泉街として日本で唯

一、重要伝統的建造物群保存地区に選定されており、「元湯」と「薬師湯」という2つの共同浴場が存続しています。そのうち、元湯の方が歴史が古く、2つの小さな浴槽が特徴です。1つは42℃まで冷まされた湯を張った浴槽で、もう1つの浴槽はほとんど耐えられないほど熱い46℃から47℃のお湯が張られています。浴場の外には、温泉水を飲むための蛇口があります。飲んでいるうちに慣れてくるような味で、1日にコップ1杯程度飲むと、健康に良いとされています。もう一軒の薬師湯は、初めての人にも入りやすく、屋上テラスからは温泉津の町を一望することができます。



【タイトル】 城上神社

【想定媒体】 WEB

**<韓国語>****기가미 신사**

에도 시대(1603~1867)에 오모리 마을이 번성하기 이전부터 이 지역을 지켜온 기가미 신사는 오모리의 정신적 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 다이칸쇼(막부의 직할령을 관리하는 관청)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마을 동쪽 끝에 자리한 이 신사는 1577년 이 지역을 지배했던 모리 씨족이 마을과 주민들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금의 자리에 만든 것입니다. 1800년에 발생한 큰 화재로 신사를 포함한 오모리 마을의 대부분이 소실되었지만 신사는 12년 후에 다시 재건되었습니다. 현재의 건물은 이때 재건된 것으로 이리모야즈쿠리라는 팔작집 지붕의 건축 양식이 특징적이면서 중후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2층짜리 배전이 갖춰져 있습니다. 배전에 들어 서서 위를 바라보면 천장에 그려진 하늘을 나는 용의 모습에 매료될 것입니다. 1818년에 제작된 이 천장화는 ‘나키류(포효하는 용)’라고 불리는데 그림 바로 아래에서 손뼉을 치면 교묘하게 계산된 배전의 음향효과를 통해 손뼉 소리가 마치 용이 울부짖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나키류 주위에는 신사에 기부금을 낸 무사 가문의 문장이 그려져 있는데 이것 또한 매우 인상적입니다.

**<日本語仮訳>****城上神社**

江戸時代（1603年～1867年）に大森の町が繁栄する以前から町を見守ってきた城上神社は、大森の精神的な拠り所と言えます。旧代官所（幕府の直轄領を管理する官庁）からわずか数歩の場所にある町の東端に位置するこの神社は、1577年に、この地を領有した毛利氏が町と住民を災難から守るために今の場所に創建しました。1800年の大火により、神社を含む大森の広い範囲が焼失しましたが、わずか12年後に再建されました。現在の建物は、この時に再建された建物であり、入母屋造の特徴的な屋根をもつ重厚な二階建ての拝殿を備えています。拝殿に入り上を向くと、天井に描かれた、宙を舞う龍の様子に魅了されるでしょう。1818年に制作されたこの天井画は「鳴き龍」（鳴く龍）と呼ばれ、真下に立って手を叩くと、拝殿の音響効果を巧みに利用して、手を叩く音が龍の鳴き声に聞こえます。鳴き龍の周囲には、神社に寄進した武士の家紋が描かれており、これも圧巻です。

【タイトル】 石見銀山遺跡 石見銀山(わかりやすい価値説明)

【想定媒体】 WEB

**<韓国語>****이와미 은광과 그 문화적 경관**

2007년 이와미 은광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을 때, 주로 다음의 세 가지 이유가 평가의 중요한 바탕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16세기부터 17세기 초기에 걸친 기간 동안 이 은광이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 그리고 두 번째는 은 생산의 고고학적 증거가 지역 일대에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다는 점, 마지막 세 번째는 은광 자체는 물론, 광산 마을에서 수송로와 항구까지 연결된 주변 유구가 일체화된 구조로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미의 은과 세계 무역**

이와미 은광에서 채굴된 은은 1500년대 중반 이후의 세계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시 은광을 관리했던 각 다이묘 가문들은 해외와의 교역에 이 은을 사용했습니다. 그 무렵 막 은본위 경제체제로 이행하던 명나라는 북서쪽에서 침략해 온 몽골군에 대항할 방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대량의 통화, 즉 은을 필요로 했습니다. 처음에 은은 일본에서 직접 중국으로 흘러갔지만 이 무역의 주도권은 곧 유럽인들에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마카오에 거점을 둔 포르투갈 상인들이 명나라에서 생산된 비단과 일본에서 사들인 은을 교환했던 것입니다. 이 교역 패턴은 포르투갈에게 막대한 부를 가져다주었을 뿐만 아니라, 포르투갈인들이 일본을 ‘은의 나라’라고 부르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와미의 은은 포르투갈의 해양 제국 전역에서 유통되기에 이르렀습니다. 1500년대 후반 전 세계에서 거래된 은의 총량 중 적어도 10%는 이와미 은광에서 채굴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교역은 에도 시대(1603~1867)에 도쿠가와 막부가 쇄국(외국과의 접촉을 제한함) 정책을 실시하면서 표준화된 은화를 사용하기 시작한 1600년대 초기까지 크게 융성했습니다.

**전통적인 은 생산**

이와미 은광 주변에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은을 생산했던 물리적 흔적이 양호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와미 은광은 같은 지역에서 은이 발견된 1527년부터 1923년까지 운영되었지만, 채굴 장비와 기법이 공업화된 것은 일본의 쇄국 정책이 종료된 이후인 1800년대 후반의 일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와미 은광에서는 전통적인 채굴과 제련, 정련의 고고학적 증거가 옛날 모습 그대로의 상태로 남겨질 수 있었습니다. 갱도와 생산 설비, 마을 일부에서 이루어진 발굴 조사를 통해 당시 사용된 기술이나 광산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상을 짐작할 수 있게 되었지만, 숲으로 덮힌 센노산의 경사면이나 그 주변의 계곡에는 이 외에도 더 많은 유적이 거의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전체상**

이와미 은광과 그와 관련된 항구, 도로, 성 등 요새, 관리 시설, 주거 구역, 종교 유적은 유기적으로 일체화된 구조의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갱도나 수직갱 일부는 안으로 직접 들어가볼 수 있으며 은광에서 일본해로 이어지는 도로도 실제로 걸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오모리 마을에서는 이 지역에서 부를 쌓은 상인 가문들의 옛 주택도 직접 구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체화된 역사적 유적은 중세부터 1920년대까지 광산을 중심으로 성립된 커뮤니티의 일대기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이들 유적은 시간이 흐르면서 광산이 어떻게 확대되었고 각 시대의 서로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변화했는지, 광산을 중심으로 한 고도로 전문화된 경제는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리고 이와미 은광에서 은을 채굴한 400년

동안 그 운영은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004-022

---

## <日本語仮訳>

### 石見銀山とその文化的景観

2007年に石見銀山がユネスコ世界遺産に登録された際、主に3つの理由で評価されました。その理由とはすなわち、16世紀から17世紀初頭にかけて同銀山が世界経済に与えた影響、地域一帯に銀生産の考古学的証拠が良好な状態で保存されていること、そして銀山自体と鉱山集落から輸送路、港までのその関連遺構が一体化していることです。

#### 石見の銀と世界貿易

石見銀山で採掘された銀は、1500年代中盤以降、世界経済に大きな影響を与えました。当時、同銀山を管理していた各大名家は、海外との交易にこの銀を利用しました。そのころ、銀本位の経済に移行したばかりだった明は、北西より侵略してくるモンゴル軍に対する防御資金を賄うため、大量の通貨、すなわち銀を必要としていました。当初、銀は日本から直接中国に流入していましたが、この貿易の主導権はすぐにヨーロッパ人の手に渡りました。マカオを拠点とするポルトガル商人が、明で生産された絹と日本から仕入れた銀とを交換するようになったのです。この交易パターンは、ポルトガル人に莫大な富をもたらし、ポルトガル人は日本のことを「銀の国」と呼ぶようになり、石見の銀はポルトガルの海洋帝国全域で流通ようになります。1500年代後半に世界中で取引された銀の総量のうち、少なくとも10%は石見銀山のものであったと推測されています。この交易は、江戸時代（1603年～1867年）の徳川幕府が鎖国（外国との接触を制限する）政策をとり、標準化された銀貨の使用を開始する1600年代初頭まで大いに栄えました。

#### 伝統的な銀生産

石見銀山周辺では、伝統的な銀生産の物理的な痕跡が良好な状態で残っています。石見銀山は、同地で銀が発見された1527年から1923年まで稼働していましたが、採掘装置や採掘手法が工業化されたのは、日本の鎖国政策が終了した後の1800年代後半になってからのことでした。その結果、石見銀山では、伝統的な採掘、製錬、精錬の考古学的証拠がそのままの状態に残されました。坑道、生産設備、集落の一部では発掘調査が行われ、使用された技術や鉱山労働者とその家族が送った生活の様子を知ることができますが、仙ノ山の森に覆われた斜面や近くの谷には、他にも多くの遺跡がほとんど手付かずの状態に残されています。

#### 全体像

石見銀山とその関連遺跡—港、街道、城その他の要塞、管理施設、居住区域、宗教遺跡—は、有機的に一体化した状態で残っています。坑道や立坑の一部は中に入ることができ、銀山から日本海へと続く街道は歩くことができ、そして大森の町ではこの地で財をなした商家の旧宅を訪れることができます。これらの史跡が一体となって、中世から1920年代までの鉱山を中心に成立したコミュニティの物語を今に伝えています。これらの史跡は、時間の経過と共に鉱山がいかに拡大し、各時代で異なる目標を達成するために

変化していったか、鉱山の周りにいかに高度に専門特化した経済が発展していったか、そして石見銀山で銀の採掘が行われた 400 年間、その運営がいかに進化していったかを明らかにしてくれます。

【タイトル】 石見銀山遺跡 石見銀山(世界の鉱山比較)

【想定媒体】 WEB

**<韓国語>****이와미 은광과 국제 사회의 연관성**

400 년의 역사를 지나오는 동안 이와미 은광은 두 차례에 걸쳐 활발하게 국제 사회와 연관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1527 년 은광이 발견된 직후부터 1600 년대 초기까지 지속되었고 두 번째는 메이지 시대(1868~1912) 일본의 급격한 근대화과 궤를 같이합니다.

**대항해 시대의 은**

스페인과 포르투갈 제국이 세계 무역을 확장하며 남아메리카와 아시아 등 넓은 영토와 수많은 민족을 식민지화했던 1500 년대에 은은 아마 세계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상품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지배권을 확립할 수 있었던 부의 원천, 즉 멕시코의 과나후아토, 볼리비아의 포토시, 그리고 이와미 은광 등에서 채굴된 은은 세계 경제의 유통류로 활약하게 되었습니다. 이와미의 은은 주로 포르투갈인들에 의해 거래되었는데 그들은 명나라에서 사들인 비단과 이와미의 은을 교환했습니다. 또한 명나라에서 비단과 교환된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이와미의 은은 포르투갈 해양 제국 전역에서 유통되었습니다. 1500 년대 후반 전 세계에서 거래된 은의 총량 중 적어도 10%는 이와미 은광에서 채굴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가능케 한 것은 국제 교역의 또 다른 산물인 회취법(灰吹法)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보유할 수 있게 된 계기는 역시 국제 교역이 가져다준 회취법이라는 제련 기술 덕분이었습니다. 1533 년에 한반도에서 전해진 이 기법을 바탕으로 순도가 높은 은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1603 년 도쿠가와 가문이 일본 전역을 통일하고 그 후 1867 년까지 일본을 통치하는 에도 막부가 성립된 후에는 외국과의 접촉을 제한하는 쇄국 정책을 실시하면서 이와미 은광과 세계 경제의 연결고리는 단절되었습니다.

**식민지와의 연관성**

도쿠가와 가문이 통치하던 에도 막부가 붕괴되고 1868 년 이후 다시 외부 세계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이는 메이지 천황(1852~1912)을 주권자로 하는 신정부의 수립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청나라와의 전쟁인 청일전쟁(1894~1895)에서 승리한 일본은 대만을 포함한 중국의 일부 영토를 획득하여 식민지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당시 이와미 은광은 후지타구미라는 기업에 의해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1886 년에 은광의 채굴권을 취득한 후지타구미는 일본 내 다른 지역에서도 여러 개의 광산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후지타구미는 소유한 광산의 낮은 수익성 때문에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1896 년 새롭게 획득한 식민지 개발에 열을 올리던 일본 정부는 대만의 유망 광산 두 곳에 대한 권리를 각 회사에 할당했습니다. 이 찬스를 놓치지 않은 후지타구미는 대만섬 북부 지우펀 인근에 있는 루이팡(瑞芳) 광산의 금과 구리 채굴권을 할당받게 되었습니다.

**이와미 은광과 대만**

후지타구미는 대만에서 보유한 광산에 거액의 금액을 투자하고 채굴과 제련을 위해 최첨단 설비와 기술을 도입했는데 그 일부는 이와미 은광에서 개발된 것이었습니다. 이와미 은광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한 기술자 등 많은 전문가들도 루이팡으로 파견되어 이와미와 루이팡 두 광산 사이에서 활발한 인적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1923 년 세계 시장에서 구리 가격이 하락하자 후지타구미는 이와미 은광과 대만에서의 사업을 돌연 중지했지만, 그 시기 루이팡은 이미 활기 넘치는 도시로 성장한 이후였기 때문에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후 일본인들에 의해 이루어진 대만의 광산 개발은 지우펀(九份) 인근의 진과스(金瓜石) 금광으로 이어졌고 1930 년대에 절정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935 년에 일본제국 내에서도 가장 생산성이 높은 시설로 자리잡은 진과스 금광은 연간 최대 2.6 톤의 금을 생산했습니다.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일본의 손을 떠나 대만 기업이 운영하게 되었으며 1987 년까지도 조업이 계속되었습니다. 현재 사적으로 지정된 이곳 박물관에서는 지우펀 지역의 광산 개발 역사에 대한 상세한 지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004-023

## <日本語仮訳>

### 石見銀山と海外とのつながり

石見銀山は、その 400 年の歴史の中で、積極的に国際社会に関わった時期が 2 回ありました。1 回目は、1527 年の鉱山の発見後すぐから 1600 年代初頭まで続く時期で、2 回目は、明治時代（1868～1912 年）の日本の急速な近代化と軌を一にしています。

#### 大航海時代の銀

スペインとポルトガルの帝国が世界貿易を拡大し、南アメリカとアジアなど広い領土と数多い民族をを植民地化した 1500 年代、銀はおそらく世界で最も需要のある商品となりました。これらの支配的國家の富の源泉、すなわちメキシコのグアナフアト、ボリビアのポトシ、そして石見銀山などの土地で採掘された銀は、世界経済を循環させる役割を果たしました。石見の銀は、主にポルトガル人の手で取引され、彼らは明で仕入れた絹と石見の銀を交換しました。石見の銀はその一部が明で絹と交換されたほかは、ポルトガルの海洋帝国全域で流通することとなりました。1500 年代後半に世界中で取引された銀の総量のうち、少なくとも 10%は石見銀山のものであったと推測されています。これを可能としたのが、国際交易のもう 1 つの産物である灰吹（はいふき）法でした。世界における大きなシェアを占めることを可能にしたのが、やはり国際交易によってもたらされた灰吹（はいふき）法という製錬方法でした。1533 年に朝鮮半島から伝わったこの方法により、高純度の銀を大量に生産することが可能となったのです。ところが、1603 年に徳川家が日本全国を統一し、その後 1867 年まで日本を統治することになる江戸幕府を樹立した後は、外国との接触を制限する鎖国政策をとったため、石見銀山と世界経済とのつながりは断絶しました。

#### 植民地とのつながり

徳川家の統治による江戸幕府が倒れ、1868 年以降、再び外の世界に目を向け始め、これが明治天皇（1852～1912）を主権者とする新政府の樹立へとつながります。清との戦争である日清戦争（1894～1895）で勝利した結果、台湾を含む中国の一部領土を獲得した日本は、植民地保有国となります。当時、石見銀山は藤田組という企業によって管理されていました。藤田組は 1886 年に銀山の採掘権を取得し、国内の他の地域でも複数の鉱山を経営していました。ところが、所有する鉱山は採算性が低く、藤田組はひどい経営難に陥ります。1896 年、新しく獲得した植民地の開発に熱心だった日本政府は、台湾の有望な鉱山 2 か所に対する権利の割り当てを行います。藤田組は、このチャンスに飛びつき、台湾島北部の九份近くにある瑞芳の金と銅の鉱山を与えられました。

#### 石見銀山と台湾

藤田組は、台湾で保有する鉱山に巨額の投資を行い、採掘と製錬のために最先端の設備と技術を導入しましたが、その一部は、石見銀山で開発されたものでした。石見銀山で自らの価値を証明した技師やその他多くの専門家が瑞芳へと派遣され、石見と瑞芳の2つの鉱山間で積極的な人的交流が行われました。1923年には、世界市場における銅価格の下落により、藤田組が石見銀山と台湾での操業を突如停止しましたが、既にその時には瑞芳は活気あふれる街へと成長しており、危機的状況も乗り越えました。その後、日本人による台湾での鉱山開発は、九份に近い金瓜石の金鉱山で続き、1930年代に最盛期を迎えます。1935年の時点で、金瓜石は、同種の施設としては、大日本帝国内で最も生産性の高い施設であり、年間最大2.6トンの金を産出していました。第二次世界大戦後は日本の手を離れ、台湾の企業によって1987年まで操業が続けられました。現在は史跡に指定され、博物館では九份における鉱山開発の歴史を紹介しています。

【タイトル】 石見銀山遺跡（ビジターセンター） 石見銀山世界遺産センター

【想定媒体】 WEB

### <韓国語>

#### 이와미 은광 세계유산센터

세계유산센터는 이와미 은광 견학의 거점 시설입니다. 세계유산구역 바로 바깥쪽에 자리한 이 센터에는 은광의 역사를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박물관이 병설되어 있어 1527년 이와미 은광의 발견부터 순도 높은 은의 대량 생산을 가능케 한 정련법인 회취법(灰吹法), 에도 시대(1603~1867) 광산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상, 그리고 이와미 은광에서 생산된 은이 세계 경제와 일본 경제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디오라마, 비디오, 인터랙티브 전시가 이루어지는 박물관에서 실제 이와미 은광을 견학하기 전 미리 배경지식을 습득하면 보다 높은 이해와 만족도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은 액세서리 제작 워크숍, 모래를 체에 걸러서 작은 은 조각을 찾는 체험 교실, 그리고 더 깊은 지식을 원하는 분들을 위한 회취법의 원리 소개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시를 본 후에는 인포메이션 데스크에서 각자의 관심사를 고려한 맞춤형 관광 어드바이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계유산구역은 광대한 지역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센터에서 미리 현재 장소와 전체적인 위치 관계를 파악한 후 경로를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세계유산구역 내부의 주차는 제한되어 있으므로 자가용으로 방문하실 경우에는 센터에 차를 두고 셔틀버스를 이용해 오모리 마을로 이동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모리의 긴잔(은광) 공원에서는 전동 자전거도 대여할 수 있습니다. 센터 뒤쪽에서 산책로를 통해 전망대까지 올라간 후, 거기에서 오모리까지 걸어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들 경로와 그 외 다른 도보 루트가 게재된 무료 지도는 인포메이션 데스크에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 <日本語仮訳>

#### 石見銀山世界遺産センター

世界遺産センターは、石見銀山見学の拠点となる施設です。世界遺産区域のすぐ外側にあるこのセンターには銀鉱山の歴史を総合的に紹介する博物館が併設されており、1527年の石見銀山の発見、上質な銀の大量生産を可能にした精錬技法である灰吹法、江戸時代（1603~1867）の鉱山労働者とその家族の生活、そして石見銀山で生産された銀が世界経済と日本経済に与えた影響などについて学ぶことができます。

博物館の展示には、ジオラマ、ビデオ、インタラクティブ展示などがあり、ここであらかじめ背景を知ってから実際の石見銀山を見学することで、理解を深めることができ、より高い満足度が得られることでしょう。さまざま



まな参加型プログラムも提供されており、銀アクセサリー作りのワークショップ、砂をふるいにかけて銀の小片を探す体験教室、そしてもっと深く知りたい方には、灰吹法の原理についての紹介などがあります。

展示を見た後は、インフォメーションデスクで、各自の関心に合わせた形で観光についてのアドバイスを受けることができます。世界遺産区域は広大なエリアに跨っているため、センターで今いる場所と全体的な位置関係を把握した上で、ルートを計画することをおすすめします。世界遺産区域内での駐車は制限されているため、車で来た場合は、センターに車を置き、シャトルバスで大森の町に向かわなければなりません。大森の銀山公園では、電動自転車のレンタルを行っています。また、センター裏から遊歩道を通って展望台まで登り、そこから徒歩で大森に向かうことも可能です。このルートとその他の徒歩ルートが載った無料の地図は、インフォメーションデスクで入手できます。

【タイトル】石見銀山遺跡（銀山柵内 坑道）

大久保間歩(限定公開坑道)

【想定媒体】WEB

### <韓国語>

#### 오쿠보 갱도

이와미 은광에서 가장 큰 갱도인 오쿠보 갱도는 방문객들에게 개방된 2 개의 주요 갱도 중 하나입니다. 이와미 은광에서 가장 활발한 채굴이 이루어졌던 곳 중 하나인 오쿠보 갱도는 1500 년대 후반부터 메이지 시대(1868~1912)까지 채굴이 계속되었고 수세기에 걸쳐 반복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높은 입구가 특징인 이 갱도는 도쿠가와 막부로부터 이와미 은광의 감독관으로 임명된 초대 부교(무가 시대에 행정 사무를 담당했던 장관급 관리)인 오쿠보 나가야스(1545~1613)의 이름을 따 지어졌습니다.

장소에 따라 높이 5m 에 달하는 메인 갱도는 여러 개의 작은 갱도로 뻗어 나갑니다. 이 작은 갱도들은 은 광맥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지금도 그 흔적을 벽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 존재하는 수직갱의 일부는 환기용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지하수를 외부로 배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메인 갱도의 벽은 매우 매끄러운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는 끌과 쇠파치만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메인 갱도는 메이지 시대에 광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다이너마이트로 그 너비를 넓혔기 때문에 벽 곳곳에는 거친 굴착 기술의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당시 광차의 침목 형태는 오늘날에도 지상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쿠보 갱도의 가이드 투어는 3 월부터 11 월까지 주말과 공휴일에 실시됩니다. 갱도는 겨울철이면 박쥐의 동면장소로 이용되며 갱도 내부에서는 일년 내내 박쥐가 날아다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日本語仮訳>

#### 大久保間歩

大久保間歩は石見銀山最大の坑道で、来訪者に開放されている2つの主な坑道のうちの1つです。大久保間歩は、同銀山で最も徹底的に採掘が行われた部分の1つで、1500年代後半から明治時代(1868~1912)まで採掘が続けられ、数世紀にわたり繰り返し拡張されていきました。高い入り口が特徴的なこの坑道の名前は、徳川幕府より石見銀山の監督を任じられた初代奉行(武家時代に行政の事務を担当した長官級の官吏)・大久保長安(1545~1613)の名を冠して付けられました。

メインの坑道は場所によっては高さ5メートルにも及び、そこからより小さな坑道が複数分岐しています。これらは銀鉱脈に沿って掘られており、今でもその痕跡が壁の至る所に確認できます。また、立坑もあり、一部は換気用、その他は地下水を外に排出するために使用されました。メインの坑道の壁は滑らかで、これはのみと金槌によって形作られたものです。メインの坑道は明治時代になり、トロックが入れるようにダイナマイト

を使って拡幅されたため、壁のその他の部分には、荒々しい掘削技術の痕跡が残っています。この時代のトロッコのレールの枕木は、今も地面上に確認できます。

大久保間歩のガイド付きツアーは、3月から11月までの週末と祝日に実施されます。冬季は、坑道がコウモリの冬眠場所となり、坑道内では年間を通してコウモリが飛び回る姿を確認することができます。

【タイトル】石見銀山遺跡（銀山柵内 坑道）

釜屋間歩と周辺の岩盤加工遺構

【想定媒体】WEB

### <韓国語>

#### 가마야 갱도와 그 주변

가마야 갱도는 이와미 은광 역사상 최고의 성공 스토리 중 하나가 탄생한 곳입니다. 1602년 야스하라 덴베에라는 이름의 갱부가 이 갱도를 굴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풍부한 은 광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듬해 가마야에서는 수년 전 은광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권을 손에 넣은 에도(현재의 도쿄)의 도쿠가와 막부에 13.5 톤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은을 헌상했습니다. 이 엄청난 헌상품을 바친 야스하라는 쇼군 도쿠가와 이에야스(1543~1616)를 알현할 수 있는 허가를 얻고 칭호를 부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화려한 도후쿠(귀족이나 고관들이 입는 장식용 상의)와 부채를 하사받았습니다. 이 도후쿠는 야스하라가 은 광맥을 발견하기 전에 기도를 올렸다고 전해지는 세이스이지 절에 기증되었다가 중요문화재로 지정된 지금은 교토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와미 은광 세계유산센터에는 이 도후쿠의 복제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가마야 갱도 근처에서는 1600년대 초기의 채굴 흔적이 여러 개 발견되었습니다. 이 지역의 은 광맥은 지표면에서 매우 가까운 장소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서 광부들은 장소에 따라 갱도를 사용하지 않고 언덕의 경사면을 직접 파고 들어가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지면을 평평하게 고르고 건물을 지을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절벽을 깎은 흔적도 볼 수 있습니다. 인근에서는 바위에 구멍을 뚫어 빗물이 모이도록 만든 유구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광석을 씻어내어 은을 포함한 작은 조각들을 효과적으로 모으기 위해 필요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들 유구는 이곳에서 발견된 은 채련 부산물과 함께 야스하라 덴베에가 살던 시대부터 이 지역에서 마지막 갱도군이 만들어진 메이지 시대(1868~1912)까지 가마야 갱도를 중심으로 한 계곡 양쪽에서 대규모의 채굴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 <日本語仮訳>

#### 釜屋間歩とその周辺

釜屋間歩は、石見銀山の歴史上、最高のサクセスストーリーの1つが生まれたところです。1602年に安原伝兵衛という名の山師がこの坑道の掘削してすぐ、彼はすぐに豊かな銀鉱脈を発見しました。その翌年に、釜屋では、数年前に同鉱山に対する直接的な支配権を掌握していた江戸（現在の東京）の徳川幕府に、13.5トンという驚くべき量の銀を献上しました。この大変な献上品により、安原は將軍・徳川家康（1543~1616）への謁見を許可され、称号を与えられた上に、華麗な道服（貴族や高官などが着る装飾的な上衣）と扇子を拝領しました。この道服は、安原が銀鉱脈を発見する前に祈願を行ったとされる清水寺に寄贈され、現在は重要文化財に指定され、京都国立博物館に所蔵されています。石見銀山世界遺産センターには、道服の複製品が展示されています。

釜屋間歩の近くでは、1600年代初頭の採掘跡が複数見つかっています。この地域の銀鉱脈は非常に地表に近い場所にあることが多いため、場所によっては、鉱夫たちは坑道を使わず、丘の斜面を直接掘っていたようです。地面を平らにし、建物を建てるためのスペースを作るため、崖も削り取られています。付近には、岩に穴を掘って雨水が集まるようにした遺構が見つっていますが、これは鉱石を洗って、銀を含む小片を効率的に集めるために必要とされたものです。これらの遺構は、ここで見つかった銀製錬の副産物と共に、安原伝兵衛の時代から、同地域で最後の坑道群が掘られた明治時代（1868～1912）まで、釜屋間歩を中心とする谷の両側で大規模な採掘が行われたことを示しています。

【タイトル】石見銀山遺跡（銀山柵内 坑道） 新切間歩

【想定媒体】WEB

**<韓国語>****신키리 갱도**

이와미 은광의 역사를 통틀어서 광부들에게 가장 큰 과제로 여겨졌던 것 중 하나는 은광산에서 물을 빼내는 것이었습니다. 갱도가 점점 길고 깊어지면서 땅속 수맥과 충돌해 홍수가 발생하는 일은 피할 수 없었는데 이는 광석의 채굴을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1700년 초기까지 지하수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자 에도(현재의 도쿄) 막부의 출장 기관인 현지의 다이칸쇼(막부의 직할령을 관리하는 관청)는 은광 경영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해결책을 강구해야만 했습니다. 그 해결책으로 제시된 방법은 기존의 채굴지보다 더 낮은 곳에 새로운 갱도 두 개를 평행한 형태로 파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새로운 갱도를 통해 흘러나가 강으로 완전히 배출되게 됩니다. 신키리(‘새롭게(신) 뚫다(키루)’라는 뜻으로 이와미 은광에서는 채굴을 ‘뚫는다’고 말함. 터널이 수평 방향으로 뚫렸다는 의미)라고 불리는 이 야심 찬 사업은 막부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1720년대에 완성되었습니다.

신키리 프로젝트는 큰 성공을 거두며 기존의 갱도보다 더욱 효율적인 채굴이나 더 깊은 지점에 있는 광맥의 발견을 가능케 했습니다. 또한 이 배수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에서 새로운 광맥이 발견되면서 그 광맥을 파낸 갱도를 활용해 배수와 환기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제한된 기간이기는 하지만 이와미 은광의 은 생산량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후 신키리 갱도는 거의 한 세기 가까이 방치된 상태로 남아 있었지만, 지금도 물을 모아 긴잔(은광)강으로 흘러 보내는 등 갱도를 건설한 사람들의 뛰어난 토목 기술을 현재에 전하고 있습니다.

**<日本語仮訳>****新切間歩**

石見銀山の歴史を通じて、鉱夫たちにとっての最大の課題の1つが、銀鉱山から水を抜くことでした。坑道が長く深くなるにつれ、地中の水脈に突き当たって出水が起きることは避けられず、これが鉱石の採掘を妨げていました。1700年初頭までに地下水の問題は大変深刻となり、江戸（現在の東京）幕府の出先機関である現地の代官所（幕府の直轄領を管理する官庁）は、鉱山経営を維持するための解決策を講じる必要に迫られました。その解決策というのが、既存の採掘地よりも低いところに、新たな坑道を平行に2つ掘ることでした。水は、互いに接続しているこれらの新しい坑道を通じて流れ、川へと放水されます。新切（「新しく切り開く」の意で、石見銀山では採掘することを切ると言う。トンネルが水平方向に切り開かれているため。）と呼ばれるこの大掛かりな事業は、幕府からの貸付によって資金調達され、1720年代に完成しました。

新切間歩の開発は成功を収め、より効率的な採掘や、これまでより深い地点で鉱脈を発見することが可能になりました。また新切間歩の掘削を行っている段階でも、新たな鉱脈が見つかったほか、鉱脈を掘りつくした間歩を活用して排水・換気が行わ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その結果、限られた期間ではあったものの、石見銀山での銀の生産量は大幅に増加します。新切間歩は、一世紀近くにわたりほぼ手付かずの状態に残されましたが、今でも水を集め、銀山川へと排水しており、建造者たちの優れた土木技術を今に伝えています。

【タイトル】石見銀山遺跡（銀山柵内 坑道） 福神山間歩

【想定媒体】WEB

**<韓国語>****후쿠진야마 갱도**

후쿠진야마 갱도는 이와미 은광에서 유일하게 일년 내내 공개되는 류젠지 갱도로 이어지는 도로변에 위치해 있으며, 이와미 은광 내에서 가장 우수한 채굴량을 자랑하는 갱도 중 하나입니다. 이곳의 갱도는 총 3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2 개는 서로 연결된 형태로 긴잔(은광)강 아래를 지나 은광의 중심지인 센노산으로 이어지고, 그 바로 위에 1 개의 배기용 갱도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 갱도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지만 다른 이유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700 년대에 생산량이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이와미 은광의 소유권과 관리 패턴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알려주는 갱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갱도는 독립적인 갱부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독립적인 갱부들은 장소를 정한 후 광산을 관리하는 다이칸쇼(막부의 직할령을 관리하는 관청)로부터 허가를 받고 스스로 프로젝트의 자금을 조달하여 갱도를 파내려 갔습니다. 이때 다이칸(다이칸쇼에서 집무하는 관리)에게 요구받은 양 만큼의 은을 상납할 수 있다는 능력을 증명하면 갱도에 대한 재산권이 부여되었습니다. 이는 은광이 번영을 누리면서 유지보수에 상당한 투자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이익을 낼 수 있었던 1600 년대에 일반적으로 나타난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1700 년대에 들어서 접근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은 광맥이 고갈되면서 수익성은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이때 후쿠진야마 갱도를 포함해 여전히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된 갱도의 대다수는 다이칸쇼가 공급으로 취득해 경영했습니다. 이러한 광산의 부분적인 국영화는 은의 생산량 증가를 목적으로 한 다양한 공공사업과 함께 실시되었지만, 그럼에도 결국 이와미 은광은 과거의 번영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日本語仮訳>****福神山間歩**

福神山間歩は、石見銀山で唯一、年間を通して公開されている龍源寺間歩へと至る道路沿いに位置しており、取り出された銀の量において、石見銀山で最も優秀な坑道の1つです。間歩は3つの坑道で構成され、そのうち2本は互いに接続され、銀山川の下を通って鉱山の中心地である仙ノ山へと続き、そのすぐ上を一本の排気坑が通っています。坑道の中に入ることにはできませんが、ある理由から注目に値します。なぜなら、1700年代に生産量が減少し始めてから、石見銀山における所有と管理のパターンがどのように変化したかを知ることができるからです。

この坑道は、独立の山師によって掘られました。山師は場所を決め、鉱山を管理する代官所（幕府の直轄領を管理する官庁）から採掘の許可を得た後、自らプロジェクトの資金調達を行います。代官に対して、求められた量の銀を上納する能力を証明できれば、坑道に対する財産権が付与されます。この仕組み



は、銀山が繁栄し、メンテナンスに相当な投資が必要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利益を上げることができた1600年代において一般的でした。ところが、1700年代までには、到達可能な銀鉱床がほぼ枯渇し、採算性は低下しました。福神山間歩を含め、まだ採算性があると考えられた坑道の多くは、公金を使って代官所が取得し、経営が行われました。この鉱山の部分的な国営化は、銀の生産量増加を目的とするさまざまな公共事業と併せて実施されましたが、結局、石見銀山は、かつての繁栄を取り戻すことはできませんでした。

【タイトル】石見銀山遺跡（銀山柵内製錬所跡） 永久製錬所跡

【想定媒体】WEB

**<韓国語>****고지다니 지구와 에이큐 제련소**

오늘날에는 거의 자연으로 되돌아간 고지다니 지역이지만 불과 1 세기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활발한 채굴이 이루어지던 광산 활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었던 곳이 바로 이 에이큐갱입니다. 에이큐갱은 원래 1693 년부터 1787 년까지 더 높은 곳에 자리했던 여러 개의 채굴지에서 나온 지하수를 계곡 아래 고지다니강으로 흘려 보내는 배수갱의 일부로 만들어졌습니다. 에이큐갱을 포함한 이 지역의 나머지 광산들은 1886 년 오사카에 거점을 둔 후지타구미라는 기업이 이와미 은광에 대한 광업권을 취득할 때까지 수십 년 동안 휴면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후지타구미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기존의 갱도를 확장하고 대량의 광석을 캐내기 위해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하는 등 최첨단 채굴 기술과 설비를 도입했습니다. 에이큐갱도 그 대상에 포함되었는데, 그 결과 1899 년에는 풍부한 구리 광맥인 우치나카세쓰루를 발견하게 되는 매우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획기적인 발견을 발판 삼아 후지타구미는 1902 년 고지다니 계곡에 새로운 제련소를 건설했습니다. 이 시설에서는 최신 기술로 구리를 처리하여 매트라는 운동 반제품을 만들고 이를 흑광이라는 복잡한 황화광물의 제련에 성공하며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아키타현 북부의 고사카로 보내 더욱 순도를 높였습니다. 산 중턱 전체를 개간해 만든 제련소 주변에는 선광장 1 개소와 석탄화력발전소 1 개소가 포함된 다양한 구조물이 세워졌습니다. 전성기에는 제련소에 고용된 인원만 수백 명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에이큐갱은 깊이가 300m 이상이 될 때까지 점진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고지다니에서 이루어진 후지타구미의 사업은 장기간에 걸친 세계 시장의 구리 가격 침체로 큰 타격을 입고 시설이 완전히 폐쇄되는 1923 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숲으로 뒤덮인 골짜기에 자리한 에이큐 제련소의 유구는 현재 거의 남아 있지 않습니다. 주요 건물은 1943 년에 발생한 산사태에 휩쓸려 파괴되었고 에이큐갱의 입구는 1960 년대 후반에 완공된 제방에 의해 매몰되었습니다. 벽돌과 콘크리트로 쌓은 기초 부분은 선광장 아래 계단식 지형을 보강하기 위해 만든 벽을 포함해 정확한 장소만 알고 있다면 지금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곡 안쪽 부분에는 작업 도중 목숨을 잃은 광산 노동자들을 기리기 위해 1913 년 건립한 위령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日本語仮訳>****柑子谷地区と永久製錬所**

現在は、ほぼ自然に還ってしまっている柑子谷も、わずか 1 世紀前は集中的な採掘活動の中心地でした。この鉱山活動の中心となったのが永久坑です。永久坑は元々、1693 年から 1787 年の間に、さらに標高の高い複数の採掘地からの地下水を谷底の柑子谷川へと導く排水坑の一部として掘られたものです。永久坑と残りの鉱山も、1886 年に大阪を拠点とする藤田組という企業が石見銀山の鉱業権を取得

するまで、数十年にわたり休眠状態となっていました。藤田組は多額の投資を行い、既存の坑道を拡張し、大量の鉱石を取り出すためにダイナマイトを使用するなど、最先端の採鉱技術と設備を導入します。永久坑もその対象となり、その結果 1899 年には、豊かな銅鉱脈である内中瀬鉦の発見という非常に大きな成果をもたらします。

この画期的な発見により、藤田組は 1902 年、柑子谷に新たな精錬所を開設します。同施設では、マットという銀銅の半製品を作り、これを黒鉦という複雑な硫化鉦物の製錬に成功して高い技術力を保有していた秋田県北部の小坂に送り、さらに純度を高めました。山腹全体が切り開かれ、精錬所の周りには選鉱場 1 か所と石炭火力発電所 1 基を含むさまざまな構造物が立てられ、精錬所で雇われている人数は最盛期には数百人に上りました。永久坑は、深度 300 メートル超に達するまで徐々に拡張されます。柑子谷での藤田組の操業は、長年にわたる世界市場における銅価格の低迷により大打撃を受け、施設を完全に閉鎖することになる 1923 年まで続けられました。

森林に覆われた谷地にある永久精錬所の遺構は、ほんのわずかしか残されていません。主要な建造物は 1943 年の土砂崩れで流され、永久坑の入り口は 1960 年代後半に完成した堰堤によって埋没してしまいました。煉瓦とコンクリートの基礎部分は、選鉱場の下にある段々状の土地を補強するために作られた壁を含め、場所さえ知っていれば今でも見ることができます。また、谷の内側部分には、仕事で命を落とした鉦山労働者たちのために 1913 年に建立された慰霊碑が建っています。

【タイトル】 石見銀山遺跡（銀山柵内製錬所跡） 下河原吹屋跡（遺構露出展示）

【想定媒体】 WEB

### <韓国語>

#### 시모가와라 제련장 터

오모리 마을 외곽에 자리한 시모가와라 제련장 터는 1600년대 초기 은 광석을 처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중심지 중 하나입니다. 이와미 은광의 은 생산량이 전성기를 맞이했을 당시 이 지역 일대 채굴지 인근에서 소규모의 선광, 제련, 정련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이곳에 모든 공정이 집중되어 센노산 광산 마을보다도 훨씬 선진적인 방식으로 경영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시모가와라 제련장이 이와미 은광에서 막부의 출장 기관으로서 은광을 감독했던 다이칸쇼(막부의 직할령을 관리하는 관청)에 의해 직접 운영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광산에서 이곳으로 옮겨진 광석은 먼저 분쇄한 돌가루를 체로 걸러내 은이 함유된 작은 조각을 분리하는 선광 작업을 거칩니다. 그리고 회취법(灰吹法)이라는 제련 기술로 처리합니다. 1533년 한반도에서 전해진 이 기술은 질 좋은 은의 대량 생산을 가능케 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었습니다. 회취법은 구리가 함유된 은 광석을 납을 이용해 제련하는 방법입니다. 은과 납은 섞이기 쉬운 성질이 있어서 열을 가하면 은은 납과 결합하며 합금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 합금을 재 위에 올려 놓고 850도의 고온에서 지속적으로 가열하면서 풀무로 합금의 산화를 촉진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합금의 기타 성분은 녹아서 재에 흡수되고 순수한 은만 남게 됩니다. 시모가와라에서는 이 공정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건물의 벽은 내화성이 뛰어난 흙으로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건물의 특징은 지붕이 높고 창문이 여러 개 있으며 연기와 유황분을 포함한 가스를 밖으로 방출할 수 있도록 굴뚝이 모든 방에 설치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 <日本語仮訳>

#### 下河原吹屋跡

大森の郊外にある下河原吹屋跡は、1600年代初頭において、銀鉱石を処理するための最も重要な中心的施設の1つでした。石見銀山における銀生産の最盛期であった当時は、この地域一帯で、採掘地近くで小規模な選鉱、製錬、精錬が行われていましたが、ここではすべての工程が集約され、仙ノ山の山上にある鉱山集落よりも先進的な経営が行われていました。このことから、下河原吹屋が、石見銀山における幕府の出先機関であり、銀鉱山を監督していた代官所（幕府の直轄領を管理する官庁）により直接経営されていたのではないかと考えられます。

鉱山からここに持ち込まれた鉱石は、まず粉碎され、その石をふるいにかけて銀を含む小片を分離する選鉱が行われます。その後、灰吹法という製錬技法を使って処理されます。この技法は、1533年に朝鮮半島より導入され、上質な銀を大量に生産するための重要な技法でした。灰吹法は、銅を含む銀鉱石を、

鉛を使って製錬する方法で、銀と鉛は結びつきやすい性質があるので、熱すると銀は鉛に結合し、合金を形成します。次に、この合金を灰の上に敷き、850℃の高温で加熱しつつ、ふいごを使って合金の酸化を促し続けます。合金のその他の成分はやがて溶けて灰に吸収され、純銀だけが残ります。下河原ではこの工程が昼夜を分かたず行われ、建造物の壁は耐火性の高い土でできていたようです。また、建造物は屋根が高く、窓が複数あり、煙と硫黄分を含むガスを逃がすために全ての部屋に煙突が付いていたことが特徴です。

【タイトル】 石見銀山遺跡（銀山柵内 登山道） 世界遺産センター遊歩道

【想定媒体】 WEB

**<韓国語>****세계유산센터 산책로**

총 길이 520m 의 세계유산센터 산책로는 센터 뒤편부터 센노산 전망대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센노산 주변은 1500 년대 중반 이후 이와미 은광이 발전해 나갔던 장소입니다. 산책로를 따라 올라가면 잠시 앉아서 한숨 돌릴 수 있는 휴게소로 직접 연결되고, 거기서 왼쪽으로 꺾어 편백나무 숲을 빠져나오면 전망대 아래로 나오게 됩니다. 지역의 전체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 이 전망대에서는 오모리 마을, 야마부키 성터, 일본해 연안, 다이센오키 국립공원 내에 자리한 해발 1126m 의 산베산과 그 분화구를 에워싼 6 개의 봉우리 등 주요 관광지의 일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망대에서 다시 1.5km 를 더 올라가면 센노산 정상 부근에 있는 이시가네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이시가네는 은광이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었던 시기에 대규모로 형성된 마을 터입니다. 혹은 2km 를 내려가서 오모리의 긴잔(은광) 공원으로 향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산책로와 그 외 직접 연결되는 다른 코스가 모든 경로에 표시되어 있으니 전망대부터 좀 더 걸기를 원하시는 분은 센터의 인포메이션 데스크에서 무료 지도를 챙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日本語仮訳>****世界遺産センター遊歩道**

全長 520 メートルの世界遺産センター遊歩道は、センターの裏手から仙ノ山の展望台まで続いています。仙ノ山周辺は、1500 年代中盤以降、石見銀山が発展していった場所です。遊歩道を登っていくと、腰を下ろして一息つける休憩所に直接つながっており、そこから左に折れ、ヒノキの森を抜けると展望台の下に出ます。この展望台からは、地域の全体像をつかむことができ、大森の町、山吹城跡、日本海の海岸、大山隠岐国立公園内にある標高 1,126 メートルの三瓶山と、その火口を取り囲む 6 つの峰々など、主要な観光地の一部を見ることができます。展望台からは、さらに 1.5 キロメートル上って、仙ノ山の頂上付近にある石銀まで登ることができます。石銀は、銀山の最盛期に賑わった大規模な集落跡です。あるいは、2 キロメートル下って、大森の銀山公園に向かうこともできます。遊歩道と、接続するその他のコースは、全行程にはっきりと目印が設置されているわけではないため、展望台からさらに歩く予定の方は、センターのインフォメーションデスクで無料の地図を入手することをお勧めします。

【タイトル】石見銀山遺跡（銀山柵内 集落跡） 本谷集落跡

【想定媒体】WEB

**<韓国語>****혼다니 마을 터**

지금은 나무들만 우거진 조용한 장소로 남아 있는 혼다니(‘주요(혼)한 계곡(다니)’이라는 뜻)는 16세기 후반부터 18세기 후반까지 이와미 은광에서 가장 주요한 채굴의 중심지 중 하나였습니다. 상당히 큰 규모의 마을이 계곡 일대에 펼쳐져 있었으며 은 가공장 역할을 했던 집들은 평탄한 계단식 지형 위에 지어져 있었습니다. 계곡 입구 가까이에는 이와미 은광에서 가장 거대한 채굴망이자 다수의 갱도와 수직갱으로 이루어진 오쿠보 갱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오쿠보 갱도에서 나온 지하수를 배출하기 위해 만든 총 길이 800m의 긴세이갱이 있습니다. 또한 은 광맥이 지표면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자리한 경우가 많았던 이 지역에는 광산 노동자들이 절벽을 직접 파낸 것으로 보이는 좁은 갱도와 유구가 산재해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유구의 대부분은 자연적으로 풀과 나무에 덮혀서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17세기 초기 이와미 은광의 은 생산량을 비약적으로 증가시킨 가마야 갱도 주변에서 이와 비슷한 여러 유구가 다수 발굴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계단식 지형을 보강하기 위해 만든 돌담의 일부도 남아 있습니다. 좀 더 위로 올라가면 지역에서 가장 풍부한 은 광맥 위에 만들어진 혼 갱도(‘주요(혼)한 갱도’라는 뜻)의 입구가 나타납니다. 이곳에서 센노산과 더불어 17세기의 또 다른 주요 마을이었던 이시가네 방향으로 올라가면 계곡의 폭이 점점 좁아집니다. 혼 갱도에서 이시가네로 가는 길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걷기 어려울 수 있으니 방문 시에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日本語仮訳>****本谷集落跡**

今では木々が生い茂り、静かな場所となっていますが、本谷(「主要な谷」の意)は16世紀後半から18世紀後期にかけて石見銀山における最も重要な採掘の中心地の1つでした。かなり大きな集落が谷の一带に広がっていて、そこでは銀の加工場としての役割も果たした家々が平坦で階段状になった土地の上に建てられていました。谷の入り口付近には石見銀山で最も巨大な採掘網であり、多くの坑道と縦坑からなる大久保間歩があります。そこからさらに奥へ行くと、大久保間歩から出た地下水を排出するために掘られた全長800メートルの金生坑があります。また、この地域では銀鉱脈が地表とても近くにあることが多かったため、谷の両側斜面には、鉱山労働者が崖に直接掘ったとみられる狭い坑道や遺構が点在しています。現在、こうした遺構のほとんどは自然の草や木に覆われてしまい、見つけるのが難しくなっています。しかし、17世紀初期に石見銀山の銀の産出量を飛躍的に増加させた釜屋間歩の周囲では、そうした遺構がいくつか発掘されています。ここでは、階段状の土地を補強するために造られた石垣もいくつか見ることができます。さらに上の方へ進んでいくと、地域で最も豊富な銀鉱脈の上に掘られた本間歩(「主要な坑道」の意)への入口があります。この場所から、仙ノ山と並んで17世紀におけるもう1つの主要な集落であった

石銀へと上っていくにつれて、谷の幅が狭くなっていきます。本間歩から石銀までの道のりはあまり手入れがされておらず、たどるのが困難な場合もあるので、訪れる際は注意しましょう。



【タイトル】 石見銀山遺跡（銀山柵内 集落跡） 坂根口番所跡

【想定媒体】 WEB

**<韓国語>****사카네구치 감시소 터**

17세기 초기 이와미 은광을 직접 관리하게 된 에도(현재의 도쿄) 막부는 이와미 은광을 드나드는 사람이나 물류의 흐름을 관리하기 위해 은광 주변에 울타리를 세우고 모든 출입구에 감시소를 지었습니다. 이러한 감시소의 관리들은 은광으로 들어가는 물품에 세금을 매기거나 막부의 재원인 은이 반출되지 않도록 단속하고 채굴 지역에서 노동이나 거주를 허가받지 않은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업무를 맡았습니다. 가장 중심이 되었던 채굴지 주변에는 이러한 감시소가 10 개소나 있었습니다. 또한 막부가 직접 관리하고 150 여 개의 인근 마을을 아울렀던 긴잔고려라는 지역 일대에는 더 많은 감시소가 있었습니다. 사카네구치는 채굴장을 오가는 물류를 수송하는 주요 항만인 유노쓰항으로 연결된 길의 마지막 감시소였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감시소가 있던 장소는 현재 민가가 되어 감시소의 흔적은 전혀 없지만, 유노쓰로 향하는 길은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사카네구치에서 고개를 넘어 니시타 마을을 빠져나오기까지는 약 5 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日本語仮訳>****坂根口番所跡**

17世紀初め、江戸（現在の東京）幕府が石見銀山を直接管理するようになると、石見銀山を出入りする人や物の流れを管理するために、銀山の周りには柵が造られ、すべての出入り口には番所が建てられました。こうした番所にいた役人たちは、銀山に入る品物に対する税の徴収、幕府の財源である銀の持ち出しの取締り、採掘地域での労働や居住を許可された人以外の立ち入り制限を確実に行う任務を担っていました。中心の採掘地域の周りにはこのような番所が 10ヶ所ありました。また、幕府が直接管理し、150ほどの近隣の村を抱えていた銀山御料という地域一帯にはさらに多くの番所がありました。坂根口は、採掘場を出入りする物を輸送するための主要な港湾である温泉津港とを結ぶ道における最後の番所であったため、特に重要でした。番所があった場所は、現在民家となっており、番所の跡は一切残っていませんが、温泉津への道のはいまでもそのまま残っています。坂根口からは峠を越えて、西田の村を通り抜け 5時間ほどかかる道なりとなっています。

【タイトル】 石見銀山遺跡（銀山柵内 集落跡） 本谷口番所跡

【想定媒体】 WEB

**<韓国語>****혼다니구치 감시소 터**

17세기 초기 이와미 은광을 직접 관리하게 된 에도(현재의 도쿄) 막부는 이와미 은광을 드나드는 사람이나 물류의 흐름을 관리하기 위해 은광 주변에 울타리를 세우고 모든 출입구에 감시소를 지었습니다. 이러한 감시소의 관리들은 은광으로 들어가는 물품에 세금을 매기거나 막부의 재원인 은이 반출되지 않도록 단속하고 채굴 지역에서 노동이나 거주를 허가받지 않은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업무를 맡았습니다. 가장 중심이 되었던 채굴지 주변에는 이러한 감시소가 10개소나 있었습니다. 또한 막부가 직접 관리하고 150여 개의 인근 마을을 아울렀던 긴잔고려라는 지역 일대에는 더 많은 감시소가 있었습니다. 혼다니구치에서는 18세기 후기까지 이와미 은광의 주요 채굴장 중 하나였던 혼다니(‘주요(혼)한 계곡(다니)’이라는 뜻)로 통하는 입구를 감시했습니다. 이와미 은광에서 가장 많은 광석이 채굴된 갱도와 수직갱이 이 혼다니에 있었기 때문에 상당수의 광산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이 지역에서 생활했습니다. 혼다니구치와 그 인근에 자리한 미즈오치구치는 쌍을 이뤄 이와미 은광의 치안을 유지한 주요 지점이었습니다. 감시소 건물의 흔적은 전혀 남아있지 않지만 길가에 있는 작은 토루(흙더미)가 당시의 장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日本語仮訳>****本谷口番所跡**

17世紀初め、江戸（現在の東京）幕府が石見銀山を直接管理するようになると、石見銀山を出入りする人や物の流れを管理するために、銀山の周りには柵が造られ、すべての出入り口には番所が建てられました。こうした番所にいた役人たちは、銀山に入る品物に対する税の徴収、幕府の財源である銀の持ち出しの取締り、採掘地域での労働や居住を許可された人以外の立ち入り制限を確実にを行う任務を担っていました。中心の採掘地域の周りにはこのような番所が10ヶ所ありました。また、幕府が直接管理し、150ほどの近隣の村を抱えていた銀山御料という地域一帯にはさらに多くの番所がありました。本谷口では18世紀後期まで石見銀山における主要な採掘場の1つであった本谷（「主要な谷」の意）への入り口を監視していました。石見銀山で最も多く鉱石が取れた坑道や縦坑のいくつかが本谷にあり、非常に多くの鉱山労働者やその家族たちがその地域に暮らしていました。このことにより、本谷口とその近くにある水落口という2つで対となる番所は石見銀山の取り締まりにおいて主要な地点となりました。番所の建物の跡は一切残っていませんが、道沿いにある小さな土塁がその場所を示しています。

【タイトル】 石見銀山遺跡（銀山柵内 集落跡） 石銀集落跡

【想定媒体】 WEB

**<韓国語>****이시가네 마을 터**

센노산 주변의 은 광산은 16세기 중반보다 좀 더 널리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센노산 정상 부근에는 비교적 평탄하고 낮은 풀로 덮힌 넓은 계단식 지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와미 은광이 가장 번영했던 17세기 초기에 광산 노동자들이 대규모 마을을 이루며 살았던 이시가네라는 장소입니다. 이시가네 마을은 또 다른 하나의 중요 채굴 거점이었던 혼다니로 향하는 폭 2m 정도의 내리막길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는데 길 양쪽에는 여러 건물들이 줄지어 서있었습니다. 현재 이 길은 복원되었습니다. 제련용 갱도 유구와 부스러진 광석, 그리고 이곳에서 발견된 다양한 물품들을 통해 광산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각자의 집에서 근처 갱도에서 채굴된 은 광석을 선광하고 용해해 제련하며 생활과 노동 모두를 이 지역에서 수행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 집에는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토벽이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이처럼 고립된 장소에서 생활할 때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신선한 물은 근처의 우물에서 길러왔습니다.

이시가네 마을 터 중심지 부근에 자리한 좁은 갱도 앞에는 광산 노동자의 집이자 작업장으로 사용되었던 돌의 기초가 부분적으로 복원되어 있습니다. 1990년대에 이루어진 마을 터 발굴에서는 이와미 은광의 근대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고고학적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회취법(灰吹法)을 이용한 은 제련에 사용되었던 16세기 철제 냄비가 발견된 것입니다. 당시 고품질의 은을 생산함에 있어서 중요한 열쇠였던 이 기술은 1533년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전해졌다고 역사 문서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회취법과 이와미 은광의 관계를 뒷받침하는 물적 증거는 이시가네에서 발견된 이 철제 냄비가 최초였습니다.

이시가네에서 이루어진 발굴은 이와미 은광의 광산 노동자들로 구성된 공동체의 구조를 밝히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은을 채굴하거나 가공하는 일은 종종 가족 단위로, 그리고 때로는 각 가족들이 함께 수행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을 터에서 발견된 인상적인 발굴 중 하나는 여성의 머리카락 묶음을 엮어 만든 부적입니다. 이는 아마도 아내가 채굴장에서의 안전을 기도하며 남편에게 건넨 행운의 부적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日本語仮訳>****石銀集落跡**

仙ノ山の周辺では銀鉱山が16世紀中頃より拡大していきました。現在、仙ノ山の頂上付近には、比較的平坦で、背丈の低い草に覆われた、階段状の広々とした土地があります。ここは、石見銀山が最も繁栄した17世紀初期に鉱山労働者の大きな集落があった石銀という場所です。石銀集落は、もう1つの重要な採掘拠点だった本谷への斜面を下る幅2メートルほどの道を中心としており、その両側に様々な建

物が立ち並んでいました。現在、この道は復元されています。製錬用の坑道の遺構や、押しつぶされた鉱石、そして、ここから発掘されたその他の品々から、鉱山労働者とその家族たちは、それぞれの家々で、近くの坑道から採れた銀の鉱石を選鉱し、溶解し、製錬しながら、生活と労働の両方を行っていたことが分かりました。これらの家々には火事の防止のために土壁が使われていました。また、このように孤立した場所での生活にとって欠かせない新鮮な水は近くの井戸から運ばれていました。

石銀集落跡の中心地近くの、狭い坑道の前に、鉱山労働者の家および作業場に使われていた石の基礎が部分的に復元されています。1990年代に行われたこの集落跡の発掘では石見銀山の近代の歴史における非常に重要な考古学的発見がありました。灰吹法を用いた銀の製錬に利用された16世紀の鉄鍋が見つかったのです。当時高品質の銀を生産するために重要であったこの技術は、1533年に朝鮮半島から日本にもたらされたものであると、歴史を記した文書の中では示されていましたが、石銀で見つかった鉄鍋は灰吹法と石見銀山の関係を裏付ける最初の物的証拠となりました。

石銀での発掘は石見銀山の鉱山労働者らによる共同体の構造を解明する手助けともなりました。銀の採掘と加工はしばしば家族単位でそれぞれの家族が一緒になって行っていた仕事だったようです。集落跡での印象的な発掘物の1つとして女性の髪の毛を結んで作ったお守りがありました。おそらく、妻が採掘場での安全を祈って夫に渡した幸運のお守りだったのでしょう。

【タイトル】 石見銀山遺跡（銀山柵内 集落跡） 石銀千畳敷集落跡

【想定媒体】 WEB

**<韓国語>****이시가네 센조지키 마을 터**

센노산 정상 부근의 비교적 평탄하고 넓은 계단식 지대에는 이와미 은광이 가장 번영했던 17세기 초기 이시가네, 이시가네 후지타, 이시가네 센조지키 등 여러 마을이 존재했습니다. 이 마을들은 또 다른 하나의 중요 채굴 거점이었던 혼다니로 향하는 폭 2m 정도의 내리막길(현재 이 길은 복원되었습니다)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는데 길 양쪽에는 여러 건물들이 줄지어 서있었습니다. 채련용 갱도 유구와 남은 광석, 그리고 1990년대에 이 지역 남동쪽에 자리한 과거 이시가네 센조지키였던 장소에서 발견된 다양한 물품 등의 고고학적 증거를 통해 광산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근처 갱도에서 채굴된 은 광석을 선광하고 용해해 제련하며 생활과 노동 모두를 이 지역에서 수행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작업장으로서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었던 이들의 집에는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토벽이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이처럼 고립된 장소에서 생활할 때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신선한 물은 근처의 우물에서 길러왔습니다. ‘천 장의 다다미’라는 뜻으로 센조지키라 불린 과거 커다란 공동체가 있었던 넓은 장소에 건물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지만, 언덕의 경사면을 따라 뚫린 여러 개의 갱도 구멍을 볼 수 있습니다. 갱도는 끌과 망치만을 사용해 파내려간 것으로, 상당한 시간과 노력 끝에 완성되었을 구멍은 광산 노동자 한 명이 어떻게든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널찍한 너비입니다.

**<日本語仮訳>****石銀千畳敷集落跡**

仙ノ山の山頂近くにあった比較的平坦で、階段状になった広々とした土地には、石見銀山が最も繁栄した 17 世紀初期に、石銀、石銀藤田、石銀千畳敷などといったいくつかの集落がありました。これらの集落は、もう 1 つの重要な採掘拠点だった本谷への斜面を下る幅 2メートルほどの道（現在、この道は復元されています）を中心としており、その両側に様々な建物が並んでいました。製錬用の坑道の遺構や、余った鉱石、そして、1990 年代にこの台地の南東側、かつて石銀千畳敷だった場所で発見されたその他の考古学的物証から、鉱山労働者とその家族たちはこの場所で近くの坑道から採れた銀の鉱石を選鉱し、溶解し、製錬しながら、生活と労働の両方を行っていたことが分かりました。作業場としての役割も果たしていた彼らの家々には火事の防止のために土壁が使われていました。また、このように孤立した場所での生活にとって欠かせない新鮮な水は近くの井戸から運ばれていました。「千枚の畳」を意味する千畳敷という名前で呼ばれた、かつて大きな共同体があった広い場所に建物は一切残っていませんが、丘の斜面に沿っていくつかの坑道の穴が見られます。坑道はのみと槌だけを使って掘られており、時間と労力をかけて出来上がった穴は鉱山労働者が 1 人なんとか通れるほどの広さとなっています。

【タイトル】 石見銀山遺跡（銀山柵内 集落跡） 栃畑谷集落跡

【想定媒体】 WEB

**<韓国語>****도치하타다니 마을 터**

도치하타다니는 이와미 은광에서 가장 오래된 광산 노동자들의 공동체 중 하나가 있었던 곳입니다. 16 세기 중반에 형성된 도치하타다니 마을은 16 세기 후반부터 17 세기 초까지 이와미 은광의 번성과 함께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적어도 에도 시대(1603~1867) 중기까지 평탄한 계단식 지대 위에 여러 민가가 지어지며 광산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마을이 형성되었습니다. 도치하타다니와 관련된 에도 시대의 기록에 따르면 이곳에 여러 사찰이 존재했고 사람들은 그 사찰을 참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그 집이나 사찰은 전혀 남아있지 않지만 대지를 보강하기 위해 세운 돌담은 지금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언덕의 경사면에서는 여러 개의 갱도 구멍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치하타다니는 일찍부터 사람들이 정착했던 지역일 뿐만 아니라, 이와미 은광의 국제적인 공동체 중 하나였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합니다. 마을과 관련된 기록에는 동아시아계 기술자의 존재를 상기시키는 지명이나 전승도 남아 있는데, 이들은 고도의 광석 가공 기술과 지식을 일본에 전해준 기술 고문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이 전해준 기술 중 하나가 1533 년 이와미 은광에 소개된 은 채련법인 회취법(灰吹法)입니다. 이와미 은광에서 순도가 높은 은을 대량으로 생산하여 그 이름이 세계에 알려지면서 16 세기 중반 이후 세계 경제에 기여하는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이 회취법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이때가 이와미 은광 역사의 터닝포인트였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日本語仮訳>****栃畑谷集落跡**

栃畑谷は石見銀山で最も古い鉱山労働者たちの共同体の1つがあった場所です。16世紀の中頃に出来た栃畑谷の集落は、16世紀後期から17世紀初期にかけて石見銀山が栄えるのに伴って拡大し、平坦で階段上になった土地の上に建てられた家々に少なくとも江戸時代（1603-1867）の中頃までは鉱山労働者を中心とする集落が形成されていました。江戸時代の栃畑谷に関する記録には、いくつかの寺院があったことが書かれており、人々は、それらの寺院にお参りしていたとみられます。現在、それらの家々や寺院は一切残っていませんが、台地を補強するために築かれた石垣は今でも見ることができます。丘の斜面にはいくつかの坑道の穴も見られます。

栃畑谷は、早くから人々が定住していただけでなく、石見銀山における国際的な共同体の1つであったことも注目に値します。集落に関する記録には、東アジア系技術者の存在を想起させる地名や伝承が残っていますが、彼らは、高度な鉱石加工技術の知識を日本に伝える手助けをした技術顧問であった可能性があります。彼らが伝えた技術の1つが、1533年に石見銀山へと紹介された、銀の精錬技法である灰吹

法です。石見銀山で高純度の銀を大量に生産することを可能にして、その名を世界に知らしめ、16世紀中期以降の世界経済に貢献するきっかけになった技法が灰吹法だったことから、同年は石見銀山の歴史におけるターニングポイントといえるでしょう。

【タイトル】石見銀山遺跡（銀山柵内 集落跡） 昆布山谷集落跡

【想定媒体】WEB

**<韓国語>****고부야마다니 마을 터**

고부야마다니는 이와미 은광의 주요 명소 중 하나인 류젠지 갯도 입구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자리한 마을 터입니다. 16 세기 후반부터 17 세기 후반까지 이와미 은광이 번성하면서 언덕의 경사면 일대에는 광산 노동자들을 위한 대규모 마을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때 암반에 뚫린 다수의 갯도에서 가까운 거리에 자리한 평탄한 계단식 지대 위에 노동자들의 마을과 은을 가공하는 시설이 건설되었습니다. 고부야마다니 마을은 수세기에 걸쳐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메이지 시대(1868~1912)까지도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마을이 이렇게 오랫동안 존속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이와미 은광 근처에 있는 센노산 기슭과 거리가 가까워서 비교적 접근이 편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을이 저지대에 형성되었다는 점은 재앙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종종 홍수가 발생하여 때로는 마을에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혔던 것입니다.

고부야마다니 위쪽에는 신요코아이 갯도가 있습니다. 신요코아이 갯도는 에도 시대(1603~1867) 중기에 개발된 것으로 고부야마다니에 살았던 광산 노동자들의 창의성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신요코아이 갯도는 수직으로 뻗은 은 광맥에 닿을 수 있도록 산중턱에서 수평보다 약간 위쪽을 향하는 각도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채굴 과정에서 나온 지하수를 외부로 쉽게 흘러 보낼 수 있었습니다. 원래의 갯도는 하나 이상의 은 광맥과 평행이 되도록 급격한 각도로 아래를 향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광맥을 따라 만들어진 갯도는 배수 기능이 부족했기 때문에 결국 물로 가득차 버리고 맙니다. 고부야마다니의 광산 노동자들은 이를 방지하지 위해 혁신적인 형태의 갯도를 발명한 것 외에도 은이 전부 채굴되자 구리를 채굴하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메이지 시대에 들어서도 계속되었는데, 후지타구미라는 기업은 이와미 은광의 권리를 손에 넣은 후 근대적인 광석 선광이나 제련을 위한 시설을 고부야마다니에 건설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20 세기에 접어들 무렵 인근에 자리한 고지다니 지역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처럼 350 년 가까이 채굴이 이루어졌던 고부야마다니에는 결국 조용한 정적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日本語仮訳>****昆布山谷集落跡**

昆布山谷は、石見銀山における主な見どころの1つである龍源寺間歩の入り口から200メートルほど離れた所にある集落跡です。16世紀後期から17世紀初期にかけて石見銀山が栄えるのに伴って、丘の斜面一帯に鉱山労働者のための大きな集落が造られ、岩盤に掘られた多くの坑道から場所にある、平坦で階段状になった土地の上には、労働者たちの集落や銀を加工するための施設が建設されました。昆布山谷の集落は数世紀にわたり徐々に拡大し、明治時代（1868-1912）まで人が暮らしていました。集落がこれほど長く存続した理由の1つが、石見銀山付近にある仙ノ山の麓に近いという比較的便利な立



地でした。しかし、集落が低地にあったことは災いの素ともなりました。昆布山谷はしばしば洪水に見舞われ、時には深刻な被害を受けることがあったのです。

昆布山谷の上側には新横相間歩があります。新横相間歩は江戸時代（1603–1867）中頃に開発されたもので、昆布山谷の鉱山労働者たちの創意工夫の証となっています。垂直に伸びる銀鉱脈に届くように、新横相間歩は山腹に対して水平よりわずかに上向きの角度で掘られています。こうすることで採掘により出てきた地下水を外へ流すことができます。しかし、そのように鉱脈を追って作られた坑道は、排水機能が乏しいため、坑道内は遅かれ早かれ水でいっぱいになってしまいます。昆布山谷では、それを防ぐための革新的なタイプの坑道を発明したことに加えて、昆布山谷の鉱山労働者たちは、銀を掘り尽くすと、次は、銅の採掘を始めました。この取り組みは明治時代に入っても続けられ、藤田組という企業が石見銀山の権利を手に入れると、近代的な鉱石の選鉱および製錬施設が昆布山谷に建設されました。それらの機能は 20 世紀に入る頃に近くにある柑子谷の地域へと移されました。こうして 350 年間近く採掘が行われてきた昆布山谷に静寂が訪れたのです。

【タイトル】 石見銀山遺跡（銀山柵内 集落跡） 吉岡出雲墓所

【想定媒体】 WEB

**<韓国語>****요시오카 이즈모의 무덤**

긴잔(은광)강보다 훨씬 높은 곳, 숲이 우거진 언덕 중턱에는 17세기 초반 일본에서 금과 은의 채굴을 촉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인물의 묘 하나가 외롭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즈미국(현재의 오사카부 남부)에서 태어난 요시오카 하야토는 모리 씨족이 1562년부터 지배했던 이와미 은광의 관리자로 일했습니다. 1603년부터 1867년까지 일본을 통치한 도쿠가와 막부의 창시자 도쿠가와 이에야스(1543~1616)는 1600년에 이와미 은광의 지배권을 획득한 후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가신 중 하나였던 오쿠보 나가야스(1545~1613)를 은광의 감시자로 임명했습니다. 훌륭한 경영자였던 오쿠보는 정치는 정치가에게 맡기라면서 경영 기술과 은 광맥을 발견하는 능력이 뛰어났던 요시오카를 채용했습니다.

오쿠보는 요시오카에게 임무를 부여하여 이즈(현재의 시즈오카현 동부)의 은 광산과 사도섬(니가타현)의 아이카와 광산 등 막부가 관리하던 여러 광산에 그를 파견했습니다. 각지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둔 요시오카는 부와 명성을 손에 넣었을 뿐만 아니라, 이즈모라는 명예로운 이름도 하사받게 되었습니다. 이즈모라는 이름은 이와미 은광 동쪽에 위치한 나라의 국명(현재의 시마네현 동부)에서 따온 것입니다. 1614년에 사망한 요시모토 이즈모는 그 지역에서 가장 명예로운 사찰 중 하나였던 고쿠라쿠지 절에 묻혔습니다. 고쿠라쿠지 절은 한참 오래 전에 사라졌지만, 1813년 그의 후손들에 의해 다시 세워진 요시오카 이즈모의 묘석은 옛 사찰의 묘지가 있었던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日本語仮訳>****吉岡出雲の墓**

銀山川より遙か高い所にある、木々に覆われた丘の中腹には、17世紀初期に日本中で金銀の採掘を促進するのに重要な役割を担った人物の墓が1つだけぽつりとあります。和泉国（現在の大阪府南部）に生まれた吉岡隼人は、毛利家が1562年から管理していた石見銀山で役人として働いていました。1603年から1867年まで日本を統治した徳川幕府を開いた徳川家康（1543-1616）が1600年に石見銀山の支配権を得ると、家康は最も信頼する家臣の1人であった大久保長安（1545-1613）を銀山の監視役として任命しました。優れた経営者であった大久保は、政治は政治家に任せると、経営技術と銀鉱脈を発見する能力に長けていた吉岡を採用したのでした。

大久保は吉岡に任務を与え、伊豆（現在の静岡県東部）の銀鉱山や、佐渡島（新潟県）の相川金銀山など、幕府が管理していたいくつかの鉱山へと送りました。吉岡は素晴らしい成果を上げ、富と名声を手に入れるとともに、出雲という名誉ある名前を授かりました。出雲という名前は石見銀山の東に位置す

る国名（現在の島根県東部）から取ったものです。1614年に死去すると、吉岡出雲はその地域で最も名誉ある寺の1つであった極楽寺に埋葬されました。極楽寺はずいぶん前に無くなってしまいましたが、1813年に彼の子孫たちによって再び立てられた吉岡出雲の墓石が、かつて寺の墓地があった場所に残されています。

【タイトル】 石見銀山遺跡（銀山柵内 集落跡） 銀山大盛祈願道場碑

【想定媒体】 WEB

**<韓国語>****이와미 은광의 번영을 기원한 비석**

과거 류쇼지 절이 있던 장소에는 현재 포장되지 않은 길 끝으로 고요한 숲이 자리하고 있을 뿐이지만, 그 길 옆에 ‘銀山大盛祈願道場碑(은산대성기원도장비)’라고 새겨진 비석 하나가 외롭게 서서 옛날 이곳의 찬란한 과거를 상기시켜 줍니다. 이 비석은 류쇼지 절이 다가오는 1년 동안 더 많은 은이 채굴되기를 기원하며 연례행사 의식을 치렀던 3곳의 사찰 중 하나였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년 새해가 시작된 지 20일째 날에 열린 이 의식에서는 류쇼지 절, 고부야마다니의 사히메야마 신사, 그리고 오모리 마을에 있는 간제온지 절을 이와미 은광에서 도쿠가와 막부의 대표자 역할을 한 다이칸(막부의 직할령을 관리하는 관청의 관리)이 방문하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들 세 사찰이 선택된 이유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다이칸쇼(다이칸이 집무하는 관청)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종동(曹洞宗)의 선종 사찰인 류쇼지 절, 신토의 신사인 사히메야마 신사, 그리고 진언종(眞言宗) 사찰인 간제온지 절이 선택된 것은 다양한 출신지와 사회적 배경을 가진 주민들이 많이 거주했던 이와미 은광의 종교적 다양성을 반영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日本語仮訳>****石見銀山繁栄を祈願した石碑**

かつて龍昌寺があった場所は、今では舗装されていない道の終わりに静かな林があるのみですが、その道の脇には「銀山大盛祈願道場碑」と刻まれた石碑がたった 1 つぽんと立っており、この場所の輝かしい過去を思い起こさせてくれます。この石碑は、龍昌寺が、向こう 1 年間にわたり、より多くの銀を採掘できるように祈願する毎年恒例の儀式を行う 3 つの寺社のうちの 1 つであったことを示しています。新年 20 日目に行われる儀式では、龍昌寺、昆布山谷の佐毘売山神社、そして大森の町にある観世音寺を、石見銀山における徳川幕府の代表者である代官（幕府の直轄領を管理する官庁の官吏）が訪問して祈願しました。これら 3 つの寺社が選ばれた理由ははっきりしていませんが、いずれも代官所（代官が執務する官庁）からの特別な待遇を受けていたようです。曹洞宗の禅寺である龍昌寺、神道の神社である佐毘売山神社、そして眞言宗の寺であった観世音寺が選ばれたということは、出身地や社会的背景において多様な住民がいた石見銀山の宗教的多様性を反映しているようにも見えます。

【タイトル】石見銀山遺跡（銀山柵内 集落跡） 清水寺山門

【想定媒体】WEB

**<韓国語>****세이스이지 절**

진언종(眞言宗) 사찰인 세이스이지 절은 16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이와미 은광의 역사에서 크게 눈에 띄는 존재였습니다. 주변 곳곳에 은 광맥이 펼쳐져 있는 센노산 중턱에 자리한 세이스이지 절은 관리들과 평민들 모두에게 존경을 받는 대상이었습니다. 이와미 은광에서 가장 풍부한 은 광맥 중 하나를 발견한 갱부 야스하라 덴베에가 1602년에 주맥에 도달하기 전 기도를 드린 장소가 바로 이 세이스이지 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막부의 재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야스하라가 포상으로 도쿠가와 이에야스(1543~1616)에게 하사받은 화려한 도후쿠(귀족이나 고관들이 입는 장식용 상의)는 세이스이지 절에 기증되었습니다. 도후쿠는 현재도 사찰의 소유물이기는 하지만 진품은 교토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세이스이지 절이 현재의 위치로 옮겨진 것은 1878년으로 이전된 부지 자리에 원래부터 있었던 사찰의 건물은 세이스이지 절의 본당으로 새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본당에는 11개의 얼굴을 가진 자비심 많은 보살 십일면관음의 금박상이 안치되어 있으며, 격자 모양의 천장에는 세이스이지 절에 자금을 기부한 무사와 상인들의 가문 문양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현재 세이스이지 절에 있는 산문(사찰로 들어가는 문)은 이와미 은광의 주요 신사 중 하나인 사히메야마 신사를 관리하는 사찰의 산문이었던 것으로 1931년에 이전되었습니다. 산문은 한 쌍의 석상이 지키고 있는데 우측에는 오대명왕 중 하나이자 악마와 불교의 적들에게 분노를 터트리는 부동명왕이, 좌측에는 사천왕 중에서도 가장 위상이 높아 강력한 수호신으로도 여겨지는 비사문천이 서 있습니다.

**<日本語仮訳>****清水寺**

清水寺は眞言宗の寺であり、16世紀後半より始まった石見銀山の歴史において大いに目立つ存在でした。周囲に銀鉱脈の広がる仙ノ山の山腹に位置していた清水寺は、役人たちにとっても、平民たちにとっても崇敬の対象でした。石見銀山で最も豊かな銀鉱脈の1つを発見した山師の安原伝兵衛が、1602年に主脈にたどり着く前に祈願した場所が清水寺であったと言われています。安原が、幕府の財源に貢献したことに対する褒美として徳川家康（1543-1616）から拝領した華麗な道服（貴族や高官などが着る装飾的な上衣）は清水寺に寄付されました。道服は今でも寺の所有物ではありますが、現在は京都国立博物館にて所蔵されています。

清水寺は現在の位置に1878年に移転され、その敷地に元々あった寺の建物が清水寺の本堂として新たに使われることとなりました。本堂には11の顔を持つ慈悲深い菩薩である十一面観音の金箔像が安置されており、格子状の天井は清水寺に寄付をした武士や商人たちの家紋で飾られています。清水寺の

現在の山門（寺院に入る門）は、石見銀山における主要な神社であった佐毘売山神社を管理する寺の山門だったものを 1931 年に移築したものです。山門は一对の石像によって守られており、右側には五台明王の 1 尊であり、悪魔やその他の仏教の敵に対して怒りをぶつける不動明王が、左側には四天王の中でも最高位を占め、強力な守護神である毘沙門天が立っています。

【タイトル】 石見銀山遺跡（銀山柵内 集落跡） 妙正寺跡

【想定媒体】 WEB

**<韓国語>****묘쇼지 절**

니치렌종(日蓮宗)의 작은 사찰인 묘쇼지 절은 긴잔초(은광 마을) 지역이 내려다보이는 긴잔(은광)강 주변의 산책로를 마주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1514 년에 지어진 이 사찰의 주된 신도는 이와미 은광의 상공업자들이었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이승뿐 아니라 저승에서도 정신적, 물질적 구원을 구할 것을 장려하는 니치렌종의 가르침에 끌렸던 것 같습니다. 묘쇼지 절이 수백 년 동안이나 사람들의 신앙을 끌어 모았다는 사실은 산속에 자리한 커다란 묘지에 16 세기부터 20 세기까지의 날짜가 새겨진 묘석이 존재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찰과 묘지 주변 모두를 완전히 황폐화했던 1943 년의 홍수와 잦은 산사태로 절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후에 다시 재건되었습니다. 사찰 건물 앞에 자리한 현대적인 작은 묘지에 극히 일부분의 묘석만이 남아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나무와 언덕의 덩굴 아래에 묻혀 있습니다.

**<日本語仮訳>****妙正寺**

妙正寺は日蓮宗の小さなお寺で、銀山町の地域を見下ろす銀山川沿いの遊歩道に面して建っています。このお寺は 1514 年に建てられ、特に石見銀山の商工業者らの間で信仰を集めました。そうした人々の多くは、この世とあの世における精神的・物質的な救済を求めることを奨励する日蓮宗の教えにひかれていたのです。妙正寺が数百年もの間人々の信仰を集めたことは、山間の大きな墓地に、16 世紀から 20 世紀までの日付が刻まれた墓石が存在することによって裏付けられています。お寺も墓地も、周辺を荒廃させた 1943 年の洪水と度重なる山崩れの甚大な被害を被りましたが、のちに再建されました。お寺の建物の前の小さな現代的な墓地にごくわずかに墓石が残っているほかは、そのほとんどが木や斜面の藪の下に埋もれています。

【タイトル】 石見銀山遺跡（銀山柵内 集落跡） 大安寺跡

【想定媒体】 WEB

**<韓国語>****다이안지 절터**

다이안지 절은 이와미 은광의 초대 부교(무가 시대에 행정 사무를 담당했던 장관급 관리)였던 오쿠보 나가야스(1545~1613)의 보다이지(한 가문의 일족이 선조의 혼령을 기리기 위해 짓는 사원)로 1605년에 세워진 정토종(淨土宗)의 사찰입니다. 유능한 관료면서도 광산에 대한 지식이 뛰어났던 오쿠보는 도쿠가와 막부의 초대 쇼군인 도쿠가와 이에야스(1543~1616)가 1600년에 은광의 지배권을 획득하자마자 곧 은광의 부교로 지명되었습니다. 이와미 은광의 큰 번영에 기초를 닦은 것으로 평가되는 오쿠보는 이후에도 귀금속 자원이 풍부한 여러 지역에서 감독자로 등용되었습니다.

오쿠보는 69세의 나이로 사망했지만, 이 다이안지 절에 마련된 묘는 실제 그의 사체를 매장한 곳이 아닌 일종의 기념비로 오쿠보가 사망하기 훨씬 이전에 세워졌습니다. 이름 높은 은광의 부교를 모신 땅에서 잠들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오쿠보의 무덤을 중심으로 묘지가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다이안지 절은 1943년까지 남아 있었지만 대홍수와 잦은 산사태로 인해 건물은 전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오쿠보의 무덤을 포함한 묘지 일부만이 남아있는 지금은 긴잔(은광)강의 산책로에서 돌계단을 올라가면 찾아갈 수 있습니다.

**<日本語仮訳>****大安寺跡**

大安寺は、石見銀山の初代奉行（武家時代に行政の事務を担当した長官級の官吏）であった大久保長安（1545～1613）の菩提寺（ある家の一族が先祖の霊を祀るために建てる寺院）として1605年に建てられた浄土宗の寺です。有能な官僚であり、鉱山に関する知識に長けていた大久保は、徳川幕府の初代将軍、徳川家康（1543～1616）が1600年に銀山の支配権を得るとすぐに銀山奉行に指名されました。大久保は石見銀山が繁栄する基礎を築いたと評されており、その後、貴金属資源が最も豊富な土地の多くで、監督者に登用されました。

大久保は69歳で世を去りましたが、大安寺にある墓は、遺体を埋葬するものというよりも記念碑であり、大久保が亡くなるずっと以前に建てられたものです。名高い銀山奉行を祀る土地で眠りたいと望む人々が多く、大久保の墓を中心として墓地は徐々に拡大してゆきました。大安寺は1943年まで残っていましたが、大洪水や度重なる山崩れによって建物が破壊されてしまいました。今では大久保の墓を含む墓地の一部だけが残っており、銀山川の歩道から石段を登って訪れることができます。



【タイトル】 石見銀山遺跡（町並み・大森銀山） 西本寺山門

【想定媒体】 WEB

**<韓国語>****사이혼지 절**

사이혼지 절은 오모리 마을에서 가장 커다란 부와 영향력을 행사했던 구마가이 가문과 수세기 동안 깊은 관계를 맺어 온 사찰입니다. 구마가이 가문은 광산을 통해 재산을 축적했을 뿐만 아니라, 이와미 은광 지방의 중앙 행정을 담당했던 부교쇼(무가 시대에 행정 사무를 담당했던 관청)에서 재정, 계약, 관리 업무 등을 수행했습니다. 1600년대부터 권세를 확장해 나가기 시작한 구마가이 가문은 수십 년 후 인근 이즈모 지방에서 정토진종의 사찰을 현재의 자리로 옮겨와 절의 이름을 사이혼보라 지었다가 후에 사이혼지로 고쳤습니다. 1867년에 재건된 본당은 구마가이 가문이 사이혼지 절에 마지막으로 기여한 건물입니다. 현재 널리 알려져 있는 목조 산문(사찰로 들어가는 문)은 1600년대 초에 지어진 것으로 이 지역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건축물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산문은 원래 에도 시대(1603~1867년) 내내 이와미 은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지녔던 사찰인 류쇼지 절 부지에 있던 것입니다. 류쇼지 절은 1923년 은광이 폐광되고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면서 쇠퇴하기 시작했고 결국 1961년에 완전히 폐사되었습니다. 이후 사이혼지 절로 옮겨진 류쇼지 절의 역사적인 산문은 과거 은광이 번영했을 당시의 모습을 현재에 전하고 있습니다.

**<日本語仮訳>****西本寺**

西本寺は、大森の町で最も大きな財産と影響力を持っていた熊谷家との間で、何世紀にもわたって深い関係があった寺です。熊谷家は鉱山で財を成すとともに、石見銀山地方の中央行政を行う奉行所（武家時代に行政の事務を担当した官庁）で財政、契約、管理業務などに携わりました。熊谷家はその権勢を1600年代始めに拡大していき、数十年後に浄土真宗のお寺を近隣の出雲地方から現在の場所へ移築し、寺号を西本坊、のちに西本寺に改めました。1867年に再建された本堂は、熊谷家が西本寺への最後の貢献として建てたものです。現在はよく知られている木造の山門（寺院に入る門）は、1600年代初めに建てられたもので、この地方に現存する最も古い建物の一つです。この山門はもともと、江戸時代（1603~1867年）を通じて石見銀山でもっとも影響力のあった寺、龍昌寺の敷地にあったものです。1923年に銀山が閉山するとこの地域の人口が減少し、龍昌寺の繁栄も衰え、1961年に廃寺となりました。歴史的価値の高い龍昌寺の山門はその後、西本寺に移され、かつての銀山の繁栄を今に伝えています。

【タイトル】 石見銀山遺跡（町並み・大森銀山） 渡辺家住宅

【想定媒体】 WEB

**<韓国語>****와타나베 가문 주택**

와타나베 가문 주택은 긴잔초(은광 마을)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무사 주택으로 에도 시대(1603~1867년)에는 울타리로 구분되어 출입이 제한된 구역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주택은 2002년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었을 당시 소유주의 이름을 따서 '와타나베 가문 주택'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원래는 1811년 은광 경영에 종사한 중간급 관리자였던 사카모토 가문이 지은 것입니다. 사카모토 가문은 1604년에 초대 당주인 세이자에몬이 에도 시대에 이와미 은광을 직접적으로 통괄했던 은광 부교(무가 시대에 행정 사무를 담당했던 장관급 관리)에게 고용된 것을 시작으로 대대로 그 직책을 계승했는데 그의 후손 중에는 은광을 경영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주택에서는 당당한 모습의 문과 담장, 큰 길과 안채 사이에 배치된 정원, 두 개의 현관 등 무사 주택의 전형적인 특징을 다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현관 중 좌측의 작은 문은 거주자용으로 사용되었고 우측의 커다란 현관은 다다미가 깔린 두 개의 방과 연결되어 특별한 때에만 열렸습니다. 이 입구는 부교나 고위 관리 등 중요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안채 뒤쪽에는 2층짜리 창고와 모던한 건물이 있습니다. 와타나베 가문 주택은 부정기적으로 일반인에게 공개됩니다.

**<日本語仮訳>****渡辺家住宅**

渡辺家住宅は銀山町内で唯一残っている武士の住居で、江戸時代（1603～1867年）には、柵で区切られ、出入りが制限されたエリア内に位置していました。この住宅は、2002年に国指定史跡に指定された時の持ち主の名前からとって「渡辺家住宅」と名付けられましたが、もともとは、1811年に銀山の経営に携わった中級役人である坂本家が建てたものです。坂本家は、1604年に初代の清左衛門が、江戸時代に石見銀山の直接的な統括を行った銀山奉行（武家時代に行政の事務を担当した長官級の官吏）によって雇われたことに始まり、代々にわたりその役職を受け継いだほか、子孫の中には銀山経営を行った者たちもいました。この住宅には、力強く立派な門と塀、表通りと母屋の間に配置された庭、二つの玄関など、武士の住居として典型的な特徴が多く備わっています。二つの玄関のうち、左の小さいほうは住人用、右側の大きいほうは畳敷きの二つの部屋に続くもので、特別な時にのみ開けられました。この入口は奉行や位の高い役人など重要な客人を迎えるためのものだったのです。母屋の裏には2階建ての蔵とモダンな建物があります。渡辺家住宅は不定期で一般公開されています。

【タイトル】 石見銀山遺跡（町並み・大森銀山） 金森家（建造物説明）

【想定媒体】 WEB

**<韓国語>****가나모리 가문 주택**

독특한 건축 양식으로 유명한 가나모리 가문 주택은 무사나 장인 또는 상인들의 집, 신사와 사찰 등이 좁은 범위에 나란히 서있는 오모리 마을의 수많은 역사적 건물 중에서도 사람들의 눈길을 잡아 끄는 주택입니다. 1850 년에 지어진 가나모리 가문 주택은 튼튼해 보이는 회반죽 벽, 가문의 문장이 장식된 산가와라부키 지붕(과도가 치는 듯한 모습의 기와 한 종류를 겹겹이 포개어 나란히 이은 지붕), 내화성을 갖춘 안채에서 독립된 형태의 토광 등 많은 부분이 전형적인 상인의 저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 것은 맞배지붕의 한쪽 끝에 현관이 있다는 점입니다. 오모리에서 대부분의 입구는 바깥의 길을 마주한 긴 면에 놓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는 좀처럼 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건축적 특징은 2 층에 큰 길 방향으로 창문이 나 있다는 점입니다. 에도 시대 오모리에서는 관리가 큰 길을 지날 때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은 불경한 행위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런 주택을 본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러나 1867 년까지 이와미 은광의 중앙 행정기관이었던 부교쇼(무가 시대에 행정 사무를 담당했던 관청)에 돈을 빌리기 위해 오모리를 찾아온 사람들의 숙소로 사용된 가나모리 가문 주택에서 넓은 2 층은 필수적이었습니다.

**<日本語仮訳>****金森家住宅**

独特の建築で知られている金森家住宅は、武士や職人、商人らの家、神社仏閣などが狭い範囲内で立ち並ぶ大森の町において、多くの歴史的建築物の中でもひと際目を引きまします。1850 年に建てられた金森家住宅は、頑丈な漆喰の壁、家紋が施された棧瓦葺（一種類の瓦を重ねて並べる葺き方）、母屋から独立した耐火性の土蔵など、多くの点で典型的な商人の住居と言えます。変わっているのは、切妻の一端に玄関があることです。大森では、たいていの入口は通りに面した長辺側に位置しており、このような構造はほとんど見かけません。もう一つ風変りな建築的特徴は、表通りに面した窓のある 2 階です。江戸時代の大森では、役人が表通りを通る際に上から見下ろすことになるのは不敬であると考え、このような住宅に人々は眉をひそめたものでしたが、金森家は 1867 年まで、石見銀山の中央行政機関であった奉行所（武家時代に行政の事務を担当した官庁）からお金を借りるために大森を訪れる人々のための宿として機能していたため、広々とした 2 階が必要だったのです。

【タイトル】 石見銀山遺跡（町並み・大森銀山） 宗岡家

【想定媒体】 WEB

**<韓国語>****무네오카 가문 주택**

무네오카 가문은 이와미 은광의 역사를 통틀어 다방면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무사 가문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인물은 이와미에서 태어나 자라고 광산 전문가로 활동했던 무네오카 야에몬입니다. 야에몬은 이와미 은광의 지배권이 모리 가문에서 도쿠가와 가문으로 옮겨질 때까지 모리 데루모토(1553~1625)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은광의 권리가 도쿠가와 가문의 수중에 들어간 후, 1603년 일본을 통일하고 막부를 연 도쿠가와 이에야스(1543~1616)로부터 은광 부교(무가 시대에 행정 사무를 담당했던 장관급 관리)로 임명된 오쿠보 나가야스(1545~1613)는 일본 내에서 풍부한 귀금속 자원과 관련된 몇몇 직책을 야에몬에게 맡겼습니다. 그 직책 중에는 사도섬(현재의 니가타현 앞바다)의 금광과 은광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때 야에몬은 무네오카 사도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야에몬의 후손들은 대를 이어 이와미 은광에서 주로 세금 징수, 부교쇼(부교가 집무하는 관청)의 행정 업무 등을 담당했지만 1970년에 모종의 불화로 인해 가문은 그 직책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후 1823년에 다시 이와미 은광으로 돌아온 무네오카 가문의 당시 가장이 도신(현재의 경위 정도에 해당하는 하급 관리)으로 고용되었습니다. 1830년대에는 먼 친척인 아베 가문으로부터 무가 저택을 부여받았습니다. 현재의 무네오카 가문 주택은 이때 지어진 것입니다. 안채 정면에는 정원이 있고 창고와 과거 다실로 사용되었던 별채도 있습니다. 담장과 문은 사라졌지만 뒤쪽의 헛간은 오리지널 설계를 바탕으로 재건되었습니다. 무네오카 가문 주택은 견학용으로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지만, 건물 한 동 전체를 빌려 숙박할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日本語仮訳>****宗岡家住宅**

宗岡家は石見銀山の歴史を通して多くの重要な役割を担った武家でした。一族のうち最も知られている人物は石見に生まれ育ち、鉱山の専門家であった宗岡弥右衛門です。弥右衛門は、石見銀山の支配権が毛利家から徳川家に移るまでの間、毛利輝元（1553～1625年）につかえました。銀山の権利が徳川家に移った後、1603年に日本を統一して幕府を開いた徳川家康（1543-1616）から銀山奉行（武家時代に行政の事務を担当した長官級の官吏）に任命された大久保長安（1545～1613年）は、国内の豊かな貴金属資源に関連するいくつかの職位に弥右衛門を登用しました。その職位の中には佐渡島（現在の新潟県沖）の金銀山も含まれ、弥右衛門は宗岡佐渡という名前でも知ら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

弥右衛門の子孫は代々石見銀山で、主に税金の徴収と奉行所（奉行が執務する官庁）の行政に関わっていましたが、1790年になんらかの意見の食い違いで一族はその職を失ってしまいました。その後1823年に宗岡家は石見銀山に戻り、当時の家長が同心——現在の警部くらいに当たる下級役人——として雇われました。その後1830年代に、一家は遠縁の親戚、阿部家によって武家屋敷を与えられました。現在の宗岡家住宅は、この時に建てられたものです。母屋の正面には庭があり、蔵とかつて茶室として使われていた離れもあります。塀と門は失われてしまいましたが、裏手の納屋はオリジナルの設計図に基づいて再建されました。宗岡家住宅は見学のための一般開放はされていませんが、宿泊のために1棟貸し切りで使用することが可能です。

【タイトル】石見銀山遺跡（町並み・大森銀山） 阿部家

【想定媒体】WEB

**<韓国語>****아베 가문 주택**

아베 가문 주택은 오모리에서 가장 커다란 무사 가문 저택 중 하나로 1800 년 마을의 대부분을 태운 화재에서도 살아남은 매우 드문 건축물입니다. 1601 년 은광의 초대 부교(무가 시대에 행정 사무를 담당했던 장관급 관리)로서 은광을 감독했던 오쿠보 나가야스(1545~1613)는 아베 세이베에에게 이와미 은광을 관리하는 직책을 맡기기 위해 가이국(현재의 야마나시현)에서 그를 불러 들였습니다. 아베 가문 주택은 세이베에 이후 대대로 은광 경영에 깊숙히 관여하며 부유하고 강한 영향력을 휘둘렀던 아베 가문을 위해 1789 년에 지어진 것입니다. 세이베에의 후손들은 회계를 비롯해 갱도와 갱구에 지하수가 흘러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720 년대에 만든 신키리 갱도의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아베 가문 주택은 앞뜰, 산가와라부키 지붕(파도가 치는 듯한 모습의 기와 한 종류를 겹겹이 포개어 나란히 이은 지붕으로, 권위를 내보이려는 무사 가문에게 선호됨), 두 개의 현관 등 지위가 높은 무사 가문에 어울리는 집의 전형적인 특징을 전부 갖추고 있습니다. 좌측에 있는 작은 현관은 거주자용으로 사용되었으며 우측의 커다란 현관은 다다미가 깔린 두 개의 방으로 연결되어 중요한 손님이 오실 때만 열렸습니다. 원래의 문은 뒤편의 건물과 함께 부수입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임대되다가 1950 년에 헐렸습니다. 아베 가문 주택은 현재 숙박시설로 사용되고 있으며, 인근에 자리한 에도 시대(1603~1867)의 농가는 숭, 카페, 갤러리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日本語仮訳>****阿部家住宅**

阿部家住宅は大森で最も大きな武家屋敷の一つで、1800年に町の多くを焼き尽くした火事でも焼失を逃れた非常にまれな建築物です。1601年、初代の銀山奉行（武家時代に行政の事務を担当した長官級の官吏）として銀山を監督していた大久保長安(1545~1613年)は、阿部清兵衛を、石見銀山を管理する役職を任せるために甲斐国（現在の山梨県）から呼び寄せました。阿部家住宅は、清兵衛以降、代々銀山の経営に深くかわり、裕福で影響力の強かった阿部家のために1789年に建てられたものです。清兵衛の子孫は、会計や、坑道や坑口に地下水が流れ込む問題を解決するため1720年代に掘られた新切間歩の管理など、様々な職務をこなしました。

阿部家住宅は、前庭、棧瓦葺（一種類の瓦を重ねて並べる葺き方で、権威の象徴として武家に好まれました）、二つの玄関など、位の高い武士にふさわしい家としての典型的な特徴をすべて備えています。左手にある小さいほうの玄関は住人用、右手にある大きいほうの玄関は畳敷きの二つの部屋に続いてお

り、大事な客人のためだけに開かれました。元々の門はその後ろの建物とともに、副収入を得るために貸し出された後、1950年に取り壊されました。阿部家住宅は現在、宿泊施設として使われており、近隣にある江戸時代（1603～1867年）の農家にはショップ、カフェ、ギャラリーなどが入っています。

【タイトル】 石見銀山遺跡（町並み・大森銀山） 三宅家

【想定媒体】 WEB

**<韓国語>****미야케 가문 주택**

현재 미야케 가문 주택이라고 불리는 이 무사 가문 저택은 다나베 히코에몬을 시조로 하는 다나베 가문의 주택입니다. 히코에몬은 1601년 최초로 은광의 부교(무가 시대에 행정 사무를 담당했던 장관급 관리)를 지냈던 오쿠보 나가야스로부터 광산과 관련된 사업을 담당할 관리로 임명되어 이와미 은광 초기의 중요한 행정직 다수를 맡았던 인물입니다. 히코에몬은 1603년 일본을 통일하고 막부를 개창한 도쿠가와 가문이 은광의 권리를 획득한 후 은광을 경영하기 위해 고용한 최초의 전문가들 중 한명이었습니다. 이때 불러온 히코에몬의 새로운 동료들 대부분과 마찬가지로 이와미가 아닌, 가이국(현재의 야마나시현) 출신이었지만 그의 가족이 이와미 은광 주변에 정착해 살기 시작하면서 광산 관리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다나베 가문은 이와미의 은이 에도(현재의 도쿄) 막부로 보내지기 전에 찍는 각인을 관리하는 매우 명예로운 업무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다나베 가문이 살던 집은 1800년에 오모리의 대부분을 태운 화재로 소실되었다가 곧 재건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1974년 사적으로 지정되었을 당시 소유주였던 미야케 가문의 성을 딴 ‘미야케 가문 주택’이란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건물은 대대적으로 개조되었지만 집과 큰 길 사이에 배치된 정원, 그리고 그 정원을 둘러싼 당당한 모습의 울타리, 미쓰도모에(물을 의미하는 쉼표 모양의 무늬 3개로 이루어진 소용돌이 문양으로 화재로부터 보호해 준다고 여겨짐)가 장식된 산가와라부키 지붕(파도가 치는 듯한 모습의 기와 한 종류를 겹겹이 포개어 나란히 이은 지붕) 등 1800년대 초기 무사 가문 저택의 특징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야케 가문 주택은 현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日本語仮訳>****三宅家住宅**

現在は三宅家住宅と呼ばれているこの武家屋敷は、かつては田邊彦右衛門を祖とする田辺家の住居でした。彦右衛門は1601年、最初の銀山奉行（武家時代に行政の事務を担当した長官級の官吏）となった大久保長安から、鉱山に関する業務を行う役人の職を命じられ、石見銀山の初期における数多くの重要な行政職を担いました。彦右衛門は、1603年に日本を統一して幕府を開いた徳川家に銀山の権利が移った後、鉱山経営のために雇われた最初の専門家たちの一人でした。この時に呼び寄せられた彦右衛門の新しい同僚たちの多くと同じように、彦右衛門も石見の出身ではなく、甲斐国（現在の山梨県）に暮らしていましたが、一族は石見銀山周辺に落ち着き、鉱山管理の専門家となりました。田辺家ののちに、石見の銀が江戸（現在の東京）の幕府に送られる前に押される刻印を管理する、非常に名誉ある仕事を任されるまでに至りました。



田邊家の住居は1800年に大森の広い範囲を焼失させた火事で焼け落ちましたが、間もなく再建されました。そして現在は、1974年に史跡指定された際の持ち主であった三宅家の姓を取って「三宅家住宅」と名付けられて残っています。建物は大幅に改装されているものの、家と表通りの間に配置された庭、そしてその庭を囲む立派な塀、三つ巴（3つのコンマのような形から成る渦巻模様で、水を表し、火事から守ってくれると信じられていました）が施された棧瓦葺（種類の瓦を重ねて並べる葺き方）など、1800年代始めの武家屋敷の特徴を多く保っています。三宅家住宅は現在、一般公開されていません。

【タイトル】 石見銀山遺跡（町並み・大森銀山） 青山家

【想定媒体】 WEB

**<韓国語>****아오야마 가문 주택**

에도 시대(1603~1867)에 이와미 은광을 직접 관리 하에 둔 도쿠가와 막부는 현지의 행정관인 은광 부교(무가 시대에 행정 사무를 담당했던 장관급 관리)에게 광산 자체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토지까지도 관리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토지에는 150 개 정도의 마을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들 마을의 주민들이 부교쇼(부교가 집무하는 관청)에서 공적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오모리 마을까지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1700 년대 중반에는 마을을 여섯 그룹으로 나누어 오모리에 머물 때 그룹마다 정해진 숙소에서 숙박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확립되었습니다. 이러한 숙소를 고야도라고 하는데 고야도는 사회의 일부로서 존재했습니다. 오모리에서는 유력한 상인 가문이 고야도를 운영하며 마을에서 온 사람들이 숙박할 수 있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다이칸쇼(막부의 직할령을 관리하는 관청)에서 나온 법령 등을 각 마을에 전달하는 역할도 맡았습니다. 아오야마 가문 주택은 이 6 개의 고야도 중 하나로 다기야라는 이름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건물은 1800 년대 중반에 지어진 것으로 2 층짜리 집과 창고가 세워진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얀 회반죽 벽과 회색 기와, 그리고 검소한 모습의 목조 디테일은 한 번쯤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아오야마 가문 주택은 현재 개인이 소유하고 있지만, 종종 일반인에게 공개되기도 합니다.

**<日本語仮訳>****青山家住宅**

江戸時代（1603～1867年）、徳川幕府は石見銀山を直接の管理下に置き、現地の行政官である銀山奉行（武家時代に行政の事務を担当した長官級の官吏）が鉱山そのものだけでなく、その周辺の土地も管理するようになりました。これらの土地には 150 ほどの村々が含まれ、こうした村々の住民は、奉行所（奉行が執務する官庁）で公務を行うために大森の町へ出かける必要がありました。1700 年代の半ばには、村々を 6 つのグループに分け、大森に滞在中は、グループごとに決まった宿所に宿泊させるようにするシステムが確立されました。この宿所を郷宿といい、郷宿は社会の一部として存在していました。大森では、有力な商家が郷宿として、村々から来た人々を宿泊させるとともに、代官所（幕府の直轄領を管理する官庁）から出された法令等を各村々に伝達する役目も負っていました。青山家住宅は、6 つの郷宿の一つとして田儀屋という屋号で運営されていました。建物は 1800 年代半ばに建てられたもので、2 階建ての家と蔵が建てられた当時の姿のままで残っており、白い漆喰の壁と灰色の屋根瓦、そして、木造の質素な細部は一見の価値があります。青山家は現在も個人が所有する住宅ですが、一般公開を行うこともあります。

【タイトル】 石見銀山遺跡（町並み・大森銀山） 金森家

【想定媒体】 WEB

**<韓国語>****가나모리 가문 주택**

에도 시대(1603~1867)에 이와미 은광을 직접 관리 하에 둔 도쿠가와 막부는 현지의 행정관인 은광 부교(무가 시대에 행정 사무를 담당했던 장관급 관리)에게 광산 자체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토지까지도 관리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토지에는 150 개 정도의 마을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들 마을의 주민들이 부교쇼(부교가 집무하는 관청)에서 공적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오모리 마을까지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1700 년대 중반에는 마을을 여섯 그룹으로 나누어 오모리에 머물 때 그룹마다 정해진 숙소에서 숙박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확립되었습니다. 이러한 숙소를 고야도라고 하는데 고야도는 사회의 일부로서 존재했습니다. 오모리에서는 유력한 상인 가문이 고야도를 운영하며 마을에서 온 사람들이 숙박할 수 있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다이칸쇼(막부의 직할령을 관리하는 관청)에서 나온 법령 등을 각 마을에 전달하는 역할도 맡았습니다. 이 6 개의 고야도 중 하나인 가나모리 가문 주택은 1850 년경에 지어졌습니다. 넓은 2 층이 특징인 이 건물에는 수십 명의 손님이 숙박할 수 있었고 작은 다실도 갖추져 있었습니다. 양조장이나 부교쇼에 돈을 빌리기 위해 오모리로 찾아온 사람들의 숙소로 사용되었던 만큼 주택에는 넓은 공간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가나모리 가문 주택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004-051

**<日本語仮訳>****金森家住宅**

江戸時代（1603～1867年）、徳川幕府は石見銀山を直接の管理下に置き、現地の行政官である銀山奉行（武家時代に行政の事務を担当した長官級の官吏）が鉱山そのものだけでなく、その周辺の土地も管理するようになりました。これらの土地には 150 ほどの村々が含まれ、こうした村々の住民は、奉行所（奉行が執務する官庁）で公務を行うために大森の町へ出かける必要がありました。1700 年代の半ばには、村々を 6 つのグループに分け、大森に滞在中は、グループごとに決まった宿所に宿泊させるようにするシステムが確立されました。この宿所を郷宿といい、郷宿は社会の一部として存在していました。大森では、有力な商家が郷宿として、村々から来た人々を宿泊させるとともに、代官所（幕府の直轄領を管理する官庁）から出された法令等を各村々に伝達する役目も負っていました。金森家住宅は、6 つの郷宿の一つで、1850 年頃に建てられました。この建物は広々とした 2 階が特徴的で、数十人の客を宿泊させることができたほか、小さな茶室までありました。この家は造り酒屋や、奉行所からお金を借りるために大森へやってくる人々の宿としても使われたため、広いスペースが必要とされたのです。金森家は一般公開されていません。

【タイトル】 石見銀山遺跡（町並み・大森銀山） 柳原家

【想定媒体】 WEB

**<韓国語>****야나기하라 가문 주택**

야나기하라 가문 주택은 오모리 지구에 있는 무사 가문 저택 중에서도 가장 소박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작은 단층 구조로 된 이 건물은 이 지역의 대부분이 화재로 소실되었던 1800년 이후에 세워졌습니다. 이 집은 광산의 중심부로 드나드는 사람이나 물자의 흐름을 규제하는 감시소를 감독하기 위해 고용된 하급 관리 도신(현재의 경찰 경위에 해당하는 직위)의 거주지였습니다. 이 감시소의 감시인은 은광으로 들어가는 물품에 세금을 매기거나 막부의 재원인 은이 반출되지 않도록 단속하고 채굴 지역에서 노동이나 거주를 허가받지 않은 사람의 출입을 제한,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맡았습니다. 도신은 이와미 은광을 관리하기 위해 막부에서 임명된 오모리 다이칸(막부의 직할령을 관리하는 관청의 관리)이 근무하는 오모리 다이칸쇼(다이칸이 집무하는 관청)와 감시소를 연결하는 연락 창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도신은 급료가 특별히 높은 편은 아니었지만, 다이칸쇼를 중심으로 한 이와미 은광에서는 ‘중산계급’으로 여겨졌습니다. 야나기하라 가문 주택에서는 검소하면서도 무사 계급이 중시했던 특유의 다양한 요소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안타깝게도 현재는 사라지고 만 당당한 모습의 문과 담장, 그리고 안채 옆의 내화성을 갖춘 작은 토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물들은 자존심을 중요하게 여겼던 무사 계급에게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현재 안채부터 큰 길을 마주한 산울타리까지 넓게 펼쳐져 있는 정원은 원래 부수입을 얻기 위한 임대용 건물이 지어졌던 곳입니다. 야나기하라 가문 주택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日本語仮訳>****柳原家住宅**

柳原家住宅は、大森地区の武家屋敷の中で最も質素な屋敷です。この、比較的小さな平屋建ての建物は、この地区の大半が火事により焼失した 1800 年以降に建てられました。この家は、鉱山の中心部に出入りする人々や物資の流れを規制する口留番所を監督するために雇われた下級役人である同心(現代の警察の警部に概ね相当)の住宅でした。この口留番所の番人は、銀山に入る品物に対する税の徴収、幕府の財源である銀の持ち出しの取締り、そして、採掘地域での労働や居住を許可された人以外の立ち入りを制限し、監視する役割を担っていました。同心は、口留番所と、石見銀山を治めるために幕府から任命された大森代官(幕府の直轄領を管理する官庁の官吏)が勤務する大森代官所(代官が執務する官庁)を結ぶ連絡窓口としての役割を果たしていました。

同心は特に高給というわけではなく、代官所を中心とする石見銀山では、「中流階級」とされていました。柳原家住宅は質素ながらも、武士階級が重視した武家らしいさまざまなものが見られ、その中には、残念

ながら今はもう残っていない堂々とした門と塀、そして、母屋の隣には耐火性が備わった小さな土蔵がありました。これらは、自尊心を大事にする武士にとっては必須の建物でした。現在は、母屋から表通りに面した生垣まで、広い庭が広がっていますが、ここにはかつて、副収入を得るための賃貸用の建物が建てられていました。柳原家住宅は一般公開されていません。

【タイトル】 石見銀山遺跡（町並み・大森銀山） 西性寺

【想定媒体】 WEB

**<韓国語>****사이쇼지 절**

사이쇼지 절은 오모리 중심부의 서쪽에 위치한 정토진종(淨土眞宗)의 사찰입니다. 절 경내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은 1739년에 지어진 커다란 본당이지만 사이쇼지 절은 독특한 형태의 경장으로 더 유명합니다. 절의 경전을 보관했던 이 건물은 메이지 시대(1868~1912)부터 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 1930년대 후반까지 이와미 지방에서 번성했던 예술인 고테에(석회 미장을 활용한 벽체 부조 그림)라는 회반죽 부조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고테에는 사찰의 건축물이나 부유한 상인의 집 또는 창고에 자주 그려졌는데 화재와 악령을 물리친다고 믿어지는 용, 그리고 비옥함과 사업의 번창을 상징하는 토끼 등 운수를 좋게 만든다는 무늬로 장식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러한 이와미 회반죽 예술의 인기는 도쿄와 오사카에까지 미쳐서 국회의사당이나 황태자의 거처인 도구고쇼(東宮御所) 등의 건축물을 장식하기 위해 이와미의 장인들이 고용되기도 했습니다.

사이쇼지 절의 고테에는 고테에 명인 중 하나로 알려진 마쓰우라 에이키치(1858~1927)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마쓰우라가 환갑을 맞이했을 무렵인 1918년에 제작된 것으로, 여기에는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준다고 여겨지는 봉황, 중국 신화에서 ‘꽃들의 왕’으로 불리는 모란, 황실의 문장으로서 일본 여권이나 50엔 동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티브로 사용되는 일본의 상징 국화 등이 그려져 있습니다. 마쓰우라는 이와미 은광과 가까운 일본해 연안 마을인 니마에서 태어났습니다. 눈부신 경력을 보유한 그는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그리고 한국의 여러 도시에도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의 무덤은 사이쇼지 묘지에 있습니다.

**<日本語仮訳>****西性寺**

西性寺は、大森の中心部の西側に位置する浄土真宗寺院です。この境内で最古の建物は、1739年に建てられた大きな本堂ですが、西性寺では、特徴的な経蔵の方が有名です。寺の経典を保存しているこの建物は、明治時代（1868-1912）から第二次世界大戦前の1930年代後半にかけて石見地方で盛んになった芸術のひとつ、鏝絵という漆喰のレリーフ画で装飾されています。鏝絵は、寺院の建築物や豪商の家と蔵の装飾によく使われ、火事や悪霊を追い払うと信じられていた龍や、豊穣や商売繁盛を象徴した兎など、縁起の良い図柄がよく用いられていました。石見の漆喰芸術の人気は東京や大阪にまで及び、石見の職人は、国会議事堂や、皇太子の住まいである東宮御所などの建築物の装飾に雇われました。

西性寺の鏝絵は、鏝絵の名人のひとりとしてされている松浦栄吉（1858-1927）の作品です。1918

年、松浦が還暦を迎えた頃に制作されたもので、平和と安定をもたらすとされる鳳凰、中国神話で「花の王」とされる牡丹、皇室の家紋でもあり、日本のパスポートや 50 円硬貨など、さまざまなもののモチーフになっている日本の象徴である菊の花などが描かれています。松浦は、石見銀山に近い日本海側の町、仁摩に生まれました。彼の輝かしい経歴として、東京、大阪、福岡、そして韓国の複数の都市に作品を残しました。墓所は西性寺墓地にあります。

【タイトル】 石見銀山遺跡（町並み・大森銀山）

町並み交流センター(旧裁判所)

【想定媒体】 WEB

### <韓国語>

#### 옛 오모리구 재판소

오모리 마을은 1600년대 초기 에도(현재의 도쿄)의 도쿠가와 막부가 이와미 은광과 그 주변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 다이칸쇼(막부의 직할령을 관리하는 관청)를 설치한 이후 이와미 은광의 행정과 상업의 중심지로 발전했습니다. 1867년 도쿠가와 막부가 천황 중심의 국가 체제로 되돌리려던 혁명군에게 정권을 빼앗기면서 일본에는 메이지 천황(1852~1912)을 국가 원수로 하는 새로운 체제가 탄생했습니다. 이러한 체제의 변화로 오모리는 도쿠가와 가문의 비호 아래에서 누렸던 특별한 지위를 잃고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지방 행정의 중심지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오모리에는 경찰서와 세무서, 우체국이 만들어졌고 입헌정부가 출범한 1890년에는 재판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오모리와 인근의 49개 마을을 관할했던 오모리 재판소의 건물은 19세기 후반 일본에 소개된 서양 건축의 영향을 받아 1888년에 준공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 말기까지 사용되었습니다. 그 후 1980년대 후반까지 공민관(지역 주민을 위한 회관)으로 이용되다가 오모리 마을 경관이 그 역사적인 가치를 인정받게 되면서 재판소 건물은 오모리 마을의 보존을 위한 노력을 소개하는 박물관으로 개조되었습니다. 오모리의 민가를 복원한 모형이나 복원 과정을 기록한 자료 등의 전시 외에도 메이지 시대 법정의 모습을 마네킹으로 재현하여 건물이 거처온 역사의 흐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계단 높은 곳 중앙에 있는 의자에는 재판관이, 그 좌측에는 서기가 앉아 있습니다. 재판관 우측의 비어있는 의자는 검사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한 계단 낮은 자리에 있는 마네킹은 재판소의 직원입니다. 이 직원의 바로 앞 책상에는 피고인과 변호사가 앉게 됩니다. 이처럼 재판관과 검사가 나란히 앉아 사실상 동등한 위치에서 낮은 곳에 있는 피고인을 내려다보는 배치는 제2차 세계대전 말기까지 일본의 재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형태였습니다.

### <日本語仮訳>

#### 旧大森区裁判所

大森の町は、1600年代初頭に、江戸（現在の東京）の徳川幕府により、石見銀山とその周辺地域を治めた代官所（幕府の直轄領を管理する官庁）が置かれて以降、石見銀山の行政と商業の中心地として発展しました。1867年、徳川幕府は、天皇を中心とする国家体制を取り戻そうとする革命軍により政権が倒され、明治天皇（1852-1912）を国家元首とする新しい体制が誕生しました。このような体制の変更により、大森は、徳川家の庇護の下での特別な地位を失うという大きな変化が生じ、他の地方と同様に地方行政の中心地となりました。大森には、警察署、税務署や郵便局が置かれるようになり、立憲政府が発足した1890年には裁判所が設置されました。



大森と、近隣の 49 の村を管轄した大森裁判所の建物は、19 世紀後半に日本に持ち込まれた西洋建築の影響を受けて 1888 年に竣工し、第二次世界大戦末期まで使用されていました。その後、1980 年代後半までは公民館（地域住民のための会館）として利用されていましたが、歴史ある大森の町並みの価値が認識されるようになり、この旧裁判所は、大森の町の保存の取り組みを紹介するための博物館に改装されました。大森の民家の復元模型や、復元過程を記した資料などが展示されているほか、明治時代の法廷をマネキンで再現したものもあり、この建物がたどってきた歴史に思いをはせることができます。一段高い所の中央の席には裁判官が座り、その左の席には筆記者が座っています。裁判官の右の空席は検察官の席です。そして、下の段の席にいるマネキンは裁判所の職員です。その職員の目の前の机には被告人と弁護人が座りました。このように、裁判官と検察官が、隣り合わせに座る実質的に対等な立場であり、高い所から被告人を見下ろすという形態は、第二次世界大戦末期までの日本の裁判では当たり前のことでした。

【タイトル】 石見銀山遺跡（町並み・大森銀山） 観世音寺

【想定媒体】 WEB

**<韓国語>****간제온지 절**

간제온지 절은 진언종(眞言宗)의 사찰로 오모리 중심부에 자리한 언덕 위에서 수세기 동안 마을을 지켜온 오모리의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간제온지 절의 역사는 중세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1800년 이 마을의 대부분을 파괴한 화재로 간제온지 절의 건물과 기록 모두가 소실되었기 때문에 사찰이 창건된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사찰은 에도 시대(1603~1867)에 이와미 은광에서 막부를 대리했던 오모리 다이칸(막부의 직할령을 관리하는 관청의 관리)이 매년 새해를 맞아 은광의 번영을 기원하기 위해 방문했던 3곳의 사찰 중 하나입니다. 이는 간제온지 절이 다이칸쇼(다이칸이 집무하는 관청)의 비호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1800년의 화재 이후 재건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면서 현재의 본당은 1800년대 후반에 지어졌습니다. 또한 간제온지 절의 특징인 붉은 산문(사찰로 들어가는 문)이 현재의 장소에 세워진 것은 인근의 유명 사찰인 세이스이지 절에서 이축된 1878년이었습니다. 산문의 양 옆에는 1980년에 재건된 좌우 한 쌍의 목조 무사상이 있습니다. 언덕 위 산문으로 이어지는 계단 아래에는 멋진 지붕이 달린 사당이 있는데, 이곳에는 눈병을 치료하는 힘이 있다고 여겨지는 석조 약사여래상(임제종 묘심사파 이치바타야쿠시교단의 이치바타 약사여래)이 모셔져 있습니다. 석상 뒤편에 있는 언덕을 계속 올라가면 길을 지나는 사람들을 지켜주는 듯한 모습의 작은 불상들이 다수 안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日本語仮訳>****観世音寺**

観世音寺は眞言宗の寺院で、大森中心部の丘の上から何世紀にもわたって町を見守ってきた、大森のランドマーク的存在です。観世音寺の歴史は中世にさかのぼりますが、1800年にこの町の大半を焼失させた火事で観世音寺の建物も記録も失われてしまったため、この寺院が創建された日付は不詳です。この寺院は、江戸時代（1603-1867）に石見銀山で幕府の代理を務めた大森代官（幕府の直轄領を管理する官庁の官吏）が正月になると銀山の繁栄を祈願するために訪れた3箇所の寺社のうちのひとつで、このことは、観世音寺が代官所（代官が執務する官庁）の庇護を受けていたことを示しています。しかし、1800年の火災後の再建には時間がかかり、現在の本堂は1800年代後半に建てられ、また、観世音寺の特徴的な赤い山門（寺院に入る門）が現在の場所に建てられたのは、近くの名刹、清水寺から移築された1878年（明治11年）でした。山門の脇には、1980年に再建された左右一対の武者の木像があります。丘の上の山門へと続く階段の下には、立派な屋根のついたほこらがあり、目の病気を平癒させる力があるとされる薬師如来の石像（臨済宗妙心寺派一畑薬師教団の一畑薬師如来）が祀られています。石像の裏手にある丘をずっと上に登っていくと、道行く人々を見守るように小さな仏像が多数安置されています。

【タイトル】 石見銀山遺跡（町並み・大森銀山） 勝源寺

【想定媒体】 WEB

**<韓国語>****쇼겐지 절**

쇼겐지 절은 과거 오모리 다이칸쇼(막부의 직할령을 관리하는 관청)가 있었던 장소에서 서쪽으로 약 100m 정도 떨어진 언덕 기슭에 자리한 정도중 사찰입니다. 1600년대 초기 도쿠가와 막부가 이와미 은광의 지배권을 장악했을 무렵에 창건된 이 절은 에도 시대(1603~1867)에 이와미 은광 지역의 지방 행정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도쿠가와 가문의 쇼군이 은광을 관리하기 위해 다이칸(다이칸쇼에서 집무하는 관리)을 임명하면서 오모리 마을은 다이칸쇼를 중심으로 발전했고,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다이칸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인들과 무사들이 이곳 오모리로 이주해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다이칸이 이 쇼겐지 절에 참배를 드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중 6명은 다이칸쇼 덕분에 오모리에서 사업을 성공시켜 큰 부를 얻게 된 상인 가문의 가족들과 함께 절 경내에 매장되었습니다.

1772년에 세워진 높이 10m의 당당한 모습의 산문(사찰로 들어가는 문) 앞에는 한 쌍의 사자와 용이, 그리고 그 뒤편에는 머리가 둘인 코끼리 등 지역의 장인들이 섬세한 조각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문 바로 우측에는 이와미 은광의 2대 부교(무가 시대에 행정 사무를 담당했던 장관급 관리)를 지냈던 다케무라 미치키요(1561~1635)를 기리는 돌지붕이 달린 묘석이 서 있습니다. 이 사찰의 본당은 1867년에 지어진 것으로 화려한 색으로 칠해진 천장 아래에는 아미타여래상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본당 뒤편에 자리한 언덕을 좀 더 올라가면 에도 막부의 창시자인 도쿠가와 이에야스(1543~1616)를 신으로 모신 도쇼구(東照宮)가 있는데, 이곳에는 이에야스의 뒤를 이은 11명 쇼군들의 위패도 모셔져 있습니다. 이처럼 쇼겐지 절은 다이칸, 더 나아가서는 도쿠가와 막부와도 깊은 인연을 맺은 사찰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日本語仮訳>****勝源寺**

勝源寺は、大森代官所（幕府の直轄領を管理する官庁）がかつてあった場所から約 100m ほど西に行った丘の麓にある浄土宗の寺院です。1600 年代初頭、徳川幕府が石見銀山の支配権を握った頃に創建したこの寺は、江戸時代（1603-1867）に石見銀山地域の地方行政と密接な関係がありました。徳川家の将軍が銀山を管理するための代官を任命するようになると、大森の町は、代官所を中心として発展し、製品やサービスに対する代官所の要求を満たすために商人や武士が大森に移り住んできました。そして、長年にわたり、多くの代官が勝源寺に参拝することを選択しました。そのうちの 6 人は、代官所のおかげで大森での事業を成功させ、大きな富を得た商家の多数の家族とともに、この境内に埋葬されています。

勝源寺の山門（寺院に入る門）は、1772年に建てられた高さ10メートルの堂々としたもので、1対の獅子、龍、そしてその裏側には双頭の象など、地元の職人による精巧な彫刻が施されています。門をくぐって右手のすぐのところに、石見銀山の2代目奉行（武家時代に行政の事務を担当した長官級の官吏）、竹村道清（1561-1635）を祀る石屋根が付いた墓石が建っています。この寺院の本堂は、1867年に建てられたもので、堂内の色彩豊かに彩られた天井の下に阿弥陀如来像が安置されています。本堂の裏の丘をさらに登ると、江戸幕府の創設者、徳川家康（1543-1616）を神として祀る東照宮があり、家康の後を継いだ11人の将軍の位牌も祀られています。このことから、勝源寺が、代官所、ひいては徳川幕府とのつながりが強い寺であったことが改めてよくわかります。

【タイトル】 石見銀山遺跡（山城跡） 山吹城跡

【想定媒体】 WEB

**<韓国語>****야마부키 성터**

이와미 은광은 발견된 1527년부터 17세기 초기까지 전국 다이묘라 불린 지방 군벌들의 지배 하에 놓여 있으면서 다이묘 가문 간의 끊이지 않는 동맹과 대립을 거치며 몇 번이나 그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전투의 중심이 되었던 것이 해발 414m의 요가이산 정상에 지어진 야마부키 성입니다. 오우치 씨족이 1530년대 초기에 지은 이 성은 매우 좁은 산 정상에 부지를 평탄하게 고른 뒤, 기존에 요새로 사용되었던 성의 용도를 바꾸어 야구라(망루)를 갖춘 직사각형 형태의 천수각을 건설한 것입니다. 물 없는 해자와 계단식으로 된 요새로 둘러싸인 성의 천수각으로 이어지는 가파르고 좁은 길에는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높은 성벽과 각종 장애물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야마부키 성에서는 은광과 과거 활동의 중심지였던 산나이 마을, 그리고 일본해에 있는 항구인 도모가우라로 향하는 길을 어떠한 방해도 없이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즉 야마부키 성을 지배하는 것은 은광 지배의 핵심을 소유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적대 관계에 있던 아마고 씨족과 오가사와라 씨족이 여러 차례 성을 공격했지만, 그중 누구도 오랫동안 성의 지배권을 손에 넣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562년 이와미 은광을 완전히 수중에 넣은 모리 씨족은 야마부키 성을 더욱 요새화했습니다. 그후 야마부키 성에서 다시 대규모 전투가 일어나는 일은 없었지만 1600년, 그 3년 후에 에도(현재의 도쿄) 막부를 개창하고 일본 전역을 통치하게 되는 도쿠가와 씨족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에도 막부가 오모리 지역을 은광 운영의 중심지로 삼게 되면서 야마부키 성은 점차 쇠락해 갔습니다.

현재 요가이산 주변에는 돌담과 성벽의 흔적만이 남아 있습니다. 성의 주곽이 철거된 자리는 자연으로 되돌아 갔지만, 산 정상에 성채 등 장소를 알면 찾을 수 있는 몇몇 흔적을 여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상에서는 아름다운 해안선도 바라다 보입니다. 도모가우라 도로의 시작점부터 약 1시간 정도면 등산할 수 있지만, 일부 걷기 어려운 구간이 있어 방문객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004-057

**<日本語仮訳>****山吹城跡**

石見銀山は、1527年に発見されてから17世紀初頭まで、戦国大名に支配されており、大名どうしの同盟や対立が絶え間なく移り変わったその時代、何度も持ち主が変わりました。これらの戦いの中心となったのが、標高414メートルの要害山の山頂に建っていた山吹城です。城は大内氏が1530年代初頭に築いたもので、非常に狭い頂上を平らにし、既存の要塞を転用して、櫓を備えた長方形の天守を建設しました。城は空堀と階段状になった要塞に囲まれ、天守までの急な小道に沿って攻撃を阻止する高い城壁

やその他の障害物がありました。

山吹城からは、銀山と、かつて活動の中心地であった山内集落、そして日本海の港、鞆ヶ浦への道を何にも遮られることなく眺めることができました。そのため、山吹城を支配することが銀山支配への鍵となっていました。敵対する尼子氏と小笠原氏が何度か城に攻め込みましたが、いずれも長きにわたる覇権を手にすることができませんでした。そしてとうとう 1562 年に、毛利氏が石見銀山を完全に手中に収め、山吹城をさらに要塞化しました。その後、山吹城で大きな戦いが繰り返されることはありませんでしたが、1600 年に、その 3 年後には江戸（現在の東京）幕府を創設し、日本を統治することになる徳川氏の手に渡りました。江戸幕府は銀山運営の中心を大森地区に置いたことにより、山吹城は徐々に廃城となっていきました。

今日では、要害山周辺には石垣と城壁の名残のみが残っています。主郭の跡地は自然に戻っていますが、山頂の砦も、探す場所さえわかればそのいくつかを確認することができます。この頂上からは、美しい海岸線を見ることができます。鞆ヶ浦道の起点からは、約 1 時間ほどの登山ですが、部分的に登ることが難しい区間があるので注意が必要です。

【タイトル】 石見銀山遺跡（山城跡） 矢滝城跡

【想定媒体】 WEB

**<韓国語>****야타키 성터**

야타키 성은 16 세기에 이와미 은광과 광산의 주요 물자 공급원이었던 유노쓰항을 연결하는 도로를 방어하기 위해 쌓은 2 개의 산성 중 하나입니다. 이 산성은 1528 년 당시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전국 다이묘 오우치 요시오키(1477~1529)가 길 남쪽의 높은 구릉지에 쌓은 것입니다. 해발 634m 의 길고 좁은 형태의 산 정상 전체를 차지한 성 주변에는 돌담과 물 없는 해자 등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정상 북쪽 끝에 세워진 야타키 성의 원형 천수각에서는 도로와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다른 하나의 산성인 야하즈 성을 아무런 방해 없이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다이묘들 간의 동맹과 대립이 끊이지 않았던 1500 년대에는 이와미 은광을 둘러싸고 전국 다이묘들이 전투를 벌인 탓에 성의 주인이 몇 번이나 바뀌었지만, 1600 년대 초기에 도쿠가와 막부가 이와미 은광을 수중에 넣으면서 성의 중요성은 점차 사라졌습니다. 그 후 오랫동안 지속된 평화의 시대를 지나며 야타키 성을 비롯한 중세 시기의 성곽들은 서서히 황폐해졌습니다. 산 정상의 평탄한 지대는 제 2 차 세계대전 후 미군이 레이더 기지(후에 방송 송신 시설로 바뀜)를 건설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확장한 것으로, 현재 야타키 성의 유구는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산 정상까지 이어진 등산로를 따라 오르면 1 시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日本語仮訳>****矢滝城跡**

矢滝城は、16 世紀に石見銀山と物資の主な供給源であった温泉津港を結ぶ道を防御するために築かれた 2 つの山城のうちの一つです。この山城は、1528 年、当時この地を支配していた戦国大名、大内義興（1477-1529）がこの道の南側の高台に築城したものです。海拔 634 メートルの細長い山頂の全体を占め、その周囲には石垣や空堀などの障害が設けられていました。頂上の北端に築かれた矢滝城の円形の天守からは、道路と、同時期に築かれたもう一つの山城である矢筈城を何にも遮られることなく眺めることができました。

大名どうしの同盟や対立が絶えなかった 1500 年代には、石見銀山を巡って戦国大名たちが争ったために何度もその持ち主が変わりましたが、1600 年代初頭に徳川幕府が石見銀山を手中に収めてからはその重要性がなくなり、その後長期間続いた平和な時代により、矢滝城をはじめとする中世城郭が徐々に廃城となっていきました。山頂の平坦な部分は、第二次世界大戦後、米軍のレーダー基地（後に放送送信施設に置き換わった）用の空間を確保するために拡張されましたが、矢滝城の遺構は、現在ではほとんど残っていません。山頂へと続く登山道を登るには 1 時間とかかりません。

【タイトル】 石見銀山遺跡（山城跡） 矢筈城跡

【想定媒体】 WEB

**<韓国語>****야하즈 성터**

야하즈 성은 16 세기에 이와미 은광과 광산의 주요 물자 공급원이었던 유노쓰항을 연결하는 도로를 방어하기 위해 쌓은 2 개의 산성 중 하나입니다. 도로의 북쪽, 해발 480m 의 고지대에 위치한 이 성은 오우치 씨족이 지배했던 1520 년대 후반부터 1530 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야하즈 성은 같은 시기에 지어진 다른 하나의 산성인 야타키 성보다 훨씬 작았고, 매우 좁은 산 능선을 따라 주로 돌담과 물 없는 해자, 토루(흙더미)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남쪽에는 작은 천수각이 도로를 내려다보는 형태로 서 있었습니다. 다이묘들 간의 동맹과 대립이 끊이지 않았던 1500 년대에는 이와미 은광을 둘러싸고 전국 다이묘들이 전투를 벌인 탓에 성의 주인이 몇 번이나 바뀌었지만, 1600 년대 초기에 도쿠가와 막부가 이와미 은광을 수중에 넣으면서 성의 중요성은 점차 사라졌습니다. 그후 오랫동안 지속된 평화의 시대를 지나며 야하즈 성을 비롯한 중세 시기의 성곽들은 서서히 황폐해졌습니다. 야하즈 성이 있었던 산 정상은 자연으로 되돌아 갔으며 현재는 요새의 극히 일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성터로 이어진 등산로가 있기는 하지만 오르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등산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는 본인이 책임질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日本語仮訳>****矢筈城跡**

矢筈城は、16 世紀に石見銀山と物資の主な供給源であった温泉津港を結ぶ道を防御するために築かれた 2 つの山城のうちの一つです。この城は、道路の北側、海拔 480m の高台にあり、大内氏が支配していた 1520 年代後半から 1530 年代前半に築かれたものと考えられています。矢筈城は、同時期に築かれたもう一つの山城である矢滝城よりもはるかに小さく、非常に狭い山頂の尾根に沿って主に石垣や空堀、土塁が築かれ、その南側には小さな天守が道を見下ろしていました。大名どうしの同盟や対立が絶えなかった 1500 年代には、石見銀山を巡って戦国大名たちが争ったために何度もその持ち主が変わりましたが、1600 年代初頭に徳川幕府が石見銀山を手中に収めてからはその重要性がなくなり、その後長期間続いた平和な時代により、矢筈城をはじめとする中世城郭が徐々に廃城となっていきました。矢筈城がかつてあった頂上は自然に戻り、今日では砦の僅かな部分だけが残っています。城址へと続く登山道がありますが、登山される場合には登山時に起こり得るあらゆるリスクについて自己の責任において対処してください。



【タイトル】 石見銀山遺跡（山城跡） 石見城跡

【想定媒体】 WEB

**<韓国語>****이와미 성터**

이와미 성은 1500 년대에 이와미 은광과 광산의 북서쪽에 위치한 해안 마을 니마를 연결하는 주요 도로를 방어하기 위해 만들어진 고지대 요새입니다. 니마는 1520 년대 후반부터 광산의 지배권을 놓고 다른 적대 관계의 가문들과 다툼을 벌인 오우치 가문의 본거지였습니다. 이와미 성은 해발 153m 높이의 절벽이 드리난 산인 류간산 정상에 지어졌습니다. 류간산 남쪽과 동쪽은 원래부터 가파르고 험준한 절벽으로 이루어진 천연 요새였지만, 좁은 산 정상에 있었던 천수각을 방어하기 위해 오우치 씨족이 능선을 따라 깊은 해자를 파고 여러 개 토루(흙더미)를 쌓으면서 더욱 강력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와미 성의 입구는 경사면이 완만한 북쪽에 위치해 있는데 이를 통해 주로 남쪽에서 접근하는 적들로부터 니마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1600 년대 초기에 이와미 은광이 도쿠가와 막부의 지배 하에 놓이게 되면서 이와미 성의 중요성은 점차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자연이 그 자리를 차지한 성터로는 남쪽의 등산로를 통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절벽을 따라 덩굴을 뺏는 능소화가 꽃을 피우며 언덕 중턱을 선명한 오렌지색으로 물들입니다.

004-060

**<日本語仮訳>****石見城跡**

石見城は、1500 年代に石見銀山と銀山の北西に位置する海岸の町仁摩との間の主要道路の防御に使われていた高台の砦です。仁摩は、1520 年代後半から鉾山の支配権を巡って対立する家門と戦ってきた大内家の本拠地でした。石見城は、海抜 153m の岩がむき出しの山、竜嵩山の頂上に築られました。竜嵩山の南側と東側は、もともと急峻な崖になっている天然の要害でしたが、狭い頂にあった天守を防御するため、大内氏により尾根に沿って深い空堀が掘られ、複数の土塁が築かれて、さらに強化されました。石見城の入口は傾斜の緩やかな北側にあり、主に南側から接近してくる敵から仁摩を防御するために建てられたことがわかります。1600 年代初頭に石見銀山が徳川幕府の支配下に入ってから石見城の重要性がなくなりました。今では自然に返っているその城址には、南側からの登山道で登ることができます。秋には崖に沿ってつるを伸ばすノウゼンカズラの花が咲き、丘の中腹の一部が鮮やかなオレンジ色に染まります。

【タイトル】石見銀山遺跡（町並み・温泉津） 金剛院

【想定媒体】WEB

**<韓国語>****곤고인**

곤고인은 유노쓰에 자리한 진언종의 사찰로 소박한 어촌 마을이었던 유노쓰가 이와미 은광의 주요 물자 공급원이자, 지역 일대에서 가장 번성한 항구 마을로 변모해 간 모습을 직접 목격한 곳이기도 합니다. 사원의 기록에 따르면 14세기 전반에 이미 유노쓰에 곤고인의 원형이 된 사당이 세워졌고 그 안에 천수관음이 안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사당이 있었던 정확한 장소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현재의 사찰은 17세기 이후에 건축된 것으로서 관음상은 곤고인의 본존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760년에 재건된 본당 뒤편에 있는 묘지에는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묘석도 볼 수 있습니다. 1561년에 모리 가문은 길고 좁은 계곡 하구에 이와미 은광으로 물자를 유통하기 위한 중요 항구인 유노쓰와 해안 요새를 만들고 은광과 연결하는 길을 놓았습니다. 곤고인에 사용된 석재 중에는 일본해 북쪽에 위치한 호쿠리쿠 지방, 현재의 후쿠이현 주변에서밖에 채취되지 않는 돌도 있는데, 이는 마을이 가장 번성했다고 여겨지는 1600년대 후반보다 한 세기 이상 앞선 시기에 이미 일본해 연안을 따라 해상 수송이 성행했음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돌은 묘지 입구 부근에 있는 튀어나온 돌로 둘러싸인 지장보살상 아래에서 발견되는데, 주변의 다른 돌보다 약간 짙은 색이라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언덕 중턱보다 높은 곳에 있는 원뿔형의 묘석은 곤고인 전 승려의 묘입니다.

004-061

**<日本語仮訳>****金剛院**

金剛院は温泉津にある真言宗の寺院で、質素な漁村だった温泉津が石見銀山へ物資を供給源する一大港湾として繁栄するに至る変貌を目の当たりにしてきました。寺院の記録によると、14世紀前半には温泉津町内に金剛院の基となった祠が建てられ千手観音が安置されていたようですが、祠のあった正確な場所は伝わっていません。現在の寺院は17世紀以降の建築で、観音像は金剛院の本尊として伝わっています。1760年に再建された本堂の裏手にある墓地には、この地域で最も古い墓石を見ることができます。1561年は、毛利家によって細長い河口の谷である温泉津に石見銀山との物資流通のための重要な港と沿岸要塞を築き、銀山との間に道を開きました。金剛院で使われている石材の中には、日本海側の更に北に位置する北陸地方、現在の福井県周辺でしか採取できないものもあり、町が最も豊かだったとされる1600年代後半よりも1世紀以上も前に、日本海沿いの海運が盛んだったことが伺えます。そのような石が、墓地の入口付近の、張り出した石に囲まれた地藏菩薩像の下にあり、周囲の石よりもやや濃い色なので見分けることができます。丘の中腹のさらに上にある円錐形の墓石は、金剛院の元僧侶の墓です。

【タイトル】 石見銀山遺跡（町並み・温泉津） 龍御前神社

【想定媒体】 WEB

**<韓国語>****다쓰노고젠 신사**

다쓰노고젠 신사는 유노쓰를 대표하는 신사로서 마을이 번영하는 토대가 되었던 바다와 온천과 관련된 신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지역 사람들은 오래 전부터 해상의 안전과 무병장수, 그리고 입욕의 건강 효과를 기원하기 위해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신사가 창건된 것은 1532 년이지만, 실제로 이 장소는 그보다 한참 전부터 숭배의 장소로 이용되었습니다. 작은 본전 바로 위의 절벽에는 큰 바위가 튀어나와 있는데, 이 바위가 포효하는 용으로 여겨지며 숭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먼 고대에는 바위나 나무 등 자연적인 조형물에 신이 깃든다고 믿고 숭배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건물 안에 신을 모신다는 사고방식이 널리 퍼지게 된 것은 훨씬 나중의 일입니다. 절벽 기슭에 있는 배전은 신토의 신들을 기리는 무용인 가구라를 추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그 크기가 매우 큰 것이 특징입니다. 이와미 가구라는 지금도 지역에서 친근하게 여겨지는 민속예능입니다. 배전에서 신성한 춤이 공연되는 매주 토요일 저녁에는 배전 내에 전시된 배 등을 모티브로 한 에마(소원을 적어서 신사나 사원에 봉납하는 목판)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日本語仮訳>****龍御前神社**

龍御前神社は温泉津を代表する神社であり、町の繁栄のもとになった海と温泉にゆかりのある神々を祀っています。地元の人たちは、古くから海の安全と無病息災を祈願し、そして入浴の健康効果を祈願しに訪れています。神社が正式に創建されたのは 1532 年ですが、実際は、この場所はそれよりずっと以前から崇拜の場として利用されてきました。小さな本殿のすぐ上の崖から巨岩が突き出ており、この岩が咆哮する龍であると考えられて、崇拜の対象になりました。遠い古代では、岩や木などの自然の造形物が神の住処として崇拜されることが多く、建物の中に神を祀るという考え方が広まったのは後のことです。崖のふもとには拝殿があり、神道の神々を祀る舞踊の神楽を舞うために設計されたため、非常に大きくなっています。石見神楽は、今も地域で親しまれている民俗芸能です。毎週土曜日の夕方には、拝殿で神聖な舞いが披露され、その際には拝殿内に展示されている船などをモチーフにした絵馬（願いごとを書いて神社やお寺に納める木製の板）を見ることができます。

【タイトル】 石見銀山遺跡（町並み・温泉津） 温泉津港

【想定媒体】 WEB

**<韓国語>****유노쓰항**

유노쓰 마을은 일본해의 세찬 파도와 거친 북풍을 막아주는 만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1500년대 후반 모리 가문은 유노쓰를 이와미 은광과 그 주변을 장악하는 거점으로 이용하기 위해 이곳 특유의 자연 지형을 활용하여 수심 약 20m의 만에 항구와 해안 요새를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모리 가문의 의도가 정확히 맞아 떨어지면서 유노쓰는 곧 이와미 은광의 은을 생산하는 주요 항만이자, 지역의 해상 교역 또는 중국이나 한반도 등 외국과의 교역 중심지로도 성장하며 놀라운 번영을 맞이했습니다.

에도 시대(1603~1867)에 들어서면서 유노쓰는 세토내해와 일본해를 경유하여 상업도시 오사카와 홋카이도를 연결하는 기타마에부네 항로의 요충지가 되어 더욱 막대한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기타마에부네 항로는 지역의 유력한 가문이 해운업에 종사하며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는 원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1918년에 철도가 개통되면서 항구는 쇠퇴했고 현재는 주로 어항으로만 이용되고 있습니다. 과거 번영의 흔적을 보여주는 것은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 만을 사이에 둔 마을 끝에서 바라보이는 풍경은 몇 세기가 지난 지금도 거의 변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日本語仮訳>****温泉津港**

温泉津の町は、日本海の猛烈な波と強烈な北風を避けることができる入り江に面しています。1500年代後半、毛利家が、温泉津を石見銀山とその周辺を掌握する拠点とするために、自然の地形に恵まれた水深約 20m の入江に港と海岸の要塞を築きました。毛利の目論見は当たり、温泉津はすぐに石見銀山から銀を産出する主要港湾として、地域の海上交易、また中国や朝鮮半島など外国との交易の中心地として、最大の繁栄を迎えました。

江戸時代（1603～1867年）に入ると、瀬戸内海、日本海を経由して商都大阪と北海道を結ぶ北前船航路の結節点となり、温泉津はさらに繁栄を極めました。北前船は、地元の有力な家門が海運業に参入し、財を蓄えるきっかけとなりました。1918年に鉄道が開通すると、港は衰退し、現在は主に漁港として利用されています。かつての繁栄を示すものはほとんど残っていませんが、湾を挟んだ町のはずれからの眺めは、何世紀にもわたってほとんど変わっていません。

【タイトル】 石見銀山遺跡（ビジターセンター） 辻が花染丁子文胴服

【想定媒体】 WEB

**<韓国語>****쓰지가하나조메 기법으로 염색한 정자문양 도후쿠**

여기에 전시된 ‘도후쿠’라 불리는 장식용 상의는 16세기부터 17세기까지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영주가 가신들의 봉사에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 하사했던 의복입니다. 노란색 비단 천에 무명 안감을 입힌 이 도후쿠에는 테두리가 있는 톱니 모양의 세 가로줄이 시보리조메 기법(천의 일부를 묶거나 감는 등의 방식으로 압력을 가해 염료가 스며들지 않도록 방지하여 무늬를 만드는 기법)으로 염색되어 있습니다. 붉은 선 안에는 흰 바탕 위에 네 개의 꽃잎이 마름모꼴로 배치된 문양과 도라지꽃 문양이 모두 황록색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노란색 부분에는 보라색, 흰색, 노란색으로 된 커다란 정자 무늬가 입혀져 있습니다. 이 도후쿠는 당시 장인 기술의 절정을 보여주는 염색 기술과 비단이나 염료를 아낌없이 사용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비용을 들여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도후쿠는 1603년부터 1867년까지 일본 전역을 통치했던 도쿠가와 막부의 초대 쇼군인 도쿠가와 이에야스(1543~1616)가 야스하라 덴베에라는 이름의 광산 경영자에게 하사한 것입니다. 1603년 이와미 은광의 야스하라 갱도에서 13.5톤의 은이 생산되자 그는 이 은을 막부에 헌상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헌상품을 바친 야스하라는 쇼군을 알현할 수 있는 허가를 얻었는데, 그때 이 도후쿠를 선물받았던 것입니다. 이 도후쿠는 이와미 은광을 비롯한 각지의 광산이 생산하는 귀금속의 양에 의해 재정이 좌지우지되었던 막부에게 은광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를 상기시켜주는 자료입니다. 여기에 전시된 도후쿠는 복제품으로 중요문화재로 지정된 진품은 교토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日本語仮訳>****辻が花染め技法で染められた丁子文の胴服**

ここに展示されている装飾的な衣装は「胴服」といい、16世紀から17世紀にかけて、裕福で影響力のある領主から家臣に対し、彼らの奉仕に対する感謝のしるしとしてしばしば贈られました。この胴服は、黄色の絹地に木綿の裏地を施したもので、鋸歯状の縁取りのある3本の横線が絞り染め(布の一部を縛るなどして圧力をかけ、染料が染み込まないようにして模様を生み出す技法)によって染められ、赤い線の中には、白地に染め抜かれた中に、四枚の花弁が菱形に配列された文様と、桔梗の花の文様がいずれも黄緑色で描かれています。黄色の部分には、紫、白、黄色を使った大きな丁子の絵柄が施されています。染色技術は当時の職人技の最高峰であり、絹や染料をふんだんに使用していることから、相当な費用をかけて制作されたことがうかがえます。

この胴服は、1603年から1867年まで日本を統治した徳川幕府の初代将軍徳川家康(1543-1616)から、安原伝兵衛という名の鉱山経営者へ贈られたものです。1603年、石見銀山の安原の坑

道から 13.5 トンの銀が産出され、幕府に献上されました。その貢献が大きかったために安原は将軍への謁見を許可され、その際にこの胴服が贈られました。この胴服は、石見銀山をはじめとする各地の鉱山の貴金属生産量に財政が左右されていた幕府にとって、銀山がいかに重要な存在であったか思い起こさせてくれます。ここに展示されている胴服は複製であり、重要文化財に指定されている実物は、京都国立博物館に所蔵されています。

【タイトル】 石見銀山遺跡（町並み・大森銀山） 岡家

【想定媒体】 WEB

**<韓国語>****오카 가문 주택**

오카 가문 주택은 에도 시대(1603~1837)에 이와미 은광에서 에도(현재의 도쿄) 막부를 대표했던 오모리 다이칸(막부의 직할령을 관리하는 관청의 관리) 아래의 중간급 관리가 살았던 무사 가문 저택으로 현재까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집에 살았던 사와이 가문과 시카노 가문의 당주는 이와미 은광에서 채굴되고 제련된 은이 에도에 있는 막부의 창고로 출하되기 전까지 보관하는 감독직을 대대로 역임했습니다. 이 주택은 오모리의 큰 길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다이칸쇼(다이칸이 집무하는 관청)와는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진 것으로 주택의 넓이 역시 충분합니다. 1974년 사적으로 지정되었을 당시 소유자의 이름을 따 '오카 가문 주택'으로 불리는 이 저택은 앞뜰과 두 개의 현관(커다란 현관은 중요한 손님들이 방문할 때만 열림)이 있는 안채, 그리고 목욕 시설이 갖춰진 자그마한 단층 건물과 내화성을 갖춘 토광, 자그마한 임시 가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카 가문 주택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日本語仮訳>****岡家住宅**

岡家住宅は、江戸時代（1603～1867）に、石見銀山において江戸（現在の東京）幕府の代表である大森代官（幕府の直轄領を管理する官庁の官吏）の下で奉仕する中堅の役人が住んでいた武家屋敷で、現在まで良好な状態で保存されています。この家に住んでいた沢井家と鹿野家の当主は、石見銀山で採掘・製錬された銀が江戸の幕府の蔵に向けて出荷されるまで保管する代官職を歴代務めました。この屋敷は大森の大通りからは少し離れていますが、代官所（代官が執務する官庁）からそれほど遠くなく、業務上の重責に対する報酬として十分な広さを持った屋敷です。「岡家」とは、1974年に史跡に指定された際の所有者の名を冠した呼び名で、前庭と2つの玄関（大きい方は要人が訪れた時のみに開かれました）を持つ母屋と、風呂を備えた小さな一戸建て、耐火構造の土蔵、小屋で構成されています。岡家は一般公開されていません。

【タイトル】 石見銀山遺跡（町並み・大森銀山） 栄泉寺

【想定媒体】 WEB

**<韓国語>****에이센지 절**

조동종(曹洞宗)의 선종 사찰인 에이센지 절은 오모리 마을의 도로 서쪽에 위치한 언덕 중턱에 자리하며 오모리의 중심부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1596년에 창건된 에이센지 절에는 1732년 이와미 은광을 재해에서 구해냈다는 지역의 유명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당시 해충이 서일본 지역 전역의 농작물을 먹어 치우는 바람에 땅이 황폐해져 대기근이 마을 덮쳤다고 합니다. 이와미 은광에서 에도(현재의 도쿄) 막부를 대표했던 다이칸(막부의 직할령을 관리하는 관청의 관리) 이도 헤이자에몬(1672~1733)은 상관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고 수중에 있던 비축미를 풀어 백성들을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또한 그는 쌀로 납부해야 했던 지역 마을의 세금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장 큰 공적은 대체 작물을 도입한 것입니다. 이도는 여행 중인 승려로부터 고구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관할하는 땅 곳곳에 고구마를 심게 했습니다. 이러한 이도의 정책으로 이와미 은광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으면서 그의 리더십은 널리 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행하던 승려가 이도에게 고구마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지는 에이센지 절은 1800년에 오모리의 대부분을 태운 화재로 소실되고 말았습니다. 본당은 7년 후에 재건되었고 1853년에는 웅장한 산문(사찰로 들어가는 문)이 세워졌습니다. 이 산문의 구조가 도치기현 닛코에 있는 도쿠가와 가문의 제3대 쇼군 이에미쓰(1604~1651)의 영묘 문과 닮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다이칸쇼(다이칸이 집무하는 관청)에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에이센지 절은 문을 철거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당시 주지가 자리에 없어서 명령이 집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1867년에 도쿠가와 막부가 붕괴되면서 산문은 지금까지 사찰의 입구에 당당히 서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日本語仮訳>****栄泉寺**

曹洞宗の禅寺である栄泉寺は、大森町の通りの西に位置する丘の中腹にあり、大森の中心部を見下ろしています。1596年に建立された栄泉寺には、1732年に石見銀山を災害から救ったという地元でよく知られた逸話が残っています。その年、害虫が西日本各地の農作物を食い荒らし、大飢饉を引き起こしました。石見銀山において江戸（現在の東京）幕府の代表であった代官（幕府の直轄領を管理する官庁の官吏）の井戸平左衛門（1672-1733）は、上官の許可を待たずに、手元にある備蓄米を使って民衆を救うことにしました。彼はまた、米で納めることになっていた地元の村からの税の支払いを免除しました。しかし、彼の最大の功績は代替作物を導入したことでした。井戸は、旅の僧侶からサツマイモの話を聞き、自分の管理する土地全体にサツマイモを植えさせました。井戸の施策で石見銀山では餓死者を一人も出さずにすみ、彼のリーダーシップは広く賞賛されたといわれています。



旅の僧侶が井戸にサツマイモの話を伝えたとされる栄泉寺は、1800年に大森の大部分を焼失した火事で全焼しました。本堂は7年後に再建され、1853年には壮大な山門（寺院に入る門）が建立されました。この山門の構造が、栃木県の日光にある徳川家第3代将軍、家光（1604-1651）の霊廟の門に似ているとの意見があり、代官所（代官が執務する官庁）で論争が生まれました。栄泉寺は門を解体するよう命じられましたが、当時住職が不在であったためすぐには実行できませんでした。そうこうする内に、1867年に徳川幕府が倒れ、現在も山門は寺院の入り口に立っています。

【タイトル】 石見銀山遺跡（町並み・温泉津）石見神楽

【想定媒体】 WEB

**<韓国語>****이와미 가구라**

가구라는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고대 전통 중에서도 퍼포먼스와 춤이 융합된 형태를 말합니다.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무대 예술로도 알려진 이 가구라는 일본의 토착 신앙인 신토에 등장하는 수많은 신들에 대한 믿음과 함께 일본 전국으로 널리 퍼져 나갔습니다. 화려한 의상과 풍부한 표정의 가면이 특징인 가구라는 전통적으로 가을 추수 즈음에 공연되었는데 이는 풍년이 든 것을 신께 감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역에는 각각 다른 형식의 가구라 양식과 수세기 동안 전해져 온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와미는 오래 전부터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가구라가 성행했던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는 활발하게 활동 중인 130 개 이상의 극단이 존재하며 그 대부분은 일년 내내 공연을 선보입니다. 이와미 가구라는 의식의 본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템포가 빠른 음악이나 춤, 정교한 소품, 신과 악마, 그리고 민간 설화를 간략하게 줄인 이야기 등이 특징으로 엔터테인먼트의 하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폭풍의 신 스사노오가 머리가 8 개 달린 큰 뱀과 싸우는 이야기를 담은 ‘오로치(큰 뱀)’, 신화 속의 존재로 여겨지는 주아이 천황이 활과 화살을 사용해 한 쌍의 날개를 가진 요괴로부터 일본을 구한다는 이야기인 ‘진린’ 등이 있습니다.

이와미 가구라는 매주 토요일 밤 유노쓰의 다쓰노고젠 신사에서 상연됩니다.

**<日本語仮訳>****石見神楽**

神楽は、今日まで受け継がれてきた古代の伝統の中で、パフォーマンスと踊りを融合させたものです。日本最古の舞台芸術であるとされ、土着の神道に登場する無数の神々への信仰とともに日本中に広まりました。鮮やかな衣装と表情豊かな面が特徴の神楽は、伝統的に秋の収穫の前後に行われ、豊作を神に感謝するために行われてきました。地域ごとに、それぞれ異なる神楽の様式や、何世紀にもわたって語り継가져 온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石見は古くから、日本でも有数の神楽が盛んな地域です。この地域には、活発に活動している 130 を超える劇団があり、その多くは年間を通じて公演を行っています。石見神楽は、儀式の本質を残しながらも、テンポの速い音楽や踊り、凝った小道具、神や悪魔、そして民話を簡略化した物語が特徴で、エンターテイメントの一つとも言えます。代表的なものには、嵐の神サノオが八頭蛇と戦う物語「大蛇」や、神話上の存在であると言われる仲哀天皇が弓矢を使って一対の翼のある鬼から日本を守った物語「塵輪」などがあります。

石見神楽は、毎週土曜日の夜、温泉津の龍御前神社で上演されます。

【タイトル】石見銀山遺跡（山城跡）銀山争奪戦

【想定媒体】WEB

**<韓国語>****이와미 은광을 둘러싼 전투**

이와미 은광이 발견된 1527 년경의 일본은 지방의 무장들이 끊임없이 동맹과 대립을 반복하던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이와미 은광의 권리를 최초로 손에 넣은 것은 스오국 남부(현재의 야마구치현)에 본거지를 둔 오우치 가문이었습니다. 오우치 가문은 그 직후 은광의 주요 요새인 야마부키성, 은광과 유노쓰항을 연결하는 도로를 감시하기 위한 쌍둥이 요새 야타키성과 야하즈성, 북서쪽의 해안 마을 니마로 이어지는 주요 도로를 내려다볼 수 있는 이와미성 등 성과 요새 수십 개를 차례로 쌓았습니다. 1530 년대부터 1540 년대에는 오가사와라 가문과 아마고 가문이 침공을 반복하고 오우치 가문이 이를 격퇴하는 등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와미 은광에 대한 오우치 가문의 지배력은 아키국(현재의 히로시마현)에 거점을 둔 모리 가문이 그 강력한 영향력을 북쪽으로 확장해 나간 1550 년대에 이르러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1562 년에는 모리 모토나리(1497~1571)가 이끄는 군대가 이 지역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면서 더욱 요새화가 진행되었는데, 그는 오키도마리항 외부에 수군 기지를 설치하여 오키도마리항에서 온 은 수송과 유노쓰로 향하는 진입로를 보호했습니다. 모리 가문은 1600 년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패배할 때까지 약 40 년간 은광을 지배했습니다. 그 후 도쿠가와 가문이 이와미 은광을 장악하고 모리 가문은 혼슈 서쪽 끝에 자리한 조슈(현재의 야마구치현 서부) 지역에 유배되면서 은광을 둘러싼 전투는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천하 통일을 목표로 나아간 도쿠가와 이에야스(1543~1616)가 1603 년에 도쿠가와 막부를 수립하면서 1867 년까지 도쿠가와 가문이 일본 전체를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日本語仮訳>****石見銀山を巡る戦い**

石見銀山が発見された 1527 年頃、日本は地方の武将たちが同盟や対立を絶え間なく繰り返す動乱の時代でした。石見銀山の権利を最初に握ったのは、周防国南部（現在の山口県）に本拠を置く大内家でした。大内家はすぐさま、銀山の主要な要塞である山吹城、銀山と温泉津港を結ぶ道を見張る矢滝と矢筈の双子の砦、北西の海岸町仁摩への主要道路を見下ろす石見城など、城などの要塞など十数カ所の拠点を次々に築きました。1530 年代から 1540 年代にかけては、小笠原家や尼子家が侵攻を繰り返し、大内家がこれを撃退するなど、激しい戦いが繰り返されました。

石見銀山に対する大内家の支配は、1550 年代に安芸国（現在の広島県）に拠点を置く毛利家がその強い影響力を北に広げたときに崩れ始めました。1562 年には毛利元就（1497-1571）率いる軍

勢がこの地を完全に支配し、さらに要塞化を進めるとともに、沖泊港の外に水軍基地を設置して、沖泊港からの銀の輸送と温泉津への補給路を守りました。毛利家は、1600年の関ヶ原の戦いで徳川家に敗れるまで、約40年間銀山を支配しました。その後、石見銀山は徳川家が掌握し、毛利家は本州西端の長州（現在の山口県西部）に封じ込められたことで、銀山をめぐる戦いは終焉を迎えました。その後、徳川家康(1543-1616)は先頭に立って天下統一を目指し、1603年には徳川幕府を樹立し、1867年まで徳川家が日本を統治しました。

地域番号	005	協議会名	宇佐地区まちづくり協議会
------	-----	------	--------------

解説文一覧

NO.	スポット名 (タイトル)	韓国語文字数	媒体
005-001	鎮疫祭	1129	WEB
005-002	例祭	575	WEB
005-003	六郷満山峰入り	1208	WEB
005-004	法華八講・法華三昧	987	WEB
005-005	御神幸祭	1049	WEB
005-006	菅貫神事	931	WEB
005-007	仲秋祭 (迎講、蜷放生)	1396	WEB
005-008	本殿遷座祭	825	WEB
005-009	臨時奉幣祭	803	WEB
005-010	勅使街道	681	WEB
005-011	横綱 双葉山	869	WEB
005-012	宇佐八幡駅	586	WEB
005-013	蓑虫山人と宇佐宮中	958	WEB
005-014	凶首塚古墳	532	WEB
005-015	化粧井戸	748	WEB
005-016	百体神社	958	WEB
005-017	浮殿	632	WEB
005-018	仲見世	1067	WEB
005-019	大善寺	953	WEB
005-020	極楽寺	922	WEB
005-021	大楽寺	1271	WEB
005-022	円通寺	987	WEB
005-023	宇佐神宮 (概要)	2039	WEB
005-024	呉橋	878	WEB
005-025	西参道	691	WEB
005-026	宇佐鳥居	868	WEB
005-027	上宮	1082	WEB
005-028	百段	635	WEB
005-029	若宮神社	370	WEB
005-030	下宮	552	WEB
005-031	春宮神社	627	WEB
005-032	菱形池	711	WEB
005-033	頓宮	544	WEB

005-034	大尾神社	730	WEB
005-035	護皇神社	909	WEB
005-036	神橋	482	WEB
005-037	御許山	916	WEB
005-038	大神比義命	777	WEB
005-039	弥勒寺跡	1264	WEB

【タイトル】 鎮疫祭

【想定媒体】 WEB

**<韓国語>****진에키사이(鎮疫祭) 축제**

제전일: 2월 13일

진에키사이 축제(鎮疫祭, 역병을 물리치는 축제)는 불의 의식, 신도의 기도, 불교의 영창, 전통 춤이 포함된 대규모 액막이 의식입니다. 의식의 하이라이트는 역병퇴산의 상징으로서 수행자가 커다란 고헤이(대나무 등의 나무 막대기에 길쭉하게 접은 종이를 끼운 것으로 신도 제사에서 사용됨)를 도리이 너머로 던지고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헤이고시 제사’입니다. 우사 신궁의 말사(큰 신사에 소속된 작은 신사) 중 하나인 야사카 신사에서 열리는 이 축제는 역병, 자연재해, 그 외 불행 등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집니다. 진에키사이 축제는 신도의 신관과 불교의 승려 모두가 참가하는 보기 드문 행사로, 여기에는 우사 신궁의 신불습합(일본의 토착 종교인 신도와 중국에서 전래된 불교가 융합되어 나타난 신앙 형태)의 긴 역사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진에키사이 축제는 약 1000년 전 우사 신궁의 승려들이 밤새 반야심경을 소리내어 암송했던 연례 의식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신교에(心經會, 반야심경 의식. 불교에서 ‘에(會)’는 의식을 의미)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1868년 메이지 정부가 신사와 사찰을 분리하라는 신불판연령(神佛判然令)을 내리자, 신도만의 축제로서 그 이름 역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오랜 전통을 기리기 위해 승려들의 반야심경 암송도 다시 축제에 포함되었습니다.

2월 13일에는 우사 신궁의 신관과 진언종의 승려(주로 다이라쿠지 절 출신)가 하라에도라는 공간에서 액막이 의식을 행한 후, 조구(上宮, 위쪽 신사)로 이동해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조구에서 흰 옷을 입은 수행자가 약 3.5m 길이의 커다란 고헤이 몇 개를 가지고 나옵니다. 이때부터 행렬은 계구(下宮, 아래쪽 신사)를 향해 행진하는데, 여기서 다시 한 번 기도를 올린 후 야사카 신사에 도착하게 됩니다. 야사카 신사 가장 바깥쪽의 도리이 앞에는 화톳불과 임시 무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사 신궁의 궁사(최고위 신관)가 정식으로 기도문을 낭독하면 헤이고시 제사가 시작되고, 수행자들은 도리이 너머의 야사카 신사 경내로 커다란 고헤이를 던집니다. 도리이를 넘는 고헤이가 있으면 특히 운수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고헤이의 종이 장식은 한 해 동안 질병과 재해로부터 가정을 지켜준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과거에 사람들은 앞다투어 그 종이를 가져가려 했습니다(현재는 중지됨). 마지막으로 가장 큰 고헤이는 몇 명의 수행자들이 들고 달려서 야사카 신사로 옮깁니다.

헤이고시 제사에 이어, 신사 정면의 무대에서는 부가쿠(舞樂)라는 궁중무도가 2회에 걸쳐 펼쳐집니다. 이때 무대를 정화하는 의식으로서 창을 들고 추는 신성한 춤인 ‘엔부(振鉦)’와 6세기 중국에 살았던 용감한 왕자의 이야기를 노래한 ‘료오(陵王)’가 공연됩니다. 그리고 축제의 마지막 의식으로 승려들이 반야심경을 암송합니다. 이 모든 의식이 끝나면 신관은 축제를 보러 온 사람들에게 떡을 던집니다.



---

**<日本語仮訳>****鎮疫祭**

祭典日：2月13日

鎮疫祭（疫病を追放する祭り）は、火の儀式や神道のお祈り、仏教のお経の詠唱、伝統的な舞が含まれる大きなお祓いの儀式です。儀式の見所は、疫病退散を象徴して、随行者が大きな御幣（神道の祭祀で使われる竹や木の棒に折った細長い紙を挟んだもの）を鳥居を越えて投げる、賑やかな「幣越神事」です。この祭りは宇佐神宮の末社（大きな神社の配下にある小さな神社）のひとつである八坂神社で行われ、疫病、自然災害、その他の不幸を防ぐことを目的としています。鎮疫祭は、神職と僧侶の両方が関わる珍しいお祭の例で、宇佐神宮の神仏習合（中国から仏教が伝わった後、日本古来の神道と融合した信仰形態）の長い歴史を反映しています。

鎮疫祭は、約千年前、宇佐神宮の僧侶が般若心経を夜通し唱える毎年の儀式として始まったと言われています。このため、今でも心経会（般若心経の儀式。「会」（え）は仏教において儀式を意味する）と呼ばれることがあります。1868年に政府が神社と寺院を分離する神仏判然令を出した後、神道のお祭になり、それに伴って名前が変更されました。しかし、現在の形は、古い習慣に敬意を表して、僧侶による般若心経の読経が再び含ま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

2月13日に、宇佐神宮の神職と真言宗の僧侶（主に大楽寺からの）が祓所という場所でお祓を行い、上宮（上の社）に進んでお祈りの儀式を行います。また、上宮から、白い服を着た随行者が長さ約3.5メートルの大きな御幣も数本持っていきます。行列はそれから下宮（下の社）に向かい、そこでもう一つの祈りをしてから八坂神社に到着します。八坂神社では、外の鳥居の前にかがり火と臨時の舞台が設置されています。

宇佐神宮の宮司（神職の長）が正式な祈りを唱えた後、幣越神事が始まり、随行者が鳥居を越えて八坂神社の境内に大きな御幣を投げようとします。鳥居を越える御幣があればそれは特に縁起が良いとされています。御幣の紙の飾りは、一年間、病気や災害から家庭を守ると信じられているので、かつては多くの人々がそれを我先にと取ろうとしました（現在は停止しています。）最後の最も大きな御幣は、数人の随行者によって八坂神社に走って運ばれます。

幣越神事に続いて、この神社の正面の舞台で舞楽という宮廷舞踏の二つの舞が行われます。「振鉦」は舞台の清めの儀式として行われる鉦を持って舞う神聖な舞で、「陵王」は6世紀の中国の勇敢な王子の物語を語る舞です。鎮疫祭の最後の儀式として、僧侶が般若心経を唱えます。すべての儀式が終わった後、神職は、鎮疫祭を見に来た人たちへ、餅をまきます。

【タイトル】 例祭

【想定媒体】 WEB

**<韓国語>****레이사이(例祭)**

제전일: 3월 18일

각 신사는 그 신사에 모셔져 있는 신들께 경의를 표하기 위해 매년마다 가장 중요한 날에 연례 축제를 엽니다. 이러한 축제를 레이사이(例祭)라고 합니다. 우사 신궁에서는 571년 2월 초묘일에 하치만 신이 처음으로 세상에 나타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의 달력으로 3월 18일에 해당되는 이 날은 우사 신궁의 레이사이 축제가 열리는 제전일로 선정되었습니다.

우사 신궁은 천황을 대신해 기도나 의식을 행하는 칙사(천황의 사신)가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17곳의 격이 높은 신사 중 하나입니다. 그 높은 격식을 반영해, 우사 신궁의 레이사이 축제가 열리는 기간에는 하치만 신, 히메 대신, 진구 황후의 세 제신을 위해 황실에서 준비한 공물을 바칩니다. 축제 행렬에서는 먼저 흰 옷을 입은 신관이 공물을 담은 3개의 나무 상자를 옮기고, 옛 궁정인들의 의례 의상을 입은 고위 신관이 그 뒤를 따릅니다. 그리고 하라에도라는 공간에서 액막이 의식을 마친 뒤, 행렬은 조구(上宮, 위쪽 신사)로 향합니다. 조구에 있는 성역 3곳 모두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열려 있습니다. 궁사(최고위 신관)는 엄숙하게 의식을 행하며 제신에게 공물을 바치고, 무너는 평화를 기원하며 가구라(神樂)라는 춤을 춥니다. 참배객은 행렬의 모습은 자유롭게 구경할 수 있지만, 본 의식은 본전(本殿)에 있는 지붕 달린 복도 바깥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계구, 와카미야(若宮) 신사, 도구(春宮) 신사의 레이사이 축제는 전날인 3월 17일에 열립니다.

**<日本語仮訳>****例祭**

祭典日：3月18日

各神社には、毎年その神社にとって重要な日に、祀られている神々へ敬意を払うための恒例のお祭りがあります。このお祭りは、通常、例祭と呼ばれます。宇佐神宮の場合、571年2月初卯の日に八幡神が初めて顕現されたと言われています。この日は現代暦の3月18日に相当し、宇佐神宮の例祭の祭典日に選ばれました。

宇佐神宮は、天皇の代わりにお祈りや儀式を行う勅使（天皇の使い）が定期的に訪れる17の格の高い神社のひとつです。その宇佐神宮の高い格式を反映して、その例祭の期間には、八幡神、比売大神、神功皇后の3柱のご祭神へ皇室からのお供え物が奉られます。お祭りの行列では、白い服を着た神職がお供え物を入れた3つの木製の箱を運び、次に昔の宮廷人が身に着けていたフォーマルな服装の高位の神職が続きます。祓所という場所でお祓いの儀式の後、行列は上宮（上の社）に向かいます。上宮では、3つの聖域のすべてが祈りを奉げるために開いています。宮司（神職の長）が厳粛な儀式を行い、ご祭神にお供え物を奉納したり、巫女が平和を祈願して神楽という舞を舞ったりします。参拝者は行列を自由に見ることができますが、儀式は本殿の屋根付きの廊下の外側からしか見ることはできません。

下宮（下の社）、若宮神社、春宮神社の例祭は、前日の3月17日に開催されます。

【タイトル】 六郷満山峰入り

【想定媒体】 WEB

**<韓国語>****로쿠고만잔(六郷満山) 순례와 그 의식**

일정: 약 10년에 한 번, 봄

우사시 동쪽에 자리한 구니사키 반도는 이 지역 산들 곳곳에 산재해 있는 천태종(天臺宗) 사원군의 본거지로 로쿠고만잔(六郷満山)이라 불립니다. 전설에 따르면 718년 닌몬(仁聞)이라는 이름의 산악 수행자가 우사에서 구니사키로 일본의 토착 종교인 신도와 중국에서 전래된 불교가 융합된 신앙 형태(신불습합)의 산악 신앙을 가져와, 구니사키에서 지낸 수십 년동안 28개의 사찰을 세우고 69,000개의 불상을 조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치만 신의 화신으로도 숭배되었던 닌몬은 855년에 다시 나타나 닌몬과 같은 수행을 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산을 순례하는 2개의 길을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그 후 이 길은 로쿠고만잔 영지 순례길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준비 의식**

‘미네이리(산에 들어가는 일)’라 불리는 이 영지 순례는 모든 길에 축복이 내려지기를 기원하기 위한 일련의 의식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정화된 심신을 상징하는 흰 옷을 입은 참가자들이 하치만 신이 강림했다고 알려진 성지 오모토산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천태종 승려나 우사 신궁의 신관과 함께 기도를 올리고 경을 외운 후, 고마기(護摩木)라 불리는 나무 판자를 신성한 불 속에 넣어 태웁니다.

참가자 무리는 산을 내려간 뒤, 우사 신궁의 조구(上宮, 위쪽 신사)로 향합니다. 선명한 주홍빛의 신전 앞에서 신관과 불교 순례자들이 주고받는 의식적인 인사는 우사 신궁이 신사와 사찰이 융합된 종교 시설이었던 신불습합의 시대를 떠오르게 하는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순례자들은 신들께 경의를 표하고 신사 경내에서 다시 한 번 고마 의식을 행합니다.

참가자들은 우사 신궁에서 구니사키 반도로 향합니다. 다음날 아침, 구마노 마에불이라 불리는 절벽 정면에 새겨진 2개의 커다란 불상 앞에서 ‘미네이리’의 시작을 의미하는 특별한 고마 의식을 거행합니다. 여기까지 의식이 완료되면 드디어 정식으로 로쿠고만잔 순례가 시작됩니다.

**영지 순례로의 출발**

그 거리만 160km 이상에 달하는 영지 순례길에는 사찰, 마에불, 독특한 바위, 동굴 등 183곳의 영험한 장소가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길을 따라 걸으며 몇 번이고 몸을 정화하고 경을 외우는 등의 다양한 신체적 도전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높은 산 정상에서 상록수 가지 던지기, 큰 바위에서 뛰어내리기, 깊은 협곡 사이에 놓인 좁은 돌다리 건너기, 그리고 아이들의 건강을 비는 기도 등이 있습니다.

에도 시대(1603~1867) 후기에는 로쿠고만잔의 영지를 단체로 순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현재도 이와 비슷한 형태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전성기에는 교의를 배우기 위한 절, 수행을 위한 절, 불교를 전파하기 위한 절 등 목적별로 분류된 약 65개의 사원이 순례길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메이지 시대(1868~1912)에

이르러 정부가 불교와 신토를 분리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순례자의 수가 크게 감소했고, 수십 년 동안이나 순례 의식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1959년에 다시 복원되어, 현재 로쿠고만잔 영지 순례는 약 10년에 한 번 행해집니다. 가장 최근에 개최된 2018년 행사에서는 1300년의 역사를 기념했습니다.

005-003

---

## <日本語仮訳>

### 六郷満山の巡礼や儀式

日程：約10年に1回、春

宇佐市の東にある国東半島は、この地域の山々に広がる天台宗の寺院群の本拠地であり、六郷満山と呼ばれています。伝説によると、仁聞という山岳修行者は、718年に宇佐から国東へ日本古来の神道と仏教とが融合した信仰形態（神仏習合）の山岳信仰をもたらし、国東で過ごした数十年の間に28の寺院を開山し、69,000体の仏像を彫りました。八幡神の化身として信じられていた仁聞は、855年に再び現れ、仁聞と同じ修行をしたい人のために山を巡る2つのルートを教えたと言われています。やがて、これらのルートは六郷満山霊場巡りとして知ら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

### 準備の儀式

この霊場巡りは「峰入り」（山に入ること）と呼ばれ、前途を祝福してもらえるよう神々に願うことを目的とした一連の儀式から始まります。清められた心身を象徴する白衣を着た参加者は、八幡神が地に降り立った聖地とされる御許山に集結します。天台宗の僧侶や宇佐神宮の神職と一緒に、参加者が祈禱をし、経を唱え、護摩木と呼ばれる木の板を神聖な火の中に入れて燃やします。

参加者の一団は山を下った後、宇佐神宮の上宮（上の社）へ進んでいきます。鮮やかな朱色の社殿前で交わされる、神職と仏教巡礼者との儀式的な挨拶は、宇佐神宮が神社と寺院が融合した施設であった神仏習合の時代を思い起こさせる象徴的な光景です。巡礼者が神々に敬意を払い、そして神社の境内でもう一度護摩の儀式を行います。

宇佐神宮から参加者は国東半島に向かいます。翌朝、熊野磨崖仏と呼ばれている崖の正面に刻まれた2つの大きな仏像の前で、「峰入り」の始まりを意味する特別な護摩の儀式を行います。儀式が完了すると、六郷満山の巡礼が正式に始まります。

### 霊場巡りへ出発

霊場巡りの距離は160キロメートル以上にわたり、そのルートには、寺院、磨崖仏、独特の岩、洞窟など183の霊場などがあります。ルートに沿って、参加者は何度も体を清め、経を唱え、さまざまな身体的挑戦を行います。例えば、高い山頂から常緑樹の枝を投げる、大きな岩から飛び降りる、深い峡谷に架かる狭い石橋を渡る、そして子どもの健康を祈るまじないなどが行われています。

江戸時代（1603～1867）後期には、六郷満山の霊場巡りを集団で行うことが一般的となり、現在もそのように行われています。全盛期には、教義を学ぶための寺、修行のための寺、仏教を広めるための寺、という目的別に分類された約65の寺院がルートに含まれていました。しかし、明治時代（1868～1912年）になり、政府が仏教と神道を分離するよう命令を下したのに伴って巡礼者の数は大きく減り、巡礼は何十年も行われていませんでした。その伝統を1959年に復活させ、現在、六郷満山の霊場巡りは約10年に一回行われています。最近では2018年に開催され、この時は1300年の歴史を祝いました。

【タイトル】法華八講・法華三昧

【想定媒体】WEB

**<韓国語>****법화팔강(法華八講)과 법화삼매(法華三昧)**

개최일: 법화팔강은 새로운 천대좌주(천태종(天臺宗)의 총본산인 히에이잔 엔라쿠지(比叡山延曆寺)절의 주지)가 취임할 때 개최, 법화삼매는 이를 제외한 해의 가을에 개최

법화팔강(法華八講)과 법화삼매(法華三昧)는 우사 신궁의 조구(上宮, 위쪽 신사)에서 법화경과 그 해석을 중심으로 행하는 불교 의식입니다. 불교 의식이 신사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과거 우사 신궁이 신도와 불교가 융합된 신불습합의 신앙 형태를 갖추고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우사 신궁과 불교 천태종의 강한 역사적 연관성도 깊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천태종의 창시자인 사이초(最澄, 767~822)를 비롯해 수많은 저명한 승려들은 하치만 신께 기도를 드리기 위해 우사로 순례를 왔습니다. 803년 사이초는 천태불교를 공부하기 위해 중국으로 여행을 떠났지만, 도중에 배가 망가지는 바람에 다음 출항 기회를 기다리면서 규슈에서 1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이초는 우사의 하치만 신께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며 기도를 올렸는데, 그 가호 덕분인지 804년 무사히 중국에 도착하고 805년 일본으로 다시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사이초는 다시 우사를 방문하여 하치만 신의 보호에 감사를 표하면서 하치만 신에게 법화경(法華經)을 설교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하치만 신은 고위 승려의 의복인 보라색 옷을 사이초에게 포상으로 하사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이초와 하치만 신의 인연을 기념하기 위해 천태종의 좌주와 고위 승려는 새로운 천태총 좌주가 취임할 때마다 우사 신궁을 순례하고 조구에서 법화경 여덟 권을 강의하는 ‘법화팔강’이라는 특별한 의식을 거행합니다. 이때 신관의 기도에도 이어 3명의 승려가 스승에게 불교 교리에 대해 묻고 스승이 설교하며 대답하는 ‘삼문일답’이라는 의식적인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법화팔강은 보통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하지만, 참배객들은 경내에서 행렬을 구경하거나 밖에서 설교하는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법화팔강이 열리지 않는 해에는 법화삼매라는 소규모 의식이 개최되는데, 이 의식에서는 근처 구니사키 반도의 로쿠고만잔(六郷満山) 사찰에서 우사 신궁으로 온 승려들이 신 앞에서 불경을 소리내어 읽습니다.

우사 신궁이 신사와 사원이 융합된 시설이었던 시대에는 이러한 의식이 훨씬 더 자주 행해졌습니다. 그러나 메이지 정부가 1868년에 신도와 불교를 분리하라는 명령을 내린 이후, 이러한 의식은 모두 중지되었습니다. 이 관습은 1978년에 다시 복원되었으며, 그 이후 신관들은 우사 신궁을 방문하는 승려들을 크게 환영합니다.

**<日本語仮訳>****法華八講・法華三昧**

開催日：法華八講は新たな天台座主（天台宗の総本山である比叡山延暦寺の住職）が就任した際に開催、法華三昧はそれ以外の年の秋に開催

法華八講と法華三昧は、宇佐神宮の上宮で法華経とその解釈を中心に行われる仏教の儀式です。仏教の儀式が神社で行われているということは、宇佐神宮がかつて、神道と仏教が融合した神仏習合の信仰形態であったことを表しています。また、宇佐神宮と仏教の天台宗との強い歴史的つながりも反映しています。

天台宗の創始者である最澄（767-822）をはじめ、多くの著名な僧侶が八幡神に祈るために宇佐に巡礼してきました。803年に、最澄は天台仏教を学ぶために中国に旅立ちましたが、船が損傷し、次の出航の機会を待つために九州で一年を過ごしました。最澄は安全な航海を宇佐の八幡神に祈願し、ご加護を得て無事に804年に中国に到着して、805年に帰国しました。最澄は宇佐を再び訪ねて八幡神の守護を感謝したとき、八幡神に法華経で説教を行いました。伝説によれば、八幡神は高位の僧侶の衣装である紫の衣を褒美として最澄に授けたと言われています。

最澄と八幡神のつながりを称えるために、天台宗の座主と高位の僧侶が、新たな天台座主が就任した際に、宇佐神宮に巡礼を行い、上宮で法華経全8巻に関する講義を行う「法華八講」という特別な儀式を行います。神職によるお祈りに続いて、3人の僧侶が仏教の教義について師に問い、師がそれに対し説教により回答する「三問一答」という儀式的な対話が行われます。法華八講はほとんど見えない場所で行われていますが、参拝者は境内の行列を見て、外から説教を聞くことができます。

法華八講が行われない年には、法華三昧という、より小規模な儀式が行われ、近くにある国東半島の六郷満山の寺院から宇佐神宮へ来る僧侶により、神の前で読経が行われます。

宇佐神宮が神社と寺院が融合した施設であった時代には、このような儀式がはるかに頻繁に行われました。しかし、明治政府が1868年に神道と仏教の分離を命じた後、それらは停止されました。この習慣は1978年に復活し、そしてそれ以降、神職たちは宇佐神宮へやって来る僧侶たちを歓迎しています。



【タイトル】 御神幸祭

【想定媒体】 WEB

**<韓国語>****고신코사이 축제(御神幸祭, 여름 대제)**

제전일: 7월 31일~8월 2일

고신코사이(御神幸祭) 축제는 여름에 열리는 대규모의 축제로 우사 신궁에서 가장 저명한 축제입니다. 원래는 헤이안 시대(794~1185)에 액막이 의식의 하나로 시작되었다가, 지금은 그 전통과 더불어 제신이 미코시(신위를 모신 가마)를 타고 주변 마을을 둘러보는 행사가 행해집니다. 다양한 의식이 열리고 시끌벅적한 미코시 행렬 사이로 음악과 춤이 펼쳐지며 먹거리, 음료, 게임 등의 노점도 즐길 수 있습니다.

**7월 31일: 출발 행렬**

첫째 날에는 우사 신궁의 제신(하치만 신, 히메 대신, 진구 황후)은 정해진 신성한 방식에 따라, 조구(上宮, 위쪽 신사)의 신전에서 3개의 미코시를 옮기고 약 250명의 행렬과 함께 일시적으로 제신을 안치하는 장소인 돈구(頓宮)를 향해 출발합니다. 길을 안내하는 신 사루타히코의 모습을 한 신자 대표가 맨 앞에 앞장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形形色색의 의상을 입은 아이들, 전통적인 정장 차림을 한 지역의 대표자, 그리고 우사 신궁의 신관이 그 뒤를 따릅니다.

미코시를 맨 가마꾼들은 하라에도 근처 광장으로 계단을 내려가 그곳에서 미코시를 세 번 돌리고 높이 치켜들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신사의 대목수가 미코시의 지주에 올라타입니다. 과거에는 일명 ‘싸움 축제’라고도 불릴 정도로 돈구에 도착하는 순서를 놓고 다툼이 벌어지는 일이 많았는데, 이 과정에서 망가진 미코시를 수리할 사람이 필요했던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강을 건너 행렬은 나카미세라는 상점가를 지나 돈구로 향합니다. 미코시가 돈구에 도착하면 옛부터 존재했던 스가누키 제사라는 의식이 행해지고, 제신들은 돈구로 옮겨져 2박 3일간 머물게 됩니다.

**8월 1일: 야부사메 활쏘기 제사**

고신코사이 축제의 둘째 날 오후, 돈구 근처의 오오 신사로 향하는 참배길은 2019년에 축제의 일환으로 도입된 야부사메 활쏘기 제사에 이용됩니다. 야부사메란 말을 타고 활을 쏘는 기술을 겨루는 것으로 무사 사회에서 크게 성행했습니다. 이 제사는 약 850년의 역사를 가진 야부사메 유과 오가사와라류의 대표자에 의해 행해집니다. 가마쿠라 시대(1185~1333)의 전사 복장을 한 기수가 270m 길이의 길을 내달려 3개의 표적을 향해 활을 쏘는 것이 제사에서 신들께 드리는 공물입니다.

같은 날, 와카미야(若宮) 신사에서 나온 미코시는 소규모의 이벤트적 행사로서 우사 신궁 경내와 나카미세 상점가를 지납니다.

**8월 2일: 돌아오는 행렬**

마지막 날 저녁, 3개의 미코시는 이전 날과 같은 행렬과 함께 첫째 날 지났던 길을 따라 조구로 돌아옵니다. 제신이 다시 각각의 성소로 옮겨지면 기도 의식이 행해집니다. 재앙과 역병을 막기 위한 의식인 특별한 불꽃놀이를 끝으로 고신코사이 축제는 막을 내립니다.

---

**<日本語仮訳>****御神幸祭（夏の大祭）**

祭典日：7月31日～8月2日

御神幸祭は夏の大きな祭りであり、宇佐神宮で最も著名なお祭りです。元々は平安時代（794–1185）にお祓の儀式として始まりましたが、今ではその伝統に加え、ご祭神が神輿（神様が乗る輿）に乗って周辺の村を巡る行事が行われます。様々な儀式や賑やかな神輿の行列に加えて、伝統的な音楽や踊りが披露されるほか、食べ物、飲み物、ゲームの露店も用意されています。

**7月31日：出発の行列**

初日には、宇佐神宮のご祭神（八幡神、比売大神、神功皇后）は、祭祀に則って上宮（上の社）の御殿から3つの神輿に移され、約250名の行列と一緒に、一時的にご祭神を安置する場所である頓宮に向けて出発します。道案内の神である猿田彦の姿をした氏子が先導し、楽器を演奏する人たち、色とりどりの衣装を着た子供たち、伝統的な正装をした地域の代表者、宇佐神宮の神職が続きます。

神輿の担ぎ手たちは祓所の近くの広場に向かって階段を降り、そこで神輿を3回回してから高く持ち上げます。ここからは、宮大工が神輿の支柱に乗ります。この祭りは別名を「喧嘩祭」とも言い、かつては頓宮に到着する順序を競って壮烈なぶつかり合いが繰り広げられたため、途中で神輿の修理が必要になることもあったことに由来します。行列は川を渡って仲見世という商店街を通り、頓宮に向かいます。神輿が頓宮に到着すると、古くからある菅貫神事という儀式が行われ、ご祭神は頓宮に2泊3日滞在します。

**8月1日：流鏝馬神事**

御神幸祭の2日目の午後、頓宮の近くにある大尾神社への参道は、2019年にお祭りの一環として取り入れられた流鏝馬神事に使用されます。流鏝馬とは、馬に乗って弓を射る技術を競うもので、武士の社会で盛んに行われました。この神事は、約850年の歴史を持つ流鏝馬の小笠原流の代表者によって行われます。神々への奉納として、鎌倉時代（1185–1333）の戦士の格好をした騎手が270メートルの道を駆け抜け、3つの標的に矢を放ちます。

同じ日に、若宮神社のご祭神は、若宮神社から出たお神輿は小規模のイベント的な行事として宇佐神宮の境内と仲見世を通ります。

**8月2日：帰りの行列**

最終日の夕方、3つのお神輿は同じ行列を伴って最初の日の道をたどり、上宮に戻ります。ご祭神はそれぞれの聖域に戻され、次に祈りの儀式が行われます。災いや疫病を防ぐための儀式として特別な花火で御神幸祭が終了します。

【タイトル】菅貫神事

【想定媒体】WEB

**<韓国語>****스가누키 제사**

일시: 7월 31일

여름 축제인 고신코사이(御神幸祭) 축제의 첫째 날에는 우사 신궁의 세 제신이 조구(上宮, 위쪽 신사)에서 미코시(신위를 모신 가마)를 타고 돈구라 불리는 일시적으로 신을 안치하는 장소로 옮겨져 2박 3일간 머물게 됩니다. 이때 신관은 돈구에서 의식이 시작되기 전, 자신의 몸을 정화하는 스가누키라는 액막이 의식을 실시합니다. 이와 비슷한 여름 액막이 의식은 헤이안 시대(794~1185)부터 행해졌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우사 신궁의 형식은 특별하고 고유한 것으로서 독특한 액막이 도구도 이용합니다.

돈구 옆에 있는 제사용 구골나무(Osmanthus heterophyllus) 덩굴에 강의 모습을 본뜬 고헤이(대나무 등의 나무 막대기에 길쭉하게 접은 종이를 끼운 것으로 신토 제사에서 사용됨) 3개가 세워지고, 그 앞에 작은 공물대와 짚단이 설치됩니다. 정화의 기도를 세 번 외운 각 신관은 도키나와구시라는 도구를 사용해 자신을 정화합니다. 도키나와구시란 잘린 윗부분에 보라색 종이 장식과 한 쌍의 평평한 짚을 끼운 특별한 나무 막대기입니다. 도키나와구시의 손잡이에는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각각 줄이 하나씩 감겨져 있는데, 각 신관은 액막이 의식 중간에 그 줄을 풀어서 훌뿌립니다.

의식의 다음 단계에서는 풀을 큰 고리 모양으로 엮어 만든 ‘지노와’라는 도구 2개를 사용합니다. 2개 중 하나는 공물 앞에 있는 깔개를 둘러싸듯이 놓고, 다른 하나는 보조자가 수직으로 듭니다. 각 신관은 순서대로 첫 번째 고리 안에서 무릎을 꿇고 깊이 고개 숙여 절합니다. 이때 보조자는 두 번째 고리를 무릎 꿇은 신관의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놓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스가누키(지노와를 빠져나오는 것)라고 부르는데 여기에서 이 의식의 이름이 유래했습니다. 신관은 몸을 일으킨 후, 물에 의한 액막이를 상징하는 3개의 고헤이를 향해 도키나와구시를 던집니다.

궁사(최고위 신관)의 의식은 더욱 복잡합니다. 궁사는 또 다른 지노와를 사용해 한 번은 나라를 위해, 한 번은 백성들을 위해, 그리고 마지막은 궁사 자신을 위해 총 세 번 고리를 빠져나옵니다. 궁사는 지노와를 빠져나올 때마다 매번 일어서서 숫자 8자를 그리듯 방향을 바꿔가며 시작한 위치로 되돌아갑니다. 궁사는 정화 의식이 끝나자마자 바로 고헤이를 향해 도키나와구시를 던집니다. 이후 정화의 기도를 세 번 외우면 의식 전체가 종료되고 고신코사이 축제라는 여름 축제가 계속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日本語仮訳>****菅貫神事**

日付 : 7月31日

夏祭りである御神幸祭の初日、宇佐神宮の三柱の主な神様が上宮（上の社）から神輿に移され、頓宮と呼ばれる一時的に神様を安置する場所に運ばれ、2泊3日間滞在します。頓宮で儀式が始まる前に、神職は自分を清めるために菅貫というお祓の儀式を実行します。似たような夏の祓いの儀式が平安時代（794-1185）から行われていましたが、この形式は宇佐神宮に特有のものであり、独特なお祓いの道具も利用します。

頓宮のそばにある祭祀用の柊(*Osmanthus heterophyllus*)の植え込みに、川を模した御幣（神道の祭祀で使われる竹や木の棒に折った細長い紙を挟んだもの）が3本立てられ、その前に供物用の小さな台と藁の敷物が置かれます。清めの祈りを3回唱えた後、各神職は、解縄串を使用して自分を清めます。解縄串は、上部の切れ目に紫色の紙飾りと一組の平らな藁が挟まれた特別な木製の棒です。解縄串の柄には、1本は時計回りに、もう1本は反時計回りに2本の縄が巻き付けられ、お祓い中に、各神職はそれを、まき散らします。

儀式の次の段階では、草を大きな輪の形に編んで作られた「茅の輪」と呼ばれる道具を2本使用します。2本のうち1本はお供え物の前にある敷物を囲むように置かれ、もう1本は補助役が垂直に持っています。各神職は順番に、一つ目の輪の中でひざまずき、深くお辞儀をします。その間、補助役はひざまずく神職の上から二つめの輪を地面に降ろします。この所作は菅貫（茅の輪を通り抜けること）と呼ばれ、この儀式の名前の由来となっています。神職は起き上がった後、水による祓を象徴する3本の御幣に解縄串を投げます。

宮司（神職の長）の場合、儀式はもっと複雑です。また別の茅の輪を使用し、国のため、人々のため、そして宮司自身のために、3回輪をくぐります。宮司は茅の輪を通り抜けると毎回立ち上がり、8の字を描いて方向を交互に変えて開始位置に戻ります。宮司はお清めが終わるとすぐに、御幣へ解縄串を投げます。清めの祈りをさらに3回唱えることで儀式全体が完了し、御神幸祭という夏祭りがさらに進んでいきます。

【タイトル】 仲秋祭 (迎講、蜷放生)

【想定媒体】 WEB

**<韓国語>****주슈사이(仲秋祭, 가을 중순 축제)**

일시: 10월 전반(스포츠의 날을 포함한 3일 연휴)

주슈사이(仲秋祭) 축제는 8세기 초기 야마토 조정에 의해 토벌된 미나미큐슈 지역의 민족 하야토에 대한 추모의 뜻을 담아 3일간 개최되는 대규모 축제입니다. 이 축제의 시작에서는 하치만 신이 탄 미코시(신위를 모신 가마)가 거대한 행렬을 따라 우사 신궁에서 멀리 떨어진 강가의 우키덴이라 불리는 신사로 옮겨져 승려들의 환영을 받습니다. 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은 둘째 날에 열리는 ‘호조에(放生會, 생물을 놓아주는 의식)’로 살생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조개류를 강에 방류합니다. 마지막 날 하야토의 영혼을 기리는 기도를 드린 후 미코시 행렬은 우사 신궁으로, 하치만 신은 조구(上宮, 위쪽 신사)의 본전(本殿)으로 각각 돌아갑니다.

**하야토의 난과 축제의 유래**

고대의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하야토는 8세기 초기 야마토 조정에 저항하며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720년에 규슈 북부에 있던 거점에서 야마토 군이 궤멸되었을 때, 하치만 신은 신력으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미코시를 타고 동행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축제에서 미코시를 사용하는 기원이 되었다고 추정됩니다. 이 전투는 살아남은 하야토가 패배하고 항복함으로써 곧 끝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 직후 역병과 기근이 지역을 덮치자, 사람들은 하야토의 복수심이 그 원인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후 하치만 신으로부터 하야토의 난 때 저지른 살생을 속죄하기 위해서는 매년 호조에를 열어야 한다는 신탁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의식의 준비를 마치자마자 와마 해변을 향해 조개류를 물속에 방생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불습합 시설에 의해 행해진 일본 최초의 호조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사 신궁이 신도와 불교가 융합된 종교 시설이었던 1000년 동안 이 의식은 단순히 ‘호조에’라고만 불렸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 후반 정부가 신도와 불교를 분리할 것을 명령한 이후, 신도의 계절 축제로 변모하면서 주슈사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첫째 날: 무카에코(迎講)**

축제의 첫째 날, 하치만 신은 조구의 신전에서 미코시로 옮겨집니다. 미코시 행렬은 요리모강 근처에 있는 우키덴이라는 이름의 작은 신사를 향해 8km 거리를 이동합니다. 그리고 하치만 신이 우키덴에 일시적으로 모셔지기 전, 가까운 구니사키 반도에 있는 로쿠고만잔(六郷滿山)의 승려들이 미코시 앞에서 불경을 암송하는 무카에코(迎講)라 불리는 의식을 치릅니다.

**둘째 날: 다슬기 방생**

주슈사이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호조(放生) 의식’입니다. 일반적인 호조에에서는 물고기나 새를 사용하지만, 우사 신궁에서 방생하는 생물은 다슬기와 대합 등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8세기에 역병이 만연했을 때 사람들은 그 원인이 조개에 있다고 믿고 하야토의 한 많은 영혼이 조개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생각했다 합니다.

의식 준비에서는 대대로 그 역할을 담당해 왔던 니나기 가문의 사람들이 조개류를 모아 갈대 다발로 짚니다. 갈대 다발은 이 호조에를 위해 지정된 신사에서 정화되어 우키텐으로 옮겨진 것으로서 신관은 여기에 축복을 내립니다. 그리고 신관은 배를 타고 강 중간쯤으로 이동한 후, 또 다른 의식을 행하고 다슬기와 대합을 물속에 놓아줍니다. 강물의 수위가 낮을 때는 신관이 강가 주변에 서서 의식을 행합니다.

### 셋째 날: 진혼 기도

마지막 날에는 하치만 신을 모신 미코시가 우사 신궁으로 되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도중에 행렬은 일단 하쿠타이(百體) 신사에 멈춰서고, 신관은 하야토의 영혼을 달래기 위한 기도를 올립니다. 그 후 제등을 든 신자 대표를 따라 미코시 행렬은 조구로 돌아갑니다. 하치만 신이 신전으로 돌려 보내지면 주슈사이 축제는 막을 내립니다.

005-007

---

### <日本語仮訳>

#### 仲秋祭 (秋の中頃の祭り)

日付：10月前半 (スポーツの日を含む3連休)

仲秋祭は、8世紀初頭に大和朝廷に討伐された南九州の民族である隼人への追悼の意を表して3日間にわたり開催される大規模な祭りです。祭りの始まりとして、八幡神の乗った神輿（神様が乗る輿）が、宇佐神宮から離れた川岸にある浮殿と呼ばれる神社へ大行列によって運ばれ、僧侶に迎えられます。最も重要な儀式は2日目に行われる、「放生会」（生き物を放す儀式）という儀式で、この儀式では殺生の罪を贖うために貝類が川に放流されます。最終日、隼人の御霊を鎮めるための祈祷の後、神輿の行列は宇佐神宮に帰り、八幡神は上宮の本殿に戻されます。

#### 隼人の乱とお祭りの由来

古代の歴史的記録によれば、隼人は8世紀初頭に大和朝廷への反乱を起こしました。720年に九州北部にあった拠点から大和の軍隊が派遣されたとき、八幡神は神力による守護を与えるため神輿に乗って同行しました。これがお祭りで神輿を使用する起源となったと考えられています。この戦いは、生き残った隼人が敗北し、降伏したことにより、すぐに終わりを迎えました。

しかし、その直後に疫病と飢饉が地域を襲い、人々は隼人の復讐心がある原因だと信じました。その後、八幡神から、隼人の乱の際に犯された殺生を贖うために、放生会を毎年行うべきであるという神託が下りました。最初の儀式の準備ができるとすぐ、行列が和間浜へ向かい、貝類を水中に放す儀式を行った。これが、日本で初めて神仏習合の施設によって行われた放生会の儀式であると言われています。

宇佐神宮が神道と仏教が融合した形で信仰されていた千年ほどの間、この儀式は単に「放生会」と呼ばれていました。19世紀後半に政府が2つの神道と仏教の分離を命じた後、神道の季節の祭になり、仲秋祭と名付けられました。

### **1日目：迎講**

祭りの初日、八幡神は上宮の御殿からお神輿に移されます。神輿の行列は、寄藻川のほとりにある浮殿と呼ばれる小さな社への8kmの道のりを進みます。八幡神が浮殿で一時的に祀られる前に、近くの国東半島の六郷満山の僧侶が神輿の前で経を唱える迎講と呼ばれる儀式を行います。

### **2日目：蜷放生**

仲秋祭の中心となる儀式は、「放生の儀」です。一般的な放生会は魚や鳥を使っていますが、宇佐神宮で放す生き物は蜷や蛤です。伝説によると、8世紀に疫病が蔓延したとき、人々は貝に原因があると考えたため、隼人の鎮まらない霊が貝の形で生まれ変わったと信じていたと言われています。

儀式の準備として、代々その務めを果たしてきた蜷木家の人々によって貝類が集められ、葦の束に包まれます。この葦の束は、この目的のために指定された神社で清められ、浮殿に運ばれ、神職により祝詞が唱えられます。そして神職は船で川の中ほどへ行き、もう一つの儀式の後、蜷と蛤が水の中へ放たれます。水位が低い場合、神職はその川岸に立って儀式を行います。

### **3日目：御霊鎮魂**

最終日、八幡神を運ぶ神輿は宇佐神宮へ戻されます。その途中、行列は一旦、百体神社で止まり、隼人の霊を鎮める(御霊鎮魂)ために神職が祈りを捧げます。その後、提灯を持った氏子を伴った神輿の行列は上宮に帰ります。八幡神は御殿に戻され、仲秋祭が幕を閉じます。

【タイトル】本殿遷座祭

【想定媒体】WEB

**<韓国語>****본전천좌제(本殿遷座祭)**

일시: 조구 본전의 대규모 수리 후에만 개최

신사의 본전(本殿)을 수리하거나 재건할 때는 특정한 의식이 행해집니다. 이 신성한 건물은 신이 살고 있거나 강림할 것으로 여겨지는 보물인 신체가 모셔져 있기 때문에 최대한 경의를 가지고 대해야 합니다. 본전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신체는 정해진 신성한 방식에 따라, 특별히 준비된 임시 신전으로 옮겨집니다. 이는 큰 소리로 신들을 방해하거나 지붕 위에 올라서는 행위 등이 부적절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우사 신궁에서 가장 큰 이동 의식은 조구(上宮, 위쪽 신사)의 세 본전을 수리하고 세 제신을 원래의 장소로 돌려보낼 때 행하는 의식입니다. 이 의식은 본전천좌제(本殿遷座祭, 신들을 본전으로 돌려보내는 의식)라 불리며 칙사(천황의 사신)도 참여합니다. 신체를 옮기는 미코시는 한밤중에 임시 신전을 나와서 천좌 의식을 위해 세워둔 횃불의 빛을 따라 조구로 돌아갑니다. 다음날, 칙사는 신들에게 공물을 바치고 천황이 전하는 축하의 말을 소리내어 읽습니다.

본전천좌제는 본전의 수리 규모가 커서 모든 제신을 옮겨야 할 때만 행해지기 때문에 지금은 매우 보기 드문 광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해마다 신사 건물을 재건하는 전통을 지키고 있었던 과거에는 더욱 자주 행해졌습니다. 규모가 큰 신사는 막대한 비용이 소모되는 경우도 많았지만, 항상 순수성과 새로운 외관을 유지하여 신성성을 나타내기 위해 과거에는 경내의 건물을 정기적으로 재건했습니다. 이처럼 정기적으로 신사 건물을 재건함으로써 신사 건축 장인이 기술을 좀 더 연마하고 다음 세대에 그 기술을 전수할 수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미에현의 이세 신궁만이 모든 주요 신전을 20년마다 완전히 재건하는 의례(식년천궁)를 실시합니다. 우사 신궁은 9세기부터 14세기까지 정기적으로 재건 의식을 치렀을 당시에는 33년에 한 번씩 재건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사 신궁의 영향력이 점점 약화되고 국가가 내전 시대에 접어들면서 많은 비용이 소모되는 이러한 관행은 중단될 수 밖에 없었고, 이후에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수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본전천좌제는 2015년에 실시되었습니다.

**<日本語仮訳>****本殿遷座祭**

日付：上宮本殿の大規模な修理後にもみ開催



神社の本殿を修理または再建するときは、特定の儀式が行われます。この神聖な建物は、神が住んでいるか、または降臨すると考えられる宝物である御神体が入っていることから、最大限の敬意を持って扱われます。本殿での工事の期間中、御神体は特別に準備された仮の社殿に祭祀に則って移されます。これは、大きな音で神々を邪魔したり、その上の屋根に立ったりすることは不適切だと考えられているためです。

宇佐神宮での最も大きな移動の儀式は、上宮の三つの本殿の修繕を終えてご祭神三柱が帰る際に行われる儀式です。この儀式は本殿遷座祭（神々を本殿に戻す儀式）と呼ばれ、勅使（天皇の使者）が参加します。御神体を運ぶ神輿は、真夜中に仮の社殿を出て、遷座の儀式のために松明の光で上宮に戻ります。翌日、勅使は神々に供物を贈り、天皇からの祝賀の言葉を読み上げます。

現在、本殿遷座祭は、本殿の修理の規模が十分に大きく、すべてのご祭神を移す必要があるときのみ行われるため、珍しい光景になりました。しかし、かつて定められた年数ごとに神社の建物を再建する伝統を守っていた頃は、もっと頻繁に行われていました。大きな神社はかつて、たとえ莫大な費用がかかっても、純粋さと新しい外観を常に維持して神聖さを示すべく、境内の建物を定期的に再建していました。そのように定期的に再建することにより、専門の神社建築職人が技術を磨き、次世代に引き継ぐことを可能にしていました。

現在、三重県の伊勢神宮だけが、すべての主要な社殿を20年ごとに完全に再建する儀礼（式年遷宮）を行っています。宇佐神宮が9世紀から14世紀にかけて、定期的に再建する儀礼を行っていたときは、33年に1回実施されていました。その後、宇佐神宮の影響力が衰え、国が内戦の時代に突入したため、費用のかかるこの慣行を中止しなければならず、それ以来、必要な場合にのみ修理が行わ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

前回の本殿遷座祭は2015年に行われました。

【タイトル】 臨時奉幣祭

【想定媒体】 WEB

**<韓国語>****린지호헤이사이 축제(臨時奉幣祭)**

일시: 2025년(10년에 한 번)

린지호헤이사이(臨時奉幣祭)는 천황이 특별히 파견한 사신인 칙사가 우사 신궁을 참배할 때 개최되는 매우 보기 드문 종교 행사입니다. 우사 신궁은 칙사를 받아들일 자격이 있는 일본 전국에 단 17곳에만 존재하는 신사 중 하나로, 칙사는 신사에 모셔진 신들에게 천황의 기도문을 읽고 천황으로부터 받은 공물을 바칩니다.

칙사가 처음으로 우사 신궁을 참배한 것은 1300여 년 전인 720년의 일로, 수세기에 걸친 세월 동안 천황의 지시를 받은 사신은 여러 차례 우사 신궁을 방문했습니다. 천황의 권력이 쇠퇴했던 14세기 중반부터 18세기 중반까지는 이러한 관습이 중단되었다가 1744년부터 60년 주기로 재개되었고 1925년부터는 10년에 한 번씩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사 신궁으로 향하는 천황의 칙사를 한 번이라도 보기 위해 이 축제가 열리는 시기에는 항상 많은 인파가 우사로 모여듭니다. 방랑하는 예술가 미노무시 산진(1836~1900)이 남긴 그림 일기에도 1864년 칙사 행렬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 속에는 칙사가도를 따라 신사로 향하는 거대한 행렬의 모습이나 칙사가 사용한 신사 입구 근처의 데미즈야(참배하기 전 물로 손이나 입을 깨끗히 씻는 장소)에서 똑같이 스스로를 정화하려고 하는 서민들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사 신궁에서는 칙사가 방문하는 내내 수많은 의식과 활동이 치뤄집니다. 칙사가 우사에 도착하면 칙사가도의 일부를 따라 걸으며 10년에 한 번 축제 때에만 열리는 지붕 달린 ‘구레하시’ 다리를 통해 신사 경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날 밤 신사의 신자 단체가 제등을 들고 구레하시 다리를 건너 우사 신궁으로 들어간 뒤, 칙사에게 경의를 포함합니다. 다음날 열리는 린지호헤이사이 축제에서는 칙사가 조구(上宮, 위쪽 신사)로 들어가 천황이 보낸 공물을 신들에게 바치고 천황의 제문을 소리내어 읽습니다.

가장 최근의 린지호헤이사이 축제는 2015년에 개최되었으며 우사 신궁에 칙사가 참배한 것은 이때가 257번째였습니다. 다음 행사는 2025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日本語仮訳>****臨時奉幣祭**

日付 : 2025年 (10年に1回)

臨時奉幣祭は、天皇から特別に派遣された使者である勅使が宇佐神宮へお参りする際に宇佐神宮で開催される珍しい宗教行事です。宇佐神宮は、勅使を受け入れる資格のある日本でわずか17ヶ所しかない神社の1つであり、その勅使は祀られた神々への天皇の祈りの言葉を読み上げ、天皇からの供物をお供えします。

勅使が初めて宇佐神宮をお参りしたのは、1300年以上前の720年のことであり、何世紀にもわたって、このような使者は天皇の指示を受けて何度も宇佐神宮を訪れました。天皇の権力が衰退していた14世紀半ばから18世紀半ばにかけてこの慣習は中断されましたが、1744年から60年の周期で再開され、1925年からは10年に1回、行わ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

宇佐神宮に向かう天皇の勅使を一目見ようと、この祭りの際はいつも非常に多くの人々が宇佐に集まります。放浪の芸術家、蓑虫山人（1836-1900）は、1864年の勅使行列の様子を絵日記に描いています。その中で、神社に向かって勅使街道を進む壮大な行列や、神社の入口近くの手水舎（参拝前に手や口を水で清める場所）勅使が使用した後に、同じ手水舎で自らもお清めをしようとする庶民の姿が記録されています。

宇佐神宮では、勅使の訪問中に多くの儀式や活動が行われます。勅使は宇佐に着くと、勅使街道の一部を通り、10年に1度この祭りの時だけ開かれる屋根付きの「呉橋」を通して神社の境内に入ります。その日の夜に神社の氏子の団体が提灯を手にもって呉橋を通過して宇佐神宮へ入り、勅使に敬意を払います。翌日行われる臨時奉幣祭では、勅使が上宮（上の社）で天皇からの神々への供物をお供えし、そして天皇から託された祭文を読み上げます。

直近の臨時奉幣祭は2015年に開催され、宇佐神宮への勅使の参拝はこの時が257回目となりました。次回は2025年に予定されています。

【タイトル】 勅使街道

【想定媒体】 WEB

**<韓国語>****척사가도**

우사 신궁으로 통하는 역사적인 길인 척사가도(천황이 보낸 사신의 길)는 천황을 대신해 우사 신궁의 신들께 공물을 바치거나 참배를 하는 척사가 오랫동안 이용한 길입니다. 척사가도는 과거 규슈 북동부의 중요 교역로 중 하나로 지금보다 긴 경로를 의미했지만, 현재는 계쇼 우물과 구레하시 다리(우사 신궁 경내로 갈 수 있는 서쪽 입구 중 하나로 척사가 지나갈 때만 열림) 사이의 도로만을 가리킵니다. 척사가도는 일직선으로 약 1km나 뻗어 있어서 석양이 질 때면 특히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합니다.

방랑하는 예술가로 알려진 미노무시 산진(1836~1900)의 그림 일기에는 1864년 척사 행렬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 당시 척사가도의 모습이나 척사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귀중한 기록으로 여겨집니다. 현재 척사는 린지호헤이사이(臨時奉幣祭)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10년에 한 번 우사 신궁으로 파견됩니다. 근대적인 교통수단의 등장으로 척사가 이동하는 여정은 크게 바뀌었지만, 지금도 척사는 전통을 지키며 일부 여정에서는 척사가도를 따라 걸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는 비록 척사가도가 우사 신궁으로 가는 주요 참배길로는 이용되지 않지만 척사가도에는 계쇼 우물, 교슈즈카 고분, 하쿠타이 신사, 그리고 우사의 전통적인 공예 중 하나인 표주박을 사용해 상품을 만드는 전문점 등 여전히 주목할 만한 장소가 다수 존재합니다. 2020년에는 과거 우사 신궁으로 향하는 척사와 수많은 순례자들이 여행했던 길을 지키고 지역의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 개보수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전선이 지중화되면서 전신주가 사라지고 도로도 바둑판 무늬로 재포장되었습니다. 또한 하쿠타이 신사 앞길에는 발굴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척사가도 본래의 돌이 장식용 포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日本語仮訳>****勅使街道**

勅使街道(天皇の使者の道)は、宇佐神宮に通じる歴史的な道で、天皇に代わって宇佐神宮の神々へ供物を捧げたり参拝したりする勅使が、長い間通ってきました。勅使街道という名前は、かつては今より長い部分を指し、九州北東部の重要な交易路の一つでしたが、現在は化粧井戸と呉橋(宇佐神宮境内への西側の入り口の一つで勅使が通るときにだけ開かれる)の間の道路の部分を指しています。勅使街道は一直線に約1キロ伸びており、太陽が丁度良い角度に沈む時は、特に美しい景色を眺めることができます。

放浪の芸術家であった蓑虫山人（1836～1900）の絵日記には、1864年の勅使行列が描かれており、当時の勅使街道の様子や、勅使の様子を視覚的に伝える貴重な記録となっています。現在では、勅使は臨時奉幣祭へ参加するため、10年に1回宇佐神宮へ派遣されます。近代的な交通機関の登場によって勅使が移動する旅程は変わりましたが、今でも伝統を尊重して、勅使はその旅程の一部を勅使街道に沿って歩きます。

今はもう、勅使街道は宇佐神宮への主な参道ではありませんが、勅使街道には、化粧井戸、凶首塚古墳、百体神社、そして宇佐の伝統的な工芸の一つであるひょうたんを使った商品を作る専門店など、まだいくつかの注目すべき場所があります。2020年には、宇佐神宮に向かう勅使や幾多の巡礼者がかつて旅した道を守り、地域の雰囲気を持続するために細心の注意を払って改修が行われました。電線が地中化されて電柱がなくなり、道路も石畳に似せて再舗装されました。百体神社の前の道には、発掘調査で見つかった元々の勅使街道の石が装飾的な舗装として使用されています。

【タイトル】横綱 双葉山

【想定媒体】WEB

**<韓国語>****스모선수 후타바야마**

우사는 요코즈나라는 가장 높은 지위에 도달한 프로 스모선수 후타바야마(1912~1968)의 고향입니다. 그의 가장 걸출한 업적은 69연승을 달성한 것으로 이 기록은 지금도 아직 깨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후타바야마는 약 20년 동안 눈부신 성과를 쌓았을 뿐만 아니라, 은퇴할 때까지 총 12번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927년 15세의 나이로 다쓰나미방(프로 스모선수는 반드시 공인 감독이 이끄는 방에 소속되어야 함)에 들어간 후 약 10년간 지위의 상승을 거듭한 후타바야마는 하위 지위였던 무렵에도 요코즈나를 이긴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전설처럼 전해지는 유명한 연승 행렬은 1936년부터 3년 가까이 지속되었습니다. 후타바야마는 1936년 오제키라는 이름의 두 번째로 높은 지위를 획득했고, 1937년에는 제35대 요코즈나에 등극했습니다. 이듬해 요코즈나로의 진급을 기념하는 특별한 이벤트가 우사 신궁에서 개최되자, 후타바야마는 조구(上宮, 위쪽 신사)의 제신 앞에서 상징적인 도효이리(씨름판에 들어설 때 행하는 의식)를 선보였습니다.

1945년 후타바야마가 은퇴한 후에서야 그가 어린 시절에 스모선수로써 불리할 수 있는 2곳에 핸디캡을 안고 있었다는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오른쪽 눈이 보이지 않았으며, 가업이었던 어업을 돕다가 생긴 상처로 오른손 새끼손가락의 일부가 뭉개진 상태였습니다. 후타바야마가 이러한 역경을 이겨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그의 경력은 더욱 큰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역을 은퇴한 후에는 자신이 만든 스모방의 감독으로서 스모선수를 지도했고 1957년부터 사망한 1968년까지 일본스모협회의 이사장을 역임했습니다. 1999년에는 복원된 그의 생가 근처에 ‘후타바의 고향’이라는 소규모 박물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박물관에는 후타바야마의 생애와 경력에 관한 상세한 연표와 시합 비디오 영상, 요코즈나 정장 차림의 거대한 후타바야마 동상, 화려한 자수가 놓인 게쇼마와시(자수가 들어간 큰 앞치마 모양의 비단 천으로 시합 전 의식에 사용됨), 다수의 사진과 자료, 그의 개인물품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설명은 일본어로 되어 있지만, 풍부한 시각 자료를 통해 우사가 낳은 유명 요코즈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日本語仮訳>****相撲力士双葉山**

宇佐は、横綱という最高位に到達したプロの相撲の力士であった双葉山（1912-1968）の故郷です。彼の最も傑出した業績は、69連勝を達成したことで、この記録は現在もまだ破られていません。双葉山は約20年間にわたって輝かしい戦歴を重ね、引退するまでに12回の優勝を果たしました。

双葉山は1927年に15歳で立浪部屋に入り（プロの力士は必ず公認の親方が率いる部屋に所属する）、その後10年間で階級を昇進していき、下位の頃に横綱に勝ったことさえありました。今も語り継がれる連勝は1936年に始まり、3年近く続きました。双葉山は1936年に大関という2番目に高い位を獲得し、1937年には第35代の横綱になりました。翌年に宇佐神宮で横綱への昇進を記念する特別なイベントが開催され、双葉山は上宮（上の社）の御祭神の前で象徴的な土俵入（闘技場へ入る儀式）を行いました。

1945年に双葉山が引退した後、彼が力士として土俵で不利になるような二つのハンディキャップを子どもの頃に負っていたことが、公に知ら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彼は右目が見えず、また家業であった漁業を手伝ったときに右小指の一部が押しつぶされていたのです。双葉山がこのような困難を乗り越えてきたという事実によって、彼の経歴はますます賞賛さ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

現役引退後は、自身の相撲部屋の長として力士を指導し、1957年から没年の1968年まで日本相撲協会の理事長として務めました。1999年には、修復された彼の生家の近くに「双葉の里」という小規模の博物館が開館されました。博物館では、双葉山の生涯と経歴に関する詳細な年表や彼の試合のビデオ映像、横綱の正装をした双葉山の大きな像、華やかな化粧まわし（試合前の儀式で着用される、刺繍された大きな前掛けが付いた絹のふんどし）、多数の写真、資料、彼の私物などが展示されています。説明文のほとんどは日本語ですが、豊富な視覚資料のおかげで、宇佐が生んだ有名な横綱について知ることができます。

【タイトル】 宇佐八幡駅

【想定媒体】 WEB

**<韓国語>****우사하치만역**

이 역은 우사 신궁과 인근의 항구도시인 분고타카다를 연결하는 8.8km 철도 노선의 종점으로 1916년에 개통되었습니다. 이 노선과 우사하치만역은 우사의 교통망에서 주변 주민들이나 우사 신궁을 방문하는 참배객과 관광객 등에게 이동의 편의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우사하치만역은 우사 신궁에서 쇼와의 대재건(1932~1941)이 이루어졌던 시기에 맞춰 건물이 재건되었습니다. 당시의 사진을 보면 역사 건물은 신전이나 우사 신궁의 전통적인 신사 건축이 연상되는 양식으로 옆에는 커다란 석등이 있었습니다. 1965년에 노선이 폐지되고 우사하치만역의 역사도 헐린 후에는 차를 타고 우사 신궁을 찾는 방문객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증기기관차 크라우스 26호는 우사의 철도 역사를 현재에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로서, 나카미세 상점가 주변에 자리한 우사 신궁의 주요 참배길 옆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1894년에 독일에서 일본으로 수입되어 1948년부터 이 노선에 투입되었습니다. 마지막 해였던 1965년에는 이 노선에서 사용되던 차량 중 가장 오래되고 유일하게 남은 증기기관차가 되었습니다. 당시 규슈철도(JR 규슈의 전신이 된 회사)가 수입한 이 크기의 기관차 20량 중 현재까지 일본에 남아 있는 것은 단 4량뿐으로 규슈에는 크라우스 26호가 유일합니다. 이 증기기관차는 우사시에 기증되어 2000년과 2019년에 수리 및 복원이 이루어졌으며 현재는 오이타현의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日本語仮訳>****宇佐八幡駅**

この駅は宇佐神宮と近隣の港町、豊後高田を結ぶ8.8kmの鉄道路線の終点として、1916年に開業しました。この路線と宇佐八幡駅は宇佐の交通網において、周辺住民や宇佐神宮を訪れる参拝者、観光客などを運ぶ重要な役割を果たしました。宇佐八幡駅は、宇佐神宮の昭和の大造営（1932-1941年）に合わせて、駅舎が再建されました。当時の写真によれば、駅舎は社殿を思い起こさせる、宇佐神宮の伝統的な神社建築を彷彿とさせる様式で、側には大きな石灯籠がありました。1965年に路線が廃止され、宇佐八幡駅も取り壊された後は、宇佐神宮に車で来る訪問者のための駐車場になりました。

蒸気機関車クワウス26号は宇佐における鉄道の歴史を今に伝えるものとして、仲見世商店街近くの宇佐神宮の主な参道の横に保存されています。この車両は1894年にドイツから日本へ輸入され、1948年からこの路線で使用さ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最後の年であった1965年には、この路線で使われている車両のうち最も古く、かつ、路線で唯一残っている蒸気機関車となっていました。当時、九州鉄道（JR九州の前身となった一社）が輸入したこの大きさの機関車20両のうち、今も残っているのは日本に4両だけで、九



州に残っているのはクラウス26号だけです。この蒸気機関車は宇佐市に寄贈され、2000年と2019年に修理・修復が行われ、現在は大分県の有形文化財に指定されています。

【タイトル】 蓑虫山人と宇佐宮中

【想定媒体】 WEB

**<韓国語>****미노무시 산진과 그의 그림 일기**

미노무시 산진(1836~1900)은 14세 때 미노국(현재의 기후현)의 본가를 떠나 48년간 일본 전역을 떠돌던 방랑 화가였습니다. 그의 본명은 도키 겐고이지만 방랑하는 생활 스타일과 미노무시(도롱이벌레)를 닮은 독특한 도롱이 모양에서 미노무시 산진이란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산진은 고고학, 민간 전승, 조경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 흥미를 가졌던 사람으로 한동안은 병사로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을 널리 알린 것은 뽀니뽀니해도 여행 도중에 그린 다양한 그림입니다. 특히 우사 지역의 자연 풍경, 건축, 일상생활, 종교행사 등을 그린 그의 그림은 후세의 역사가들을 통해 커다란 가치가 있음을 증명받게 되었습니다.

산진은 1864년에 우사로 온 뒤 주변 지역을 산책하면서 3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는 이 지역에 머무는 동안 전투에서 죽은 옛 동료들을 위해 기념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는 매일 본 것을 그림 일기로 남겼는데, 광활한 풍경이나 유명한 장소뿐만 아니라 우사 주변에 살면서 일하던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그림의 대부분은 당시 이 지역의 풍경과 배치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 구레하시 다리 북쪽에서 우사 신궁을 바라본 그림에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미로쿠지 절(彌勒寺)과 절의 니오몬 문(仁王門)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 일기에는 천황을 대신해 기도나 공물을 바치는 칙사가 19세기 후반 우사 신궁을 방문했을 때 행렬의 모습도 그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칙사의 방문을 기념하는 린지호헤이사이(臨時奉幣祭) 축제는 현재는 10년마다 열리지만, 산진이 살았던 시대에는 60년에 한 번밖에 개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각적 기록은 더욱 가치 있는 자료로 여겨집니다. 어떤 그림에는 우사 신궁으로 이어진 길을 걷는 긴 행렬이 그려져 있고, 다른 그림에는 칙사가 사용한 데미즈야(참배하기 전 물로 손이나 입을 깨끗히 씻는 장소)에서 똑같이 스스로를 정화하려고 하는 서민들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산진은 우사를 떠나기 전, 지역의 한 가족에게 화집 2권을 선물했습니다. 이 책자에는 우사를 비롯해 야마케이 협곡과 인나이, 아지무, 나카쓰 등 우사 주변 오이타현 각지에서 제작된 그림이 약 80페이지에 걸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화집은 우사시 교육위원회에서 ‘미노무시 산진 그림 일기’란 이름으로 출판했습니다. 구레하시 다리 근처의 간판은 산진이 그린 스케치 중 하나를 복제한 것으로 150여 년 전의 우사 신궁과 그 주변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日本語仮訳>****蓑虫山人と彼の絵日記**

蓑虫山人（1836～1900）は、14歳で美濃の国（現在の岐阜県）の実家を離れ、48年間日本中をさまよった放浪の画家でした。彼の本名は土岐源吾といいますが、放浪の生活スタイルと、ミノムシの蓑に似た独特の蓑の形から、蓑虫山人と名乗るようになりました。山人は、考古学、民間伝承、造園の研究など多様な興味を持った人で、一時期、彼は兵士として務めたことさえありました。しかし彼の名を知らしめたのは、なんといっても旅の途中で描いたさまざまな絵です。特に宇佐地域の自然の風景、建築、日常生活、宗教行事を描いた彼の絵は後世の歴史家にとって大きな価値があることが証明されています。

山人は1864年に宇佐へやって来て、地域を散策しながら3ヶ月を過ごしました。彼はこの地域にいる間、戦いで亡くなったかつての仲間のための記念碑を建てたと言われています。彼は日々目にしたものを絵日記に残しており、広大な風景、有名な場所や、宇佐周辺に住み、働く人々を描きました。その絵の多くは、当時のこの地域の風景と配置を伝える重要な資料となっています。たとえば、呉橋の北側から宇佐神宮を臨んだ絵には、今は存在していない弥勒寺とその仁王門が描かれています。

絵日記には、天皇に代わって祈りや供え物を捧げる勅使が19世紀後半に宇佐神宮にやってきた際の行列の様子も描かれています。このような勅使の訪問は、現在では10年ごとに行われ臨時奉幣祭として祝わ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が、山人の時代には60年に1回しか開催されなかったため、この視覚的な記録はさらに価値のあるものになりました。ある絵には宇佐神宮に続く道を行く長い行列が描かれ、別の絵には勅使が使用した手水舎（参拝前に手や口を水で清める場所）で自らもお清めをしようとする庶民たちの姿が描かれています。

山人は宇佐を離れる前に、現地のとある家族へ2冊の画集を贈りました。この冊子には、宇佐をはじめ、耶馬溪の峡谷や院内、安心院、中津など、宇佐周辺の大分県内各地で制作された絵が約80ページにわたって掲載されています。画集は、宇佐市教育委員会から「蓑虫山人絵日記」として出版されました。呉橋の近くの看板は、山人のスケッチの1つを複製したもので、150年以上前の宇佐神宮とその周辺の様子が見られます。

【タイトル】 凶首塚古墳

【想定媒体】 WEB

**<韓国語>****교슈즈카 고분**

교슈즈카 고분은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초반에 만들어진 고대 고분입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작은 동산과 같은 구조물이 귀족이나 호족의 우두머리 또는 기타 유력자들의 무덤으로 이용되었습니다. 교슈즈카 고분은 우사 지역 호족장의 무덤이라는 설이 있지만 실제로 누가 묻혔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교슈즈카 고분은 원래 지름 약 15m의 둥근 형태였으며 매장된 호족장의 영토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분지가 바라보이는 대지 위에 만들어졌습니다. 안타깝게도 고분의 흙은 이미 오래 전에 침식되어 현재는 석실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직사각형 모양의 석실은 높이 약 2m, 폭 약 1.8m, 두께 약 0.4m의 큰 돌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슈즈카(凶首塚) 고분’이라는 이름은 ‘반란자의 머리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720년대에 야마토 조정의 군대가 정권에 대항한 미나미큐슈 민족 하야토의 반란을 진압한 후, 승리의 증거로 100명의 머리를 가져왔다가 후에 우사 지역에 묻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고분은 반란 이전부터 이미 존재했습니다. 현재 이름의 유래는 아마도 하야토의 혼이 모셔져 있는 근처의 야쿠타이(百體) 신사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교슈즈카 고분은 우사 신궁으로 향하는 칩사가도 길 옆에 위치해 있어서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고분은 오이타현의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日本語仮訳>****凶首塚古墳**

凶首塚古墳は、6世紀後半から7世紀初頭に造られた古代の古墳です。その時代には、このような小山のような構造物が貴族や豪族の長、その他の有力者の墓として使われていました。凶首塚古墳は、宇佐地域の豪族の長の墓であったという説がありますが、実際に誰が埋葬されていたのかは不明です。

研究によると、凶首塚古墳は当初、直径約15メートルの丸い古墳であり、埋葬された豪族の長の領土であったと思われる盆地を臨む台地の上に造られました。残念ながら、古墳の土は随分前から侵食されており、石室しか残っていません。長方形の石室は、高さ約2メートル、幅約1.8メートル、厚さ約0.4メートルの4つの大きな石でできています。

「凶首塚」という名前は、「反乱者の頭」というような意味です。伝説によると、720年代に大和朝廷の軍隊が、朝廷に反抗した南九州の民族である隼人の反乱を鎮圧した後、100人分の頭部が勝利の証として持ち帰られ、その後、宇佐地域に埋められました。しかし、この古墳はこの反乱の前からすでに存在していました。現在の名前の由来は恐らく、隼人の魂が祀られている近くの百体神社とこの古墳が関連付けられたためだと思われます。

凶首塚古墳は宇佐神宮へと続く勅使街道という道沿いにあり、自由に見ることができます。古墳は大分県の史跡に指定されています。

【タイトル】化粧井戸

【想定媒体】WEB

**<韓国語>****계쇼 우물**

계쇼 우물이라고 불리는 이 돌우물은 과거 종교적 의식을 준비하기 위해 인형사들이 구구쓰라는 이름의 나무 인형을 빨거나 옷을 입힐 때 사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곳에서 준비를 마친 후 구구쓰 인형은 칩사가도 근처의 하쿠타이 신사로 옮겨져 야마토 조정에 대항했던 규슈 남부 민족 하야토의 혼을 달래는 연극에 이용되었습니다.

우사 신궁의 기록에 따르면 720년 야마토 조정의 군대가 하야토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출발하자, 하치만 신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군대와 함께 동행했다고 합니다. 잠시 동안 하야토는 조정군에 대항했지만, 조정군은 구구쓰 인형의 연기로 하야토군의 관심을 돌리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이에 하야토가 경계를 늦추면서 결국 조정군에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반란이 진압된 후 우사 지역이 기근과 역병으로 고통받게 되자, 사람들은 하야토의 한서린 영혼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하치만 신으로부터 받은 신탁에 따라 살생을 속죄하고 영혼을 달래기 위한 호조에(放生會. 생물을 놓아주는 의식)를 매년마다 개최했습니다. 또한 하쿠타이 신사에서 구구쓰 인형을 사용한 의식을 치르는 것도 관습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이 관습은 우사에서는 20세기에 들어서 사라지고 말았지만, 하치만코효 신사(후쿠오카현 요시토미마치)와 고요 신사(오이타현 나카쓰시)의 두 신사에서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계쇼 우물은 3개가 존재하는데, 이 지역의 풍경을 묘사한 19세기 그림에는 2개의 우물만이 그려져 있습니다. 또한 원래부터 있었던 우물 중 하나는 1960년대에 메워졌다가 후에 다시 새로운 우물 2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새로운 2개의 우물은 앞서 언급한 하치만코효 신사와 고요 신사의 신자들이 기부한 것입니다. 원래의 우물(오른쪽)에는 17세기 후반의 날짜, 우물 건설에 기여한 신사와 마을 사람들의 이름 등이 돌울타리 부분에 새겨져 있습니다. 계쇼 우물은 우사시의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日本語仮訳>****化粧井戸**

化粧井戸と呼ばれる石の井戸はかつて、宗教的な儀式の準備のため、人形使いが傀儡子という木製の人形を洗ったり、服を着せたりするために使用されたと考えられています。ここで準備を済ませた後、傀儡子、勅使街道を下って近くの百体神社へ運ばれ、大和朝廷に反抗した九州南部の民族である隼人の霊を鎮めるための演目に使用されました。

宇佐神宮の記録によると、720年に朝廷軍が隼人の反乱の鎮圧に出発し、八幡神は神の加護を与えるために同行しました。隼人はしばらく朝廷軍に対抗しましたが、朝廷軍は傀儡子の演技を利用して気をそらすという作戦を使いました。これにより、隼人は警戒を緩めてしまい、ついには朝廷軍に敗北しました。

反乱が鎮圧された後、宇佐地域は飢饉と疫病に苦しむことになりましたが、人々は、隼人の怨霊が原因だと考えました。八幡神からの神託に従い、殺生を贖い、鎮まらない魂をなだめるために、放生会（生き物を放す儀式）が毎年行われました。また、百体神社で傀儡子を使った儀式を行うことも習慣になりました。その習慣は宇佐では20世紀に消滅しましたが、八幡古表神社（福岡県吉富町）と古要神社（大分県中津市）という2つの神社で続いています。

現在、化粧井戸は3つありますが、19世紀のこの地域の絵図には、2つの井戸しか描かれていません。また、その元からあった井戸の内の1つは、1960年代に埋められましたが、その後で新たに2つの井戸が掘られました。新しい2つの井戸は、上記の八幡古表神社と古要神社の氏子から寄進されたものでした。元の井戸（右側）には、17世紀後半の日付や、井戸の建設に貢献した神職や村人の名前などが石の囲いの部分に刻まれています。化粧井戸は宇佐市の史跡に指定されています。

【タイトル】 百体神社

【想定媒体】 WEB

**<韓国語>****하쿠타이(百體) 신사**

하쿠타이(百體) 신사는 야마토 조정에 정복된 규슈 남부 민족 하야토의 혼을 달래기 위해 8세기에 창건된 작은 신사입니다. 이곳은 우사 신궁의 말사(큰 신사에 소속된 작은 신사)로 칩사가도라 불리는 길 중간에 있는 계쇼 우물과 교슈즈카 고분의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고대 기록에 따르면 하야토는 야마토 조정의 지배와 미나미큐슈 지방으로의 세력 확대에 저항하여 8세기 초반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720년에 조정의 군대가 하야토가 사는 지역을 향해 출발했을 때, 하치만 신은 그들의 수호신으로서 미코시(신위를 모신 가마)를 타고 군대와 동행했습니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지만 하야토는 격렬하게 저항했고 조정군은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에 조정군은 구구쓰라는 인형의 춤을 보여주어 하야토의 관심을 돌리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춤에 매료되어 경계를 늦춘 하야토군은 결국 패배했고 그 후 하야토의 잔당도 전부 정복되었습니다. 조정군은 승리의 증거로 하야토 100명의 머리를 우사로 가져왔다가 후에 이 지역에 묻었다고 합니다.

반란이 진압된 후 몇 년간 역병과 기근이 이 지역을 덮었는데, 사람들은 그 원인이 하야토의 한서린 영혼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에 하치만 신은 신탁을 내려 반란 당시에 저질러진 살생에 유감을 표하고 매년 호조에(放生會, 생물을 놓아주는 의식)를 열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죽은 하야토들을 기리고 그들의 영혼을 달래기 위한 목적으로 하쿠타이(百體) 신사가 세워졌습니다.

1000년 이상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호조에 의식과 하야토를 위한 기도는 우사 신궁의 주슈사이(仲秋祭) 축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의식이 되어 지금까지 행해지고 있습니다. 축제의 마지막 날에는 하치만 신의 신위가 실린 미코시가 하쿠타이 신사로 옮겨져 하쿠타이 신사에 모신 하야토들의 혼을 달래는 의식을 치른 후 다시 우사 신궁으로 되돌아갑니다. 과거에는 이 의식의 일환으로 하야토의 난 당시에 행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구구쓰 인형의 춤이나 신들이 스모하는 모습을 표현한 ‘가미즈모(神相撲)’라는 스모 인형극이 하쿠타이 신사에서 공연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우사에서는 20세기에 들어서 명맥이 끊기고 말았지만, 규슈에 있는 다른 2곳의 신사(후쿠오카현 요시토미마치의 하치만코호 신사와 오이타현 나카쓰시의 고요 신사)에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신사에 모셔진 신들의 영혼이 갖든 신성한 그릇이 당시 하야토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사용했던 구구쓰 인형이라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日本語仮訳>****百体神社**



百体神社は、大和朝廷に征服された九州南部の民族である隼人の魂をなだめるため、8世紀に創建された小さな神社です。ここでは宇佐神宮の末社（大きな神社の配下にある小さな神社）で、勅使街道という道の途中、化粧井戸や凶首塚古墳の東にあります。

古代の記録によれば、隼人は大和朝廷による支配と南九州への拡大に抵抗し、8世紀初頭に反乱を起こしました。720年に朝廷の軍勢が隼人の地域に向けて出発したとき、八幡神は守護神として、神輿（神様が乗る輿）に乗って同行しました。戦いは激しいものでしたが、隼人は激しい抵抗を続け、朝廷軍は苦戦を強いられました。

最終的に朝廷軍は、傀儡子という人形を使った舞を見せて隼人の気をそらす作戦を実行しました。これに魅了された隼人軍は警戒を緩め、ついに敗北し、その後、隼人の残党も降伏しました。朝廷軍は勝利の証として100人の隼人の頭部を宇佐に持って帰り、後にこの地域に埋めたと言われています。

反乱の後の数年間、疫病と飢饉がこの地域を襲いましたが、人々は隼人の怨霊が原因だと信じました。その時、八幡神からの神託が下り、八幡神は反乱の際に犯された殺生に遺憾の意を表し、毎年、放生会（生き物を放す儀式）を行うべきだと宣言されました。これと併せて、亡くなった隼人を祀り、その魂を宥めるために百体神社が建立されました。

千年以上が経過しましたが、放生会の儀式と隼人のための祈りは、宇佐神宮の秋の仲秋祭に欠かせない儀式として今でも行われています。祭りの最終日には、八幡神を運ぶお神輿が百体神社へ運ばれ、百体神社に祀られている隼人の魂を鎮める儀式が行われてから、宇佐神宮へ戻されます。かつては、この儀式の一環として、隼人の乱の際に演じられたと考えられている傀儡子の舞や、神様同士の相撲を表現した「神相撲」という人形を使った相撲が百体神社で演じられていました。その伝統は宇佐では20世紀に絶えてしまいましたが、九州にある他の2つの神社（福岡県吉富町の八幡古表神社と大分県中津市の古要神社）で続いています。これらの神社で祀られている神々の霊を宿す神聖な器は、隼人の気をそらすために使われた傀儡子人形であると言われています。

【タイトル】 浮殿

【想定媒体】 WEB

**<韓国語>****우키덴(와마(和間) 신사)**

우키덴은 우사 신궁에 속한 작은 접사(큰 신사에 소속된 작은 신사)입니다. 우키덴이란 물 위에 떠 있는 신전이란 뜻으로, 맨 처음 와마 해변에 세워졌을 당시 밀물이 차면 파도 사이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우키덴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우사에서 19세기에 진행된 간척 사업의 결과로 해안선이 이동하면서 현재의 신사는 요리모 강가에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지주 위에 있는 주홍색의 본전(本殿)은 물 위에 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처음에는 와마 해변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우키덴의 정식 명칭은 와마(和間) 신사입니다.

우키덴은 우사 신궁이 매년 개최하는 호조에(放生會, 생물을 놓아주는 의식)를 위한 신사로 8세기 중반에 세워졌습니다. 호조에는 720년대 하야토의 난 때 정복된 규슈 남부 민족 하야토에 대한 살생을 속죄하기 위해 행하는 의식입니다. 현재 호조에는 가을에 3일간 개최되는 주슈사이 축제의 일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날에는 하치만 신이 탄 미코시(신위를 모신 가마)가 거대한 행렬을 따라 조구(上宮, 위쪽 신사)에서 우키덴으로 옮겨옵니다. 둘째 날에는 본전(本殿)에서 신관과 승려들이 정화의 의식을 치른 뒤, 하야토의 영혼이 다시 태어난 것으로 여겨지는 다슬기와 대합을 강에 방생합니다.

과거의 우키덴은 지금보다 훨씬 큰 규모의 신사였지만, 경내가 점점 축소되면서 지금은 본전과 배전(拜殿)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을 다스리던 다이묘들이 자금을 제공해 여러 차례 복구가 이루어졌을 정도로 우키덴은 중요시되었습니다. 현재의 우키덴은 1938년에 재건되고 1964년에 수리된 것입니다.

**<日本語仮訳>****浮殿 (和間神社)**

浮殿は宇佐神宮の小さな摂社（大きな神社の配下にある小さな神社）です。浮殿とは浮いている御殿という意味で、最初は和間浜に建てられ、潮が満ちると波間に浮かんでいるように見えたため、このように呼ば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宇佐では19世紀に干拓が行われたため、海岸線が移動し、現在の神社は寄藻川のほとりにあります。しかし、今でも、支柱の上にある朱色の本殿は水の上に浮かんでいるかのようです。元々は和間浜にあったことから、浮殿の正式な名前は和間神社です。

浮殿は、宇佐神宮が毎年行う放生会（生き物を放す儀式）のための神社として、8世紀半ばに建てられました。放生会は、720年代の隼人の乱の際に征服された九州南部の民族である隼人への殺生の罪を贖うために開催される儀式です。現在、放生会は、秋に3日間開催される仲秋祭の一環として続けられ

ています。初日には、八幡神が乗った神輿（神様が乗る輿）が、大行列を伴って上宮（上の社）から浮殿まで運ばれます。次の日、本殿で神職や僧侶がお清めの儀式を行った後、隼人の魂が生まれ変わった姿であるとされるカワニナやハマグリが川に放されます。

かつて、浮殿はもっと大きな神社でしたが、境内は徐々に縮小し、今は本殿と拝殿だけが残っています。しかし、この地域を治めていた大名たちからの資金提供によって何度か修復が行われるほど、浮殿は重要視されていました。現在の浮殿は、1938年に再建され、1964年に修理されたものです。

【タイトル】 仲見世

【想定媒体】 WEB

**<韓国語>****나카미세 상점가**

나카미세 상점가는 우사 신궁의 주요 참배길을 따라 형성된 상점가로, 향토 요리를 제공하는 음식점과 다양한 지역 명물이나 특산품을 판매하는 가게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이 상점가는 1932년부터 1941년까지 우사 신궁에서 이루어졌던 쇼와의 대재건 때, 우사 신궁 서쪽 출구 인근의 신메이초라는 상점가를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현재는 주변 주민들이나 신사를 방문하는 참배객과 관광객 등을 맞이하는 활기 넘치는 지역으로 변모했습니다.

**향토요리**

나카미세 상점가에 자리한 대부분의 음식점에서는 우사시나 오이타현의 명물 요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인기 메뉴는 우사 스타일의 닭튀김, 지역산 과를 사용한 네기야키(과전), 튀김이나 전골요리로 제공되는 우사산 미꾸라지 요리, 민물게로 만든 간지루란 이름의 탕 등입니다.

나카미세에서는 지역의 특산품인 청굴이나 유자 등 감귤류 과일로 만든 다양한 토산품과 과자 등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근 바다에서 어획한 홍새우를 건조시켜 가정식 요리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한 상품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이타현에서 가장 많은 양조업체가 있는 우사시에는 일본 최대의 보리소주 제조사도 자리해 있어서 전통적인 일본주뿐만 아니라, 새롭게 개발된 알코올 음료도 폭넓게 맛볼 수 있습니다.

**우사 표주박**

일본에서 운수를 좋게 만들어 주는 물건으로 알려져 있는 표주박은 우사 신궁에 얽힌 전설에도 등장하기 때문에 부적이나 선물용 기념품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3세기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에 따르면 진구 황후가 표주박에 모유를 담아 아들(후의 오진 천황)으로서 현재는 우사 신궁의 하치만 신으로 숭배됨)에게 먹었다고 합니다. 표주박을 사용한 장식품도 다수 판매되고 있으며, 우사 신궁에서는 에마(소원을 적어서 신사나 사원에 봉납하는 목판) 대신 표주박을 걸고 기도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나카미세에서 멀지 않은 칩사가도 주변에는 조미료 용기나 꽃병, 행운을 불러온다는 장식품 등 표주박을 사용한 상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오래된 가게가 있습니다.

**우사 사탕**

전설과 관련된 상품으로 또 하나 유명한 것이 옛기름과 쌀로 만든 우사 사탕입니다. 우사 표주박과 마찬가지로, 진구 황후가 오진 천황을 먹이기 위해 모유 대신 액체로 된 우사 사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원래 우사 사탕은 하얗고 부드러운 단맛이 느껴지는 소박한 사탕이지만, 최근에는 다른 종류의 맛도 종종 등장하고 있습니다. 잘게 쪼개서 먹을 수 있도록 작은 판 모양으로 판매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미리 한입 크기로 쪼개 놓은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형태든 우사 사탕은 깨물지 말고 천천히 녹여서 먹어야 합니다. 달콤한 맛과 그에 얽힌 독특한 이야기 외에도 천연 재료를 사용한 점이나 유통기한이 길게 유지된다는 점 또한 선물용 기념품으로서 우사 사탕의 인기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 <日本語仮訳>

### 仲見世商店街

仲見世商店街は宇佐神宮の主な参道に沿った商店街で、郷土料理を提供する飲食店や、さまざまな地元の名物やお土産を販売するお店が並んでいます。この商店街は、1932年から1941年に宇佐神宮で行われた昭和の大造営の際に、宇佐神宮西口の近くにあった神明町という商店街に代わって作られました。現在は、近隣住民や神社の参拝者、観光客などを対象とした活気あるエリアとなっています。

### 郷土料理

仲見世商店街の多くの飲食店では、宇佐市や大分県の名物料理を用意しています。人気メニューは、宇佐風のから揚げ、地元のネギを使ったねぎ焼き、揚げ物や鍋料理として提供される宇佐ドジョウ、川蟹を使ったガン汁というスープなどです。

仲見世では、地域の特産品であるカボスや柚子などの柑橘系の果物を使ったさまざまなお土産品やお菓子などを購入することができます。また近くの海で水揚げされた赤エビを干して、家庭料理で使いやすいように包装した商品も売られています。宇佐市は大分県で最も酒造メーカーが多い地域で、日本最大の大麦焼酎の製造元が宇佐にあるため、伝統的なものに加えて新しく開発したアルコール飲料も幅広く取り揃えています。

### 宇佐ひょうたん

ひょうたんは、日本では縁起の良い物とされており、宇佐神宮にまつわる伝説に登場するため、お守りやお土産として人気があります。3世紀ごろ、神功皇后がひょうたんに母乳を入れて、息子（後の応神天皇であり、現在は宇佐神宮で八幡神として崇拝されている）に与えたと言われています。ひょうたんを使ったいろいろな装飾品が売られており、宇佐神宮では絵馬（願いごとを書いて神社やお寺に納める木製の板）の代わりにひょうたんを吊るして祈祷することもできます。仲見世から遠くない勅使街道沿いには、調味料容器や花瓶、縁起物など、くり抜いたひょうたんを使った商品を専門に扱う老舗店があります。

### 宇佐飴

伝説的な由来があるとされているもう一つの品は、宇佐飴という麦芽と米で作った飴です。宇佐ひょうたんと同様に、神功皇后が応神天皇に与えるために、母乳の代わりに液状の宇佐飴を使っただけでなく、本来の宇佐飴は白く、まろやかな甘さがある素朴な飴ですが、近年は他のフレーバーも増えています。割って食べるように小さな板状で販売されているものもあれば、あらかじめ一口サイズにカットされているものもあります。いずれのタイプも、宇佐飴は噛まずにゆっくりと舐めて味わってください。甘い味と関連する独特の物語に加えて、天然の材料を使っていることや長い賞味期限のおかげで、宇佐飴は人気のお土産品となっています。

【タイトル】 大善寺

【想定媒体】 WEB

**<韓国語>****다이젠지 절(大善寺)**

다이젠지 절(大善寺)은 조동종(曹洞宗)의 사찰이자, 우사 신궁의 상급 신관이었던 오야마다 가문의 보다이시(菩提寺, 한 가문의 일족이 선조의 혼령을 기리기 위해 지은 사원)로서 1645년에 창건되었습니다. 선당(선종 사찰에서 선(禪)을 수행하는 사당)에는 1000년 동안 신도와 불교가 융합되었던 시대, 우사 신궁의 가장 중요한 사찰이었던 미로쿠지 절(彌勒寺)에 안치되어 있던 귀중한 불상들이 남아 있습니다. 1868년에 메이지 정부가 내린 신불판연령(神佛判然令)에 따라 미로쿠지 절은 1871년에 폐사되었지만, 그 불상 중 일부는 보관되었다가 이후 5개의 불상이 다이젠지 절로 옮겨졌습니다.

선당 중앙에 안치된 것은 과거 미로쿠지 절의 금당(본당)에 모셔졌던 본존인 약사여래좌상입니다. 약사여래는 질병을 치료해주는 부처로 왼손에는 약단지를 들고 있으며 오른손은 두려움을 없애는 몸짓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불상(높이 2.8m)은 가마쿠라 시대(1185~1333) 후반, 노송나무를 사용해 요세기즈쿠리(머리와 몸통, 손발을 따로 만들었다가 나중에 조립하는 방식)라는 기법으로 제작된 것으로 원래는 옷칠과 금박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가마쿠라 시대의 약사여래상 중에서도 크기가 크고 보존 상태도 좋은 귀중한 불상으로 현재는 국가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미로쿠지 절에서 옮겨진 다른 4개의 불상은 무로마치 시대(1336~1573)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약사여래좌상의 양 옆에는 수행자인 일광보살과 월광보살(각각 태양과 달을 상징하는 보살)이 있습니다. 또한 왼쪽과 오른쪽 끝에는 분노한 표정을 짓고 있는 애염명왕과 부동명왕이 있는데, 이들은 불교의 보호자로서 악을 토벌하고 신앙심이 없는 사람들을 회심시킵니다. 보존 상태의 차이는 있지만 이 불상들 모두는 미로쿠지 절과 과거 그곳에서 숭배되었던 신성한 물건들에 대해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이자 작품입니다.

다이젠지 절의 본존은 본당에 모셔진 석가여래상입니다. 사찰의 문 오른쪽에 자리한 관음당이라는 이름의 자그마한 법당에는 자비의 보살로 알려진 관음보살이 금박이 입혀진 모습으로 안치되어 있습니다.

다이젠지 절은 우사 신궁에서 도보로 약 10분 거리인 요리모강 오른쪽 강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이젠지 절의 경내는 일반인에게도 개방되지만, 법당 내부에 들어가려면 사전에 사찰 측에 연락을 취하거나 직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문의는 일본어로만 접수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日本語仮訳>****大善寺**

大善寺は曹洞宗の寺院であり、宇佐神宮の上級の神職であった小山田家の菩提寺（ある家の一族が先祖の霊を弔うための寺院）として1645年に創建されました。禅堂（禅宗寺院で禅の修行を行う堂）には、千年にわたって神道と仏教が融合していた時代に宇佐神宮の一番重要な寺院だった弥勒寺に安置されていた数体の貴重な仏像が残されています。1868年に明治政府が神仏判然令を発したことを受け、弥勒寺は1871年に廃寺となりましたが、その仏像の一部は保管され、その後、そのうちの5つは大善寺に移されました。

禅堂の中央に安置されているのは、かつて弥勒寺の金堂（本堂）のご本尊であった薬師如来坐像です。薬師如来は薬と治癒の仏で、左手に薬壺を持ち、右手は恐怖を払拭する仕草をしています。この仏像（高さ2.8m）は鎌倉時代（1185年～1333年）後半に製作されたもので、檜を使って寄木造り（頭や胴、手足を別に作って後から組み合わせる方式）という技術で作られており、元々は漆と金箔で仕上げられていました。鎌倉時代の薬師如来像の大作が良い状態で保存されている貴重なもので、国指定の重要文化財に指定されています。

弥勒寺から来た他の4体の仏像は、室町時代（1336年～1573年）に製作されたものです。薬師如来坐像の両脇にあるのは、随伴者である日光菩薩・月光菩薩（陽光と月光の菩薩）の像です。左端と右端は、怒りの表情の愛染明王と不動明王で、仏教の保護者として、悪を鎮圧し、無信仰者を回心させます。保存状態の差はありますが、これらの仏像はいずれも、弥勒寺とかつてそこで祀られていた神聖な品々についての貴重な資料となる作品です。

大善寺のご本尊は、本堂で祀られている釈迦如来の像です。お寺の門の右側にある観音堂という小さいお堂には、慈悲の菩薩である観音菩薩の金箔を施した像が安置されています。

大善寺は宇佐神宮から徒歩約10分の寄藻川右岸にあります。大善寺境内は一般公開されていますが、堂内への入場をご希望の場合は、事前にお寺にご連絡いただくかスタッフまでお尋ねください。お問い合わせは日本語のみ受け付けておりますので、ご了承ください。

【タイトル】 極樂寺

【想定媒体】 WEB

## &lt;韓国語&gt;

## 고쿠라쿠지 절(極樂寺)

고쿠라쿠지 절(極樂寺)에는 우사 신궁에서 수세기 동안 신토와 불교가 융합되었던 시대의 귀중한 불상과 그 외 종교적 물건들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고쿠라쿠지 절의 창립 경위나 최초 위치에 대한 기록은 전해지지 않지만, 쇼와의 대재건(1932~1941) 때 나카미세 상점가 부근인 현재의 장소로 옮겨지기 전까지는 우사 신궁 경내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고쿠라쿠지 절은 정토진종(淨土眞宗)의 사찰로 본당에 있는 본존은 정토진종에서 가장 숭배되는 부처인 아미타여래의 불상입니다. 높이 1.2m의 불상 뒤편에는 독특한 형태의 광배가 빛나고 있으며 아미타여래는 연꽃 위에서 서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가마쿠라 시대(1185~1333)에 제작된 이 불상은 원래 우사 신궁의 다이니도(大武堂)라는 법당에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다이니도 당은 1868년 메이지 정부가 신토와 불교의 분리를 명함에 따라 우사 신궁이 완전히 신토의 신사로 변모하면서 파괴되었지만, 이 아미타여래상만은 보존되어 후에 고쿠라쿠지 절로 옮겨졌습니다.

비슷한 경위로 고쿠라쿠지 절로 옮겨진 또 하나의 중요한 불상이 미로쿠도 당(彌勒堂, 미륵당)에 안치된 높이 2.8m의 거대한 미륵불좌상입니다. 미륵은 먼 훗날 이 세상에 나타나 다음 부처가 될 보살로 여겨지는데, 이 불상은 미륵이 성불한 이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로마치 시대(1336~1573)에 제작된 이 불상에는 선명한 푸른색의 머리카락과 금박으로 마무리한 흔적 등 과거에 복원했던 사람들의 자취가 남아 있습니다. 원래는 우사 신궁의 주요 사원이었던 미로쿠지 절(彌勒寺, 미륵사)의 강당에 안치되어 있었지만, 미로쿠지 절은 정부가 내린 신불판연령(神佛判然令)으로 인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고쿠라쿠지 절의 문과 본당 문 사이에는 원래 다이니도 당에 있었던 아미타여래와 자비의 보살인 관음보살, 힘의 보살인 세지보살의 이름이 쓰여진 등근 현판의 복제품이 있습니다. 본당의 작은 보물전에는 다이니도 당의 진품 현판과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수놓은 희귀한 만다라, 미로쿠지 절의 자그마한 불사리탑, 여러 권의 경전 두루마리와 그 외 자료 등 사찰의 보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경내와 미륵당은 일반인에게도 개방되지만,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안내 가이드나 보물전을 견학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문의는 일본어로만 접수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lt;日本語仮訳&gt;

## 極樂寺



極楽寺は、宇佐神宮で何世紀にもわたって神道と仏教が融合していた時代の貴重な仏像とその他の宗教的な品々を保存しています。極楽寺の創立の経緯や元々あった場所についての記録はありませんが、昭和の大造営（1932～1941年）の時に仲見世商店街の近くの現在の場所に移されるまでは、宇佐神宮の境内にありました。

極楽寺は浄土真宗の寺院であり、本堂にあるご本尊は、浄土真宗で最も崇拝されている仏である阿弥陀如来の像です。この像の高さは1.2mで、独特の輝く光背を備え蓮の花の上に立つ阿弥陀如来の姿を現しています。鎌倉時代（1185～1333）に作られたもので、元々は宇佐神宮の大式堂というお堂に安置されていました。大式堂は明治政府が1868年に神道と仏教の分離を命じ、宇佐神宮が完全に神道の神社になった後に破壊されましたが、この阿弥陀如来の像は保存され、後に極楽寺へ移されました。

同様の経緯で極楽寺にやってきたもう一つの重要な像が、弥勒堂というお堂に安置されている高さ2.8mの大きな弥勒仏坐像です。弥勒は遠い将来にこの世に現れて次の仏になる菩薩であると信じられており、この像は成仏した後の弥勒の姿を表しています。この像は室町時代（1336～1573）に製作されたもので、過去に修復を行った人が施した鮮やかな青い髪色や金の仕上げが残っています。かつて宇佐神宮の主な寺院であった弥勒寺の講堂で安置されていたが、弥勒寺も政府による神仏判然令を受けて破壊されました。

極楽寺の門と本堂の間には、もともと大式堂にあった阿弥陀如来、慈悲の菩薩である観音菩薩、力の菩薩である勢至菩薩の名が記された丸い額の複製品があります。本堂の小さな宝物殿には、大式堂の額の原品や人の髪の毛で刺繍された珍しい曼荼羅、弥勒寺の小さな仏舎利塔、複数のお経の巻物やその他の資料などの寺宝が展示されています。

境内や弥勒堂は一般公開されていますが、説明付きのご案内や宝物の見学には事前の連絡が必要です。お問い合わせは日本語のみ受け付けておりますので、あらかじめご了承ください。

【タイトル】 大樂寺

【想定媒体】 WEB

**<韓国語>****다이라쿠지 절(大樂寺)**

다이라쿠지 절(大樂寺)은 1333년 나라에 있는 큰 사찰 중 하나인 사이다이시 절(西大寺)의 승려 도미쓰(道密)에 의해 창건되었습니다. 당시 우사 신궁의 공사(최고위 신관)였던 이토즈 긴쓰라로부터 자금을 제공받았기 때문에 다이라쿠지 절은 이토즈 가문의 보다이시(菩提寺, 한 가문의 일족이 선조의 혼령을 기리기 위해 지은 사원)로 이용되었는데, 당시의 위패는 현재도 지부쓰도(持佛堂)라는 사당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1334년 다이라쿠지 절은 고다이코 천황(1288~1339)의 명에 따라 국가의 평화와 보호를 기원하는 칙원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신도와 불교가 융합되었던 시대에는 우사 신궁과 그 주변의 사찰들을 위해 승려를 양성하는 교육 기관으로도 역할했습니다. 다이라쿠지 절은 현재 고야산 진언종(高野山眞言宗)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다이라쿠지 절의 본당은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7개의 불상을 보관하기 위해 특별히 건립되었습니다. 본존은 높이 1.4m의 미륵상으로 그 양옆에는 미륵을 보좌하는 대묘상보살과 범원림보살이 거의 대칭적인 형태로 안치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미륵보살은 수행을 하고 있으며 석가모니의 후계자로서 먼 훗날 다음 부처가 되기 위해 이 세상에 나타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다이라쿠지 절의 미륵상은 연꽃 대좌에 앉아 있는 여래의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오른손은 위로 들어올려 두려움을 없애는 몸짓을 취하고 왼손은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게 하여 무릎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또한 이 삼존불은 미륵을 사방에서 수호하는 신인 지국천(동쪽), 증장천(남쪽), 광목천(서쪽), 다문천(북쪽)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곳의 모든 불상들은 헤이안 시대(794~1185) 후반 노송나무를 사용해 요세기즈쿠리(머리와 몸통, 손발을 따로 만들었다가 나중에 조립하는 방식)라는 기법으로 제작된 것으로, 현재는 국가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이라쿠지 절에는 많은 수의 귀중한 보물들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본당의 진열장에는 이 절의 시조인 도미쓰가 의식 때 사용했다고 전해지는 고코쇼라는 도구와 진언종의 개창자인 구카이(空海, 774~835)가 직접 손으로 그 일부를 썼다고 전해지는 반야심경 두루마리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지부쓰도 당에는 6개의 팔을 가진 자비의 보살인 여의륜관음상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사찰에서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불상은 헤이케모노가타리(13세기에 쓰여진 군기문학)에 등장하는 강력한 무사 가문 헤이케(다이라 가문)의 일원인 다이라노 시게모리(1138~1179)가 소유했었다고 여겨집니다.

다이시도 당(大師堂)과 고마도 당(護摩堂)은 불경을 암송하면서 고마기(護摩木)라 불리는 나무판을 신성한 불에 태우는 고마 공양 의식을 행할 때 이용됩니다. 법당 안에는 부동명왕상과 구카이상, 그리고 88개의 작은 불상(하나의 불상이 구카이와 관련된 시코쿠 지역의 영지 88곳을 의미함)이 있습니다. 경내에는 보살과 명왕 등의 석조상과 여러 개의 석탑이 있으며, 종루에 매달린 커다란 범종은 1382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오이타현에서는 두 번째로 오래된 일본산 범종입니다.

다이라쿠지 절은 우사 신궁의 정북쪽, 신쿄 다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참배는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본당 입장은 유료입니다.

005-021

## <日本語仮訳>

### 大楽寺

大楽寺は、奈良の大寺の1つである西大寺の僧侶であった道密によって1333年に設立されました。資金は当時宇佐神宮の宮司（神職の長）であった到津公連から提供され、大楽寺は到津家の菩提寺（ある家の一族が先祖の霊を弔うための寺院）となり、位牌は現在も持仏堂というお堂に安置されています。1334年、後醍醐天皇（1288-1339）の命により、大楽寺は国の平和と保護を祈る勅願寺になりました。また、神道と仏教が融合していた時代に、宇佐神宮とその周辺の寺院のために僧侶を厳格に養成しました。大楽寺は現在、高野山真言宗に所属しています。

大楽寺の本堂は、7体の最も重要な仏像を保管するために特別に建設されました。ご本尊は、高さ1.4メートルの弥勒像であり、その両脇には、弥勒に随伴する形で、大妙相菩薩と法苑林菩薩というほぼ対称的な2体の像があります。現在の弥勒菩薩は修行をおこなっており、遠い将来に釈迦の後継者として次の仏となるためにこの世に現れると言われていています。大楽寺にある像は、弥勒を蓮の台座に座った如来として表しており、右手を持ち上げて恐れを払拭する形を示し、左手は手の平を下にして膝に置かれています。この三尊はさらに、弥勒を四つの方角から守護する神々である、持国天（東）、増長天（南）、広目天（西）、多聞天（北）に囲まれています。すべての像は、平安時代（794-1185年）後半に、檜を使って寄木造り（頭や胴、手足を別々に作って後から組み合わせる方式）という技術を用いて製作されており、国の重要文化財に指定されています。

大楽寺には他にもたくさんの貴重な寺宝があります。本堂の陳列ケースには、開祖である道密上人が儀式の際に使用していたと伝えられる五鈷杵という道具や、その一部が真言宗の開祖である空海（774-835）によって書かれたと伝えられる般若心経の手書きの巻物が展示されています。持仏堂には、6本の腕を持つ慈悲の菩薩の如意輪観音像が安置されています。寺伝によるとこの仏像は、平家物語（13世紀に書かれた軍記物語）に登場する強力な武家の平家の一員であった平重盛（1138-1179）が保有していたとされています。

大師堂・護摩堂は、お経を唱え、護摩木と呼ばれる木の板を神聖な火で燃やす護摩供養のために利用されています。その中には不動明王の像や、空海の像、88体の小さな仏像（各1体が、空海ゆかりの四国霊場88ヶ所の各1ヶ所に相当している）があります。境内には、菩薩や明王などの石造、石塔がいくつもあるほか、鐘楼に吊るされた大きな梵鐘は1382年に作られたもので、大分県で2番目に古い国産の梵鐘です。

大楽寺は宇佐神宮のすぐ北、神橋の近くにあります。参拝は自由にできますが、本堂への入場は有料です。

【タイトル】 円通寺

【想定媒体】 WEB

**<韓国語>****엔쓰지 절(圓通寺)**

승려 진시 에이손(神子榮尊, 1195~1273)은 당시 우사 신궁의 궁사(최고위 신관)였던 우사 기미나카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아 1243년에 엔쓰지 절(圓通寺)을 창건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에이손은 우사 신궁에 모셔진 하치만 신과 깊은 유대관계를 맺었다고 합니다. 엔쓰지 절로 통하는 길과 문, 그리고 본당은 우사 신궁 북쪽의 참배길과 완전히 같은 직선상에 위치해 있는데, 이는 엔쓰지 절과 우사 신궁의 높은 연관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이손은 규슈 북부 출신의 승려로 1235년에 중국으로 넘어가 불교를 공부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일본에 돌아온 후 1243년 하치만 신에게 무사 귀국에 대한 감사를 표하기 위해 우사 신궁을 참배했다고 합니다. 에이손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자신이 배운 불교의 가르침을 전하고 하치만 신으로부터 ‘신사(神師)’라는 호칭을 하사한다는 신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에이손은 그 호칭을 ‘신의 아들’이란 의미가 되도록 한자 1자를 바꾸기로 선택하고, ‘진시(神子)’라는 이름으로 더욱 겸허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에이손은 엔쓰지 절의 창건뿐만 아니라, 과거 여러 차례 불타 없어졌던 미로쿠지 절(彌勒寺)의 재건에도 크게 공헌했습니다. 미로쿠지 절은 우사 신궁의 경내에 있었던 신궁사(수세기 동안 신도와 불교가 융합되었던 신불습합 시대의 우사 신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진 사찰)로 거의 모든 종교적, 행정적 기능을 수행한 곳이었습니다. 에이손의 공헌을 인정한 우사 신궁은 엔쓰지 절이 경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궁사와 같은 수준으로 대우했습니다.

엔쓰지 절의 본당 내부에는 나무로 조각한 2개의 머리가 사찰의 보물로 안치되어 있습니다. 본존(관음보살좌상)을 마주보는 형태로 오른쪽에는 에이손, 왼쪽에는 당시 임제종(臨濟宗)의 또 다른 승려로 엔쓰지 절의 부흥을 도운 무흔 가쿠신(無本覺心, 1207~1298)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원래 존재했던 두 승려의 전신 입상은 썩어서 사라졌고 현재는 머리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또 주목할 만한 사찰의 보물은 13세기에 만들어진 아미타여래상으로 과거 한 말사(큰 절에 소속된 작은 절)의 본존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엔쓰지 절은 우사 신궁에서 북쪽으로 약 1km, 신쿄 다리와 다이라쿠지 절을 지나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임제종 다이토쿠지파(大徳寺派)에 속해 있으며 오이타현에서 가장 오래된 임제종 사찰입니다. 전화로 사전 예약을 하면 절 내부 안내 및 좌선, 사경 등의 체험도 가능합니다. 문의는 일본어로만 접수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日本語仮訳>****円通寺**

神子栄尊という僧侶（1195-1273）は、当時宇佐神宮の宮司であった宇佐公仲から財政的な支援を受け、1243年に円通寺を設立しました。伝説によれば、栄尊は宇佐神宮で祀られている八幡神との強い繋がりがありました。円通寺へつながる道と門、そして本堂が宇佐神宮の北の参道と同じ直線上にあるという位置関係が、円通寺と宇佐神宮の深い関係を示していると言われていました。

栄尊は九州の北部出身の禅僧で、1235年に中国に渡り、仏教を学びました。伝説によると、彼は日本に帰国した後、無事帰国できたお礼を八幡神に申し上げるため1243年に宇佐神宮を参拝しました。栄尊はこの機会を利用して、学んだ仏教の教えを伝え、八幡神から「神師（神の師）」の称号を授けるといってお告げを受けました。しかし栄尊は、その意味が「神の子」になるように、漢字の1つを置き換えることを選択し、名前を「神子」という謙虚なものにしました。

円通寺の建立に加え、栄尊は過去に何度も全焼した弥勒寺の再建に大きく貢献しました。弥勒寺は宇佐神宮の境内にあった神宮寺（何世紀にもわたり神道と仏教が融合していた神仏習合の時代における宇佐神宮の最も重要な寺院）であり、宗教的な機能と、管理業務の両方の役割を果たしていました。宇佐神宮は栄尊の貢献を認め、境内から遠く離れているにも関わらず、円通寺に対しても神宮寺と同様の扱いをしました。

円通寺の本堂内には、2つの木彫りの頭部が寺宝として安置されています。本尊（観音菩薩坐像）に向かって、右は栄尊、左はその時代の臨済宗のもう一人の僧侶であり、円通寺の復興を手伝った無本覚心（1207-1298）を表しています。元々あった二人の僧侶の全身立像は、腐朽して、現在は頭部しか残っていません。もう一つの注目すべき寺宝は、13世紀の阿弥陀如来像で、かつてはある末寺（大きい寺の配下に属する寺）のご本尊であったと考えられています。

円通寺は宇佐神宮から北に約1km、神橋と大楽寺を超えたところにあります。臨済宗大徳寺派に属し、大分県最古の臨済宗の寺院です。電話で事前予約をすれば、寺の案内を受けることや、座禅、写経をすることができます。お問い合わせは日本語のみ受け付けておりますので、予めご了承ください。

【タイトル】 宇佐神宮 (概要)

【想定媒体】 WEB

**<韓国語>****우사 신궁**

1300년에 가까운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우사 신궁은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신사 중 하나로 국가와 황실의 수호신인 하치만 신을 모시고 있습니다. 하치만 신을 모신 신사는 수만 곳 이상이 존재하는데 우사 신궁은 그 신사들의 총본궁(總本宮)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사 신궁이 칙사(천황의 사신)를 받아들일 자격이 있는 17곳의 신사 중 하나라는 점도 황실과의 깊은 역사적 연관성을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우사 신궁은 신도와 불교가 융합된 신불습합의 신앙 형태를 가장 이른 시기에 발전시킨 장소 중 하나이자, 신사와 사찰이 융합된 종교 시설로서 크고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 존재였습니다. 19세기 후반에 신도와 불교가 분리된 후 우사 신궁은 완전히 신도만을 위한 신사로 변모했지만, 과거 신불습합 시대의 형태가 반영된 관례는 오늘날에도 다수 남아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신을 옮기는 미코시, 살생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붙잡은 생물을 놓아주는 호조에 의식, 그리고 두 채의 건물을 앞뒤로 연결하여 하나의 신전으로 만드는 하치만즈쿠리라는 독특한 건축 양식 등의 몇 가지 전통이 바로 이 우사 신궁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내**

광대한 규모의 우사 신궁은 오구라산과 그 주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사 신궁의 중심은 산 정상에 있는 조구(上宮, 위쪽 신사)와 산기슭에 있는 계구(下宮, 아래쪽 신사)입니다. 경내와 인접한 언덕에는 수많은 말사와 섬사(큰 신사에 소속된 작은 신사)도 산재해 있으며, 오쿠노미야(가장 안쪽에 있는 신사)는 남쪽으로 약 6km 떨어진 오모토산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부분이 숲으로 덮여 있는 우사 신궁의 경내는 밝은 주홍빛의 신전, 도리이, 다리가 푸르른 신록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내에 있는 여러 개의 연못과 그 주변에는 계절마다 형형색색의 꽃이 피고 다양한 야생 생물이 서식합니다. 연못 근처에 자리한 보물관에는 미코시, 고타쿠센슈(御託宣集, 가마쿠라 시대에 우사 신궁의 내력을 정리한 책), 조각상, 칼, 의례용 도구, 다양한 역사적 문서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우사 신궁에는 여러 국보와 수많은 중요문화재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우사 신궁의 역사와 모셔진 신들**

우사 신궁에서는 3명의 주요 제신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오진 천황(제15대 천황)을 신격화한 하치만 신입니다. 하치만 신은 어머니인 진구 황후, 그리고 예로부터 우사에서 히메 대신이라는 총칭으로 숭배되어 온 바다의 세 여신과 함께 모셔지고 있습니다. 우사 신궁의 기록에 따르면 하치만 신은 571년 오구라산 부근에서 처음 현신하여 자신이 일본의 수호자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고 합니다. 하치만 신을 모시는 장소는 여러 차례 변경을 거듭한 끝에 오구라산 정상의 비교적 넓은 부지로 선정되었고 725년에 신전이 지어졌습니다.

긴 역사를 거치는 동안 수많은 천황과 귀족, 무사 가문의 당주, 그리고 그 외 권력자들이 하치만 신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8세기 무렵 천황은 나라 도다이지 절(東大寺)의 대불 건설을 하치만 신이 지켜봐주기를 바라며 그를 초대했습니다. 수십년 후 황위 계승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사 신궁에서는 하치만 신의 신탁을 참고로 삼아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10세기에는 중앙 정권에 대항해 일어난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조정이 하치만 신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후 13세기에 몽골인들이 일본을 침공하려 했을 때에도 사람들은 하치만 신에게 보호를 요청했고, 하치만 신이 신령한 바람을 일으켜 몽골군의 공격을 막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오랫동안 수호신으로 여겨진 하치만 신은 지배계급에게 특히 중요시되면서 하치만 신앙이 일본 전국으로 널리 퍼지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우사 신궁은 하치만 신을 모신 신사들의 총본궁으로서 강한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한 때는 규슈에서 가장 큰 영지를 가진 지주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치 정세의 변화와 무사 계급의 대두로 우사 신궁의 지위는 약화되었고 결국 지배지의 대부분을 잃고 말았습니다. 1868년 무사 시대가 끝나고 천황의 통치가 다시 부활한 후, 정부의 명령에 따라 우사 신궁을 포함한 몇몇 신사들에게 높은 지위가 주어지면서 우사 신궁의 재건도 촉진되었습니다. 그리고 쇼와의 대재건(1932~1941) 때 경내 전체를 개보수하는 대규모의 작업을 거쳐 현재의 배치와 외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 신불습합

우사 신궁은 신도와 불교가 융합된 ‘신불습합’ 신앙의 발상지 중 하나로도 여겨집니다. 여기서 신불습합은 중국에서 전래된 불교가 일본의 토착 종교인 신도와 융합하여 8세기경 형성되기 시작한 신앙 형태를 말합니다. 이후 우사 신궁은 신관과 승려 모두가 종교 의식을 행하는 신사와 사찰이 융합된 거대한 종교 시설로 발전했습니다. 이때 경내에 지어진 미로쿠지 절(彌勒寺)은 주요 사찰로서 종교적, 행정적 기능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신불습합이 하치만 신앙과 함께 일본 전국으로 확산됨에 따라 우사 신궁은 다른 신불습합 형태 신사들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신불습합의 신앙 형태는 수세기에 걸쳐 오랫동안 지속되다가 1868년 메이지 정부가 내린 신도와 불교를 분리하라는 명령에 의해 그 명맥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이후 모든 불교 시설은 우사 신궁 경내에서 배제되었고 우사 신궁은 완전히 신토만을 위한 종교 시설로 변모했습니다. 그러나 우사 신궁에서 행해지는 특정 의식이나 축제 등의 연중 행사 중에는 신불습합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되는 요소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005-023

---

### <日本語仮訳>

#### 宇佐神宮

宇佐神宮は最も重要な神社の一つで、1300年近くの歴史があり、国と皇室の守護神である八幡神をお祀りしています。八幡神を祀る神社は最も数が多い神社の一つであり、その数は数万社にのぼりますが、宇佐神宮がその総本宮となっています。さらに、宇佐神宮は勅使（天皇の使い）を受け入れる資格のあるわずか17の神社の一つであり、この点も皇室との歴史上の深い繋がりを表しています。

宇佐神宮は、神道と仏教が融合した信仰の形である神仏習合が最も早い時期に発展した場所の一つであり、神社と寺院が融合した宗教施設として、大きく、かつ影響力のある存在になりました。19世紀後半に神道と仏教が分離された後、宇佐神宮は完全に神道の神社になりましたが、現在でも、過去の神仏習合の形態を反映した慣例がいくつも残っています。研究者たちは、神様を運ぶ神輿、殺生の罪を贖うために

捕らえられた生き物を放す放生会の儀式、二つの建物を前後に繋いで一つの社殿とした、独特な八幡造りという建築様式など、いくつかの伝統は宇佐神宮から発したものと考えられています。

## 境内

広大な宇佐神宮は小椋山とその周辺にあります。その中心は、山の頂上にある上宮（上の社）と山の麓にある下宮（下の社）です。境内と隣接する丘には、多くの末社や摂社（大きな神社の配下にある小さな神社）も点在しており、奥の宮（最も奥にある社）は、南に約6km離れた御許山にあります。

宇佐神宮境内の大部分は森に覆われており、明るい朱色の御殿、鳥居、橋が、緑の森を背景にしてとてもよく映えています。境内にいくつかある池とその周辺では季節ごとにさまざまな花が咲き、さまざまな野生の生き物の生息地になっています。池のほりにある宝物館の展示では、お神輿、御託宣集（鎌倉時代にまとめられた宇佐神宮の来歴をまとめた書物）、彫像、刀、儀式用の道具、さまざまな歴史的文書が展示されています。宇佐神宮は、いくつかの国宝と多くの重要文化財を所有しています。

## 歴史と祀られている神々

宇佐神宮は3つの主要な祭神を祀っています。その中で最も有名なのは、応神天皇（第15代天皇）の神格化された姿である八幡神です。八幡神は、母親である神功皇后と、古くから宇佐で比売大神という総称で崇拝されていた海の三女神と共に祀られています。宇佐神宮の記録によると、八幡神は571年に小椋山の近くに初めて現れ、自分が日本の守護者となる、と宣言しました。八幡神を祀った場所は何度か変更された末に、小椋山の頂上に適度な広さの土地が選ばれ、725年に御殿が建てられました。

長い歴史の中で、多くの天皇、貴族、武士の一族の当主、そしてその他の権力者が八幡神に祈りを捧げました。8世紀、天皇は奈良の東大寺で大仏の建設を見届けてもらうため八幡神を招きました。その数十年後、皇位継承の問題について検討された時には、宇佐神宮にて八幡神の御託宣が参考にされました。10世紀には、朝廷が中央政権に対する反乱を鎮圧するよう八幡神に助けを求めました。13世紀にモンゴル人が日本に侵攻しようとしたときも、人々は八幡神に保護を求め、八幡神が嵐を引き起こしてモンゴル人の攻撃を阻止したといわれています。

八幡神は守護神であると考えられており、支配階級の者たちにとって八幡神が重要であったことから、八幡信仰は全国に広まりました。宇佐神宮は八幡神を祀った神社の総本宮として強い権力と影響力を持っていたため、一時期は九州最大の地主にもなりました。しかし、政治情勢の変化と武士階級の台頭により、宇佐神宮の立場は弱まり、徐々に支配地のほとんどを失いました。武士の時代が終わり、1868年に天皇の統治が復活した後、政府の令により宇佐神宮を含むいくつかの神社に高い位が与えられ、そのおかげで宇佐神宮の再興も促進されました。昭和の大造営（1932～1941年）の時に境内全体が改修され、宇佐神宮は現在の配置と外観になりました。

## 神仏習合

宇佐神宮は、神道と仏教が融合した信仰の形である「神仏習合」の発祥地の一つであると考えられており、神仏習合の信仰形態は仏教が中国から伝わった後、8世紀ぐらいに形成され始めました。そして宇佐神宮は間もなく、神職と僧侶の両方によって宗教儀式が行われる、神社と寺院が融合した大きな宗教施



設に発展しました。境内に建てられた弥勒寺が、主要な寺院として、宗教的および事務的な役割を果たしていました。神仏習合が八幡信仰とともに全国に広まるにつれ、宇佐神宮は、神仏習合の形態をとる他の神社の規範となりました。神仏習合の信仰形態は何世紀にもわたって長く続けられましたが、明治政府が1868年に神道と仏教の分離を命じました。その後、すべての仏教施設が宇佐神宮の境内から排除され、宇佐神宮は完全に神道の施設になりました。しかし、宇佐神宮の年中行事の内、特定の儀式やお祭りには、今も神仏習合に由来するものが残っています。

【タイトル】 呉橋

【想定媒体】 WEB

**<韓国語>****구례하시 다리**

우사 신궁 경내로 진입하는 서쪽 입구에 해당하는 구례하시 다리는 요리모강에 놓인 지붕 달린 다리로 양 끝에는 대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다리는 10년에 한 번, 칙사(천황이 파견한 사신)가 우사 신궁의 신들께 정식 기도를 올리기 위해 방문 의식을 치를 때만 대문을 엽니다. 이 특별한 의식이 행해지지 않는 기간에 칙사가도를 따라 우사 신궁을 찾는 방문객들은 근처의 보행자용 다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길이 약 24.7m, 폭 약 3.5m의 구례하시 다리는 신사 건물이나 도리이에 자주 사용되는 독특한 주홍색으로 칠해져 있으며, 중앙이 볼록하게 솟아오른 형태의 ‘가라하후’ 지붕은 노송나무 껍질을 엮어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지붕이 달린 다리는 아시아 대륙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지만, 구례하시 다리는 일본에 존재하는 매우 적은 수의 예 중 하나입니다. 지역에 전해지는 전설에 따르면 현재의 중국 동부에 있었던 오나라 출신의 목수가 우사 신궁을 창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나라는 우사 신궁이 건립되기 수세기 전에 이미 멸망한 후였습니다. 이러한 전설은 ‘구례하시(吳橋)’라는 한자 표기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생겨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 ‘구례하시’의 ‘구례’는 다리를 지을 때 사용하는 목재를 가리키는 다른 한자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구례’라는 발음은 한자 ‘오(吳)’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한자 오(吳)가 보편화되었는지는 몰라도, 현재는 ‘오(吳, 구례)’와 ‘다리(橋, 하시)’를 결합한 ‘구례하시(吳橋)’가 다리의 정식 명칭으로 사용됩니다.

구례하시 다리가 건설된 시기 역시 알려져 있지 않지만, 역사적 자료에 따르면 가마쿠라 시대(1185~1333)에 구례하시 다리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의 다리는 인근 고쿠라번의 영주였던 호소카와 다다토시(1586~1641)가 1622년에 세운 것입니다. 난간에 있는 ‘기보시’라는 장식에 그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다리는 1876년에 복원되었다가, 이후 우사 신궁에서 이루어진 쇼와의 대재건(1932~1941)의 일환으로 1937년에 다시 복원되었습니다. 1951년에는 강의 제방을 보강하는 과정에서 다리의 서쪽 부분도 연장했습니다. 구례하시 다리는 오이타현의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日本語仮訳>****呉橋**

呉橋は、宇佐神宮境内への西からの入口として、寄藻川に掛けられた屋根付きの橋で、橋の前後には門扉が設けられています。この橋は、10年に1度、勅使（天皇から派遣された使者）が、宇佐神宮の神々に正式な祈りを捧げるために訪問する儀式の際にだけ門扉が開かれます。この特別な儀式の期間でない時は、勅使街道を通過して宇佐神宮へ向かう訪問者は、近くの歩行者用の橋を使います。

呉橋の長さは約24.7メートル、幅は約3.5メートルで、神社の建物や鳥居によく使われる独特の朱色で塗られており、屋根は「唐破風」と呼ばれる中央が凸型に盛り上がった形で、ヒノキの樹皮を用いて葺かれています。このような屋根付きの橋はアジア大陸で一般的に見られるもので、呉橋は日本で非常に数少ない例の1つです。地元の伝説によれば、現在の中国の東部にあった王国「呉」は宇佐神宮が建立される数世紀前に既に滅亡していましたが、呉の出身の大工によって創建されたと言われています。しかしこの伝説は、「呉橋」という名前の漢字表記の解釈によって生まれたのかもしれませんが。かつて「クレハシ」の「クレ」は、橋を建てるために使われていた木材を表す別の漢字で書かれていました。しかし、「クレ」という音は、「呉」の文字を使って書くこともできます。歴史のある時点で後者の文字が一般的になり、現在では「呉」と「橋」の文字を使った「呉橋」の表記が正式な名前として使用されています。

呉橋が創建された時期は不明ですが、歴史的資料によると、鎌倉時代（1185～1333）には呉橋がすでに存在していました。現在の橋は、1622年に近くの小倉藩の領主であった細川忠利（1586-1641）によって建設されました。欄干にある「擬宝珠」という飾りに彼の名前が刻まれています。1876年に修復が行われ、その後、宇佐神宮で行われた昭和の大造営（1932-1941）の一環として1937年に再び修復が行われました。1951年に川の堤防が補強されたときに、橋の西側に延長部分が追加されました。呉橋は大分県の有形文化財に指定されています。

【タイトル】西参道

【想定媒体】WEB

**<韓国語>****서쪽 참배길**

서쪽 참배길은 구례하시 다리에서 우사 신궁 경내로 진입할 수 있는 길입니다. 과거에는 신사의 큰 참배길로 사용되면서 참배객들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가게나 식당, 여관 등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사 신궁 경내에서 이루어진 쇼와의 대재건(1932~1941)으로 우사 신궁으로 통하는 북쪽 길이 큰 참배길로 변경되었고, 서쪽 참배길은 작은 신사와 기념비, 중요 유적 등만 남은 조용한 가로수길로 변모했습니다.

서쪽 참배길의 출발점은 구례하시 다리로 표시되어 있지만, 이 지붕 달린 다리의 대문은 거의 대부분 닫혀 있습니다. 이 다리는 칙사(천황의 사신)가 방문하여 10년에 한번 ‘린지호헤이사이(臨時奉幣祭) 축제’ 등의 특별한 의식이 열릴 때에만 건널 수 있도록 대문이 열립니다. 서쪽에서 신사로 향하는 참배객들은 근처의 보행자용 다리를 건너 서쪽 참배길에 도착하게 됩니다.

서쪽 참배길 남쪽에는 미로쿠지 절(彌勒寺)의 절터가 있습니다. 8세기부터 19세기까지 신사와 사찰이 융합된 신불습합 형태의 종교 시설이었던 우사 신궁에서 미로쿠지 절은 특히 중요한 불교 사원으로서 종교적, 행정적인 기능을 모두 수행했지만, 그 강력한 권력도 차츰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1868년 정부가 신토와 불교의 분리를 명한 이후 사찰은 철거되었고 나무들 사이에 초석만이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서쪽 참배길 주변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장소는 우사 신궁의 말사(큰 신사에 소속된 작은 신사)인 야사카 신사입니다. 야사카 신사는 바다와 폭풍과 연관된 신인 스사노오노미코토를 모신 곳으로, 주홍빛의 신전에는 나무로 조각된 파도 속 용의 모습이 선명한 색과 칠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매년 2월 야사카 신사에서는 역병이나 재해 등의 불행을 막기 위해 기원하는 ‘진에키사이(鎮疫祭) 축제’라는 액막이 의식이 열립니다.

**<日本語仮訳>****西参道**

西参道(西の参道)は、呉橋から宇佐神宮境内に至る道です。かつては神社の表参道として、参拝者や地域住民のためのお店や食堂、旅館が立ち並んでいました。しかし、宇佐神宮境内での昭和の大造営(1932~1941年)の結果、宇佐神宮へ向かう北のルートの方が表参道となり、西参道は、小さな神社、記念碑、重要な遺跡などが残る静かな並木道に変わりました。

西参道の起点は呉橋が目印になっていますが、この屋根付きの橋の門は通常は閉まっています。この橋は、勅使（天皇の使者）が訪れる10年に1度の「臨時奉幣祭」などの特別な儀式の時にのみ、渡れるように門が開かれます。西から神社へ参拝する訪問者は、近くにある歩行者用の橋を渡って、西参道に到着します。

西参道の南側には弥勒寺というお寺の跡があります。8世紀から19世紀にかけて、宇佐神宮は神社と寺院が融合した神仏習合形態の宗教施設であり、その中で弥勒寺は主要な仏教寺院として宗教的な機能と、管理業務の両方の役割を果たしましたが、その権力は次第に衰えてゆきました。1868年に政府が神道と仏教の分離を命じた後、寺院は取り壊され、木々の中に礎石だけが残されました。

西参道沿いのもう一つの注目すべき場所は、宇佐神宮の末社（大きな神社の配下にある小さな神社）である八坂神社です。八坂神社は海と嵐にまつわる神であるスサノオノミコトを祀っており、朱色の社殿には、色鮮やかに塗られた、波の中にいる龍の木彫りの飾りがあります。八坂神社では毎年2月に、疫病や災害などの不幸を防ぐことを祈願するために「鎮疫祭」というお祭りが行われています。

【タイトル】 宇佐鳥居

【想定媒体】 WEB

**<韓国語>****우사 도리이**

신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도리이는 세속적인 세상과 신성한 공간의 경계를 나타내는 표식입니다. 일본 전국에는 다양한 형태의 도리이가 존재하는데 우사 신궁의 우사 도리이는 특히 독특한 양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특징으로는 최상부 옆부분에 놓인 가로대가 크게 휘어져 있는 것, 그리고 2개의 기둥 맨 꼭대기에 기둥을 둘러싸는 형태로 검은 테두리가 둘러져 있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우사 도리이에는 2개의 수평보 사이에 가쿠즈카라고 불리는 신사의 이름을 내건 현판도 없습니다. 도리이에 칠해진 밝은 주홍색은 사악함과 불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우사 신궁 경내에 있는 도리이는 모두 이러한 양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조구의 도리이**

조구(上宮, 위쪽 신사)로 이어지는 돌계단 꼭대기에 있는 도리이는 우사 도리이 양식의 기원으로 여겨집니다. ‘이치노 도리이(첫 번째 도리이)’라고 불리는 이 도리이는 우사 신궁의 주체신인 하치만 신의 이름을 따서 ‘하치만 도리이’라고도 불립니다.

조구 앞 이곳에 언제부터 도리이가 세워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1030년에 작성된 문헌에도 이 도리이는 등장합니다. 현재의 도리이가 세워진 연도도 불분명하지만, 1863년에 수리되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150년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조구의 도리이는 오이타현의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오토리이(큰 도리이)**

신교 다리를 건너 신성한 땅에 들어서면 우사 신궁의 큰 참배길에 오토리이(큰 도리이)라 불리는 거대한 도리이가 나타납니다. 11.1m의 높이를 자랑하는 이 도리이는 신사 내에서도 가장 큰 도리이입니다.

원래의 오토리이는 1111년에 세워졌습니다. 17세기에 영주가 교체되고 새로운 영주가 우사 신궁에 자금을 제공한 덕분에 오토리이를 수리할 수 있었습니다. 1798년 낡아진 오토리이는 하치만 신이 처음으로 지상에 내려왔다고 알려진 신성한 산 오모토산의 삼나무로 만든 새로운 오토리이로 교체되었습니다. 과거의 도리이는 현판이 있었고 기둥 주변에 특징적인 검은 테두리가 없었기 때문에 ‘우사 도리이’로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태풍으로 이전의 오토리이가 파괴된 후, 1937년에 우사 도리이 특유의 양식으로 만든 현재의 콘크리트제 오토리이가 세워졌습니다.

**<日本語仮訳>****宇佐鳥居**

神社でよく見られる鳥居は、世俗的な世界から神聖な空間へ移行することを示すものです。日本全国にはさまざまな形の鳥居がありますが、宇佐神宮には宇佐鳥居という独自のスタイルがあります。その特徴は、最上部の横の部材である笠木が大きく反っていること、2本の柱の最上部に柱を囲む形で黒い輪が付いていることです。また、宇佐鳥居は、2本の水平部材の間に、額束と呼ばれる神社の名前を掲げる額もありません。鳥居の明るい朱色は、邪悪なものや不幸からの守護を目的としています。宇佐神宮の境内にある鳥居はすべてこの様式で建てられています。

### 上宮の鳥居

上宮（上の社）へ続く石段の頂上にある鳥居は、宇佐鳥居のスタイルの起源とされています。「一の鳥居（一番目の鳥居）」と呼ばれることもあり、宇佐神宮の主祭神にちなんで「八幡鳥居」と呼ばれることもあります。

上宮前のこの場所に、いつ鳥居が創建されたのか、分かっていませんが、1030年の文献にはこの鳥居が登場します。現在の鳥居が建てられた年もまた不明ですが、記録によれば1863年に修理されているため、少なくとも150年前からあることとなります。この上宮の鳥居は大分県の有形文化財に指定されています。

### 大鳥居

神橋を渡って神聖な土地に入った後に見える、宇佐神宮への表参道にある大きな鳥居は、大鳥居（大きな鳥居）と呼ばれています。11.1メートルの高さで、この神社で最も大きな鳥居です。

元の大鳥居は1111年に建てられました。17世紀に領主の交代があり、新しい領主が宇佐神宮に資金を提供したおかげで、大鳥居を修理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1798年に、古くなった大鳥居が、八幡神が最初に地上に降りたと言われる神聖な山である御許山の杉で新しく作られた大鳥居と取り替えられました。それらの過去の鳥居は、額束があり、柱の上部に特徴的な黒い輪が無かったため、「宇佐鳥居」に分類され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台風で以前の大鳥居が破壊された後、1937年に現在のコンクリート製の大鳥居が宇佐鳥居独特の形式で建立されました。

【タイトル】 上宮

【想定媒体】 WEB

**<韓国語>****조구**

조구(上宮, 위쪽 신사)는 우사 신궁의 거의 모든 의식과 기도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오진 천황(제15대 천황)을 신격화한 하치만 신과 오진 천황의 어머니인 진구 황후, 그리고 히메 대신이라 불리는 세 여신을 가장 중요한 제신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하치만 신은 국가와 황실의 수호신으로, 진구 황후는 순산의 여신으로 숭배되었으며 히메 대신은 항해의 안전을 지키는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사에서는 두 번 고개 숙여 절하고 두 번 박수를 친 후, 손을 모아 조용히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절을 하는 방식으로 예를 취합니다. 그러나 우사 신궁의 참배 예절은 조금 달라서 박수를 두 번이 아닌 네 번 칩니다. 또한 조구와 계구(下宮, 아래쪽 신사)에서는 참배객이 중앙에 자리한 신전 앞만이 아닌, 각 신들을 모신 3개의 신전 앞에서 기도하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조구에 있는 3개의 본전(本殿)은 우사 신궁에서 처음 시작된 하치만즈쿠리라는 건축 양식으로 지어졌습니다. 각 신전은 통로로 연결된 두 채의 각기 다른 건물처럼 보이지만, 2개의 지붕을 가진 하나의 건물입니다. 내부는 덮개가 달린 침대가 있는 안쪽의 큰 방과 왕좌가 갖춰진 바깥쪽의 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는 신들이 낮에는 바깥쪽의 큰 방에서 기도를 듣고 밤이 되면 안쪽 방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세 신전의 내부는 봉황 그림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일본 전국에 약 40,000곳의 하치만 신사가 존재하지만, 전통적인 목조 하치만즈쿠리 양식으로 지어진 신전은 10곳이 채 되지 않습니다.

조구 안에 자리한 3개의 작은 신사(가스가 신사, 호쿠신 신사, 스미요시 신사)는 각각 세 신전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하치만 신의 신전을 수호하는 가스가 신사에서는 예로부터 하치만 대신과 아마테라스오미카미를 보좌하는 신을 모시고 있습니다. 히메 대신의 신전을 수호하는 호쿠신 신사에서는 우사 신궁이 자리한 이 지역의 신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호쿠신 신사는 하치만즈쿠리 양식의 구조가 남아있는 귀중한 예이기도 합니다. 진구 황후의 신전을 수호하는 스미요시 신사에서는 진구 황후를 축복한 3명의 신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들 신사 외에도 조구의 벽을 따라 심어진 한 그루의 커다란 녹나무는 하치만 신의 신성한 자녀를 모신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구에서 최초로 하치만 신을 모신 신전은 725년에 지어졌지만, 현재 조구의 신전은 1859년부터 1861년에 재건된 것입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대규모의 수리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주홍빛의 기둥과 흰 벽, 노송나무 껍질로 엮은 지붕이 하늘과 주변의 나무들을 배경으로 특히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합니다. 조구에 있는 3개의 신전은 국보로 지정되어 있으며 호쿠신 신사, 미나미추로몬 문(南中樓門), 사이다이몬 문(西大門)은 오이타현의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日本語仮訳>

### 上宮

上宮（上の社）は、宇佐神宮でのほとんどの儀式や祈りが行われる場所です。ここでは、応神天皇（第15代天皇）の神格化された姿である八幡神と、応神天皇の母である神功皇后、そして比売大神と呼ばれる三女神という、主要な三柱の御祭神を祀っています。八幡神は国と皇室の守護神として崇拝され、神功皇后は安産の女神であり、比売大神は航海の安全を守ると信じられています。

一般的な神社での祈り方は、二礼、二拍手し、手を合わせながら静かに祈り、最後に一礼をします。しかし、宇佐神宮での参拝の作法は少し異なり、拍手を2回ではなく4回行います。また、上宮と下宮（下の社）では、礼拝者は中央の御殿の前だけでなく、神々を祀る3つの御殿それぞれの前で祈ることが推奨されています。

上宮の3つの本殿は宇佐神宮発祥の八幡造という建築様式で建てられています。各御殿は、通路で繋がった2つの別々の建物のように見えますが、2つの屋根を持つ1つの建物です。内部は、天蓋付きの寝台を備えた内側の広間と、御椅子がある外側の広間に分かれています。神々は、日中は外側の広間で祈りを聞き、夜になると内側の広間に下がって休むとされています。3つの御殿の中は、鳳凰の絵によって豪華に飾られています。全国には約40,000の八幡神社があるとされていますが、伝統的な木造の八幡造りの社殿の例は10に満たない数しか残されていません。

上宮の中に立つ3つの小さい神社（春日神社、北辰神社、住吉神社）は、それぞれ3つの御殿を守護しています。春日神社は八幡神の御殿を守護しており、古来より八幡大神とともに天照大神を補佐するとされる神様を祀っています。北辰神社は比売大神の御殿を守護しており、宇佐神宮が建つこの土地の神々を祀っています。北辰神社は八幡造の構造が残っている貴重な例です。住吉神社は神功皇后の御殿を守護しており、神功皇后を祝福した3柱の神々を祀っています。これらの神社に加えて、上宮の壁沿いに植えられた大きな一本の楠は、八幡神の神聖な子女を祀る場所としての役割を果たしています。

上宮に八幡神を祀った最初の御殿は725年に建てられ、現在の上宮の御殿は1859年から1861年に再建されました。2012年から2015年にかけて大規模な修繕が行われた後、朱色の柱、白い壁、ヒノキの樹皮を用いて葺かれた屋根が、空や周囲の木々を背景に、特に美しく映えています。上宮の3つの御殿は国宝に指定されており、北辰神社、南中楼門、西大門は大分県指定有形文化財に指定されています。

【タイトル】 百段

【想定媒体】 WEB

**<韓国語>****하쿠단 계단**

우사 신궁 경내 남쪽에서 조구(上宮, 위쪽 신사)로 이어지는 커다란 돌계단을 하쿠단(百段)이라 부릅니다. 그 이름은 ‘백개의 단이 있는 계단’이라는 뜻이지만 실제 계단은 99단까지밖에 없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옛날 한 요괴가 우사 신궁의 주체신인 하치만 신에게 사람을 먹는 것을 허락해 주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에 하치만 신과 요괴는 만약 요괴가 하룻밤에 100개의 단이 있는 돌계단을 만든다면 마음껏 사람을 먹어도 된다는 일종의 거래를 맺었습니다. 거래가 성사되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한 하치만 신은 해가 뜰 무렵 요괴가 이미 99번째 계단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놀랐습니다. 하치만 신은 요괴가 마지막 계단을 완성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 닭을 울게 해 새벽이 왔음을 알렸습니다. 결국 계단은 99단까지밖에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로 남았고 거래의 조건은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의 다른 판본에서 상대는 물속에 사는 커다란 뱀으로, 하치만 신에게 히시가타 연못을 자신의 집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비슷한 방법으로 실패했다고 전해집니다.

현재의 하쿠단 계단은 우사 신궁에서 쇼와의 대재건(1932~1941)이 이루어졌을 때 화강암으로 재건된 것이지만, 전설과 어울리도록 99단인 채로 완성되었습니다. 아울러 같은 시기에 하쿠단 계단의 가파른 단 아래에 난다이몬 문(南大門)이 지어졌습니다. 현재 하쿠단 계단은 안전 문제로 폐쇄되었기 때문에 참배객들은 오구라산 서쪽에 있는 일반 길로 올라가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유모차를 동반한 가족 단위 참배객은 하쿠단 계단 위에서 조구로 향하는 모노레일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日本語仮訳>****百段**

宇佐神宮境内の南側から上宮（上の社）へと続く大きな石の階段は、百段と呼ばれています。名前は「百の段がある階段」を意味しますが、この階段は99段しかありません。

伝説によれば、かつてある鬼が、宇佐神宮の主祭神である八幡神に対し、人を食べる許しを得られるようお願いをしたと言われています。八幡神と鬼は、もしも鬼が一晩で100段の石の階段を作ることができれば、鬼はその食欲を満たして良いという取り決めにしました。八幡神は、そんな仕事は不可能だと思っていたので、日の出間近になって、鬼がすでに99番目の段を造ったことを知って驚きました。鬼が最後の段を完成させるのを妨害するために、八幡神は雄鶏を鳴かせて夜明けを告げました。そのため、99段しかないままで

終わり、取引の条件は満たされませんでした。物語の別の筋書きでは、相手は水中に住む大きな蛇であり、菱形池を自分の住処にしたいと八幡神に持ち掛けましたが、似たような方法で打ち負かされました。

現在の百段は、宇佐神宮の昭和の大造営（1932～1941年）の際に花崗岩を使って再建されたものですが、伝説に合わせて99段のままで作られました。併せてその際に、百段のふもとに南大門という門が建てられました。現在、百段は安全を考慮して閉鎖されており、参拝者は小椋山西側の通常のルートから上ります。お体が不自由な方やベビーカーをお持ちのご家族は、百段の下から上宮へ向かうモノレールを利用することができます。

【タイトル】 若宮神社

【想定媒体】 WEB

**<韓国語>****와카미야(若宮) 신사**

와카미야(若宮) 신사는 우사 신궁의 조구(上宮, 위쪽 신사) 입구를 나타내는 도리이 바깥쪽에 자리한 접사(큰 신사에 소속된 작은 신사)입니다. 와카미야 신사에서 모시는 다섯 신은 오사자키노미코토, 오바에노미코, 고바에노미코, 하야부사와케노미코, 메토리노히메미코입니다. 이들은 모두 우사 신궁의 주제신인 하치만 신으로 신격화된 제15대 천황 오진 천황의 자녀들입니다. 이 중 오사자키노미코토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황위에 올라 닌토쿠 천황이 된 인물입니다. 와카미야 신사의 신들은 불행과 재난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신으로 숭배되고 있습니다.

우사 신궁의 기록에 따르면, 824년 하치만 신의 자녀를 모시는 신사를 지으라는 하치만 신의 신탁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852년에 하치만 신의 소원이 담긴 와카미야 신사가 세워졌습니다. 현재의 신사 건물은 1843년에 지어진 것으로 2009년에 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日本語仮訳>****若宮神社**

若宮神社は、宇佐神宮の上宮（上の社）の入り口を示す鳥居の外にある摂社（大きな神社の配下にある小さな神社）です。若宮神社で祀られている五柱の神々は、大鷦鷯命、大葉枝皇子、小葉枝皇子、隼別皇子、雌鳥皇女です。これらの神々はすべて、宇佐神宮の主祭神である八幡神として崇められている第15代天皇、応神天皇の子女です。そのうち大鷦鷯命は父から皇位を受け継ぎ仁徳天皇となった人物です。若宮神社の神々は、不幸や災難から守ってくれる神様として崇拝されています。

宇佐神宮の記録によると、824年、八幡神の子女を祀るために神社を建てよという八幡神からの神託を受けました。そして852年、八幡神の願いを叶えるために、若宮神社が建てられました。現在の神社の建物は1843年に建てられて2009年に修理を受けました。

【タイトル】 下宮

【想定媒体】 WEB

---

**<韓国語>****계구**

수많은 신전을 거느린 거대한 신사는 일본 전국 곳곳에 존재하지만, 그중에서도 우사 신궁은 같은 신을 모신 산사이 2곳이나 있는 희귀한 신사입니다. 오구라산 정상에는 신사의 조구(上宮, 위쪽 신사)가, 오구라산 기슭에는 계구(下宮, 아래쪽 신사)가 자리해 있는데 이들 모두가 하치만 신과 히메 대신, 진구 황후를 모시고 있습니다. 우사 신궁을 방문할 때 양쪽 모두의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며, 예로부터 지역에서는 ‘만약 계구에 가지 않으면, 참배는 절반밖에 달성되지 않는다’는 말이 전해질 정도입니다.

계구는 조구가 세워진 후 약 100년이 지난 9세기 초에 창건되었습니다. 모셔진 신들은 동일하지만 그 효험은 서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조구의 하치만 신은 나라의 수호자로 숭배되고 계구에서는 농업이나 어업 등 일반 사람들의 생계를 보호하는 신으로 여겨집니다. 일설에 따르면 당시 조구는 신분이 높은 사람들만 참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서민들이 참배하는 계구와 차별화되었다고 합니다.

계구는 과거에 신들에게 바칠 신성한 음식을 준비하는 공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현재는 주로 신관들이 일상적인 제사를 드리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때때로 계구는 조구 본전(本殿)에서 대규모의 수리가 이루어질 때 조구의 신들을 일시적으로 모시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현재의 계구는 1817년~1826년에 재건되었다가 쇼와의 대재건이 이루어지면서 1939년에 개축되었습니다.

---

**<日本語仮訳>****下宮**

数多くの社殿を持つ大きな神社は日本全国にあります。宇佐神宮は、その中でも同じ神様を祀るお社が2つある珍しい例です。小椋山の頂上にある本社の上宮（上の社）に加えて、小椋山の麓にある下宮（下の社）があり、どちらにも、八幡神・比売大神・神功皇后が祀られています。古くからの地元では、宇佐神宮を訪れる際に両方の場所で祈ることの重要性を表し、「もし下宮へ行かなければ、お参りは半分しか達成されない」と言われています。

下宮は上宮が建ってから約100年後の9世紀初頭に創建されました。祀られている神々は同じですが、ご利益はそれぞれ異なります。たとえば、上宮では八幡神は国の守護者として崇拝され、下宮では一般の人々と、農業や漁業など彼らの産業の守護者として崇拝されています。ある説によれば、上宮では当時、身分の高い人しかお参りできなかったために下宮が庶民の参拝場所となったので、このような違いができたと言われています。

下宮はかつて、神々にお供えする神聖な食事を準備するために使用されていました。現在は主に神職によって日常の祭祀が行われる場所となっています。時折、下宮では、上宮本殿の大規模な修理の時に、上宮の神々を一時的に祀っています。今の下宮は1817年～1826年に再建され、昭和の大造営が行われた際に1939年に改築されました。

【タイトル】 春宮神社

【想定媒体】 WEB

**<韓国語>****도구(春宮) 신사**

우사 신궁의 주요 참배길을 지나는 방문객들은 도중에 몇 개의 작은 신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이 도구(春宮) 신사로, 하치만 신으로 추앙된 제15대 천황 오진 천황의 아들인 우지노와키이라쓰코를 모신 접사(큰 신사에 소속된 작은 신사)입니다. 닌토쿠 천황이 된 형 오사자키노미코토를 비롯한 우지노와키이라쓰코의 다섯 형제자매들은 조구(上宮, 위쪽 신사) 근처에 있는 와카미야(若宮) 신사에 모셔져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오진 천황은 부지런한 우지노와키이라쓰코를 다음 황제가 될 황태자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천황의 장남은 오사자키노미코토였기 때문에 우지노와키이라쓰코는 자신이 황위 계승 서열 1위에 오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진 천황이 숨을 거둔 후 우지노와키이라쓰코는 형에게 천황의 자리를 이을 것을 권유했지만, 오사자키노미코토가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고 싶어하면서 두 사람의 사이는 교착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공식적인 통치자가 없는 상태로 수년이 지났을 무렵, 우지노와키이라쓰코는 나라의 앞날을 점점 더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지노와키이라쓰코는 그의 형이 천황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길을 터주기 위해 우지강에 몸을 던져 자살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충명하고 지적인 학생이었던 우지노와키이라쓰코는 오늘날에도 학문의 신으로 숭배되고 있습니다. 도구 신사는 우지노와키이라쓰코를 기리기 위한 목적으로 15세기 이전 현재의 자리에 창건되었지만, 후에 계구(下宮, 아래쪽 신사) 가까이로 옮겨졌습니다. 주홍빛으로 칠해진 현재의 신사는 1936년에 원래의 장소에 재건된 것입니다.

**<日本語仮訳>****春宮神社**

宇佐神宮の主参道を通る訪問者は、途中でいくつかのより小さな神社を通り過ぎます。その一つが春宮神社で、八幡神として祀られている第15代天皇である応神天皇の息子、菟道稚郎子命を祀る摂社（大きな神社の配下にある小さな神社）です。仁徳天皇となった兄の大鷦鷯命をはじめとする、菟道稚郎子命の5人の兄弟姉妹は、上宮（上の社）近くの若宮神社で祀られています。

ある伝説によると、応神天皇は、勤勉な菟道稚郎子命を次の天皇にしたいと考え、彼を皇太子にしました。しかし、大鷦鷯命が長男であったことから、菟道稚郎子命は自分が皇位継承順位の第一位になるのは正しくないと考えました。応神天皇の死後、菟道稚郎子命は兄に対し、天皇の位を継ぐことを勧めましたが、大鷦鷯命は父親の選択を尊重したいと考え、2人の間で膠着状態に陥りました。公式な統治者が不

在のまま数年が経った頃、菟道稚郎子命は国の行く末をますます案じるようになりました。最終的に、菟道稚郎子命は彼の兄が天皇になる道を開くため宇治川に身を投げ、自殺することを選びました。

菟道稚郎子命は、聡明で知的な学生だったので、現在は学問の神として崇拝されています。春宮神社は、菟道稚郎子命を祀るため15世紀より前に現在の場所に創建されましたが、後に、下宮（下の社）に近い所へ移されました。現在の朱色に塗られた社は1936年に元の場所に再建されたものです。



【タイトル】 菱形池

【想定媒体】 WEB

**<韓国語>****히시가타 연못**

우사 신궁의 경내 중앙에는 히시가타 연못이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연못이 있습니다. 연못 위에 떠 있는 작은 섬들에는 여러 신사와 노(가면을 쓰고 아름다운 옷차림을 한 배우가 가무를 선보이는 극)의 무대가 마련되어 있으며, 각 섬들은 서로 다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통 다리는 단혀 있지만 연못 주변을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등나무와 연꽃, 창포, 단풍 등 계절마다 변하는 아름다운 풍경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물새와 거북이,形形色색의 잉어가 서식하고 있는 큰 연못에서는 잉어에게 먹이를 줄 수 있는 작은 먹이 봉지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히시가타 연못의 남동쪽 독에는 영험하다고 알려진 고레이스이(御靈水)란 이름의 샘이 있습니다. 신사의 전설에 따르면 571년 이 장소에서 오가노 히기라는 남자 앞에 하치만 신이 나타나 자신이 나라의 수호자임을 선언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사 신궁의 역사가 시작된 출발점으로 여겨집니다. 고레이스이 샘 주변에는 샘을 둘러싸고 주홍색 울타리가 쳐져 있으며, 도리이에 의해 경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맑은 물이 솟아난다는 이 샘은 대나무 덮개로 덮힌 3개의 돌우물에 물을 공급합니다. 신자들 일부는 이 물을 종교적인 공물로 바치기 위해 집으로 가져가기도 하지만, 마시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의 섬에 마련된 노 무대는 매년 10월에 열리는 노 공연이나 그 외 다른 공연에 사용됩니다. 이 무대 근처에는 목수 등 장인을 수호하는 신을 모신 모쿠쇼소 신사가 있습니다. 다른 섬에는 물의 신을 모신 미쿠마리 신사가 있습니다. 연못의 서안에 위치한 에마당에는 우사 신궁의 전설이나 역사를 그린 에마(신사나 사원에 봉납하는 그림이 그려진 목판)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히시가타 연못은 우사 신궁 경내에서 이루어진 쇼와의 대재건(1932~1941) 때 복원되고 확장되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日本語仮訳>****菱形池**

宇佐神宮境内の中央には菱形池という名の美しい池があり、池に浮かぶ小さな島々には、神社と能(面をかぶり、美しい装束を着て上演される劇)の舞台があり、それらの島々は橋で結ばれています。橋は通常は閉鎖されていますが、池の周囲を散歩すると、藤や蓮の花、菖蒲、紅葉などの季節ごとに美しい風景が見られます。大きな池には、さまざまな水鳥、亀、色とりどりの鯉が生息しており、鯉に与えるための餌の入った小袋が売られています。

菱形池の南東の岸には、御霊水という神聖な泉があります。神社の伝説によると、571年にこの場所で、大神比義という男の前に八幡神が現れ、国の守護者であると宣言しました。これが宇佐神宮の歴史の始まりといわれています。御霊水の周囲は朱色の柵に囲まれ、鳥居によって仕切られています。泉からは常に澄んだ水が湧き出ていると言われており、竹の覆いで保護された3つの石の井戸に水を供給しています。氏子の中には、この水を宗教的なお供え物にするために家へ持ち帰る人もいますが、この水は飲むには適していないので注意してください。

中央の島にある能舞台は、毎年10月に行われる能の公演や、その他の公演に使われています。この舞台の近くには、大工などの職人を守護する神様を祀る木匠祖神社があります。別の島には、水神が祀られている水分神社があります。池の西岸にある絵馬堂には、宇佐神宮の伝説や歴史を描いた絵馬（神社や寺院に奉納する、絵が描かれた木の板）が展示されています。

宇佐神宮境内での昭和の大造営（1932～1941）の際に、菱形池の形を変え、拡大し、現在の形にする工事が行われました。

【タイトル】 頓宮

【想定媒体】 WEB

**<韓国語>****돈구(頓宮)**

돈구(頓宮)는 특정한 의식이 행해질 때 우사 신궁의 신들을 일시적으로 모시기 위해 사용되는 장소입니다. 돈구의 두 건물 중 하나는 신을 위한 신전으로, 다른 하나는 신이 타는 가마인 미코시를 보관하는 전용 창고로 이용됩니다. 돈구는 여름에 열리는 고신코사이(御神幸祭) 축제에서 조구(上宮, 위쪽 신사)의 신들을 2박 3일간 일시적으로 모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신코사이 축제가 열리는 동안 돈구에서는 스가누키라는 우사 신궁 특유의 정화 의식 등 몇 가지 의식이 행해집니다.

‘돈구’라는 이름은 예로부터 신이 일시적으로 머무는 장소를 의미하는데, 그 이름대로 유명한 신사들이 일정 기간마다 본전(本殿)을 재건할 동안 일시적으로 신을 모시는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우사 신궁에서는 9세기부터 14세기까지 33년마다 신전이 재건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재건할 때마다 조구와 계구, 와카미야(若宮) 신사의 신들을 모시기 위해 특별히 3개의 돈구를 지었는데, 이들 돈구는 재건이 완료되면 곧 해체되었습니다.

현재의 돈구는 쇼와의 대재건(1932~1941) 때 지어진 상설 건물로, 신전의 수리보다는 매년 열리는 고신코사이 축제에서 미코시를 안치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고신코사이 축제 기간 동안에 신을 모시게 되기 전의 돈구는 1680년에 지어진 것으로 신교 다리 근처의 오토리이(큰 도리이) 바깥쪽에 세워져 있습니다.

**<日本語仮訳>****頓宮**

頓宮は、特定の儀式の際に宇佐神宮の神々を一時的に祀るために使用される場所です。頓宮は2つの建物からなり、一つは神様のための御殿、もう一つは神様が乗る輿である神輿を保管するための専用の倉庫です。頓宮は、夏の御神幸祭での重要な役割を果たしており、上宮（上の社）の神々を二泊三日祀ります。御神幸祭の間、頓宮では、菅貫という宇佐神宮独特の清めの儀式など、いくつかの儀式が行われます。

「頓宮」とは、古くから、神様が一時的に滞在する場所を意味し、有力な神社において一定期間ごとに本殿を再建する際に、一時的に神様を祀る場所として使用されました。宇佐神宮の場合、9世紀から14世紀にかけて33年ごとに社殿が再建されました。その時代には、再建の度に、上宮、下宮、若宮神社それぞれの神様を祀るため3つの頓宮が特別に建てられ、再建が終わった後に取り壊されました。

現在の頓宮は昭和の大造営（1932～1941）の際に建てられた常設のもので、御殿の修繕工事よりも、毎年の御神幸祭において神輿を安置する役割が主となっています。それ以前、御神幸祭の期間中に神様をお祀りするようになる前の頓宮は、1680年に建てられたもので、神橋近くの大鳥居の外に立っていました。

【タイトル】 大尾神社

【想定媒体】 WEB

**<韓国語>****오오(大尾) 신사**

오오(大尾) 신사는 우사 신궁 동쪽에 있는 오오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신사는 8세기에 황위 계승을 둘러싸고 다툼이 벌어졌을 때 중요한 신탁이 내려졌던 섭사(큰 신사에 소속된 작은 신사)입니다.

749년 대불을 건설 중이던 도대이지 절(東大寺)을 참배하기 위해 하치만 신은 우사에서 당시의 수도였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하치만 신은 오구라산의 본전(本殿)이 정화되는 동안 신위를 우사 신궁으로 돌려보내지 말고 임시로 오오산에 모셔야 한다는 신탁을 내렸습니다. 바로 이 765년에 오오 신사가 세워진 것입니다.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는 하치만 신이 본래의 장소로 돌아가는 것이 늦어진 이유가 우사 신궁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경계한 중앙 권력자들의 책략 때문이었다고 추정됩니다.

그후에도 하치만 신은 15년 동안 오오 신사에 머물렀습니다. 그 사이 권력자였던 승려 도교(道鏡, 700?~772)가 다음 천황이 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설에 따르면 도교의 지지자들은 도교가 천황의 자리에 오르면 나라 전체가 평화로워질 것이라는 하치만 신의 신탁을 받았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 신탁의 진위를 검증하기 위해 쇼토쿠 천황(718~770)은 769년 조정의 신하였던 와케노 기요마로(733~799)를 우사에 파견했습니다. 와케노 기요마로는 오오 신사에서 황위는 황실의 혈통으로만 이어져야 한다는 신탁을 받았는데, 이는 도교가 천황이 되는 것을 막고 전통적인 황위 계승 질서를 유지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이후 하치만 신은 우사 신궁의 본전으로 다시 옮겨졌지만, 오오산에 있는 이 신사는 과거 하치만 신이 나타나 자신의 뜻을 밝혔다고 믿어지는 장소로서 지금도 신성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현재 오오 신사의 건물은 1937년에 지어져 2020년에 수리된 것입니다. 오오산 근처의 고오 신사에서는 황실에 대한 충성심을 보인 와케노 기요마로를 신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日本語仮訳>****大尾神社**

大尾神社は宇佐神宮の東側にある大尾山に建っています。この神社は、8世紀に起こった皇位継承争いの際に、重要な神託を受けた摂社（大きな神社の配下にある小さな神社）です。

749年、大仏を建設中だった東大寺を参拝するため、八幡神は宇佐から当時の都であった奈良に移されました。帰り道の途中、八幡神を宇佐神宮に戻せるようになる前に、八幡神からのご神託があり、小椋山の本殿がお清めされている間、八幡神はしばらく大尾山に祀られるべきであるということでした。そのため、

765年に大尾神社が建てられました。歴史学者の間では、八幡神が本来の場所へ戻るのが遅くなったのは、宇佐神宮の影響力の高まりを警戒した中央の権力者たちの策略によるものだったと考えています。

その後、八幡神は15年間、大尾神社に留まりました。その間に、権力者であった僧侶の道鏡（700？-772）が次の天皇に指名されようと企てました。ある説によれば、道鏡の支持者は、もし道鏡が天皇の座に就けば国全体が平和になると八幡神からの神託を受けた、と主張したといえます。この神託を検証するために、称徳天皇（718-770）は、769年に廷臣の和気清麻呂（733-799）を宇佐に派遣しました。和気清麻呂が大尾神社で受けた神託は、皇位は皇室の血を引く人にもみ継がれるべきであるというものであり、それにより道鏡が天皇になることが防がれ、伝統的な皇位継承の仕方を維持する一助となりました。

八幡神は後に宇佐神宮の本殿に戻されましたが、大尾山にあるこの神社は、かつて八幡神が現れてその意向を語ったと信じられている場所として、今でも神聖な場所です。現在の大尾神社の建物は1937年に建設され、2020年に修復されました。大尾山の近くにある護皇神社は、その皇室への忠誠を称え、和気清麻呂を祀っています。

【タイトル】 護皇神社

【想定媒体】 WEB

**<韓国語>****고오 신사**

고오 신사는 우사 신궁 동쪽의 오오산에 자리한 말사(큰 신사에 소속된 작은 신사)입니다. 이 신사에서는 신격화된 와케노 기요마로(733~799)를 신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와케노 기요마로는 황위 계승을 둘러싸고 다툼이 벌어졌을 때, 이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조정의 신하입니다. 당시 그는 사신의 자격으로 우사 신궁으로 향하는 도중에 하치만 신으로부터 중요한 신탁을 받았습니다.

와케노 기요마로는 오카야마 지방의 이름 높은 관리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족의 뜻을 이어 고위 관리가 된 그는 여러 대의 천황을 섬겼습니다. 그러던 중, 쇼토쿠 천황(718~770)이 통치하던 시기에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천황과도 가깝게 지냈던 승려 도묘(道鏡, 700?~772)가 자신이 다음 천황 자리에 오를 계획을 세웠습니다. 도묘의 야심을 이루기 위해 그의 지지자들은 도묘가 천황이 되면 평화로운 세상이 올 것이라는 우사 신궁 하치만 신의 신탁을 받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때 천황의 신임을 얻은 와케노 히로무시(730~799)라는 이름의 궁녀가 그 주장을 조사하기 위해 우사로 보내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몸상태가 좋지 않았던 탓에 그녀의 남동생인 기요마로가 대신 선택되어 당시의 수도였던 나라에서부터 긴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기요마로는 당시 우사 신궁의 본전(本殿)이었던 오오 신사에서 하치만 신으로부터 신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신탁의 내용은 황실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만이 천황의 자리에 올라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신탁은 도묘가 황위에 오르는 것을 막는 데 지대한 역할을 했지만, 도묘는 기요마로에게 복수를 하게 됩니다. 기요마로는 다리의 힘줄이 절단되어 가고시마로 유배되었습니다. 그가 유배를 가는 도중에도 암살 시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요마로는 끝까지 살아 남았고, 도묘의 몰락 이후 조정으로 돌아와 간무 천황(737~806)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고문으로 활약했습니다.

고오 신사는 19세기 후반 이전에 히시가타 연못의 섬에 건설되었다가 우사 신궁의 경내에서 이루어진 쇼와의 대재건(1932~1941) 때 현재의 위치로 옮겨지고 2020년 인근의 오오 신사와 함께 복원되었습니다. 와케노 기요마로는 불행으로부터 보호하고 재해를 피하며 다리의 상처를 치유하는 신으로서 고오 신사에서 숭배되고 있습니다.

**<日本語仮訳>****護皇神社**

護皇神社は、宇佐神宮の東、大尾山にある末社（大きな神社の配下にある小さな神社）です。この神社では、神格化された和氣清麻呂（733-799）を祀っています。和氣清麻呂は、ある皇位継承争

いを解決する際に彼が果たした役割がよく知られている廷臣です。彼はその時、使者として宇佐神宮へ向かい、八幡神から重要な神託を受けました。

清麻呂は岡山地方の名高い官人の家に生まれました。家族の志を継いで、彼は高官になり、数代の天皇のために仕えました。称徳天皇（718-770）の治世中、道鏡（700? -772）という、影響力を持ち、天皇とも近しかった僧侶が、次の天皇に指名されようと企てました。道鏡の野心を叶えるために、道鏡の支持者は、もし道鏡が天皇の位に就けば平和な世になると、宇佐神宮の八幡神の神託があった、と報告しました。和気広虫（730～799）という、天皇に信頼された女官は、その主張を調査するために宇佐神宮に送られることになっていました。しかし、彼女は体が弱かったため、彼女の弟である清麻呂が当時の都であった奈良からの長い旅をするために選ばれました。

伝説によると、清麻呂は、当時宇佐神宮の本殿であった大尾神社で八幡神から神託を受けました。神託は、皇室の血を引く人だけが天皇の位に就くべきであるという内容であったと言われています。これは道鏡が天皇になることを防ぐのに大きな影響を与えましたが、道鏡は清麻呂に復讐をしました。清麻呂は足の臍を切断され、鹿児島に追放されました。さらに、その道中で暗殺未遂にさえ遭いました。しかし、清麻呂は生き残り、道鏡の没落後に宮廷に戻って、顧問として桓武天皇（737-806）のあつい信頼を受けました。

護皇神社は、19世紀半ば以前に、菱形池の島に創建されましたが、宇佐神宮の境内で行われた昭和の大造営（1932～1941年）の際に現在の場所へ移され、2020年に近くの大尾神社とともに修復されました。和気清麻呂は、不幸から守り、災害を避け、足の怪我を癒す神様として護皇神社で崇められています。



【タイトル】 神橋

【想定媒体】 WEB

**<韓国語>****신교 다리**

요리모강을 건너 우사 신궁으로 들어가는 모든 다리는 신사 경내로 이어지기 때문에 신교 다리(神橋, 신성한 다리)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북쪽, 신사의 큰 참배길에 놓여진 아치형의 다리는 특별히 ‘신교 다리’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다리의 측면과 난간에는 불행과 사악함으로부터의 보호를 뜻하는 밝은 주홍색이 칠해져 있으며, 측면에는 3개의 쉼표가 소용돌이 모양으로 서로 얽혀 있는 ‘미쓰도모에’ 문장 등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장은 하치만 신을 모시는 신사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우사 신궁에 칙사(천황의 사신)가 파견될 때마다 새로 설치되던 목제 임시 다리를 대신해 1910년에 처음으로 영구적인 목적에서 다리가 놓여졌습니다. 이 다리는 소박하고 꾸밈없는 크림색을 띄고 있어 ‘시로하시(白橋)’라고도 불리며 자동차로도 달릴 수 있습니다. 신궁의 큰 참배길에 있는 주홍색의 ‘신교 다리’는 쇼와의 대재건(1932~1941)이 이루어지면서 1941년에 세워졌습니다. 이 두개의 다리를 비교해 보면, 일직선으로 오토리(큰 도리)를 통해 신궁의 신성한 영역에 들어간다고 명시한 신교 다리가 종교적인 의미에서 보다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日本語仮訳>****神橋**

寄藻川を渡って宇佐神宮へ通じるすべての橋は、神社の境内に通じていることから、神橋（神聖な橋）とみなすことができます。しかし、北側にあるアーチ状の橋は、神社の表参道にあるため、特に「神橋」という名前で最もよく知られている橋です。この橋の側面と欄干は、不幸と邪悪なものから守護する明るい朱色に塗られており、側面には「三つ巴」という3つのコンマが渦巻き状に集合した紋章などの装飾があります。このような紋章は、八幡神を祀る神社でよく見られます。

かつて宇佐神宮に勅使（天皇陛下の使い）が派遣されるたびに新たに架けられた一時的な木板橋の代わりとして、1910年に初めて恒久的な橋が架けられました。この橋は、飾り気の無いクリーム色の橋なので「白橋」と呼ばれており、車で渡ることもできます。神宮の表参道にある朱色の「神橋」は昭和の大造営（1932-1941）によって、1941年に架けられました。これら2つの橋を比べると、まっすぐに大鳥居へと続き、神宮の神域に入ることを明示している神橋の方が、より宗教的な役割を果たしていることがよく分かります。

【タイトル】 御許山

【想定媒体】 WEB

**<韓国語>****오모토산과 오모토(大元) 신사**

오모토산은 히메 대신으로 총칭되는 세 여신과 하치만 신이 처음으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여겨지는 장소입니다. 히메 대신은 아주 오래 전 신이 세상을 다스리던 시대에 이 산에 나타났다고 전해지지만, 우사 신궁과 관련된 전설에 따르면 하치만 신은 이보다 훨씬 이후인 6세기에 나타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신성한 산에 세워진 오모토(大元) 신사에는 전통적으로 바다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히메 대신의 세 여신(다키쓰히메노미코토, 이치키시마히메노미코토, 다키리비메노미코토)이 모셔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사에는 정면에 배전(拜殿)이 있고 그 반대편에 제신을 모신 본전(本殿)이 자리하지만, 오모토 신사는 배전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산 자체를 본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배전 뒤쪽 숲에 있는 3개의 커다란 돌은 여신들이 머무는 신성한 성물(신체)로 모셔집니다. 그 돌은 배전에서는 보이지 않는 장소에 자리해 있는데, 신사 경내의 간판에는 만약 멋대로 출입할 경우 신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문이 적혀 있습니다.

오모토 신사는 우사 신궁의 오쿠노미야(가장 안쪽에 있는 신사)로 우사 신궁에서는 남동쪽으로 약 6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사 신궁에서 오모토 신사까지는 꽤 거리가 있기 때문에 조구(上宮, 위쪽 신사)를 둘러싸고 있는 외벽에는 저멀리 창 너머로 오모토산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특별한 창문을 뚫어 놓았습니다.

과거 우사 신궁이 신토와 불교가 융합된 신불습합의 종교 시설이었을 당시에는 오모토산의 여섯 사원이라는 뜻의 오모토로쿠보(御許六坊)도 오모토산에 있었습니다. 오모토로쿠보는 로쿠고만잔(六郷満山)으로 통칭되는 인근 구니사키 반도의 사찰들과도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로쿠고만잔 미네이리라고 하는 순례의 참가자들이 구니사키 방향으로 출발하기 전에 치르는 순례 준비 의식이 오모토 신사와 우사 신궁에서 행해집니다. 오모토로쿠보는 1868년 메이지 유신과 관련된 무력 충돌이 발생했을 때 대부분 파괴되었지만 오래된 돌담과 작은 사당, 훼손된 석상, 신성한 샘 등은 현재도 산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오모토산의 높이는 647m로 권장 출발점에서 산 정상까지 숲 사이에 난 등산로를 따라 걸으면 약 40분(편도)이 소요됩니다. 길 중간에는 바위가 많고 가파른 곳도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날씨가 나쁜 날에는 하이킹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日本語仮訳>****御許山と大元神社**

御許山は、比売大神として総称される三女神と八幡神が最初に天から降りてきた場所と言われています。比売大神は、大昔の神代にこの山に現れたとされていますが、宇佐神宮の縁起にある伝説には、八幡神はもっと後の6世紀に現れたと記録されています。

この神聖な山に立つ大元神社は、伝統的に海との関係が深い比売大神という3体の女神（多岐津姫命、市杵嶋姫命、多紀理姫命）を祀っています。一般的な神社には、正面に拝殿があり、その向こうに御祭神を祀る本殿がありますが、大元神社は拝殿のみで構成されており、山自体が本殿となっています。拝殿の後ろの森にある3つの大きな石は女神たちが宿る神聖な物体（御神体）として祀られています。その石は、拝殿から見えない場所にあり、神社の境内の看板には、立ち入った者は神の罰を受ける危険があるという警告が書かれています。

大元神社は宇佐神宮の奥宮（最も奥にある神社）とされており、宇佐神宮の南東約6kmの場所に位置しています。大元神社までは距離があるので上宮（上の社）を囲む外壁に特別な窓が設けられており、遠く窓越しに御許山に向かって祈ることができます。

かつて宇佐神宮が神道と仏教が融合した神仏習合の信仰形態であった頃、御許山には御許六坊（御許山の六つのお寺）もありました。御許六坊は、総称して六郷満山と呼ばれる近くの国東半島にある寺院と深いつながりがありました。今日でも、六郷満山峯入りという巡礼の参加者が国東の方へ出発する前に、巡礼の準備の儀式が大元神社と宇佐神宮で行われます。御許六坊は、1868年の明治維新に関連した武力衝突の際に破壊されましたが、古い石垣や小さな社、損傷のある石像、神聖な泉は今でも山に残っています。

御許山の高さは647mで、推奨されている出発地点から山頂までの森林の間の登山道は約40分（片道）かかります。道中には岩場や急勾配になっている所もあるので、天気が悪い時にはハイキングを避けた方が良いでしょう。

【タイトル】大神比義命

【想定媒体】WEB

**<韓国語>****오가노히기노미코토**

오가노 히기는 세상에 내려온 하치만 신을 처음으로 본 사람으로, 우사 신궁의 기록에 등장하는 6세기 무렵의 반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오가노 히기는 당시 일본의 수도였던 나라 근처에 있는 오미와 신사의 신관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568년 그는 긴메이 천황(509~571)의 칙명을 받고 우사 지역에서 일어난 불가사의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규슈를 방문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은 신령스러운 일에 틀림없다고 확신한 오가노 히기는 집 안에 칩거하면서 특정 음식을 끊고 몸을 정화하며 3년 동안이나 기도를 올렸습니다. 신사의 기록에 따르면 571년 드디어 그의 기도가 이루어져 영험한 고레이스이(御靈水) 샘 근처에서 그의 앞에 신이 모습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대나무 잎 위에 앉은 3살짜리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나타난 신은 나라의 수호자가 될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오가노 히기는 하치만 신을 숭배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 이후 매의 모습으로 변한 하치만 신은 708년에 야칸강 근처의 소나무로 날아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보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무례하게 떠들자 하치만 신이 분노했습니다. 격분한 하치만 신을 진정시키기 위해 오가노 히기와 한 무녀는 천일 동안 기도를 올리고 하치만 신을 위해 처음으로 다카이 신사라는 신전을 세웠습니다.

다카이 신사로 옮겨진 지 얼마 되지 않아 하치만 신은 신탁을 통해 이 장소도 길을 오가는 사람들 때문에 시끄럽다며 신전을 옮길 것을 요구했고, 716년 하치만 신은 오야마다 숲에 있는 신전으로 다시 옮겨졌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한 번 경내가 너무 좁다는 신탁이 내려지면서 결국 오구라산 정상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725년에 신을 모시는 신전이 오구라산에 세워졌고, 이 신전은 곧 우사 신궁이라 불리는 거대한 신사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하치만 신앙의 변영에 기여한 오가노 히기는 말사(큰 신사에 소속된 작은 신사)의 신과 비슷한 취급을 받는 오가노히기노미코토로서 우사 신궁의 계구(下宮, 아래쪽 신사)에 모셔져 있습니다.

**<日本語仮訳>****大神比義命**

大神比義は、八幡神を最初に見た人として宇佐神宮の記録に登場する6世紀の半伝説的な人物です。大神比義は、当時の日本の首都だった奈良の近くにあった大神神社の神職の家に生まれたと言われてい

ます。568年、欽明天皇（509–571）の勅命により、宇佐地域での不思議な出来事について調査報告をするため、九州の宇佐を訪れました。

説明のつかない出来事は神聖なものであると確信し、大神比義は3年にわたって籠居し、特定の食べ物を断って身を清め、祈りを捧げました。神社の記録によると571年に、その祈りに応じて、御霊水の近くで、神様が彼の前に現れました。その神様は、笹の葉の上に3歳の子どもとして現れ、国の守護者になる意向を宣言しました。このようにして、大神比義は八幡神を崇拝する最初の人となりました。

伝説によれば八幡神はその後、鷹に姿を変え、708年に駅館川のほとりの松の木に飛んで来たと言われています。しかし、その姿を見に集まった人々が無礼に騒ぎ立てたため、八幡神は怒りました。怒った八幡神を静めるために、大神比義とある巫女が千日間祈り、八幡神のために初めて鷹居神社という名の社殿を建てました。

鷹居神社へ移ってから間もなく、八幡神はこの場所は通行人が騒がしいため社殿を移すと託宣を下し、716年に八幡神は小山田の森へ社殿を移しました。ところが今度は、ここは境内が狭すぎると八幡神が託宣を下したため、最終的に、小椋山の頂上へ移りました。725年に御殿が小椋山に建てられ、やがて宇佐神宮と呼ばれる大きな神社へと発展していきました。

八幡信仰が栄えたことへの貢献を称えて、大神比義は大神比義命として、末社（大きな神社の配下にある小さな神社）の神様のような扱いで宇佐神宮の下宮（下の社）に祀られています。

【タイトル】 弥勒寺跡

【想定媒体】 WEB

**<韓国語>****미로쿠지(彌勒寺, 미륵사) 절터**

수세기 동안 우사 신궁 경내에 서 있던 미로쿠지(彌勒寺, 미륵사) 절의 흔적은 구레하시 다리와 야사카 신사 사이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신사와 사찰이 융합된 종교 시설이었던 우사 신궁에서 오랫동안 가장 중요한 사찰로 여겨졌던 미로쿠지 절은 황실과 귀족, 그리고 무사 가문의 지원을 받으며 매우 강력한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미로쿠지 절은 광대한 쇼엔(莊園, 사찰이 직접 영유하거나 지배하는 땅)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영향력은 규슈뿐만 아니라 일본 전국에 미칠 정도였습니다. 역사적 기록과 지도를 살펴보면 미로쿠지 절의 경내는 현재의 서쪽 참배길 양쪽으로 펼쳐지고 사당, 탑, 슈쿠보(宿坊, 승려나 참배자를 위한 숙박시설) 등 수십 채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금당(본당)에는 약과 치유의 부처인 약사여래가, 강당에는 먼 미래에 나타날 다음 세상의 부처인 미륵보살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우사 신궁 내에서 가장 중요한 사찰**

미로쿠지 절의 전신은 미로쿠젠인(彌勒禪院, 미륵선원)이라 불리는 사원으로, 725년 우사 신궁 최초의 신전이 오구라산에 지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은 738년에 오구라산과 요리모강 사이의 평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곧 미로쿠지 절은 신궁사(신사와 밀접하게 연결된 사원으로 보통 그 신사의 경내 또는 신사의 주변부에 위치함)의 가장 초기 예 중 하나로 발전했습니다. 이렇게 우사 신궁은 8세기경까지 신토와 불교가 융합된 신앙 형태(신불습합)를 반영한 종교 시설이 되었습니다. 미로쿠지 절은 우사 신궁에서 열리는 의식 등에 승려를 파견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신불습합의 대표적인 사찰로 발전했고 그에 따른 강력한 권력 또한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11세기 무렵 우사 신궁과 함께 규슈 지역 최대의 장원 영주가 된 미로쿠지 절은 독자적으로 소유한 광대한 쇼엔을 바탕으로 조금씩 우사 신궁에서 독립해 나갔지만, 제례(신토의 의식)와 법요(불교의 의식) 등을 통해 우사 신궁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이어나갔습니다.

**미로쿠지 절의 권력 상실과 종말**

12세기에 헤이시(다이랴 가문)와 겐지(미나모토 가문) 사이에 치열한 권력 투쟁이 벌어지자, 우사 신궁의 공사는 헤이시에 가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로쿠지 절은 우사 신궁과 함께 1184년 불에 타 파괴되었고 1년 뒤인 1185년에는 헤이시가 패배했습니다. 그 후 미로쿠지 절을 포함한 우사 신궁은 다시 재건되었지만, 미로쿠지 절의 권력은 이미 쇠퇴하기 시작한 후였습니다. 미로쿠지 절이 소유했던 땅이 점점 사라지고 경내에 있던 건물의 수도 점차 줄어들자, 19세기 중반에 이르러서는 더이상 재건을 시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1868년에는 메이지 정부가 신불판연령(神佛判然令)을 내리면서 1871년까지 모든 불교 건축물 등이 우사 신궁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과거 미로쿠지 절의 경내에 해당하던 자리는 현재 우사 신궁의 사무소와 칙사 재판, 그리고 아름다운 정원이 대신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로쿠지 절의 과거 영광을 떠올릴 수 있는 것이라고는 초석 하나만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미로쿠지 절의 가장 귀중한 불상은 안전하게 보존되었습니다. 현재 미륵불좌상은 인근의 고쿠라쿠지

절(極樂寺)에, 약사여래좌상은 강 건너편에 있는 다이젠지 절(大善寺)에 각각 안치되어 있습니다.

005-039

---

### <日本語仮訳>

#### 弥勒寺跡

何世紀にもわたって、宇佐神宮境内には弥勒寺という寺院が建てられていましたが、その跡地は呉橋と八坂神社の間に現在も見ることができます。長きにわたって弥勒寺は、神社と寺院が融合した宗教施設であった宇佐神宮の中の重要なお寺であり、皇室や貴族、そして武士の一族の支援を享受し、非常に強い政治的・経済的な権力を持っていました。

弥勒寺は広大な荘園（自らが領有・支配する土地）を有し、その影響力は九州だけでなく全国に及んでいました。記録や地図によると、弥勒寺の境内は、現在の西参道の両側に広がり、お堂、塔、宿坊などの数十の建物で構成されていました。金堂（本堂）には薬と癒しの仏である薬師如来が祀られており、講堂には次の仏として遠い未来にこの世に現れるとされている弥勒菩薩を祀っていました。

#### 宇佐神宮内の最も主要な寺院

弥勒寺の前身は弥勒禅院というお寺で、宇佐神宮の最初の御殿が725年に小椋山に建てられたすぐ後の738年に、小椋山と寄藻川の間の平野に移されました。ほどなくして弥勒寺は、神宮寺（神社と密接につながり、通常はその神社の境内または神社の近くにある寺院）の最も初期の例の1つへと発展しました。これにより宇佐神宮は、8世紀頃までには神道と仏教が融合した信仰形態(神仏習合)を反映した宗教施設となりました。弥勒寺は宇佐神宮での儀式などに僧侶を派遣する役割を担いながら、神仏習合の代表的な寺院として発展し強大な権力を持つようになります。11世紀には、宇佐神宮と共に九州最大の荘園領主となった弥勒寺は、独自に広大な荘園を所有したことにより、次第に宇佐神宮から独立していきますが、祭礼（神道での儀式）や法要（仏教での儀式）などをとおして、宇佐神宮と密接な関係はより深まって行きました。

#### 弥勒寺の権力の喪失と終焉

12世紀の平氏と源氏による権力闘争が繰り広げられましたが、宇佐神宮の宮司は平氏側につくことを選びました。この闘争の中、弥勒寺は宇佐神宮とともに1184年に焼き払われ、そして一年後、1185年に平氏が敗北しました。その後、弥勒寺を含む宇佐神宮は再建されましたが、弥勒寺の権力は衰え始めました。弥勒寺は所有する土地を徐々に失い、境内の建物の数は減少し、19世紀半ば頃になると、もはや修復されなくなっていました。1868年に明治政府は神仏判然令を発令し、1871年までにすべての仏教の建造物などが宇佐神宮から排除されました。かつての弥勒寺の境内には現在、宇佐神宮の事務所、勅使斎館、美しい庭園があり、弥勒寺の過去の栄光を思い出させるものとしては礎石だけが残っています。しかし、弥勒寺の最も貴重な仏像は保存されており、現在、弥勒仏坐像は近くの極樂寺に、薬師如来坐像は川の向こう側の大善寺にそれぞれ安置されています。

地域番号 006

協議会名

青島を中心とする宮崎神話多言語解説整備協議会

## 解説文一覧

NO.	スポット名 (タイトル)	韓国語文字数	媒体
006-001	日南海岸国定公園 国指定特別天然記念物 青島 - 青島亜熱帯性植物群落 (青島西端看板)	449	アプリ QRコード
006-002	日南海岸国定公園 国指定特別天然記念物 青島 - 青島の隆起海床と奇形波蝕痕(鬼の洗濯 板) (青島西端看板)	329	アプリ QRコード
006-003	青島神社 - 青島神社 神社御由緒(看板)	721	看板
006-004	青島神社 - 青島神社 産霊紙漙(看板)	510	看板
006-005	青島神社 - 青島神社 ビロ-樹(看板)	888	看板
006-006	青島神社 - 青島神社 元宮(看板)	438	看板
006-007	青島神社 - 青島神社 御成道(看板)	471	看板
006-008	青島神社 - 青島神社 手水の儀・手水の作法 (看板)	338	看板
006-009	青島神社 - 青島神社 投瓦所・天のひらか投げ (看板)	467	看板
006-010	青島神社 - 青島神社 宮崎の神話看板	946	アプリ QRコード



006-011	青島神社 - 青島神社 日向神話誰でも分かる解説集（神社の由縁、祭りの説明、青島の紹介など）	1137	パンフレット
006-012	青島神社 - 青島神社 日向神話誰でも分かる解説集（神話館の場面解説）	2933	パンフレット
006-013	阿波岐原地域 江田神社 - 江田神社 宮崎の神話看板	669	アプリ QRコード
006-014	阿波岐原地域 江田神社 - 江田神社 由緒記木板	635	看板
006-015	阿波岐原地域 禊池 - 禊池 池北側説明木板	607	看板
006-016	阿波岐原地域 住吉神社 - 住吉神社 御由緒(看板)	491	看板
006-017	日南海岸国定公園 国指定名勝鵜戸 鵜戸神宮 - 鵜戸神宮 鵜戸神宮由緒(看板)	835	看板
006-018	日南海岸国定公園 国指定名勝鵜戸 鵜戸神宮 - 鵜戸神宮 運玉（説明板）	342	看板
006-019	日南海岸国定公園 国指定名勝鵜戸 鵜戸神宮 - 鵜戸神宮 九柱神社御祭神（看板）	451	看板
006-020	日南海岸国定公園 国指定名勝鵜戸	516	看板

	鵜戸神宮 - 鵜戸神宮 御霊石(看板)		
006-021	日南海岸国定公園 国指定名勝鵜戸 鵜戸神宮 - 鵜戸神宮 神橋(説明木板)	441	看板
006-022	日南海岸国定公園 国指定名勝鵜戸 鵜戸神宮 - 鵜戸神宮 兔の像(説明板)	184	看板
006-023	日南海岸国定公園 国指定名勝鵜戸 鵜戸神宮 - 鵜戸神宮 撫でうさぎ(看板)	294	看板
006-024	日南海岸国定公園 国指定名勝鵜戸 鵜戸神宮 - 鵜戸神宮 福注連縄(説明板)	282	看板
006-025	日南海岸国定公園 国指定名勝鵜戸 鵜戸神宮 - 鵜戸神宮 鵜戸神宮の奇岩 (説明板)	447	看板
006-026	日南海岸国定公園 国指定名勝鵜戸 鵜戸神宮 - 鵜戸神宮 おちち水 (表示板・説明板)	271	看板
006-027	日南海岸国定公園 国指定名勝鵜戸 鵜戸神宮 - 鵜戸神宮 お乳岩 (説明看板)	321	看板

006-028	日南海岸国定公園 国指定名勝鵜戸 鵜戸神宮 - 鵜戸神宮 鵜戸山八丁坂(説明板)	223	看板
006-029	日南海岸国定公園 国指定名勝鵜戸 鵜戸神宮 - 鵜戸神宮 吾平山上陵 (説明木板)	436	看板
006-030	日南海岸国定公園 国指定名勝鵜戸 鵜戸神宮 - 鵜戸神宮 不動窟・波切神社	410	看板
006-031	日南海岸国定公園 国指定名勝鵜戸 鵜戸神宮 - 国指定名勝鵜戸 (解説看板)	572	看板
006-032	潮嶽神社 - 潮嶽神社 由緒書 (パンフレット)	652	看板
006-033	駒宮神社 - 駒宮神社 由緒石板	525	アプリ QRコード
006-034	駒宮神社 - 駒宮神社 御銚の窟跡 パワースポット説明看板	333	看板
006-035	駒宮神社 - 駒宮神社 駒宮の陰陽石と銭石 パワースポット説明看板	374	看板
006-036	駒宮神社 - 駒宮神社 日向シャンシャン馬 発祥の地説明石板	559	アプリ QRコード
006-037	吾平津神社 (乙姫神社) - 吾平津神社 御由緒説明板	484	看板

006-038	吾田神社 - 吾田神社 御由緒書き看板	336	看板
006-039	祇園神社 - 祇園神社 御由緒説明板	365	看板
006-040	古事記上巻 高天原神話 - 「オノコロ島」	290	WEB
006-041	古事記上巻 高天原神話 - 「二神の結婚」	509	WEB
006-042	古事記上巻 高天原神話 - 「国生み」	401	WEB
006-043	古事記上巻 高天原神話 - 「神生みとイザナギの神遊り」	268	WEB
006-044	古事記上巻 日向神話 - 「火の神を斬る」	273	WEB
006-045	古事記上巻 日向神話 - 「黄泉の国」	644	WEB
006-046	古事記上巻 日向神話 - 「禊ぎ」	586	WEB
006-047	古事記上巻 日向神話 - 「木花佐久夜毘売」	594	WEB
006-048	古事記上巻 日向神話 - 「海佐知と山佐知」	1074	WEB
006-049	古事記上巻 日向神話 - 「鵜葺草葺不合命の誕生」	527	WEB
006-050	古事記上巻 日向神話 - 「鵜葺草葺不合命の系譜」	375	WEB

006-001

青島を中心とする宮崎神話多言語解説整備協議会

【タイトル】 日南海岸国定公園 国指定特別天然記念物

青島 - 青島亜熱帯性植物群落(青島西端看板)

【想定媒体】 アプリ QRコード

---

### <韓国語>

#### 1. 아오시마섬의 아열대 식물

아오시마섬에는 독특한 식생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북쪽에서 자생하는 희귀한 열대 및 아열대 식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식물들이 아오시마섬에서 자생하는 이유는 동중국해에서 유입되는 구로시오 난류가 아오시마섬을 지나 일본 태평양 연안을 따라 세토 내해 방면의 북동쪽으로 흘러들어 기후가 온난하여 연간 강수량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오시마섬에서 자생하는 226 종의 식물 중 27 종은 열대 또는 아열대 식물로서 일본 천연기념물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비로야자(*Livistona chinensis*)는 아오시마섬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로야자는 수 세기에 걸쳐 아오시마섬을 대표하는 존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약 5,000 그루가 자생하는 비로야자 중에는 수령이 최대 350 년이나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오시마섬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식물로는 독을 품은 알로카시아(*Alocasia odora*), 석산의 일종인 문주란(*Crinum asiaticum*), 다정큼나무(*Rhaphiolepis umbellata*) 등이 있습니다.

006-001

---

### <日本語訳>

#### 1. 青島の亜熱帯の植物

青島には独特の植生が育っています。それには、北で育つのが稀な熱帯や亜熱帯の植物も含まれます。こうした植物がこの島で育つのは、東シナ海から暖流の黒潮が青島を通過して日本の太平洋側に沿って瀬戸内海に向かって北東に流れていくため、気候が温暖で年間降雨量が多いからです。この島に育つ 226 種の植物のうち、27 種は熱帯または亜熱帯の植物で、日本の天然記念物に指定されています。その中でも最も多く見られるのはビロウ (*Livistona chinensis*) で、青島のいたるところに生えています。ビロウは何世紀にもわたって、この島の代名詞的存在になっています。5,000 本ほど生えているビロウの中には、最大で樹齢が 350 年のものまであります。その他、この島に生える特筆すべき植物には、毒のあるクワズイモ (*Alocasia odora*)、彼岸花の 1 種浜木綿 (*Crinum asiaticum*)、車輪梅 (*Rhaphiolepis umbellata*) などがあります。

006-002

青島を中心とする宮崎神話多言語解説整備協議会

【タイトル】 日南海岸国定公園 国指定特別天然記念物

青島 - 青島の隆起海床と奇形波蝕痕(鬼の洗濯板) (青島西端看板)

【想定媒体】 アプリ QRコード

---

<韓国語>

2. 아오시마섬 주변의 기암군(‘도깨비의 빨래판’)

아오시마섬을 둘러싸듯 바다로 뻗어 있는 모양의 기암군은 ‘도깨비의 빨래판’으로도 불립니다. 멀리서 보면 커다란 빨래판처럼 보인다고 하여 붙여진 별명입니다. 기암군은 2,400 만 년 전부터 200 만 년 전에 걸쳐 해저에서 모래와 진흙이 교차로 축적되면서 생성되었습니다. 충상을 이루는 암반이 지각의 변동과 융기로 인해 조금씩 기울어진 상태에서 육지가 되었습니다. 이 암반이 과도에 씻겨나가면서 부드러운 이암층이 더욱 단단한 사암층보다 빠르게 침식되었고 암반에는 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미야자키의 해안에서는 아오시마섬에서 남쪽 방향의 도사키하나곶을 지나 긴차쿠섬까지 8km 에 이르는 기암군의 풍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오시마섬의 ‘도깨비의 빨래판’은 일본 천연기념물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006-002

---

<日本語仮訳>

2. 青島周辺の奇岩群 (「鬼の洗濯板」)

青島を取り囲むように海に向かって広がっている奇岩群は、「鬼の洗濯板」と呼ばれています。遠くから見ると大きな洗濯板のように見えるためです。この奇岩群は、2,400 万年前から 200 万年前にかけて海底に砂と泥が交互に蓄積したことで生まれました。層状になった岩盤が地殻の変動や隆起で少し傾いた状態で陸地になりました。この岩盤が波に洗われるうちに、柔らかい泥岩の層がより硬い砂岩の層より速く侵食され、岩盤に筋が生まれました。この奇岩群は、青島から南に向かって戸崎鼻岬を通り過ぎて巾着島まで、8 キロメートルにわたって宮崎の海岸で見ることができます。青島の「鬼の洗濯板」は日本の天然記念物に指定されています。

## 【タイトル】 青島神社 - 青島神社

神社御由緒(看板)

【想定媒体】 看板

-----  
<韓国語>

## 3. 아오시마 신사의 역사

아오시마섬은 예로부터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당시에는 섬 전체가 신이 머무는 장소로서 신앙의 중심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섬에 다리가 놓이기 훨씬 전부터 사람들은 간조가 되면 섬으로 걸어 들어가 바다에서 몸을 깨끗이 한 후 의식을 치렀습니다. 신사가 이곳에 위치했던 시기를 나타내는 가장 오래된 기록은 헤이안 시대(794-1185)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에도 시대(1603-1867)에는 오비번(지금의 미야자키현 남부 연안 지역)의 다이묘(영주)였던 이토 가문의 비호 아래, 아오시마 신사는 세력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1737년에는 당시 신사의 신관과 고관 외에는 신사 경내의 출입을 금지했던 규율이 철폐되었습니다.

아오시마 신사는 8 세기에 저술된 것으로 알려진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 『고사기(古事記)』에 등장하는 야마사치비코와 도요타마히메의 전설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전설은 사냥의 달인이었던 야마사치비코와 해신의 딸인 도요타마히메의 사랑을 다룬 창세 신화 중 하나로 천황 가문의 선조가 신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마사치비코와 도요타마히메는 바닷가에서 만났습니다. 그곳은 아오시마섬의 민간전승에 따르면 ‘오리가 겨울을 나기 위해 찾아오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윽고 두 사람은 아이를 가지게 되지만, 결국에는 영원한 이별로 끝을 맺게 됩니다. 이는 전설 속에서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는 인간의 세계와 신들의 세계가 분단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아오시마 신사에서는 야마사치비코, 도요타마, 그리고 전설 속 두 사람에게 만남을 계기를 제공하는 신인 시오쓰치노카미를 모시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오시마 신사를 가모쓰쿠미야(오리가 쉬어가는 신사)라고 불렀습니다. 야마사치비코와 도요타마히메에 관한 이야기는 아오시마 신사의 신화관에서 더욱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  
<日本語仮訳>

## 3. 青島神社の歴史

青島は古代から神聖な場所と考えられてきました。当時は、島自体が神の住まう場として信仰を集めていたと考えられています。島への橋がかけられる遥か前から、人々は干潮時に歩いて島に渡り、海で身を清めてから儀式を行っていました。この場所に神社が存在したことを示す最古の記録は、平安時代（794-1185）に遡ります。江戸時代（1603-1867）には、飢肥藩（現在の宮崎県南部の海岸沿いの地域）の大名であつ

た伊藤家の庇護を受け、青島神社は勢力を拡大しました。1737年には、それまで神社の神主と高官以外による神社の境内への立ち入りを禁じていた規則が撤廃されました。

青島神社は、8世紀に書かれたと言われている日本最古の歴史書である『古事記』に登場する山佐知毘古と豊玉姫の伝説と密接に結びついています。この伝説は、狩りの達人である山佐知毘古と海の神の娘である豊玉姫の恋が語られる創世神話の1つで、天皇家の祖先が神であることを説明しています。山佐知毘古と豊玉姫は海辺で出会いました。その場所は、青島の民間伝承では「鴨が冬を越すためにやってくる場所」と言われています。2人は子供を授かるのですが、最終的には永遠に離れ離れになりました。これは、この伝説の中で死すべき人々の世界と神々の世界の分離を表す重要な契機となっています。山佐知毘古、豊玉、そしてこの伝説の中で2人が出会うきっかけとなった塩椎神は、青島神社で祀られています。青島神社は以前は鴨就宮（鴨が休む神社）と呼ばれていました。山佐知毘古と豊玉姫の話は、青島神社の神話館でより詳細に学ぶことができます。



006-004

青島を中心とする宮崎神話多言語解説整備協議会

【タイトル】 青島神社 - 青島神社

産霊紙紵(看板)

【想定媒体】 看板

---

<韓国語>

4. 아오시마 신사: 신성한 지승(紙繩)

끈이나 줄을 묶어 어떤 일의 매듭이나 결속의 상징으로 여기는 사고방식은 일본의 신화와 종교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매듭은 일본의 독자적인 종교인 신도(神道)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사고방식으로서 하늘과 땅, 그리고 만물을 연결 짓는 것으로 생각했기에 생명 그 자체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또한 매듭은 연애의 상징으로, 끈은 사람과 사람의 연결을 가리킵니다. 일본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8 세기에 편찬된 와카집인 『만엽집(萬葉集)』에는 끈의 매듭을 사랑의 상징으로 노래하는 작품이 다수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매듭에 생명과 사랑을 비유하는 사고방식은 현대 일본 문화의 언어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적어도 에도 시대(1603-1867)부터 지승을 신성한 건조물이나 나무에 묶은 다음 이 같은 사고 방식에 따라 건강, 악귀로부터 수호, 연애운 등을 빌게 되었습니다. 아오시마 신사에서는 원하는 지승을 구매하여 나무나 줄에 묶어 소원을 빌 수 있습니다. 총 5 가지 색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파란색은 건강, 초록색은 일과 학업, 노란색은 사업 번창, 빨간색은 연애, 순산, 자녀, 부부 화목, 흰색은 다른 색상에 포함되지 않는 소원에 저마다 효험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승은 1 개 100 엔이며 신사에 기부됩니다.

006-004

---

<日本語仮訳>

4. 青島神社：神聖な紙紵

紐や繩を結びつけて結び目や結束を象徴化するという考え方は、日本の神話や宗教では重要な役割を担っています。日本独自の宗教である神道では、最も基礎となる考え方として、こうした結び目は天、地、そして万物を結びつけるものとみなされているため、生命自体に密接に関連づけられています。また結び目は、恋愛の象徴でもあり、紐が人と人との繋がりを指し示しています。現存する日本最古の和歌集である 8 世紀の『万葉集』には、紐の結び目を愛の象徴として詠う作品が多く収められています。このように結び目に生命と愛を見出す考え方は、現代の日本の文化や言語にも残っており、少なくとも江戸時代（1603-1867）からは紙紵を神聖な建造物または木に結びつけて、こうした考え方に基づいて、健康、悪霊からの保護、そして恋愛運などを求めて祈るようになりました。青島神社では、希望する紙紵を購入して木か繩に結びつけて願い事をする事ができます。全部で 5 つの色があり、青は健康、緑は仕事・学業、黄色は商売繁盛、赤は、恋愛・安産・子供・

夫婦円満、白はいずれにも分類できない願い事にそれぞれご利益があると言われていました。紙漉は 1 本 100 円で、神社への寄付となります。

## 【タイトル】 青島神社 - 青島神社

ピロ-樹(看板)

【想定媒体】 看板

## &lt;韓国語&gt;

## 5. 아오시마 신사: 식생

아오시마섬의 대부분은 아열대 숲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비로야자(*Livistona chinensis*)는 아오시마섬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로야자는 수 세기에 걸쳐 아오시마섬을 대표하는 존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약 5,000 그루가 자생하는 비로야자 중에는 수령이 최대 350 년이나 되는 것도 있습니다. 비로야자는 최대 15m 까지 자라며 봄이 되면 흰색이나 노란색의 작은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늦가을에 무르익은 파란 열매가 땅으로 떨어집니다. 부채꼴 모양의 잎사귀는 헤이안 시대(794-1185)에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아오시마섬의 비로야자 잎사귀는 교토의 궁중에 헌납되었으며 우차(牛車)에 탄 귀족이나 고관을 비바람으로부터 막아주는 덮개 역할을 했습니다. 아오시마섬에서 볼 수 있는 비로야자를 미야자키현 본토에서 볼 수 없는 이유는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에 관한 두 가지 가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씨앗이나 줄기가 일본 태평양 연안에서 북동쪽으로 흐르는 구로시오 난류를 따라 남쪽에서 섬으로 흘러들었다는 설입니다. 두 번째로 비로야자는 아오시마섬의 토착종으로 지금보다 훨씬 온난한 기후였던 수백만 년 전부터 살아남은 것이 현재에 이른다는 설입니다.

아오시마섬에서 자생하는 기타 225 종의 식물 중 독특한 종으로는 독을 품은 알로카시아(*Alocasia odora*), 여름에 꽃을 피우는 하얀 석산의 일종인 문주란(*Crinum asiaticum*), 다정큼나무(*Rhaphiolepis umbellata*) 등이 있습니다. 작은 관목인 다정큼나무는 예로부터 끓여서 염료를 제작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당오동(*Clerodendrum japonicum*), 후추등(*Piper kadsura*), 그리고 후박나무(*Machilus thunbergii*) 등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오동은 통상 약 2m 높이까지 자라는 관목으로 초여름부터 초가을에 걸쳐 진한 빨간색의 꽃을 피웁니다. 후추등은 일본에서는 보기 드문 후추과 식물로 늦여름이 되면 주황색 열매를 맺습니다. 후박나무는 월계수의 일종인 상록활엽수로 30m 까지 자라기도 하며 후박나무보다 수령이 낮은 비로야자 숲에서는 유독 눈에 떨 정도로 우뚝 솟아 있습니다.

## &lt;日本語仮訳&gt;

## 5. 青島神社 : 植生

青島はほとんど亜熱帯の森で覆われています。最も多く見られる木は常緑のピロウ (*Livistona chinensis*) で、青島のいたるところに生えています。ピロウは何世紀にもわたって、この島の代名詞的存在になっています。5,000 本ほど生えているピロウの中には、最大で樹齡が 350 年のものまであります。ピロウは最

大 15メートルの高さまで育ち、春には白または黄色の小さな花を咲かせます。そして緑の実が晩秋に熟して地面に落ちます。扇型の葉は、平安時代（794–1185）に重宝されました。青島のビロウの葉は、京都の宮中に納められて、牛車に乗っている貴族や高官を風雨から守る覆いとして使われていました。どうして青島にはビロウが育つのに宮崎県の本土には育たないのかは、完全に解明されてい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が、これに関しては2つの仮説が提唱されています。1つは、種または幹が日本の太平洋岸に沿って北東に流れる黒潮に乗って南から島に流れ着いたという説です。もう1つは、ビロウは青島の土着種で、この地域の気候が現在よりずっと温暖だった数百万年前から生き残ってきたという説です。

青島に生えるその他 225 種の植物のうち特筆すべき種には、毒のあるクワズイモ（*Alocasia odora*）、夏に花を咲かせる白い彼岸花の1種浜木綿（*Crinum asiaticum*）、車輪梅（*Rhaphiolepis umbellata*）などがあります。車輪梅は小さな低木で、昔から煮出して染料を作るのに使われてきました。そのほか、ヒギリ（*Clerodendrum japonicum*）やフウトウカズラ（*Piper kadsura*）、それにタブノキ（*Machilus thunbergii*）なども見ることができます。ヒギリは通常約 2メートルの高さの低木で、初夏から初秋にかけて鮮赤色の花を咲かせます。フウトウカズラは日本では珍しいコショウ科の植物で晩夏に橙色の実をつけます。タブノキは月桂樹の1種の常緑広葉樹で、高さは 30メートルになることもあり、タブノキより若いビロウの森の中でひときわ高くそびえ立ちます。

006-006

青島を中心とする宮崎神話多言語解説整備協議会

【タイトル】 青島神社 - 青島神社

元宮(看板)

【想定媒体】 看板

---

<韓国語>

6. 아오시마 신사: 모토미야

모토미야(본래의 신사)는 예로부터 숭배와 제사의 장소로 여겨졌던 아오시마섬의 정중앙에 조성되었습니다. 모토미야의 지하에서는 야요이 시대(300 BCE-300 CE)에 종교적인 의식에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토기와 뼈, 조개껍질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 이곳 아오시마섬에 처음으로 신성한 건물이 들어선 것은 1,000 년 이상 전이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에도 시대(1603-1867)에는 신앙심이 깊었던 사람들이 이곳에서 질병으로부터 지켜줄 것을 기원하며 신앙심에 대한 증거로 머리카락 다발을 두고 갔습니다. 이러한 전통이 변화된 모습으로 오늘날에 전해지면서 참배자들은 신성한 지승을 신사와 가까운 나무나 줄에 묶어 소원을 빌게 되었습니다. 1907 년에는 당시 요시히토 황태자(훗날의 다이쇼 천황, 1879-1926)가 이곳을 방문하면서 주목을 받게 되었고, 그 후로 여러 왕족들이 모토미야를 찾아 참배를 올렸습니다. 과거에는 신도(神道)의 신관과 황족만이 출입할 수 있었으나, 1960 년대 말에 들어 일반인도 신사에 출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006-006

---

<日本語仮訳>

6. 青島神社 : 元宮

元宮(元々の神社)は青島の真ん中、古代から崇拝と祭祀の場となってきたところに立っています。この地下からは、弥生時代(300 BCE-300 CE)に宗教的儀式で使われた可能性が高い土器、骨、貝殻などの遺物が出土しています。ここに青島で最初の神聖な建物が建てられたのは、1,000年以上前のことであると考えられています。江戸時代(1603-1867)には、信仰心の篤い人々がここで病気からの保護を求めて祈り、しばしばその信仰心の印として髪の毛の束を残していきました。この伝統が形を変えて今に伝わり、参拝者は神聖な紙縵を神社の近くの木や縄に結びつけて願い事をするようになっています。1907年には当時の皇太子嘉仁(大正天皇、1879-1926)がこの神社に来られたことで注目が高まり、その後多くの皇族方が元宮に来られて祈られています。かつては神道の神主と皇族方しか立ち入れませんでしたが、1960年代末に一般の人でも神社に入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

006-007

青島を中心とする宮崎神話多言語解説整備協議会

【タイトル】 青島神社 - 青島神社

御成道(看板)

【想定媒体】 看板

---

<韓国語>

7. 아오시마 신사: 오나리미치

아오시마 신사의 주요 샤덴군(신체를 모시는 건물군)과 본래 성역이었던 모토미야를 연결하는 60m에 이르는 길은 오나리미치(귀인들이 통행하는 길)라고 불렸습니다. 이 길은 1907년에 황태자 요시히토(훗날의 다이쇼 천황, 1879-1926)가 아오시마 신사를 방문할 때 정비되어 천황과 황족들만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이었으나, 1960년대 말엽 이후 문을 개방하면서 참배객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나리미치를 걸었던 유명한 황족으로는 1920년에 황태자로서 방문하여 아오시마섬까지 최초로 현대적인 다리를 건설한 계기가 된 히로히토(훗날의 쇼와 천황, 1901-1989), 1962년에 왕세자로서 신사에서 참배를 올린 아키히토(현 상황, 1933-), 그리고 전후 최초의 일본 총리였던 히가시쿠니노미야 나루히코(1887-1990)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황족들의 발자취를 좇아 방문하는 사람들은 문을 지나 에마(소원을 적어 신사나 절에 봉납하는 목판)가 걸려 있는 ‘기도의 고도(古道)’를 걷게 됩니다. 여기부터 오나리미치는 정글처럼 무성하게 자란 비로야자 숲속으로 길이 이어지며 모토미야에 다다르게 됩니다.

006-007

---

<日本語仮訳>

7. 青島神社：御成道

青島神社の主要な社殿群と元々の聖域があった元宮との間を結ぶ 60メートルの道は、御成道（貴人が通行するための道）と呼ばれています。この道は 1907 年に皇太子嘉仁（大正天皇、1879-1926）が青島神社を訪問する際に整備され、天皇と皇族方のみが通ることのできる道でしたが、1960 年代末以降に門が開かれ、参拝客も通行できるようになりました。御成道を歩いた著名な皇族方には、1920 年に皇太子として訪問したことで青島まで初の現代的な橋を架けるきっかけとなった裕仁（昭和天皇、1901-1989）、1962 年に皇太子として神社で祈りをささげた明仁（現上皇、1933-）、そして戦後初の日本の首相であった東久邇宮稔彦（1887-1990）などがいます。このような皇族方のご足跡を追って今日訪れる人々は、門をくぐって絵馬（願いごとを書いて神社やお寺に納める木製の板）がかけられた「祈りの古道」を歩いていきます。そこから道はビロウの木が生えるジャングルのような森の中へと続き、元宮に向かいます。

## 【タイトル】 青島神社 - 青島神社

手水の儀・手水の作法(看板)

【想定媒体】 看板

-----  
<韓国語>

## 8. 아오시마 신사: 정화

신사에 들어갈 때는 신이 머무는 건물인 혼덴으로 이동하기 앞서 몸을 깨끗이 하는 의식을 치러야 합니다. 이 같은 예법은 신들에게 가까이 가기 전에 심신의 부정함을 씻어내기 위함입니다. 데미즈야라고 불리는 손과 입을 씻는 정화의 장소에 놓인 수반과 국자를 이용해서 몸을 상징하는 손과 영혼을 상징하는 입을 행귀 줍니다.

## 정화 방법

1. 수반에 가까이 가기 전에 가볍게 목례를 합니다.
2. 국자로 수반에 담긴 물을 뜬 후 왼손에 물을 살짝 부어 적셔 줍니다.
3. 국자를 왼손에 바꿔 들고 오른손에 물을 살짝 부어 적셔 줍니다.
4. 다시 오른손으로 바꿔 들고 왼쪽 손바닥에 물을 살짝 덜어 입을 행굽니다.
5. 다시 한번 왼손을 행굽니다.
6. 국자를 수직으로 들어 올려 다른 사람을 위해 남은 물로 손잡이 부분을 씻고 수반쪽에 올려둡니다.
7. 데미즈야에서 나오기 전에 가볍게 목례를 합니다.

-----  
<日本語仮訳>

## 8. 青島神社 : お清め

神社に入る際には、本殿の方に進む前に自身を清める儀式を行わなければなりません。これは、神々に近づく前に、不浄なものを体からも魂からも洗い流すために行われます。手水舎と呼ばれているお清めの場所には水盆があり、柄杓が置いてあるので、体の象徴である手を洗い、魂の象徴である口をゆすぎましょう。

## お清めの方法

1. 水盆に近づく前に軽くお辞儀をしましょう。
2. 柄杓に水盆からの水を取り、左手に水の一部をかけましょう。
3. 柄杓を左手に持ち替えて、右手に水の一部をかけましょう。

4. 再度右手に持ち替えて、左手に水の一部をすくい、口をゆすぎましょう。
5. 再度左手をすすぎましょう。
6. 柄杓を垂直に持ち上げて、次の人のために残りの水で取っ手を洗い、水盆のところに返しましょう。
7. 手水舎を離れる前に軽くお辞儀をしましょう。



006-009

青島を中心とする宮崎神話多言語解説整備協議会

【タイトル】 青島神社 - 青島神社

投瓦所・天のひらか投げ(看板)

【想定媒体】 看板

---

<韓国語>

9. 아오시마 신사: 아마노히라카

히라카는 질그릇의 일종으로 일본에서는 야요이 시대(300 BCE-300 CE)부터 종교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720년에 편찬된 일본 역사서인 『일본서기(日本書紀)』에서는 신화 속 초대 천황인 진무 천황이 언급한 말 중에 히라카가 등장합니다. 진무 천황은 히라카를 점술 도구라고 칭하며 히라카를 사용하는 신앙심이 깊은 사람에게 소원을 들어주기 전에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할 것을 장려했습니다. 히라카는 나라 시대(710-794)의 궁중에서 점술 도구로 사용되었으며 이와 비슷한 점토 그릇을 신들에게 음식을 바칠 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모토미야에서는 고대 의식에서 사용되었던 그릇이 대량으로 발굴되기도 하였는데, 참배객은 지역 점토로 만든 히라카를 신사 옆 성역의 울타리 너머로 던져 운세를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히라카를 던질 때는 던질 방향으로 두 번 목례를 한 다음 빌고 싶은 내용을 떠올리면서 던져 봅시다. 히라카가 성역에 제대로 착지했다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고, 히라카가 착지한 순간에 깨진다면 행운이 찾아오고 악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용하실 때는 히라카 1장당 200엔을 신사에 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006-009

---

<日本語仮訳>

9. 青島神社 : 天の平瓮

平瓮は素焼きの皿の1種で、日本では弥生時代(300 BCE-300 CE)から宗教的目的に使われてきました。720年に編纂された日本の歴史書である『日本書紀』では、神話上の初代天皇である神武天皇が語ったとされる言葉の中にこの平瓮が現れます。神武天皇は平瓮は占いの道具であるとし、平瓮を使う信仰心のあつい人に対し、願いごとを唱える前に心身を清めるよう奨励しています。平瓮は奈良時代(710-794)には宮中で占いに使われ、またこれに似た粘土の皿は神々に食べ物を供える時にも使われました。元宮では古代の儀式で使われた皿が大量に発掘されており、参拝者は地元の粘土で作られた平瓮を神社の隣にある聖域に柵越しに投げることで運勢を試すことができます。平瓮を投げる時は、投げる方向に2回お辞儀をし、お願いしたいことを思い浮かべてから投げましょう。平瓮が聖域に着地したら願いが叶い、平瓮が着地した瞬間に割れたら幸運と悪霊からの保護が得られると言われてしています。平瓮1枚ごとに神社に200円の寄付をお願いします。

【タイトル】 青島神社 - 青島神社

宮崎の神話看板

【想定媒体】 アプリ QRコード

## &lt;韓国語&gt;

## 10. 아오시마섬과 신화

일본 신화에는 천지창조 신화에 이어 아마테라스오미카미가 손자인 니니기를 하늘에서 불러와 천하를 다스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 같은 이야기는 신의 혈통으로 알려진 천황 가문의 계보를 확립한다는 의미를 지녔으며, 이후 니니기는 고노하나사쿠야히메와 결혼하여 3명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중에는 사냥의 명인으로 불렸던 야마사치비코와 고기잡이의 달인이었던 우미사치히코 형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야마사치비코는 두 사람의 도구를 바꿔서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야마사치비코는 형의 낚시바늘로 낚시를 떠났고, 우미사치히코는 사냥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야마사치비코는 형에게 빌렸던 낚시바늘을 잃어버렸는데, 아무리 찾아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형은 빌려준 낚시바늘을 돌려내라고 야마사치비코를 추궁했습니다. 풀이 죽어 있던 야마사치비코에게 시오쓰치라는 노인이 찾아와 해신인 와타쓰미의 궁전을 찾아가라고 말했습니다.

야마사치비코는 집을 나와 노인에게 들었던 대로 와타쓰미의 궁전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해신의 딸인 도요타마히메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두 사람은 사랑에 빠져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혼은 바다와 육지의 결합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와타쓰미의 궁전에서 거주하다 결국 형의 낚시바늘을 발견한 야마사치비코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야마사치비코는 상어를 타고 육지로 올라가 집을 나오게 된 원인이었던 형제간의 대립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야마사치비코와 도요타마히메 사이에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들은 훗날 신화 속 초대 천황인 진무 천황의 아버지가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아오시마 신사는 야마사치비코, 도요타마히메, 시오쓰치를 신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매년 성년의 날에 치러지는 하다카마이리는 야마사치비코가 해신의 궁전에서 돌아왔을 때, 상어에 탄 야마사치비코가 돌아온 모습에 군중이 크게 기뻐하며 맞이했다고 전해지는 광경을 재현한 행사입니다. 살바와 비슷한 훈도시 차림의 참가자가 차가운 바다로 뛰어들어 몸을 정화하는 의식을 치룹니다. 또한, 지역의 전승에 따르면 아오시마섬은 야마사치비코와 도요타마히메가 처음으로 만난 장소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이 만난 장소를 ‘오리가 겨울을 나는 장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오시마 신사의 옛 명칭 중 하나인 ‘가모쓰쿠미야(‘오리가 쉬어가는 신사’라는 뜻)는 여기에서 유래되었습니다.

## &lt;日本語仮訳&gt;

## 10. 青島と神話

日本神話には、天地創造神話に続いて、天照大神が孫のニギギを天から降ろして天下を治めるという物語があります。この一連の物語は神から繋がることされる天皇家の系譜を確立するもので、ニギギは木花咲弥姫と結婚し、3人の子供を産みます。その中には、狩猟の名人となった山幸彦と漁の達人となった海幸彦の兄弟がいます。ある日、山幸彦は2人の道具を交換してお互いの仕事を知らうと提案します。山幸彦は兄の釣り針で釣りに出かけ、海幸彦は狩りに挑戦します。ですが、山幸彦は借りていた釣り針をなくしてしまい、どんなに探しても見つかりません。しかし、兄は元の釣り針を返せと迫ります。落ち込む山幸彦に塩椎という老人が訪ねてきて、海の神である綿津見の宮殿を探せと言います。

山幸彦は家を出て言われた通りに行動し、綿津見の宮殿で海神の娘・豊玉姫と出会います。2人は恋に落ち、結婚します。この結婚は海と陸の結びつきを象徴しています。ですが、3年間綿津見の宮殿で過ごした末に、ついに兄の釣り針を見つけることができた山幸彦は、故郷に帰ることを選びます。山幸彦は鮫に乗って岸まで行き、家出の原因となった兄弟間の対立に決着をつけます。山幸彦と豊玉姫の間には息子が生まれますが、この息子は後に神話上の初代天皇である神武天皇の父となります。

青島神社は、山幸彦、豊玉姫、塩椎を神格化して祀っています。毎年成人の日に行われる裸参りは、山幸彦が海神の宮殿から帰ってきたときに、鮫に乗った山幸彦の上陸を群衆が大喜びで迎えたと言われる光景を再現するものです。サツパに似たふんどし姿の参加者は、冷たい波の中に駆け込んで身を清める儀式を行います。また、地域の伝承では青島は山幸彦と豊玉姫が初めて目を合わせた場所とされており、地域の伝承では、この彼らの出会いの場は「鴨が冬を越す場所」と表現されています。これが青島神社の古名の1つである「鴨就宮」（「鴨が休む神社」の意）の由来となっています。

## 【タイトル】 青島神社 - 青島神社

日向神話誰でも分かる解説集 (神社の由縁、祭りの説明、青島の紹介など)

【想定媒体】パンフレット

## &lt;韓国語&gt;

## 11. 아오시마 신사

## 역사

예로부터 신성한 섬으로 여겨졌던 아오시마섬은 신이 머무는 장소로 많은 사람들의 숭배를 받았습니다. 아오시마섬에 처음으로 종교 시설이 지어진 것은 헤이안 시대(794-1185)였습니다. 이후 에도 시대(1603-1867)에 들어서면서 오비번(지금의 미야자키현 남부 연안 지역)의 다이묘(영주)가 신체를 모시는 건물인 사텐의 유지 및 확장을 담당하면서 지금과 같은 모습에 이르렀습니다. 1737년에는 당시 신관이나 고관 외에는 출입할 수 없었던 아오시마섬의 신성한 물가의 출입 금지가 해제되었습니다.

## 신들

아오시마 신사에는 야마사치비코와 도요타마히메, 시오쓰치 세 명의 신이 모셔져 있습니다. 야마사치비코와 도요타마히메의 사랑 이야기는 일본 신화와 역사를 기록한 8세기의 역사서인 고사기(古事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냥의 명인이었던 야마사치비코와 해신의 딸인 도요타마히메는 전설 속 초대 천황인 진무 천황의 조부모입니다. 신화 속 시오쓰치는 훗날 부부의 연을 맺는 야마사치비코와 도요타마히메가 만나는 계기로 등장합니다.

## 축제

아오시마 신사에서는 연중 내내 축제가 개최됩니다. 봄 축제(시마비라키 축제), 여름 축제, 가을 예대제, 겨울 축제가 치러지며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립니다. 여름 축제는 역병, 병충해, 풍수해와 같은 모든 재앙을 막고 안녕을 기원하는 행사로 음력 6월 17일과 18일(양력으로 7월 중순부터 8월 초 사이)에 치러집니다. 미코시 가마(신을 태운 가마)를 올린 선박을 선두에 배치한 선단이 섬을 한 바퀴 항해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축제가 끝날 무렵에는 젊고 건강한 참가자들이 미코시 가마를 짊어지고 육지에 올라옵니다.

겨울 축제는 1월 둘째 주 월요일에 치러지며 야마사치비코의 신화 중에서 일부 장면을 재현합니다. 도요타마히메의 아버지인 해신의 궁전에서 만난 도요타마히메와 야마사치비코는 3년 동안 궁전에서 생활하지만, 결국 야마사치비코는 상어의 등에 올라 고향인 육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육지에 도착한 야마사치비코는 환회에 찬 군중의 환대를 받는데, 이때 마중나왔던 마을 사람들이 제대로 옷을 입을 새도 없이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서둘러 뛰쳐나왔다는 전설을 본떠 살바와 비슷한 훈도시 차림의 참가자들이 차가운 파도 속을 뛰어들어 신을 향한 인사의 의미로 몸을 정화하는 의식을 치릅니다.

## 섬

아오시마섬은 둘레 약 1.5km의 섬으로 대부분이 정글 같은 숲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섬에는 226종의 식물이 서식하고 있지만, 그중 27종은 열대 및 아열대 식물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야자수인 비로자야는 예로부터 섬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아오시마섬은 기묘한 모양의 바위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 모습을 멀리서 보면 거대한 빨래판으로 보인다고 하여 ‘도깨비의 빨래판’으로 불립니다. 수백만 년 전, 지각 변동과 육지 융기로 인해 해저에서 올라온 암석은 파도 침식으로 인해 지금과 같은 이랑 모양으로 형성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006-011

---

## <日本語仮訳>

### 11. 青島神社

#### 歴史

古代より神聖な島である青島は、神の住まいとして崇拝されてきました。青島に初めて宗教施設が建てられたのは、平安時代（794～1185年）のことでした。その後、江戸時代（1603～1867年）になると、飢肥藩（現在の宮崎県南部沿岸地域）の大名が社殿の維持・拡張を担当するようになり、現在の形になりました。1737年には、それまで神職や高官以外には禁止されていた島の神聖な岸辺への立ち入りが解禁されました。

#### 神々

青島神社は、山幸彦・豊玉姫・塩椎の三柱の神を祀っています。山幸彦と豊玉姫の恋物語は、日本の神話と歴史を記した8世紀の歴史書である古事記に記されています。狩猟の名人である山幸彦と海神の娘である豊玉姫は、伝説上の初代天皇である神武天皇の祖父母です。物語の中では、塩椎が、のちに夫婦となる山幸彦と豊玉姫を出会わせました。

#### 祭り

青島神社では、年間を通して祭りが開催されます。春祭り（島開き祭）、夏祭り、秋の例大祭、冬祭りが開かれ、多くの人で賑わいます。夏祭りは、疫病、病虫害、風水害などあらゆる災難を防ぎ、安寧を祈願して行われるもので、旧暦の6月17日、18日（現在の7月中旬から8月上旬の間）に行われます。神輿（神様を乗せた輿）を積んだ船を先頭とする船団が島を一回り航行する様子は実に壮観です。祭りの最後には、若くて元気な参加者たちが神輿を担いで上陸します。

冬祭りは、1月の第2月曜日に行われ、山幸彦の神話の一場面が再現されます。豊玉姫の父である海神の宮殿にて豊玉姫と山幸彦が出会い、2人は3年間宮殿で暮らしますが、やがて山幸彦は鯨の背に乗って故郷である陸へと帰っていきます。到着した山幸彦は大喜びの群衆に迎えられましたが、その際、村の人々が正式な装束をまとう暇もなく裸で取り急ぎ出迎えたという伝説に倣い、サツパに似たふんどし姿の参加者が冷たい波の中に駆け込み、神への挨拶の意味を込めて身を清めます。

## 島

青島は周囲約 1.5km の島で、ほとんどがジャングルのような森に覆われています。島には 226 種の植物がありますが、そのうち 27 種は熱帯・亜熱帯の植物です。その中でも最も一般的なのはビロウというヤシの木で、古くから島と密接に関わってきました。青島は奇妙な形をした岩に囲まれており、この岩は、遠くから見ると巨大な洗濯板に似ているため、「鬼の洗濯板」と呼ばれています。これらの岩石は、数百万年前に地殻変動や陸地の隆起によって海から出てきたものが、波の浸食によって現在のような畝状になったといわれています。

## 【タイトル】 青島神社 - 青島神社

日向神話誰でも分かる解説集 (神話館の場面解説)

【想定媒体】 パンフレット

## &lt;韓国語&gt;

## 12. 아오시마 신사: 휴가 신화관

일본 신화에 따르면 창조 신화와 더불어 아마테라스오미카미가 손자를 하늘에서 불러와 천하를 다스렸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아오시마 신사의 '휴가 신화관'에서는 천황 가문의 가보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는 휴가 신화에서 12 가지 장면을 밀랍 인형으로 재현했습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휴가국(지금의 미야자키현)입니다. 8 세기 일본의 수도였던 나라에서 신화가 기록된 당시, 도읍에서 먼 남동쪽에 면하고 있던 휴가는 떠오르는 태양, 나아가 신들의 영역과 가장 가까운 장소로 여겨졌다는 이유에서 신화의 배경으로서 이곳이 선택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태양과의 연관성은 지명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에도 시대(1603-1867) 이전의 지역 구분인 '국(國)' 중에서 '태양'을 의미하는 '日'이라는 한자가 들어간 것은 휴가(日向)가 유일했습니다.

## 장면 1

신들이 머무는 나라였던 다카마노하라에서 신도(神道)의 신들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태양신인 아마테라스오미카미가 손자인 니니기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마테라스오미카미는 니니기에게 지상으로 내려가 인간들을 다스릴 것을 명하며 일본의 주식(主食)이자 번영을 상징하는 벼 이삭을 건넸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던 3 명의 신들도 니니기에게 검, 거울, 보석으로 이루어진 3 개의 신성한 보물을 선물했습니다. 신의 지배를 의미하는 니니기의 선물들은 전설에 따라 천황 가문에 대대로 이어지며 지금의 황실에서도 소중한 보물로서 모시고 있습니다.

## 장면 2

하늘에서 내려온 니니기는 산신인 오야마쓰미의 딸인 고노하나사쿠야와 만나 결혼을 제안했습니다. 오야마쓰미는 결혼에 동의하면서도 고노하나사쿠야뿐만 아니라 언니인 이와나가와도 결혼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니니기는 고노하나사쿠야만을 선택하고 아름답지 않은 이와나가는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오야마쓰미는 니니기가 두 딸과 결혼했다면 영원한 행복을 손에 넣었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결국 이와나가를 거부했던 니니기는 불로불사의 삶을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니니기의 이 같은 치명적인 선택은 살아 있는 신이었던 일본의 천황이 보통의 인간과 똑같이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노하나사쿠야는 곧장 세쌍둥이를 잉태하지만, 니니기는 자신의 아이라는 것을 부정했습니다. 고노하나사쿠야는 신의 아이라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상처 하나 없이 탄생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자신의 떳떳함을 증명하고자 오두막에 틀어박혀 직접 불을 질렀습니다. 이 이야기는 고대 해역에 위치한 아시아 국가들에서 행해진 의식으로 장소를 정화하고 순산을 기원하며 출산에 이용하는 건물 주변에 불을 밝히는 전통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 장면 3

고노하나사쿠야와 니니기 사이에서 태어난 세 아이는 전부 남자아이였습니다. 그중에는 사냥의 달인으로 성장한 야마사치비코와 고기잡이의 명인이 된 우미사치히코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야마사치비코는 두 사람의 도구를 바꿔 서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야마사치비코는 형의 낚싯바늘로 낚시를 떠났고, 우미사치히코는 사냥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마사치비코는 빌렸던 낚싯바늘을 잃어버렸고, 아무리 찾아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야마사치비코는 칼을 부러뜨려 새 낚싯바늘을 몇 개나 만들어서 건넸지만, 우미사치히코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 장면 4

절망한 야마사치비코에게 시오쓰치라는 노인이 찾아와 배를 타고 해신인 와타쓰미의 궁전에서 형의 낚싯바늘을 찾으라고 조언합니다.

#### 장면 5

해신인 와타쓰미의 궁전에 도착한 야마사치비코는 우물 옆에 있는 나무에 올랐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와타쓰미의 딸인 도요타마히메를 모시는 궁녀가 우물 물을 뜨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궁녀는 야마사치비코가 있는 것을 알아채고 도요타마에게 야마사치비코를 소개했습니다. 이윽고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와타쓰미는 야마사치비코의 혈통이 신성하다는 이유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신화에서는 야마사치비코가 올라간 나무를 ‘향기롭다’고 표현하는데, 이는 침향나무나 백단향처럼 고대 아시아에서는 향이나 약효가 뛰어나다고 알려진 나무를 가리킵니다. 또한, 도요타마를 모시는 궁녀가 가지고 있던 물병은 8세기 당시의 일본인에게는 세계 최고의 권력자였던 중국의 황제가 사용했던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세부적인 묘사는 고귀한 신들의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 장면 6

야마사치비코는 와타쓰미의 궁전에서 성대한 연회에 초대되었습니다. 야마사치비코는 훗날 두 사람을 환대하는 무용수의 뒤에 앉아있던 도요타마와 결혼하여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 장면 7

와타쓰미의 궁전에서 3년이란 세월을 보냈던 야마사치비코에게는 무언가 걱정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야마사치비코는 잃어버린 형의 낚싯바늘을 찾기 위해 바다로 왔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도요타마는 아버지에게 낚싯바늘을 찾아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 장면 8

해신인 와타쓰미는 야마사치비코의 낚싯바늘을 찾기 위해 바닷속 물고기들에게 궁전으로 모이도록 명했습니다. 입을 다쳤다는 도미를 제외하고 모든 물고기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도미가 입을 다친 이유가 낚싯바늘에 걸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안 와타쓰미는 도미를 가까이 불러들였습니다.

#### 장면 9

잃어버린 형의 낚싯바늘을 찾은 야마사치비코는 상어를 타고 육지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야마사치비코가 떠나기 전, 도요타마는 ‘곧 아이가 태어날 테니 출산을 위해 오두막을 지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작별의 인사로 와타쓰미는 야마사치비코에게 해수를 조종할 수 있는 한 쌍의 보주를 선물했습니다.

#### 장면 10



야마사치비코는 낚시바늘을 우미사치히코에게 돌려주려고 하지만, 우미사치히코는 이를 거절하며 야마사치비코를 위협했습니다. 이에 야마사치비코는 해신에게 받았던 보주를 사용하여 해수를 불러들이고, 우미사치히코가 물에 빠질듯한 상황에 처하자 결국에는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 장면 11

야마사치비코는 부인을 위해 오두막을 짓기 시작했지만, 채 완성되기도 전에 진통이 엄습해 왔습니다. 오두막에 있던 도요타마는 야마사치비코에게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나를 보지 말아 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야마사치비코는 끝내 참지 못하고 해신의 딸인 도요타마가 거대한 상어로 변한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정체를 들켜버린 도요타마는 갓 태어난 아기를 남겨두고 슬피하며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아기였던 우가야후키아에즈는 도요타마의 동생인 다마요리의 손에서 자라지만, 훗날 우가야후키아에즈와 다마요리는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도요타마가 아기에게 이별을 고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바닥에 있는 검은 깃털은 야마사치비코가 제시간까지 완성하지 못했던 오두막의 지붕을 만들기 위해 사용된 것입니다. 검은 깃털은 순산에 좋은 기운을 가져다준다는 가마우지의 깃털입니다. 고대 일본에서 행해졌던 가마우지잡이는 목에 끈을 묶은 가마우지가 생선을 삼키면 어부가 삼킨 생선을 뱉어내도록 훈련합니다. 생선을 곧장 뱉어내는 가마우지의 습성에서 순산의 상징이 되었으며, 출산을 앞둔 여성의 곁에는 가마우지의 깃털을 두는 풍습이 생겨났습니다. 도요타마의 오두막 지붕 전체를 가마우지 깃털로 만들었다는 것은 신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 장면 12

우가야후키아에즈와 부인인 다마요리 사이에는 4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성장한 형제들은 막내의 주도로 일본 전국을 제패하고자 길을 떠나는데, 여기서는 길을 떠나는 모습이 재현되어 있습니다. 휴가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며 수많은 적들과 싸웠던 일행은 지금의 나라현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막내가 국가를 세우며 자신을 진무 천황이라고 선언하였고, 훗날 일본의 첫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006-012

---

### <日本語仮訳>

#### 12. 青島神社：日向神話館

日本神話では、創造神話に続き、天照大神が孫を天から降ろして天下を治めたという伝説があります。青島神社の「日向神話館」では、天皇家の系譜を物語る日向神話から 12 の場面を蠟人形で表現しています。

物語の舞台は日向国（現在の宮崎県）です。8 世紀当時に首都であった奈良にて神話が記された際には、都から遠く、南東に面した日向は、昇る太陽、ひいては神々の領域に最も近い場所とされていたため、舞台としてこの地が選ばれたのでしょう。この太陽との結びつきは地名にも表れています。江戸時代（1603-1867）以前に存在した地域区分「国」のうち、日向が唯一「太陽」を示す「日」の字が入った国名でした。

#### 場面 1

神々が住まう国であった高天原で、神道の神々の中で最も偉大な太陽神・天照大神が、孫のニギハハヒの前に立ちはだかります。天照大神はニギハハヒに地上に降りて人々を支配するように命じ、日本の主食であり繁栄の象徴でもある稲穂を渡します。座っていた3人の神々はニギハハヒに剣、鏡、宝玉という3つの神聖な宝物を贈ります。これらの品々は神の支配を意味し、伝説に基づいて、天皇から天皇へと受け継がれ、現在の皇室でも宝物として扱われています。

## 場面 2

天から降りたニギハハヒは、山の神である大山津見の娘、木花咲弥と出会い、結婚を申し込みます。大山津見はこれに同意しますが、木花咲弥だけでなく姉の石長とも結婚するという条件を出します。しかし、ニギハハヒは木花咲弥だけを選び、美しくない石長を拒絶します。大山津見は、2人の娘と結婚すればニギハハヒは永遠の幸せを手に入れることができたと明かしますが、石長を拒否したことで、ニギハハヒは不老不死でなくなってしまう。ニギハハヒの致命的な選択は、生ける神とされた日本の天皇が、普通の人間と同じように死な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を示しています。

木花咲弥はすぐに3つ子を妊娠しますが、ニギハハヒは自分の子供だと認めることを拒否します。木花咲弥は、神の子供はどんなことがあっても無傷で生まれてくると確信して、自分の正しさを証明するために、小屋に閉じこもり、自ら火を放ちます。この物語は、古代の海域アジア全体で行われていた、その場を浄め、安産を願って、出産に使う建物の周りに火を灯すという伝統を参考にしています。

## 場面 3

木花咲弥とニギハハヒの3人の子供は全員男の子です。その中には、狩猟の達人に成長した山幸彦と漁の名人になった海幸彦がいます。ある日、山幸彦は道具を交換してお互いの仕事を知らせようという提案をします。山幸彦は兄の釣り針で釣りに出かけ、海幸彦は狩りに挑戦します。しかし、山幸彦は借りていた釣り針をなくしてしまい、どんなに探しても見つかることができません。山幸彦は刀を折って新しい釣り針を何本も作りますが、海幸彦は受け取ることを拒否します。

## 場面 4

絶望した山幸彦のもとに塩椎という老人が訪ねてきて、船に乗り込み、海の神である綿津見の宮殿で兄の釣り針を探すように言います。

## 場面 5

海の神である綿津見の宮殿に到着した山幸彦は、井戸のそばの木に登ります。そこへ綿津見の娘である豊玉姫に仕える女官が井戸の水を汲みに来ます。彼女は山幸彦に気づき、豊玉に山幸彦を紹介しました。そして、2人は恋に落ちます。綿津見は、山幸彦の血統が神聖なので、2人の関係を認めます。

神話では、山幸彦が登った木を「芳しい」と表現していますが、これは沈香や白檀など、古代アジアでは香りや薬効が高く評価されていた木を指しています。また、豊玉に仕える女官が持っていた水差しは、8世紀の日本人にとって世界一の権力者であった中国の皇帝が使っていたものと同様のものです。このような細部は、神々の世界の素晴らしさを伝えるためのものでした。

#### 場面 6

山幸彦は、綿津見の宮殿の盛大な宴に招かれます。山幸彦はのちに、2人をもてなすための踊り子の後ろに座っていた豊玉と結婚し、2人は幸せに暮らします。

#### 場面 7

綿津見の宮殿で3年間を過ごした山幸彦は、何かを心配しているように見えます。山幸彦は、なくした兄の釣り針を見つけ出すために海に出たことを思い出していたのです。豊玉は父に搜索を手伝ってほしいと頼みます。

#### 場面 8

海の神である綿津見は、山幸彦が探している釣り針が見つかるように、海中の魚たちに対し宮殿に集まるように命じます。口を痛めたという鯛を除いて、すべての魚が集まってきました。その怪我は釣り針が引っかったことによるものだとわかったので、綿津見は鯛を呼び寄せます。

#### 場面 9

なくした兄の釣り針を取り戻した山幸彦は、鯨に乗って岸に戻ることにしました。山幸彦が離れる前に、豊玉は「もうすぐ子供が生まれるから、お産のための小屋を建ててくれ」と言います。饞別として、綿津見は山幸彦に潮を操る一对の宝珠を贈ります。

#### 場面 10

山幸彦は釣り針を海幸彦に返そうとしますが、海幸彦は受け取ることを拒否し、山幸彦を脅します。そこで、山幸彦は海の神から授かった宝珠を使って潮を呼び込み、海幸彦は溺れそうになりますが、ついに屈服します。

#### 場面 11

山幸彦は妻のために小屋を建て始めますが、完成前に妻が陣痛に襲われます。小屋の中に入った豊玉は、山幸彦に「子供が生まれるまで私のことを見ないでくれ」と懇願します。しかし、山幸彦は我慢できず、海の神の娘である豊玉が巨大な鮫に変身した姿を見てしまいます。正体を知られてしまった豊玉は、生まれたばかりの赤ん坊を残して悲しみに暮れながら海へと帰っていきます。子供のウガヤフキアエズは、豊玉の妹である玉依に育てられますが、ウガヤフキアエズと玉依は後に結婚します。

この場面では、豊玉が子供に別れを告げる姿が描かれています。地面の黒い羽は、山幸彦が時間までに完成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小屋の屋根を作るために使ったものです。これは、安産の縁起物とされていた鶺鴒の羽です。古代日本で行われていた鶺鴒飼漁では、のどを紐で縛られた鶺鴒が、魚を飲み込んだ後、その魚を吐き出すように漁師が訓練をします。魚を素早く吐き出すことから鶺鴒は安産の象徴になり、お産をする女性の近くに鶺鴒の羽を置くようになりました。豊玉の小屋の屋根全体がこの羽で作られていたことは、神の栄光を象徴しています。

## 場面 12

ウガヤフキアエズと妻の玉依には 4 人の息子がいます。成長した兄弟たちは末っ子に率いられて日本全国制覇の旅に出ますが、この場面ではその様子が描かれています。日向から東進し、多くの敵と戦いながら、現在の奈良県にたどり着きます。そこで末っ子が国を建て、自らを神武天皇であると宣言して、日本の最初の統治者となります。

【タイトル】 阿波岐原地域 江田神社 - 江田神社

宮崎の神話看板

【想定媒体】 アプリ QRコード

## &lt;韓国語&gt;

## 13. 에다 신사: 발계(祓禊)의 신화

일본의 창조 신화는 이자나기와 이자나미라는 남매신을 중심으로 이 두 사람이 부부의 연을 맺으면서 일본 열도에 수많은 섬들과 그곳에서 머무는 다양한 신들이 탄생했다고 전합니다. 이자나미는 불의 신을 낳으면서 죽음을 맞이하는데, 이에 슬픔을 견딜 수 없었던 이자나기는 죽은 자의 세계에서 이자나미를 되찾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자나기가 이자나미를 찾아가자, ‘죽은 자의 세계에서 만든 음식을 먹어버렸으니 산 자의 세계로는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죽은 자의 세계에 있는 신들의 공격에서 도망친 이자나기는 거대한 바위로 두 세계 사이를 오가는 통로를 봉인하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의 세계에서 옮겨온 부정을 씻어내고자 필사적이었던 이자나기는 옷을 벗고 물에 몸을 담그며 부정을 없앴습니다. 그 결과 신도의 3대 신이라고 불리는 태양신의 아마테라스, 달의 신이자 밤의 주인인 쓰쿠요미, 그리고 바다와 폭풍의 신인 스사노오 등 다양한 신들이 탄생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인 고사기(古事記)에는 이자나기가 발계 의식을 수행한 장소를 휴가(지금의 미야자키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8세기 당시 일본의 수도였던 나라에서 최초로 창조 신화가 편찬된 시기에 도읍에서 먼 남동쪽에 면하고 있던 휴가는 떠오르는 태양, 나아가 신들의 영역과 가장 가까운 장소로 여겨졌다는 이유에서 휴가가 선택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자나기는 상록수가 우거지고 평야가 펼쳐지는 강어귀에서 발계 의식을 행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현실 세계에 있는 특정 장소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곳으로서 훗날 휴가의 여러 장소와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자나기와 이자나미를 모시는 에다 신사 주변 또한 그중 하나입니다.

## &lt;日本語仮訳&gt;

## 13. 江田神社 : 禊の神話

日本の創造神話はイザナギとイザナミという兄と妹の神を中心としていますが、2人が結ばれたことによって、日本列島の島々とそこに住まうさまざまな神々が生まれました。イザナミは火の神を産む際に亡くなり、悲しみに耐えかねたイザナギはイザナミを死者の国から呼び戻そうとします。しかし、イザナギが妹のもとへ行くと、イザナミは「死者の国で作った食べ物を食べてしまったから、生者の世界には戻れない」と言います。イザナギは死者の国の神々に追われながら逃げ出し、巨大な岩で2つの世界の間の通路を封印します。

死者の国の汚れを洗い流そうと必死になったイザナギは、服を脱ぎ捨て、水に身を浸して体を清めます。この清めの結果、神道の三大神と呼ばれる太陽神の天照、月の神であり夜の主であるツクヨミ、そして海と嵐の神であるスサノオなど、さまざまな神が誕生します。

日本最古の歴史書である古事記には、イザナギが禊を行った場所は日向（現在の宮崎県）であったと記されています。8世紀に、当時の首都であった奈良にて初めて創造神話が編纂された際には、都から遠く、南東に面した日向は、昇る太陽、ひいては神々の領域に最も近い場所とされていたため、日向が選ばれたのでしょう。イザナギは、常緑樹が生い茂り、平原が続く河口で禊を行ったとされています。この場所は、現実世界の特定の場所ではなく、永遠の命を象徴する場所でしたが、後に日向の様々な場所と結びついていきました。イザナギとイザナミを祀る江田神社周辺もその1つです。

006-014

青島を中心とする宮崎神話多言語解説整備協議会

【タイトル】 阿波岐原地域 江田神社 - 江田神社

由緒記木板

【想定媒体】 看板

---

### <韓国語>

#### 14. 에다 신사의 역사

에다 신사는 미야자키현에서는 가장 오래된 종교 시설 중 하나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9 세기에 관련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다 집락촌은 나라 시대(710-794)부터 11 세기에 걸쳐 휴가국(지금의 미야자키현)에 존재했던 총 16 곳의 역참 중 하나를 운영했던 곳이었습니다. 이들 역참은 수도(최초의 수도는 나라, 그다음이 교토)와 지방을 연결하는 공공 도로를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된 정부 시설이었습니다. 역참에는 교육을 받은 관리가 상주하며 행정의 거점이자 문화 교류의 시설로서 기능했습니다. 에다 신사는 본래 에다의 역참 부지에 지어졌던 건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 신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창조신인 이자나기와 이자나미를 모시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유래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나라 시대의 관리들은 이 시기에 처음으로 문서화된 일본 건국 신화를 기록한 공인 역사서(일본서기)를 의무적으로 배워야 했는데, 이러한 이유로 에다의 역참에 근무했던 관리가 지역 신사의 신격(神格) 선정에 영향을 끼쳤다고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에다 역참의 중요성은 12 세기에 들어 중앙집권국가의 영향력이 저하되면서 쇠퇴했지만, 에다 신사는 지역 주민들에 의해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에다 신사는 1662 년에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커다란 피해를 입고 본래 있던 장소에서 이설되었습니다. 에다 신사가 다시 주목을 받게 된 시기는 1868 년 메이지 유신 이후입니다. 메이지 천황(1852-1912)의 신정부는 신도(神道)를 국교로 제도화하고 에다 신사와 같은 토착 신화와 깊은 인연이 있는 장소를 참배하고 정비할 것을 장려했습니다.

006-014

---

### <日本語仮訳>

#### 14. 江田神社の歴史

江田神社は、宮崎県で最も古い宗教施設の1つで、9世紀にまで遡る記録が残っています。奈良時代(710~794年)から11世紀にかけて、江田集落は日向国(現在の宮崎県)に16ヶ所あった宿駅のうちの1つを運営していました。これらの宿駅は、首都(初めは奈良、次に京都)と地方をつなぐ公道に沿って一定の間隔で設置された政府の施設でした。宿駅には教育を受けた役人が常駐し、行政の拠点として、また文化交流の拠点として機能していました。江田神社は、もともとは江田の宿駅の敷地内に建てられたと考えられています。日本神話で重要な役割を持つイザナギとイザナミという創造神を祀っているのは、これが理由かもしれません。奈良時代の役人は、この時期に初めて文書化された、日本の建国神話を記した公認の歴史書(日

本書紀)を学ぶことを義務付けられていましたが、江田の宿駅の役人が地域の神社の神格選定に影響を与えていたのかもしれませんが。江田の宿駅の重要性は、12世紀に入り、中央集権国家の影響力が低下していく中で衰退していきますが、江田神社は地域の人々によって維持されていました。江田神社は1662年の地震で大きな被害を受け、元の場所から移築されています。この神社が再び注目されるようになったのは、1868年の明治維新後のことです。明治天皇（1852～1912年）の新政府は、神道を国教として制度化し、江田神社のように土着神話にゆかりのある場所の参拝と整備を奨励しました。



【タイトル】 阿波岐原地域 禊池 - 禊池

池北側説明木板

【想定媒体】 看板

---

**<韓国語>****15. 미소기 연못**

정화(미소기)는 신도(神道)의 중심적인 의식으로 참배하기 앞서 심신을 정화하기 위해 행해졌으며, 신사 입구에서 손과 입을 씻는 의식을 치러야 합니다. 이러한 풍습은 남매였던 이자나기와 이자나미 두 신이 일본 열도의 다양한 섬들과 그곳에 머물고 있는 신들을 창조했다는 일본 건국 신화에서 유래합니다. 여동생인 이자나미는 임무 완료되기도 전에 목숨을 잃었으며 오빠인 이자나기가 여동생을 죽은 자의 세계에서 되찾아오려고 하지만, 이에 실패하면서 산 자의 세계에 돌아왔을 때 물에 몸을 담가 죽은 자의 세계에서 옮겨온 부정을 씻어내렸습니다. 정화 의식을 통해 신도에서 말하는 다양한 신들이 탄생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3 명의 신이 바로 태양의 여신인 아마테라스, 달의 신이자 밤의 주인인 쓰쿠요미, 그리고 바다와 폭풍의 신인 스사노오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인 고사기(古事記)에는 이자나기가 정화 의식을 수행한 장소를 휴가(지금의 미야자키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8 세기 당시의 수도였던 나라에서 일본 신화가 최초로 편찬된 시기에 휴가를 신화의 배경으로 삼았던 이유는, 나라에서 먼 지역이자 남동쪽에 면해 있다는 이유에서 떠오르는 태양, 나아가 신들의 영역과 가장 가까운 장소였다고 생각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자나기는 상록식물이 푸르게 자란 평야에 면해 있는 강어귀에서 부정을 씻어내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현실 세계에 있는 특정 장소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장소로, 훗날 이곳 미야자키시의 ‘미소기 연못’ 등 휴가의 여러 장소와 깊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

**<日本語仮訳>****15. 미소기池**

浄め(みそぎ)は神道の中心的儀式で、参拝の前に心身を浄めるために行われ、神社では、入り口で手や口を洗って行われます。この慣習は、兄と妹であるイザナギとイザナミという神が日本列島の島々とそこに住む神々を創造するという、日本の国生み神話に由来します。妹のイザナミは任務が完了する前に亡くなり、兄のイザナギは妹を死者の国から連れ戻そうとしますが、失敗し、生きている者たちの世界に戻る際、水に身を浸して死者の国の汚れを洗い落とします。この浄めにより、神道で祀られるさまざまな神々が生まれますが、中でも最も

重要な三神に、太陽の女神であるアマテラス、月の神、すなわち夜の主であるツクヨミ、そして、海と嵐の神であるスサノオがいます。

最古の文献である古事記の中で、イザナギが浄めを行った場所は、日向（現在の宮崎県）であったとされています。8世紀に、当時の首都だった奈良で日本の神話が最初に編纂された際に、日向を舞台として選んだのはおそらく、奈良から遠方であり、南東に面しているため、昇ってくる太陽に、ひいては神々の領域に最も近い場所と見なされたためでしょう。イザナギは、常緑植物が育つ緑豊かな平野に面した河口で浄めを行ったとされています。この場所は現実世界の特定の場所ではなく、永遠の命を象徴していましたが、後にここ宮崎市の「みそぎ池」など、日向のさまざまな場所と結び付けられました。

006-016

青島を中心とする宮崎神話多言語解説整備協議会

【タイトル】 阿波岐原地域 住吉神社 - 住吉神社

御由緒(看板)

【想定媒体】 看板

---

### <韓国語>

#### 16. 스미요시 신사

스미요시 신사에는 바다와 선원의 수호신이자 중요한 신들로 유명한 소코쓰쓰, 나카쓰쓰, 우와쓰쓰(스미요시 3대 신)를 모시고 있습니다. 일본 신화에 따르면 이들은 창조신인 이자나기가 부정을 씻어내기 위해 물에 몸을 담그면서 탄생한 신들입니다. 이자나기가 부정을 씻어낸 결과 다른 여러 신들이 탄생했는데, 이렇게 탄생한 신들 모두가 이곳에 모여져 있습니다. 일본의 생활과 문화에서 바다가 차지하는 중요성과 신도(神道) 신앙에 있어서 정화(淨化) 신화가 지니는 중요성은 일본 전국에 2,000 곳이 넘는 스미요시 신사가 있다는 사실에서도 미루어 볼 수 있습니다.

스미요시 신사가 언제 지어졌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수 세기 동안 수회에 걸쳐 이전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찍이 메이지 천황(1852-1912)이 신도를 국교로 제정하면서 스미요시 신사 등 고대 신화와 관련된 장소에서 참배를 하고 관련 유지 활동을 장려했던 메이지 시대(1868-1912)에는 스미요시 신사의 경내가 지금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스미요시 신사가 사람들의 인기를 얻게 되자, 1914년에 사람이 직접 객차를 미는 방식의 철도가 설치되었습니다. 1929년까지 지역 청년단원들이 객차를 밀면서 수많은 참배객들을 신사로 수송했습니다.

006-016

---

### <日本語仮訳>

#### 16. 住吉神社

住吉神社には、海と船乗りの守護神として知られる重要な神々、ソコツツ、ナカツツ、ウワツツ（住吉三神）が祀られています。日本の神話によると、これらの神々は創造神イザナギが水に身を浸して行った最初の浄めの結果として生まれました。イザナギの浄めの結果、他の多くの神々も生み出され、それらの神々すべてがここに祀られています。日本の生活と文化における海の重要性、また神道信仰における浄めの神話の重要性は、日本全国に2,000以上の住吉神社があるという事実からも明らかです。

この神社がいつ建てられたのかは定かではありませんが、何世紀にもわたって、何度も移転したと考えられています。かつて、特に明治天皇（1852～1912）が神道を国教に制定し、住吉神社など古代神話に関連する場所での参拝や、その維持活動を奨励した明治時代（1868～1912）には、住吉神社の境内は現在より

かなり広がったのです。住吉神社は人々の人気を集め、1914年には人が客車を押す形態の鉄道が敷かれるまでになりました。1929年まで、地元の青年団の若者たちが客車を押して、多くの参拝客を神社に運びました。

【タイトル】 日南海岸国定公園 国指定名勝鵜戸 鵜戸神宮 - 鵜戸神宮

鵜戸神宮由緒(看板)

【想定媒体】 看板

**<韓国語>****17. 우도 신궁의 역사와 신화**

우도 신궁은 예로부터 신성시하던 장소에 위치합니다. 현재 신이 머무는 건물인 신덴이 있는 동굴 등 자연과 어우러지는 모습에서 사람들은 이곳이 신이 머무는 장소라고 믿었습니다. 역사에 이 땅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해인 782년은 가이큐라는 승려가 신덴을 유지하고자 불교 사원을 건립한 해였습니다. 에도 시대(1603-1867)에는 오비번(지금의 미야자키현 남부 연안 지방)의 번주이자 다이묘(영주)였던 이토 가문의 비호를 받아 신덴의 규모가 확장되었습니다. 이후 이토 가문이 신덴을 유지하는 책임을 맡았으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신이 머무는 건물인 혼덴 또한 이토 가문에 의해 1711년에 재건축되었습니다.

혼덴에는 범종 모양의 창문과 중국, 인도의 생물을 묘사한 조각 등 불교의 요소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오랜 기간 신도(神道)와 불교 간의 종교적인 전통과 장식 양식의 융합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왔으며, 불교와 신도의 신앙과 관습은 에도 시대 말엽까지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습니다.

현재, 순수한 신도의 성지로 자리잡은 우도 신궁은 신화에서 말하는 초대 천황인 진무 천황의 아버지로서 일본 신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우가야후키아에즈노미코토를 제신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이 신화에서는 사냥의 명인이었던 야마사치비코와 해신의 딸인 도요타마히메가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야마사치비코는 도요타마히메의 출산을 위해 오두막을 만들게 되는데, 도요타마히메는 가마우지의 깃털로 만든 지붕이 완성되기도 전에 진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도요타마히메는 오두막에 들어가 아기를 낳기 전까지 자신의 모습을 보지 말아 달라고 야마사치비코에게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걱정이 된 야마사치비코는 해신의 딸인 도요타마히메가 거대한 상어로 변한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정체를 들켜버린 도요타마히메는 갓 태어난 아기를 남겨두고 슬픔에 잠긴 채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남겨진 아기에게는 ‘우가야후키아에즈노미코토’ 즉, ‘가마우지의 깃털 지붕이 완성되기도 전에 태어난 자’라는 뜻에서 유래한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지역의 전승에 따르면 출산한 장소가 지금의 우도 신궁이 지어졌던 동굴 안이라고 합니다.

**<日本語仮訳>****17. 鵜戸神宮の歴史と神話**

鵜戸神宮は、古代より神聖視されていた場所に建っています。現在、神殿が鎮座している洞窟などの自然の特徴から、そこが神の住むところだと信じられていたのです。この地が最初に歴史に登場するのは 782 年のこ

とで、快久という名の僧が神殿を維持するために仏教寺院を建立した年です。江戸時代（1603～1867）には飢肥（現在の宮崎県南部の海岸地方）藩主である大名の伊東家の庇護を受け、神殿の規模が大きくなります。その後は伊東家が神殿を維持する責任を負い、現在使用されている本殿も伊東家によって1711年に建て替えられたものです。

本殿には、梵鐘のような形をした窓や中国やインドの生物を描いた彫像など、仏教の要素が見られます。日本では長い間、神道と仏教の宗教的伝統や装飾様式の融合は自然なものと考えられており、仏教と神道の信仰および慣習は、江戸時代末まで密接に結びついていました。

現在は純粋に神道の聖地となっている鵜戸神宮は、神話にみる初代天皇である神武天皇の父として日本の神話で重要な役割を果たしている、ウガヤフキアエズノミコトを祭神として祀っています。この神話では、狩りの名手である山幸彦と海の神の娘である豊玉姫が子供を授かります。山幸彦は妻が出産するための小屋を作りますが、彼女は鵜の羽でできた屋根が完成する前に産気づいてしまいます。豊玉姫は小屋に入り、赤ん坊が生まれるまでは私の姿を見ないように山幸彦に哀願しました。しかし、山幸彦は心配になり、海の神の娘である豊玉姫が巨大な鮫に変身した姿を見てしまいます。本当の姿を見られてしまった豊玉姫は、生まれたばかりの赤ん坊を置いて、悲しみに暮れながら海へと帰っていきます。その子供には「ウガヤフキアエズノミコト」、つまり「鵜の羽の屋根の完成が間に合わなかった者」という意味の由来から名前が付けられました。地元の伝承によれば、出産が行われた場所は、現在鵜戸神宮が建っている洞窟の中だということです。

006-018

青島を中心とする宮崎神話多言語解説整備協議会

【タイトル】 日南海岸国定公園 国指定名勝鵜戸 鵜戸神宮 - 鵜戸神宮

運玉 (説明板)

【想定媒体】 看板

---

<韓国語>

18. 우도 신궁: 운다마

우도 신궁에는 운다마라는 ‘행운을 부르는 구슬’을 던져서 운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운다마는 점토를 저열에 구워 만든 것이며, 이것을 산등성이 아래 거북 바위 위 밧줄로 표시된 작은 구멍 안으로 던집니다. 남자는 왼손으로, 여자는 오른손으로 던져야 하며 작은 돌이 구멍에 들어가면 던진 사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집니다. 1950년대 이전에는 사람들이 운다마 대신 동전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돈을 가져가려고 구멍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동전 던지기는 중지되었습니다. 이 바위는 가메이시(‘거북이의 돌’이라는 뜻)라고 불리며 신사에서 모시는 주요 제신인 우가야후키아에즈노미코토에 얽힌 신화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태어나면서 해신의 딸인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우가야후키아에즈노미코토는 숙모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006-018

---

<日本語仮訳>

18. 鵜戸神宮 : 運玉

鵜戸神宮には、運玉という「幸運を呼ぶ玉」を投げて行う運試しがあります。運玉は粘土を低熱で焼いて作ったものであり、それをこの尾根の下の亀形の岩の上にある、縄で目印が付けられた窪みに向かって投げ入れます。男性は左手で、女性は右手で投げるという決まりがあり、小石が窪みに入れば、投げた人の願いが成就すると言われています。1950年代以前は、人々は運玉ではなく硬貨を投げていました。ですが、子供たちがお金を集めようと岩の窪みまで下りて行って危険だったため、これは中止されました。この岩は亀石(「亀の石」の意)と呼ばれ、神社の主祭神であるウガヤフキアエズノミコトにまつわる神話にちなんでいます。誕生の際に海の神の娘である母親から捨てられたウガヤフキアエズノミコトは、叔母によって育てられました。

006-019

青島を中心とする宮崎神話多言語解説整備協議会

【タイトル】 日南海岸国定公園 国指定名勝鵜戸 鵜戸神宮 - 鵜戸神宮

九柱神社御祭神（看板）

【想定媒体】 看板

---

<韓国語>

19. 우도 신궁: 구하시라 신사

구하시라 신사는 규모가 작지만, 신사의 9 개 문 안에 한 명씩 총 9 명의 신을 모시고 있습니다. 9 명의 신은 일본 신화의 열쇠가 되는 최초의 정화에 관한 이야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정화는 신도(神道)의 중심적인 의식이자 참배 전에 심신을 깨끗이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사에서는 입구에서 손과 입을 씻어 정화 의식을 치룹니다. 일본 건국 신화에 따르면 이자나기와 이자나미라는 남신과 여신이 일본 열도의 섬들을 탄생시켰으며 나아가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 여러 섬에 살게 했습니다. 이자나미는 자신이 맡은 사명을 다하기도 전에 목숨을 잃었는데, 이자나기는 이자나미를 죽은 자의 세계에서 되찾고자 했습니다. 결국 이자나미를 되찾지 못한 이자나기는 현세로 돌아와 물에 몸을 담그며 죽은 자의 세계에서 옮겨온 부정을 씻어냈습니다. 정화 의식을 치른 결과, 구하시라 신사에 모시고 있는 9 명의 신을 포함한 25 명의 신이 탄생했습니다. 우도 신궁은 해안에 위치하는 지리적 특성상 지역 어부들이 숭배하는 신사로 바다와 선원의 수호신으로 알려진 소코쓰쓰, 나카쓰쓰, 우와쓰쓰(스미요시 3 대 신)도 함께 제신으로서 모시고 있습니다.

006-019

---

<日本語仮訳>

19. 鵜戸神宮 : 九柱神社

九柱神社は、規模は小さいものの、神社の 9 つの扉の中に 1 人ずつ、合計 9 人の神様が祀られています。9 人の神様は、日本の神話の鍵となる初めての清めの物語と関係しています。清めは禊または祓とも呼ばれ、神道では中心的な儀式であり、参拜の前に心身をきれいにするために行われます。神社では、入り口で手と口を洗うことによってこれを行います。日本の建国神話では、イザナギとイザナミという男の神、女の神が日本列島の島々を生み出し、さらにさまざまな神を生み出してその島々に住ませました。イザナミはその務めを果たす前に亡くなってしまい、イザナギはイザナミを死者の国から連れ戻そうとしました。結局、イザナミを取り戻せなかったイザナギは、水に浸かって死者の国の穢れを洗い落とします。この清めの結果、九柱神社に祀られている 9 人の神様を含む 25 人以上の神様が生まれました。鵜戸神宮は海岸にあり、地元の漁師たちの信仰を集める神社でもあるため、海と船乗りの守り神として知られるソコツツ、ナカツツ、ウワツツ（住吉三神）も祭神として祀られています。



006-020

青島を中心とする宮崎神話多言語解説整備協議会

【タイトル】 日南海岸国定公園 国指定名勝鵜戸 鵜戸神宮 - 鵜戸神宮

御霊石(看板)

【想定媒体】 看板

---

<韓国語>

20. 우도 신궁: 신성한 돌

이 석판은 우도 신궁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유물 중 하나로 이곳에서 거행된 의식이 신도(神道)보다 주로 불교에 가까운 특성을 지녔다는 점에서 과거 시대의 풍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돌은 15 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 신사는 본래, 부처님이 신도에서 말하는 신의 화신으로 나타났다는 끈넌님을 모시는 진언종의 불교 사원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에 비추어보면, 지금은 전혀 다른 두 개의 종교가 일본에서 1000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진언종에서도 거행되고 있는 불을 사용하는 중요한 정화 의식 ‘호마’는 당시 이 돌 앞에서 치러졌으며 범자(梵字)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현재 범자는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지워졌으며 돌 중앙 부근에 동그란 표시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메이지 시대(1868-1912)의 신정부가 신도와 불교의 분리를 명하면서 신도(神道)의 신사에서 불교와 관련된 것들을 없애고자 했던 1868 년 이후에 발생한 일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불교의 건조물과 조각상, 예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파괴가 이루어졌습니다. 불교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미야자키와 다른 지역에서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물을 없애는 정도로만 그쳤습니다.

006-020

---

<日本語仮訳>

20. 鵜戸神宮：聖なる石

この石板は、鵜戸神宮で現存する最も古い遺物の一つで、ここで行われていた儀式の性質が、神道ではなく主に仏教のものであった時代の面影を残しています。この石は 15 世紀のもと考えられ、当時、神社は正式には、仏様が神道の神様の形を借りて現れた権現様を祀る真言宗の仏教寺院でした。このことは、現在は別物と考えられている 2 つの宗教が、日本において 1000 年以上にわたりいかに密接に結びついてきたかを思い起こさせてくれます。現在の真言宗でも行われている、火を使った重要な清めの儀式「護摩」が、当時、この石の前で行われ、石には元々梵字が刻まれていました。刻まれた文字は意図的に消されたようで、石の中央近くに丸い印だけが残っています。これが行われたのは、明治時代（1868～1912）の新政府が神道と仏教の分離を命じ、神道の神社から仏教の形象を取り除くことが求められた 1868 年以降のことだと考えられます。日

本の一部地域では、これが仏教の建造物、彫像、芸術の広範な破壊につながりました。宮崎を含むその他の地域では、反仏教の動きはそこまで激しいものではなく、信仰の最も明白な象徴を消すだけにとどまりました。

006-021

青島を中心とする宮崎神話多言語解説整備協議会

【タイトル】 日南海岸国定公園 国指定名勝鵜戸 鵜戸神宮 - 鵜戸神宮

神橋(説明木板)

【想定媒体】 看板

---

### <韓国語>

#### 21. 우도 신궁: 신교(神橋)

신교를 건너면 그 너머에 우도 신궁의 가장 신성한 장소로서 신이 머무는 건물인 혼덴에 도착합니다. 혼덴은 가파른 바위 계단을 내려가면 보이는 동굴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참배를 하기 위해 다리 옆에서 신발을 벗고 혼덴까지 맨발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야 신성한 땅이 바깥 세계의 부정한 것으로부터 더럽혀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이러한 풍습이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신교를 건넌 후에는 성지에 걸맞은 경건한 마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다리 가까이에서 혼덴을 정면으로 바라보면 참배길 왼쪽에는 수많은 석등롱이 세워져 있습니다. 석등롱은 오비번(지금의 미야자키현 남부 해안 지방)의 번주이자 다이묘(영주)였던 이토 가문이 봉납한 것입니다. 이토 가문은 에도 시대(1603-1867), 우도 신궁을 숭배하여 신궁을 유지하고자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등롱의 불빛을 밝히는 부분은 월상(月相)을 나타내며 각기 다른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 밑에는 하나의 원이 9 개의 작은 원에 둘러싸여 있으며, 인도 불교 사상의 우주를 나타내는 이토 가문의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006-021

---

### <日本語仮訳>

#### 21. 鵜戸神宮 : 神橋

神橋を渡ると、その先は、鵜戸神宮の最も聖なる場所である本殿となります。本殿は、岩に彫られた急な階段を下りた先にある洞窟の中に鎮座しています。昔は、参拝者は橋のたもとで履物を脱ぎ、本殿までは裸足で進んでいました。これにより、神聖な地面が外界の不純物で汚れることを防げると信じられていたのです。この風習は現在行われていませんが、神橋を渡った先では、聖地にふさわしい敬虔な気持ちで行動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橋の近く、本殿を正面から見て参道の左側には、数多くの石灯籠が建っています。これらは飴肥（現在の宮崎県南部の海岸地方）藩主である大名の伊東家から贈られたものです。伊東家は江戸時代（1603～1867）、鵜戸神宮を崇拜し、その維持のために資金を提供しました。灯籠の火を灯すところは月相を表しており、一つ一つ形状が異なっています。その下には、1つの円が9つの小さな円で囲まれ、インド仏教思想の宇宙を示す形状である伊東家の家紋が飾られています。

006-022

青島を中心とする宮崎神話多言語解説整備協議会

【タイトル】 日南海岸国定公園 国指定名勝鵜戸 鵜戸神宮 - 鵜戸神宮

兎の像(説明板)

【想定媒体】 看板

---

<韓国語>

22. 우도 신궁: 토끼 석상

우도 신궁의 경내 곳곳에서는 제신들의 사자(使者)라고 여겨지는 토끼 석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진 기원은 없지만, 신사의 주요 제신인 우가야후키아에즈노미코토의 첫 글자 ‘우’와 토끼를 의미하는 일본어 ‘우사기’의 ‘우’가 동일하다는 것에서 연관 지어진 것으로 추측됩니다. 지역의 구전에 따르면 신사 주변의 숲에 수많은 토끼가 살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한 마리도 볼 수 없습니다.

006-022

---

<日本語仮訳>

22. 鵜戸神宮 : うさぎの像

鵜戸神宮の境内には、うさぎの像が点在しており、ご祭神様たちの神使だと信じられています。この伝説の起源について確かなことは分かりませんが、神社の主祭神であるウガヤフキアエズノミコトの最初の字「ウ」と、ウサギを意味する日本語「ウサギ」の「ウ」が同じであるため、関連付けられたと考えられています。地元の言い伝えでは、神社の周りの森にたくさんのうさぎが棲んでいることになっていますが、現在では一羽も見ることができません。

006-023

青島を中心とする宮崎神話多言語解説整備協議会

【タイトル】 日南海岸国定公園 国指定名勝鵜戸 鵜戸神宮 - 鵜戸神宮

撫でうさぎ(看板)

【想定媒体】 看板

---

<韓国語>

23. 우도 신궁: 쓰다듬 토끼

쓰다듬 토끼(쓰다듬기 위해 설치된 토끼 석상)는 우도 신궁 경내에 설치된 수많은 토끼 석상 중에서도 가장 유명합니다. 쓰다듬 토끼는 신사의 주요 제신인 우가야후키아에즈노미코토의 사자로 여겨지는데, 병을 낫게 해주는 신의 힘이 깃들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병을 앓고 있는 참배객들은 새전함에 적은 금액의 새전을 넣은 후, 낫길 바라는 부위와 동일한 토끼의 부위를 쓰다듬습니다. 일본에서는 이처럼 병이 낫기를 기원하는 비슷한 방식의 석상이 존재하는데, 이는 적어도 에도 시대(1603-1867) 이후 여러 신사와 일부 불교 사원의 특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소를 본뜬 석상이 가장 일반적이지만, 다른 동물이나 부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습니다.

006-023

---

<日本語仮訳>

23. 鵜戸神宮：撫でうさぎ

撫でうさぎ（「撫でるためのうさぎ」の意）は、鵜戸神宮の境内にある数多くのうさぎの像の中で最も有名なものです。撫でうさぎは、神社の主祭神であるウガヤフキアエズノミコトの神使と信じられており、病気を治してくれる神様の力が込められていると考えられています。病気を患っている参拝者たちは、お賽銭箱に少額のお賽銭を入れた後、自分が治したい体の箇所と同じうさぎの体の箇所を撫でます。日本では、病気が治るよう祈願するためのこの種の像があることが、少なくとも江戸時代（1603-1867）以降、多くの神社と一部の仏教寺院の特徴となっています。牛の形をしたものが最も一般的ですが、他の動物や仏様の形をしたものもあります。

006-024

青島を中心とする宮崎神話多言語解説整備協議会

【タイトル】 日南海岸国定公園 国指定名勝鵜戸 鵜戸神宮 - 鵜戸神宮

福注連縄(説明板)

【想定媒体】 看板

---

### <韓国語>

#### 24. 우도 신궁: 후쿠시메나와와 액막이

신사에 들어갈 때는 신이 머무는 건물인 혼텐으로 이동하기 앞서 정화 의식을 치릅니다. 이는 신들에게 가까이 가기 전에 몸과 마음의 부정함을 씻어내기 위한 의식입니다. 우도 신궁에서 정화 의식은 2 단계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먼저 오른쪽에 있는 상자에서 후쿠시메나와(막대 주변에 묶여 있는 작은 밧줄)를 손에 들고 온몸을 쓸어주며 마음을 깨끗이 합니다. 사용한 후쿠시메나와는 왼쪽 상자에 넣습니다(기념품으로 가져가실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데미즈야로 이동합니다. 수반에 놓인 국자로 몸을 정화하기 위해 손과 입을 행굽니다. 여기까지 마쳤다면 신사에서 가장 신성한 구역으로 이어지는 신교를 건널 준비가 끝났습니다.

006-024

---

### <日本語仮訳>

#### 24. 鵜戸神宮：福注連縄とお祓い

神社に入る時は、本殿に向かう前に、清めの儀式を行います。これは、神々に近づく前に、体と心の穢れをきれいにするために行うものです。鵜戸神宮では、清めの儀式は二段階で行います。まず、右側にある箱から福注連縄（棒の周りに結われた小さな縄）を手に取り、それで全身を撫でて心を清めます。使った後の福注連縄は、左側の箱に入れます（お土産として持ち帰るのはおやめください）。次に、手水舎へと進みます。水盤には柄杓が置いてあり、柄杓を使って、体を清めるために手と口を洗います。これが終われば、神社で最も聖なる領域へとつながる神橋を渡る準備が整ったことになります。

006-025

青島を中心とする宮崎神話多言語解説整備協議会

【タイトル】 日南海岸国定公園 国指定名勝鵜戸 鵜戸神宮 - 鵜戸神宮

鵜戸神宮の奇岩（説明板）

【想定媒体】 看板

---

<韓国語>

25. 우도 신궁: 절벽과 단괴

우도 신궁 주변의 해안선에는 독특한 모양의 바위와 돌덩어리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풍경은 수백만 년 전에 발생한 지질학적 현상으로 인해 생성되었습니다. 신이 머무는 건물인 혼덴이 자리한 동굴을 포함해 이곳의 절벽은 단단한 사암과 부드러운 이암이 겹겹이 쌓여 형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부는 약 800 만 년 전의 지진으로 인해 모래와 진흙이 층을 이루며 해저에 퇴적되었고, 해파리와 해삼 등을 비롯한 여러 유기체가 층 속에 묻혔습니다. 층을 이룬 모래와 진흙이 각각 오랜 시간에 걸쳐 굳어지면서 현재 우도의 해안에서도 볼 수 있는 노란빛의 바위가 되었습니다. 절벽 측면의 곳곳에서 돌출된 돌덩어리는 단괴(Concretion 또는 nodule)라고 불리며, 해수에 포함된 칼슘의 영향으로 유기체의 사체 주변에 있는 부드러운 침전물이 응고하면서 형성되었습니다. 암반이 용기하면서 단괴가 산재해 있는 절벽이 이처럼 바닷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연에서 탄생한 걸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우도 신궁의 동굴은 수백만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암반이 부서지고 깎이면서 이윽고 신이 머무는 곳으로서 숭배하는 땅이 되었습니다.

006-025

---

<日本語仮訳>

25. 鵜戸神宮：崖と団塊

鵜戸神宮周辺の海岸線には、変わった形の岩や丸石が点在しています。これらは、この地で数百万年前に起きた地質学的イベントの名残です。神が宿る建物である本殿が鎮座している洞窟を含め、この地域の崖は、硬い砂岩とそれよりも柔らかい泥岩が積み重なってできています。約 800 万年前に、一部は地震活動の結果として、砂と泥が層をなして海底に堆積し、クラゲやナマコなどをはじめとする無数の有機体がこれらの層の中に埋まりました。この砂と泥がそれぞれ時間をかけて固まって岩となり、現在、鵜戸の海岸で広くみられる黄色っぽい岩を作り出したのです。崖の側面のあちこちに突き出している丸石は、団塊（Concretion または nodule）と呼ばれており、海水に含まれるカルシウムにより、有機体の死骸の周りの柔らかい沈殿物が凝固したものです。岩盤が隆起するのに伴い、団塊が点在する崖がこのように海中から現れました。自然が生み出した傑作とも言うべき鵜戸神宮の洞窟は、数百万年以上もの時間をかけて、岩盤が砕かれ、削られて、やがて神の住むところとして崇拜されるようになったのです。

006-026

青島を中心とする宮崎神話多言語解説整備協議会

【タイトル】 日南海岸国定公園 国指定名勝鵜戸 鵜戸神宮 - 鵜戸神宮

おちち水(表示板・説明板)

【想定媒体】 看板

---

<韓国語>

26. 우도 신궁: 오치치미즈

이 수반에 든 물은 왼쪽에 있는 바위굴 벽에서 튀어나온 ‘오치치이와’라는 바위에서 끌어왔습니다. 바위굴의 물은 바위 밑을 작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어 얼지 않으며 과거에는 흐르는 물의 양이 많아 예부터 지역 주민들에게 숭배의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의 물은 출산에 사용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분유가 발명되기 전에는 아기의 생사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였던 풍요로운 모유를 상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에도 시대(1603-1867)부터 우도 신궁에서 흘러나온 물은 바위굴의 입구 옆 부적 판매소에서 판매하는 사탕 ‘오치치아메’ 제조에도 사용하며, 비치된 국자로 직접 떠서 마실 수도 있습니다.

006-026

---

<日本語仮訳>

26. 鵜戸神宮 : お乳水

この水盤に入った水は、左側にある岩窟の壁から突き出た「お乳岩」という岩から引かれています。岩窟の水は、岩の下を流れる小川のおかげで凍ることがなく、かつてはたっぷりと流れていたため、古くから地元の人々に崇拜されてきたと考えられています。この水は出産時に使用されたと考えられており、乳児用粉ミルクが発明される以前は生死に関わる問題であった、十分な量の母乳を象徴するものでした。この水は、江戸時代（1603～1867年）からこの神宮で作られ、岩窟の入り口そばのお守り販売所で売られている飴「おちちあめ」の製造にも利用されており、備え付けの柄杓を使って飲むこともできます。



006-027

青島を中心とする宮崎神話多言語解説整備協議会

【タイトル】 日南海岸国定公園 国指定名勝鵜戸 鵜戸神宮 - 鵜戸神宮

お乳岩(説明看板)

【想定媒体】 看板

---

<韓国語>

27. 우도 신궁: 오치치이와

바위굴 내부의 벽면은 일부가 여성의 가슴처럼 돌출되어 있다고 하여 ‘오치치이와(가슴 바위)’라고 부릅니다. ‘오치치이와’는 바위 끝에서 천천히 흘러나오는 물이 방울방울 떨어져 항상 습기를 머금고 있으며 옛날부터 숭배의 대상으로 여겨졌습니다. 신화에 따르면 해신의 딸인 도요타마히메가 훗날 우도 신사의 주요 제신으로 모셔지는 우가야후키아에즈노미코토를 낳은 후 고향인 바다로 돌아가 버리면서 우가야후키아에즈는 홀로 남겨지고 말았습니다. 우가야후키아에즈노미코토는 어머니가 아들에게 남기고 간 ‘오치치이와’에서 나오는 ‘젖’을 먹고 자라, 훗날 전설 속 일본 초대 천황인 진무 천황의 아버지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오치치이와를 만지면 순산, 아이의 건강, 어머니의 건강에 효험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006-027

---

<日本語仮訳>

27. 鵜戸神宮 : お乳岩

岩窟内部の壁面は、一部分が女性の乳房のように突き出ており、この部分が「お乳岩」と呼ばれています。この「お乳岩」は、先端からゆっくりと水が滴り落ちるため常に湿っており、古くから崇拝されてきました。神話では、海の神の娘である豊玉姫は、のちに鵜戸神社の主祭神となる鷺鷥草葺不合命（ウガヤフキアエズノミコト）を産んだ後、故郷である海の中へ帰ってしまったため、鷺鷥草葺不合は取り残されてしまいました。「お乳岩」は母が息子へ残したものであり、ウガヤフキアエズノミコトは「お乳岩」から出る「乳」で育ち、その後伝説上の日本の初代天皇である神武天皇の父になったとされています。お乳岩に触れることで、安産、子育ての無事、母親の健康にご利益があると言われてしています。

006-028

青島を中心とする宮崎神話多言語解説整備協議会

【タイトル】 日南海岸国定公園 国指定名勝鵜戸 鵜戸神宮 - 鵜戸神宮

鵜戸山八丁坂(説明板)

【想定媒体】 看板

---

<韓国語>

28. 우도 신궁: 우도산 핫초자카

우도산 핫초자카(‘우도 신궁으로 이어지는 8 정 언덕’, 정(丁)은 길이의 단위로 약 109m)는 우도 신궁으로 이어지는 가장 오래된 참배길입니다. 815 개의 돌계단은 우도항으로 연결되며 적어도 에도 시대(1603-1867)부터 사용되어왔습니다. 돌계단의 중앙부는 수 세기에 걸쳐 많은 사람들이 밟으면서 닳아 없어졌는데, 주변과 비교해 보면 확연하게 높이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돌계단은 돌을 머리에 이고 해안에서 옮겨온 여승들이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006-028

---

<日本語仮訳>

28. 鵜戸神宮 : 鵜戸山八丁坂

鵜戸山八丁坂(「鵜戸神宮へつながる八丁の坂」、丁は長さの単位で 109メートルに相当)は、鵜戸神宮への最も古い参道です。815 段の石段は鵜戸港から伸び、少なくとも江戸時代(1603~1867 年)から使われてきました。石段の中央部は、多くの人々が何世紀にもわたって踏み続けてきたことによってすり減り、明らかに周囲よりも低くなっています。この石段は石を頭上に乗せて海岸から運び上げた尼僧によって作られたと言われています。

006-029

青島を中心とする宮崎神話多言語解説整備協議会

【タイトル】 日南海岸国定公園 国指定名勝鵜戸 鵜戸神宮 - 鵜戸神宮

吾平山上陵（説明木板）

【想定媒体】 看板

---

### <韓国語>

#### 29. 우도 신궁: 아이라 산릉

아이라 산릉은 우도 신사 경내 위쪽의 산 중턱에 있습니다. 삼림으로 뒤덮인 일부는 일본 신화에서 초대 천황인 진무 천황의 아버지이자 우도 신궁의 제신인 우가야후키아에즈노미코토의 매장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규슈에 여러 곳이 존재하는 궁내청 관할지 중 하나입니다. 궁내청은 황실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입니다. 수 세기에 걸쳐 무사 계급의 통치가 막을 내리면서 1868년 메이지 유신으로 천황이 복권한 후, 궁내청의 전신 기관은 일본서기(日本書紀, 720년에 편찬된 일본 초기의 역사서)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전국에 있는 고대 무덤을 ‘천황의 무덤’으로 특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서기에 기재된 무덤 중에는 후보지가 여러 곳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가야후키아에즈노미코토를 비롯한 천황 가문의 신화 속 선조 중에는 정식 무덤이 여러 곳에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라 산릉은 울타리로 둘러싸여 출입이 금지되어 있으나, 숲 바깥에서 오솔길을 따라 울타리 앞까지 약 20분이면 도착합니다. 특히 비가 내린 후에는 오솔길을 따라 걷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06-029

---

### <日本語仮訳>

#### 29. 鵜戸神宮 : 吾平山陵

吾平山陵は鵜戸神社の境内の上の山腹にあります。この森林に覆われた一角は、日本の神話で初代天皇である神武天皇の父であり、鵜戸神宮の祭神である鷦鷯草葺不合命の埋葬地であるとされています。ここは九州にいくつかある宮内庁管轄地のひとつです。宮内庁は、皇室に関する事項を担当する政府機関です。何世紀にもわたる武士階級の統治が終わり、1868年の明治維新で天皇が復権した後、宮内庁の前身機関は日本書紀（720年に編纂された初期の日本の歴史記録）の記載に基づいて、全国にある古代の墓を「天皇の墓」として特定しました。しかし、日本書紀に記載された墓の中には、複数の候補地が存在するものがありました。その結果、鷦鷯草葺不合命をはじめとする天皇家の神話上の祖先には、正式な墓が複数存在する場合があります。

吾平山陵は囲いで覆われ、立ち入ることはできませんが、森の端から小道をたどると、囲いの前まで約 20 分で行くことができます。特に雨が降った後は、小道を進むのが難しいことがありますので、ご注意ください。

006-030

青島を中心とする宮崎神話多言語解説整備協議会

【タイトル】 日南海岸国定公園 国指定名勝鵜戸 鵜戸神宮 - 鵜戸神宮

不動窟・波切神社

【想定媒体】 看板

---

<韓国語>

30. 후도 동굴과 나미키리 신사

후도 동굴은 해변에 형성된 동굴로 우도 신궁의 신이 머무는 건물인 혼텐이 있는 장소와 닮아 있지만, 규모가 혼텐의 동굴보다는 작습니다. 이 동굴은 수 세기에 걸쳐 숭배의 장소로 여겨지며 본래 문명에서 벗어나 혹독한 상황에서 오랜 시간 정신 수양에 힘쓰고자 했던 수도승들을 위한 곳이었지만, 훗날 지역 어부들이 기도를 올리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나미키리 신사는 신도(神道)와 불교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던 1868년 이전의 일본에서 볼 수 있었던 전형적인 시설이며, 지금은 바다의 신들을 모시는 신사이자 불교의 상징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신사 옆 석조 대피소 아래에는 불교의 오대 명왕 중 하나인 부동명왕의 석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부동명왕은 충실한 신자를 수호하며 격렬한 애정으로 신자를 인도한다고 알려진 수호신입니다. 석상에는 선원의 수호신인 '나미키리'가 이 세상에 나타난 모습인 나미키리 부동명왕이 새겨져 있습니다. 후도 동굴까지는 우도 신궁에서 산 중턱의 오솔길을 경유하면 도보로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006-030

---

<日本語仮訳>

30. 不動窟と波切神社

不動窟は海辺の洞窟で、鵜戸神宮の本殿がある場所によく似ていますが、規模は神が宿る建物である本殿の洞窟よりも小さいです。この洞窟は何世紀にもわたる崇拜の場で、もともとは文明から遠く離れた過酷な状況で長期間を過ごして精神修養を行う修行僧のためのものでしたが、後に地元の漁師にとっての祈りの場となりました。この神社は、神道と仏教の明確な区別がなされていなかった 1868 年以前の日本の典型的な宗教施設であり、現在は海の神々が祀られた神道の神社でありながら、仏教を象徴するものが目につきます。神社横の石造りの退避所の下には、仏教の五大明王の一人である不動明王の石像が立っています。不動明王は、忠実な信者を守り、激しい愛情で信者を導くとされる守護神です。この石像には、船乗りの守護神「波切」がこの世に現れた姿である波切不動明王が刻まれています。不動窟には、鵜戸神宮から山腹の小道を経由して徒歩 30 分以内で行くことができます。

## 【タイトル】 日南海岸国定公園 国指定名勝鵜戸

鵜戸神宮 - 国指定名勝鵜戸(解説看板)

【想定媒体】 看板

-----  
<韓国語>

## 31. 우도 - 국가 지정 명승

삼림으로 둘러싸인 우도곶은 천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행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곳입니다. 우도곶의 해안선에는 수백만 년 전의 지각 변동에 의해 형성된 기묘한 형태의 바위와 거암이 산재해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 이곳을 가장 먼저 찾아온 수도승이 고립된 환경 속에서 오랜 시간 정신 수양을 위한 장소로 우도곶의 암석 지대와 해안가의 동굴을 이용했습니다. 이처럼 조직화된 종교의 발전, 특히 일본 내 불교의 보급은 신성한 장소에 신사나 사원을 건립하는 행위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우도 신궁이라는 신도(神道)의 종교 시설이 위치한 우도는 성역으로서 1200 년의 역사 속 다양한 지위에 있는 신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천황 가문의 신성한 기원을 담은 고대 신화와도 관련 있는 우도 신궁은 지금도 여전히 기도를 올리는 장소로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옛 순례자들을 놀라게 했던 암반과 거암들로 구성된 우도의 절벽은 지질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단단한 사암과 부드러운 이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적어도 800 만 년 전에 형성되었다고 추정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장소가 갑의 남쪽 바다에서 돌출된 길고 가느다란 줄무늬 형태의 암석 지대입니다. 멀리서 보면 거대한 빨래판과 닮아 있다고 하여 ‘도깨비의 빨래판’이라고 불리며, 부드러운 이암층이 단단한 사암층보다 빠르게 침식되면서 이처럼 독특한 모양을 형성했습니다. 2017 년, 일본 정부는 역사와 지질의 특수성을 높이 평가하며 우도곶을 국가 지정 명승으로 지정했습니다.

-----  
<日本語仮訳>

## 31. 鵜戸 - 国指定名勝

森林に覆われた鵜戸崎は、千年以上にわたって旅人を惹きつけてきました。鵜戸崎の海岸線には、数百万年前の地殻変動によって形成された奇妙な形の岩や巨岩が点在しています。大昔、最初にこの場所を訪れたのは修行僧で、孤立した環境下で長期間過ごし、精神修養を行う場所として、鵜戸崎の岩場や海岸沿いの洞窟を選択しました。組織化された宗教の発展、特に日本での仏教の普及は、その後、こういった神聖な場所に神社や寺院を建立することにつながりました。現在鵜戸神宮という神道の宗教施設が置かれている鵜戸は、聖域として、1200年の歴史の中でさまざまな地位の信者を惹きつけてきました。天皇家の神聖な起源にまつわる古代神話とも関連があるこの神社は、今日でも祈りの場として人々の崇拜を集めています。

古代の巡礼者を驚かせた岩盤や巨岩からなる鵜戸の断崖は、地質学者の研究によると、硬い砂岩と柔らかい泥岩が混ざったものであり、少なくとも 800 万年前に形成されたと推定されています。特に興味深いのは、岬の南側の海から突き出た筋状の岩場です。遠くから見ると巨大な洗濯板に似ているため、「鬼の洗濯板」と呼ばれており、柔らかい泥岩の層より硬い砂岩の層より速く侵食されたため、この独特の形が形成されました。2017 年、日本政府は歴史と地質の特殊性を高く評価し、鵜戸崎を国指定名勝に指定しました。

## 【タイトル】 潮嶽神社 - 潮嶽神社

由緒書 (パンフレット)

【想定媒体】 看板

-----  
<韓国語>

## 32. 우시오다케 신사

우시오다케 신사는 전설 속 초대 천황인 진무 천황의 선조에 관한 신화에 등장하는 비극의 주인공 ‘우미사치히코’를 모시는 일본에서 유일한 신사입니다. 뛰어난 어부였던 우미사치히코는 어느 날 사냥의 명인이었던 동생 야마사치비코에게서 서로가 맡은 일의 도구를 교환하자 제안 받아 도구를 교환하지만, 야마사치비코는 우미사치히코의 낚싯바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형제 사이는 수년이나 틀어지게 되고, 끝내 동생인 야마사치비코가 형인 우미사치히코를 돛단배에 태워 바다로 보내버렸습니다. 우미사치히코는 수일 동안 표류한 끝에 멀리 떨어진 지역의 해변에 충돌하면서 그곳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지금의 우시오다케 신사가 있는 장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시오다케 신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두 형제 간에 있었던 불화를 피하고자 오늘날까지 다른 사람의 바늘을 빌리지 않는다는 전통을 수 세기에 걸쳐 지켜오고 있습니다.

우시오다케 신사의 창건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지금의 미야자키현 남부에서 강한 영향력을 지닌 종교 시설로서 자리매김했습니다. 에도 시대(1603-1867)에는 우시오다케 신사가 이 지역의 다이묘(영주)였던 이토 가문의 지원을 받아 유지되었으며, 1832년에는 이토 가문에 의해 재건되었습니다. 우시오다케 신사에서 실시되는 가구라(신에게 봉납하는 춤) 또한 에도 시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가구라는 매년 2월 11일에 새해의 풍작을 기원하며 우미사치히코와 야마사치비코의 신화나 여러 다른 전설을 각색한 내용 등으로 실시합니다. 또한, 멧돼지의 머리카락이나 생선을 신에게 봉납하는 등 어업 및 수렵과 깊은 관련이 있는 축제입니다.

-----  
<日本語仮訳>

## 32. 潮嶽神社

潮嶽神社は、伝説上の初代天皇である神武天皇の先祖にまつわる神話に登場する、悲劇の人物「海幸彦」を祀った日本で唯一の神社です。海幸彦は熟練した漁師でしたが、ある日、狩人で弟の山幸彦から互いの仕事道具を交換しようと提案を受け、道具を交換しましたが、山幸彦は海幸彦の釣り針を失くしてしまいました。そのことがきっかけで何年にもわたって兄弟の関係にヒビが入り、最終的には弟の山幸彦が兄の海幸彦を小舟に乗せて沖へ流してしまいました。海幸彦は、何日も漂流した末に隔絶の地で岸边に衝突し、その地で余生を過ごしました。その場所が現在の潮嶽神社がある場所だったとされています。この神社を崇拝する人々は、

二人の兄弟間に起きたような不和を避けるために、互いに縫い針を借りることを控えるという伝統を、今日まで何世紀にもわたり守り続けています。

潮嶽神社がいつ創建されたのかは不明ですが、現在の宮崎県南部において、強い影響力を持つ宗教施設として位置づけられてきました。江戸時代（1603～1867年）には、潮嶽神社はこの地域の大名であった伊東氏によって維持され、1832年には同氏によって再建されました。この神社で演じられる神楽（神に奉納する踊り）も江戸時代から始まりました。神楽は新しい年の豊作を願って、毎年2月11日に行われ、海幸彦と山幸彦の神話やその他の古代伝説の改作などが演じられます。また、イノシシの頭や魚を神々に捧げるなど、漁業や狩猟との関連性の強いお祭りとなっています。



006-033

青島を中心とする宮崎神話多言語解説整備協議会

【タイトル】 駒宮神社 - 駒宮神社

由緒石板

【想定媒体】 アプリ QRコード

---

<韓国語>

33. 고마미야 신사

미야자키현은 말 사육이 활발합니다. 변방이었던 이 지역의 말을 조정에서 귀히 여겼다는 것에서 시작된 말 사육의 역사는 적어도 나라 시대(710-794)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러한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이 고마미야 신사입니다. 고마미야란 ‘말의 신사’를 의미하며 경내에는 많은 석상이 세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해안선이었던 신사의 부지는 태곳적부터 성지로서 신앙의 대상이었는데, 지금의 신체를 모시는 건물인 샤덴 뒤편에 있는 절벽을 신의 거처로 숭배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안선이 뒤로 밀려나면서 주변 토지는 농경이나 방목에 이용되었고, 고마미야 신사는 농경을 중심으로 생활했던 집락촌의 신앙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에도 시대에는 오비번(지금의 미야자키현 남부 연안부)의 다이묘(영주)였던 이토 가문이 신앙과 비호의 상징으로서 매년 말을 봉납하였고 이로 인해 고마미야는 보호받아 왔습니다. 지금의 고마미야 신사는 신화 속 초대 천황이었던 진무 천황을 모시고 있습니다. 진무 천황은 이곳에서 유소년기를 보냈다고 전해지는데, 이는 1868년 메이지 유신 이후에 강조된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이지 천황(1852-1912)이 중심이 된 정부는 신도(神道)를 국교로 제도화하면서 황실의 기원에 관한 토착 신화와 전설에 관한 장소를 숭배하고 유지할 것을 장려했습니다.

006-033

---

<日本語仮訳>

33. 駒宮神社

宮崎県では、馬の飼育が盛んに行われています。辺境の地であったこの地域の馬が朝廷で珍重されたことに始まり、その歴史は少なくとも奈良時代（710～794年）まで遡ることができます。その歴史が息づいているのが、駒宮神社です。駒宮とは「馬の神社」を意味し、境内には馬の像が数多く立てられています。かつての海岸線にあるこの神社の敷地は、太古の昔から聖地として信仰されており、現在の社殿の裏手にある崖が神の住処として崇拝されていたのではないかと考えられています。海岸線が後退した後、周辺の土地は農耕や放牧に利用され、駒宮神社は農耕を主とする集落における信仰の中心地となりました。

江戸時代には、飢肥藩（現在の宮崎県南部沿岸部）の大名である伊東家が信仰と庇護の象徴として毎年馬を寄進していたことから、駒宮は保護されていました。現在の駒宮神社は、神話上の初代天皇である神

武天皇を祀っています。神武天皇はここで幼少期を過ごしたと言われていますが、これは、1868年の明治維新以降に強調された側面です。明治天皇（1852～1912年）を中心とした政府は、神道を国教として制度化し、皇室の起源に関する土着の神話や伝説に関連した場所の崇拝と維持を奨励しました。

006-034

青島を中心とする宮崎神話多言語解説整備協議会

【タイトル】 駒宮神社 - 駒宮神社

御銚の窟跡 パワースポット説明看板

【想定媒体】 看板

---

<韓国語>

34. 고마미야 신사: 미호코 동굴

고대 일본에서는 바위나 나무 등 자연물을 신의 거처로 모시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건물에 신을 모신다는 사고방식이 도입된 것은 나중의 일입니다. 고마미야 신사에서는 신이 머무는 건물인 혼텐의 뒤편에 있는 절벽이 본래의 숭배 장소였다고 생각됩니다. 선사 시대의 해안가에 자리했던 이 절벽은 현재 부분적으로 흙에 덮여 있지만, 바다의 침식으로 인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수 미터 아래에 있는 바위가 파도와 바람에 깎여 형성된 동굴은 제사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동굴은 신화 속 일본의 초대 천황인 진무 천황이 국가를 통일하고자 길을 나서기 전에 애용했던 미늘창(긴 손잡이 끝에 양날 검을 부착한 무기, 일본어로 '호코'라고 함)을 바친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전설 속 미늘창을 본뜬 금속 복제품이 동굴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006-034

---

<日本語仮訳>

34. 駒宮神社：御銚の窟

古代日本では、岩や木などの自然物を神の住処として祀ることが多く、建物に神を祀るという考え方が広まったのは、その後のことです。駒宮神社では、神が宿る建物である本殿の裏手にある断崖が本来の崇拝対象であったと考えられています。これらの崖は先史時代に海岸沿いにあつたもので、現在では部分的に土壌で覆われていますが、波の浸食の痕跡を残しています。この場所の数メートル下には、波と風によって岩が削られてできた洞窟があり、祭祀に使われていたと考えられています。この洞窟は神話上の日本の初代天皇である神武天皇が、国を統一するための旅に出る前に、愛用していた銚（長い柄の先端に両刃の剣を付けた武器、日本語で『ホコ』）を納めた場所だと言われています。

現在は伝説の銚の金属製複製品が、洞窟の場所を示しています。

006-035

青島を中心とする宮崎神話多言語解説整備協議会

【タイトル】 駒宮神社 - 駒宮神社

駒宮の陰陽石と銭石 パワースポット説明看板

【想定媒体】 看板

---

<韓国語>

35. 고마미야 신사: '인요세키'와 '제니이시'

고마미야 신사의 신이 머무는 건물인 혼텐 뒤편에 있는 절벽은 예로부터 신앙의 대상으로 여겨졌습니다. 울퉁불퉁한 표면의 일부를 약간의 상상력을 더해 바라보면 남성의 생식기(양)와 여성의 생식기(음)가 서로 마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여 '인요세키(음양석)'라고 불립니다. 예로부터 일본에서는 이 같은 모양의 바위가 순산과 오곡 풍양, 인연 맺기 등에 효험이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2018년에는 바위 앞의 땅속에서 동전 모양의 작은 돌(제니이시)이 대량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작은 돌들은 수 세기 전, 자녀와 관련해서 기도를 올린 참배객들이 남겼을 것으로 생각되며, 기도가 잘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에 동전 모양의 돌을 신에게 바쳤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고마미야 신사에서 2018년에 제니이시가 발견된 후부터 인요세키 앞에서 기도를 드릴 때 바치는 공물용으로 제니이시의 복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006-035

---

<日本語仮訳>

35. 駒宮神社 : 「陰陽石」と「銭石」

駒宮神社の神が宿る建物である本殿の裏手にある断崖は、古来より信仰の対象となっていたとされています。少し想像力を働かせると、その凹凸のある表面の一部は、男性器（陽）と女性器（陰）が向かい合っているように見えるため、「陰陽石」と呼ばれています。日本では古くから、このように見える岩は、安産や五穀豊穰、縁結びなどの縁起物とされてきました。2018年にこの岩の前の地面を発掘した際、コインに似た形をした小石（銭石）が大量に見つかりました。これらの石は何世紀も前に、子供に関する事で神の御利益を求めて祈願した参拝者が残したと考えられており、より強く祈りが通じることを願って、コインに似た形の石を神に捧げたと考えられています。2018年に銭石が発見されてから、駒宮神社では、陰陽石の前にお供えして祈願するために、銭石の複製品を販売しています。

## 【タイトル】 駒宮神社 - 駒宮神社

日向シャンシャン馬 発祥の地説明石板

【想定媒体】 アプリ QRコード

-----  
<韓国語>

## 36. 고마미야 신사. 휴가 산산우마 전통

고마미야 신사에 있는 수많은 말 석상을 보면 이 지역의 역사에서 말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미야자키현 주변은 적어도 나라 시대(710-794)부터 말의 번식지로서 유명했으며, 고마미야 주변에는 수 세기에 걸쳐 수많은 번식장이 존재했습니다. 그중 하나인 다테이시는 신사에서 약 4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전설 속 초대 천황인 진무 천황의 구전과 관련된 전승이 남아 있습니다. 구전에 따르면 용신이 어린 진무 천황에게 다쓰이시라는 말을 선물했는데, 이 말은 진무 천황과 벨레야 벨 수 없는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위대한 지배자가 되기 위해 고향 마을을 떠나고자 했던 진무 천황은 자신의 애마를 두고 가야만 했습니다. 진무 천황과 다쓰이시는 에도 시대(1603-1867)까지 말 방목지가 있었던 다테이시에서 헤어졌다고 합니다.

오비번(지금의 미야자키현 남부 연안부)의 다이묘(영주)였던 이토 가문은 신앙과 비호의 상징으로서 매년 고마미야 신사에 말을 봉납했습니다. 매년 치러지는 축제에서는 주변 마을 사람들이 모여 말을 주제로 춤을 선보이거나 말 경매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니치난시 전역에서 신혼부부가 화려한 장식을 두른 말에 올라타 행진하는 등 다양한 행사에서 등장하는 '산산우마'의 전통이 바로 여기에서 유래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산산이란, 말 장식에 달린 종이 울리는 소리에서 기원했다고 추정됩니다.

-----  
<日本語仮訳>

## 36. 駒宮神社。日向シャンシャン馬の伝統

駒宮神社には数多くの馬の像が立てられており、地域の歴史の中で、馬が重要な役割を果たしてきたことを感じさせてくれます。現在の宮崎県のあたりは、少なくとも奈良時代（710～794年）から馬の繁殖地として知られており、駒宮の近くには何世紀にもわたって多くの繁殖場がありました。そのうちの一つである立石は、神社から約4km離れた場所にあり、伝説上の初代天皇である神武天皇の言い伝えにちなんだ伝承が残っています。物語では、龍神が若き神武天皇に龍石という馬をプレゼントし、神武天皇に龍石は切っても切れない関係になっていきました。神武天皇が成長し、偉大な支配者になるために故郷の村を出発するとき、彼は愛馬を置き去りに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神武天皇と龍石は、江戸時代（1603～1867年）まで馬の放牧場があった立石で別れたと言われています。

飢肥藩（現在の宮崎県南部沿岸地域）の大名であった伊東家は、信仰と庇護の象徴として毎年駒宮神社に馬を寄進していました。毎年恒例のお祭りでは、近隣の村の人たちが集まり、馬を題材にした踊りを披露したり、馬の競売を行ったりしていました。このような行事が、現在でも日南市全域で行われている、新婚夫婦が精巧な装飾を施した馬に乗って練り歩くほか、様々な行事が行われるようになった「シャンシャン馬」の伝統の由来になったと言われています。シャンシャンという言葉は、装飾した馬の馬具についている鈴の音を表していると考えられています。

006-037

青島を中心とする宮崎神話多言語解説整備協議会

【タイトル】 吾平津神社（乙姫神社） - 吾平津神社

御由緒説明板

【想定媒体】 看板

---

<韓国語>

37. 아히라쓰 신사

일본 신화에 따르면 아히라쓰히메는 전설 속 초대 천황인 진무 천황의 첫 비입니다. 진무 천황은 일본 전역을 정복하고자 길을 떠나며 적대시하던 부족을 쓰러뜨리면서 지금의 나라현에 해당하는 일본 중앙에 국가를 건설하여 목적을 달성하였는데, 길을 나서기 전 진무 천황과 아히라쓰히메는 함께 생활하며 슬하에 자녀도 두었습니다. 이후 아히라쓰히메는 진무 천황과 함께 길을 나섰다는 설도 있지만, 남편의 성공을 빌고자 홀로 남았다는 설도 있습니다. 예로부터 아부라쓰의 주요 신사였던 아히라쓰 신사(옛날에는 ‘오토히메다이묘진’이라는 이름으로 불림)는 아히라쓰히메를 신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본래는 여러 민화에 등장하는 바다의 여신 ‘오토히메’를 모시는 신사로, 1868 년의 메이지 유신 이후, 아히라쓰히메의 이름을 본떠 아히라쓰 신사로 이름을 변경한 이곳은 지금도 참배길에 오토히메의 동료였던 원숭이와 꿩의 석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메이지 천황(1852-1912)이 중심이 된 정부는 신도(神道)를 국교로 제도화하면서 토착 신화와 황실 기원 설화에 관한 장소를 숭배하고 유지할 것을 장려했습니다. 이 같은 배경에서 아부라쓰의 주민들이 진무 천황의 비를 주요 제신으로 모시는 것은 뜻깊은 일이었습니다.

006-037

---

<日本語仮訳>

37. 吾平津神社

日本神話では、アヒラツ姫は伝説上の初代天皇である神武天皇の最初の妃です。神武天皇は日本全土を征服するための旅に出て、敵対する部族を倒し、現在の奈良県にあたる日本の中央部に国を建てることで目的を達成しますが、その旅に出る前、神武天皇とアヒラツ姫は一緒に暮らしており、子供もいました。その後、アヒラツ姫は神武天皇と一緒に旅に出たという説もありますが、夫の成功を祈るためにとどまったという説もあります。古くから油津の主要な神社である吾平津神社（かつては「乙姫大明神」と呼ばれていた）には、アヒラツ姫が神として祀られています。

もともとは多くの民話に出てくる海の女神「乙姫」を祀った神社で、1868年の明治維新後、アヒラツ姫にちなんで吾平津神社と改名されたこの神社の参道には、今も乙姫の仲間である猿と雉の像が鎮座しています。明治天皇（1852～1912年）を中心とした政府は、神道を国教として制度化し、土着の神話や皇室の起源

伝説にまつわる場所の崇拝と維持を奨励しました。このような背景から、油津の人々にとっては神武天皇の妃を主祭神とすることに意味がありました。



006-038

青島を中心とする宮崎神話多言語解説整備協議会

【タイトル】 吾田神社 - 吾田神社

御由緒書き看板

【想定媒体】 看板

---

<韓国語>

38. 아가타 신사

아가타 신사는 천 년 이상 전부터 지역 농촌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맡아왔다고 알려지는 유서 깊은 곳입니다. 봄이 되면 매년 신사 축제에서 오곡 풍양을 기원하는 가구라(신에게 봉납하는 춤) 의식이 행해집니다. 가구라 중에는 일본 신화에 등장하는 장소를 재현한 것도 있습니다. 신화에 따르면 전설 속 초대 천황인 진무 천황과 첫 비인 아히라쓰히메의 첫 번째 아이였던 다기시미미노미코토가 아가타라고 불렀던 지역의 출신이며, 다기시미미노미코토의 무덤이 아가타 신사의 뒷산에 있다고 전해집니다. 아버지가 죽은 후 왕위를 계승하려고 했던 다기시미미노미코토는 이복형제의 방해로 살해되면서 어머니의 고향 마을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아가타 신사는 비극의 왕자와 어머니 두 사람을 신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신사 뒤 삼림으로 둘러싸여 있는 구릉은 선사 시대의 매장지로 생각됩니다.

006-038

---

<日本語仮訳>

38. 吾田神社

吾田神社は、千年以上も前から地域の農村の精神的な中心地であったとされる由緒ある場所です。毎年春に神社で行われるお祭りでは、五穀豊穡を祈願する神楽（神に奉納する踊り）の儀式が催されます。これらの神楽の中には、日本神話の場面を再現したものもあります。神話では、伝説上の初代天皇である神武天皇とその最初の妃アヒラツ姫の第一子である手研耳命が、吾田と呼ばれる地の出身とされており、手研耳命の墓は吾田神社の裏山にあると伝えられています。父の死後、王位を継ごうとした手研耳命は、異母兄弟に邪魔されて殺され、母の故郷の村に葬られてしまいました。吾田神社は、悲劇の王子とその母親の両方を神様として祀っています。

神社裏の森林に覆われた丘は、先史時代の埋葬地と考えられています。

006-039

青島を中心とする宮崎神話多言語解説整備協議会

【タイトル】 祇園神社 - 祇園神社

御由緒説明板

【想定媒体】 看板

---

<韓国語>

39. 기온 신사

오늘날 기온 신사가 자리한 천연 동굴은 예로부터 사람들이 숭배하던 장소였습니다.

옛날에는 홍수나 전염병이 항구에서 들어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구 아부라쓰항의 입구에 있는 이곳은 영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장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일본에서는 이러한 재난을 분노한 용신의 소행이라고 여겼습니다. 1924년에 지역 철도회사 간부의 제안에 따라 동굴 안에 신사를 건립했습니다. 매년 교토에서 기온 축제가 개최되는 야사카 신사의 계열 신사인 기온 신사에서는 폭풍의 신인 스사노오를 모시고 있습니다. 역병과 바다의 분노에서 사람들을 수호해 주는 신으로 여겼던 스사노오는 일본 신화에서 가장 유명한 괴물로 알려진 ‘야마타노오로치’를 퇴치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머리가 8개인 거대한 뱀 ‘야마타노오로치’를 스사노오가 쓰러뜨리자 뱀의 꼬리에서 검이 나왔는데, 이는 현재 황실의 보물로서 천황 가문에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006-039

---

<日本語仮訳>

39. 祇園神社

現在、祇園神社がある天然洞窟は、古来より崇拜の場となっていました。

伝統的に、洪水や伝染病は港から入ってくると考えられていたため、旧油津港の入り口に位置するこの場所は、靈的に重要な場所だったと言えます。古代日本では、このような災難は、怒りに燃える龍神の仕業であると考えられていました。1924（大正13年）に、地元鉄道会社の幹部の提案により洞窟内に神社が建立されました。祇園神社は、毎年祇園祭が行われる京都の八坂神社の系列神社で、嵐の神スサノオを祀っています。疫病と海の怒りから人々を守ると信じられているこの神は、おそらく日本神話で最も有名な怪物「ヤマタノオロチ」を退治したことで知られています。スサノオが八つの頭を持つ大蛇「ヤマタノオロチ」を倒した時、その尾から出てきたといわれる剣が、現在でも皇室の宝物の一つとして、天皇から天皇へと代々受け継がれています。

006-040

青島を中心とする宮崎神話多言語解説整備協議会

【タイトル】 古事記上巻

高天原神話 - 「オノゴロ島」

【想定媒体】 WEB

---

<韓国語>

40. 일본의 신화: 오노고로섬

일본의 창조 신화는 하늘, 땅, 그리고 7 대까지 이어지는 원시 신들이 등장하는 부분에서 시작합니다. 7 대의 마지막 세대로서 신화의 주인공인 창조신 이자나기와 이자나미 남매가 등장합니다. 다른 신들은 이자나기와 이자나미에게 대지를 만들라고 명하는데, 이 시점의 대지는 유동적이고 혼돈한 상태에 있는 덩어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자나기와 이자나미는 천국에서 신의 미늘창(긴 손잡이 끝에 양날 검을 부착한 무기)을 바다로 내려보내 뒤섞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미늘창을 들어 올리자 창 끝에 소금 덩어리가 똑똑 떨어지면서 오노고로라고 불리는 섬이 탄생했습니다. 이자나기와 이자나미는 오노고로섬에 내려와 신전과 성스러운 기둥을 세웠습니다.

006-040

---

<日本語仮訳>

40. 日本の神話 : オノゴロ島

日本の創造神話は、天、地、そして七代続く原始の神々が登場するところから始まります。7代の最後の世代として、神話の主人公となる創造神イザナギとイザナミの兄妹が登場します。他の神々はイザナギとイザナミに大地を形にすることを命じますが、この時点では流動的な、混沌とした塊にすぎませんでした。イザナギとイザナミは天国から神の銚（長い柄の先端に両刃の剣を付けた武器）を海に降ろしてかき混ぜ始めました。そして銚を引き上げると、その先端から塩の塊が滴り落ち、オノゴロと呼ばれる島が形成されました。イザナギとイザナミは島に降り立ち、その上に神殿と聖なる柱を建てました。

## 【タイトル】 古事記上巻

高天原神話 - 「二神の結婚」

【想定媒体】 WEB

-----  
<韓国語>

## 41. 일본의 신화: 이자나기와 이자나미의 결혼

오노고로섬에 정착한 이자나기와 이자나미 남매는 서로의 신체 구조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자손을 남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세운 성스러운 기둥 주변을 서로가 마주칠 때까지 반대 방향으로 돌기로 약속하고, 마주친 순간 여동생인 이자나미가 먼저 말을 걸어 두 사람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명의 아이가 태어났지만, 두 명 모두 괴이한 형태에 생명력이 없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던 이자나기와 이자나미는 하늘의 신에게 조언을 얻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여동생인 이자나미가 먼저 말을 걸었기 때문에 괴이한 형태의 아이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즉,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 먼저 말을 걸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여러 해석이 존재하는데, 대부분이 8세기 당시 신화를 기록했던 편찬자가 중국의 철학 중 특히 유교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일본은 지배 계급들 사이에서 유교가 정착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자나미와 이자나기의 이야기에서처럼 여성이 행위의 주체가 되는 것에 대한 경고는 신화가 기록될 당시의 사회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자나미의 사산에 관한 부분은 고대 사회에서 조산과 영아 사망률이 높았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  
<日本語仮訳>

## 41. 日本の神話 : イザナギとイザナミの結婚

オノゴロ島に降り立ったイザナギとイザナミの兄妹は、互いの身体の造りが違うこと、つまり子孫を残す能力を持っていることに気づきます。二人は、自分たちで立てた聖なる柱の周りを互いに出会うまで反対方向に回ることとし、再会したところで、妹のイザナミが先に声をかけ、兄と交わりました。やがて子供が二人産まれましたが、二人とも異形で生命力がありませんでした。困ったイザナギとイザナミは、天の神様の助言を受けることにしました。その結果、妹のイザナミが先に声をかけたことが異形の子供の原因であったことが分かりました。女性ではなく、まず男性から声をかけるべきだったのです。

この物語についてはいくつかの注釈がありますが、そのほとんどは、8世紀に神話を書き留めた編纂者に対し、中国の哲学、特に儒教が影響を与えたことを示唆しています。当時の日本では、エリートの間で儒教が定着し

ていました。イザナミとイザナギの物語に盛り込まれた、女性が行為主体となることに対する警告は、神話がまとめられた当時の社会を反映したものとして理解する必要があります。また、イザナミの死産に関する部分は、古代社会における早産と乳児死亡率の高さを反映していると言えるかもしれません。

【タイトル】 古事記上巻

高天原神話 - 「国生み」

【想定媒体】 WEB

## &lt;韓国語&gt;

## 42. 일본 신화: 일본 열도의 탄생

정상적인 아이를 낳는 방법을 알게된 이자나기와 이자나미는 수많은 이름난 아이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자나미는 8 개의 섬을 낳았습니다. 아와지, 시코쿠, 오키, 규슈, 이키, 쓰시마, 사도, 혼슈로 구성된 이 섬들로 일본 열도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8 개의 섬은 고대 일본인이 지배한 땅에 해당합니다. 그중 혼슈, 시코쿠, 규슈는 근대 일본의 주요 4 개 섬 중 3 개 섬에 해당하며, 아와지섬은 혼슈와 시코쿠 사이의 세토 내해에, 오키, 이키, 쓰시마, 사도는 일본해에 위치해 있습니다. 신화에 따르면 일본은 종종 ‘오야시마구니’(커다란 8 개의 섬나라)로 불렸습니다. 오야시마구니(大八島國)라는 이름은 이자나기와 이자나미가 가장 먼저 만들었던 8 개의 섬을 지칭하는 한편, 이름에 포함된 ‘야(八)’가 단순히 ‘수많은’이라는 뜻을 지닌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는 섬나라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이자나미는 이후 세토 내해에 있는 섬을 비롯한 여러 작은 섬들을 낳으며 일본 열도를 완성시켰습니다.

## &lt;日本語仮訳&gt;

## 42. 日本神話 : 日本列島の誕生

正しい子の成し方を教えられたイザナギとイザナミは、多くの名だたる子供を生むことになります。まず、イザナミは 8 つの島を生みました。それらは、淡路、四国、隠岐、九州、壱岐、対馬、佐渡、本州で、これらの島々で日本列島が形成されました。この 8 つの島は、古代日本人が支配していた土地に当たります。そのうち、本州・四国・九州は近代日本の主要 4 島のうちの 3 島であり、淡路島は本州と四国の間の瀬戸内海に、隠岐・壱岐・対馬・佐渡は日本海に位置しています。神話では、日本はしばしば「大八島国」(大きな 8 つの島の国)と呼ばれています。これは、イザナギとイザナミが最初に作った 8 つの島を指すと共に、また別の意味では「八」は単に「多数」を表し、一般的に島国を指しています。イザナミはその後、瀬戸内海にある島を始めとしていくつかの小さな島を生み、日本列島を完成させました。

006-043

青島を中心とする宮崎神話多言語解説整備協議会

【タイトル】 古事記上巻

高天原神話 - 「神生みとイザナギの神避り」

【想定媒体】 WEB

---

<韓国語>

43. 일본 신화: 신들의 탄생

거처 마련이 끝난 즈음, 이자나미는 8 개의 성스러운 섬에 머물면서 자연의 요소를 관장하는 수많은 신들을 낳았습니다. 그중에는 바람의 신, 물의 신, 나무의 신, 산의 신, 들의 신과 같은 신들 외에도 집을 수호하는 등 다양한 신들과 정령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각 지역으로 흩어지며 계속해서 더 많은 신들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자나미는 불의 신을 낳으면서 큰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자나미가 고통에 몸부림치자 흘러나온 체액에서 광산의 신, 흙의 신, 농경의 신 등 다양한 신들이 생겨났습니다. 모두 14 개의 섬과 35 명의 신들을 낳은 이자나미는 화상으로 인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006-043

---

<日本語仮訳>

43. 日本神話 : 神々の誕生

居住する用意が整ったところで、イザナミは、8 つの聖なる島に住み、自然の要素を司る多くの神々を生みましました。その中には、風の神、水の神、木の神、山の神、野の神などの神々のほか、家を守る様々な神々やその他の精霊が含まれていました。彼らは国中に広がり、さらに多くの神々を生み出しました。しかし、イザナミは火の神を生む際に、大火傷を負ってしまいました。彼女がもがき苦しむうちに、その体液から鉱山の神、土の神、農耕の神などの神々が現れました。合わせて 14 の島と 35 柱の神々を生んだイザナミは、その傷が元で命を落としてしまいました。

006-044

青島を中心とする宮崎神話多言語解説整備協議会

【タイトル】 古事記上巻

日向神話 - 「火の神を斬る」

【想定媒体】 WEB

---

<韓国語>

44. 일본 신화: 불의 신의 참수

부인인 이자나미의 죽음에 극심한 상실감을 느껴 울고 있던 이자나기의 눈물에서 샘물의 여신이 추가로 탄생했습니다. 이자나미의 장사를 지낸 이자나기는 비극의 원인이 된 불의 신, 가구쓰치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분노에 찬 이자나기는 검을 뽑아 단칼에 가구쓰치의 목을 잘라버렸습니다. 검날에 맺힌 피가 지면으로 떨어지면서 새롭게 8 명의 신들이 탄생하였는데, 치명상을 입은 가구쓰치의 몸에서도 8 명의 신이 탄생했습니다. 탄생한 신은 바위의 신, 검의 신, 천둥의 신, 화염의 신, 폭포의 신, 산골짜기의 신으로 이들의 탄생은 목가적인 세상에서 더욱 복잡하고 위험한 세상으로 진화하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006-044

---

<日本語仮訳>

44. 日本神話 : 火の神の斬首

妻イザナミの死に打ちひしがれて泣いていたイザナギの涙から、もう 1 柱の神、湧水の女神が生まれました。イザナミを葬ったイザナギは、悲劇の原因となった火の神・カグツチの方を向きます。怒りに駆られたイザナギは剣を抜き、一振りでカグツチの首をはねました。刃から地面に滴り落ちた血から新たに 8 柱の神が生まれ、さらに致命傷を負ったカグツチの体からも 8 柱の神が生まれました。これらは岩の神、剣の神、雷の神、炎の神、滝の神、谷の神であり、その出現は牧歌的な世界からより複雑で危険な世界へと進化していく様を象徴しています。



【タイトル】 古事記上巻

日向神話 - 「黄泉の国」

【想定媒体】 WEB

## &lt;韓国語&gt;

## 45. 일본 신화: 황천으로

이자나기는 사랑하는 이자나미의 죽음을 견디지 못하고 이자나미를 죽은 자가 살고 있는 황천에서 데려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길을 떠난 이자나기는 황천에서 이자나미를 발견하고 산 자의 세계로 돌아가 함께 끝까지 국가를 건설하자고 이자나미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이자나미는 죽은 자의 세계에서 만든 것을 먹었기에 돌아갈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자나기는 계속해서 이자나미가 황천에 사는 신들을 설득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자나미는 이에 고개를 끄덕이며 이자나기가 기다리는 동안 자신의 모습을 절대로 보지 말아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기다릴 수 없었던 이자나기는 이자나미가 신들을 설득하고 있던 새에 돌아보았고, 심하게 부패해버린 이자나미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격노한 이자나미는 지옥의 마귀할멈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자나기는 자신을 향해 쫓아오는 마귀할멈에게 벗어나고자 뒤로 씨앗을 뿌리면서 도망쳤습니다. 뿌려진 씨앗은 지면에 떨어지자 곧장 포도나무를 닮은 식물로 자라면서 마귀할멈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이자나기는 마귀할멈들을 따돌리기 위해 고대 일본에서는 신비로운 힘을 지녔다고 알려진 복숭아를 던졌습니다. 그렇게 황천의 입구에서 빠져나온 이자나기는 이자나미에게 따라 잡히기 전에 지나온 길을 거대한 둥근 돌로 막아버렸습니다. 이자나미는 바위 너머로 이자나기를 저주하며 매일 1,000 명의 목숨을 영원히 앗아갈 것이라고 맹세했습니다. 이자나기는 이에 대항하고자 매일 1,500 명의 아기를 세상에 내보낼 것을 맹세했습니다. 이 같은 두 사람의 맹세는 고대 일본에서의 인구 상황에 기반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 &lt;日本語仮訳&gt;

## 45. 日本神話 : 黄泉の国へ

イザナギは、愛するイザナミの死に耐えきれなくなり、彼女を死者の住む黄泉の国から連れ戻すことを決意します。彼は黄泉の国まで旅をしてイザナミを見つけ、生者の国に戻って共に国造りを完成させるよう、彼女に懇願しました。しかしイザナミは、死者の国で作ったものを食べてしまったため、もう戻れないと答えます。イザナギは何度も、イザナミに黄泉の国の神々を説得してくれるよう促しました。彼女はそれに頷くとともに、イザナギに対し、待っている間は私の様子を決して見ないようにと言いました。しかし、待ちきれなかったイザナギは、イザナミが神々を説得している間に彼女の方を向いてしまい、ひどく腐った状態のイザナミを見てしまいます。

激怒したイザナミは、地獄の鬼婆たちを呼び出します。この鬼婆たちは逃げようとするイザナギを追いかけますが、彼は後ろに種を撒きながら走りました。この種は、地面に落ちるとすぐにブドウの木などの植物に成長し、鬼婆たちの気をそらしました。イザナギは、鬼婆たちを振り切るために、古代日本では神秘的な力を持つとされていた桃を投げました。イザナギは黄泉の国の門を抜け出し、イザナミに追いつかれる前にその道を巨大な丸い石で塞ぎました。イザナミは岩越しにイザナギを呪い、毎日 1,000 人の命を永久に奪い続けることを誓いました。イザナギはそれに対抗し、毎日 1,500 人の赤ん坊を世に送り出すことを誓いました。このやりとりは、古代日本で推定されていた人口増加ペースに基づいたものだったのかもしれませんが。

## 【タイトル】 古事記上巻

日向神話 - 「禊ぎ」

【想定媒体】 WEB

-----  
<韓国語>

## 46. 일본 신화: 발계

산 자의 세계로 돌아온 이자나기는 황천에서 옮겨온 부정함을 씻으려 했습니다. 이자나기는 옷을 벗어던지고 물에 들어가 몸을 정화했습니다. 벗어던진 옷에서 새로운 신들이 탄생하였고, 이자나기가 몸을 정화하면서 더욱 많은 신들이 탄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자나기가 얼굴을 비볐을 때, 신도(神道)의 신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3 명의 신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자나기의 왼쪽 눈에서 태어난 태양의 여신 아마테라스, 오른쪽 눈에서 태어난 밤의 주인이자 달의 신 쓰쿠요미, 코에서 태어난 바다와 폭풍의 신 스사노오였습니다. 이들 신이 탄생하면서 천지개벽의 신화는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최초로 기록된 역사서인 고사기(古事記)에는 이자나기의 발계 의식이 치러진 곳은 휴가국(지금의 미야자키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휴가는 남동쪽으로 아득히 먼 위치에 자리하며 일출과 가장 가까운 장소이자 신들의 나라와 가장 가까운 곳이라고 생각했다는 이유에서, 8 세기 당시의 도읍이었던 나라에서 일본 신화의 편찬자들이 휴가를 선택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태양과의 연관성은 지명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휴가(日向)는 에도 시대(1603-1867) 이전의 지역 구분인 ‘국(國)’ 중에서 유일하게 ‘태양’을 의미하는 ‘日’이라는 한자가 들어간 국명이었습니다.

발계는 신도(神道)에서 중요한 의식으로서 예배를 올리기 앞서 심신을 깨끗이 하고자 치러졌습니다. 신사에서는 입구에서 손과 입을 씻어 발계 의식을 치룹니다.

-----  
<日本語仮訳>

## 46. 日本神話 : 禊

生者の国に戻ったイザナギは、黄泉の国の穢れを洗い流そうとしました。彼は服を脱ぎ去り、水に浸かって体を清めました。脱ぎ捨てられた服から新たな神々が生まれ、またイザナギが体を清めることでさらに多くの神々が生まれました。最後に顔をこすった際、神道の神々の中で最も重要な 3 柱が現れました。イザナギの左目から生まれた太陽の女神・アマテラス、右目から生まれた夜の主である月の神・ツクヨミ、鼻から生まれた海と嵐の神・スサノオです。これらの神々の誕生により、天地開闢の神話は締め括られます。

日本で最初に書かれた文献である古事記には、イザナギの清めは日向国（現在の宮崎県）で行われたと記されています。日向は南東のはるか彼方に位置しており、日の出に最も近い場所、ひいては神々の国に最も近い場所だと考えられていたため、8世紀に当時の都である奈良で日本神話を編纂した人々は、日向を舞台に選んだのではないかと考えられます。このような太陽との結びつきは、その地名にも表れています。日向は、江戸時代（1603–1867）以前における地域区分「国」のうち、唯一「太陽」を示す「日」の文字が入った国名でした。

清めは、神道における中心的な儀式であり、礼拝の前に心身を清めるために行われます。神社では、入り口で手と口を洗うことで清めを行います。

【タイトル】 古事記上巻

日向神話 - 「木花佐久夜毘売」

【想定媒体】 WEB

## &lt;韓国語&gt;

## 47. 일본 신화: 꽃의 공주

일본 신화 중에는 천지개벽의 신화에 이어 태양의 여신인 아마테라스가 손자인 니니기를 하늘에서 내려보내 천하를 다스리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황 가문이 지닌 신들의 계보를 나타내는 일련의 이야기는 니니기와 꽃의 공주인 고노하나사쿠야의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지게 되고, 니니기는 고노하나사쿠야의 아버지인 산의 신, 오야마쓰미에게 결혼을 허락받고자 결심합니다.

오야마쓰미는 두 사람의 결혼에 동의를 하면서도 하나의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조건이란, 고노하나사쿠야와 함께 바위의 공주인 언니 이와나가와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니니기는 고노하나사쿠야만을 아내로 맞이하며 아름답지 못했던 이와나가를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격노한 오야마쓰미는 니니기가 두 딸과 결혼을 해야만 영원한 행복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꽃은 아름다울지언정 허무하지만, 바위는 일견 화려함은 없으나 영원합니다. 이와나가를 거절한 니니기는 불사의 삶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고대 일본에서 이 같은 운명적인 선택은 살아 있는 신이라고 여겨왔던 일본의 천황이 보통의 인간과 똑같은 죽음을 맞이한다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노하나사쿠야는 곧장 세쌍둥이를 잉태하지만, 니니기는 아이들이 자신의 아이인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고노하나사쿠야는 신의 아이라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상처 하나 없이 탄생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오두막에 틀어박혀 직접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3 명의 남자 아기가 어머니와 함께 화염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 &lt;日本語仮訳&gt;

## 47. 日本神話 : 花の姫

日本神話では、天地開闢の神話に続いて、太陽の女神であるアマテラスが孫であるニギギを天から降ろして天下を治めさせたという物語があります。天皇家の神々の系譜を示したこの一連の話は、ニギギが花の姫・コノハナサクヤと出会うところから始まります。2人は恋に落ち、ニギギはコノハナサクヤの父である山の神・オオヤマツミに結婚の承諾を求めることを決意します。

オオヤマツミは二人の結婚に同意しますが、ひとつ条件を出しました。その条件とは、コノハナサクヤと一緒に、彼女の姉である岩の姫・イワナガとも結婚することでした。しかし、ニニギはコノハナサクヤだけを娶り、美しさで劣るイワナガを拒絶しました。激怒したオオヤマツミは、ニニギは2人の娘と結婚することのみ、永遠の幸せを手に入れることができたと明かします。花は美しいけれども儂く、一方、岩は見るからに輝きはないが永遠に続きます。イワナガを拒絶したことで、ニニギは不死を手放してしまいました。古代日本において、この運命的な選択は、生ける神とされてきた日本の天皇が普通の人間と同様に死ぬこととなった理由を示しています。

コノハナサクヤはすぐに三つ子を妊娠しましたが、ニニギは子供たちが自分の子であると信じることはできませんでした。コノハナサクヤは、神の子供であれば何があっても無傷で生まれてくると確信して、小屋に閉じこもり、自ら火を放ちました。その後、3人の男の赤ん坊が母親と一緒に炎の中から現れました。

## 【タイトル】 古事記上巻

日向神話 - 「海佐知と山佐知」

【想定媒体】 WEB

## &lt;韓国語&gt;

## 48. 일본 신화: 야마사치비코와 우미사치히코

고노하나사쿠야와 니니기의 세 아들 중에는 사냥의 달인으로 성장하는 야마사치비코와 숙련된 어부로 성장하는 우미사치히코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야마사치비코는 서로가 하는 일에 대해 알아보자며 두 사람의 도구를 교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야마사치비코는 형의 낚싯바늘을 가지고 낚시에 나섰고, 우미사치히코는 사냥에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야마사치비코는 빌린 낚싯바늘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아무리 찾아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야마사치비코는 검을 부러뜨려 새 낚싯바늘을 몇 개나 만들어 주었지만, 우미사치히코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던 야마사치비코의 곁에 시오쓰치라는 이름의 노인이 찾아와, 배를 타고 바다의 신인 와타쓰미의 궁전으로 가서 낚싯바늘을 찾아보라고 말했습니다. 야마사치비코는 조연대로 궁전에 도착하자 와타쓰미의 딸인 도요타마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둘은 사랑에 빠졌고, 와타쓰미는 야마사치비코가 신의 혈통을 이어받았다는 이유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대연회에 초청받은 야마사치비코는 결국 도요타마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3년 동안 와타쓰미의 궁전에서 행복하게 생활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야마사치비코는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다로 나온 이유가 잃어버린 형의 낚싯바늘을 찾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생각해냈기 때문이었습니다. 도요타마는 아버지인 와타쓰미에게 낚싯바늘을 찾아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와타쓰미는 야마사치비코의 낚싯바늘을 찾기 위해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에게 궁전으로 모이도록 명했습니다. 입을 다쳤다는 도미를 제외하고 모든 물고기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와타쓰미가 도미를 가까이 불러들여 살펴보자 입이 아팠던 이유는 낚싯바늘 때문이었고, 야마사치비코는 바로 형의 낚싯바늘이라고 알아보았습니다.

형의 낚싯바늘을 찾은 야마사치비코는 육지로 돌아갈 결심을 했습니다. 와타쓰미는 이별의 선물로 야마사치비코에게 해수를 조종할 수 있는 한 쌍의 보주를 건넸습니다. 육지로 돌아간 야마사치비코는 우미사치히코에게 낚싯바늘을 돌려주려고 하지만, 우미사치히코는 이를 거절하고 동생을 위협했습니다. 야마사치비코는 바다의 신에게서 받은 보주를 사용하여 해수를 불러들여 우미사치히코를 물에 빠지게 하자, 우미사치히코는 결국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미야자키현 연안부에는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신격화하여 모시고 있는 여러 신사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아오시마 신사에서 매년 개최되는 겨울 축제에서는 야마사치비코가 와타쓰미의 궁전에서 돌아왔을 때 환희에 찬 사람들이 바닷가로 맞이하러 들어가는 장면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살바와 비슷한 혼도시 차림의 참가자들이 차가운 파도 속으로 뛰어들어 야마사치비코를 맞이하는 정화 의식을 거행합니다.

---

**<日本語仮訳>****48.日本神話：ヤマサチヒコとウミサチヒコ**

コノハナサクヤとニギの3人の子供たちのなかには、狩猟の達人に成長するヤマサチヒコと熟練の漁師となるウミサチヒコがいました。ある日、ヤマサチヒコはお互いの仕事を知るために2人の道具を交換することを提案します。ヤマサチヒコは兄の釣り針を持って釣りに出かけ、ウミサチヒコは狩りに挑戦しました。しかし、ヤマサチヒコは借りていた釣り針を失くしてしまい、どれだけ探しても見つかりませんでした。ヤマサチヒコは刀を折って新しい釣り針を何本も作りましたが、ウミサチヒコはそれを受け取ることを拒みました。

途方に暮れていたヤマサチヒコのもとにシオツチという名の老人が訪ねてきて、船に乗り込んで海の神であるワダツミの宮殿に行き、釣り針を探すように言いました。ヤマサチヒコは言われた通りにし、宮殿に到着すると、ワダツミの娘であるトヨタマと出会います。2人は恋に落ち、ワダツミは、ヤマサチヒコが神の家系であることから2人の関係を認めました。ヤマサチヒコは大宴会に招かれ、やがてトヨタマと結婚します。2人は3年の間、ワダツミの宮殿で幸せに暮らしました。

時が経つにつれ、ヤマサチヒコはだんだん心配になってきました。元々、失くしてしまった兄の釣り針を見つけようとして海に出たことを思い出したのです。トヨタマは父のワダツミに搜索を手伝ってほしいと頼みます。ヤマサチヒコが探している釣り針を見つけようとしたワダツミは、海にいるすべての魚に対し宮殿に集まるように命じました。口を痛めたという鯛を除いて、すべての魚が集まりました。ワダツミが鯛を呼び寄せると、その痛みは釣り針が引っかかっていたせいだと判明し、ヤマサチヒコにはそれが兄の釣り針だと分かりました。

兄の釣り針を取り戻したヤマサチヒコは、陸に戻ることを決意します。別れの品として、ワダツミはヤマサチヒコに潮を操ることのできる一対の宝珠を渡しました。陸に戻り、ヤマサチヒコはウミサチヒコに釣り針を返そうとしますが、ウミサチヒコはそれを断り、弟を脅しました。ヤマサチヒコは海の神からもらった宝珠を使って潮を呼び寄せてウミサチヒコを溺れさせたところ、ついにウミサチヒコは屈しました。

宮崎県沿岸部には、この物語の登場人物を神格化して祀っている神社がいくつかあります。その中のひとつである青島神社では、毎年冬に行われる祭りで、ヤマサチヒコがワダツミの宮殿から帰還した時に、歓喜に沸く人々に海辺で迎え入れられるシーンを再現しています。サツパに似たふんどしのみを身に付けた参加者たちが冷たい波の中に走り込んでヤマサチヒコを迎え、清めの儀式を行います。



## 【タイトル】 古事記上巻

日向神話 - 「鵜草葺不合命の誕生」

【想定媒体】 WEB

-----  
<韓国語>

## 49. 일본 신화: 우가야후키아에즈

형을 이긴 야마사치비코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부인인 도요타마가 곧 아이가 태어날 것이니 출산을 위한 오두막을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도요타마의 말에 따르면 하늘 신의 자손들은 바다에서 태어나선 안 되기 때문에 출산을 위한 오두막은 육지에 지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야마사치비코는 도요타마를 위해 오두막을 짓기 시작하지만, 가마우지의 깃털로 만든 지붕이 채 완성되기도 전에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두막에 들어간 도요타마는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절대 봐서는 안 된다고 야마사치비코에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야마사치비코는 끝내 참지 못하고 해신의 딸인 도요타마가 거대한 상어로 변한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정체를 들켜버린 도요타마는 갓 태어난 아기를 남겨두고 슬피하며 바다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남겨진 아기에게는 ‘가마우지의 깃털로 만든 지붕이 완성되기도 전에 태어난 자’라는 뜻의 우가야후키아에즈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우가야후키아에즈는 도요타마의 동생인 다마요리의 손에서 자라지만, 훗날 우가야후키아에즈가 성인이 되자 두 사람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니치난 시의 우도 신궁에서는 우가야후키아에즈를 신체로 모시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전승에 따르면 우도 신사가 세워진 해안의 동굴이 우가야후키아에즈가 태어난 장소라고 합니다.

-----  
<日本語仮訳>

## 49. 日本神話 : ウガヤフキアエズ

兄に打ち勝ったヤマサチヒコに、嬉しい知らせが入りました。彼は妻のトヨタマから、もうすぐ子供が生まれるので、出産するための小屋を建てておくようにと言われたのです。トヨタマによると、天の神々の子孫が海に生まれてはならないため、この建物は陸に作らなければいけないのだそうです。ヤマサチヒコはトヨタマのために小屋を建て始めますが、鵜の羽でできた屋根が完成する前に陣痛が始まってしまいました。小屋の中に入ったトヨタマは、子供が生まれるまでは見ないでほしいとヤマサチヒコに懇願しました。しかし、ヤマサチヒコは我慢できず、海の神の娘であるトヨタマが巨大なサメに変身した姿を見てしまいます。正体を見られてしまったトヨタマは、生まれただけの赤ん坊を残して悲しみに暮れながら海へと帰って行きました。この子供には、「鵜の羽でできた屋根が間に

合わなかった者」を意味するウガヤフキアエズという名前が付けられました。ウガヤフキアエズは、トヨタマの妹・タマヨリに育てられますが、彼の成人後、ウガヤフキアエズとタマヨリの 2 人は結婚します。

日南市の鵜戸神宮では、ウガヤフキアエズがご神体として祀られています。この地方の伝承によると、鵜戸神宮が立っている海岸の洞窟がウガヤフキアエズの生まれた場所とされています。

006-050

青島を中心とする宮崎神話多言語解説整備協議会

【タイトル】 古事記上巻

日向神話 - 「鵜草葺不合命の系譜」

【想定媒体】 WEB

---

<韓国語>

50. 일본 신화: 우가야후키아에즈의 계보

우가야후키아에즈와 부인 다마요리는 슬하에 4 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성인이 된 네 아들 중 막내가 성장한 형들을 데리고 일본 전국을 통치하기 위한 여행을 떠났습니다. 휴가(지금의 미야자키현)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수많은 적들과 싸워 이기며 지금의 나라현이 있는 장소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막내가 국가를 세우고 스스로를 진무 천황이라 칭하며, 일본 최초의 통치자이자 신의 계시를 받은 자임을 선언했습니다. 해신을 모계로, 하늘과 산의 신인 부계로 혈통을 이어받은 진무 천황은 땅을 지배할 운명이었습니다. 이후 진무 천황은 지금의 제 126 대 천황에 이르기까지 대대손손 통치자의 역할을 해왔던 천황의 계보에서 초대 천황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미야자키에는 진무 천황을 모시는 신사를 비롯해 진무 천황과 인연이 깊은 신도(神道)의 유적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장소가 미야자키 신궁입니다.

006-050

---

<日本語仮訳>

50. 日本神話 : ウガヤフキアエズの系譜

ウガヤフキアエズと妻のタマヨリには 4 人の息子ができました。大人になり、末の息子は、成長した兄たちを連れて日本全国を治める旅に出ます。彼らは日向（現在の宮崎県）から東進し、多くの敵と戦って打ち負かしながら、現在の奈良県がある場所へとたどり着きました。その場所で末の息子は国を建て、自らを神武天皇とし、日本で最初の統治者として、神の啓示を受けた者であると宣言しました。海の神を母方の先祖に、天と山の神を父方の先祖に持つ神武天皇は、地上を支配する運命にありました。神武天皇は、その後現在の第 126 代天皇に至るまで途切れることなく統治してきたとされている、天皇の系譜における初代天皇となりました。宮崎には神武天皇を祀っている神社や、彼に縁のある神道の遺跡が数多くあります。そのなかでも特に有名なのが宮崎神宮です。

## 解説文一覧

NO.	スポット名 (タイトル)	韓国語文字数	想定媒体
007-001	生野鉱山寮馬車道跡	311	案内板
007-002	生野鉱山寮馬車道跡	162	パンフレット
007-003	生野鉱山寮馬車道跡	319	WEB サイト
007-004	飾磨津物揚場跡	400	案内板
007-005	馬車道修築碑	292	案内板
007-006	三木家住宅	356	案内板
007-007	三木家住宅	426	WEB サイト
007-008	三木家住宅	375	パンフレット
007-009	辻川町 (妖怪)	264	WEB サイト
007-010	屋形町	474	案内板
007-011	屋形町	138	パンフレット
007-012	屋形町	366	WEB サイト
007-013	粟賀町	288	案内板
007-014	粟賀町	394	パンフレット
007-015	粟賀町	264	WEB サイト
007-016	竹内家住宅	249	案内板
007-017	竹内家住宅	211	パンフレット
007-018	竹内家住宅	291	WEB サイト
007-019	生野鉱山関連遺構 (生野鉱山及び鉱山町の文化的景観)	572	案内板
007-020	生野鉱山関連遺構 (生野鉱山及び鉱山町の文化的景観)	342	WEB サイト
007-021	生野鉱山町 (生野鉱山及び鉱山町の文化的景観)	635	案内板
007-022	生野鉱山町 (生野鉱山及び鉱山町の文化的景観)	329	WEB サイト
007-023	神子畑鑄鉄橋・羽淵鑄鉄橋	459	案内板
007-024	神子畑鑄鉄橋・羽淵鑄鉄橋	346	WEB サイト
007-025	神子畑選鉱場跡	489	案内板
007-026	神子畑選鉱場跡	329	WEB サイト
007-027	旧神子畑鉱山事務舎 (ムセ旧居)	365	案内板
007-028	旧神子畑鉱山事務舎 (ムセ旧居)	242	WEB サイト
007-029	明延鉱山明神電車	282	WEB サイト
007-030	明延鉱山明神電車	413	パンフレット
007-031	明延鉱山関連遺構・明延鉱山町	288	WEB サイト
007-032	明延鉱山関連遺構・明延鉱山町	382	パンフレット

007-033	中瀬鉦山関連遺構・中瀬鉦山町	319	WEB サイト
007-034	中瀬鉦山関連遺構・中瀬鉦山町	480	パンフレット

007-001

日本遺産「銀の馬車道・鉱石の道」推進協議会

【タイトル】 生野鉱山寮馬車道跡

【想定媒体】 案内板

---

<韓国語>

이곳은 1876년에 완공된 ‘이쿠노 광산료 마차길’(현재의 ‘은의 마차길’)의 일부입니다. 이 길은 히메지의 시카마항에서 효고현 북부에 있는 이쿠노 광산으로 광공업 관련 자재 등을 효율적으로 운반하기 위해 건설되었습니다. 설계자인 프랑스인 기사 레옹 시슬레(1847-1878년)는 당시 유럽에서 널리 사용되던 머캐덤 공법(쇄석을 사용한 도로 포장 양식)을 채용했습니다. 일본 최초의 산업고속도로로서 은의 마차길은 메이지 시대(1868-1912년)를 대표하는 근대화 산업유산입니다.

이곳에서는 약 100m에 걸쳐 벚나무로 둘러싸인 400년 넘는 연못을 따라 마차길의 일부가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도로 양쪽을 지탱하기 위해 사용된 큰 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유일하게 현존하는 은의 마차길입니다.

007-001

---

<日本語仮訳>

これは 1876年に完成した「生野鉱山寮馬車道」(現在の「銀の馬車道」)の一部である。この道は姫路の飾磨港から兵庫県北部にある生野鉱山へ、鉱工業にかかる資材等を効率よく運ぶために建設された。その設計者であるフランス人の技師レオン・シスレー(1847-1878)は、当時ヨーロッパで広く用いられていたマカダム工法(砕石を用いる道路舗装様式)を採用した。日本最初の産業高速道路として、銀の馬車道は明治時代(1868-1912)を代表する近代化産業遺産である。

ここでは、およそ 100メートルにわたって桜の木で縁取られた、400年以上前からある池に沿って馬車道の一部が発見されている。道路の両側を支えるために使われた大きな石を見ることができる。ここが唯一の現存する銀の馬車道である。

007-002

日本遺産「銀の馬車道・鉱石の道」推進協議会

【タイトル】 生野鉱山寮馬車道跡

【想定媒体】 パンフレット

---

<韓国語>

가미카와초에는 ‘이쿠노 광산료 마차길’(현재의 ‘은의 마차길’)이 100m 에 걸쳐 남아있습니다. 1876 년 건설된 이 도로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머캐덤 공법이라는 기술을 사용한 산업고속도로였습니다. 벚나무로 둘러싸인 연못 주위를 따라 있으며, 2016 년 도로의 일부가 발굴되어 지금도 양호한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경관도 19 세기 후반부터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007-002

---

<日本語仮訳>

神河町には、100メートルほどの「生野鉱山寮馬車道」（現在の「銀の馬車道」）が現存している。この道路はマカダム工法という技術を使って1876年に建設された日本で初の産業高速道路であった。桜の木で縁取られた池の周りを巡っており、2016年に道路の一部が発掘され、今もなお良い状態で残されている。景観もまた19世紀後半以来ほとんど変わっていない。

007-003

日本遺産「銀の馬車道・鉱石の道」推進協議会

【タイトル】 生野鉱山寮馬車道跡

【想定媒体】 WEB サイト

---

<韓国語>

‘이쿠노 광산료 마차길’(현재의 ‘은의 마차길’)은 아사고시의 이쿠노 광산과 히메지의 시카마항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프랑스인 기사 레옹 시슬레(1847-1878년)에 의해 설계되었고 1876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처음 만들어진 산업고속도로로, 피에르 마리 제롬 트레사케(1716-1796년)가 개발한 프랑스의 도로 설계 방법과 스코틀랜드인 존 루던 머캐덤(1756-1836년)이 고안한 머캐덤 공법을 조합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길의 완공은 19세기 후반 일본 근대화의 조류를 예감하게 만들었습니다. 도로는 벚나무가 늘어서 있는 연못을 둘러싸고 있으며, 주변 광경은 그때와 거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2016년에 도로의 일부에서 발굴조사가 실시되어 머캐덤 공법의 기술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007-003

---

<日本語仮訳>

「生野鉱山寮馬車道」(現在の「銀の馬車道」)は朝来市にある生野鉱山と姫路にある飾磨港を結んでいる。フランス人技師レオン・シスレー(1847-1878)によって設計され、1876年に完成した。日本で最初に作られた産業高速道路で、ピエール・マリー・ジェローム・トレサギュー(1716-1796)が開発したフランスの道路設計方法とスコットランド人のジョン・ルードン・マカダム(1756-1836)が考案したマカダム工法を組み合わせたものである。この道の完成は19世紀後半の日本の近代化への潮流を予感させるものだった。

道路は桜の木で縁取られた池を巡っており、周辺の光景は当時からほとんど変わっていない。そのため、2016年に道路の一部で発掘調査が行われ、マカダム工法の技術が明らかになった。



【タイトル】 飾磨津物揚場跡

【想定媒体】 案内板

**<韓国語>**

지금은 히메지항의 일부인 이 지역은 예전에는 ‘시카마쓰 물양장’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곳은 ‘이쿠노 광산료 마차길’(현재의 ‘은의 마차길’)의 종착점으로 이곳에서 효고현 북부의 광산에서 나온 은과 다른 금속이 세토 내해 연안의 공장으로 수송되었습니다. 수송 속도와 안전성을 향상시킨 은의 마차길과 시카마쓰 물양장의 건설은 메이지 시대(1868-1912년)의 급속한 산업화 속에서 메이지 정부가 가장 빠르게 착수한 사업 중 하나였습니다. 프랑스인 기사 레옹 시슬레(1847-1878년)가 설계한 전체 길이 49km의 도로와 ‘시카마쓰 물양장’의 건설은 1873년에 착공해 1876년에 완공되었습니다.

1894년까지 일본의 인프라는 북부의 광산에서 채굴한 광석을 철도로 수송할 수 있을 정도로 발달했기 때문에 시카마쓰 물양장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아사다 화학공업은 이곳을 정부로부터 매입해 현재는 공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두에 남아있는 것은 벽돌 건물을 구성하는 벽의 일부뿐입니다.

**<日本語仮訳>**

今では姫路港の一部となっているこの地域は、かつて「飾磨津物揚場」として知られていた。それは「生野 鉱山寮馬車道」(現在は銀の馬車道として知られている)の終着点で、そこから兵庫県北部の鉱山からの銀や他の金属が瀬戸内海沿いの工場へ輸送された。輸送速度と安全性を向上させた銀の馬車道と飾磨津物揚場の建設は、明治時代(1868-1912)における急速な産業化の中で、明治政府が最も早く着手した事業の一つだった。フランス人技師レオン・シスレー(1847-1878)が49キロメートルの道路と「飾磨津物揚場」の両方を設計した。建設は1873年に始まり1876年に終わった。

1894年までに日本のインフラは、北部の鉱山からの産物が鉄道で輸送されるに至るまで整備され、飾磨津物揚場はもはや必要とされなくなった。浅田化学工業はそれを政府から買い取り、今では工場として利用している。元の埠頭に残っているのは、レンガ造りの建物を構成する壁の一部である。

007-005

日本遺産「銀の馬車道・鉱石の道」推進協議会

【タイトル】 馬車道修築碑

【想定媒体】 案内板

---

<韓国語>

이 비석은 1876년 ‘이쿠노 광산료 마차길’(현재의 ‘은의 마차길’)의 완공을 기념해 세워졌습니다. 도로는 효고현 북부의 이쿠노 은광과 ‘시카마쓰 물양장(현재의 히메지항의 일부)’을 이어주었습니다. 1865년 사쓰마(현재의 가고시마현)의 영국 유학생 대표단의 한 사람인 아사쿠라 모리아키(1843-1925년)와 프랑스인 기사 레옹 시슬레(1847-1878년)가 3년에 걸쳐 완성했습니다. 49km에 달하는 마차길에 20개 이상 다리를 건설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그 중 가장 어려웠던 것은 야부타 다리인데 건설을 끝내고 나서 이쿠노 다리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이 비는 새로운 도로 완공의 가장 큰 난점을 기념하기 위해 다리 근처에 세워졌습니다.

007-005

---

<日本語仮訳>

この石でできた記念碑は 1876 年の「生野鉱山寮馬車道」(現在の「銀の馬車道」)の完成を祝うものである。道路は兵庫県北部の生野銀山と「飾磨津物揚場(現姫路港の一部)」を結んでいた。1865年の薩摩(現在の鹿児島県)のイギリス留学生代表団の一人朝倉盛明(1843-1925)とフランス人技師レオン・シスレー(1847-1878)が3年を掛けて完成させた。49キロメートルに及ぶ馬車道に20以上架けられている橋の建設は困難を要した。これらの橋で最も難しかったのは藪田橋で、建設が終了したときに生野橋と改名された。この記念碑は新しい道路完成の最大の難所を記念するため近くに建てられた。

【タイトル】 三木家住宅

【想定媒体】 案内板

**<韓国語>**

미키 가문 주택은 후쿠사키의 저명한 오조야(에도시대의 지방관리)의 저택이자 정치의 장이기도 했습니다. 부지 내에 처음 세워진 건축물은 1697 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단계적으로 건축이 계속되었습니다. 1874 년, 새롭게 ‘이쿠노 광산료 마차길’(현재의 ‘은의 마차길’) 건설이 시작되자 집 앞의 땅이 1.8m 후퇴하게 되면서 정면 현관과 남쪽 담장이 신설되었습니다.

훗날 ‘일본 민속학의 아버지’가 되는 학자 야나기타 구니오(1875-1962 년)는 아직 어렸던 1885 년에 이 저택에 맡겨졌습니다. 당시 11 살이었던 야나기타 구니오는 미키 가문의 장서를 폭넓게 읽었는데, 이 경험은 그 후 그의 탐구심에 크게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1972 년 미키 가문 주택은 효고현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2010 년부터 2016 년까지 실시된 대규모 개수 때는 최대한 본래의 자재를 재이용해 안채를 복원했습니다.

**<日本語仮訳>**

三木家住宅は福崎の名高い大庄屋の家であり政治を行う場所であった。その敷地内で最初に建てられた建造物は 1697 年にさかのぼり、段階的に建築が続いた。1874 年、新しい「生野鉱山寮馬車道」(現在の「銀の馬車道」)の建設が始まると、家の前の土地が 1.8メートル引き下がることとなり、そのため新しい正面玄関と南側の塀が必要となった。

のちに「日本民俗学の父」となる学者・柳田国男(1875-1962 年)は、まだ幼かった 1885 年にこの邸宅に預けられた。当時 11 歳だった彼は三木家の蔵書を幅広く読み、それが彼の将来の探求への大きな影響を与える経験となった。

1972 年、三木家住宅は兵庫県の重要文化財に指定された。2010 年から 2016 年にかけての大きな改築はできるだけ多くの元の材料を再利用し、主屋が復元された。

【タイトル】 三木家住宅

【想定媒体】 WEB サイト

**<韓国語>**

미키 가문 주택은 1655 년에 후쿠사키로 이주한 저명한 오조야(에도시대의 지방관리)인 미키 가문의 저택이었습니다. 저택 건축은 1697 년에 시작되었으며, 메이지 시대(1868-1912 년) 초기까지 단계적으로 증설되었습니다. 1874 년, 새로운 '이쿠노 광산로 마차길'(현재의 '은의 마차길')을 조성하면서 그들의 소유지는 1.8m 뒤쪽으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학문에 인연이 깊은 가문으로 알려져 있던 미키 가문은 이곳에 맡겨진 어린 야나기타 구니오(1875-1962 년)에게는 이상적인 곳이었습니다. 야나기타 구니오는 이 저택에서 미키 가문의 장서를 읽으며 1 년을 보냈습니다. 이 경험은 후에 '일본 민속학의 아버지'로서 활약하는 그의 탐구심에 자극을 주었습니다.

1972 년 미키 가문 주택은 효고현의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2004 년에는 미키 가문의 11 대 당주가 후쿠사키초에 기부했습니다. 안채의 개수가 시작되어 2016 년에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현내에서 가장 보존 상태가 좋은 에도시대(1603-1867 년) 가옥 중 하나입니다.

**<日本語仮訳>**

三木家住宅は、1655年に福崎に移り住んだ名高い大庄屋の三木家の邸宅だった。彼らの住まいの建築は1697年に始まり、明治時代(1868-1912)初期まで段階的に続いた。1874年に彼らの所有地が新しい「生野鉱山寮馬車道」(現在の「銀の馬車道」)を造るために1.8メートル後方に移動させられた。

学問に縁の深い家として知られていた三木家は、幼い柳田国男(1875-1962年)にとって理想的な預け先だった。柳田国男はその屋敷で彼らの蔵書を読んで1年過ごした。この経験のおかげで「日本の民俗学の父」として彼の将来の探求心が鼓舞されることになった。

1972年、三木家住宅は県の重要文化財に指定され、2004年には三木家の11代目当主がそれを福崎町に寄付した。主屋の改修が始まり2016年に完成された。今では県で最もよく保存された江戸時代(1603-1867)の屋敷の一つとなっている。

【タイトル】 三木家住宅

【想定媒体】 パンフレット

**<韓国語>**

미키 가문 주택은 1655년 후쿠사키로 이주한 오조야(에도시대의 지방관리)의 저택이었습니다. 저택의 가장 오래된 부분은 1697년에 세워졌으며, 이후 20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증축되었습니다. 1874년 새롭게 ‘이쿠노 광산로 마차길’(현재의 ‘은의 마차길’)을 부설하면서 정문과 남쪽 벽이 이전되었습니다.

저택은 다양한 안전대책을 강구해 지어졌는데, 예를 들어 미닫이문에 있는 나무 열쇠, 칼을 휘두르는 것을 방지하는 낮은 천장, 파수꾼이 긴박한 집회를 감시하기 위해 낸 많은 구멍 등이 있었습니다. 1871년 메이지 정부의 정책 변경에 반대하는 지역민들이 저택을 습격했고, 이 때 생긴 칼자국이 지금도 응접실인 오모테자시키 ‘가미노마’의 기둥과 뒷마루에 남아있습니다.

1972년 미키 가문 주택은 효고현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대규모 보수가 실시되었으며 최대한 본래의 자재를 재이용해 안채를 복원했습니다.

**<日本語仮訳>**

三木家住宅は1655年に福崎に移り住んだ大庄屋の住まいであった。屋敷の最も古い部分は1697年に建てられ、建築は次の200年にわたり段階的に続いた。1874年に正門と南側の壁は、新しい「生野鉱山寮馬車道」(現在の「銀の馬車道」)の建設をするために移転された。

その屋敷はさまざまな安全性を持って建てられた、例えば引き戸にある木製の鍵、刀を振り回すのを防ぐ低い天井、見張りの者が緊迫した集會を監視するための多くののぞき穴があった。1871年、明治政府の政策変更に対抗する地元民が屋敷を襲い、その際にできた切り傷が今も表座敷「かみのま」の柱や縁側に残されている。

1972年、三木家住宅は兵庫県の重要文化財に指定された。2010年から2016年にかけて、大規模な修復が行われ、できるだけ多くの元の材料を再利用して、主屋は以前の状態に復元された。

007-009

日本遺産「銀の馬車道・鉱石の道」推進協議会

【タイトル】 三木家住宅

【想定媒体】 WEB サイト

---

<韓国語>

쓰지카와마치는 유명한 일본의 학자인 민속학자 야나기타 구니오(1875-1962년)의 출생지입니다. 그가 유소년기를 보낸 집은 현재 후쿠사키시가 소유하고 있으며,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야나기타는 각지의 민간 전승 연구에서 특히 '요괴'에 관한 전설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쓰지카와야마 공원에는 많은 요괴상과 두 개의 움직이는 요괴 명소가 있습니다. 명소에서는 15분마다 갓과(강에 사는 요괴)가 연못에서 나오고 몇 분 후에는 날개 달린 '덴구'가 작은 탑에서 튀어나옵니다. 공원 내에는 각 요괴상에 대한 해설과 그 요괴와 관련된 이야기를 기재한 간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007-009

---

<日本語仮訳>

辻川町は有名な日本の学者で民俗学者であった柳田国男(1875-1962)の生誕地である。彼の幼少の頃の家は今、福崎市によって所有され、一般に公開されている。

柳田は各地の民間伝承の研究において、特に「妖怪」に関する伝説に強い興味を示した。従って、近所にある辻川山公園にはたくさんの「妖怪」の像と二つの動く「妖怪」のアトラクションがある。15分ごとに河童(川に住む妖怪)が池から出てきて、数分後翼を持つ「天狗」が小さな塔から飛び出す。公園内には各像の解説と、その妖怪にまつわる物語を記載した看板が設置されている。

【タイトル】 屋形町

【想定媒体】 案内板

**<韓国語>**

자료에 따르면 효고 북부에서 은 채굴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1,000년 전부터로 807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도 합니다. 야카타마치는 북부의 광산과 히메지의 항구를 오가는 여행자들의 역참 마을로 1800년대까지 번창했습니다. 에도시대(1603-1867년)에 이 마을은 막부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광산에서 채굴된 은은 주로 무사의 경호를 받은 수송인에 의해 도보로 수송되었습니다. 은은 중요했기 때문에 막부의 관리들은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종종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1876년 메이지 정부는 이쿠노 광산과 히메지의 시카마항을 연결하는 도로의 근대화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머캐덤 공법을 채용한 ‘이쿠노 광산로 마차길’(현재의 ‘은의 마차길’)은 마차를 이용한 은 수송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전성기에는 야카타마치에 9곳의 하타고(여관)가 있었습니다. 그중 2곳은 ‘고요야도’라고 불리는 정부 관리용 숙소이며, 남은 7곳은 ‘잇판야도’라고 불리는 일반인을 위한 숙소였습니다. 그 외에 술집이 6곳, 대부업체가 3곳,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다양한 상점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역참 마을이었던 시절의 건물은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 마을을 통과하는 옛길을 따라 걸어볼 수 있습니다.

007-010

**<日本語仮訳>**

資料によると、兵庫北部で銀の発掘が行われるようになったのは、1,000年前のことで、807年にまでさかのぼるともいわれる。屋形町は北部の鉱山と姫路の港とを行き交う旅人たちの宿場町として1800年代まで栄えていた。江戸時代(1603-1867), この町は幕府の支配下にあった。鉱山から採取される銀は主に、武士に警護された運び人足によって徒歩で輸送されていた。銀は重要であったため、政府役人はその安全性を確認するためしばしば町を訪れた。1876年、明治新政府によって生野鉱山と姫路の飾磨港とを結ぶ道路を近代化させる計画が立ち上がった。彼らは「生野鉱山寮馬車道」(現在の「銀の馬車道」)を建設し、マカダム工法の道路が馬車による銀の輸送を可能にした。

最盛期には屋形町に9軒の旅館があった。2軒は「御用宿」と呼ばれる政府役人のため、そして7軒は「一般宿」と呼ばれる一般人のためのものだった。また町には酒屋が6軒と金貸しが3軒、日用品を売るさまざまな店があった。宿場町の当時の建物は今日ではほとんど残っていないが、訪問すると今も町を通り抜ける旧道路のコースをたどることができる。

007-011

日本遺産「銀の馬車道・鉱石の道」推進協議会

【タイトル】 屋形町

【想定媒体】 パンフレット

---

<韓国語>

야카타마치는 북쪽의 광산과 히메지의 항구를 연결하는 길가에 있는 역참 마을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876년 이쿠노 광산료 마차길(현재의 '은의 마차길')이 부설되면서 이 마을은 휴식 장소로 변창했습니다. 역사적인 건축물은 현재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 마을 거리는 일본유산의 구성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007-011

---

<日本語仮訳>

屋形町は北部の鉱山と姫路の港の間にある重要な宿場町の役割を果たしていた。「生野鉱山寮馬車道」(現在の「銀の馬車道」)が1876年に建設されたとき, 屋形町は主要な休憩地であった。歴史的建造物は今日ではほとんど残っていないが, その街並みは日本遺産の構成文化財となっている。



【タイトル】 屋形町

【想定媒体】 WEB サイト

**<韓国語>**

효고 북부에 있는 광산과 히메지의 항구 사이에 위치한 야카타마치는 여행자들에게 중요한 역참 마을이었습니다. 에도시대(1603-1867년)에는 광산에서 채굴된 은은 주로 도보로 수송되었는데, 은은 당시 정부의 중요한 수입원이었기 때문에 관리들은 안전 확인을 위해 자주 야카타마치를 방문했습니다. 1868년 메이지 유신 후 메이지 정부는 한시라도 빨리 근대화를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일본과 프랑스의 기술자들은 마차로 은을 수송하기 위한 근대적인 도로 건설 임무를 맡게 되었으며, 1876년 ‘이쿠노 광산료 마차길’(현재의 ‘은의 마차길’)이 완공되었습니다.

마차길을 따라 가장 번창한 역참 마을이었던 야카타마치는 전성기에는 하타고(여관)가 9곳, 술집이 6곳, 대부업체가 3곳, 그리고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다양한 상점이 있었습니다. 역참 마을로 번창했던 당시의 건물은 남아있지 않지만, 지금도 옛 마차길을 따라 걸어볼 수 있습니다.

**<日本語仮訳>**

屋形町は兵庫の北部にある鉱山と姫路の港の間に位置し、旅人にとっては重要な宿場町であった。江戸時代(1603-1867)には、鉱山から採取される銀は主に徒歩で輸送されていた。政府の収入源として銀は重要であったため、役人はその安全性を確認するためにしばしば屋形町を訪れていた。1868年の明治維新後に、明治政府はできるだけ早く国を近代化させたかった。馬車で銀の輸送ができるような近代的な道路の建設がフランス人と日本人の技師たちに課されていた。1876年、「生野鉱山寮馬車道」(現在の「銀の馬車道」)が完成した。

道路沿いで最も栄えた宿場町として、その最盛期には屋形町に9軒の旅館、酒屋が6軒、金貸しが3軒、そして日用品を売るさまざまな店があった。宿場町の当時の建物はほとんど残っていないが、訪問者は今でも旧道路の経路をたどることができる。

007-013

日本遺産「銀の馬車道・鉱石の道」推進協議会

【タイトル】 栗賀町

【想定媒体】 案内板

---

<韓国語>

나카무라·아와가마치는 북부의 광산과 히메지의 항구를 연결하는 도로에 있는 역참 마을이었습니다. 전성기에는 두 마을을 통틀어 40 곳 이상의 상점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거상이었던 다케우치 가문 주택과 난바주조 양조장, 이 두 개의 에도시대(1603-1867년) 건축물이 현재도 남아있습니다. 1876년 ‘이쿠노 광산료 마차길’(현재의 ‘은의 마차길’)이 건설된 후에도 나카무라·아와가마치는 마차길 도로변에 위치한 주요한 역참 마을로 번창했습니다. 1894년 이쿠노 광산에서 나온 은의 수송 및 효고현 내륙부와 히메지를 연결하기 위해 반탄철도가 개통되었습니다. 승객은 쓰루이역에서 마차를 타고 ‘아와가의 역참(우마야)’에서 마차를 갈아탔습니다.

007-013

---

<日本語仮訳>

中村・栗賀町は北部の鉱山と姫路の港を結ぶ道路にある宿場町であった。最盛期には両町合わせて40軒以上の店があった。江戸時代(1603-1867)にさかのぼる二つの建物が今もたっている。それらは裕福な商人の竹内家住宅と難波酒造の酒蔵である。「生野鉱山寮馬車道」(現在の「銀の馬車道」)が1876年に建設されたとき、中村・栗賀町は途中の重要な宿場町として残っていた。1894年に、生野鉱山から銀を輸送するため播但鉄道が作られた。旅行者は鶴居駅から馬車に乗り、「栗賀の驛(うまや)」で馬車を乗り替えた。

【タイトル】 粟賀町

【想定媒体】パンフレット

**<韓国語>**

에도시대(1603-1867년)부터 메이지 시대(1868-1912년)에 걸쳐 나카무라·아와가마치는 북부의 광산과 히메지의 항구 사이를 여행하는 사람들의 역참 마을로서 번창했으며, 전성기에는 40 곳이 넘는 상점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1876년에 개량된 ‘이쿠노 광산로 마차길’(현재의 ‘은의 마차길’)이 완공되면서 이 지역에서의 이동은 더욱 편하고 신속해졌습니다.

에도시대에 지어진 두 개의 건물인 다케우치 가문 주택과 옛 난바 주조가 현재도 남아있습니다. 마차길의 공민관 벽에는 마치 에도시대처럼 나무판이 사용되었고 지역 쓰레기 집하장은 옛날 창고처럼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또한, 과거 반탄철도 승객이 마차로 갈아타던 ‘아와가의 역참(우마야)’도 역사적으로 흥미로운 곳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센레이차’가 생산되고 있으며, 호지차와 분말차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5월에는 지역 다원에서 찻잎 따기 체험이 진행되며, 마을에 돌아가면 찻잎을 튀김으로 만들어 맛있게 먹을 수도 있습니다.

**<日本語仮訳>**

中村・粟賀町は江戸（1603-1867）から明治時代（1868-1912）にかけ、北部の鉱山町と姫路港の間を行き来する人たちの宿場町の役割を果たしていた。その最盛期には中村・粟賀町には 40 以上の店舗があった。「生野鉱山寮馬車道」（現在の「銀の馬車道」）が 1876 年に完全に改良されたのでその地域を行き来することがより容易で速くなった。

今日、江戸時代からの建物は二つ残っている。竹内家住宅とかつての難波酒造である。馬車道の公民館の壁にはまるで江戸時代のように羽目板が用いられ、地域のごみ集積所は昔の倉庫のようなデザインとなっている。また、かつて播但鉄道の乗客が馬車に乗り換えていた「粟賀の驛（うまや）」も歴史的に興味深い。

この地域では「仙霊茶」の生産が行われており、ほうじ茶や粉茶として販売されている。5 月には訪問者は地元の茶畑で茶葉を摘むことができ、それから町に戻り天ぷらの衣をつけて揚げ、おいしいおやつにすることができる。

007-015

日本遺産「銀の馬車道・鉱石の道」推進協議会

【タイトル】 栗賀町

【想定媒体】 WEB サイト

---

<韓国語>

역참 마을이었던 나카무라·아와가마치는 북부의 광산에서 히메지의 항구로 통하는 길에 있던 휴식처 역할을 했습니다. 전성기에는 40 곳 이상의 상점이 늘어서 있던 두 마을은 마차길을 대표하는 역참 마을 중 하나였습니다. 메이지 시대 (1867-1912 년) 초기 1876 년에 ‘이쿠노 광산료 마차길’(현재의 ‘은의 마차길’)이 완공되자 이 지역의 왕래는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현재도 다케우치 가문 주택과 옛 난바 주조, 이 두 개의 에도시대(1603-1867 년) 건물이 남아있습니다. 반탄철도 승객이 마차로 갈아타던 예전의 ‘아와가의 역참(우마야)’ 옆에 있는 민가는 개축되어 관광안내소가 되었습니다.

007-015

---

<日本語仮訳>

宿場町である中村・栗賀町は、北部の鉱山から姫路港に通ずる経路沿いの休憩地の役を果たしていた。その最盛期には 40 以上の店を構え、中村・栗賀町はその経路で最大の宿場町の一つであった。その地域での往来は、明治時代 (1868-1912) 初期の 1876 年に「生野鉱山寮馬車道」(現在の「銀の馬車道」) が完成したので改善された。

今日では、江戸時代 (1603-1867) からの建物が二つ残っている。竹内家住宅と以前の難波酒造である。播但鉄道の乗客が馬車に乗り換えた、かつての「栗賀の驛 (うまや)」の隣の民家は、改築されて観光案内所となっている。

007-016

日本遺産「銀の馬車道・鉱石の道」推進協議会

【タイトル】 竹内家住宅

【想定媒体】 案内板

---

<韓国語>

다케우치 가문은 에도시대(1603-1867년) 말기에 아와가마치에 저택을 지은 상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직접 생산한 차와 간장, 술 등 다양한 상품을 취급했습니다. '센레이차'로 알려진 녹차의 도매업자로서 아득히 먼 교토에서까지 호평을 받았습니다. 센레이차는 지금도 이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센레이차를 이용해 만든 과자도 인기가 많습니다.

그 당시 상인 집안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다케우치 가문은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있는 방을 점포로 사용했습니다. 저택 뒤편에는 4개의 창고가 세워져 있었는데, 현재는 하나만 남아있습니다. 불단은 저택 중앙의 방에 놓여있습니다.

007-016

---

<日本語仮訳>

竹内家は江戸時代(1603-1867)の終わりに粟賀町に屋敷を建てた商人だった。彼らはお茶、醤油、酒などさまざまなものを取り扱い、それらは自分たちで生産していた。「仙霊茶」として知られる緑茶の卸売業者として、はるか京都まで称賛を得ていた。仙霊茶はいまでも地元で生産されており、また、仙霊茶を使って作られたお菓子も人気が高い。

当時の商人には普通にあるように、竹内家は玄関に入ってすぐの部屋を店先として使っていた。屋敷の裏には4つの倉があったが、今日では一つしか残っていない。仏壇が家の中心に安置されている。

007-017

日本遺産「銀の馬車道・鉱石の道」推進協議会

【タイトル】 竹内家住宅

【想定媒体】 パンフレット

---

<韓国語>

다케우치 가문 주택은 에도시대(1603-1867년)부터 남아있는 아와가마치의 두 개의 건물 중 하나입니다. 다케우치 가문은 거상이자 지역 명사였습니다. 저택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있는 방은 차와 간장, 술 등의 상품을 판매하는 점포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저택 뒤쪽에는 예전에는 4 개의 창고가 있었는데, 현재는 하나만 남아있습니다. '센레이차'로 알려진 희귀한 차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 차는 지역특산품으로 현재도 생산되고 있으며, 센레이차를 이용해 만든 과자도 인기가 많습니다.

007-017

---

<日本語仮訳>

竹内家住宅は江戸時代（1603-1867）から残存する粟賀町の二つの建物のうちの一つである。竹内家は豪商で地元の名士であった。屋敷の玄関を入ってすぐの部屋は、茶、醤油、酒などの商品を売る店舗として使われていた。屋敷の裏には今では一つしかないのだが、製品を保管する4つの倉がたっていた。「仙霊茶」として知られている特別な種類のお茶を売っていた。今日でも地元の特産品として「仙霊茶」という緑茶を生産し続けており、また、仙霊茶を使って作られたお菓子も人気が高い。

007-018

日本遺産「銀の馬車道・鉱石の道」推進協議会

【タイトル】 竹内家住宅

【想定媒体】 WEB サイト

---

<韓国語>

다케우치 가문 주택은 에도시대(1603-1867년) 말기에 아와가마치에 집을 지은 거상 일가이자 지역 명사이기도 했습니다. 이 저택은 마을에 에도시대부터 남아있는 두 개의 건물 중 하나입니다. 저택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있는 방은 차와 간장, 술 등의 상품을 판매하는 점포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센레이차’라고 불리는 녹차는 명물 상품으로 교토의 어떤 절에도 전해져 평판이 자자했습니다. 이 센레이차는 지금도 이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센레이차를 이용해 만든 과자도 인기가 많습니다. 저택 뒤쪽에는 상품을 보관하기 위한 4개의 창고가 늘어서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만 남아있습니다. 에도시대의 관습에 따라 집 중앙에 있는 방에 불상이나 위패를 모시고 있습니다.

007-018

---

<日本語仮訳>

竹内家住宅は江戸時代(1603-1867)の終わりに栗賀町に家を建てた一家で豪商であった。彼らは地元の名士でもあった。その邸宅は江戸時代から残存している、地域にある2軒の建物の一つである。屋敷の玄関を入ってすぐの部屋は、茶、醤油、酒などの商品を売る店先として使われていた。「仙霊茶」は特産品で、京都のとある寺にも届けられ、評判となった。この仙霊茶はいまでも地元で生産されており、また、仙霊茶を使って作られたお菓子も人気が高い。屋敷の裏には商品のための4つの倉があったが今では一つしか残っていない。江戸時代の習慣で、家の中央にある部屋が仏間となっている。

007-019

日本遺産「銀の馬車道・鉱石の道」推進協議会

【タイトル】 生野鉱山関連遺構（生野鉱山及び鉱山町の文化的景観）

【想定媒体】 案内板

---

<韓国語>

구전에 따르면 이쿠노 광산의 채굴은 807 년에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쿠노 광산은 예전에는 일본 굴지의 채굴량을 자랑하는 은광이었습니다. 1868 년 메이지 정부는 다이너마이트와 아말감 제련법 등 당시의 최신 기술을 투입했으며, 근대화 촉진을 위해 이쿠노 광산을 모델 광산으로 지정했습니다. 광산의 근대화를 위해 광산 전문가인 장 프랑수아 쿠아네(1835-1902 년)를 필두로 한 프랑스인 기사들이 고용되었습니다. 기사 중 한 명인 레옹 시슬레(1847-1878 년)가 이쿠노 광산과 히메지의 시카마항을 연결하는 새로운 터캐덤 공법의 도로를 설계했습니다. '이쿠노 광산로 마차길'(현재의 '은의 마차길')은 1876 년에 완공되었으며 마차로 인해 자재 운송이 현격히 빨라졌습니다. 프랑스인 기사들의 통역사였던 아사쿠라 모리아키(1843-1924 년)는 후에 이쿠노 광산의 초대 광산국장이 되었습니다.

1896 년 일본 정부는 이쿠노 광산을 미쓰비시 합자회사에 매각했고, 1973 년 폐광 때까지 조업을 이어갔습니다. 폐광된 이듬해 하나의 갱도가 관광용으로 정비되었으며, 내부에는 'GINZAN BOYZ' 라고 불리는 마네킹과 함께 채굴 작업 모습과 도구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관광 갱도의 출입구 부근에는 인포메이션 센터와 에도시대(1603-1867 년)의 제련 과정을 설명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쿠노 광산 관련 유구(이쿠노 광산 및 광산촌의 문화적 경관)는 국가 선정 중요 문화적 경관입니다.

007-019

---

<日本語仮訳>

口伝によると生野での採掘は 807 年に始まったと伝わる。日本屈指の採掘量を誇る銀山であった。1868 年明治政府はダイナマイトやアマルガム製錬法など、当時の最新技術を投入し、近代化を進めるモデル鉱山として生野を選択した。鉱山の専門家であるジャン・フランソワ・コワニエ(1835-1902)を筆頭にフランス人技師が鉱山を近代化するために雇われた。もう一人のフランス人レオン・シスレー(1847-1878)は生野鉱山と姫路の飾磨港を結ぶ新しいマカダム工法の道路を設計した。「生野鉱山寮馬車道」(現在の「銀の馬車道」)が 1876 年に完成し、馬車による資材の輸送がはるかに速くなった。朝倉盛明(1843-1924)はフランス人技師たちの通訳者として活躍し、のちに生野鉱山の初代鉱山局長になった。1896 年に、政府は生野鉱山を三菱合資会社に売却し、1973 年の閉山まで操業を続けた。その翌年鉱山の一つの坑道が観光用に整備された。採掘の道具や親しみを込めて「GINZAN BOYZ」と呼ばれる多くの鉱夫や作業員のマネキンを展示している。観光坑道の出入り口付近にはインフォメーションセンターと江戸時代(1603-1867)の製錬過程を説明する施設がある。

生野鉱山関連遺構（生野鉱山及び鉱山町の文化的景観）は国選定重要文化的景観である。



007-020

日本遺産「銀の馬車道・鉱石の道」推進協議会

【タイトル】 生野鉱山関連遺構（生野鉱山及び鉱山町の文化的景観）

【想定媒体】 WEB サイト

---

<韓国語>

이쿠노 은광은 일본 굴지의 채굴량을 자랑하는 광산이었습니다. 이곳은 메이지 정부가 1868년 프랑스인 기사들의 지원을 받아 근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선정한 최초의 국영 광산입니다. 광산에서 히메지의 항구를 향해 남쪽으로 달리는 ‘이쿠노 광산료 마차길’(현재의 ‘은의 마차길’)은 1876년에 완공되었으며, 이쿠노는 일본의 산업 근대화를 상징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1,000년 이상의 채굴 끝에 이쿠노 광산은 1973년에 폐광되었습니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방문객들이 광산의 역사와 다양한 시대의 채굴 기술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옛 갱도 안에 전시물이 설치되었습니다. 갱도의 출입구 부근에는 인포메이션 센터와 에도시대(1603-1867년)의 제련 과정을 보여주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쿠노 광산 관련 유구(이쿠노 광산 및 광산촌의 문화적 경관)는 국가 선정 중요 문화적 경관입니다.

007-020

---

<日本語仮訳>

生野銀山は日本屈指の銀採掘量を誇る鉱山であった。1868年、フランス人技師たちの援助を受けて近代化を進める明治政府に選ばれた最初の官営鉱山である。南へ姫路の港に走る「生野鉱山寮馬車道」(現在の「銀の馬車道」)は1876年に完成し、生野は日本の産業が近代化へと突き進む象徴となった。

生野鉱山は1,000年以上にわたり採掘が続けられたのち、1973年に閉鎖された。その後まもなく、来訪者が鉱山の歴史とさまざまな時代の採掘技術について学べるように、旧坑道内に展示物が設置された。坑道の出入り口付近にはインフォメーションセンターともう一つ江戸時代(1603-1867)の製錬過程を示す建物がある。

生野鉱山関連遺構(生野鉱山及び鉱山町の文化的景観)は国選定重要文化的景観である。

【タイトル】 生野鉱山町（生野鉱山及び鉱山町の文化的景観）

【想定媒体】 案内板

**<韓国語>**

이쿠노 광산 관련 유구(이쿠노 광산 및 광산촌의 문화적 경관)는 국가 선정 중요 문화적 경관입니다.

이쿠노 광산촌은 이치카와강을 따라 약 7km에 걸쳐 펼쳐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광산에서 마을로 강을 따라 철도가 운행되었지만, 오늘날에는 옛 선로의 일부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히메미야 다리 위에서는 남겨진 선로 외에도 마을과 강의 아름다운 전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쿠노의 중심부에는 1874년에 세워진 제련 공장이 있으며, 현재도 주석 제련 공장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 마을은 지금도 일본에서 유일한 주석 제련과 희소금속 재활용 등 광공업이 이뤄지고 있으며, 일본에서 유일하게 중세부터 근현대까지의 광공업 기술사 및 광산 도시사의 변천을 이해할 수 있는 광공업 도시 경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구치가나야(口銀谷)’라고 불리는 마을 중심부에는 다양한 시대에 지어진 저택과 건물이 있으며, 그중에는 에도시대(1603-1867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즈쓰야’로 알려진 에도시대에 이쿠노 광산의 일부를 경영했던 깃카와 가문의 저택 중 하나입니다. 깃카와 저택은 1999년에 시에 기증되었으며 현재는 마을의 역사를 말해주는 흥미로운 자료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저택은 1999년에 기부되었으며 마을의 역사를 잘 알 수 있는 흥미로운 자료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시무라 다카시 기념관에는 메이지 정부가 직원들을 위해 지은 집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메이지(1868-1912년), 다이쇼(1913-1926년), 쇼와(1926-1989년) 시대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으며, 당시의 가구와 가전제품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日本語仮訳>**

生野鉱山関連遺構（生野鉱山及び鉱山町の文化的景観）は国選定重要文化的景観である。

生野鉱山町は市川沿いにおよそ7キロメートルに及んでいる。かつては、鉄道が鉱山から川沿いに町まで通っていたが、今日では昔の線路の一部しか残っていない。その一部は今でも姫宮橋の上から見ることができ、川や町の素晴らしい景観を眺めることができる。生野の中心には1874年に建てられた製錬工場が建っていて、現在も錫の製錬を行っている。この町はいまなお日本唯一の錫製錬や、レアメタルリサイクルなどの鉱工業が営まれており、また、日本で唯一、中世から近現代までの鉱工業技術史及び鉱山都市史の変遷を理解することができる鉱工業都市景観が維持されている。

「口銀谷（くちがなや）」と呼ばれる町の中心部には、さまざまな時代の屋敷や建物が多く集まっている。江戸時代(1603-1867)にまでさかのぼるものもある。その一つに「井筒屋」として知られる吉川家の屋敷がある。吉川家は江戸時代に生野鉱山の一部を経営していた。屋敷は1999年に寄付され、町の歴史がよくわかる興味深い資料を展示している。志村喬記念館には明治政府により、従業員のために建てられた家々が展示されている。これらは明治(1868-1912)、大正(1913-1926)、昭和(1926-1989)期の様子を再現し、さらにそれらの時代の家具や家電製品も展示されている。

【タイトル】 生野鉱山町（生野鉱山及び鉱山町の文化的景観）

【想定媒体】 WEB サイト

**<韓国語>**

이쿠노 광산 관련 유구(이쿠노 광산 및 광산촌의 문화적 경관)는 국가 선정 중요 문화적 경관입니다.

이쿠노 광산촌은 이치카와강을 따라 약 7km 에 걸쳐 뻗어있습니다. 히메미야 다리에서는 강 건너에 있는 다양한 시대에 지어진 주거지와 건물을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는 에도시대(1603-1867 년)에 지어진 것도 있으며, 가장 오래된 저택 중 4 채가 리모델링되어 무료로 일반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시무라 다카시 기념관은 메이지(1868-1912 년), 다이쇼(1913-1926 년), 쇼와(1926-1989 년) 시대의 이쿠노 광산 직원들을 위해 지어진 집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하야시라이스’는 지역 명물로 비프스튜를 밥에 얹은 요리입니다. 이쿠노 광산에 거주하며 일한 프랑스인 기사들을 시작으로 이쿠노는 서양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日本語仮訳>**

生野鉱山関連遺構（生野鉱山及び鉱山町の文化的景観）は国選定重要文化的景観である。

生野鉱山町は市川沿いにおよそ7キロメートルに伸びている。姫宮橋からは、川の向こうに様々な時代に建てられた住居や建物を見ることができる。その内のいくつかは江戸時代(1603-1867)までさかのぼる。最も古い屋敷のうち4軒は改装され来訪者に無料で開放されている。志村喬記念館は明治(1868-1912), 大正(1913-1926), 昭和(1926-1989)期の生野鉱山の従業員のために建てられた家々を展示している。「ハヤシライス」は地元の名物で、ビーフシチューをごはんにかけた料理だ。フランス人技師が生野鉱山に住み、働いていた時代から、西洋文化の影響を大きく受けた町である。

【タイトル】 神子畑鑄鉄橋・羽淵鑄鉄橋

【想定媒体】 案内板

**<韓国語>**

미코바타 주철교와 하부치 주철교는 ‘광석의 길’ 중간에 놓인 다리로 1883 년에 건설이 시작되어 각각 1885 년, 1887 년에 완공되었습니다. ‘광석의 길’은 아케노베와 미코바타 등의 광산촌에서 채굴, 선광된 광물을 이쿠노로 운반하기 위해 만들어진 길입니다. 채굴 기술의 향상으로 수송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가장 내구성이 있고 광물의 중량을 견딜 수 있는 소재인 주철로 다리를 제작했습니다.

미코바타 주철교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전체가 주철로 제작된 다리이며, 철제 다리로는 3 번째로 오래된 다리입니다. 다리는 에펠탑보다 이전에 세워졌지만 비슷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프랑스인 설계자의 지도하에 일본인 기사가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요코스카 제철소에서 주조된 부품은 ‘은의 마차길’을 통해 운반되어 현지에서 조립되었습니다.

원래 미코바타 주철교와 하부치 주철교는 모두 마루야마강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1995 년 태풍 피해를 입어 수리가 필요했고, 홍수 방지를 위해 하천 확장공사가 진행되면서 하부치 주철교는 이축되었습니다. 미코바타 주철교는 원래 자리에 남아있으며, 1977 년 국가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日本語仮訳>**

子畑鑄鉄橋と羽淵鑄鉄橋は「鉱石の道」の道中に架かる橋で、1883年に建設が開始され、それぞれ 1885年, 1887年に完成した。「鉱石の道」は鉱山町である明延, 神子畑で採掘, 選鉱された鉱物を生野に運ぶために作られたものである。「鉱石の道」に架かる橋は, 採掘技術の向上から, 輸送量が増えることが予想されたため, 鉱物の重量にも耐える最も耐久性のある材料として鑄鉄によって作られた。

神子畑鑄鉄橋は日本最古の全鑄鉄の橋であり, 鉄製の橋としては3番目に古いものである。橋はエッフェル塔よりも前に建てられたが, 似たデザインをしている。これは, フランス人設計者の指導の下, 日本人技師が設計したためだ。横須賀製鉄所で鑄造されたのち, 「銀の馬車道」を使って運ばれ, 現場で組み立てられた。

元々, 神子畑鑄鉄橋と羽淵鑄鉄橋は共に円山川に架かっていた。しかし, 1995年の台風によって被害を受け修理が必要となったこと, 加えて洪水防止のために河川の拡張工事が行われたことから, 羽淵鑄鉄橋は移築された。神子畑鑄鉄橋は元の場所に残っており, 1977年国の重要文化財に指定された。

【タイトル】 神子畑鑄鉄橋・羽淵鑄鉄橋

【想定媒体】 WEB サイト

**<韓国語>**

미코바타 주철교와 하부치 주철교는 각각 1885년, 1887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아케노베와 미코바타에서 채굴 및 선광된 광물을 이쿠노로 운반하기 위해 만들어진 '광석의 길' 중간에 있는 하천에 놓인 이 다리들은, 채굴 기술의 향상으로 수송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광물의 중량을 견딜 수 있도록 주철로 제작되었습니다. 미코바타 주철교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전체가 주철로 제작된 다리이며, 철제 다리로는 3번째로 오래된 다리입니다. 원래 '광석의 길'에는 5개의 다리가 놓여있었지만, 지금은 미코바타 주철교와 하부치 주철교만 남아있습니다.

1995년 태풍 피해를 입어 수리가 필요했고, 홍수 방지를 위해 하천 확장공사가 진행되면서 하부치 주철교는 현재 위치로 이축되었습니다. 그러나 미코바타 주철교는 지금도 같은 자리에 남아있으며, 1977년 국가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日本語仮訳>**

神子畑鑄鉄橋と羽淵鑄鉄橋はそれぞれ 1885年, 1887年に完成した。明延, 神子畑で採掘, 選鉱された鉱物を生野に運ぶために作られた「鉱石の道」において道中の河川に架けられたもので, 採掘技術の向上から, 輸送量が増えることが予想され, かつ鉱物の重量に耐えるために鑄鉄で作られた。神子畑鑄鉄橋は日本で最も古い全鑄鉄の橋で, 鉄製の橋としては3番目に古いものである。元々「鉱石の道」には5つの橋があったが, 神子畑鑄鉄橋と羽淵鑄鉄橋だけが現存している。

1995年の台風によって被害を受け修理が必要となったこと, 加えて洪水を防ぐために河川の拡張工事が行われたことから, 羽淵鑄鉄橋は現在の場所へ移築された。しかし神子畑鑄鉄橋は今も同じ場所にあり, 1977年に国の重要文化財に指定された。

【タイトル】 神子畑選鉱場跡

【想定媒体】 案内板

**<韓国語>**

미코바타의 은 채굴은 1,000 년 이상 전에 시작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15 세기 미코바타는 이쿠노와 함께 본격적인 채굴이 시작되었으며, 이 지역에서 가장 생산량이 높은 광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870 년대 말부터 1890 년대에 걸쳐 생산은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1896 년 광산은 미쓰비시 합자회사에 매각되었습니다. 1909 년 아케노베 광산에서 새로운 광맥이 발견되자 1919 년 현(現) 미쓰비시 머티리얼 주식회사는 미코바타 광산을 폐쇄하고 선광장을 건설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확장공사를 실시해 1949 년에는 동아시아 최대 선광장으로 알려지는 규모가 되었습니다. 아연, 구리, 주석 등의 광석은 아케노베에서 열차로 운반되었습니다.

미코바타 선광장은 험준한 사면에 세워졌습니다. 아케노베에서 운반된 광석은 정상에서 선광장 내부로 보내, 거기에서 부수고 물과 섞어 슬러리(이장)를 만듭니다. 슬러리는 선광을 위한 다양한 공정을 거치면서 경사면을 내려갑니다. 최종 공정에서 수분이 제거되고 광물만 남게 됩니다. 이 최종 공정에 사용된 것이 '시크너' 라고 불리는 거대한 시멘트 깔때기입니다. 공장은 1987 년에 폐쇄된 후 2004 년에 해체되어 콘크리트 건물 기초부와 시크너만 남아있습니다.

007-025

**<日本語仮訳>**

神子畑の銀の採掘は 1,000 年以上前に始まったと伝わる。15 世紀に神子畑は生野とともに本格的な採掘がはじまり, この地域で最も生産高の高い鉱山の一つになった。最も栄えた時期は 1870 年代末から 1890 年代の明治時代前半であった。1896 年に鉱山は三菱合資会社に売却された。1909 年, 明延鉱山にて新しい鉱脈が発見されたことにより 1919 年, 現三菱マテリアル株式会社は神子畑鉱山を閉鎖し, 選鉱場を建設した。以降, 何度も拡張工事を行い, 1949 年には東アジア最大の選鉱場として知られる規模となった。亜鉛, 銅, 錫を含む鉱石は列車で明延から運ばれた。

神子畑選鉱場は険しい斜面に建てられた。明延から運ばれた鉱石は頂上から選鉱場内部に入れられる。そこで砕かれ水と混ぜ合わせスラリー(泥漿)が作られる。スラリーは選鉱のための様々な工程を経ながら, さらに斜面を下っていく。最終工程にて水分が取り除かれ, 鉱物のみが残される。その最終工程に使われたのが「シクナー」と呼ばれる巨大なセメントの漏斗である。工場は 1987 年に閉鎖し, 2004 年に解体されたが, コンクリートの建物基礎部とシクナーだけが残っている。

【タイトル】 神子畑選鉱場跡

【想定媒体】 WEB サイト

**<韓国語>**

미코바타 광산에는 1,000 년이 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인근의 아케노베와 이쿠노의 광산과 함께 미코바타는 수 세기 동안 은과 구리 등을 산출했으며, 19 세기 말 무렵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1909 년 아케노베 광산에서 새 광맥이 발견되자 1919 년 미코바타 광산을 폐쇄하고 새로 선광장을 건설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확장공사를 실시해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선광장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아케노베에서 채굴된 광석은 열차로 미코바타 선광장까지 운반되고, 그곳에서 여러 공정을 거쳐 필요한 광물만 선광됩니다. 선광된 구리, 아연, 주석은 제련을 위해 다른 곳으로 출하되었습니다.

선광장은 1987 년에 폐쇄되었습니다. 건물은 2004 년에 해체되었으며 콘크리트 건물 기초부와 탈수 및 여과를 실시하는 거대한 ‘시크너(시멘트 깔때기)’만 남아있습니다.

**<日本語仮訳>**

神子畑鉱山は 1,000 年以上にわたる歴史がある。近くにある明延と生野の鉱山と共に神子畑は何世紀ものあいだ銀や銅などを産出しており、19 世紀末頃に最盛期を迎えた。1909 年、明延鉱山にて新しい鉱脈が発見されたことにより、1919 年神子畑鉱山を閉鎖し、新たに選鉱場を建設した。以降、何度も拡張工事を行い、東アジアで最大規模の選鉱場として知られるようになった。

明延で採掘された鉱石は、列車で神子畑選鉱場まで運ばれ、そこでさまざまな工程を経て必要な鉱物のみに選鉱される。選鉱された銅、亜鉛、錫は製錬のため他の場所に出荷された。

選鉱場は 1987 年に閉鎖した。建物は 2004 年に解体されたが、コンクリートの建物基礎部とコンクリート基礎と脱水・濾過を行う巨大な「シクナー（セメントの漏斗）」はまだ残っている。

【タイトル】旧神子畑鉱山事務舎（ムーセ旧居）

【想定媒体】案内板

**<韓国語>**

이쿠노의 이 저택은 프랑스인 지질학자이자 기사이기도 했던 에밀 테오필 무세(1845-1895년)를 위해 1872년에 지어졌습니다. 프랑스인 건축가 M. J. 레스카스가 설계했으며, 무세가 이쿠노 광산에서 부지휘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그의 아내와 5명의 자녀가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무세가 귀국한 후 1888년에 미코바타로 이축되어 광산 사무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듬해 궁내청 소유가 되었으며 천황가의 상징인 국화무늬 기와가 지금도 지붕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1987년 미코바타 선광장 폐쇄 후 2004년 옛 무세 저택 자료관이 되었으며, 예전의 선광장 사진과 광석 및 광물의 샘플, 선광장을 설명하는 모형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몇 차례 보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만 지어진 당시와 거의 같은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당시 그대로의 창문과 덧문은 원래의 외관에 맞도록 도장되었으며 1992년에 효고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日本語仮訳>**

この邸宅はフランス人の地質学者であり技師であったエミール・テオフィル・ムーセ(1845-95)のために1872年、生野に建てられた。フランス人建築家の M.J.レスカースにより設計され、生野鉱山で副指揮官として働くあいだ、ムーセ、彼の妻、そして5人の子供が住んでいた。彼の帰国後、1888年に神子畑へ移され、鉱山事務舎として使われた。その翌年宮内省の管轄となり、天皇家の象徴である菊の瓦が今も屋根を飾っている。

1987年の神子畑選鉱場の閉鎖後、2004年にムーセの邸宅は資料館になった。その展示品の中には古い選鉱場の写真、鉱石や鉱物のサンプルや選鉱作業を説明する立体模型がある。建物には何度かの改修が見られるが、建てられた当初とほぼ同じ状態で残っている。元の窓と雨戸は当時のまま、元の外観に合うよう塗装されている。1992年、ムーセの邸宅は兵庫県有形文化財に指定された。



007-028

日本遺産「銀の馬車道・鉱石の道」推進協議会

【タイトル】旧神子畑鉱山事務舎（ムーセ旧居）

【想定媒体】WEB サイト

---

<韓国語>

무세 저택은 프랑스인 기사이자 지질학자였던 에밀 테오피르 무세(1845-1895년)를 위해 1872년 이쿠노에 지어졌습니다. 이쿠노 광산의 기계화 및 근대화의 지원을 담당했던 무세는 임기를 마치자 가족과 함께 프랑스로 귀국했습니다. 1888년 무세 저택은 미코바타로 이축되어 광산 사무소가 되었습니다. 1987년 미코바타 광산이 폐쇄될 때까지 이 건물은 다양한 용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되었습니다.

2004년 무세 저택은 역사적 외관을 복원하기 위해 개축이 이루어져 자료관으로 정비되었습니다. 사진과 입체 모형, 광석 샘플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007-028

---

<日本語仮訳>

ムーセ邸はフランス人の技師であり地質学者であったエミール・テオフィル・ムーセ(1845-1895)のために1872年生野に建てられた。生野鉱山の機械化・近代化を支援する任務を受けており、任期を終えるとムーセと彼の家族はフランスに帰国した。1888年ムーセ邸は神子畑に移転され鉱山事務舎として使われることになった。1987年に神子畑鉱山が閉鎖されるまで、この建物は様々な用途で多くの人に使用された。

2004年、ムーセ邸は歴史的な外観を取り戻すため改築が行われ、資料館として整備された。展示品には、写真、立体模型、鉱石のサンプルなどがある。

【タイトル】 明延鉱山明神電車

【想定媒体】 WEB サイト

---

**<韓国語>**

아케노베 광산 메이신 전차는 아케노베에서 산간지역의 터널을 지나 미코바타 정련공장까지 광석을 운반하기 위한 6km에 걸친 철도로 1929년에 건설되었습니다. 화물열차 외에도 광산 노동자들과 두 마을을 통근하는 사람들을 위해 객차도 운행되었습니다. 객차의 승차 운임은 딱 1엔이었기 때문에 열차는 ‘1엔 전차’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전차는 1945년부터 1985년까지 운행되었습니다. 객차 중 3량이 아케노베 광산 근처에 지금도 전시되어 있으며, 그중 1량은 방문객을 위해 정비되어 새로 건설한 150m의 선로에서 승차할 수 있습니다. 4월에서 11월 사이에 매월 첫 번째 일요일과 여름방학, 골든위크 등 특정일에 승차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日本語仮訳>**

明延鉱山明神電車は、明延から山のトンネルを通り神子畑選鉱場まで鉱石を運ぶために1929年に建設された6キロメートルある鉄道だった。貨物列車に加え、鉱山労働者や二つの町を通勤する他の人たちのために客車も走らせていた。客車の乗車賃は丁度1円だったので列車は「一円電車」として知られるようになった。それは1945年から1985年まで営業された。客車のうちの3輛が明延鉱山の近くに今でも展示されていて、その中の1輛は整備されて訪問者たちが新しく建設された150メートルの線路で乗れるようになっている。4月から11月の期間、毎月第1日曜日や夏休み・ゴールデンウィークなどの特定日に乗車会が実施されている。

【タイトル】 明延鉱山明神電車

【想定媒体】パンフレット

**<韓国語>**

아케노베 광산 메이신 전차는 1929 년에 건설되었으며, 아케노베의 광산에서 미코바타의 선광장까지 광석을 운반하는 6km 의 철도였습니다. 1945 년 광산은 좁은 터널에 맞도록 설계된 객차를 도입해 직원들이 두 마을을 오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1949 년 이 서비스는 일반 대중에게도 확대되었고, 통근과 생활에 편리한 대중의 발이 되었습니다. 전차의 승차 운임은 딱 1 엔이었기 때문에 ‘1 엔 전차’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객차는 메이신 전차가 영업을 중단하고 아케노베 광산이 폐쇄되기 2 년 전인 1985 년까지 매일 운행되었습니다.

그 객차 중 3 량은 지금도 아케노베에 전시되어 있으며, ‘시로가네(은)’, ‘아카가네(구리)’, 그리고 ‘구로가네(철)’ 라고 불립니다. 2010 년 전국 규모의 모금운동과 자원봉사활동 덕분에 방문객을 수송하는 ‘구로가네’ 열차용 70m 의 선로가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선로는 150m 까지 연장되었으며 4 월에서 11 월 사이에 매월 첫 번째 일요일과 여름방학, 골든위크 등 특정일에 승차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日本語仮訳>**

明延鉱山明神電車は 1929 年に建設され, 明延の鉱山から神子畑の選鉱場まで鉱石を運ぶ 6 キロメートルの鉄道であった。1945 年, 鉱山は狭いトンネルに合うよう設計された客車を加え, 従業員がその二つの町を行き来できるようにした。1949 年, この営業は一般大衆にも広げられ, 通勤や生活に便利な足となった。電車の運賃は丁度 1 円だったので「一円電車」として知られるようになった。客車は明神電車が営業をやめ明延鉱山が閉鎖する 2 年前の 1985 年まで毎日走っていた。

その客車のうち 3 輛は今も明延に展示されている。それらは「シロガネ」(銀), 「アカガネ」(銅), そして「クロガネ」(鉄)と呼ばれている。2010 年, 全国規模の募金運動とボランティア活動のおかげで訪問者を運ぶ「クロガネ」列車用の 70 メートルの線路が造られた。それは, 現在は 150 メートルにまで延伸され, 4 月から 11 月まで毎月第 1 日曜日や夏休み・ゴールデンウィークなどの特定日に乗車会が実施されている。

007-031

日本遺産「銀の馬車道・鉱石の道」推進協議会

【タイトル】 明延鉱山関連遺構・明延鉱山町

【想定媒体】 WEB サイト

---

<韓国語>

아케노베 광산의 채굴은 8세기경에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다양한 금속이 발견되었지만 구리와 주석이 가장 많이 채굴되었습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아케노베는 나라의 도다이지에 있는 유명한 대불에 사용된 구리의 일부를 현상했다고 합니다.

에도시대(1603-1867년)와 메이지 시대(1868-1912년)의 정부 관리하에 아케노베 광산은 1896년 미쓰비시 합자회사에 매각되었습니다. 1987년에 폐광되어 2번째 층보다 아래쪽 갱도는 모두 수몰되었지만, 상층 갱도는 교육 목적으로 보존되었습니다. 이 갱도는 가이드 투어를 통해 방문할 수 있으며, 광산 조업 당시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광산 광차와 중후한 채굴 장비류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007-031

---

<日本語仮訳>

明延鉱山での操業は8世紀頃始まったと言われている。さまざまな金属が発見されたが、銅と錫が最も多かった。言い伝えによると明延は、奈良の東大寺にある有名な大仏に使われる銅の一部にも貢献したそうである。

江戸時代(1603-1867)と明治時代(1868-1912)の政府の管理の下で、明延鉱山は1896年に三菱合資会社に売却された。1987年に閉鎖され、2層目より下の坑道はすべて水没したが、上層の坑道は教育目的で保存された。ガイド付きツアーで行き易くなり、これらの地域は鉱山が操業していたときとほぼ同じ状態である。鉱山トロッコや重厚な採掘機器類も展示されている。

【タイトル】 明延鉱山関連遺構・明延鉱山町

【想定媒体】 パンフレット

**<韓国語>**

아케노베 광산은 8세기경부터 1987년에 폐광될 때까지 조업되었다고 합니다. 아케노베에서 가장 많이 채굴된 광석은 구리와 주석으로한때는 일본 주석의 90%를 공급했으며, 주석 산출량은 일본 내 1위였습니다. 지금도 광맥을 확인할 수 있지만, 1980년대까지 엔고 등의 영향으로 달러에 의한 주석의 국제가격 저하가 멈추지 않는 시대를 맞이해 광산은 폐쇄되었습니다.

광산이 폐쇄되었을 때 아케노베 광산은 상부에 18층, 하부에 18층으로 총 36층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총 550km에 걸친 갱도가 있었습니다. 하층부의 갱도는 의도적으로 수몰되었지만, 갱도 상층부의 일부는 가이드 투어를 위해 보존되고 있습니다.

광산은 1년 내내 섭씨 12도 정도를 유지하고 있어 간장과 술의 숙성에 적합한 환경입니다. 산요하이 주조는 지역의 쌀과 물을 사용해 ‘센사쿠라(仙櫻)’라고 불리는 특별한 일본술을 빚고 있는데, 이 술은 광산 내부에 있는 숙성고 ‘메이주구라(明壽蔵)’에서 숙성됩니다.

**<日本語仮訳>**

明延鉱山は8世紀頃から1987年の閉鎖まで操業されていたと言われている。明延で最も豊富に採れた石は銅と錫で、一時期には明延は日本の錫の9割を供給しており、錫の産出量は国内第1位であった。今日でも鉱脈を確認できるが、1980年代までに円高などの影響により、ドルによる錫の国際価格の低下が止まらない時代を迎えたことから、鉱山は閉鎖した。

鉱山が閉鎖したとき、明延鉱山は上層18層、下層18層の36層になっており総計550キロメートルになる坑道があった。下層部の坑道は意図的に水没させられたが、鉱山の上層部の一部はガイド付きツアーのために保存されている。

鉱山は1年を通じて摂氏12度くらいのもままで、醤油や酒の熟成に適した環境となっている。山陽盃酒造は地元の米と水を使って「仙櫻(せんさくら)」と呼ばれる特別な日本酒を醸造しており、その酒は鉱山内にある熟成庫「明壽蔵(めいじゅぐら)」で寝かされる。

007-033

日本遺産「銀の馬車道・鉱石の道」推進協議会

【タイトル】 中瀬鉱山関連遺構・中瀬鉱山町

【想定媒体】 WEB サイト

---

<韓国語>

1573년 나카제를 흐르는 야기강에서 금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광산이 문을 열었고, 금은 정부의 매우 중요한 수입원이었기 때문에 채굴장은 성읍(성곽을 중심으로 발달한 도시)과 마찬가지로 삼엄한 경비가 행해졌습니다. 아즈치모모야마 시대(1573-1603년)부터 에도시대(1603-1867년) 전기에는 긴키 지방 최대의 금광으로 번창했습니다. 이어서 안티모니가 발견되었고, 20세기 중반까지 나카제 광산은 일본 최대의 안티모니 광석의 생산지가 되었습니다. 광산은 1969년에 폐쇄되었지만, 안티모니의 정련은 계속되었습니다. 현재도 일본 국내의 안티모니 제품 중 70%가 나카제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옛 광산은 견학할 수 없지만, 나카제 금광 검문소에서는 마을 가이드 투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007-033

---

<日本語仮訳>

1573年, 中瀬を流れる八木川で金が発見された。その後まもなく鉱山が開かれ, 金は政権にとって非常に重要な収入源となったため, 採掘場は城下町(城郭を中心に発達した都市)と同じくらい厳重に警備された。安土・桃山時代(1573-1603)から江戸時代(1603-1867)前期には近畿地方最大級の金山として栄えた。つづいてアンチモンが発見され, 20世紀中頃までに中瀬鉱山は, 日本で最大のアンチモン鉱石の資源地となった。鉱山は1969年に閉鎖したが, 中国から輸入するアンチモンの精錬は続いた。現在でも, 国内のアンチモン製品の7割が中瀬で生産されている。旧鉱山はツアー用に開かれていないが, 中瀬金山関所は町のガイド付きツアーを提供している。

【タイトル】 中瀬鉱山関連遺構・中瀬鉱山町

【想定媒体】 パンフレット

**<韓国語>**

금이 처음으로 1573년에 나카제의 야기강에서 발견되었으며 머지않아 광산이 발견되었습니다. 나카제는 정권에 매우 중요한 수입원이 되어 3곳의 문에서 마을의 출입을 관리하는 등 성읍(성곽을 중심으로 발달한 도시)과 마찬가지로 삼엄한 경비가 행해졌습니다. 아즈치모모야마 시대(1573-1603년)부터 에도시대(1603-1867년) 전기에는 긴키 지방 최대의 금광으로 번창했습니다. 안티모니가 후에 발견되었고 나카제 광산은 이윽고 일본 최대의 안티모니 광석 공급지가 되었습니다.

1969년경에는 안티모니 등의 자원이 감소해 광산은 폐쇄되었고, 중국에서 원료를 주괴 형태로 수입하게 되었습니다. 나카제의 인구는 급격히 감소했으며, 에도시대(1603-1867년)에 세워진 8개의 사원은 5개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수입하는 안티모니의 정제는 계속되고 있으며, 일본 국내의 안티모니 제품 중 70%가 지금도 나카제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나카제 금광 검문소에는 나카제 광산에서 채굴된 아름다운 광산물 샘플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발견된 가장 훌륭한 광석 중 하나로 626g의 석영과 융합된 자연금이 있는데, 이것은 미국의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日本語仮訳>**

金が最初 1573年に中瀬の八木川で発見され、まもなく鉱山が発見された。中瀬は政権にとって非常に重要な収入源であったので城下町（城郭を中心に発達した都市）と同じくらい厳重に警備され、3カ所の門で出入りする通行の制御をしていた。安土・桃山時代（1573-1603）から江戸時代（1603-1867）前期には近畿地方最大級の金山として栄えた。アンチモンが後に発見され、中瀬鉱山はやがて日本で最大のアンチモン鉱石の資源地となった。

1969年頃にはアンチモンなどの資源が減少して鉱山は閉鎖した。インゴットで原料を中国から輸入することになった。中瀬の人口は急激に減少し、江戸時代（1603-1867）の8つの寺院は5つのみが現存する。しかしながら、中国から輸入するアンチモンの精製は続き、国内のアンチモン製品の7割が今も中瀬で生産されている。

中瀬鉱山で採られたいくつかの美しい金属のサンプルが中瀬金山関所に展示されている。見つけられた最も美しいものの一つは626グラムある石英と融合した自然金で、アメリカのスミソニアン博物館に展示されている。